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 공시성과 통시성

| 일시 |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09:30~20:30)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대캠퍼스 하나스퀘어



이 발표논문집은 2019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2019S1A8A01034241)



# CONTENTS

## 문학분과A 러시아문학연구의 통시적 공시적 역동성 1 사회: 이규환 (대구대)

- 10:00~10:40 ▶ 18세기 러시아 문학과 웃음: 풍자에 대한 소고 ..... 3  
발표자: 서광진 (경북대) / 토론: 안지영 (경희대)
- 10:40~11:20 ▶ 21세기 러시아 정교계 문학비평의 추세 ..... 11  
발표자: 이경완 (한림대) / 토론: 신봉주 (서울대)
- 11:20~12:00 ▶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에 나타난 사랑과 성의 문제 ..... 19  
발표자: 김민아 (서울대) / 토론: 이명현 (고려대)
- 12:00~13:00 점심식사 (교내 '봄이 온 소반')

## 문학분과B 러시아문학연구의 통시적 공시적 역동성 2 사회: 박혜경 (한림대)

- 13:00~13:40 ▶ 소츠-아트예술에 나타난 '허위 노스탤지어적' 서사 총동 ..... 29  
발표자: 송정수 (중앙대) / 토론: 이문영 (서울대)
- 13:40~14:20 ▶ 일리프와 페트로프의 작품에 나타난 웃음: <열두 개의 의자>를 중심으로 ..... 37  
발표자: 강수경 (부산대) / 토론: 김수환 (한국외대)
- 14:20~15:00 ▶ 일제 강점 시기 고려인들의 문필작업과 극단활동에 대한 고찰 ..... 53  
발표자: 박영은 (한양대) / 토론: 최진석 (이화여대)
- 15:00~15:30 Coffee break

## 문학분과C (학문 후속세대 특별세션) 러시아문학연구의 새로운 시선들 사회: 석영중 (고려대)

- 15:30~16:05 ▶ 도스토옙스키와 자살: <악령>의 스타브로킨을 중심으로 ..... 67  
발표자: 박지원 (고려대 석사과정) / 토론: 심성보 (건국대)
- 16:05~16:40 ▶ 베르토프의 '연결'의 미학: <카메라를 든 사나이>를 중심으로 ..... 73  
발표자: 김다솜 (한국외대 석사과정) / 토론: 이희원 (상명대)
- 16:40~17:15 ▶ 도스토옙스키와 사형제도: <백치>의 사형수 이야기 ..... 79  
발표자: 이선영 (고려대 박사과정) / 토론: 조혜경 (대구대)

- 17:15~17:50 ▶ 소비에트 아포크리파의 구원서사: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속  
 마르가리타와 성모 마리아 비교 ..... 85  
 발표자: 한연서 (연세대 박사과정) / 토론: 손재은 (고려대)

**문화-통번역분과A 통번역의 다양한 실제** 사회: 정연우 (한국외대)

- 10:00~10:30 ▶ 희곡번역의 자국어 양상과 공연대본에서의 수용 ..... 95  
 발표: 윤현숙 (한국외대) / 토론: 강동희 (한국외대)
- 10:30~11:00 ▶ 러시아어 난민통역의 현황 ..... 103  
 발표: 유정화 (한국외대) / 토론: 서유경 (한국외대)
- 11:00~12:00 ▶ 텍스트 유형별 러한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연구 ..... 111  
 발표: 전해진 (중앙대) / 토론: 김민수 (한국외대)
- 12:00~13:00 점심식사 (교내 '봄이 온 소반')

**문화-통번역분과B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는, 문화** 사회: 조규연 (중앙대)

- 13:00~13:40 ▶ “Discourse, figure”;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쥬와 건축> ..... 143  
 발표: 이지연 (한국외대) / 토론: 백승무 (서울대)
- 13:40~14:20 ▶ Род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в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фольклоре ..... 153  
 발표: Спиридонова О. С. (안양대) / 토론: Бриченкова Е. С. (경희대)
- 14:20~15:00 ▶ 체호프 드라마의 현대적 변용 : “AFTERCHEKOV” – 울리츠키아의 ‘러시안 잼’ 과 풍자  
 극장의 무대화 ..... 165  
 발표: 이승역 (경북대) / 토론: 윤서현 (서울대)

**어학분과A 러시아어 어휘 연구와 교육** 사회: 김형섭 (중앙대)

- 10:00~10:40 ▶ 러시아어 동사의 상-시제 형태에 대한 다상황적 분석  
 (외국어로서 러시아어 교육 방법론 측면에서) ..... 175  
 발표: 권용재 (연세대) / 토론: 손현익 (한국외대)
- 10:40~11:20 ▶ 투르게네프 산문시 속 관용어 연구 및 한국어 번역 비교 ..... 185  
 발표: 이새봄 (한국외대) / 토론: 김희연 (안양대)

- 11:20~12:00 ▶ 『노한회화』(1904)와 『노한회화를 위한 어휘와 표현』(1904) 연구 ..... 193  
 발표: 한지형(부산대) / 토론: 정영주(고려대)
- 12:00~13:00 점심식사 (교내 '봄이 온 소반')

**어학분과B 러시아문학어의 통시적, 공시적 역동성** 사회: 이용권(부산대)

- 13:00~13:40 ▶ 고대 러시아어 동사 이동에 대한 고찰 ..... 215  
 발표: 정하경(서울대) / 토론: 김형섭(중앙대)
- 13:40~14:20 ▶ 소비에트 표기체 제정 역사 1 ..... 229  
 발표: 정경택(경상대) / 토론: 김진규(고려대)
- 14:20~15:00 ▶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표준어인가, 문학어인가? ..... 243  
 발표: 길윤미(경북대) / 토론: 김용화(충북대)
- 15:00~15:30 Coffee break

**어학분과C (학문 후속세대 특별세션) 러시아어학연구의 새로운 시선들** 사회: 문성원(안양대)

- 15:30~16:10 ▶ 러시아어 연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실험음성학 연구 ..... 257  
 발표: 이선정(부산대 박사과정) / 토론: 김알레샤(한국외대 박사수료)
- 16:10~16:50 ▶ 형식 이론 및 수리문법을 활용한 러시아어 전치사 в와 на의 의미 구분 ..... 269  
 발표: 윤희준(고려대 석사) / 토론: 김보라(경상대)
- 16:50~17:30 ▶ 러시아 민담과 한국 민담에 나타나는 조력자의 양상 대조 분석 ..... 287  
 발표: 이희화(고려대 석사) / 토론: 전성희(고려대)

**사회과학분과A 중앙아시아에서의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사회: 손영훈(한국외대)

- 10:00~10:40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러시아학 현황과 전망 ..... 305  
 발표: 딜노자 갈라노바(안하대) / 토론: 성동기(안하대)
- 10:40~11:20 ▶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학 현황: 카자흐스탄 국립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311  
 발표: 김재민(한국외대) / 토론: 김상철(한국외대)

- 11:20~12:00 ▶ 소비에트 학자들의 투르크멘 민족지 연구동향 분석 ..... 327  
 발표: 황영삼(한국외대) / 토론: 김혜진(한국외대)
- 12:00~13:00 점심식사 (교내 '봄이 온 소반')

**사회과학분과B 러시아 주변 국가들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위치** 사회: 우준모(선문대)

- 13:00~13:40 ▶ 한-우크라이나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 333  
 발표: 박지원(KOTRA) / 토론: 김영진(한양대)
- 13:40~14:20 ▶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과 러시아 ..... 345  
 발표: 윤성학(고려대) / 토론: 강봉구(한양대)
- 14:20~15:00 ▶ 중국의 러시아학 연구: 역사와 현황, 문제점 ..... 349  
 발표: 조정원(연세대) / 토론: 최재덕(원광대)
- 15:00~15:30 Coffee break

**사회과학분과C (학문 후속세대 특별세션) 러시아학의 새로운 확장** 사회: 김성진(덕성여대)

- 15:30~16:10 ▶ 러시아 시베리아 내륙수운 개발의 필요성 ..... 353  
 발표: 남가영(한국외대 박사과정) / 토론: 김호섭(서울대)
- 16:10~16:50 ▶ 러시아 북극권 개발과 소수민족 정책: 이익공유협정을 중심으로 ..... 371  
 발표: 이양경(한국외대 석사과정) / 토론: 김인성(고려대)
- 16:50~17:30 ▶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조선산업에서의 러시아와 협력 필요성 연구 ..... 387  
 발표: 서현규(한국외대 석사과정) / 토론: 강명구(산업은행)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 공시성과 통시성

## 제1분과 문학분과

| 일시 |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09:30~20:30)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대캠퍼스 하나스퀘어

| 주최 |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

| 주관 | 한국러시아문학회

| 후원 | 한국연구재단, 한러대화,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공시성과 통시성

## 제1분과 문학분과

### 문학분과A : 러시아문학연구의 통시적 공시적 역동성 1

사회: 이규환 (대구대)

- ▶ 18세기 러시아 문학과 웃음: 풍자에 대한 소고 ..... 3
  - 발표: 서광진 (경북대)
  - 토론: 안지영 (경희대)
  
- ▶ 21세기 러시아 정교계 문학비평의 추세 ..... 11
  - 발표: 이경완 (한림대)
  - 토론: 신봉주 (서울대)
  
- ▶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에 나타난 사랑과 성의 문제 ..... 19
  - 발표: 김민아 (서울대)
  - 토론: 이명현 (고려대)





# 18세기 러시아 문학과 웃음 : 풍자에 대한 소고

서광진 (경북대)

## 1. 감정? 감성? 감상?

감성과 감정, 감상 등의 개념을 어떻게 구별해야할까? 계열적인 관계를 가지는 단어들을 살펴 보면, 영어는 feeling, emotion, affect, sentiment, sensation, sensibility 등이 있고, 이들 용법은 대체로 몸과 마음(body-mind), 혹은 이성과 감성(reason-sensibility)이라는 이분법적인 은유 개념에 기초한다. 가령, thought(사상), intelligence(지성), thinking(생각), perception(지각), rationality(합리) 등이 그 대응 개념에 해당한다. (박형신·정수남, 35) 러시아어 역시 감정에 대한 단어들로 외래어를 포함하여, чувство, эмоция, аффект, сентимент, страст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어의 경우와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러시아의 경우 대략의 역어는 있다. 학자와 학문단위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체로 feeling은 чувством, emotion과 affect는 각각 эмоция와 аффектом으로 번역되는 듯하다. 그리고 몇몇 고착된 용어들, 가령 감상주의(Сентиментализм)와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서 현 시점에서는 감정과 감상 등의 개념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이들은 계열관계의 단어이자, 현재로서는 (과문한 탓이겠지만) 정교하게 학문적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Reddy, 329-330) 또한 정교하게 개념화한다고 하여도 그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마저도 학문 분야별로, 개인별로 다르게 옮기는 것을 선호한다. 최근에 가장 정교한 이론적인/실천적인 작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affect의 경우에도 사회학에서는 ‘정서’로, 인문학에서는 ‘정동’ (가장 최근에는 ‘감응’)으로 옮기고 있다.

## 2. 웃음과 눈물

감정 연구에서 18세기 러시아문학을 떠올려 본다면 이 시기 문학의 가장 큰 두 줄기는 웃음과 눈물(Смех и слезы)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적 파토스로는, 웃음은 풍자에 해당하고 눈물은 ‘신과적’ 감상주의 작품들에 해당할 것이다. 지배적 장르로 구분해보면 전자는 풍자시, 풍자극, 우화에서 만개하였고, 후자는 산문(소설)에서 만개하였다. 문학사조상으로는 전자는 흔히 고전주의(와 계몽주의)에, 후자는 감상주의에 해당할 것이다. 역사상으로는 겹치는 시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칠게는 예카테리나 2세 이전이 고전주의, 그녀의 집권 후에는 감상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고전주의와 웃음, 감상주의와 눈물 사이에는 어떤 정합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다루어져 왔다. 즉 “계몽주의자들은 울지 않았고, 감상주의자들은 웃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일까? 고전주의자들에게도 비애의 감정이 있었고, 감상주의자들에게도 유쾌함이 있었다는 식의 반례를 제시하는 연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반례는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디셰프의 경우를 보자. 그의 계몽적인 프로젝트는 온갖 비애로 가득 차 있다. 장편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과 단편 『일주일의 일기』 주된 정조는 비애와 좌절감 그리고 분노이다. 계몽주의자 라디셰프를 생각하면서 웃음 짓는 그를 떠올릴 수 있는가? 또, 니콜라이 브루실로프(Н. П. Брусилов)를 위시한 19세기 초반의 감상주의자들의 작품을 연구한 A. Tosi는 ‘감성주의적 아이러니(sentimental irony)’라는 개념을 통해 ‘감상주의의 후기 발전 단계’에서 등장하는 유머(humorous) 계열의 감상적 작품을 분석하기도 한다. (Tosi) 그에 앞서 당장 카람진의 『여행자의 편지(Письма русского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 속에서의 유머와 위트, 아이러니 그리고 웃음을 떠올려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러시아 문학사는, 러시아인에게 웃음을 먼저 소개했고, 후에 눈물짓는 법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 3. 고대/중세 문학과 웃음

웃음은 근대 러시아 문학사 이전에 고대/중세 문학 연구에서도 주된 주제였다. 특히 17세기. 이른바 <민주풍자문> 혹은 <웃음문학>에서 그 웃음의 성격이 주목되었다. 그런데 그 성격이 18세기 이후의 것과 다르다. 우선 판첸코의 지적에 따르면, 중세문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웃음이지만(그래서 더욱 전복적인?), 근대 문학에서의 웃음은 외부 사물/인물에 대한 웃음이다. (Панченко, 140) 로마노프 왕조 시절 Скоморохи들이나 난쟁이들이 궁정과 귀족들의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은 이와 관련된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차이점이 있다. 18세기 이전의 웃음의 문제는 주로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웃음이었다(“문화-反문화”). 그래서 카람

진의 <러시아 국가의 역사>에서의 언급에 따르면, 황제가 민중들 사이에서의 오락은 금지시켰지만, 그 자신은 여러 오락(우스운 시, 스코모로히들의 연회 등)을 즐기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이다. (Костомаров에서 재인용) 표트르 1세에도 이반 알렉세예비치 발라키레프라(Иван Алексеевич Балакирев)가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反문화로서의 웃음의 성격과 그 역할은 17세기의 <민주풍자문학>/<웃음문학>에서 특히 강조된다. (변현태 참조)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 풍자는 비록 중문체이기는 하지만 공식문학의 영역으로 포섭된다. 즉 논의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로모노소프는 자신의 <3문체론>에서 풍자를 중문체의 장르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중문체의 장르가 ‘미래의 장르’가 될 것이라 희망적인 예견을 내놓았다. (Лебедева, 59) 물론 그의 송시에 비한다면 그 자신의 풍자 작품은 이후의 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의 예상(혹은 바람)대로 1760-80년대에 이르게 되면 러시아의 산문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발흥하였다. 그리고 그 직전 시기의 칸테미르의 풍자가 큰 역할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벨린스키의 언급을 인용하자면, 러시아의 세속문학(=근대문학)은 칸테미르의 풍자로부터 시작하였다.

Рус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начинают с Ломоносова, – и справедливо. Ломоносов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 основателем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Как гениальный человек, он дал ей форму и направление, которые она надолго удержала. Каковы были эта форма и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 вопрос другой; дело в том, что дать форму и направление целой литературе мог только человек необыкновенный, но, несмотря на общее согласие в том, что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начинается с Ломоносова, все начинают ее историю с Кантемира. Это тоже справедливо. (...) Кантемир начал собою историю светской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от почему все, справедливо считая Ломоносова отцом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то же время не совсем без основания Кантемиром начинают ее историю. (Белинский, 613-614. 강조는 인용자)

그리고 지금까지 18세기 러시아 문학연구에서 풍자는 웃음 문학의 계보에 거의 ‘기계적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단락을 보라.) 이것은 러시아 문학사에서 18세기의 풍자문학을 이해하는 ‘표준적인’ 방식이다.

Нравственный идеал, несоответствие которому отмечает морализирующая сатира – идея европейск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с его рационалистским подходом к общественным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опросам, вера в прогресс и воспитывающую силу примера, мировоззренческий оптимизм – оплощается и в сатирических утопиях. Сатира (как жанр и как тенденция) становится во многом определяющей для развития русской духовной культуры как XVIII, так и последующих веков. (강조는 인용자)

요컨대 풍자는 рационализм의 파생물이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Нрав/Нравственность이다. 이것이 합리성이 풍자에 필요한 이유로 되어있다. 풍자의 날카로운 칼날은 합리성에 의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도덕으로 예리하게 만들어져있다. 풍자(웃음)는 칼날을 휘두르기 위한 칼자루이지, 칼날 그 자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웃음도 눈물도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4.

웃음(과 눈물)로 무엇을 하려했는가. 풍속과 도덕(нрав/нравственность)이라는 주인공표 쟁취를 위한 18세기의 주도권 싸움은 국가와 사회 양측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이 ‘전쟁’은 당시 가장 영향력있는 매체였던 잡지에서 두드러졌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예카테리나 2세였다.

계몽군주를 표방한 그녀는 여러 계몽적 정책을 내어 놓았다. 그 활동의 내역에는 러시아 민간 잡지의 창간도 있다. 예카테리나의 의도는 명확했다. 유럽의 다른 선진국처럼 러시아도 민간 주도의 잡지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여론과 지식이 활발히 유통되어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그리고 계몽군주인 자신 역시 이러한 계몽운동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녀는 차명으로 최초의 민간잡지(『Всякая Всячина』)를 창간했다. 이 지점에서 그녀의 혜안은 정확했다. 그녀가 잡지를 창간하자마자 러시아의 수많은 지식인들 역시 자신들의 잡지를 창간했으며, 잡지들의 인기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오만가지』는 1769년 1월부터 1770년 5월까지 발간된 주간지로, ‘전설적인’ 영국의 잡지를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민간 영역의 불모지였던 당시 러시아에서 이 잡지가 성공하기 위해 모델로 삼은 것이 1711에서 1712년까지 영국의 조지프 애디슨(J. Addison)에 의해 편집되었던 <스펙테이터(Spectator)>였다. 『오만가지』는 <스펙테이터>로부터 형식은 물론, 풍자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방식까지 폭 넓게 차용하였고 심지어는 요약하거나 보충하는 방식 등으로 <스펙테이터>의 글들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당대 러시아인들의 삶과 세태를 교묘히 끼워 넣었음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창간사에서 『오만가지』의 발간 목표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 1)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이 자신에 의해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아야하며, 우리의 잡지는 이를 교정하여야 한다.
- 2) 교훈과 재미를 주어야 한다.
- 3) 러시아인들에 대해 러시아어로 정확히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Всякая всячина, No.1, “Ко читателю”)

풍속의 교정, 웃음, 세태 풍자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기치 아래 이 잡지는 17개월간 70호가 발행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민간 잡지를 통한 여론의 환기와 형성은 여론 장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코지츠키(Г. В. Козицкий)를 편집인으로 내세웠던 『오만가지』의 실제 편집인이 예카테리나라는 것을 모르는 지식인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였다. 『오만가지』에 대항하는 지식인들의 잡지가 줄줄이 창간되었다. 『일벌』, 『지옥의 우체국』, 『이것과 저것』, 『이것도 저것도』(뒤의 두 잡지는 『오만가지』를 제목에서부터 풍자하였다) 등과 같은 잡지가 창간되었다. 이들 잡지는 『오만가지』의 생물학적 자식들이기는 했지만, 화학적으로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적대자였다.

‘정부 측’ 민간잡지와 지식인들의 민간잡지가 가장 날카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던 주제(방법론적 논쟁) 중의 하나는 풍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었다. 풍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사회와 국가, 풍속에 대한 비판 수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카테리나의 입장에서는 풍자를 풍속의 교정의 수단으로 여겼으며,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풍자를 사회와 정치 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수단으로 여겼기에 이들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카테리나의 풍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해두고 있었다. 특정인을 평가하지 말 것이며, 오직 악덕 그 자체만을 풍자할 것. 풍자에 대한 이러한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는 가상의 예를 통해서만 풍자가 제 기능을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녀는 개개인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오만가지』의 풍자는 사회의 악덕을 비판하되 우습거나(결코 공격적이거나 심각하지 않은), 순간적인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해 집중하였다. 그 결과 이 잡지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란 대체로 하급관리의 부정부패나 평범한 민간인의 세태 등이었다. 그녀에게 풍자는 쓴 웃음이 아니라 미소짓게하는 기법에 불과했다.

반면 지식인들은 이러한 식의 풍자는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잡지에서 풍자 대상의 실명까지 적시하면서 조롱하였다. 힘없고 평범한 자들에 대한 풍자와 조롱은 더 이상 풍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관들과 힘있는 자들에 대한 풍자야말로 진정한 풍자이며, 그렇지 않다면 풍속의 교정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카테리나가 ‘겸손한’ 풍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상 고관대작들이었음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자가 결국 사회 개혁을 향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내었으며, 이를 예카테리나가 좋아할리는 없었다. 예를 들어 지식인들의 한 잡지에서는 『오만가지』의 한 투고자의 서툰 러시아어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러시아어가 우리의 언어 습관을 망치고 있다고 조롱하는데, 이는 명백히 예카테리나 여제를 겨냥하고 있는 말이었다. 실제로 『오만가지』의 그 투고자는 예카테리나 여제 자신으로 밝혀진다. 당시 『오만가지』는 투고자들의 편지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이는 다른 잡지들도 마찬가지였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가령 『오만가지』의 투고자들 중에는 “진리 사랑(правдолюбов)”, “판지걸기(Примечаев)”와 같은 성이 섞여 있었다. 예카테리나 역시 가명과 익명의 가면을 쓰고 평범한 투고자로 가장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

하였다. 자신이 했던 주장을 다음 호에서는 다른 가명으로 바꾸어 지지하는 일도 흔하였다.

어찌되었든 18세기 후반의 러시아에서 민간 잡지가 창간되고 이를 통해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으며, 이후 잡지 부흥기의 초석을 놓았다는 사실은 분명 계몽군주를 자처한 예카테리나의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자 『오만가지』는 석연치 않게 폐간을 선언하였고, ‘괜찮은 적’을 잃어버린 지식인의 잡지들도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로 뒤따라 몇 개가 폐간되었다.

Н. И. 노비코프는 『오만가지』의 출간 즉시 『Трутень』이라는 잡지를 창간한다(1769년 5월). 그리고 첫 권의 서문에서 느닷없이 자신의 계몽론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용인 즉 다음과 같다. 그 스스로도 계몽론은 인간이 가진 결점 중의 하나이며, 계몽론은 사회에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러나 도대체가 자신은 계몽러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군인이 되려고 해도 군대의 일은 무섭고, 관청의 일은 너무 번잡하고 반복적이며, 궁정의 일은 다른 일보다는 쉽지만 도저히 그 위선을 참을 수 없으니 말이다. 차라리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지만 책이라도 출판을 하면 사회에 도움도 되고 적지 않은 즐거움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마저도 피곤해서 더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발간사를 맺는다. (Трутень, 3-8)

노비코프는 관등표가 제시하고 있는 공직의 길이 유일한 일이라는 관념을 거부한다. 그 '일'이란 실상 그들의 일일 뿐이며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도 그들의 일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비코프에게는 봉직만이 유일한 일이 아니었다. 사회에 유용한 것이라면, 그리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계몽론으로 불린다 하더라도 일이었다. 그러나 예카테리나가 이에 동의할 리는 없었다. 그녀에게 '일'이란 공직을 의미했다. 공직에 나가지 않았던 몇몇 지식인들을 일컬어 "공직에서 일하지 않는대구요? 그렇다면 무익한 인물이군요!"라고 예카테리나는 말했던 것이다. 예카테리나에게 사회에 유용한 것이란 결국 국가에 유용한 것이어야 했던 것이다. (짐=국가=사회)

노비코프의 풍자적 잡지의 제목이 ‘일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은 그들이 하지만, 그 결실을 먹는 자는 당신네들이지(Они работают, а вы их труд ядите)"라는 잡지의 제사(수마로코프의 희곡에서 가져온)는 ‘일은 우리들이 하지만, 그 결실은 먹는 자는 그네들이지’로 풍자적으로 읽힌다. 표트르 1세에 의해 정초된 러시아의 근대적 인간은 일벌의 이미지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18세기 말에는 여왕벌의 이미지만이 더욱 두드러질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5.

『오만가지』는 가벼운 문체로 경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벌』도 마찬가지이다. 재미있는 것은 두 잡지 공히 모두 독자들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벌』의 경우 게으름을 내세우면서 독자들과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감정적 유대관계를 통한 동질감의 형성, 나아가 감정교육은 궁극적으로 도덕론과 윤리학에 관련된다. 이는 특히 18세기 유럽에서 두드러졌던 경향으로(이글턴, 1장 참조), 러시아 18세기에도 동일하였다. 18세기 내내 매너와 예법에 대한 교육, 사회철학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상기해보라. 특히 감상주의의 유행과 감정에 대한 숭배는 러시아의 독자들에게 감정적 공동체(эмоциональное сообщество)를 만들어 내었다. 이는 위의 예에서 보듯이 웃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만가지>와 <일벌>의 편집자들이 독자들에 대한 감정적 호소를 보라) 한번 더 강조컨대, 풍자의 방법론은 이성과 더불어 감정에 대한 호소였다. 풍속의 교정과 도덕감의 형성은 이성(разум)의 입법 과정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풍속의 교정과 도덕감의 형성은 ‘전복적인 웃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이때의 웃음은 사회의 유익(полза)에 봉사하는 것이다. 계몽주의의 방법론적 표어인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를 이루는 핵심은 감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 참고문헌

- 박형신·정수남. (2015)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공포 감정의 거시사회학), 한길사.
- 변현태. (2000) 17세기 러시아 ‘웃음 문학(смеховая литература)’의 패러디적 ‘뒤집기’에 관하여, 러시아연구, Vol. 10 No.1, pp. 65-90.
- 이글턴, 테리. (2017) 『낮선 사람들과의 불화: 윤리학 연구』, 길.
- Tosi, A. (2000) Sentimental Irony in Early Nineteenth-Century Russian Literature: The case of Nikolai Brusilov’s Bedniy Leandr, SEEJ Vol. 44 (2), pp. 266-286.
- Белинский, В.Г. (1955) Полн. Собр. Соч. М., т. 8.
- Лебедева, О.М. (2003)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XVIII Века, М.: Выш. шк.
- Костомаров, Н.И. (1862) Очерк домашней жизни и нравов велико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в XVI и XVII столетиях.([http://az.lib.ru/k/kostomarow\\_n\\_i/text\\_1862\\_ocherk\\_domashney\\_jizni.shtml](http://az.lib.ru/k/kostomarow_n_i/text_1862_ocherk_domashney_jizni.shtml)(검색일: 2019. 8. 20)
- Панченко, А.М. (1996)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Т. III. XVII – Начало XVIII Века, М.: Школа языка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 Трутьев, еженедельное издание, на 1969 год, месяц май.
- Reddy, William M. (2009) Emotional Turn? Feelings in Russian History and Culture: Comment, Slavic Review, Vol. 68, No. 2, pp. 329-334.



# 21세기 러시아 정교계 문학비평의 추세

이경완 (한림대)

## 1. 서론: 20세기 말-21세기 서구와 러시아에서의 신학적, 종교적 회귀 현상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서구 철학과 신학계에서는 20세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나름의 대안으로서 고대 종교, 신화, 철학의 개념이나 사회문화적 기능들을 반추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철학, 종교철학, 신학 조류가 새로이 형성되었다.<sup>1)</sup> 대표적으로 20세기 말 프랑스 철학계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독일의 현상학, 존재론, 해석학 담론들과 전근대적인 종교, 신화, 철학의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요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신학적 회귀(Theological turn)” 현상이 나타났다. 이 현상은 근본적으로 서구의 현대 철학은 물론 다른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과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통합하는 학제간 연구를 지향한다.

그런데 이 현상의 주류는 데리다(Jacque Derrida), 지젝(Slavoj Žižek) 등 무신론적인 철학자들이 주도하는 ‘포스트모던’ 신학적 회귀로서 오늘날까지 서구 인문학계에서는 가장 대중성이 크다. 반면에 그 신학적 회귀 현상의 주변부에는 리코르(Paul Ricœur)처럼 기독교 문화의 맥락에서 “현상학·해석학·언어철학 등을 섭렵하는” 인간본위적인 고등신학적 회귀 현상과 지라르, 레비

1) 신학, 철학, 종교철학 등의 개념을 선명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필자는 신본위적인 특정 종교를 개인 삶에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신앙으로 규정하고, 특히 자신의 기독교나 유대교 신앙관을 토대로 기존의 신학과 철학 담론들을 도입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신학으로 규정한다. 그에 반하여 철학은 특정한 인간본위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신, 인간, 선, 악, 자연, 언어, 사회, 문화 등의 본질과 기능을 개별적, 관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개인의 신본위적인 신앙과 인간본위적인 서구 철학을 동등한 차원에서 접목하는 작업은 정통 신학에서는 벗어나 있고 보다 종교철학에 근접한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 인문학계에서 통용되는 ‘신학적 회귀’의 개념은 정통 신학의 차원이 아니라 철학의 차원에서 훨씬 넓은 의미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서구와 러시아 및 다른 비서구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적 회귀’의 개념 역시 개인의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필수로 하는 엄격한 의미보다는 문화적이고 무의식적인 종교적 정체성의 형성도 포괄하는 광의의 차원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날 서구와 러시아 인문학계 및 일반 사회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용례를 수용하여 광의의 차원에서 신학적 회귀와 종교적 회귀로 호칭하고자 한다. 반면 오늘날 각 국가의 문예학에서 형성되는 종교 문예학에 대한 필자의 의견 개진에 있어서는 보다 엄밀한 협의의 차원에서 신학, 종교, 종교철학의 개념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나스처럼 나름의 기독교 혹은 유대교 신앙의 관점에서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담론들을 재구성하는 보다 전근대적인, 즉 신분위적인 고등신학적 회귀 현상 등이 있다.<sup>2)</sup> 그런데 사실 이 주변부 현상들이야말로 ‘신학’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기독교성을 본질적으로 담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근대적인 신분위적 신앙관을 일부나마 수용하는 지라르와 레비나스의 계열만이 전통적인 신학의 영역에 부분적으로나마 속할 수 있다.<sup>3)</sup> 리코르 계열의 인간분위적인 고등신학적 회귀 현상은 기독교를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근대 철학의 틀 내에서 전통적인 신학을 포괄하려는 성향을 지닌다.

그러나 오늘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유럽을 제외한 미국, 소비에트 해체 이후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된 구소련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일반 대중 속으로 기독교가 파급되는 “종교적 회귀(Religious turn)”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분위적인 고등신학적 회귀 현상은 서구권뿐 아니라 비서구권의 종교계와 신학계에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얻고, 실천적인 신앙 중심의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는 데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래서 비록 서구 철학과 신학으로 무장하지는 않았지만 신분위적인 신앙관에 따라서 서구 근대 철학과 그에 입각한 대중문화를 비판하고, 기독교적인 대안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보다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종교적 회귀 현상이 인문학계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최근 비서구권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회귀 현상도 비서구권 대중을 위한 서구권 교회의 선교 활동이 중심이 되어서 촉발된 것이고, 이제 비서구권의 기독교인들이 자체적으로 선교 활동 및 기독교 문화 운동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자생성을 확보해가고 있다.<sup>4)</sup>

그중 포스트-소비에트 체제에 있는 러시아는 어떠한가? 러시아는 냉전시대 공산주의 진영의 종주국이자 소비에트 혁명 이전에는 천 년의 러시아 정교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강국으로서 다른 구 소련 국가들과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러시아에서 나타나는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종교적 회귀 현상과 인문학계의 신학적 회귀 현상은 종교적, 문화적 차원만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큰 중차대한 사건이다.

2) 일레르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20세기 초에 후설(Edmund Husserl)의 현상학과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존재론을 유대교의 이념들로 재구성하여 서구 철학의 자기중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타자중심의 유신론적인 철학(특히 현상학)을 형성하였다. 특히 레비나스는 리투아니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중심의 신학과 서구 현상학을 접목시키는 이론 정립 과정에서 러시아 근대 문학작품을 실질적인 연구자료이자 이론의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그가 직접 자신의 담론의 문화적 증거로 삼은 대표적인 러시아 작가는 도스토옙스키(Федор Достоевский)이고, 이후 그의 이론을 적용하여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문학비평에서 가장 많이 고찰되는 작가 역시 도스토옙스키이다. Alain Toumayan, “I More than the Others”: Dostoevsky and Levinas,” *Yale French Studies* No. 104, Encounters with Levinas (2004), pp. 55-66 (12 pages)

3)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지라르의 가톨릭 신앙에 토대를 둔 정통 신학적인 사회문화 비평과 레비나스의 20세기 독일의 현상학 및 해석학에 프랑스 철학과 유대교의 윤리관을 접목시키는 고등신학적인 사회문화 비평을 ‘신분위적인’ 고등비평의 범주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오늘날 지라르보다는 레비나스의 담론이 훨씬 큰 철학적, 사회문화적 반향을 일으키는 것에서도 그런 내적인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에게는 지라르의 담론이 보다 개인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토대를 둔다는 점에서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적 회귀 현상의 예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4) 한국 교회의 비서구권 선교 활동은 예외적이지만 한국 교회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기독교의 유입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이 역시 서구 기독교의 이차적인 보급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1990년에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러시아에는, 영미식 자본주의에 뿌리를 둔 세계화 체제와 함께 20-21세기 서구의 무신론적이고 탈형이상학적인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담론들과 이러한 담론들에 뿌리를 둔 대중문화가 인문학계와 일반 사회에 쇄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러시아 사회의 혼란과 대외적인 위상 하락을 배경으로 반(反)서구적인 민족주의가 대중화되면서 러시아 인문학계에도 서구 중심의 인문학 담론들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었다.

그런 러시아 사회 전반적인 집단 무의식을 배경으로 러시아 인문학계, 특히 러시아 근대문학에 대한 문예학 연구계에서 신학적 회귀와 종교적 회귀 현상은 어떤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는, 러시아 근대문학이 러시아 인문학계와 일반 사회에서 차지해 온 중요한 비중을 고려해볼 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의 문예학자들이 연구한 논문들과 관련 자료들을 주요 참고문헌으로 삼아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토대로 러시아 근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실질적인 비평 중 고골의 문학작품 속의 종말론에 대한 최근의 러시아 정교 비평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러시아에서의 신학적 회귀, 종교적 회귀 현상의 추이

1990년대에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 체제에서 형성된 인문학 전통과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러시아 정교 문화를 접목한 소비에트 인문학 전통을, 새로운 자본주의식 사회문화 조류에 순응하는 방식으로나 혹은 그것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인문학 연구가 소수의 인문학자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그리고 러시아 문학사, 문학이론, 문학비평을 포괄하는 러시아 문예학 분야에서의 이러한 자생적인 연구는 러시아 교육 및 학술기관에서도 종교 문예학(религиозное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이라는 하부 연구 분과로 자리를 잡았다.<sup>5)</sup> 여기에서는 그러한 러시아 정교 신앙 중심적인 종교 문예학과 “전통적인 실증주의적”(традиционно-позитивистского),<sup>6)</sup> 즉 보다 근대적인 문예학이라는 두 지류를 비교하면서<sup>7)</sup> 그 내에서의 다양한 개별적인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종교 문예학이 러시아 인문학계와 문화예술계, 더 나아가 사

5) 러시아의 종교 문예학자 중 한 명인 타라스프(А.Б. Тарасов)는 2006년 개설된 인문학 정보 포털 e-저널인 『지식, 이해, 능력』에 게재한 연구논문 「인간의 영적인 삶: 학술적인 의미 파악의 현대적 경험(종교 문예학)」에서 1990-2000년대 러시아 인문학의 현황과 발전 전망을 분석하면서 종교 문예학을 “종교(영적인-분석) 문예학”(религиозное (духовно-аналитическое)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으로 규정하고 그 지배적인 접근법을 “신학적(신학-교리적) 접근”(теологический (богословско-догматический) подход), “신앙적(정교) 접근”(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равославный) подход)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А.Б. Тарасов, “Духовная жизнь человека: современный опыт научного осмысления (религиозное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УДК 009. [http://www.zpu-journal.ru/e-zpu/1/Tarasov\\_AB/](http://www.zpu-journal.ru/e-zpu/1/Tarasov_AB/)

6) О.В. Зырянов, проблемно-методологическом поле религиозной филологии,” <http://russian-literature.com/de/node/51>

7) 즈이라노프에 따르면, 러시아 인문학계의 종교 문헌학(религиозная филология)에는 이미 러시아 근대문학의 종교성에 대한 문예학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그 전통은 오늘날 종교 문예학과 철학적인 문예학으로 대립되어 있으며, 종교 문예학 내에서도 연구대상, 접근법, 철학적인 문예학과의 상호관계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 논쟁성, 내적인 갈등의 양태가 나타난다. О.В. Зырянов, там же.

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종교 문예학의 현황

러시아 정교에 토대를 두는 종교 문예학 분과는 오늘날 서구는 물론 러시아에서도 사회문화에 대한 무신론적인 인문학 접근법이 지배적인 현상을 극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1990년대 초에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연구진영은 21세기에 접어들어서, 러시아 대중의 반서구적인 집단적 무의식을 토대로 정치적인 세력을 얻은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정교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질적 향상과 양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21세기에 러시아 정부는 서구의 인문학 담론에 대항하는 러시아 정교나 유라시아주의 중심의 대안 담론을 형성하고 그것에 토대를 둔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조하고 전세계적으로 보급하는 민족주의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종교 문예학 연구기관과 개인 연구자들을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학텍스트의 종교적 의미를 밝히는 데 정향된 학술 프로젝트들이 러시아 인문학 학술기금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상과 다른 의미있는 상들을 받고 있다.<sup>8)</sup> 그 결과 오늘날 러시아 교육기관 및 러시아 정교 관련 기관에서 러시아 정교 중심의 인문학 담론 및 문화예술 관련 학술세미나, 대중강좌, 논문 발표, 논문집 및 단행본 발간이 활성화되고 있다.<sup>9)</sup> 더불어 정교 수도사이면서 문예학자인 새로운 정교 인문학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러시아 정교 지향적인 인문학 및 문화예술 관련 포털 사이트가 개설되고,<sup>10)</sup> 그와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들이 유튜브 등

8) 단적으로 1990년대부터 러시아 정교 신앙에 입각한 문학 분석의 입지를 다져온 에사울(И.А. Есаулов)은 아들과 함께 2011-2012년 러시아인문학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 문학: 원전 연구”(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оригина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라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종교 문예학 연구성과를 널리 보급하고 있다.(<http://russian-literature.com/de/node/51>)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학술연구 문화가 러시아 사회에 반영된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다. 타라소프는 21세기 초에 드러나는 인문학 지식의 새로운 발전 경향으로서 문헌학(문예학과 언어학), 사회학과 인류학(지역연구), 철학(윤리, 정치철학) 등 인접한 학문분과들 간의 학제간 연구 강화,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인문학의 출처 기반과 형성 방식의 원칙적인 변화, 그리고 학술연구의 제도적 장치의 변화를 제시한다. 이중 두 번째 경향과 관련하여, 엄청난 규모의 정보탐색 체계들에 의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와 속도로 참고자료들이 충분히 제공되는 대신, 쉽게 얻어지는 새로운 자료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셋째 경향과 관련해서, 오늘날 학술연구 지원프로젝트와 지원기금이 제공하는 상금을 통한 재정지원에 의해 뒷받침되는 학술연구가 지배적이 되고 개인 연구나 비학술단체의 학술연구 의뢰는 밀려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학술연구 구조, 방법론, 주제, 활용 방식의 고착화, 외부 지원을 받는 연구자들의 기득권화, 학술적인 진리의 집단적인 탐색 강화, 그리고 신생학문과 접근법의 창출 동력의 약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9) 타라소프에 따르면 1990-2006년 사이 러시아 문예학자들은 러시아 작가들의 종교-정신적인 측면들을 연구하고, 고전적인 예술 작품의 기독교 문학작품들(고대와 근대)과의 다양한 연관성을 규명하는 종교 문예학을 발전시키고, 그 결실을 논문과 단행본, 논문집 등으로 발간하였다. 러시아문학연구소가 1994-2012년에 발간한 『기독교와 러시아 문학』 시리즈와 『기독교와 18-20세기 러시아의 새로운 문학』(2002), 에사울이 1994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18-20세기 러시아 문학 속의 복음서 텍스트』 시리즈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2005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인문대학에서 학술대회 “종교 문예학: 얻은 것과 잃은 것”(Религиозное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обретения и утраты)에서 이 연구방향의 결과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즈이라노프에 따르면, 2002년까지 근대 세속문학과 그것의 신학-교리적, 철학적, 윤리적, 역사-문화적인 측면 등 모든 면에 영향을 준 기독교 전통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하는 잡지와 저서가 약 15,000권 발간되었다. О.В. Зырянов, там же.

10) 오프티나 수도원 등 정교 기관들이 러시아 정교 문예학을 유포하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문가 세미나와 대중강좌를 활발히 진행하는 현상도 발견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오프티나 수도원은 보로파예프 등 러시아 정교 중심의 문예

전세계적인 인터넷망을 통해서 널리 보급되고, 러시아 극장가와 영화계에서도 러시아 정교 지향적인 작품들이 제작되어서 대규모로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정교계의 노력을 통해서 형성된 종교 문예학 분과는 여전히 서구 근대 철학과 문화를 수용한 러시아 인문학 전통을 계승하는 근대적인 문예학 진영에 비하여 소수이며 대중적인 파급력도 약하다. 그리고 더 큰 난관은 그 분과 내에 명료하고 일관된 흐름과 방향성보다는 내적인 지류들의 다양성과 양가성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내적인 구심점의 부재, 러시아 대중의 사회문화적 지지층의 미약함, 러시아 정부의 정교 중심의 ‘도덕적인’ 정책의 부재, 러시아 정부의 대외 정책의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에 순응하는 듯한 배타적인 러시아 민족주의 경향, 그래서 중국적으로 근대적인 문예학 진영을 포섭하고 매료시킬 만한 이상적인 문예학 연구 모델의 부재 등이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 중심의 종교 문예학은 내적으로나 문예학을 포함한 인문학계와 문화예술계 전반에서나,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정교와의 밀접한 연관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상적인 모델을 창출하는 데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서구와 러시아 간에도 상호교류와 공통된 보편적 요소들로 인해 내적인 유사성이 존재하듯이, 종교 문예학과 근대적인 문예학 간에도 상호교류와 공통된 보편적인 요소들로 인해 내적인 유사성은 존재한다. 특히 러시아 정부와 교회 주도의 소수 정예부대로 형성되어 온 종교 문예학 연구는 그것에 비판적인 근대적인 문예학 연구에도 연구대상, 접근법, 분석 방식 등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 문예학의 경계와 흐름, 전망을 알면 러시아 인문학계와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차원의 기대치를 파악할 수 있다.

## (2) 종교 문예학의 긍정성과 부정성, 근대적인 문예학과의 논쟁

타라소프는 러시아 종교 문예학의 긍정적인 측면성과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규정한다. 먼저 그가 제시하는 종교 문예학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첫째, 종교 문예학은 “혼돈으로서의 세계,” “권위의 위기”, “의사소통의 붕괴” 등의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 문예학의 경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인간의 영적인 삶에 대한 학술적인 의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고 영적인 삶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없고 21세기 인류 발전의 궤적을 그릴 수 없다. 둘째, 종교 문예학은 해석학의 영역에서 더욱 발전하고 있고, 이 접근법을 통해 문학작품을 인간의 영적인 삶의 사실들로 연구함으로써 오늘날 학자들은 이론과 해석 실행에서의 단면성을 피할 수 있다. 셋째, 타라소프에 따르면 문예학은 예술작품에 반영된 비예술적인 현실을 온전하고 충실하게 드러내어야

학자 및 수도사-문예학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러시아 기독교의 정교성, 러시아 정교의 기본 원칙 등에 대한 대중강좌를 개설하고 그 동영상은 수도원 공식포털사이트와 유튜브에 탑재하고 있다. *оптиной пустыни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https://www.optina.ru/>(검색일: 2019.09.24.)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종교문예학은 그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종교 문예학은 근대적인 시각의 문예학자인 할리제프(B.E. Хализев)의 표현처럼 “세상의 감사어린 수용과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благодарное приятие мира и сердечное сокрушение)과 같은 저자의 감성의 유형에 본질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 타라소프가 단적으로 표방하는 종교 문예학 진영에 대하여 근대 학문의 실증주의적인 접근법을 수용한 근대적인 문예학 진영은 접목과 결합의 태도에서 비판과 반대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먼저 접목과 결합의 태도로 반응하는 경우의 단적인 예로서 할리제프(B.E. Хализев)와 같은 근대 문예학 연구자들도 공통적으로 러시아 작가들의 창작의 기독교적 근원을 규명하면서 러시아 문학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연구 결과를 쿨레쇼프(B.И. Кулешов), 보로파예프(B.A. Воропаев), 에사울 등 러시아 정교 비평의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종교 문예학 연구자들과 공유하면서 교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러시아 국내외 50여명의 연구자들이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연구논문을 수록하여 1997년에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된 『19세기 러시아 문학과 기독교』<sup>11)</sup> 논문집이 그 한 증거이다.

반면 종교 문예학의 연구 경향에 대한 근대적인 문예학의 진영의 비판과 반대의 태도는 지금까지도 적지 않으며, 오히려 종교 문예학의 위험성 혹은 이미 표출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한 비판이 내부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종교 문예학의 현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첫째, 종교 문예학의 학술적인 성숙도와 그 접근법과 연구 결과의 객관성, 현실타당성이 아직 근대적인 문예학자나 다른 분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검증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즈이라노프는 기독교 문학의 정의를 보다 명료하게 정립하고, 작가의 예술적 인식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것이 종교적인 인식의 특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교회 텍스트가 반영되어야 기독교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독교 정신을 의식적으로 전하는 텍스트는 없을까? 기독교 정신의 문학적 재현이 직접적이고 의식적인가.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인가, 그리고 그 차이는 얼마나 되는가?” 또한 “작품에 기독교적인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작가의 종교성을 증거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대답을 탐색해나가야 한다.

둘째, 종교 문예학은 근대적인 문예학에 대한 자신의 접근법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인식틀을 불변하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견지하는 러시아 정교의 가치체계와 종교 문예학의 방법론과 접근법 등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자신과는 다른 접근법과 평가들, 분석들에 대한 겸손한 소통 및 선별적인 수용의 태도가 좀더 요구된다.

11) B.И. Кулешов(общ. ред.),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XIX века и христианство*,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97.

셋째, 타라소프에 따르면, 1990년대에 등장한 종교 문예학은 ‘비난하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으나 러시아 문학사를 과격하게 “초수정”(гиперкоррекци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겨서, 기독교적 형상, 모티브, 의미가 없는 작품에서도 그것들을 찾아내려는 무리수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

네째, 종교 문예학 연구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근대적인 문예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서 후자에서도 접근이 차단되는 연구대상과 접근법이 생기는 경향이 발생한다. 일례로 오늘날 러시아 인문학계에는 러시아 근대 문학은 ‘러시아 정신’을 내포하고 있고, 그런 작품과 그것을 창작한 러시아 작가들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무의식이 팽배해 있다. 그 결과 러시아 민족주의, 제국주의, 오리엔탈리즘, 후기 구조주의, 해체론 등 러시아 작가들의 아우라를 약화시키는 서구 비평은 ‘비난하는’ 비평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러시아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접근법을 의식적으로 구축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종교 문예학 내에서 서구의 신학적 회귀와 종교적 회귀 현상을 접목하여 러시아 정교와 이 서구의 문예학 및 철학 담론들을 접목시키는 기독교 문화비평은 의외로 적다. 그런 노력은 주로 서구권의 연구자나 서구권에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슬라브계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 역시 러시아 내 종교 문예학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순수하지 못한 연구 풍토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이와 관련하여 20세기 말-21세기 러시아 인문학계의 신학적, 종교적 회귀 현상이 순수한 동기에 의한 자생적인 활동만은 아닌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러시아 정부 지원에 의해서 러시아 정교를 수용하고 그 관점에서 인문학 연구와 문화예술 창작을 하는 러시아 정교 회귀 현상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러시아 정부 주도의 러시아 정교 중심의 인문학 담론과 문화예술 창조 활동이 서구 문화와 러시아 문화의 이분법적인 대립과 후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양태를 띠는 경향이 강해지고, 서구의 신학적, 종교적 회귀 현상이 충분히 존중받고 고찰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현재 러시아 정부의 지원 아래 추진되는 종교 문예학 연구는 순수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러시아 정교 비평의 발전 방향

현재 러시아 인문학계와 문화예술계에서 나타나는 러시아 정교 중심의 신학적, 종교적 회귀 현상은 사회적인 조류를 반영하는 자생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위로부터의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정교에 토대를 둔 종교 문예학 진영은 러시아인들의 정교 신앙의 질적인 향상을 통한 사회문화 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근대적인 문예학 및 일반 대

중에게 감화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영적, 도덕적, 학문적, 문화예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그럴 때 이 현상은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 정부의 국내외 정책 전반의 도덕성,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되고, 러시아의 대외 관계가 반목과 대립에서 조화와 협력으로 전환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에 나타난 사랑과 성의 문제

김민아 (서울대)

## 1.

세기말을 살아낸 20세기 초의 러시아 지식인들은 구시대의 질서와 체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 지향하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따라서 사회주의 이념은 이 시기의 유토피아 담론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08년에 출간된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Красная звезда)』은 사회주의 유토피아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1905년 혁명 이후 레닌과의 갈등으로 인해 볼셰비키에서 제명되고 나서 발표된 『붉은 별』은 명실 공히 격변의 시기를 대표하는 유토피아 문학으로 자리 잡게 된다. 유토피아 문학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과학적이고 환상적인 서사를 통해 이상적인 미래의 사회주의의 모습을 묘사한 이 소설은 혁명기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는데, 대중은 특히 미래에 대한 ‘과학적’ 묘사, 보그다노프의 과학적인 상상력을 주목하였다.<sup>1)</sup>

당대 러시아에서 누린 인기에도 불구하고 『붉은 별』에 대한 러시아 바깥에서의 번역과 평가는 상당히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유럽에서는 1970년 독일에서 첫 번역본이 나왔고, 미국에서 첫 번역본이 나온 해는 1984년이였다.<sup>2)</sup> 서구에서의 보그다노프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1970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연구의 시작은 『붉은 별』의 문학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직 이론(текстология) 또는 대안적 볼셰비즘, 프롤레타리아 문화이론 등 보그다노프의 사상과 철학, 문화이론에 관한 것이였다.<sup>3)</sup> Jensen과 Stites, Graham에 의해 1980년대가 되어서야 『붉은 별』에

1) 『붉은 별』은 1929년까지 5번에 걸쳐 재판을 찍을 정도로 인기 있었고, 다수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한 과학 잡지에는 부록으로 실리기까지 하였다. 이득재, 「『붉은 별』에 나타난 보그다노프의 사회주의 이론」, 『중소연구』 Vol. 40(4), 2017, p. 316.

2) Alexander Bogdanov, *Red star: the first Bolshevik utopia*(edited by Loren R. Graham and Richard Stites), translated by Charles Rougl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그러나 이 번역 역시 작품 전체를 번역한 것이 아니었다. 2016년 아고라 출판사에서 나온 국내 번역본 역시 완역이 아니다.

3) K.M. Jensen, *Beyond Marx and Mach: Aleksandr Bogdanov's Philosophy of Living Experience*, Dordrecht/ Boston/ London: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영미권의 연구 성과는 미비한 상황이다.<sup>4)</sup> 한편 소비에트시기에 『붉은 별』은 소비에트 과학 공상 소설의 전조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설 속의 유토피아가 진정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예를 들어 마하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sup>5)</sup> 즉 소련시기의 비평은 작품을 ‘과학적’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국내의 보그다노프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작가의 조직이론, 문화이론, 경험일원론 등에 먼저 할애된 후, 최근에서야 소수의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붉은 별』에 대한 심도있는 문학 비평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6)</sup>

다소 거칠게 요약하자면 국내와 국외에서 『붉은 별』에 대한 연구는 작품 속 유토피아가 사회주의 이론을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유토피아와 그곳에서 실현된 과학기술이 보그다노프의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유토피아에 대한 묘사 속에 내재된 디스토피아적 요소와 레닌과의 논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작품을 집필했을 당시 보그다노프의 개인적 상황, 그리고 당대 러시아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작업들이다. 그런데 이것들로 작품 『붉은 별』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텍스트를 빈틈없이 메우는 비평, 의미의 공백 없는 문학 비평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비평은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기 마련이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비평이 주목하지 않은 부분인 유토피아와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작품이 발표된 1908년은 러시아 예술, 사상의 ‘은세기’로 에로스, 혹은 사랑의 철학은 이 시기 작가, 시인, 예술가, 사상가들을 사로잡은 중요한 테마였다.<sup>7)</sup> 사랑, 그리고 이와 연관된 성(性), 젠더, 가족,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의미심장한 주제였고, 보그다노프 역시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유토피아 소설’(роман-утопия)이라는 부제가 붙은 『붉은 별』에서 사랑의 문제는 작품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키워드이다. 나아가 유토피아와 사랑, 성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D. Reidel Publishing Co., 1978.

4) K.M. Jensen, “Red Star: Bogdanov builds a Utopia,” *Studies in Soviet Thought*, Vol. 23, 1982; L.R. Graham, “Bogdanov’s Inner Message,” Alexander Bogdanov, *Red star: the first Bolshevik utopia*(edited by Loren R. Graham and Richard Stit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R. Stites, “Fantasy and Revolution,” Alexander Bogdanov, *Red star: the first Bolshevik utopia*(edited by Loren R. Graham and Richard Stit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5) Ю.Б. Рюриков, “Богданов,” *Краткая литератур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М., 1961; А.Ф. Бритиков, *Русский советский научно-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роман*, Л., 1970; Э.В. Ильенков, *Ленинская диалектика и метафизика позитивизма*, М., 1980.

6) 이득재, 「『붉은 별』에 나타난 보그다노프의 사회주의 이론」, 『중소연구』, Vol. 40(4), 2017; 김성일, A. 「보그다노프의 소설 『붉은 별』에 나타난 유토피아 세계」, 『스토리앤이미지텔링』, Vol. 13, June 2017; 최진석, 「혁명, 혹은 배반의 유토피아 -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에 나타난 정치적 무의식」, 『인문논총』, Vol. 74(4), 2017.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L. Engelstein, *The keys to happiness: sex and the search for modernity in fin-de-siecle Russia*, Ithaca;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Ким Мин А, *Философско-филологическая концепция тела в работах В.В. Розанова, Ф. Ницше и М.М. Бахтина*(кандидатская диссертация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М., 2013; 김민아, 「슐로비요프의 사랑의 철학」, 『노어노문학』, Vol. 26(4), 2014.

상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토피아 문학은 작가적 관심의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들에 대해 작품에서 논하고, 따라서 유토피아 문학 비평에서 이 주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sup>8)</sup>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에 나타난 사랑, 성, 가족, 출산과 양육의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된다.

‘붉은 별’이라는 이상적 공간,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에서 사랑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즉 작가 보그다노프는 작품 속에서 이를 어떻게 그려내는가? 사랑이라는 주제는 작품의 다른 주제들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기존 연구에서 놓친 이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 본 글의 문제의식이다.

## 2.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붉은 별』에서 사랑은 작품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유토피아(그리고 디스토피아) 문학 장르의 항상적인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사랑, 그리고 이와 관계된 젠더, 결혼, 가족,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지구에 생존하는 한 진지하게 천착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이들이 왜곡되거나 부정되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지속적인 삶은 불가능해진다. 이는 『붉은 별』의 주인공 레오니드에게도 해당된다.

오랫동안 사회민주당원으로 활동해온 27세의 레오니드는 과학과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아동 잡지에 글을 써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지식인으로 같은 당원이지만 온건파에 속하는 연상의 안나와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작중에서 안나를 ‘아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둘은 사실상의 부부나 마찬가지다). 화성인들은 지구의 그 어느 곳보다도 삶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미래를 보도록 강요되고 있는 러시아에서 “화성인의 생활방식을 익힌 뒤 지구와 화성 인류간의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되게 한다는 목적 하에 화성으로 데려갈 지구인으로 레오니드를 선택하는데, 선택의 이유는 레오니드가 육체적, 정신적, 지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지구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애착관계가 더 적고 가능한 덜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sup>9)</sup> 이때 레오니드와 안나의 사적 관계, 즉 ‘사랑’은 공적 사업 - 미래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방문함으로 현재 “영원한 내부 투쟁으로 심각하게 분열된 사회(러시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는 레오니드의 임무 - 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sup>10)</sup>

레오니드의 의사 결정과 이후의 행위 그리고 슈젯 전개의 측면에서 사랑은 계속하여 사건을

8)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C.S. Ferns, *Narrating utopia: ideology, gender, form in utopian literature*,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99; L.T. Sargent & L. Sargisson, “Sex in Utopia: Eutopian and Dystopian Sexual Relations,” *Utopian Studies*, Vol. 25(2), 2014.

9) A.A. Богданов, “Красная звезда,” *Вопросы социализма: Работы разных лет*, М.: Политиздат, 1990, с. 122.

10) A.A. Богданов, “Красная звезда,” с. 121-123.

발생시키고 추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레오니드가 지구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화성으로 떠날 수 있었던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안나와의 결별로, 1장의 제목인 ‘파열’(разрыв)은 곧 레오니드와 안나와의 관계의 결렬을 의미한다. 작품 시작부터 혁명과 사적 관계(사랑)에 대한 둘의 의견 차이는 매우 깊은 것으로 드러나지만 레오니드는 이로 인해 관계가 끝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sup>11)</sup> 안나 니콜라예브나는 “도덕주의자”(моралист)로서 “의무감”과 “희생정신”에 입각하여 혁명에 가담한 반면 레오니드는 “비도덕주의자”(аморалист)로서 스스로의 욕망으로 혁명에 참여한 경우이다. 그러나 혁명, 정치, 사회에 대한 안나와 레오니드의 대립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둘의 관계에 대한 의견 차이이다. 안나는 결혼이 지속되는 한 사랑은 양보, 희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절(верность) 같은 의무를 지운다고 생각한 반면 레오니드는 일부일처제는 부르주아 질서의 파생물로 다양한 유전적 조합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가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미래에는 결혼제도에 깊은 변형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레오니드의 이런 시각에 안나 니콜라예브나는 크게 분노하면서 이를 “삶에 대한 조악한 감각적 태도를 감추려는 이념적 형식”이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둘 사이의 내적 요인이 아닌 “외부 영향”, 바로 화성인 엔지니어 메니의 방문(개입)이다. 메니와 대화할 때마다 안나와 타협할 수 없는 불일치가 다른 때보다 첨예하게 드러나던 참에 안나는 결국 레오니드의 곁을 떠난다. 그리고 안나가 떠난 바로 그날 메니가 방문하여 레오니드를 화성으로 초대하고, 더 이상 지구에 사적으로 숙박되지 않은 레오니드는 이를 수락한다. 지구를 떠난 직후 레오니드는 안나와의 이별에 메니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깨달아 분노하지만 이를 현실에서 표출하지 않고 대신 무의식의 공간인 꿈에서 드러낸다. 캄캄한 우주에서 자신을 심연으로 끌어 내리는 메니에게 고통스럽게 저항하는 꿈을 꾸는 레오니드를 진정시키는 이는 화성인 의사 네티이다.

화성에 도착한 레오니드는 “사회주의자로서 두 세계의 경계에서 있는” 자신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과 휴식을 줄여가며 열심히 일하고 배우는 와중에 ‘과거’의 이미지와 기억들, 환상의 공격을 받는다. 특히 창백하고 슬픈 얼굴의, 고통과 책망을 담은 눈의 안나 니콜라예브나가 자신을 바라보는 환각에 사로잡히고 과거 지구에서의 지인들 및 사건들의 이미지와 기억들, 환상 등의 비현실이 현실을 대체하기에 이른다(“정신이 맑고 안정되어 있을 때도 나는 그들을 실재하는 사람과 물건으로 여기고 있었다” “... 내 허깨비들은 이제 나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레오니드의 환청과 환각은 (라캉의 견해를 빌자면) 신경증적 현상이지 정신병적 현상이 아니다.<sup>12)</sup> 레오니드는 자신의 임무의 중압감에 억눌려 화성의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억지로 기계적으로 습득하면서 자신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 한편으로

11) А.А. Богданов, “Красная звезда,” с. 105.

12) 정신병자는 상징적 체계(아버지의 이름)를 폐제한 고로 환청과 환각의 실재에 대해 의심없이 받아들이지만 상징적 체계를 내면화한 신경증자는 상징적 차원과 실재적 차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레오니드의 환청과 환각의 특징은 전적으로 과거(지구)의 역습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그는 이것들이 실재가 아닌 ‘환각’, ‘환청’임을 자각한다.

레오니드가 버리고 온 과거의 외상, 그의 죄의식을 구성하는 안나 니콜라예브나는 떨쳐내고 억압해야 할 대상이다(“나는 과거란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한 닿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정복해야 할 것은 미래였으므로...”). 억압의 대상이 주체를 더 박해하고 삼키는 환각으로 회귀하여 현실에 균열을 내기 시작할 때, 즉 레오니드가 신경증으로 고통 받을 때 그를 다시 치유해준 이는 네티이다(앞에서 우리는 지구를 떠난 직후 악몽에 시달리는 레오니드를 진정시킨 이 역시 네티임을 지적하였다). 네티의 치료를 받으면서 레오니드는 이전부터의 강한 끌림에 굴복하여 감정을 고백하는데, 네티가 자신의 성별이 여성임을 밝혀 둘의 사랑이 시작되면서 레오니드는 과거로부터 해방된다(“나는 이제 가끔이라도 과거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으며 네티와 우리의 사랑에 집중하게 되었다”).

작품에서 레오니드에겐 세 명의 여성이 존재한다. 지구인 안나 니콜라예브나와 화성인 의사 네티, 그리고 화학자이자 시인인 화성인 에노이다. 안나와 네티가 과거와 현재/미래의 사랑이라면 에노는 네티가 금성 탐사로 레오니드의 곁을 비운 사이 친구이자 연인으로서 네티의 자리를 대신한 인물이다. 사실 레오니드와 에노는 동병상련의 동질감으로 연인이 된 경우인데,<sup>13)</sup> 에노는 네티와 함께 금성 탐사를 떠난 화성 최고의 과학자 메니의 전 부인이었기 때문이다. 에노는 메니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후자의 고도의 지성은 생식 능력을 저하시켰고, 에노는 이에 절망하여 자살을 계획하던 중 자살 하루 전 그녀를 지구 탐사에 초대한 네티의 도움으로 자살을 접었다.

여기서 잠깐 자살에 대한 화성인들의 견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화성이라는 유토피아에서 죽음을 앞둔 노인들의 자살 외에 다른 이유로 자살한 경우가 근래에 두 번 있었는데(전자는 치사율 90퍼센트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한 이후 자살한 의사이고 후자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인이다) 에노는 세 번째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자살이 될 뻔한 케이스였다. 화성에서 사람들에게 강제를 가하는 영역(자유를 제한하는 영역)은 교육(어린이들)과 의료의 영역(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으로 후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자살 혹은 타살의 위험이 있는 이들이다. 화성의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한 이들이거나 신경증 환자들로, 신경증의 원인은 과로, 성생활의 문제, 지인의 죽음과 같은 정신적 충격이고, 증상이 심해 자살이나 타살로 이어질 기미가 보일 경우 강제로 격리되는 것이다.

레오니드는 환상과 환청이라는 신경증으로 괴로워하다 네티와 사랑을 확인함으로 다시 자신의 임무로 돌아오고 행복감을 맛본다. 그러나 네티가 금성 탐사를 떠난 후 그녀가 최근까지 자신이 꼴ripp게 여겼던(그리고 자신을 꼴ripp게 여겼던) 냉철한 천문학자 스테르니, 그리고 화성으로 오던 우주선에서 자신을 대신해 목숨을 버린 화학자 레타와 중혼의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된

13) 네티는 레오니드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에노의 사랑이 다른 종류의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А знаете, в числе ваших друзей есть еще одна женщина, о которой вы этого не подозревали, и она также очень любит вас... конечно, не так, как я...”)

레오니드는 모욕감과 굴욕감(그리고 질투심)을 느낀다. 아울러 지구인들을 절멸시킨 후 지구를 식민지화하자는 스테르니의 주장에 대한 네티의 반박 - 지구인들을 사회주의적으로 재교육시켜 연합하자 - 을 약화시킨 것이 자신의 신경증적 발병임을 알게 된 레오니드는 네티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져 지구 식민지화 대신 금성의 식민지화가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인류의 전면 몰살이라는 망상(бред, delusion)에 휩싸여 몰살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시킨다. 망상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레오니드는 ‘자살’을 계획했다가 자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발원지가 스테르니라고 생각을 바꾼 후 스테르니를 만나러 가, 그의 연구실에서 망상 속 분절적 말들을 내뱉은 후(“네티의 남편...” “절멸...무자비하게...”) 스테르니를 ‘살해’한다. 화성인들은 레오니드를 병원에 격리했다가 지구로 되돌려 보내고, 레오니드는 지구의 병원(베르네르의 병원)에서 ‘망상’을 진단받고 간헐 지내다가 탈출하여 혁명 투쟁에 뛰어들다. 그 후 시가전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베르네르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주인공을 네티가 와서 화성으로 데려가면서 작품은 종결된다.

이처럼 주인공을 둘러싼 작품의 중심 사건 - 화성으로의 출발, 악몽, 신경증, 망상으로 인한 살인 및 지구 귀환 - 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구에서 안나와의 사랑이 부정되어야 할 ‘사적 관계’로 정의되는 반면 유토피아로 설정된 화성에서 화성인 네티와의 사랑은 주인공의 과업 성취를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외표화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네티와의 사랑은 ‘사적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인가? 레오니드가 네티의 전 남편 스테르니를 살해한 기저에는 열등감과 질투가 있었다. 네티가 여성임을 안 후 이어지는 레오니드의 사랑 고백에 대한 네티의 응답의 마지막 - “당신의 사랑은 마치 사람을 죽일 듯 해요(Ваша любовь сродни убийствo). 그러나...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레니” - 은 마치 레오니드의 파멸(스테르니 살해 및 자기 파멸, 에로스=타나토스)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네티와의 사랑을 여전히 사적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특히 전부인 안나 니콜라예브나의 모노가미를 비판하여 폴리가미를 주장하던 주인공은 네티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견해에 모순되는 행동을 보인다.

### 3.

사실 사랑의 문제는 젠더 및 출산, 양육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작품 속에서 젠더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처음에 레오니드는 네티를 남성으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끌림, 성적 욕망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이를 거부하다가 환각에 빠진다(네티가 환각에 시달리는 레오니드를 치료하기 위해 아침 진료를 하던 중 네티 옆에 혁명 동료가 나타나 “네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똑바로 보라”고 소리치는 것이 그것이다). 레오니드의 착각은 유토피아 사회에 거주하는 화성인들의 생물학적, 육체적 외양 때문이다. 화성인들은 외양적 측면에서 남녀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외모로 성별을 구분하기 힘들다. 화성인 여자들의 비교적 넓은 어깨와, 화성인 남자들의 약간의 살집과 좁은 골반은 남녀의 차이를 무화시킨다.<sup>14)</sup> 하물며 의복은 성 차이를 가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예컨대 소년 소녀 시기엔 똑같은 의복을 입고, 성인의 옷의 경우 스타일만 약간 다를 뿐 기본적으로 의복은 같다. 차이가 있다면 남자의 의상은 몸의 실루엣을 보다 더 드러내고, 여성의 의상은 몸의 윤곽을 가리는 편인데 이처럼 의복 역시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의 차이를 감추는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유토피아 세계에서 생물학적, 육체적 성의 차이가 희미해지는 이유는 성평등과 관계있을 것이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20세기 초 여성은 아직 가사 일에 노예처럼 종속되어 있었고 남성은 가정 밖에서의 생존 투쟁에 익숙했고 따라서 혁명 이후 소비에트는 가사로부터 여성들의 해방을 노골적으로 선전했다. 그렇다면 보그다노프는 성평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신체적 평등을 생각한 것일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물학적 성차이의 무화는 곧 개성(личность,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ь)의 무화와 관련 있음이 드러난다. 아이들이 성적 성숙기에 가까워질 때 개인적 특성(индивидуалис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의 차이가 커지고, 나이가 있는 아이들이 따로 살기를 원할 때 오히려 전연령대의 아이들을 같이 지내게 하는 화성인의 공동 육아 체계는 성과 개성의 밀접한 연관성을 암시한다.

성과 사랑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 결혼과 출산, 양육의 문제이다. 화성인들의 결혼제도는 모노가미(일부일처제)가 아닌 폴리가미(복혼제)이다. 화성인들은 자유연애를 하면서 몇 번씩 결혼하는 것이(심지어 중혼제도 허가된다)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이 과정을 통해 출산한 아이들은 출생 직후 바로 “아이들의 집”(дом детей)이라 불리는 일종의 국영 탁아소에서 양육된다. 자유연애와 일부일처제의 폐기, 중혼/복혼제의 허용 그리고 공동육아는 초기 사회주의(공산적,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제기된 이후 체르니셴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의 여러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변주된 주제이다. 흥미로운 것은 화성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 자원의 부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토피아 사회는 출산 억제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출산 억제는 자연에 굴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출산 억제 대신 대체 식량 자원을 찾거나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 함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국영 육아 시설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목적이 “사회를 위한 교양을 획득하기 위해, (사전에 아이들로 구성된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역시 개인과 집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sup>15)</sup> 여기서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비평가들이 소설 『붉은 별』에 예견된 과학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도덕, 가족, 결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일부일처제에 대한 레오니드의 반대와 더불어 화성인들의 복혼제에 대한 옹호는 소비에트 시절 사회주의의 무혈건설에 대한 강조와 함께 소설

14) 스페틀라나 보임은 혁명 이후 소비에트는 새로운 인간 조형의 레퍼토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제공된 ‘이상적 동료상’은 강건한 남성성이었다고 지적한다. 스페틀라나 보임, 『공통의 장소』, 김민아 옮김, 그린비, 2019, 167쪽.

15) А.А. Богданов, “Красная звезда,” с. 144.

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증거인 셈이다.<sup>16)</sup> 이는 성 평등, 자유연애를 권장했지만 기존의 가족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자 했던 소비에트의 모순과 일맥상통한다.

#### 4.

작품에서는 화성인들간에 제대로 된 사랑이 제시되지 않는다. 네티는 학생시절 화학교사였던 스테르니의 냉철한 지성에 끌려 결혼했다가 오히려 그로 인해 상처받아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레타와 중혼을 한다. 네티의 절친 에노는 메니를 사랑했지만 그가 불임임을 알게 되자 절망하여 (에노가 더 절망한 이유는 불임임을 안 메니 자신은 정작 “사생활에서 일어난 손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과학에 매진하였기 때문이다) 이혼한 후 그 공허함과 결여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계획했을 지경이다. 적어도 작품에 표현된 ‘사랑’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성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다. 또한 주인공의 화성 탐사 및 적응이 실패로 끝난다는 작품의 결말(심지어 작품 전체는 레오니드의 ‘망상’으로 읽힐 수 있다)은 ‘붉은 별’ 화성이 진정 완성된 사회주의 사회(유토피아)일까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작가 보그다노프는 ‘유토피아 소설’이라는 부제의 이 소설에서 ‘사랑’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 발표문 서두에서 던진 질문을 다시 제기하며 미완의 발표문을 맺는 바이다.

---

16) Б.Ф. Егоров, *Российский утопии: Исторический путеводитель*, Спб.: Искусство-СПБ, 2007, с. 364.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공시성과 통시성

### 제1분과 문학분과

#### 문학분과B : 러시아문학연구의 통시적 공시적 역동성 2

사회: 박혜경 (한림대)

- ▶ 소츠-아트예술에 나타난 ‘허위 노스탤지어적’ 서사 충동 ..... 29
  - 발표: 송정수 (중앙대)
  - 토론: 이문영 (서울대)
  
- ▶ 일리프와 페트로프의 작품에 나타난 웃음: <열두 개의 의자>를 중심으로 .. 37
  - 발표: 강수경 (부산대)
  - 토론: 김수환 (한국외대)
  
- ▶ 일제 강점 시기 고려인들의 문필작업과 극단활동에 대한 고찰 ..... 53
  - 발표: 박영은 (한양대)
  - 토론: 최진석 (이화여대)



# ‘소츠-아트’ 예술에 나타난 ‘허위-노스텔지어적’ 서사 충동\*

송정수 (중앙대)

## 1. 들어가며

‘노스텔지어’라는 단어는 다분히 낭만적이면서도 감상적인 아우라를 장착하고 있다. 이 단어의 기원이 되는 그리스어 ‘nostos’와 ‘algia’는 각각 ‘집으로의 귀환’, ‘아픔, 고통’을 의미한다.<sup>1)</sup> ‘노스텔지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했던 17세기 말에는 고향에서 멀리 떠나온 군인들의 심리상태를 지칭하는 모종의 의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세기에 들어와 노스텔지어라는 개념의 소속은 ‘병리학적’, ‘의학적’ 층위에서 ‘존재론적’ 층위로 이동하게 되며,<sup>2)</sup> 이후 ‘병적인 상태’가 ‘향수’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현재의 보편적 개념에 이르고 있다.

노스텔지어가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미래가 아닌 ‘과거’의 시간축에 존재하며, 따라서 역사의 비가역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역사적 시간을 신화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다름아니다. 스페틀라나 보임(С. Бойм)은 노스텔지어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어원에 근거하여, 노스텔지어라는 개념을 ‘복원적 노스텔지어’와 ‘반성적(혹은 아이러니적) 노스텔지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범주화한다. 그녀의 정의에 따르자면, ‘복원적 노스텔지어’는 ‘nostos’에 ‘반성적 노스텔지어’는 ‘algia’에 방점을 찍는다.<sup>3)</sup> 즉, 전자의 경우 집으로의 귀환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후자의 경우 향수, 우수 등으로 대표되는 ‘감정적’ 개념을 소환해낸다. 또한 보임은 ‘복원적 노스텔지어’가 ‘민족’, ‘집단’의 범주와 관련을 맺는 반면, ‘반성적 노스텔지어’는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기억에 호소한다는 점을 지적한다.<sup>4)</sup>

\* 현재 진행 중인 글로 가급적 인용을 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Лексические трудност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1999. С. 311.

2) Бойм С. Общие места. М., 2002. С. 297-299.

3) Там же. С. 301.

4) Бойм С. Конец Ностальгии? // НЛЮ. 1999, № 39.

한편 ‘노스탤지어’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개념주의 화가 일리야 카바코프(И. Кабаков)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요 테마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앞서 보임에 의해 정의된 노스탤지어의 두 가지 층위가 카바코프의 일련의 작품 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드러나는 점에 주목하며, 카바코프의 작품에서 두 가지 층위의 노스탤지어, 즉 ‘복원적 노스탤지어’와 ‘반성적 노스탤지어’가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일러스트 작가이자 비공식예술가로 활동한 특별한 이력에서부터 소비에트 연방에서의 삶과 이후 망명자로서의 삶에 이르기까지 카바코프 개인이 지닌 특수한 전기적 사실에 주목하며, 이것이 그의 창작 속에서 노스탤지어라는 테마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예술적 반영을 이루어내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노스탤지어 테마가 카바코프의 개인 정체성의 문제, 작가 정체성의 문제와 어떤 반향을 일궈내는지 함께 조명해보고자 한다.

## 2. 노스탤지어의 표출 양상: ‘복원적’이거나, 혹은 ‘반성적’이거나

소비에트 노스탤지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물들이 노스탤지어의 직접적인 투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종종 ‘소비에트 정체기’로 일컬어지곤 하는 ‘70년대 소비에트의 일상’, 좀 더 확장하자면 6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해당하는 시기의 일상이다. 역사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체기는 역설적으로 ‘안정’과 맞닿은 개념이다. ‘완성된 사회주의 시기’에 근접했다는 기대감, 혹은 이미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났던 소비에트 70년대는 외면적으로는 이미 ‘완결된 세계’를 성취한 것처럼 보여졌다. 쿠스타레프(A. Кустарев)는 1970년대를 “소비에트 인간이 사회보장이라는 국가시스템에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sup>5)</sup>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삶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만족감이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한 주해를 덧붙인다.

1933년생인 카바코프는 본격적인 ‘탈 스탈린화’가 시작되고 흐루쇼프의 ‘해빙기’가 시작된 50년대와 60년대를 거쳐, 1987년 서구로 망명한 뒤 1992년 뉴욕에 완전히 정착할때까지 소위 ‘소비에트의 마지막 황금기’로 불리는 1970년대의 소비에트 현실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낸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아동용 도서 삽화 작가로서 소비에트 국영 출판사를 위해 일했고, 동시에 소비에트 연방 예술가 협회의 회원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에릭 블라토프(Э. Булатов), 빅토르 피보바로프(В. Пивоваров) 등과 더불어 1970년대 초에 형성된 ‘모스크바 개념주의’의 핵심 멤버이기도 했다.<sup>6)</sup>

5) Кустарев А. Золотые 1970-е – ностальгия и реабилитация // Неприкосновенный запас. 2007, № 2.

6) Илья и Эмилия Кабаковы. В будущее возьмут не всех. М., 2018. С. 13~14.

이렇듯 소비에트 현실에 다분히 순응적인 공식적인 삶과 언더그라운드 작가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아낸 카바코프에게 ‘소비에트’에 대한 기억으로서 노스텔지어는 분명 차별화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잠깐 기억과 노스텔지어와의 상관관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노스텔지어가 지향하는 공간은 현재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만, 그 공간은 다른 시간 축 상에 존재하는 ‘과거의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노스텔지어는 특정 공간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형태를 통해 공간에 시간성을 부여하지만, 실질적인 시간성의 회복은 불가하다. 이러한 비가역적인 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예술 작품은 과거의 동일한 공간을 재현하는 형태로 노스텔지어적 충동을 해소하곤 한다.

카바코프의 화폭은 과거의 공간과 현재의 공간을 이어주는 모종의 ‘통로’로 역할하며, 작품 근처에 배치된 텍스트와 일련의 연작 시리즈 제목은 문학작품 속 ‘파라텍스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작품에 대한 해설, 설치작품 제작에 앞서 그려놓은 도면과 스케치가 작품의 일부로 함께 전시되는 것은 카바코프 창작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이 때 마치 작품의 주해서처럼 역할하는 제목, 작품에 대한 메모와 설명, 스케치 등 다양한 파라텍스트는 작가와 관람객의 경계에 위치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화폭 속 재현된 공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보조도구가 된다.

먼저 ‘작가-카바코프’가 일차적으로 적어놓은 메모(혹은 작품 해설)와 제목은 ‘작가-카바코프’의 입장에서 소환된 기억과 상상력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한편 그림을 마주한 관람객은 이내 작품 근처에 위치한 파라텍스트에 집중하면서 텍스트와 그림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작품 속 이미지와 서사에 자신의 경험을 대입하면서 관람객은 때로는 경험적 동의를 때로는 정반대의 상황을 감지하면서 해당 공간에 대한 자신의 ‘개인화 된 노스텔지어’를 소환하게 된다. 따라서 카바코프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곧 파라텍스트에 기대어 관람객 각자의 개인 경험치에 따라 그림 속 빈 공간을 ‘상상된 노스텔지어’로 메워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엡슈테인은 카바코프의 ‘앨범’ 시리즈 중 한 편을 구성하는 <안나 페트로브나의 역사(История Анны Петровны)>를 비롯한 일련의 ‘계획표’ 시리즈물에서 ‘호모 소비에트쿠스’의 예정되고 계획된 삶을 패러디하고,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5개년 구정물통 반출 계획’으로 바꿔치기함으로써 위대한 역사적 행위의 증표와도 같은 수많은 ‘계획표’와 ‘도표’를 탈관시켜버리는 카바코프의 전략에 주목한다.<sup>7)</sup>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개인의 기억에 근거한 ‘상상된 노스텔지어’로 화폭을 채워나가는 실험을 의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앨범 <안나 페트로브나의 역사>에 삽입된 <안나 페트로브나는 꿈꾸는 중>이라는 작품은 이를 잘 보여준다.

7) Эпштейн М. Постмодерн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С. 250.



<그림 1> 안나 페트로브나는 꿈꾸는 중 (일리아 카바코프, 1974)

<그림 2> 구정물통 반출표 (일리아 카바코프, 1980)

<안나 페트로브나는 꿈꾸는 중>은 개념주의 회화 컨셉을 매우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안나 페트로브나는 작품 속 어디에도 이미지로도, 텍스트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작품의 하단에는 안나 페트로브나가 아닌 다른 인물들이 나열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작품이 안나 페트로브나의 꿈속에서 재현된 일상의 파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을 마주하는 관람객은 자연스럽게 마치 작품 하단에 마치 ‘파라텍스트’처럼 위치한 일련번호와 이름 혹은 사물명을 상단의 그림과 대조하는 작업을 펼치게 된다. 작품 속에는 “올가 마르코브나는 사트이리니 부부 옆에서 차 마시기를 좋아한다 (Ольга Марковна любит чай у Сатырнинных)”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존재한다. 실제로 작품 속 이미지에서 올가 마르코브나(1번 원)와 니콜라이 이조토티치 사트이리니(6번 일그러진 타원)은 맛있는 차가 놓여있는 탁자(2번 원)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다. 그런데 니콜라이의 아내인 에바 파블로브나 사트이리니(4번 원)는 정작 올가와 거리를 두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 외에도 이 작은 지면 안에는 카바코프가 의도적으로 그려넣은 현실의 디테일들이 곳곳에 놓여있다. 그림 자체는 매우 추상적이거나 그 그림을 구성하는 디테일은 놀랄 만큼 현실적이다.

작품 하단의 일련번호를 따라가다 보면, 올가와 니콜라이가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 탁자 외에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기 위한 또 하나의 탁자가 존재함으로 알 수 있다 (9번 원). 하지만 그 탁자에는 수식어 없는 차, 즉 가장 일반적인 차가 놓여있고, 올가 옆에는 ‘맛

있는’ 차가 놓여있다. 수수께끼처럼 주어진 낯선 도판에서 참석자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붙여놓은 일련번호 옆 원의 모양도 그 모양새나 크기가 모두 제각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소파(5번 원)와 니콜라이 사트이린(6번 원)의 경우, 소파보다 사람이 더 큰 것처럼 묘사되어 해당 인물의 체격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작은 ‘참여자-원’ 외곽에 그려진 형상이다. 카바코프는 ‘차를 마시는’ 이미지 없이도 ‘차를 마시는 형상’을 훌륭히 연출해 내고 있으며, 관람객의 ‘상상된 노스텔지어’는 이를 가속화시키면서 무의식 중에 ‘차-사모바르’라는 단어의 조합을 만들어내면서 작품 속 이미지에 적용시키게 된다. 실제로 사모바르 손잡이처럼 그려진 형상은 또 다른 이미지인 ‘귀’와 중첩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카바코프의 이중적 노스텔지어 소환 전략이 돋보인다.

이를 위해 다시 작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안나 페트로브나는 꿈꾸는 중>을 비롯하여 도표 및 지형도 양식을 모방하고 있는 카바코프의 작품 속에서 마치 정성스럽게 서류나 보고서 작업을 하듯 조심스럽게 써 내려간 매우 작고 섬세한 필체를 발견할 수 있다. 안나 페트로브나의 꿈을 재현한 <안나 페트로브나는 꿈꾸는 중>은 한편으로는 어느 한적한 시간 이웃끼리 모여 앉아 오붓한 티타임을 가지는 장면을 다분히 ‘개념주의적’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은 당시 모두가 피하고 싶어했던 ‘소비에트 현실’ 중 하나인 ‘밀고’ 현장을 연출하고 있다. 사물과 사람을 형상화 한 작은 원들의 주변에는 흡사 ‘사모바르’처럼 보이는 그림이 자리하며 ‘개인의 기억’에 근거한 노스텔지어를 소환해낸다. 다른 한편으로 ‘사모바르’의 또 다른 의미장이 ‘가족-공동체’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사모바르’는 ‘커다란 귀’의 형상으로 전환되고, 각각의 참가자 이름은 물론 그들이 앉아 있던 위치와 참가자의 체격, 심지어 차의 맛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재구성된 기억은 개인의 추억이 아닌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소환된 것으로 밝혀지며 공동체의 즐거움은 어느새 밀고에 대한 공포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카바코프의 전시에서 유난히 작품의 설계도면이라 할 수 있는 초안 스케치가 마치 본 작품의 ‘파라텍스트’처럼 함께 전시되곤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에트 현실과 일상’에 관한 설계도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나칠 정도로 단정하고 세밀한 선으로 그려진 그의 일러스트 풍의 작품과 도표는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방치해 놓은 듯한 설치작품과 아찔한 대비를 이뤄낸다. 게다가 그 ‘방치된’ 설치작품의 초안은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수반하는데, 이는 마치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 제작과 성막 설치를 위해 유일신으로부터 내려진 절대적 정언 명령이 연상될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다. 하지만 정교한 초안 스케치와 달리 실제 설치작품은 방치의 차원을 넘어서 다소 엉성해 보이기가까지 한다. 카바코프의 작품 기획안과 실제 설치작의 대조는 마치 스탈린의 실현되지 않은 유토피아 기획안과 실제 현실과의 대비를 우회적으로 지시하는 듯하다.

이런 방식으로 카바코프 작품 내에서 ‘반성적 노스텔지어’와 ‘복원적 노스텔지어’, 소환하고 싶은 향수 그 자체로서 ‘개인적 기억’에 근거한 소비에트 일상에 관한 미시 서사, 그리고 그 기



억의 보존과 더불어 선별적으로 지우고 싶은 ‘집단적 기억’에 근거한 트라우마와 이르 둘러싼 거대 서사의 공존과 전위가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이처럼 전혀 예술적이지 않은 ‘비예술적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은 해당 작품에 대한 정치적 혹은 심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카바코프 작품 속 노스탤지어적 서사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축출해 낼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간혹 카바코프 작품 속에서 ‘복원적 노스탤지어’와 ‘반성적 노스탤지어’의 공존과 교차는 작품 속 색채의 전환과 안과 밖을 응시하는 시선과 조망 방식에 따라 드러나기도 한다.

카바코프의 또 다른 앨범 <옷장에 앉아있는 프리마코프(Вошкафусидящий Примаков)> (1972)에서 장롱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동시에 개인적 삶과 공공의 삶, 개인이 꿈꾸는 현실과 외부에서 강요되는(혹은 만들어진) 현실의 경계로 설정된다. 이 앨범을 구성하는 <제13번째 장>에 대해 프리마코프 가의 일원 중 한 명이 달아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의’ 주해는 다음과 같다.

“그는 아주 어린 적부터 장롱에 몰래 기어들어 가서 숨어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장난감도 죄다 그곳에 끌어다 가져다 놔다. 그는 낡은 베개와 자켓으로 뭔가 침대 비스무레한 것을 만들어냈다...”<sup>8)</sup>

여기서 프리마코프는 그의 창조자인 ‘작가-카바코프’일수도, 혹은 그와 동시대를 살아간 유사한 기억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미 사적인 공간과 공공의 공간을 나누고 각각의 공간에 대해 각기 다른 시선을 투사하며 보유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롱 속에 앉아있는 프리마코프>의 장롱 안과 밖의 세계는 ‘빛’ 또는 ‘색채’로 완전히 구분된다. 동시에 카바코프는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으로 대표되는 아방가르드 예술의 숭고미 형식 내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동어반복적 수사’를 담아내며 소비에트 현실을 패러디한다.

<제5번째 장>에 해당하는 그림은 만일 ‘장롱 안(Вшкафу)’이라는 텍스트가 부재할 경우, 그대로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에 현정하는 오마주가 된다. 하지만 ‘장롱 안’이라는 작품 속 지시어를 통해 이것이 <검은 사각형>이 아닌 장롱 안에 숨어든 아이의 시선 속에 반영된 어둠을 형상화 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작품 옆에서 파라텍스트 기능을 수행하는 프리마코프 지인들의 설명 역시 이 검은색 평면을 숭고한 <검은 사각형>에서 장롱 속 현실로 끌어내리는 ‘탈관’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후 등장하는 동어반복적 수사와 한때 <검은 사각형>처럼 인식되었던 숭고한 대상의 표면을 한 겹 벗겨내었을 때 마주치게 되는 현실이다. 현실은 다시 두 겹의 층위로 갈라진다. 전면과 중심에 위치한 현실은 마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연출하고자 했던 ‘아름답게 채색된 소비에트’를 겨냥한 듯 밝고 또렷한 색채를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채색된 현실의 뒷면은 물론, 채색된 현실의 중심에서 멀

8) Илья и Эмилия Кабаковы. С. 102.



어질수록 화면의 색감은 잿빛으로 대체된다.

이에 더하여 <장롱 속에 앉아있는 프리마코프> 앨범을 구성하는 각 장마다 ‘열린 장롱’, ‘엄마의 방’, ‘집 뒷마당’, ‘로자 룩셈부르크 거리’, ‘바그다사르스크 변강’ 등 이미지 하단에 첨부된 문구는 앨범 뒤쪽으로 갈수록 동어반복성을 강화시키는데, 이 ‘동어반복성’은 바로 소비에트 시대를 살아간 작가와 그의 주인공들의 정체성과 이중적 삶의 공존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 3. 노스탤지어와 정체성의 역학 관계: ‘제의’로서의 현실 vs ‘일상’으로서의 현실

알렉세이 유르차크(A. Юрчак)은 자신의 저서 『이것은 영원했다, 그것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sup>9)</sup>에서 후기 소비에트 문화를 분석하며, 당시 소비에트 사회구성원들이 두 가지 종류의 담론, 즉 ‘수행적 차원’과 ‘진술적 차원’의 담론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소위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균형 감각을 유지했다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유르차크의 의견에 따르면, 70년대 이후 소비에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수행적 행위’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영역을 보장받기 위한 장치이다.

즉, 소비에트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행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소비에트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정체성이 입증된 시스템 내에서 사적 행위를 보장받기 위한, 어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진정한 ‘수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소비에트 사회속에서 데카르트의 명제는 “나는 동의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로 변경되어 적용된다.

‘수행적 행위’의 반복은 그 행위가 투사되는 존재를 절대적 숭배대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 즉 ‘제의’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다소 역설적이긴 하지만 제의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수행적 행위’는 그 빈도가 잦아질수록 어느 순간에 이르러 숭고미의 아우라를 상실한 채 ‘일상 의례’의 차원으로, 심지어 무의미한 ‘행위 그 자체’로 재전환된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이 지점에서 삶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수행적 행위가 아직 ‘제의’ 차원에서 수행될 때, 소비에트 인들은 자신의 사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했고, 따라서 이러한 사적인 삶의 영역은 공적인 삶의 테두리 안에 존재해야만 했다. 하지만 제의가 일상의 일부로 들어오는 순간, 이러한 불균형은 비로소 균형을 찾고, 소비에트 인의 이중적 정체성 역시 자연스럽게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된다. 다른 한편 이것은 두 개의 기억, 두 개의 노스탤지어가 존재하게 해주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9) Юрчак А. Это было навсегда, пока не кончилось. М., 2014.

카바코프의 작품 중 ‘기념일(Праздник)’ 시리즈로 대변되는 작품 일련은 바로 이러한 ‘수행적 반복’을 회화적으로 구현한 경우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채색된 소비에트 현실에 대한 이중적 노스탤지어 담론, 더 나아가 ‘허위 노스탤지어적’ 서사 충동을 표면화시킨다.

## 일프와 페트로프의 작품에 나타난 웃음:

### 『열두 개의 의자(Двенадцать стульев)』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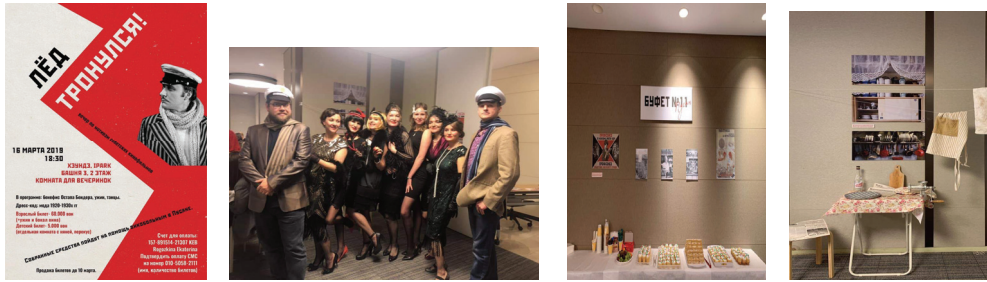
강수경 (부산대)

## 1. 서론

일리아 일프(1897-1937)와 예브게니 페트로프(1902-1942)는 1920-30년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소설, 펠리에톤, 중편과 단편, 뿐만 아니라 영화 시나리오 등의 장르를 넘나들며 공동창작의 멋진 예를 보여준 작가들이다. 이들의 첫 만남은 1925년에 이루어졌고, 1927년에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기도 한 이들의 첫 공동작품인 소설 『열두 개의 의자』가 창작되었다. 첫 장편소설의 성공은 2년 후 『황금 송아지』(1929-1930)의 창작으로 이어졌고, 이후 이 두 편의 소설은 위대한 사기꾼(великий комбинатор)에 대한 2부작으로 불리어지며 창작 당시부터 독자와 비평가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도 소설 『열두 개의 의자』와 『황금 송아지』는 20세기 러시아 문학 작품 중 가장 많이 읽히는 작품 중 하나이자 러시아 국내외에서 여러 버전의 연극, 영화, 뮤지컬 등으로 개작되어<sup>1)</sup>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이 발표된 이후 작품 속 여러 표현들과 우스갯소리, 유머들은 관용구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인들의 언어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고<sup>2)</sup>, 심지어 주인공 오스타프 벤데르의 의상과 외모, 스타일 등은 소비에트 레트로 문화의 상징으로 종종 회자되며, 현대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재현되고 있다.

- 1) 소설 『열두 개의 의자』의 경우 1933년 체코에서 최초로 영화로 만들어진 이후 1930-40년대에 영국, 독일, 미국 등지에서 영화로 만들어졌고,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소설이 해금된 이후인 1966년, 1971년 그리고 1976년에 영화화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2003년 뮤지컬로, 또 2005년에 다시 영화로 만들어지는 등 꾸준히 사랑받는 소비에트 고전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 2) 세마노프는 일프와 페트로프의 소설들이 소비에트 젊은이들의 언어에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50-х и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60-х популярность романов сделалась всеобъемлющей и безграничной. Словечки, выражения, всякого рода “хохмы” оттуда широко укоренились среди тогдашней молод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студенчества,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Сыпать цитатами из Остапа Бендера считалось шиком”( Семанов С. Из жизни великого комбинатора. Слово. 1990 № 3. с. 17.)



<소비에트 영화 “12개의 의자”를 모티브로 한 러시아 커뮤니티의 자선모임><sup>3)</sup>

공동 작가들의 대표작인 2부작 소설을 비롯한 창작 전반에 대한 연구는 소설이 발표된 직후인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주로 해빙기 이후 이들 작품이 금서목록(1945년에서 1956년까지 검열로 인해 작품의 출판을 금지됨)에서 해지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2부작과 관련해서는 풍자와 유머의 특징, 주인공 오스타프 벤데르의 형상, 나아가 위대한 사기꾼의 원형, 고골의 웃음 전통과의 연계성 등의 문학 관련 연구<sup>4)</sup> 뿐 아니라 텍스트 내 고유명사, 인명, 어휘, 어법, 관용구 등의 언어학 관련 내용도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프와 페트로프의 지속적인 공동창작을 가능하게 한 『열두 개의 의자』가 거둔 대중적 성공의 이유가 무엇보다도 쉽고,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작품이었다는 데에 주목하되, 그 중에서도 작품에 나타난, 더 정확히는 작품이 생산하는 웃음을 키워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sup>5)</sup>. 일프와 페트로프는 익살, 풍자, 반어 등의 장치를 사용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왜곡해서 표현하는 희화를 중요한 서사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웃음 또는 작품의 희극성에 주목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바흐친의 카니발이론에 기대어 일프와 페트로프의 작품을 분석하거나(룰리코바), 작품에서 웃음과 유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풍자에 집중하거나(코즐로프), 소설의 희극적인 공간에서 우스꽝스러운 말이 하는 역할에 주목하거나(킬자예바), 희극적인 것의 생산방식으로서 문체규칙의 위반을 주요한 이유로 지적(블라지미로바)하

3) 지난 2019년 3월 16일 부산의 러시아인 커뮤니티가 주최한 자선파티의 포스터와 사진들이다. 이 모임을 발의한 나탈리야 예브도코모바는 파티 주제 선정의 이유를 묻는 필자의 질문에 대해 소비에트 고전이야말로 여러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해서 『열두 개의 의자』를 파티의 모티브로 삼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4) 일프와 페트로프의 작품을 다양한 측면에서 진지하게 분석한 몇몇 연구서들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Галанов Б.Е. Илья Ильф и Евгений Петров. Жизнь. Творчество. –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61. – 312 с.; Липовецкий М. “Трикстер и “закрытое” общество,”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щество. 2009. №100. с. 224–245.; Одесский М.П., Фельдман Д.М. Миры И.А. Ильфа и Е.П. Петрова: очерки вербализованной повседневности. М.: Изд-во РГГУ, 2015. – 400 с.; Щеглов Ю.К. Романы Ильфа и Петрова. Спутник читателя. М.: Изд. Ивана Лимбаха, 2009. – 656 с.

5) 작가 아르도프의 다음 말은 우리의 논의에 힘을 실어준다. “그들은(일프와 페트로프) 전문적으로 유머를 다루는 작가들이었고, 대중을 웃기기 위해 준비된 실질적인 비법을 새롭게 열어보였다. 일프와 페트로프는 대단한 본능적인 유머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우스운 것을 생각해 내고, 또 그들이 만들어 낸 것 중의 일부만이 책 속에 들어간 것으로 늘 생각했다.” Сборник воспоминаний об Ильфе и Петрове. Под общ. ред. В. Д. Острогорской.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63. с. 202.

였다.

그러나 웃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창작 당시인 1920-30년대 소비에트의 현실을 이해/고려하지 않을 때 웃음은 발생하지 않음에 주목하고,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이 되는 창작 당시 현실의 맥락 속에서 작품을 독해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일프와 페트로프의 소설이 피카레스크 소설 장르를 기반으로 하여 창작되었다는 점, 그와 함께 공동 작가들은 기존의 피카레스크 소설을 소비에트라는 시공간 속에서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열두 개의 의자』가 유머, 코믹, 아이러니적인 서사 방식을 앞세운 피카레스크 소설로 파악되면서도 1920-30년대 소비에트 러시아라는 체제가 만들어낸 현실과 일상적 경험의 현실간의 거리에서 생산되는 전복적인 아이러니와 풍자적인 유쾌한 웃음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피카레스크 소설에 대한 1920-30년대 소비에트적 해석

16세기에 시작된 피카레스크 소설<sup>6)</sup>은 현대 소설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는<sup>7)</sup> 사실적 허구 성격의 작품이며 17세기 스페인 소설사를 풍요롭게 했을 뿐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세계 문학사에 뚜렷한 영향력을 끼친 문학 장르로 잘 알려져 있다.

작품 내용은 하층계급에 속하는 주인공(picaro, 약자)이 1인칭 서술의 자서전 형식으로 출생부터 집필 시점까지, 주로 그와 그가 섬겼던 주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삶의 과정들을 기록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어둡고 불운한 경험과 질곡을 통해 독자들에게 스페인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이렇듯 전통적인 피카레스크 소설은 주인공 약자의 삶이나 모험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연결되어 제시됨으로써 당대 사회의 모습을 만화경처럼 그려내고, 그가 겪었던 어둡고 악한 사회를 보여주고 고발해주는 성격이 강한 사회소설이자 풍자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에서 피카레스크 소설이 소개된 것은 18세기 후반이다. 사실 18세기 후반은 러시아에 최초의 소설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고 서구로부터 고전주의 소설, 신고전주의 형식, 피카레스크 소설 등을 동시에 받아들인 시기이다. 러시아 피카레스크 소설은 주로 프랑스 풍자작가 르사주

6) 피카레스크 소설은 16세기 중엽인 1554년의 『라시리요 데 토르메스(Lazarillo de Tormes)』에서 시작하였고, 장르로서 자리 매김 한 것은 1559년 마테오 알레만의 『피카로 구스만 데 알파라체의 삶(La vida del picaro 허크무 데 Alfarache)』의 탄생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본다.

7) 피카레스크 소설이 탄생한 스페인에서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소설을 ‘첫 번째 사실주의 장르’로 보는 데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스페인 사회의 치명적인 단점을 악용하는 소외적인 인물로 인식된 약자는 문학사에서 하층계급으로는 처음으로 주인공의 자리까지 오른 복합적인 성격의 인물이며, 따라서 이 소설이 현대 소설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피카레스크 소설 장르에 대한 간략한 해석은 다음을 참조. 권미선, “피카레스크 장르에 대한 세르반테스의 재해석,” 인베로아메리카연구 2010. 21-1: 223-226.

의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전하게 되는데, 러시아 작가에 의한 최초의 피카레스크 소설은 18세기 후반에 창작된 M. 출코프의 『조롱하는 자(Пересмешиник)』(1766-1789)이다. 연구자들은 출코프의 소설을 비롯해 이후 창작되는 러시아 피카레스크 소설의 주요한 창작 원천을 서유럽 피카레스크 소설의 전통 뿐만 아니라 17-18세기 러시아 풍자문학의 특징에서 찾고 있다<sup>8)</sup>. 피카레스크 소설 장르는 19세기 중반 고골의 『감찰관』이나 『죽은 혼』에서처럼 러시아적 전통이 뚜렷한 소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피카레스크 소설 장르는 16-17세기 유럽의 사회·정치적 격변으로 인한 역사적 산물로서 탄생하였다. 즉 생존과 관련한 실존의 문제가 당면과제로 떠오른 변혁의 시대가 문학에 반영되어 독특한 장르로 출현하게 된 것이다. 할리제프는 어떠한 문학 장르의 체계도 “실제 삶을 기반으로 장르를 탄생시키고 공고화한다”고 지적하였다<sup>9)</sup>. 이에 따르면 혁명 후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새로운 사회 계층을 탄생시키며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1920-30년대 소비에트 러시아의 현실은 문학에서의 피카레스크 소설을 부활시키기에 적절한 토양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사회 질서의 전복, 정신적인 방황과 육체적인 방랑의 시대로 대표되는 1920-30년대 어두운 현실과 사회분위기는 문학에 피카레스크 소설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나게 했고 이러한 배경 속에 여러 편의 소설이 대거 등장하였다<sup>10)</sup>. 혁명 후 엄숙하고 진지했으며, 웃음을 찾기 어려웠던 이 시대 작가들의 작품이 풍자와 유머의 글쓰기에 열려 있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밀렌코는 1920-30년대 러시아 풍자 산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피카레스크 장르 탄생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시대의 사회적 격변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린 몰락한 “과거의” 사람들, 유랑민, 사기꾼, 범죄자들이 사회의 전형적 형상으로 대두되면서 이들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탄생하게 된 점, 둘째, 생존의 문제가 사회의 가장 당면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상업적 투기 행위가 최전성기를 맞이한 점, 셋째, 혁명의 시대가 낳은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특징이 작가들로 하여금 카니발적 세계관을 확립하게 한 점, 넷째, 서구의 영향으로 패러디, 풍자 장르 및 모험소설 성격을 지닌 산문 장르가 우세하게 된 점이다<sup>11)</sup>. 이렇게 피카레스크 소설은 1930년대 중반 풍자장르에 대한 비판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회·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소비에트 문학 장르체계에서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8) 러시아 피카레스크 소설 장르의 발생과 발전사(18세기-19세기 초)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Штридгер Юрий. *Плутовской роман в России: К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романа до Гоголя*. “Алетейя”, 1961.

9) Хализев В. *Теория литературы*. М.: Высшая школа. 2000. с. 340.

10)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일프와 페트로프의 『열두 개의 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속 작품인 『황금 송아지』, 불가코프의 『치치코프의 모험』(1922), 이바노프의 『재봉사 포킨의 놀라운 모험』(1923),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네브조로프, 또는 이바쿠스의 모험』(1924), 스벤(И. Кремлев)의 『치체린의 아들』(1926), 애렌부르크의 『욕심쟁이』(1924)와 『라직 로이트쉬바네츠의 격렬한 삶』(1927), 베르진의 『포드』(1927), 로이즈만의 『마이너스 6』(1928), 부호프의 『세 명의 사제와 몇몇 외인의 이야기』(1930) 등이 피카레스크 소설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 작품들로 손꼽힌다.

11) Милленко В.Д. “Пикарес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сатирической прозе 1920-1930-х годов: к проблеме жанра” Наукові записки Харківського національного педагогічного університету ім. Г.С. Сковороди. Вып.3(47). Харків, 2006. с. 95-103 참조. [http://vika-milenko.narod.ru/index/soveisraja\\_pikareska/0-54](http://vika-milenko.narod.ru/index/soveisraja_pikareska/0-54) (검색일: 2019.09.20.)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였다.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프와 페트로프의 『열두 개의 의자』가 창작되었다. 소설의 중심 내용인 다이아몬드 추적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계층, 직업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는 당시 네프 시대 소비에트 러시아를 다각적으로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는데 효과적인 구조를 제공했다. 당시 러시아 사회의 혼란과 피폐상이 피카레스크 소설 양식과 맞아 떨어졌으며, 당대를 그리기에 피카로보다 더 적절한 인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피카레스크 소설 장르의 전통을 따랐던 20세기 초 다른 소비에트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공동 작가들의 소설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장르 문법<sup>12)</sup>과는 다른 많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sup>13)</sup>. 소설은 기존 피카레스크 소설에서처럼 주인공의 지형적인 이동이 장황하게 묘사되고 방랑자인 주인공-악자의 동선 이야기가 주요한 슈제트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핵심은 기존의 피카레스크 소설과는 다른 모습의 주인공의 설정에 있다.

『열두 개의 의자』에서는 주인공 오스타프 벤데르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됨으로써 소설의 자서전적 성격이 배제되고 현실 묘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가의 살아 있는 목소리는 현대 소시민들의 세태를 풍자하고 그들의 속물성을 비웃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뿐만 아니라, 악자의 삶이 기존의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그려지던 배고픔이나 명예,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과 같은 하층민의 한이나 절박함, 운명에 순응하는 삶과는 상관이 없는 호기심과 모험심이 가득한 자유로운 삶을 열망하는 매력적인 소비에트 사기꾼의 삶으로 그려진다.

또한 소설은 기존의 피카레스크 소설이 주인공의 모험 이야기를 담은 에피소드들의 나열로 구성된 작품 구성에 변화를 가하였다. 『열두 개의 의자』는 주축이 되는 다이아몬드 추적 과정을 담은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담론들로 이야기의 틈을 벌여 놓는다<sup>14)</sup>. 이 담론들은 주인공들의 경험담이기도 하고 서술자가 관찰하여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소비에트 러시아의 일상적 삶이 묘사되는 담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회적 모순과 아이러니컬한 측면이 풍자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담론들은 주된 이야기와의 틈을 벌여 놓기도 하고 다

12) 16-17세기 스페인 작가들이 마련한 피카레스크 장르 규범에 따르면 첫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 방식, 둘째, 주인공들의 동선 이야기가 주요한 슈제트를 구성, 셋째, 자서전적 형식, 넷째, 세태(길, 만남과 이별, 돈), 모험-투기(가난, 계산적인 결혼, 돌팔이 의사), 도둑-철학적(생존, 투쟁, 정신적 외로움), 카니발적(환복) 모티브들이 주요한 내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세 피카레스크 장르의 가장 큰 발견은 ‘반-주인공’의 주인공화이다.

13) 현대 피카레스크 소설에서는 작가-서술자 형상이 주인공-악자의 형상보다 우위를 점하여 1인칭 서술자 형식의 규범은 대부분의 경우 지켜지지 않았고 있다. 또한 도둑-철학적인 문제보다 주인공의 모험-여행의 테마가 슈제트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주인공의 경우 전통적인 피카레스크 소설에서처럼 여전한 방랑자, 거지, 재치꾼, 악당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 현대 소설에서도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피카레스크 소설의 경우 개별 작가들의 개성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장르 형식이 가능하다는 점에 연구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Миленко В.Д. “К проблеме жан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прикарески” *Жанрово-стилевые искания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Астрахань: Астрах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19. с. 5-9 참조 [http://vika-milenko.narod.ru/index/zhanr\\_pikareska/0-89](http://vika-milenko.narod.ru/index/zhanr_pikareska/0-89) (검색일: 2019.09.20.)

14) 소설에는 삽입된 ‘미니 이야기’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그 중에 예를 들자면, 7장의 드루츠크 백작에 대한 이야기, 25장에서 오스타프가 기술자 슈킨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등이 있다.

시 담론들의 공존을 조화롭게 유도하면서 결국에는 주요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일프와 페트로프는 모험소설, 피카레스크 소설, 탐정-추리 소설 등 당시 유행하던 여러 소설 장르들을 독창적으로 결합해 『열두 개의 의자』를 창작했다. 이는 과거 전통의 극복인 동시에 변화를 꾀함으로써 피카레스크 소설을 한층 풍요롭게 한 것이다. 전통적인 피카레스크 소설과 다른 점이 『열두 개의 의자』를 소비에트 고전으로 남게 했음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를 고발하는 방법을 택한 대신 풍자적 요소를 해학과 익살로 버무려 코믹함으로 표현한 일프와 페트로프의 소설이 유쾌한 웃음을 생산해내는 방식을 다음 장에서 살펴 보자.

### 3. 실제 현실과 허구적 현실의 사이 - 웃음의 생산방식

1920-30년대 소비에트 생활의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일프와 페트로프의 소설 『열두 개의 의자』는 작가들이 살았던 1920-30년대 소비에트 현실에서 일어나고, 또 맞닥뜨리는 사건들에 대한 작가 나름대로의 대답이라 할 수 있다. 풍자와 아이러니를 적절히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살아가는 소비에트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소설은 문학적이고 언어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희극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다이아몬드가 숨겨진 의자를 찾아 나서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를 기차, 배, 도보 등의 방법으로 이동한다는 일프와 페트로프의 소설은 매우 동화적이고 모험적이며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만, 작가들은 이 이야기가 꽤 사실적인 이야기인양 다양한 역사적인 사실들<sup>15)</sup>을 언급하고 작품에 묘사되는 시공간 배경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리면서 허구적 현실의 합법성을 증명한다. 즉 이 소설은 모험소설-피카레스크 소설이라는 원형의 바탕 위에 사실적인 서술예술로 발전한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프와 페트로프의 풍자소설은 소비에트 체제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을 꼬집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일상의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오류, 부조리 또는 결함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그러한 모습의 내면을 들추어내며 광의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사건의 발단은 소비에트 체제의 국유화로 인한 사유재산의 몰수에서 시작된다. 장모인 페투호바 부인은 죽기 직전 사위 보로바니노프에게 고향인 스타르고로드의 저택에 있던 감보스제 거실 의자 12개 중 하나에 다이아몬드를 숨겨놓았음을 고백한다. 이후 밝혀진 의자의 소재지는 다음

15) 소설에는 창작 당시인 1927년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과 사실들이 종종 언급된다. 콜럼버스 극단의 <결혼> 공연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는 실제로는 메이어홀드 극장의 <감찰관>(1926년) 공연에 대한 묘사이고, 작품 속 1927년의 지진 사건은 실제 1927년 9월 10일과 11일 밤사이에 발생한 지진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과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의자 하나는 그리차추예프 동지에게 갔는데,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상이용사라서 주택관리국장인 부르킨 동지가 그의 요구를 들어준 거네. 나머지 의자 열 개는 교육인민위원회 회의 회부 명령에 따라 모스크바 가구 박물관으로 갔고..... .16)

## 방랑의 테마

소설의 슈제트는 이 의자에 숨겨둔 다이아몬드를 추적하는 보로바니노프와 그의 동행자 오스타프 벤데르, 경쟁자 표도르 사제 세 인물의 여정으로 구성된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주인공들은 하나 같이 매우 진지하며, 다이아몬드 추적전은 그들의 생존문제가 달린 중요하고 정당한 일로서 역시 매우 진지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사실상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선 이들의 여행은 ‘방랑’에 다름 아니다. 부랑자 문제는 초기 소비에트 국가의 건설 당시 매우 만연한 사회적 현상이었다. 보로바니노프와 사제 표도르는 집을 떠남으로써 방랑의 길(물론 이들의 여정이 정상적인 여행이 아니라 ‘방랑’이라는 것을 주인공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에 오르지만, 주인공 벤데르는 그 스스로 방랑자이다. 그는 돈과 집은커녕, 외투도 속옷도, 가족과 과거도 없다. 그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부랑자들이 그를 뒤쫓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북서 지방에 있는 마을 츠마로브카에서 스물여덟 살의 젊은 청년이 스타르고로드 시에 도착한 시각은 11시 30분이었다. 청년의 두를 거리의 부랑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I, 60)

부랑자 테마는 소설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이후 모스크바 경매장에서 놓친 의자들의 소재지 파악을 위해 오스타프에 의해 고용된 이들이 부랑자이며, 스타르고로드 시에서 벤데르가 조직한 비밀결사대 ‘검과 낫 연합’은 “방치된 어린아이들, 고아들”을 돕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한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추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인공들 스스로가 방랑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들에 대한 결정적인 풍자는 모스크바의 고급레스토랑 ‘프라하’에서 한 가수가 부르는 노랫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군요.

당신은 사방으로 헤매고 있군요.

16) 일리야 일프-예브게니 페트로프 열두 개의 의자 I 이승익 옮김. 시공사, 2013. 155쪽. 이후 위의 책에서 인용하기로 하고 인용문 옆 괄호 안에 권수와 쪽수를 기입하여 표하도록 한다.

그렇게 돌아다니면 당신의 맹장은  
언젠가 터질지도 몰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군요.  
타라라라라.(I, 305-306)

보로바니노프는 내일이면 모스크바의 경매장에서 몰수된 의자 10개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고 정욕에 넘쳐 ‘소비에트의 짧은 계집애’ 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함께 간 식당 ‘프라하’에서 자신의 현실을 꼬집는 노랫말인줄은 깨닫지 못한 채 취기에 박수까지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른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군요.  
타라라라라.(I, 306)

그러나 N군에서 스타르고로드를 거쳐 모스크바로, 블라디캅카즈에서 자카프카지에 지역을 거쳐 트빌리시까지, 바투미를 지나 알타를 거쳐 다시 모스크바로 향하는 보로바니노프 일행의 다이아몬드 추적 여행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얼음은 이제 없어졌다. 녹아버린 얼음들은 물이 되어 무심하게 이폴리트 마트베예비치를 여기저기 떠다니게 하고 있었다. ... 항해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육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 그저 모험의 망망대해를 표류할 뿐이었다. (II, 53-54)

사제 표도르는 어쩐가, 그는 N군을 떠나 스타르고로드로, 의자의 소재지가 적힌 거깃 전표를 받아들고 로스토프로, 다시 바쿠와 바투미로, 마지막으로 트빌리시의 십자가 고개까지 이르는 여정을 감행한다. 그가 바투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의 방랑의 삶에 대한 자기 아이러니가 극대화된다.

우리는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돌아다니는 다음, 사마라에 멋지게 정착할 것이요. (II, 152-153)

방랑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보로바니노프, 정착에 대한 허상을 가진 사제 표도르와 달리 오스타프는 오히려 방랑의 삶에 순응하고 즐기고 있다. 콜롬부스 극장이 경매에서 사들인 감브스제 의자를 좇아 체복사리까지 쫓아가게 되었지만 오스타프는 오히려 이곳에 정착하여 빵 가게를 차리는 건 어떠냐며 여유를 부린다. 또한 스크라빈 호에서 파헤쳤지만 보석이 나오지 않아 바다에 던져진 의자들을 발견한 후 의자를 그들의 인생에 빗대어 말하는 오스타프는 방랑을 그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비친다.

보로바니노프 씨, 이 의자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나게 하는군요. 우리 역시 물결을 따라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의자처럼 물에 빠졌다가 다시 떠올라 헤엄치며 돌아다니고 있고..... (II, 193)

이처럼 방랑의 테마는 피카로의 전통을 이어 받은 주인공 오스타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소설 전반에서 여러 인물들과의 만남, 여러 사건들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며 슈제트 구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 ‘이전 사람들’

소설에서 희화화되어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차적 대상은 ‘이전 사람들’을 대표하는 보로바니노프이다. 그가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그가 ‘불일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웃음을 야기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과 불일치한 모습을 파악하게 되었을 때라고 지적하였다<sup>17)</sup>.

보로바니노프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작은 도시 N군의 시민이지만, 그의 외모와 생활방식은 마치 혁명 전 구시대에 사는 사람과도 같다. 그의 고향도시가 ‘스타르고로드(Старогород)’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 하는 첫 마디는 그의 기분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봉주르”이거나 “구텐 모르겐”이다. 그는 혁명 전 1910년대에 유행했던 모자이크 무늬바지를 입고 반부츠를 신는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대단히 편안한 생활과 습관들”을 혁명으로 강취당한 후, “다시 힘들게 구축한 자신의 소박하면서도 안락한 생활과 습관들” 속에 결혼과 사망신고 기관인 작스의 하급 관리로 평범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던 소시민이었다. 그러나 옛 영지 저택에 있던 의자 속에 보석을 숨겨두었다는 장모 페투호바 부인의 유언을 들은 뒤 머리를 녹색이 섞인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보석을 추적하러 떠나는 그는 이미 과거에 매달려 허상을 좇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보인다.

소설에는 끊임없이 구시대와 새 시대를 대비하는 서술이 이어진다(“예전에는 ‘푸시킨 대로’라 불렀던 ‘적군 거리’, ”예전에는 ‘테니소프 거리’라 불렀던 ‘레나 강 사건 거리’, “구체제 때에는 우리 주인나라가 이 건물에 사셨지”, “예전에는 시청사무관리국이었지만, 지금은 노동사무국으로 명칭이 바뀐 곳에서”등). 그러다가 급기야는 스타르고로드의 비밀결사대 ‘검과 낫의 연합’에서 ‘이전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장면은 마치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에서 언급되었던 대관과 탈관 모티브로 연결되며 웃음을 유발한다.

17) “줄치의 우스꽝스러움의 정의는 “불일치성”과 “불확실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비티와 줄치의 웃음이론들은,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가 웃고 있는 대상이 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이를 관찰하는 사람의 기대감과 불일치할 때 웃음이 생긴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류종영, 웃음의 미학. 서울: 유로, 2005. 196쪽.

“이폴리트 마트베예비치 보로바니노프를 귀족단장으로 추천합니다!”니케샤와 블라자가 외쳤다.

<...>

“소비에트식 투표는 우리에게 필요 없고”. 차루시니코프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각자의 양심에 따라, 유럽식 투표, 즉 비밀투표로 합시다.”

<...>

지인들과 친척들을 선별하여 경찰국장, 조세국장, 공장 감독관을 선출했다. 검찰관, 법원 서기, 재판소장 자리도 채워넣었다. 지방자치회 의장, 상인자치회 의장, 아동위원회 의장, 소시민자치회 의장까지 선출했다.(I, 280-283)

그런데 고향 사람들에 의해 귀족단장으로까지 추대된 보로바니노프는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어리숙한 행동이 늘면서 갈수록 철면피가 되어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이 된다. 격하되고, 비속화되고 천박해지는 그의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는데, 무엇보다도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 소녀인 리자와의 ‘프리하’ 데이트 장면에서 절정에 이른다. 예전 스타르고로드에 살 때 보로바니노프는 돈을 사치스럽게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동안 고급 식당을 방문하지 않았던 그는 레스토랑의 관습을 잊어버린 데다 유행 지난 낡은 옷을 입은 그의 테이블에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결국 보드카와 소시지, 절인 오이를 주문한 뒤 잔뜩 취한 보로바니노프와 함께 앉아 있던 리자가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면서 둘은 식당을 나오게 된다.

첫 번째 골목에서 이폴리트 마트베예비치는 리자의 어깨에 기대어 그녀의 팔을 움켜잡았다. 리자는 말없이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만하세요!”리자가 말했다. “그만하시라고요! 그만요!”

“호텔로 갑시다!” 보로바니노프가 설득했다.

리자는 거리도 가늠해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여성 정복자의 코에 주먹을 날렸다. 그러자 테 없이 도금 줄로 이어진 코안경이 네모난 신발코에 떨어지면서 짹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져버렸다.

(I, 307)

바로 이 탐욕과 정욕으로 시작되었던 리자와의 데이트 사건으로 인해 보로바니노프는 경매 물품으로 나온 감브스제 의자를 구입할 대금을 탕진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부터 피카레스크 소설을 위한 본격적인 이야기, 곧 지형적인 이동이 전개된다.

## 소비에트 인간들

소설에서 구시대의 인물들과 그들의 습관만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에트 신생국가의 다양한 인물들과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역시 풍자의 대상으로 희화화되며 웃음을 불러일으

킨다. 새로운 삶의 공간속 이들의 세태는 거짓과 위선, 도둑질, 세속적 욕망으로 점철된다. 스타르고르드 시 사회보장국 소속 제 2양로원의 경리부장 알리헨은 그 자신이 절도를 방지해야 하는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둑질을 하는 인물이다. 그가 관리하는 양로원에는 노인들 외에도 젊고 어린 그의 어린 동생 넷과 아내의 사촌동생까지 함께 기거하며 알리헨이 흠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을 흠치며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모스크바의 한 채식 식당의 이름은 “도둑질하지 말라”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거짓말에 가장 능수능란한 인물은 주인공 오스타프 벤데르이다. 그의 생존 방식은 기만과 허풍을 섞은 수다 떨기이다. 그의 허풍에 소도시 바슈키의 체스 기사들은 바슈키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꾀다.

바슈키의 체스 기사들은 사랑스러운 눈길로 자식의 말을 듣는 부모처럼 오스타프의 말을 경청했다. 오스타프는 체스에 대한 생각으로 새로운 힘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믿지 못할 겁니다.” 오스타프가 말했다. “체스의 수가 얼마나 교묘하게 발전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당신들도 아시다시피, 라스커는 저속한 꼼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제대로 경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는 게임할 때 시가를 피워대서 상대를 짜들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값싼 담배를 피워 일부러 독한 연기를 만들기도 하지요. 체스계가 정말 걱정됩니다.”

그랜드마스터는 지방 체스계의 실정에 대한 얘기로 화제를 바꾸었다.

“지방에는 대체 왜 의미 있는 체스 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바로 이곳에는 체스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체스분과위원회라고 불러야 합니까? 얼마나 따분한 이름입니까? 진짜 체스와 연관된 멋진 이름을 왜 짓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체스분과위원회에 더 많이 가입할 텐데요. 예를 들면, ‘네 마리 말 체스 클럽’이나 ‘멋진 중반전’, 혹은 ‘템포를 얻었을 때 상대의 손실’같은 거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기도 좋고!”

아이디어는 성공적이었다.

<...> 오스타프는 자신이 명예 의장이 되어 임시 회의를 열고, 이 분과의 이름을 ‘네 마리 말 체스 클럽’으로 개명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랜드마스터는 스크라빈 호에서 배운 개인적인 경험을 활용해서 두꺼운 종이에 클럽 이름을 쓰고 말 네 마리를 예술적으로 그려 넣었다.

장차 바슈키 시에서 체스 게임이 번성할 것만 같았다. (II, 167-168)

하지만 오스타프 벤데르의 형상은 좀 더 깊은 분석을 요구한다. 인간의 속물성을 다이아몬드 추적으로 알레고리화한 이 소설에서 다른 인물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 관료주의적 형식성, 세속적 욕망 등으로 풍자와 희화화의 대상이 되어 독자들로부터 웃음을 유발하지만, 오스타프는 단순한 풍자의 대상은 아니다. 벤데르는 패러디와 아이러니로 가득한 20세기 초 러시아 문학의 가장 독창적인 인물 중 하나이다. 그의 사기꾼적 기질, 끊임없는 거짓말 등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일프와 페트로프는 그의 타고난 유머감각을 높이 사고 영원한 속물성의 모델인 보로바니노프와 표도르와는 차별된 그의 인간적 면모와 삶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서술자의 목소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설에서 서술자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러니한 어투로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아이러니한 목소리는 소비에트 소시민의 삶에서 보이는 속물성을 비롯기에 충분하다. 미국 백만장자의 딸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모스크바 기술자의 허영심 많은 아내 옐로치카의 방을 묘사한 다음 장면을 보자.

문이 열렸다. 오스타프는 마치 딱따구리가 쪼아놓은 듯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영화 엽서들과 인형들, 탐보프산 고블랭들이 걸려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현란한 광경 속에서 이 방의 주인인 작은 여인을 알아보는 힘들었다. 여주인은 에르네스트 파블로비치의 셔츠를 개조하여 이상한 가죽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I, 340)

이처럼 소설 속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아이러니하고 또 냉소적인 목소리는 인물들을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체제가 포장한 실제 현실과 실제보다 더 사실적인 소설 속 허구적 현실의 간극을 깨닫게 하며, 웃음을 생산한다.

## 전도와 붕괴

블랙번은 피카레스크 소설의 주제를 <붕괴>로 요약하였다. 그는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세 가지 붕괴를 든다. 현실의 붕괴(실존의 문제), 선의 붕괴(도덕의 문제), 신의 붕괴(종교적 문제)가 그것이다. 그는 “우리는 인간성의 붕괴, 인간의 정신적 죽음을 피카로의 삶의 궤적을 따라 목도하게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스페인 피카레스크 소설가들은 (사회, 도덕, 종교적 차원에서) 질서의 와해를 그린 것이다.

소설 『열두 개의 의자』에서 우리는 블랙번이 말한 세 가지 붕괴를 크고 작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프와 페트로프는 공식적인 삶의 질서를 이루는 위계질서와 가치체계가 부정되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것으로 변형되는 전도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이 속물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들이 바로 보로바니노프와 사제 표도르이다. 보로바니노프의 변화는 오스타프에 의해 직설적으로 언급된다.

“회춘하신 거로군요! 무서운 젊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인을 탐하시다니! 다른 사람의 돈도 탕진하시고..... 정말 퇴폐적으로 변하셨군요!”(I, 325)

사제 표도르의 경우 그는 원래 사리사욕에 밝은 사람이었지만, 다이아몬드 추적 과정 중에 더욱 속물적으로 변화한다. 그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보자.

그런데 표도르 사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프롤과 라브르 기념교회의 머리 깎은 성직자는 어

디어 있는 걸까? <...> 표도르 사제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어했다. (I, 291)

속물적으로 변화한 보로바니노프와 표도르의 희화적 캐릭터는 그로테스크한 웃음을 생성해 낸다. 하지만 더 큰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보로바니노프와 오스타프의 전도된 관계이다. 보로바니노프가 어쩔 수 없이 다이아몬드가 숨겨진 의자에 대한 비밀이야기를 오스타프에게 털어 놓을 때는 이들이 마치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둘은 결국 동업자가 되어 모험을 시작한다. 그러나 경매에서 10개의 의자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에 실패한 이후에는 보로바니노프의 몫이 더 줄어들 뿐 아니라 오히려 오스타프의 조수가 되면서 역할이 바뀌는 전도가 발생한다.

“... 좋은 삶든 이제 계약 조건을 새롭게 작성해야겠습니다.”

이폴리트 마트베예비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껏 그는 숨을 내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자, 나의 오랜 친구여, 당신은 조직적인 무력증과 의지 박약증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당신 몫을 좀 축소시켜야겠습니다. 공정하게 해야죠. 20퍼센트 어떻습니까?”(II, 52)

심지어 오스타프는 보로바니노프를 “기사”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보로바니노프는 “그의 충실한 조수”가 되어 극장 현수막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빵 값을 벌기 위해 거지 노릇과 동냥질을 하기 까지에 이른다. 급기야 마지막 한 개의 의자를 눈앞에 남겨 놓은 상황에서 오스타프는 그에게 돈 쓸 데도, 희망도 없는 당신이니 한 달에 40루블의 급료를 받는 비서직이 어떠냐며 제안한다.

이런 가운데 보로바니노프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철저히 붕괴되고 만다.

그러나 이폴리트 마트베예비치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걸음걸이도 예전과 달라졌고, 눈빛은 사나워졌으며, 땅과 평행을 이룰 정도로 옆으로 잘 정돈되었던 콧수염은 이제 늙은 고양이 수염처럼 땅과 직각을 이룰 정도로 처져버렸다. 이폴리트 마트베예비치의 변화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일어났다. 전에 없던 결단력과 강인함이 그의 성격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II, 267)

그의 이 같은 변화는 그의 동업자 오스타프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소설은 국유화된 재산인 다이아몬드가 든 의자 속 보석이 운송 노동자 클럽의 늙은 수위에 의해 발견되고, 그 보석들로 다시 국가 재산인 새 클럽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

보석들은 정면 현관 입구의 유리와 철근 콘크리트 바닥으로 변해 있었다. 멋진 체육관 홀은 진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다이아몬드 왕관은 회전식 무대를 갖춘 극장으로 변했고, 루비는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 홀 곳곳의 샹들리에로 변했고, 뱀 모양의 금팔찌는 형태가 바뀌어 도서관이 되었고, 금장 허리띠는 탁아소, 작업장, 체스 게임방, 당구장으로 변했다.

보석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져버렸다. 누구나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개인이 가져갈 수는 없었다. 보석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 (II, 279-280)

의심 없이 품어왔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기대가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 변해 버릴 때 보로바니노프에게는 절규가, 독자들에게는 웃음이 생성된다.

## 4. 나가며

일프와 페트로프는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유머러스함으로 표현하고 심각하고 진지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만드는 작가들이다. 그들은 『열두 개의 의자』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상실을 경험한 네프시대 소비에트 러시아를 대표하는 주인공들의 다이아몬드 추적 과정을 한바탕의 웃음거리로 그려내었다. 이 웃음은 유머, 코믹, 아이러니적인 서사방식의 피카레스크적 소설의 전통 위에서 체제가 만들어낸 현실과 일상적인 경험의 현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차이에서 배태된 풍자와 아이러니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텍스트 내부에 집중하여 웃음을 발생시키는 현실과 허구적 예술세계 사이의 간극에 주목하였다.

전형적인 피카레스크 소설 문법을 따라 기발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묘사함으로써, 즉 진실한 방식으로 허구를 추구함으로써 소설 속 현실은 오히려 실제 현실보다 훨씬 설득력 있고 흥미롭다. 그렇게 그려진 소비에트 러시아 초기 1920-30년대의 낯선 풍경은 과장, 부조리, 비정상, 언어유희로 가득 찬 사회이지만 비극적인 무게를 느낄 수는 없다. 이를테면 기형적 상황(예를 들자면, N군에는 이발소와 장례식장이 가득하다는 설정 등)을 장치하여 독자가 기대하지 못한 웃음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진지함과 희극적 특성을 동시에 살리고 있다. 그들의 소설에서 웃음은 핵심 요소로서 독자들에게 스스로를 거리화하여 웃음의 대상이 되는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인물들의 우스꽝스러움을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

고골 중편에 대해 벨린스키는 “고골의 진정한 유머는 삶을 바라보는 진실한 시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고골은 “... 자신의 주인공에 대해 종종 의도적으로...악의 없이, 중요 없이 조롱한다. 그는 그들의 보잘 것 없음을 이해하지만 화내지는 않는다”. 벨린스키는 바로 이러한 “묘사되는 사건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태도”에서 “순수하게 러시아적인 유머, 평안한 유머, 순박한 유머가 탄생하고, 작가는 마치 얼뜨기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그러나.. 이 평안한



유머가 어찌면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하게끔 하는 유머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sup>18)</sup>. 이런 의미에서 일프와 페트로프의 유머는 고골의 유머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코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풍자, 유머, 패러디 등을 사용하여 작품성과 대중성을 골고루 갖춘 소설 『열두 개의 의자』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각박한 현실을 유머러스한 웃음으로 표현한다. 이로써 소설은 독자들에게 삶의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불완전성을 인식하는 작가들의 아이러니한 시선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고 있다. 작가들은 다양한 군상과 인물을 통해 당대 현실을 고발하고 통렬하게 풍자하지만, 당대 보편적인 소비에트 인간상을 코믹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웃는다.

---

18) Белинский В. Собр. соч. в 9т. Т.1. М., 1976. с. 176.



# 일제 강점시기 고려인들의 문필활동 및 극단활동에 대한 고찰\*

박영은 (한양대)

## 1. 들어가는 말: 일제 강점기 고려인 문예인들의 항일의식 표출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게 된 1919년 3·1운동은 신분·직업·지역·신앙·성별·빈부 등을 초월한 전민족의 일치된 독립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때문에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되어 한국민족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이룬 첫걸음인 3·1운동을 기념해 2019년 국내에서도 다큐멘터리·드라마 영화 등 수많은 콘텐츠가 제작되며 이 거국적인 민족독립운동을 기리고 있다. 이는 한반도라는 공간 안에서 3·1운동의 열기를 직접 경험했던 선조들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동시대인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운동에 대한 당시 한반도에서 뜨거운 열기와 기억에 대한 활발한 조명에 비해, 당시 고려인들은 3·1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유라시아 대륙에 거주했던 고려인들은 3·1운동에 대한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재소환하며 문화적으로 내재화해 왔는가? ‘러시아’, 특히 ‘연해주’ 땅이 항일무장투쟁의 진원지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3·1운동이 그곳 고려인들에게 문화적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고려인들은 조선 정부의 북쪽 지역 차별 정책, 지방 관리들의 착취와 탄압, 대기근 속에 생존을 위해 연해주 지역으로 1863년에 처음 이주했지만, 그들의 수를 더욱 증가시킨 계기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 한일병합에 의한 정치적 동기였다. 연해주 개척 이주시

\* 본 발표문은 자료 수집중인 미완의 원고이므로 인용을 금합니다.

또한 본고는 기존 집필된 다음의 원고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박영은, 「러시아극동 한인문학의 정초(定礎)와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 『노어노문학』, 2017. 제29권 4호. // 박영은, 「고려극장에서 상연된 중앙아시아 희곡의 역사·문화·예술사적 지형도 연구」, 슬라브학보, 2019, 제34권 제2호. // 조규익, 『C I S 지역 고려인사회 소인예술단과 전문예술단의 한글문학』, 태학사, 2013.

기의 한인 이주의 성격은 초기에는 ‘생계형’이주로 생존수단을 잃은 농민들의 이주가 주를 이루었다면, 1910년 일제의 식민통치 이후에는 항일 독립투쟁을 위한 ‘정치적 망명’의 성격을 띤 이주자가 많아진 것이다. 무엇보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일제 강점기 이범윤, 홍범도 등의 독립투사들과 이상설, 이위중, 이동녕, 안창호, 박은식, 신채호 등 애국지식인들이 활약했던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투사들의 기지였던 연해주에서 고려인 문화예술인들의 대중문화운동이나 항일의식의 예술적 표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라는 공간을 ‘독립투사들의 공간’으로만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해주에서는 3·1운동 이후 이 정신을 기리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문화적 움직임’이 강하게 융솟음쳤다.

1923년 3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삼월일일>이란 신문이 발행되었는데, 제호가 말해주고 있듯이 이 신문은 한반도에서 일어나 아시아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3·1운동의 정신을 표방했다. <삼월일일>은 3호까지 나오고 4호부터는 <선봉>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어 발행되었다. 특히 1923년에 창간된 <선봉> 신문은 연해주에 거주했던 고려인들이 만든 한글 신문으로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모태가 되었다.<sup>1)</sup>

<선봉> 신문의 주요 임원들은 그 사회체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유능하고 도덕적이고 탁월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주필들은 연해주 한인 인텔리나 명망가로서 조국 한반도의 독립운동이나 문화운동, 또는 애국계몽운동에 투신한 이가 많았다. 대표적 인물이 초대 주필인 리백초였다.<sup>2)</sup>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사회주의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으로 친히 <선봉> 신문에 고려인들이 달성한 성과를 글로 쓰라고 격려해준 막심 고리키의 영향력도 신문사의 영향력이 확장되는데 기여했다. 이후 <선봉> 신문은 재소한인 한글문학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조명희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신문에 문예페이지 개설을 비롯해 예술적 위상 역시 드높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3·1운동을 기념하는 연극인들의 움직임 역시 활발했다. 1922년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물러간 뒤로는 3.1절이 돌아오면 해마다 블라디보스토크 사립극장이나 ‘원동공장 문화회관’에서 3·1절 경축기념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면 어김없이 3·1운동에 관한 소인연극이 상연되었고, 이를 계기로 신한춘구락부에서는 연극이 자주 공연되어 대중문화운동을 이끌어 나갔다.<sup>3)</sup> 이처럼 연해주 고려인들에게 3·1운동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문화예술운동 차원에서의 추동력이었다.

고려인 예술가들의 문예활동에 대한 국문학계의 일반적 비평은 대부분이 강제이주라는 치욕적

- 1) 양원식, 「고려일보의 어제와 오늘」, *Время газетной строкой*, Алматы©Корё илбо, 1998, с.5-6. // Г. Н. Ким, *Связанные одной судьбой*, Алматы, Sepim, 2013, с.106.
- 2) М.Т. Ким, *Корейские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ы в борьбе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18-1922)*,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79, с. 95-96.
- 3) И. Ким, *Совет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Алма-Ата: ©издательство <Өнер>, 1982. // 리길수, 「조선극장」, 『오늘의 빛』, 알마아타: 《자수리》, 1990, 169-173쪽.

인 고난을 당한 고려인들은 언제 어떻게 처벌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 속에서 생존을 위해 소비에트 체제에 완벽하게 동질화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항일독립투쟁을 위한 공연계의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고려극장 극작가로도 활동했던 조명희가 쓴 <홍범도>만 보더라도, 그는 이 희곡을 통해 항일독립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정신의 연계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고려인 극예술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지니고 있었으며 한민족 역사에는 극장 전통이 언제나 풍부했는데, 러시아 원동으로 이주한 고려인들 역시 각종 민속놀이나 마당놀이를 비롯한 극예술 뿐만 아니라 조국의 전통문화를 성공적으로 유지·발전시켰다. 비록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를 당하기는 했지만, 고려인들을 결속시키고 전통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던 구심체가 바로 ‘고려극장’이었다.

창설 초기부터 고려극장은 고려인들이 자신들의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체험을 교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해왔다. 고려극장은 모국어 연극과 가무를 통해 고려인 관객들에게 공동체적 공감대를 최고로 심화시키고 이를 최대한 확장시켜줌으로써 재소고려인 사회를 결속시키는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고려극장은 고려인 민족문화의 발원지이자 그들의 지난한 삶과 애환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미학의 산실(産室)이었던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필활동과 극단활동을 결합한 대표적인 고려인 예술가 조명희, 연성용, 태장춘의 항일의식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대중문화운동과 미학적 의의를 조명하도록 한다.

## 2. ‘조명희’를 중심으로 한 문단의 항일 독립투쟁 및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표출

일제 치하 한반도에서 카프계열 작가로 활동하면서 「낙동강」과 같은 소설을 썼던 조명희는 조선에서 일본 경찰들의 박해와 억압을 피해 창작활동을 했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자 1928년 소련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망명지인 연해주에서 조선의 해방을 노래하고, 볼셰비키 혁명을 찬양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 연해주에서 조명희는 필명을 ‘조생’(조선 태생이다 혹은 조선에서 왔다)으로 바꾸었으며, 소설 집필보다는 사회주의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갖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평론을 쓰며 그에 따른 시 창작에 집중했다. 한자에 조예가 깊었던 조명희지만 소련에서는 시에 일절 한자를 쓰지 않았다. 1929년 육성춘 육성농민청년학교에서는 조선말과 조선문학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수업시간에 자신의 시를 낭송시켰고, 학생들은 그의 시를 통해 일본에 억압받는 조선의 현실을 깨우쳤다고 한다.<sup>4)</sup>

무엇보다 조명희는 1930년대부터 연해주에서 한인 문학의 기틀을 잡는데 눈부신 역할을 했다

4) 장사선·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5, 114쪽.

고 평가받는다. 그가 연해주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창작된 시들이 옛 시조 가락에 혁명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부를 정도로 조선적인 것과 소련적인 것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문학이라고 할 수 없고 정치 표어와도 같은 선전문구와도 같았다고 한다. 그러던 것을 문학적인 작품으로 바꿔 놓으면서 새로운 문학의 표본이 그의 손끝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문학 지망생들이 늘어났고, 그들이 점차적으로 문단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sup>5)</sup> 강태수, 유일룡, 김해운, 조기천, 리은영, 연성용, 태장춘, 전동혁, 김기철, 김준, 한 아나톨리, 김중손 등 다수의 젊은 청년문인들이 그때 조명희에게서 한글문학을 배우며 문학의 결실을 얻었다.

연해주에서 ‘조명’으로 다시 태어나 문단을 만들었던 그는 <선봉>을 통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시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나갔다. <10월의 노래>(1930), <5월 1일 시위 운동장에서>(1934) 등 조명희가 연해주에서 발표한 시들은 일제가 조선에서 저지른 만행을 규탄하거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본에 적개심과 분노를 드러낸 작품도 결국에는 프롤레타리아트 동맹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매진하자는 주제여서 그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 이는 환원하자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찬양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지만 그에게 사회주의와 항일, 혹은 민족주의는 동의어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아우 채옥에게> 끝부분에서 조명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조국인 소련을 사랑하는 것은 앞날에 프롤레타리아트 국가가 될 조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sup>6)</sup>

사실 조명희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매진하지만 그의 궁극적 지향점은 결국 조선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해삼위에 와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짓밟힌 고려>(1928) 역시 이러한 내면이 그대로 녹아나는 작품이다. 이 시는 조명희가 1928년 8월 소련으로 들어가다 소련군에 체포되고 4일이 지난 후에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선인 군인이 와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 곧장 해삼위로 가서 집필한 것이다. 소설 <낙동강>이 조명희 본인의 망명을 예정하는 자기 선언이었다면,<sup>7)</sup> <짓밟힌 고려>는 부제를 ‘해삼위에 와서’로 달았을 만큼 선택에 대한 자기 확신에 해당한다. 일본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무산계급을 위한 사회 건설에 관한 강한 믿음의 표출인 셈이었다.

시인 조명희에게 <짓밟힌 고려>의 세계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현실과 이상의 대립적 상황에서 이상을 쫓아 연해주로 갔지만, 식민지 상태에 있는 조국이라는 현실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들 지역의 한민족 사람을 조선인이라고 하지 않고 고려인이라고 한 것이 조명희의 산문시 <짓밟힌 고려>의 영향에 의해서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sup>8)</sup> ‘고려’라는 집단명사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 동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조

5) 우정권, 『조명희와 <선봉>』, 도서출판 역락, 2005, 12쪽.

6) 장사선-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앞의 책, 119-120쪽.

7) 소설 <낙동강>에서 주인공 박성운의 집 떠남은 민족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다시금 민족주의로의 회귀를 예정하는 여정에 다름 아니다. 조선의 현실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중층적 억압으로 보았던 조명희에게 무산계급의 고통이 소거된 미래의 고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론이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주의였으며, 그가 꿈꾸는 미래의 조선은 무산계급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주의적 민족주의가 실현된 나라였기 때문이다.

8) 한진, 「민족문학의 진로」, 『고려일보』, 1992. 7. 24.

명희의 문학은 공동체 의식 형성과 집단의 결속력 강화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조명희의 의식 속에는 조선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공동체가 공존하고 있었다. 더욱이 조명희에게 연해주는 상상과 실재, 이념의 공동체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유토피아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그는 1937년 9월 17일 경 자신의 집에서 일본 스파이라는 죄명으로 비밀경찰인 내무인민위원부에 의해 체포된다. 망명지인 연해주에서 조선의 해방을 노래하고 불세비키의 혁명을 찬양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가족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고, 그의 가족들은 그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그해 10월 경 다른 많은 한인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을 배경으로 항일독립운동과 소비에트 혁명정신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작품은 그 외에도 적지 않다. 김기철의 <복별>(1969)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주한 조선농민들이 일본제국에 대항하며 러시아혁명에 일조하는 내용이 다루어지고,<sup>9)</sup> 김준의 <십오만원 사건> 역시 독립자금을 구하기 위해 중국 용정 일본은행에서 십오만원을 훔친 사실을 소재로 하면서도 작가 김준이 당시 연해주에서 소비에트 세력을 위한 빨치산 투쟁을 한 최봉설을 직접 만나서 듣게 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sup>10)</sup> 특히 <십오만원 사건>의 주인공인 최봉설은 흥범도와 마찬가지로 북로군정서 소속이며 흥범도와 같은 연합전선을 구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살고 있는 터전은 다를지라도 최봉설이나 흥범도 같은 영웅은 그들에게 같은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타지에 한민족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sup>11)</sup>

항일 독립운동가에 의한 사상 전이를 다룬 또 다른 작품으로 전동혁의 <뼈자루 칼>과 김기철의 <금각만>을 들 수 있다. 등장인물인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킨 전동혁의 <뼈자루 칼>은 조국전쟁 시 옛 독립투사 우철 아주버니의 칼을 간직하고 있다가 우연한 그와의 재회로 당시의 추억을 되살리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김우철 아주버니를 통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자연스러운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기철의 <금각만><sup>12)</sup>은 직접적인 사상 교육을 통한 소비에트 혁명 사상의 전이를 묘사한

9) 조선농민들의 부지런함으로 일군 삶의 터전이 백위군 기병의 습격으로 훼손되자, 남정네들은 총을 들어 대항하고 몇몇은 불세비키파에 합류하여 소련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는데 힘을 보탠다. 김종희,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 대하여』, 『해외동포문학 : 중앙아시아 고려인 소설 I』, 해외동포문학편찬사업추진위원회. 도서출판 화신문고, 2006, 341쪽.

10) 실제의 최봉설은 1920년 윤준희 등과 함께 조선은행 회령지점에서 용정출장소로 가던 현금수송차를 습격, 현금 15만 원을 탈취한 뒤 이 자금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북로군정서에 제공했다. 그는 일본경찰에 체포되었으나 탈출하여, 연해주에서 대한의용군사회의가 조직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22년 러시아 내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1923년 만주에서 적기단을 조직하고 단장 및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항일무장투쟁을 계속하였으며, 1925년 적기단이 해체되자 러시아로 들어가 카자흐스탄 등지의 집단농장에서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지닌 인물이다. 김준, 『십오만원 사건』, 카자흐 국영 문학예술출판사, 1964.

11) 장사선·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앞의 책, 22-24쪽.

12) ‘금각만’은 블라디보스토크의 군항으로 ‘동방의 옴’이라는 뜻을 가진 부동항이다. 군사상 요지이며 독립운동이 영웅인 흥범도가 군자금을 모으려 등짐을 지며 부두노동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다. 해삼시 신한촌 하바로프스크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1922년 10월 25일 해삼이 일본군의 점령으로부터 해방되기까지의 고려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을 치가 떨리도록 경멸하는 만수라는 인물이 독립운동지사를 만나면서 레닌에 대한 이야기와 소비에트 정권 및 빨치산 운동에 대한 이야기 등을 듣게 되며 의식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사상을 전이하는 주체가 같은 한민족이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의 수용은 더욱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평가받기도 한다.<sup>13)</sup>

살펴본 바와 같이 조명희, 김세일, 김기철, 김준, 전동혁 등과 같은 고려인 작가들은 러시아인과 고려인의 공통의 적인 일본에 대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전력과 내전 시기의 빨치산 활동을 적극 부각시켰다. 당시 고려인 문인들은 문학작품을 통해 자신들이 소련 체제에 적대하는 적성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해야 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체현해야 하는 소명의식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당시 연해주 한인들에게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은 그들의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소련 사회주의 혁명에서 제시했던 이데올로기 역시 식민지 치하의 그들에게 더없는 하나의 이상향으로 환치되어 그들의 힘을 결속시키는 구심체가 되었던 것 역시 주요한 동력이 아닐 수 없었다.

### 3. 고려극장 1세대 극작가 ‘연성용’의 희곡과 고전작품의 각색 및 수용 양상

우리 민족에게 고려극장은 이것이 구소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첫 공연 단체이자 해외극장이라는 문화사적 의의 역시 지니고 있다. 고려극장에 내재된 민족사적 의의는 이곳이 단순히 즐거움을 주기 위한 ‘놀이’로서의 연극이 아니라,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던 지사(志士)들의 삶이나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홍부전> 같은 우리 고전(古典)들을 기억하며 민족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요체였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무엇보다 고려극장의 개척자로 일컬어지는 연성용(1909-1995)의 작품세계에서 두드러진다.

구소련 고려인 문단 혹은 예술인 그룹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그는 수십 곡의 노래 외에도 시, 장편소설, 희곡 등 다양한 장르들을 통해<sup>14)</sup> 우리 말 문학의 모범적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려인 문단의 두드러진 존재라고 할 수 있다. 1909년 원동 라즈돌리노예에서 출생한 연성용은 신한촌이라 불리던 그곳에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신한촌 스탈린 구락부의 무대를 중심으로 연성용과 함께 김진·리함덕·이장송 등 인민배우들, 최봉도·이경희·리길수 등 공훈배우들이 활약했으며, 스탈린 구락부에서 이들을 주축으로 고려극장이 태어난 것은 구소련 고려인 예술계의 일대 사건이었다. 연성용은 18세 학생 시절인 1927년 첫 희곡 <승리자와 사랑>을 소련 원동

13) 장사선·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월인출판사, 27쪽.

14) 림순희, “그대 일생의 멜로지”, 레닌기치 1999, 12, 12, 4면



변장 희곡 현상모집에 출품하여 일등상을 받음으로써 배우도 연출가도 없던 당시 고려인 사회에서 희곡문학의 선구자로 떠올랐고, 배우 및 연출가 혹은 연극의 기획자로도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시점으로부터 많은 희곡작품들을 창작했다.

이렇게 1920~1930년대 연해주의 조선 희곡문학의 기반을 개척했고 무대예술가로 등장한 연성용은 부인 이경희와 함께 온갖 고초를 겪으며 고려인 예술계의 초석을 다졌으며,<sup>15)</sup> 채영과 함께 조선극장을 조직하기도 했다.<sup>16)</sup> 스스로 슬회한 바와 그는 한평생 재소 고려인들의 극예술과 문예 발전을 위하여 일해 온 것이다.<sup>17)</sup> 이처럼 그가 장르를 넘나들면서 창작을 해왔지만, 주업은 고려극장을 발판으로 하던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다.

연성용은 유년시절부터 ‘수천단 일행’의 신파극을 접하면서 연극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3.1 운동 이후 그곳에 들어온 조명희 등 저명한 문사들로부터 문학수업을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sup>18)</sup> 1929년 학교 졸업 후 쓰코토프에 가서 교편을 잡던 시절과 노동청년 드라마 극장 및 원동변강 조선극장이 창립된 1930-1932년의 활동을 계기로 그는 본격적인 극예술의 길로 접어들어 자신들만의 세계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연극은 신파극에서 출발했고, 고려극장이 창건되면서 채영, 최길춘, 리길수 등과 함께 비로서 제대로 된 근대극을 무대에 올리기 시작했으며, 모스크바의 선진 극장들로부터 배워 온 사실주의적 연극 기법을 고려극장의 미학으로 정착시켰다는 사실 등은 자신의 회상록 <산들매를 즐라매며>에서 밝힌 내용이다.

고려극장의 공연목록에 올라 있는 연성용의 작품은 <붉은 수레>(1933), <장평동의 햇불>(1933), <풍파를 지나>(1936), <올림피크>(1936), <춘향전>(1940/1969), <불타는 조선>(1951), <정애>(1960), <창곡이와 흥란이>(1961), <붉은 적삼>(1963), <양산백>(1964), <지옥의 종소리>(1982) 등이며, 이 가운데 <춘향전>(1940) [채영 연출], <창곡이와 흥란>, <지옥의 종소리>, <양산백> 등 고전을 각색했거나 재창작한 작품들이 뚜렷한 하나의 줄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민족의 고전을 현실에 맞게 변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전으로부터 소재를 차용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고국에서 태어나 디아스포라를 겪은 사람들의 민족의식과 고국 바깥인 연해주에서 태어난 연성용의 그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가 익숙해 있었을 우리의 고전을 희곡작품으로 변용한 의도나 의미는 간단히 앓다고 할 수 있다.

연성용이 비록 연해주에서 출생하긴 했으나, 그가 보낸 유소년 및 청년기의 그곳이 민족의식을 지닌 지식인들이 모여들어 조국의 어느 지방보다 ‘조선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가 지니고 있던 민족의식의 본질은 거의 변이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표면상 달라진 것처럼 보인 것

15) 연성용의 초기 활동에 관한 사실은 정상진, <아무르 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 지식산업사, 2005, 213-226쪽 참조.

16) 정상진, “작가의 초상화”, <행복의 노래>(연성용 작품집), 알마아따 사수식 출판사, 1983, 7쪽.

17) 연성용, <산들매를 즐라매며>(연성용 회상록),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3, 6쪽.

18) 연성용, <산들매를 즐라매며>(연성용 회상록), 10-15쪽.

은 체제의 변화나 그로부터 유발된 현실적 반응들이었을 뿐, 그의 내면은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외부의 자극에 대한 그런 반응은 작품에도 그대로 나타나 조선 고유의 정서나 문화, 전통 등이 그곳의 체제에 맞추어 접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그런 점이야말로 연성용의 현실대응의 방식을 암시하는 단서로 이해될 수 있다.<sup>19)</sup>

그렇다면 연성용은 어떤 경로로 고전을 접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재해석하여 작품화했을까. 고전으로부터 소재나 제재를 취하여 자신들의 미학이나 목적에 맞게 변이시켰느냐 여부가 희곡이나 연극의 성공을 가늠하는 지표였다는 점을 감안하며, 그의 고전 소재 희곡들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세계를 추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가 남긴 것으로 되어 있는 고전 소재 희곡작품은 <춘향전>, <창곡이와 홍란>, <지옥의 종소리>, <양산백> 등이다. 연성용은 <춘향전>을 27세 때인 1936년에 창작한 것으로 밝혔으며,<sup>20)</sup> 강제이주 이후 두 차례(1940/1969) 더 공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그 작품의 내용을 확인할 방도는 없다.

그런데 그의 회상록에는 <춘향전>의 기획, 희곡창작 및 상연에 관련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고전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일이 매우 어려웠던 당시 신한촌을 방문한 리종림이 <춘향전>을 무대에 올릴 것을 제의했다 한다. 그는 당시 조선 문예에 박식했으나, 극단 단원들 가운데 아무도 조선의 고전작품, 특히 <춘향전>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유로 극단에서는 리종림에게 희곡창작을 청했으나 자신은 극작가가 아니므로 희곡은 쓸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 대신 그가 조선의 광대들이 관중 앞에서 연기하던 것을 본대로 기억나는 대로 세 권 분량의 공책에 적어 준 기록과 그곳에서 어렵게 얻은 <옥중화>를 바탕으로 희곡을 창작하게 된 것이다.

<옥중화>는 판소리 명창 박기홍(朴起弘)의 “춘향가” 사설을 이해조(李海朝)가 개작한 신소설로서 개화기 대중들에게 ‘춘향전 서사’를 각인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작품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춘향서사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춘향서사 전승의 계보로부터는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성용이 비록 리종림으로부터 춘향전 공연의 목격담을 들었으면서도 <옥중화>를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는 것은 그가 수용한 춘향서사가 전통적인 그것으로부터 많이 벗어났음을 암시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런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성용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동아일보”에 발표된 “춘향전” 관련 논문들과 우리나라 역사를 일오 현지의 지식인들과 많은 토론을 가졌으며, 희곡 창작 후에는 봉건사회의 풍습이나 예절, 언어, 행동 등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다. <춘향전>과 관련하여 전 연해주에 광고함으로써 이 작품을 잘 아는 많은 예능인들이 극장을 찾아와 노래와 춤을 가르쳐주었고, 고국을 떠나 갓 들어온 사람들로부터는 언어와 행동 또한 배웠다고 했다.

1936년 신한촌 구락부에서 초연된 <춘향전>은 그곳에서도 50회 넘게 공연을 했고, 중앙아시아까지 합치면 60여회가 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이 작품의 연출은 모두 연성용이 도맡다시피

19) 조규익, 『C I S 지역 고려인사회 소인예술단과 전문예술단의 한글문학』, 태학사. 2013, 209쪽.

20) 연성용, <신들메를 줄라 매며>, 61쪽.

한 것을 보면<sup>21)</sup> 그가 고전에 대한 가장 뛰어난 안목이나 감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관련되는 대중의 미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성용의 이러한 노력은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일제강점기에 손상된 민족의식 복원의 우회적 저항방식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 4. 극작가 ‘태장춘’의 희곡과 연극 미학 관점에서 본 역사 수용양상

러시아 연해주 재피거우 마을에서 출생한 태장춘(1911-1960)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15세부터 블라디보스토크의 공장 등 많은 일터를 전전하며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1931년 해삼어업대학 노동학원을 졸업한 뒤 1932년 조선극장 창설 당시부터 희곡작가로서 극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sup>22)</sup> 그는 21살 나던 해 상연된 “기근의 들판”(원동 노동청년극장)에서 주역을 맡아 호평을 받을 정도로 연극에 천부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노동청년극장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을 모태로 1932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창립된 고려극장에서 그는 리함덕, 리길수, 연성용, 이정림, 채영 등과 함께 극작가로 활약했다.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와 함께 고려극장 역시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로 옮겨졌고, 그 후 ‘크즐오르다→우쉬또베→크즐오르다→알마티’로 이주를 계속하는 동안 태장춘은 시종일관 고려극장의 핵심적 인물로 활약했으며, 소련 고려인 문학의 선구자 대열에 자리잡게 되었다.<sup>23)</sup>

그 과정에서 그는 주목할만한 희곡작품들을 창작하여 고려극장에서 상연했는데, <밭지경>(1934/ 채영 연출), <신 철산>(1935/ 채영 연출), <우승기>(1937/ 채영 연출), <종들>(1937-1948/ 최길순 연출), <행복한 사람들>(1938/ 최길춘 연출), <홍범도><sup>24)</sup>(1942/최길춘 연출, 1947(리길수 연출), 1957(채영 연출), <생명수>(1945/ 채영 연출), <홍부와 놀부>(1946-1956(채영 연출), 1970(연성용 연출), 1986(송 라브렌찌 연출), <해방된 땅에서>(1948/리길수 연출), <삼팔선 이남에서>(1950(채영 연출), 1981(김 이오시프 연출) 등이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당시 실존했던 인물을 ‘영웅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관점에서 그려낸 홍범도는 일제 시대였던 당시 디아스포라 작가로서 태장춘이 갖고 있던 의식과 함께 당대 고려인 문단의 기대지평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깊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실제의 홍범도는 김세일의 역사기록소설 <홍범도>에서도 세밀히 묘사되어 있다.<sup>25)</sup> 이 작품은

21) 연성용, <신들메를 줄라 매며>, 62-64쪽.

22)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4, 96쪽.

23) 정상진, <아무르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 211-212쪽.

24) 발표 당시의 제목은 ‘의병들’이었고, 홍범도 사후 ‘홍범도’로 개제되었음.

25) 실제의 홍범도는 1910년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양성에 전력했고 다음 해 부하 박영신으로 하여금 함북의 수비대를 습격하게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19년에는 대한독립군의 총사령이 되어 약 400명의 독립군으로 1개 부대를 편성하고 국내에 잠입했으며, 700여명의 독립군을 지휘하며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120여명을 사살하는 등 그때까지의

중양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후 집필된 것이긴 하지만, 독립운동사의 주요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는 역사 자료인 동시에 고려인 문학사에 있어서도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긴 장편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항일독립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정신의 연계성은 이 소설을 레닌 예찬론자였던 김세일이 공산주의 교육매체인 <레닌기치>에 발표했다라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 소설 내용으로 홍범도가 투사의 대표로 레닌을 만나고 돌아오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 역시 이에 대한 또 다른 방증이다.

홍범도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한 기록 <홍범도 일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그것이 연극 <홍범도>의 1차 자료가 되었다. ‘함경도 지방에서의 의병 항쟁기’가 홍범도의 이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시기였는데, 희곡 <홍범도>는 그 부분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실존인물로서의 홍범도는 출신성분으로 보아 미미했으면서도 항일투쟁에서 비범한 면모를 보여 준 ‘전설적 존재’인데, 이 점은 ‘미천하면서도 비범하다는 중세시대 건국영웅들의 이중성’과도 연결되는 특징일 수 있다. 특히 작가인 태장춘이 주인공인 홍범도를 대면하여 그로부터 직접 구술을 받아냈고, 작품의 구성이나 내용의 조직에 관한 그의 주문을 성실히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sup>26)</sup> 사실(史實)에 충실한 희곡의 모범적 선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라 할 만하다.

연극에서는 홍범도의 가족(부인, 두 아들)은 물론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실존인물들이라는 점은 무엇보다 극 내용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점이다. 특히 의병대장 홍범도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일본군 헌병대장 야마도와 일진회의 괴수 원홍·재덕 등이 홍범도의 가족을 이용하여 홍범도를 귀순시키려 한 사실이 들어있다.<sup>27)</sup> 희곡 <홍범도>는 원래 3부작(농민 두목 홍범도의 자연적, 무의식적 투쟁을 그려낸 현재의 <홍범도>가 1부작이고, 불세비키의 영향 아래 붉은 빨치산의 지휘자가 되는 것을 2부작으로, 레닌과의 만남 이후에 이상적이며 분명한 혁명가이자 국제주의자가 되는 것을 3부작으로 하고자 했음)으로 기획되었는데, 그의 때 이른 죽음으로 실현되지 못했다.<sup>28)</sup>

작가인 태장춘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화, 디아스포라의 고단한 삶 등을 직접 겪었고, 그것들을 통해 뚜렷한 이념이나 의식을 지니게 되었으며, 문학 특히 연극을 통해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홍범도>를 기획하던 단계부터 실제 인물 홍범도로부터 많은 간섭을 받았는

---

독립군이 올린 전과 중 최대의 승전을 기록하였다. 그는 CIS지역에서 레닌 정부의 협조를 얻어 고려혁명군관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활약을 하였고, 항일독립운동의 전설적 영웅으로서 고려인들에게는 이상으로 추앙된다. 소설 <홍범도>는 김세일에 의해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레닌기치>에 연재되었는데, 국내에서는 1989년 고송무에 의해 전5권으로 서울 제3문학사에서 발간된 바 있고, 신문학사에서도 3권으로 발행되었다.

26) 홍범도는 극작가 태장춘에서 이 희곡이 자기와 같이 전투를 치렀던 동지들에게 더 많은 주안점을 둘 것을 항상 주장했으며, 정확한 사실만을 쓰도록 하고, 거기에 어떤 예술적 상상을 가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태장춘의 아내인 리함덕의 회상에 의하면 ‘태장춘이 흥미로운 희곡의 전개를 위해 사건을 조금만 변형하자고 제안했을 때 조차 홍범도는 화를 내면서 어떤 희곡적 상상도 거짓으로 여기고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И. Ким, *Совет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Алма-Ата: ©Издательство <Өнер>, 1982, с.35.

27) “홍범도 장군에 관한 논쟁 사례” <한국연극> 155,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1989, 4, 26쪽.

28) И. Ким, *Совет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Алма-Ата: ©Издательство <Өнер>, 1982, с. 37.

데, 그것이 사실은 작가에게 일종의 족쇄로 작용했다. 홍범도의 행적으로부터 극적 즐거움을 만들어내기 위해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작품 전체가 한 편의 전기(傳記)나 소설의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태장춘은 원래 3부작으로 홍범도의 생애를 그려낼 생각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이른 죽음으로 1부작인 <홍범도>(원래의 제목은 ‘의병들’이었으나, 홍범도 사후 ‘홍범도’로 변경)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홍범도>가 창작된 1942년은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한창이었고, 홍범도가 대적하여 싸운 일본은 독일의 동맹국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이 작품이 각광받을 만한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었다. 당시 <홍범도>는 희곡 미학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중론에도 불구하고 역사 사실의 충실한 반영이나 재현에 성공적이었다. 다시 말해 홍범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무대 위에서 충실히 재현함으로써 애국심이라는 메시지의 전달을 사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sup>29)</sup>

<홍범도>는 몇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희곡이나 연극의 관습적 성향을 벗어난다. 우선 연극 <홍범도>는 살아있는 주인공과 작가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체험을 작품화시켰다는 점에서 작품 자체가 실화극 내지는 역사극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 홍범도는 일본군을 대상으로 의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그로 인해 민중들 사이에 ‘전설적 영웅’으로 자리를 잡은 존재였으나, 주인공의 영웅성을 과장하기 말고 주변 인물들의 활약을 부각시켜 달라는 홍범도 자신의 주문을 이행한 작가는 자신의 상상력을 최소화시키고, 작품의 사실성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실존하던 주인공의 강한 주문에 따라 철저한 사실성의 구현을 지향했으면서도, ‘전설적 영웅’이자 ‘호랑이 잡던 백두산 포수’라는 홍범도의 이미지를 이야기 전개와 미학적 요소로 드러나지 않게 군데군데 삽입함으로써 관객이나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당시 소련의 고려인 예술계에서 <홍범도>가 이룩한 사실주의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성실히 부응한 연극미학의 모범적 선례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연극 <홍범도>를 위시한 당시의 연극 기법은 홍범도가 연극에서 자신의 모습을 결코 과장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만을 쓸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주변의 인물들을 부각시켜 달라고 주문한 사실은 한 발 앞서 나간 리얼리즘이 당대 연극미학의 주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초창기 고려극장의 희곡작가들이나 연출가들이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창립자인 스파니슬랍스키의 이론을 수용한 단서를 보여주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소련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의 연극기법이 고려극장의 연극미학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배우의 외면 연기(제스처, 음성, 동작의 리듬 등)’을 자연스러우면서도 설득력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배우는 자신이 맡은 등장인물의 내적 진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즉 등장인물의 가시적인 부분을 완전히 파악했다 해도 깊은 확신과 신념이 없으면 연기가 피상적이고 기계적으로 보인다는 것), 배우는 무대 위에 드러나는

29) 조규익, 『CIS 지역 고려인사회 소인예술단과 전문예술단의 한글문학』, 태학사, 2013, 270 쪽.

인물의 삶을 실생활에서처럼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 같은 장면에 등장하는 다른 연기자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sup>30)</sup>은 스타니슬랍스키가 강조한 점인데, 고전극에서 소외되었던 ‘동시대의 삶이나 현실 사회의 모든 것들’ 즉 심적 태도·물리적 배경·물질적 조건 등을 재현하는 작업은 당시 리얼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

30) 에드윈 윌슨, 채윤미 옮김, 『연극의 이해』, 예니, 1998, 86쪽.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공시성과 통시성

### 제1분과 문학분과

문학분과C (학문 후속세대 특별세션) :

### 러시아문학연구의 새로운 시선들

사회: 석영중 (고려대)

- ▶ 도스토옙스키와 자살: <악령>의 스타브로킨을 중심으로 ..... 67
  - 발표: 박지원 (고려대 석사과정)
  - 토론: 심성보 (건국대)
  
- ▶ 베르토프의 '연결'의 미학: <카메라를 든 사나이>를 중심으로 ..... 73
  - 발표: 김다솜 (한국외대 석사과정)
  - 토론: 이희원 (상명대)
  
- ▶ 도스토옙스키와 사형제도: <백치>의 사형수 이야기 ..... 79
  - 발표: 이선영 (고려대 박사과정)
  - 토론: 조혜경 (대구대)
  
- ▶ 소비에트 아포크리파의 구원서사: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속  
마르가리타와 성모 마리아 비교 ..... 85
  - 발표: 한연서 (연세대 박사과정)
  - 토론: 손재은 (고려대)





# 도스토옙스키와 자살

## : 『악령』의 스타브로킨을 중심으로

박지원 (고려대 석사과정)

### 1. 서론

도스토옙스키(Ф. Достоевский)는 19세기 중반 러시아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자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정교신자인 작가에게 있어 자살은 신이 부여한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당대 사회에 만연해 있던 허무주의는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허무주의적 자살에 대한 작가의 고찰은 『악령』에서 두드러진다.

『악령』의 스타브로킨은 허무주의적 자살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 그는 허무주의의 극단에선 인물이다. 그의 허무주의에 기인하는 힘은 파괴적인 속성을 띠며, 모든 인물과 사건의 구심점을 이룬다. 즉, 스타브로킨이 소설의 온갖 비극을 초래한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인물들을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궁극에 이르러 파멸로 몰아간다.

그러나 스타브로킨은 자신의 힘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한다. 그는 허무주의에 ‘홀려’ 있기 때문이다. 허무주의의 힘은 스타브로킨을 파괴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로 인한 스타브로킨의 자살은 허무주의에 ‘홀린’ 인간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간주된다. 본 발표문에서는 스타브로킨이 허무주의에 ‘홀려’ 파국을 향하는 한편으로, 그 ‘홀림’에 동요하는 사례에 주목하였다. 스타브로킨의 정신적 방황이 어떻게 자살로 귀결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자살이 지니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 2. 본론

서론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스타브로킨의 힘은 허무주의에 근거한다. 허무주의는 모든 기성 가

치를 부정하므로 신 또한 부정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신을 부정한다면 살인이나 자살을 포함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Paperno 1997, 125). 스타브로킨은 신을 부정하며 스스로 신이 되는 모순을 안고, 자신의 ‘무한한’(10: 514)<sup>1)</sup> 힘으로 사람들을 시험한다. 그가 “사람들이 진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인다면이라도, 자신은 진리보다 차라리 그리스도 곁에 머무는 쪽을 택했을 것”(10: 198)이라고<sup>2)</sup> 한 말은 자신의 사상이 아니라, 샤토프에게 종교적 사상을 심어보려는 시험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타브로킨에 대한 마리아의 ‘참칭자’(10: 219)라는 표현은 적절하다. 참칭자인 스타브로킨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며, 살인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자살을 생각한다.

스타브로킨은 자살을 행하지 않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자기 자신 대신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고, 둘째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스타브로킨의 파괴적인 힘이 대상을 달리할 뿐, 변함없이 세를 과시한다. 이 힘이 스타브로킨의 주변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가 삶을 지속하는 한 다른 사람들은 외적, 내적으로 파괴당한다. 그중 마리아는 스타브로킨의 한계를 드러내는 인물로 등장한다.

나는 벌써 1년쯤 전부터 권총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뭔가 더 좋은 게 떠올랐다. 한번은, 빈민굴에서 종노릇을 하기도 했던 절름발이 마리아 티모페예브나 레바드키나, 그때까지는 아예 실성한 건 아니고 남몰래(우리 쪽은 이를 알아채고 있었다) 나한테 푹 빠져서 그저 환희에 넘치던 바보 같은 그 여자를 보고, 나는 갑자기 그녀와 결혼하기로 다짐했다. (11: 20)

스타브로킨은 자살보다도 마리아를 농락하는 결혼을 더 좋은 선택으로 여긴다. 이는 ‘더 추악한’(11: 20) 행동을 하기 위함이다. 마리아라는 나약한 여성은 스타브로킨이 그 목적을 이루기에 알맞은 희생양이 된다. 그리고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유로지비인 마리아에<sup>3)</sup> 대한 그의 농락은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유로지비로서 마리아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존재를 ‘나의 공작님’(10: 218)이라 암시한다. 스타브로킨은 마리아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자신을 따르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경악하고,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스타브로킨이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을 깰 수 없는 반면, 마리아는 힘에 대한 스타브로킨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스트라우스의 지적은 타당하다(Straus 1994, 281). 스타브로킨은 마리아 살해를 사주함으로써 자신이 내적으로는 파괴할 수 없었던 대상을 외적으로 파괴하는데,

- 
- 1) 이하 『악령』 텍스트의 인용은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1972-1990)에 준하며 인용 시 권수와 면수만을 표기한다.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 2) 이 대목은 도스토옙스키가 1854년, 폰비지나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된 바 있다. 작가가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전개시킨 것과 달리, 스타브로킨은 시험을 명분으로 장난을 하고 있다(석영중 2002, 204).
  - 3) 도스토옙스키는 마리아에게 ‘성모’를 뜻하는 이름과 유로지비의 형상을 부여한다. 『악령』의 창작노트에서 그녀는 ‘유로지비’라 직접 지칭된다(Dostoevsky 1968, 324).

이때 마리아의 비웃음을 피해 도망가는 행동은 그가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식과 연관된다.

스타브로킨은 비웃음과 권태를 특히 못 견뎌 하며, 이를 피해 돌아다니는 경향을 보인다. 자살을 암시하는 키릴로프와의 대화에서 그는 ‘자살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자신이 비웃음을 사게 될 시에 권총 자살로 상황을 벗어나리라 생각했던 과거를 고백한다. 그때 그가 떠올린 ‘완전히 새로운 생각’(10: 187)은 공간의 이동이었다.

“당신이 달에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스타브로킨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가로막으며 자신의 생각을 계속 말했다.

“당신이 거기서 온갖 우스꽝스런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당신은 달이 온전한 한 그 곳에서 천년동안 영원히 당신을 비웃고 당신 이름에 침을 뱉으리라는 걸 여기서도 분명 아실 테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여기서 달을 바라만 볼 뿐입니다. 당신이 거기서 무슨 짓거리를 했든, 그쪽 사람들이 천년동안 당신에게 침을 뱉든 간에 그게 당신에게 무슨 문제나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0: 187)

스타브로킨이 비웃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수도사 치훈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치훈이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지 못하는 스타브로킨의 성격을 간파하자, 스타브로킨은 불안해한다. 그가 두려워하는 비웃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물리적 이동으로 회피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권태는 스타브로킨의 내면적인 문제, 즉 그의 허무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그는 권태를 이기지 못해 끊임없이 돌아다닌다. 그가 어린 마트료샤를 유린하고, 그녀가 자살하자 페테르부르크를 떠나는 이유는 그곳에서의 삶이 ‘지겨워졌기’(11: 20)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마리아와의 결혼 이후에 ‘참을 수 없는’(11: 20) 기분을 전환하려 혼자 동방과 유럽 등지로 옮겨 다닌다. 그의 방랑에 따라 곳곳에서 그의 파괴적인 힘이 시험되는 동시에, 그 힘이 파괴할 수 있는 최후의 존재인 스타브로킨은 삶의 권태를 극복하려 한다. 따라서 그의 이동은 허무에 대한 동요와 맥락을 같이한다.

스타브로킨이 지나간 방랑 끝에 자신과 함께 떠날 사람을 구하는 행동 또한 그의 동요를 드러낸다. 독립적으로 곳곳을 전전하던 과거와 달리, 그는 마리아를 비롯하여 리자와 다리야에게 새로운 곳에서 남은 삶을 함께 하자고 차례로 제안한다. 그가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한 곳에 정착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의 내적 변화가 감지된다.

스타브로킨의 제안을 받는 세 여성 인물은 모두 그의 가면 같은 얼굴에 성적 끌림을 느낀다 (Straus 1994, 279). 이러한 감정을 이용하여 스타브로킨은 사랑을 느끼는 연인처럼 마리아와 리자에게 함께 떠나자는 제안을 하나, 거짓된 마음을 들키고 거절당한다. 이때 마리아는 스타브로킨을 비웃으며 그의 분노를 사고, 결국 그의 사주로 인해 살해되는 비극을 맞는다. 그리고 리자는 ‘최후의 희망’(10: 402)을 운운하는 스타브로킨이 ‘간호부’(10: 402)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다.

스타브로긴이 마리아를 ‘간호부’로 두려고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마리아를 ‘최하의 인간’(11: 20)으로 취급하여 농락하려는 목적으로 그녀와 결혼한데다, 함께 살려는 스위스 산간 벽지에서 그녀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스타브로긴은 마리아를 함께 사는 존재, 혹은 시험의 대상 정도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타브로긴은 리자에게는 ‘간호부’의 역할을 기대하며 여느 때와 다른 간절함을 내보인다.

“만일 네가 지금 나의 이 불가능한 진실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리자, 만일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열어 보일 수만 있다면.....” (10: 401)

리자는 스타브로긴이 마음을 열어 보인다면 평생 그를 비웃으리라 경고하고, 스타브로긴은 절망적인 모습으로 자신이 ‘최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최후의 희망’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는다. 다만 스타브로긴이 리자에게서 갑자기 희망의 ‘빛’을 보고, ‘엄청난 행복’(10: 399)을 느꼈다는 대목에서, ‘최후의 희망’은 스타브로긴의 구원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리자가 스타브로긴의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그의 구원 가능성은 사라진다. 그녀는 스타브로긴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리자의 죽음 이후, 다리야에게 자신의 ‘간호부’로서 함께 떠나줄 것을 제안한다. 그는 그녀와 스위스의 산간 벽지에서 살아가려하며, 그곳에서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는 ‘간호부’로서의 다리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스위스의 산간 벽지라는 장소는 그가 마리아에게 제안한 곳이기도 하다. 스타브로긴의 표현에 따르면 그곳은 ‘아주 지루한 곳’(10: 513)이다. 권태를 견디지 못하는 스타브로긴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그가 그곳을 선택한 것은 허무주의에 ‘홀린’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브로긴은 리자에게 함께 떠날 것을 제안하면서도, 어디로 떠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그의 제안에 리자는 모스크바로 가자고 말하기도 했으나, 어디로 가든 그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녀는 스타브로긴을 산간 벽지, 즉 허무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울 수 있는 ‘간호부’였음이 분명하다.

스타브로긴의 허무는 그를 자살로 이끌면서 최종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의 자살은 구원가능성을 상실한 인간의 허무주의적 자살로 요약된다. 따라서 이 허무주의적 자살은 비단 허무주의에 ‘홀린’ 인간의 순응이 아니라, 그 ‘홀린’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한 비극이다.

니콜라이 프세볼로도비치가 자신의 목을 매다는데 쓴 튼튼한 비단 줄은 일찍이 장만하여 골라 둔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비누가 번드르르하게 문질러져 있었다. 모든 것이 미리 계획했던 일이라는 점과 최후의 순간까지도 의식이 있었다는 점을 의미했다.

우리 의료진은 부검을 한 뒤, 광기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완강하게 부인했다. (10: 516)

스타브로킨의 자살이 완전히 의식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은 의료진에 의해 확인된다.<sup>4)</sup> 스타브로킨은 자살을 계획하며 다른 추악한 행위나 새로운 삶의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자살했다. 그는 스스로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자살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스타브로킨이 이전까지 ‘권총 자살’을 재차 생각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그가 실제로 행한 자살 방법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스타브로킨이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표지라 간주된다. 스타브로킨의 의식은 허무주의에 굴복하여 자살을 선택했다. 허무를 떨치지 못한 스타브로킨의 비극은 그의 자살로 절정에 이른다.

### 3. 결론

도스토옙스키는 스타브로킨에 대해 ‘비극적인 인물’이라 칭한 바 있다.<sup>5)</sup> 주지하다시피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비극적인 인물은 ‘분열된’ 인격을 가진다. 스타브로킨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두고 분열되어 있다. 그의 허무주의에 ‘홀린’ 자아는 그를 자살로 이끈다. 그러나 자살 의지에 반하는 자아의 존재는 그의 비극을 증명한다.

스타브로킨은 자살하지 않기 위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딘가로 떠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허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켰으며, 무한한 권태를 극복하지 못했다. 리자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부각되었으나, 그의 허무주의에 희생당한다. 이에 따라 허무주의로 점철된 스타브로킨의 삶은 상당히 비극적이다. 그는 자신에게 내재한 허무를 이기려 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의 자살은 허무에 대한 패배를 의미한다. 스타브로킨은 허무주의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의지를 보여주며 자신의 비극을 심화시킨다.

4) 인용한 대목의 마지막 문장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자살을 정신의학적 현상으로 간주하던 당대 의료계와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석된다(Morrissey 2015, 132).

5) 1870년 10월 8일, 도스토옙스키는 카트코프에게 쓴 편지에서 “이 다른 인물(니콜라이 스타브로킨) 또한 음울한 인간이고 악한이지만, 나는 이 인물이 비극적인 인간인 거 같소.” 라고 말한다(모츨스키 2000, 607).

## 참고문헌

모츨스키, 콘스탄틴. 『도스토예프스키 2』. 김현태 역. 서울: 책세상, 2000.

석영중.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에 나타난 케노시스와 신화(神化).” 『슬라브학보』 17(2) 195-214쪽, 2002.

Ф. М. Достоевский.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30 томах*, Л.: Наука, 1974. Том. 10, 11.

Dostoevsky, F. *The notebooks for The Possessed*.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68.

Morrissey, S. “Suicide.” *Dostoevsky in Context*. Ed. D, Martinsen, O. Mairova. pp. 131-138.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15.

Paperno, I. "Dostoevsky's Fiction: The Metaphysics of Suicide." *Suicide as a Cultural Institution in Dostoevsky's Russia*. New York: Cornell Univ. Press, 1997.

Straus, N. “Every Woman Loves a Nihilist: Stavrogin and Women in Dostoevsky's “The Possessed”.” *Novel: A Forum on Fiction*. Vol. 27, No. 3, pp. 271-286, 1994.

# 베르토프의 ‘연결’의 미학 : <카메라를 든 사나이>를 중심으로

김다솜 (한국외대 석사과정)

## 들어가며

베르토프 영화 이론은 ‘있는 그대로의 삶 *жизнь, как она есть*’, ‘부지불식간의 삶 *жизнь врасплох*’, ‘영화-눈 *киноглаз*’, ‘간격’ 등의 여러 주제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현실의 ‘포착’과 ‘구축’ 혹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객관’과 ‘주관’의 모순은 베르토프 이론 연구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진 주제 중 하나이다.<sup>1)</sup> 본고는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연결 *связь*’이라는 키워드가 베르토프 영화 제작진의 구성과 영화 제작 및 수용의 전 과정에 핵심적인 원리로 작동함을 입증하면서 베르토프의 이론 및 실체가 모순 없이 일관적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이려고 한다. 특히 베르토프 영화의 수용 과정에서의 ‘연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베르토프의 영화적 현실이 일상적 현실과의 순환적 영향 관계 속에서 전세계 프롤레타리아의 초국가적 유대라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달성하려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영화 제작 주체간의 연결

영화 제작 및 수용 과정을 논하기에 앞서 베르토프의 영화를 만드는 주체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육안은 보지 못하는 진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포착해내는 영화-눈에 대해 베르토프 스스로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베르토프의 영화 제작 주체에 관해 논할 때 기계는 인간보다도 더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베르토프 영화 이론의 영화적 입증에 해당하는 <카메라를 든 사나이>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베르토프의 영화적 현실은 기계와 인간의 결합과

1) 베르토프의 이론에서 촬영은 키노크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띠는 한편(“있는 그대로의 삶” 촬영 편집은 그와 반대로 키노크의 적극적인 개입(쇼트의 선별과 연결, 다양한 영화적 효과의 사용 등)을 허용하는 ‘주관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일견 비쳐진다. 한 사람의 이론에서 두 가지 상충되는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며, 베르토프 자신이 이를 ‘모순’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은 연구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협업으로 구현된다.<sup>2)</sup> 그리고 이때 ‘인간’은 평범한 영화인이 아니라 베르토프의 특별한 영화인 공동체인 키노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키노크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그의 영화적 현실을 구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특별히 임명된 집단이다. 삼인회는 키노크의 최고 기관으로, 베르토프와 카우프만<sup>3)</sup>, 스빌로바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일한 구상과 목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며, 영화를 제작하는 집단적 경험을 거듭함으로써 단합된다.<sup>4)</sup> 또한 키노크의 구성원은 모두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감독을 포함한 키노크 구성원 각각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동등하게 인정받는다.<sup>5)</sup>

### 영화적 현실의 시각적 연결

베르토프의 영화 제작 과정 또한 일반적인 극영화 제작 과정과 완전히 구별된다. 극영화가 감독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촬영과 편집으로 만들어진다면, 베르토프의 영화는 시나리오 없이 관찰과 촬영, 그리고 편집을 거쳐 제작된다. 이때 주목할 점은 베르토프의 영화가 제작 과정에 있어서 편집은 촬영 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이 아니라 영화 제작의 전반에 걸쳐있는 핵심적인 작업이라는 사실이다. 베르토프는 편집 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관찰 중의 편집 2. 관찰 후의 편집 3. 촬영 중의 편집 4. 촬영 후의 편집 5. 눈대중(몽타주 조각 사냥) 6. 최종 편집.<sup>6)</sup> 1단계에 해당하는 1과 2에서는 주제 구상이 이루어지고, 2단계에 포함되는 3의 과정에서는 촬영 계획의 구상과 실천이 이뤄진다. 4-6의 과정은 3단계로, 일반적인 의미의 편집 작업이 진행된다.<sup>7)</sup>

“있는 그대로의 삶”의 촬영과 일상적 사실의 조직에 대한 베르토프의 강조는 키노크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객관적인 작업과 키노크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주관적인 작업의 양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널리 여겨져 왔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모순으로 규정하고 설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인간의 주관은 동일한 이데올로기와 영화적 구상으로 무장된 삼인회를 통해 베르토프의 영화 제작의 전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베르토프의 영화 제작 과정에서 객관과 주관은 각 촬영 단계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2) Вертов, Дзига. Дробашенко, Сергей (ред.) Киноки. перевод. Дзига Вертов: статьи, дневники, замыслы. Москва: Искусство. 1966. ст. 56. (이하 글의 제목 및 쪽수만 표기); 스텐베르크 형제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 포스터와 <카메라를 든 사나이>를 대표하는 유명한 스틸컷들을 떠올려 보라. 인간의 신체와 기계의 일부가 조합된 이미지, 특히 ‘Человек с киноаппаратом’이라는 원제에 의하면 영화 제작의 주체는 촬영기사 카우프만에 한정되지 않고 ‘영화기기’를 다루는 ‘인간’, 즉 편집기사, 감독 등을 모두 포함하는 키노크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다.

3) 베르토프의 본명이 다비드 카우프만이지만 본고에서는 다비드 카우프만을 베르토프로 지칭하고, 그의 동생이자 촬영기사인 미하일 카우프만을 카우프만이라 지칭한다.

4) О фильме «Киноглаз». ст. 69;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творческой лаборатории. ст. 148; Из записных книжек и дневников. ст. 217

5)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опытной киностанции. ст. 59; Из записных книжек и дневников. ст. 265.

6) Киноглаз. ст. 97.

7) От «киноглаз» к «радиоглазу». ст. 113-114.



작용하는 것이다.

베르토프는 영화 촬영 전 육안으로 삶을 관찰하며 영화의 주제들을 구상하고, 카우프만은 대상의 속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는다.<sup>8)</sup> 그의 역할은 단순한 사실의 채집이 아니라 일상적 현실에서 영화-진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영상에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우프만은 대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찰나에, 혹은 그의 주의를 분산시켜 촬영하는 방식 등을 이용하여 “부지불식간의 삶”, “있는 그대로의 삶”을 포착한다.<sup>9)</sup> 카우프만에 의해 모인 푸티지들은 스빌로바의 손을 거쳐 하나의 “유기적 전체”, 탈바꿈한다.<sup>10)</sup> 각각의 쇼트들은 “유기적 상호작용에 진입하여 서로를 풍부하게 하고, 힘을 결합하여 집단적 신체를 형성한다.”<sup>11)</sup>

이러한 베르토프의 영화적 현실에는 대상 및 주제 간의 ‘연결’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up>12)</sup> 가령,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편집을 통해 석탄 채굴, 공장(기계)의 가동, 여러 생산 공정과 그것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시각적 연결’을 보여준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 결혼과 이혼, 노동과 휴식과 같은 주제들 또한 서로 결합하며 평범한 프롤레타리아의 생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베르토프의 영화적 현실이 노동자 관객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시각적 연결은 그가 자신이 개입된 생산과정을 거시적으로 목격하고, 생산수단이 부르주아가 아닌 온전히 프롤레타리아의 것임을 확인시켜준다.<sup>13)</sup> 베르토프 영화의 수용적 측면에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관객의 연결

삼인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세계에 대한 영화-감각киноощущение을 창출하는 일이다.<sup>14)</sup> 영화-감각은 일상적 현실에 대한 육안의 관찰과 영화-눈의 관찰 및 촬영, 그리고 푸티지의 조직을 통해 발생한다.<sup>15)</sup> 삼인회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프롤레타리아 관객이 조직적으로 전세계와 각지의 프롤레타리아를 ‘사실대로’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창구(영화적 현실)를 마련한다. 그것은 마치 관객들이 개안하게 만드는 것과도 같다.<sup>16)</sup>

8) 베르토프는 진짜 사과와 모조 사과와 촬영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지적하며 능력 있는 촬영기사는 둘을 구별할 수 없게 촬영하는 이가 아니라,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알아챌 수 있도록 촬영하는 이라고 주장한다 (Из записных книжек и дневников. ст. 198.).

9) Из истории киноков. ст. 120.

10) От «киноглаз» к «радиоглазу». ст. 109

11) Из записных книжек и дневников. ст. 267.

12) 포레는 이를 ‘메타바이오시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Devin Fore, “The Metabiotic State: Dziga Vertov’s *The Eleventh Year*,” *October*, No. 145, 2013).

13) О фильме «Киноглаз». ст. 69.

14) Киноки. переворот. ст. 53.

15) Дзига Вертов. Наша точка зрения. Из наследия. Том. 2. Москва: Эйзенштейн-центр. 2008, ст. 44.

베르토프 영화의 종착점에 해당하는 영화-감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현된다. 하나는 인식적인 측면, 다른 하나는 감각적 측면이다. 베르토프가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종사하기 전 신경심리학 전문대학에서 수학했던 경험은 베르토프로가 영화를 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는데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초 과학 영화는 가장 각광받았던 영화 장르 중 하나였으며, 교육 기관에서도 교육용 영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학 영화 제작에 관심을 기울였다. 베르토프가 다녔던 대학에서도 과학 다큐멘터리 영화에 관한 글쓰기나 과학 영화 제작이 주요 과목에 포함되어 있었을 만큼 그는 과학 영화 제작이 실제로 진행되고 또 그 가치가 인정되었던 환경에 속해 있었다.<sup>17)</sup> 보리스 카우프만의 회고에 의하면 이 시기 베르토프 또한 과학 영화를 계기로 영화라는 매체에 깊이 매혹되었으며, 초기 영화 작업이라 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이 매체의 가능성을 시험하기도 했다.<sup>18)</sup>

결과적으로 베르토프는 영화가 불완전한 육안으로는 인식 불가능했던 현상을 인식하게 하는, 시지각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수단이라는 결론에 닿는다. 이는 시클롭스키의 “낯설게하기”와는 구별되는 부분이다. “낯설게하기”가 우리에게 돌려주는 일상에 대한 감각은 그것이 무너지기 이전 우리에게 이미 내재하던 감각이다. 따라서 예술은 그것을 ‘복원’해주는 역할을 맡는 것뿐이다. 즉, “낯설게하기”를 통해 감각은 복원될 뿐 확장되지는 않지만, 베르토프의 영화는 인간의 시지각 범위 자체를 넓힌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론에는 이 대학의 창립자인 생리학자 베흐테레프의 영향이 있었다.<sup>19)</sup> 객관적 심리학의 창시자인 그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반사적 반응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가능해지므로 결과적으로 영화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심리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20)</sup> 즉, 영화는 육안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현미경, 망원경 등)와 마찬가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베흐테레프의 견해에 따라 베르토프 또한 영화를 중요한 ‘인식론적’ 도구로 이해한다.

그러나 베르토프의 영화는 감각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관객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베르토프의 영화가 관객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감각은 노동자 관객간의 ‘연결’을 전제로 형성된다.

Изобретенн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пособ радиопередачи изображений еще более сможет приблизить нас к нашей основной и заветной цели – связать всех трудящихся, разбросанных по

16) “지구의 다양한 장소, 삶의 다양한 조각들을 길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점차 연구할 것이다. 이어지는 각각의 영화는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글을 아는 이도, 모르는 이도 눈이 처음으로 열리는 것처럼 말이다.” (《Киноглаз》. ст. 72–73.)

17) John Mackay. “Social Immortality: David Kaufman at the Psychoneurological Institute(1914–16).” *Dziga Vertov: Life and Work*. Vol. 1. Brigh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8. pp. 98–102, 105.

18) Ibid. 98.

19) 베르토프는 베흐테레프의 강의를 수강하며 훗날 전개하게 될 영화 이론의 맹아를 싹틔웠다.

20) Бехтерев, Владимир. Общие основы рефлексологии человека. Моск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28. ст. 114; Ute Holl, “Psycho-Reflexology.” *Cinema, Trance and Cybernetic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7. p. 238.

всему миру, единым сознанием, единой связью, единой коллективной волей к борьбе за коммунизм.<sup>21)</sup>

최근 발명된 영상의 라디오 송출 방식은 우리가 소중히 하는 기본적인 목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향한 **하나의 의식, 하나의 유대, 하나의 집단적 의지로 연결하려는 목표**에 우리를 보다 가까워지게 한다. (강조는 필자)

영화-감각이 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부르주아적 개인과 국경을 초월한 전세계 프롤레타리아들의 정신적 연결이다. 스크린을 매개로 일상적 현실과 닿아 있는 영화적 현실을 마주한 노동자 관객은 ‘나’라는 신체적, 정신적 경계를 넘어 ‘우리’로 현상을 감각하기 시작한다. 이에 아론슨은 베르토프의 영화-감각이란 공산주의 사회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동적인 유형의 사회, 즉 개인적인 ‘나’가 결여된 상황에서 타인과의 결속만이 남겨지는 사회에 내재하는 것이라 진단한 바 있다.<sup>22)</sup> 또한 이는 베르토프에 대한 베흐테레프 이론의 영향을 다시 한 번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베흐테레프의 “집단 반사학” 이론에 의하면, 외부의 환경이나 자극은 ‘개인적인’ 의식이 아닌 ‘집합의식’으로 불리는 영역에 암시<sup>23)</sup>의 형태로 도달한다.<sup>24)</sup> 즉, 자극에 대한 반사적 반응은 개인에 한정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외부의 자극은 개인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동시에 확장되면서 특별한 “심리적 파동”을 만들어낸다.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연관의 암시가 초래하는 강력한 효과는 마치 전기 충격 과도 같다.<sup>25)</sup> 이와 더불어, 베흐테레프는 자극을 수용하는 양상이 뿌리줄기처럼 수평적 구조를 띤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베흐테레프의 ‘심리적 파동’ 개념은 자연스럽게 벤야민의 ‘집단 신경감응 Collective Innervation’을 상기시킨다. 벤야민에게 있어 혁명이란 일종의 신체 공간에 해당하는 집단에 전류가 흘러 대상에 대한 지각 양식에 완전한 변화가 발생하는 사건이다.<sup>26)</sup> 물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매체는 영화이다. 소수의 감상자를 전제하는 전통적인 회화와 달리, 영화는 영화관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다수의 감상자에게 동시적, 집단적으로 수용된다.<sup>27)</sup>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적 자아를 “느슨”하게 만들어 타자와의 열린 접촉을 가능케하며, 단일한 공적 자아를 발생시킨다.<sup>28)</sup>

베르토프가 <카메라를 든 사나이>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초국가적인 영화 언어의 확립도 이와

21) Основное «киноглаз», ст. 81.

22) Олег Аронсон. Коммунизм врасплох. Метакино. Москва: Ад маргинем. 2003. ст. 83.

23) suggestion: 어떤 자극이나 작용에 대하여 이성의 개입 없이 수동적-무비판적으로 반응하는 과정

24) Ibid. p. 227.

25) Ibid. p. 230.

26) 발터 벤야민. 초현실주의. 발터 벤야민 선집 5. 최성만 역. 길. 2005. 167쪽.

27)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제3판). 발터 벤야민 선집 2. 최성만 역. 길. 2007. 134쪽

28) 김수환. 「‘영화적인 것’의 기원으로서의 모스크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6집. 2019. 162-163쪽.

무관하지 않은 문제이다. 그는 기존의 영화가 기대고 있던 극장과 문학의 문법을 완전히 버리고 모든 이들에게 제약 없이 닿을 수 있는 국제적인 영화적 언어를 만들고자 했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의 교육을 전제하는 글과는 달리, 영화의 시각 언어는 교육 수준과 모국어의 종류를 뛰어넘어 모든 관객을 한데 연결하는 데 최적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 나가며: 일상적 현실과 영화적 현실의 연결

극영화에서는 촬영 대상을 연출하거나 조작하기 때문에 일상적 현실과 영화적 현실은 그 성질이 구별된다. 물론 영화가 일상의 재현 혹은 반영이기 때문에 둘의 접점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영화는 일상적 현실의 속성이 ‘변질’된 상태이다. 베르토프의 다큐멘터리는 이와 반대된다. 이미 그 자체로 의미(진실)를 지니고 있는 일상이 베르토프 영화의 재료이며, 그는 여기에서 그 진실을 추출하여 영화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베르토프의 영화적 현실은 일상적 현실과 동일한 궤도에 존재한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일상에서 영화적 현실로 향하는 화살표가 다시 일상을 향하며 순환적 고리를 그린다는 사실이다. 베르토프는 동일한 목표를 바탕으로 제작된 여러 영화를 통해 영화로 일상(관객과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한다. 이러한 순환적인 영향 관계는 결과적으로 전세계 프롤레타리아의 단결과 유대라는 목표를 향해 작동하며, 이것이 바로 베르토프 영화의 고유한 역학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수환. 「‘영화적인 것’의 기원으로서의 모스크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6집. 2019.
-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 선집 2. 최성만 역. 서울: 길. 2007.
- \_\_\_\_\_. 발터 벤야민 선집 5. 최성만 역. 서울: 길. 2005.
- Fore, Devin. “The Metabiotic State: Dziga Vertov’s The Eleventh Year.” October. No. 145. 2013.
- Holl, Ute. “Psycho-Reflexology.” Cinema, Trance and Cybernetic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7.
- Mackay, John. “Social Immortality: David Kaufman at the Psychoneurological Institute(1914-16).” Dziga Vertov: Life and Work. Vol. 1. Brigh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8.
- Аронсон О. В. «Коммунизм врасплох». Метакино. Москва: Ад маргинем. 2003.
- Бехтерев В. М. Общие основы рефлексологии человека, Москв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28.
- Вертов, Дзига. Дробашенко, Сергей (ред.) Дзига Вертов: статьи, дневники, замыслы. Москва: Искусство. 1966.
- \_\_\_\_\_. Из наследия. Том. 2. Москва: Эйзенштейн-центр. 2008,

# 도스토옙스키와 사형 제도 : 『백치』의 사형수 이야기

이선영 (고려대 박사과정)

## 1. 서론

도스토옙스키가 다루는 ‘사형’은 그 어떤 작가의 경우보다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가 사형 집행 직전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겪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많은 작가가 사형을 다루지만 그 순간을 견딘 대문호로는 도스토옙스키가 유일하다.

이 전기적 사실은 『백치』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사형 선고가 임하고, 고통이 주어질 뒤, ‘가라, 너를 용서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8: 21), “정치범으로 총살형을 받는다는 선고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분쯤 후에 사면령이 내려져 그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8: 51) 등의 구절은 작가의 가짜 사형극 사건을 상기시킨다.<sup>1)</sup>

그가 겪은 고초는 미시킨을 통해 사형수 이야기로 전달된다. 미시킨은 예판친 장군의 하인과 네 모녀에게 유럽에서 목격했던 사형 집행 광경과 사형 집행에서 사면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때 미시킨은 사형수도 한 명의 사람임을 강조하며 사형수가 받는 정신적 고통을 강조한다.

이때 특징적인 점은 미시킨이 ‘이야기’의 형태로 사형수의 고통을 호소하고, 나아가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제안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시각성’으로 포화된 소설인”<sup>2)</sup> 『백치』에서 이야기가 그림 주제로 이어지는 이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미시킨의 사형수 이야기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담론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 본 발표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도스토옙스키와 범: ‘백치’를 중심으로”의 일부인 ‘『백치』에 나타나는 사형 제도 비판’을 재구성하여 보완한 것이다.

1) 그밖에 『백치』에서 발견되는 도스토옙스키의 자전적 요소는 이선영, “도스토옙스키와 범: ‘백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71-77면 참조.

2) 석영중, “도스토옙스키와 시각: 시각 학습과 윤리의 문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65, 2019, 63-84면. 74면.

해당 장면에서 담긴 작가의 의도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 2. 미시킨의 사형수 ‘이야기’

『백치』의 시간 설정에서부터 미시킨의 이야기는 무게감을 얻는다. 그는 일 년 전 사형 집행 직전에 사면받은 한 사람을 만났고, 한 달 전에는 리옹에서 르그로라는 이름을 가진 죄수를 사형에 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특히 사형 집행을 목격하고는 “다섯 번 정도 그에 관한 꿈을 꾸었을”(8: 20)<sup>3)</sup> 정도로 이 문제는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즉, 이야기를 꺼내기 전부터 미시킨에게는 사형 문제를 숙고할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다.<sup>4)</sup>

미시킨이 사형 집행에서 가장 끔찍한 요소로 여기는 것은 ‘확실성’이다. 죽는다는 사실이 확실하며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사형수에게 극도의 절망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미시킨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치를 활용해 이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사형 집행 직전에 사면받았던 사람에 따르면 그에게는 죽기 전까지 15분 내지는 20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 시간 동안 사형수는 죽음이 ‘확실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받았다. 그 중 특히 마지막 5분이 강조된다. “무한한 시간 같았다”(8: 52)는 5분 동안 그는 동료들과의 작별에 2분, 자기 성찰에 2분,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데 1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내 그 1분은 영원과 같이 느껴지며 그를 압박한다.<sup>5)</sup>

이제 다가올 새로운 것에 대한 무지와 혐오는 끔찍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그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런 영원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리라! 그때가 되면 나는 매분을 한 세기로 바꾸고,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은 채, 매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어떤 것도 헛되이 탕진해버리지 않으리라!’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런 생각은 결국 나쁜 마음으로 변질되어, 가능한 한 빨리 총살당했으면 하고 바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8: 52)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차라리 빨리 총살당하기를 바라는 일견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만약을 생각하며 절망하는 사형수의 모습은 그가 아직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점을 명징하게 보여

3) 도스토옙스키의 저작 인용은 Достоевский, Ф.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1972-1990.에 준하여 권수와 쪽수로 표시하며,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4) Young, S. *Dostoevsky's The Idiot and the Ethical Foundation of Narrative*. London: Anthem, 2004. p.82

5) 이 부분은 실제로 도스토옙스키가 느꼈던 심정과 유사하기에 미시킨의 이야기에는 신빙성이 더해진다. 당시 도스토옙스키의 심정은 안나 도스토옙스카야의 회고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나가 속기사로 일하던 때에 도스토옙스키는 그녀에게 사형극 당시의 정황을 이야기해준 적이 있다. “살아 있을 시간이 이제 겨우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몇 분이 내게는 몇 년, 몇 십년처럼 느껴졌소.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 있을 수 있다니!’ 그런 느낌이었소.”(도스토옙스카야, 안나. 『도스토옙스키와 함께한 나날들』. 최호정 옮김. 서울: 엑스북스, 2018. 39면)

준다. 비록 확실한 죽음을 목전에 두었지만 총살당하기 직전까지도 그는 만약을 생각하는 한 명의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사형수는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 큰 절망감을 느낀다. 혹시나 살아나게 된다면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다루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리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기에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절망감이 더욱 증폭되는 것이다.

그 고통이 마지막 1분에 집중되었다면 사형수 르그로의 고통은 마지막 한 걸음으로 집약된다. 미시킨은 르그로가 감옥에서 나와 사형장으로 향하기까지의 여정을 상상해서 이야기로 들려준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사형수는 수레를 타고 가며 사형장까지 남은 거리를 가늠한다.

실려 갈 때까지는 아직 살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역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가는 길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직 오래 살 수 있다. 남은 거리 세 개만큼은 살겠지. 이 거리를 지나면 다음 거리가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엔 오른쪽에 빵집이 있는 거리가 남아 있다…… 그 빵집에 닿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있다!’(8: 55)

수레에 실려 가는 동안은 남은 거리가 줄어들어도 절망감을 애써 억눌렀던 사형수이지만 단 두대로 오르는 ‘조그만 계단’을 마주하고는 결국 울음을 터뜨린다. 죽음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이 조그만 계단과 그 계단 끝의 단두대라는 가시적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 죄수는 발이 묶여 있어 보폭을 작게 할 수밖에 없다. 작아진 보폭 때문에 느린 속도로 계단을 오르며 그는 ‘확실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심적 고통을 참아야만 한다.

미시킨은 바로 이 순간의 사형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릴 것을 제안한다.

### 3. 미시킨이 제안하는 ‘그림’

미시킨의 제안은 작품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미시킨이 그림 주제를 내놓은 것은 앞선 장면에서 아텔라이다가 주제를 정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보고 그리면 된다고 대답했다.

“[...] 나에게 그림 주제를 찾아주세요, 공작.”

“저는 그림에 대해 문외한인데요. 보고 그리세요.”

“저는 볼 줄 모른답니다.”(8: 50)

이때의 ‘보다’가 단순한 감각 이상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주지하다시피 『백치』에서 미시킨이 그림을 보는 장면은 그가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되는 까닭이다. 가령 그는 예판친 장군 집에 걸린 그림을 보고 그 배경이 스위스임을 바로 알아보기도 하

고, 나스타샤의 사진을 보고 그녀가 고통받은 영혼임을 간파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미시킨이 제안하는 사형수 얼굴 그림에도 사실 묘사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잠시 『백치』를 둘러싼 전기적 사실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다. 『백치』가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투르게네프도 사형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글을 발표하였다. 투르게네프는 파리에서 살인범 트롭만을 기요틴으로 사형에 처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트롭만의 사형」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사형제 폐지 담론에 힘을 보태고자 했다. 「트롭만의 사형」에서 서술자는 기요틴의 칼날이 내려오는 순간 그 광경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트롭만의 사형」을 접한 도스토옙스키는 스트라호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투르게네프를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그가 투르게네프를 비판했던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눈을 감은 장면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술가의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6)</sup>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감은 예술가는 예술가의 책임보다는 자기 안위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의견이었다.

이를 미시킨과 대비시켜보면 미시킨은 투르게네프의 서술자의 반응과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미시킨은 사형 집행장에서 눈을 뜨고 사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8: 55) 미시킨이 사형 집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 광경을 마주할 수 있던 것이 아니다. 후에 수차례 꿈에 나올 정도로 당시 고통스러운 심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미시킨은 현장에서 사형수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의 절망에 공감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듯 다른 사람들도 제도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도록 그 광경을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하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시킨은 그림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단 그는 그림을 통해 이 문제를 여러 사람에게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유익한 그림이 될 것(картина будет полезная)”(8: 55)이라는 미시킨의 말이 이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미시킨은 일찍이 바젤에서 사형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경험 역시 그림의 파급 효과를 예상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sup>7)</sup>

도스토옙스키가 미술에 대해 취했던 관점을 고려하면 미시킨이 발언이 단순한 제안 이상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미술 평론을 통해 예술가가 현실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너머 “몸의 눈으로”, “정신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대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그는 죄수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그림에 비판을 가했는데, 사실 묘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도스토옙스키의 표현에 의하면 그 화가는 죄수를 “인간으로서 바라보기”에 실패하였다.<sup>8)</sup>

6) Jackson, R. *Dialogues with Dostoevsky: the overwhelming questi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 37

7) 미시킨은 아멜라이다에게 사형수의 얼굴을 그릴 것을 제안하며 자신도 일전에 바젤에서 놀라운 그림을 보았다고 회상한다. 이 그림은 「성 요한의 순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9: 433)

8) 도스토옙스키의 미술평론에 관한 이 부분은 석영중 2019 68-70을 참고하였다.



반면 미시킨은 도스토옙스키가 주장한 올바른 예술가의 자질을 담지하고 있다. 사형수의 심정을 헤아리고 상상하여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이 이를 예증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그는 충분한 시간 동안 사형수의 고통에 대해 생각한 바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며 사형이 잔인한 제도임을 역설하였다. 그가 요지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은 이야기를 들은 하인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 미시킨을 무시했던 하인은 그의 말을 다 듣고는 “감명받은 얼굴”(8: 21)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림의 핵심은 얼굴”(8: 56)이라는 발언 역시 미시킨이 말하는 그림이 단순한 묘사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익히 알려져 있듯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얼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9)</sup> 얼굴은 단순한 육체의 일부가 아니라 표정, 눈빛 등을 통해 정신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백치』에서도 미시킨은 나스타샤의 ‘얼굴’을 보고 그녀 생애의 고통을 읽어낸다.

미시킨이 강조하는 르그로의 얼굴 역시 마찬가지이다. 겁에 질려 창백해진 낮빛에 파리한 입술로 (신앙이 없음에도) 십자가에 설 새 없이 입 맞추는 사형수의 얼굴은 그 어떤 말보다도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사형 제도에 관해 재고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익한 그림이 될 것”이라는 공작의 말이 그가 미적 대상을 윤리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영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sup>10)</sup> 미시킨은 그림 주제를 추천하면서 그림에 담길 윤리적 파급 효과까지 예상했던 것이다.

#### 4. 결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백치』에서 미시킨이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에는 단순한 이야기와 그림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일차적으로 미시킨은 사형수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였고 그것을 이야기와 그림을 통해 전달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때의 미시킨은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한 바람직한 예술가 상과도 중첩된다. 미시킨은 결정적인 순간을 바라보았고, 가장 중요한 사형수의 얼굴을 포착하였으며, 그것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널리 퍼져 유익하게 기능할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백치』의 사형수 이야기에서는 사형 제도의 문제를 다룰 때 ‘무엇을’ 논할 것이냐와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모두가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법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여러 작품에서 그 문제를 다루었고 『작가 일기』의 평론을 통해서도 직접적인 의견을 표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형 제도에 관해서는 폐지론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sup>11)</sup> 그렇기에 『백치』의 사형수 이야기는 더욱 주목

9) 도스토옙스키가 묘사하는 ‘얼굴’에 대한 학자들의 접근은 Ibid., 76-77 참조.

10) Young 2004 86. 영은 미시킨이 시종과 나눈 대화도 하나의 이야기보다 윤리적 담론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Ibid. 76)

을 요한다.

이 글을 시작하며 지적했듯 『백치』는 도스토옙스키와 사형 제도라는 주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제도의 문제를 가장 폭넓게 다룬 소설이기도 하다.<sup>12)</sup> 그런 작품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요소를 통해 유추해보건대,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제도에 대한 반대를 넘어 그것을 논할 때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인간 존중의 문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도스토옙스카야, 안나. 『도스토옙스키와 함께한 나날들』. 최호정 옮김. 서울: 엑스북스, 2018.

석영중. “도스토옙스키와 시각: 시각 학습과 윤리의 문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65, 2019, 63-84면.

이선영. “도스토옙스키와 법: ‘백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Достоевский, Ф.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1972-1990. Том. 8, 9.

Jackson, R. *Dialogues with Dostoevsky: the Overwhelming Questi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Schur, A. “Punishment and Crime.” *Dostoevsky in Context*. edit. Martinsen, D., Maiorova, 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 30-38.

\_\_\_\_\_. *Wages of Evil: Dostoevsky and Punishment*.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2.

Young, S. *Dostoevsky's The Idiot and the Ethical Foundation of Narrative*. London: Anthem, 2004.

---

11) Schur, A. *Wages of Evil: Dostoevsky and Punishment*.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2. p. 26

12) Schur, A. “Punishment and Crime.” *Dostoevsky in Context*. edit. Martinsen, D., Maiorova, 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 30-38. p. 33

## 소비에트 아포크리파의 구원서사: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속 마르가리타와 성모 마리아 비교\*

한연서 (연세대 박사과정)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한 인물인 예슈아,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 본디오 빌라도, 모스크바에 묵시록적 심판을 내리는 악마 등 종교적 인물과 테마가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에서 작품의 여주인공 마르가리타는 정교 아포크리파 속 성모의 형상으로 독해될 여지가 생긴다. 아포크리파(apocrypha)란 성서와 비슷한 시기에 집필되었지만 그 저작자와 출처가 모호하고 내용의 진위가 의문시되어 공식적 정경으로부터 배제된 모든 텍스트로서, 한국어로는 ‘위경’을 말한다. ‘아포크리파’는 그리스어 형용사 ‘아포크리포스(apokryphos)’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는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sup>1)</sup> 스탈린 치하 러시아에서 은밀히 집필되고 감춰져야만 했던 불가코프의 텍스트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소비에트 사회의 공식적 권위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비공식적 문서로서 가히 ‘소비에트 아포크리파’라 부를 만하다. 일반적으로 아포크리파가 다루는 이야기들은 정통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이나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행위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여기서 마르가리타가 정경이 아니라 위경의 성모와 비견된다는 사실은 그녀가 아포크리파의 반규범적 속성을 동력 삼아 기존에 선악을 나누던 습관적이고 자동화된 이분법을 벗어나 소비에트 아포크리파의 성모, 구원의 여성상을 재현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러시아 정교의 위경 「성모 마리아의 지옥순례기(Хождение Богородицы по мукам)」에서 성모는 인간과 초월적 세계의 신을 연결해 주는 존재로서 죄 지은 인간들을 용서해주는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러시아어 ‘му́ка’가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성모의 자비심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그녀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가

\* 이 글은 발표자의 석사논문 「소비에트 아포크리파의 구원서사: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읽는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제 4장 3절을 토대로 발전시킨 것이다.

1) Bart Ehrman, *Lost Christianities: The Battle for Scripture and the Faiths We Never Kne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1.

슴 아파하는 모습으로 발현된다. 위경에서 성모는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자신에게 알려 달라며 기도를 드리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나 성모를 죄인과 악인이 머무는 지옥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성모가 적극적으로 인간들의 고통을 체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어둠이 지옥의 죄인들을 가리고 있자 미카엘에게 “어둠이 물러나 내가 그 고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Пусть разойдется тьма, чтобы видела я и те мучения).”라고 요청하기까지 하면서 인간들이 겪는 고통을 더욱 생생히 보려고 한다.<sup>2)</sup> 지옥에서 각양각색의 죄를 짓고 온갖 끔찍한 형벌을 당하며 괴로움에 신음하던 죄인들은 자신들을 보기 위해 지옥을 뚫고 방문한 성모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한다.

어째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성스러운 어머니시여? 당신의 축복받은 아들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아무 것도 묻지 않았고, 아브람의 조상도, 선지자 모세도, 세례 요한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묻지 않았는데 성스러운 어머니이시며 보호자이시고 그리스도 교인들을 지켜주는 벽이신 당신은 어찌 하느님께 기도하여 불쌍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Почему ты пришла к нам, Святая Богородица? Твой Сын благодатный приходил на землю и не спросил нас ни о чем, ни прадед Авраам, ни пророк Моисей, ни Иоанн Креститель, ни апостол Павел, божий любимец, но ты, Пресвятая Богородица, заступница, ты, стена роду христианскому, молишь Бога, как же ты пришла к нам, бедным?<sup>3)</sup>

죄인들의 말에 따르자면, 예수와 그리스도교의 여러 선지자들이 일찍이 지상에 내려와 선을 설파했지만 그들은 죄인과 악인을 굽어살피지는 않았다. 선의 영역으로부터 소외된 채 지옥에서 영겁의 고통을 겪어오던 죄인들은 오직 성모만이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자신들을 잊지 않고 찾아주었다는 사실에 구슬픈 눈물을 흘린다. 그런 죄인들을 보고 찢어지는 마음에 가슴 아파하며 흐느끼던 성모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이시여, 내가 그들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참을 수 없으니 나 또한 그리스도 교인들과 함께 고통받게 하소서(Помилуй грешников, Владыка, так как я видела и не могу переносить их мучений, пусть буду и я мучиться вместе с христианами).”라고 하느님에게 부탁한다.<sup>4)</sup> 그러나 하느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저 인간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성모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러자 성모는 주변의 모든 선지자들과 천사들에게 자신과 함께 무릎을 꿇고 죄인을 위해 기도드릴 것을 부탁한다. 결국 성모의 간청에 못 이긴 하느님은 아들 그리스도에게 지옥의 죄인들에게 내려가 그의 신성한 얼굴을 보여주라고 명한다. 하느님의 분부대로 지옥으로 향한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2) Д. Лихачева. Памятники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XII век. М.: Худ. Лит., 1980. С.169.

3) Там же. С.169.

4) Там же. С.178.

너희는 자신을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말로만 칭하였으나 나의 설교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는 것이며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은 나를 너희들에게 내려 보낸 내 아버지의 자비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린 내 어머니의 기도를 위하여, (...) 내가 밤낮으로 고통 받는 너희들에게 성 목요일부터 성스러운 오순절 전까지 안식을 줄 테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영광 있으라.

Христианами вы называетесь только на словах, а заповедей моих не соблюдаете — поэтому и находитесь в огне негасимом, и не помилю вас. Теперь же ради милосердия моего Отца, который послал меня к вам, ради молитв матери моей, которая много плакала о вас, (...) — Я даю вам, мучающимся день и ночь, покой от Великого четверга до святой Пятидесятницы, прославьте Отца и Сына и Святого Духа.<sup>5)</sup>

그리스도의 말에서, 하느님과 그리스도는 단지 성모의 애원을 못 이기는 척 들어준 것일 뿐 그들은 결코 죄인들을 동정하거나 용서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고통받는 죄인들에게 안식이 내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인들의 딱한 상황에 참을 수 없는 비통함을 느끼며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자비를 베풀 것을 청한 성모의 간절한 호소 덕분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 위경에서 성모는 신보다 인간을 더욱 가까이 굽어살피고 인간의 죄와 악까지 자비롭게 품어주는 용서와 구원의 여성상으로 묘사된다.

위경에서 초월적 존재들이 모두 죄인과 악인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오직 신성한 성모만이 인간으로서, 인간들이 받는 고통을 묵도하며 동정한 것처럼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여주인공 마르가리타는 고통받는 인간들을 동정하고 위로하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으로 제시된다. 선한 예슈아와 악마 볼란드의 중간적 영역에서 마르가리타는 초월적 존재와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로 자리한다. 이 작품의 창작배경을 살펴보면,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소비에트 사회의 무신론자들이 예수를 비하하며 그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작가의 분노로부터 구상되었다.<sup>6)</sup> 그러나 작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완벽하게 선한 인물’인 예슈아는 인간의 구원에 관해 그 어떤 실질적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sup>7)</sup> 전지전능한 선이 모습을 감춰버린 대신 이 작품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전능한 힘을 소유한 인물은 악마 볼란트이다. 그러나 볼란트와 그 수행원들은 기본적으로 악마이기 때문에 이들은 인간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응징하고 고통받게 한다.

마르가리타는 예슈아도, 볼란트도 머물지 않는 바로 그 곳에 서 있다. 작품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모두 마르가리타를 중심으로 몰려들어 그녀 주위를 맴도는데,

5) Там же. С.182.

6) Mikhail Bulgakov, *Diaries and Selected Letters* (Richmond, UK: alma books, 2018), 59.

7) Vladimir Tumanov, “Diabolus ex Machina: Bulgakov’s Modernist Devil,” *Scando-slavica* 35, no.1 (1989): 53; Harold Baker, “Socratic, Hermetic, and Internally Convincing Dialogue: Types of Interlocution in Bulgakov’s *The Master and Margarita*,” *The Russian Review* 57, no.1 (1998): 60.

마르가리타는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묘사된다. 악마의 대무도회에서 악인들이 하나같이 마르가리타를 “여왕님”이라고 부르며 그녀를 떠받들고, 프리다가 마르가리타야말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여성임을 한 눈에 알아보며 그녀에게 매달리는 장면은 마르가리타를 지옥으로 내려간 성모와 견주어 생각해보도록 만드는 선명한 근거가 된다.

프리다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의 아이를 낳지만 미혼모를 손가락질하는 사회의 시선에 시달리다 아이를 죽이고 죄책감에 미쳐버린 여인, 그레첸을 모델로 한 인물이다.<sup>8)</sup> 프리다의 영아살해죄는 악마의 대무도회에 참석한 다른 흉악범들과 비교해 봐도 결코 가볍지 않고 악마들조차 프리다를 악인으로 여기지만, 오직 마르가리타만이 프리다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저 여자가 카페에서 여급으로 일할 때 카페 주인이 끈질기게 곳간으로 불러냈고, 그래서 아홉 달이 지나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녀는 아들을 숲으로 안고 가서 입을 손수건으로 쭈셔 막고 아기를 땅에 묻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아이를 먹여 살릴 방도가 없었다고 말했지요.”

“그럼 그 카페 주인은 어디 있어요?” 마르가리타가 물었다.

“여왕님.” 갑자기 아래쪽에서 고양이가 쉿소리를 냈다. “한가지만 여쭙보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도대체 카페주인이 여기서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숲에서 아기를 목 졸라 죽인 건 아니잖아요!”<sup>9)</sup>

– Когда она служила в кафе, хозяин как-то ее звал в кладовую, а через девять месяцев она родила мальчика, унесла его в лес и засунула ему в рот платок, а потом закопала мальчика в земле. На суде она говорила, что ей нечем кормить ребенка.

– А где же хозяин этого кафе? – спросила Маргарита.

– Королева, – вдруг заскрипел снизу кот, – разрешите мне спросить вас: при чем же здесь хозяин? Ведь он не душил младенца в лесу! <sup>10)</sup>

계속해서 고양이 베헤뫓은 “저는 그냥 법적으로 말한 겁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라고 말하며 아이를 죽인 죄인은 프리다라고 결론 내린다.<sup>11)</sup> 그러나 마르가리타는 프리다가 그런 선택을 내리도록 만든 남성의 행방을 물으며 법적인 관점이나 근시안적 사실관계로는 보이지 않던 가슴 아픈 진실을 바라본다. 마르가리타는 남성의 무책임함과 미혼모를 외면하는 사회의 냉담함 때문에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는 수밖에 방도가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을 이해한다.

8) Elisabeth Stenbock-Fermor, “Bulgakov's *The Master and Margarita* and Goethe's *Faust*,”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13, no.3 (1969): 313.

9) 미하일 불가코프, 『거장과 마르가리타』, 정보라 역 (서울: 민음사, 2016), 452쪽. 앞으로 이 발표문에 인용된 모든 한글 번역은 이 책을 따른다.

10) Булгаков.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СПб.: Азбука-классика, 2007. С. 284. 앞으로 이 발표문에 인용된 모든 원문은 이 책을 따르며 본문에 페이지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11) 『거장과 마르가리타』, 453쪽.

더 나아가, 프리다가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그녀의 눈 앞에는 아이를 죽일 때 사용했던 손수건이 나타나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형벌이 내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마르가리타는 왁자지껄한 무도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프리다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몹시 취해 흐리멍덩한, 그러나 멍한 중에도 간절히 애원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여자의 얼굴이 기억에 남았고, 어떤 한 단어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프리다!”<sup>12)</sup>

Во всей этой кутерьме запомнилось одно совершенно пьяное женское лицо с бессмысленными, но и в бессмысленности умоляющими глазами, и вспомнилось одно слово – «Фрида!» (288)

오직 마르가리타만이 프리다의 죄 대신, 그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프리다의 비참한 상황과 그로 인해 그녀가 겪어야 하는 아픔을 바라본다. 마르가리타의 연민 어린 시선 속에서 프리다는 죄인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가장 잔인한 결정을 내린 대가로 평생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처받은 여성으로 변모한다. 마르가리타는 「성모 마리아의 지옥 순례기」에서 지옥으로 몸소 내려갔던 성모처럼 악마와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무도회에서 가련한 프리다를 동정하며 진심으로 슬퍼한다. 결국 악마의 대무도회가 끝나고 여주인 역할을 맡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마르가리타는 볼란드에게 연인 거장을 되돌려 달라는 소원을 말하려 하지만 갑자기 그녀에게 자기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마르가리타는 숨이 막혔고, 마음속에 묻어 놓았던 준비된 말을 꺼내려 했으나 그 순간 갑자기 창백해져서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떴다. “프리다! 프리다! 프리다!” 누군가의 집요한, 애원하는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제 이름은 프리다입니다!” 마르가리타는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 “프리다가 자기 아기를 질식사시켜 죽일 때 썼던 손수건이 더 이상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sup>13)</sup>

Дух перехватило у Маргариты, и она уж хотела выговорить заветные и приготовленные в душе слова, как вдруг побледнела, раскрыла рот и вытаращила глаза. «Фрида! Фрида! Фрида! – прокричал ей в уши чей-то назойливый, молящий голос. – Меня зовут Фрида!» – и Маргарита, спотыкаясь на словах, заговорила. (...) – Я хочу, чтобы Фриде перестали подавать тот платок, которым она удушила своего ребенка. (300)

프리다 생각에 순간적으로 창백해지고 입을 가리며 눈을 크게 뜨는 모습에서 마르가리타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며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이 내적 갈등을 겪은 듯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부터 마르가리타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던 이유는 연인 거장과 재회

12) 위의 책, 459쪽.

13) 위의 책, 478-479쪽.

하겠다는 일념 하나였다. 마르가리타가 악마의 대무도회에서 온갖 흉악범들을 상대하며 왕관이 살갓을 파고들고 무릎이 부서질 것 같은 육체적 고통을 참았던 이유 역시 오직 단 하나, 자신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러나 볼란드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프리다를 향한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이 거장을 향한 사랑보다도 더 크게 마르가리타의 마음을 가득 채워 버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소원을 프리다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녀는 거장과 다시 만나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프리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한다. 이 순간 거장의 연인 마르가리타는 자신의 몸을 내던지면서까지 기꺼이 지옥의 죄인들과 함께 고통받기를 선택했던 인류의 구원자 성모 마리아로 변신한다.

프리다에게 손수건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녀가 죄책감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마르가리타의 소원은 곧 구원의 여성상으로서 마르가리타가 지닌 핵심가치가 ‘용서와 자비’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해방에 관한 에피소드에서 또 한번 극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작품 속에서 다뤄지는 죄악 중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은 바로 ‘비겁함(трусость)’으로 제시된다. 거장의 소설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아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로마황제의 권위와 유대교 제사장들의 현실적 요구에 굴복해 자신의 신념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예수아를 처형한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비겁함의 죄를 저지른 극악한 죄인으로서 천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불면의 고통 속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형벌을 받는다. 작품 말미에 볼란드는 거장의 소설이 완성되기까지 마지막 한 문장이 필요하다고 거장과 마르가리타를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데려간다. 거장이 작가로서 자신이 창조해 낸 등장인물이자 고통받는 빌라도에게 “자유다! 자유!(Свободен! Свободен!)”라고 외치며 작가의 권위로 그를 해방시켜 주는 한편, 마르가리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젠가 있었던 단 한 번의 만월 때문에 1만 2000번의 잠 못 드는 만월이라니,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마르가리타가 물었다.

“프리다의 이야기를 반복하려는 겁니까?” 볼란드가 말했다.<sup>14)</sup>

– Двенадцать тысяч лун за одну луну когда-то, не слишком ли это много? – спросила Маргарита.

– Повторяется история с Фридой? – сказал Воланд. (405)

볼란드가 잘 지적했듯이, 단 한번의 잘못으로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가혹한 운명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를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마르가리타는 마치 프리다에게 그러했듯이 동정심과 연민의 정을 느낀다. 위경의 성모가 지옥의 죄인들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눈으로 생생히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프리다와 본디오 빌라도를 바라보는 마르가리타의 눈은 인간이 지은 죄가 아니라 그들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바라보고자 한다. 구원의 여성 마르가리타는 인

14) 위의 책, 640쪽.



간이 만약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은 순결함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충분히 고통받은 것에 대한 대가이자 용서와 자비의 서사로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르가리타가 위경 속 신성한 성모와 아무리 유사하다 할지라도, 성모의 구세주가 하느님인데 반해 마르가리타의 구세주는 악마 불란드라는 점에서 두 여성은 결정적인 차이점을 지닌다. 이러한 설정은 곧 선이 힘을 쓰지 못하는 세계에서 ‘악을 통해 선을 행한다’는 작품의 에피그راف스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능한 악마 불란드의 힘을 빌어 마녀가 된 마르가리타는 성모보다 악의 축에 훨씬 가까이 존재하는 대신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위경에서 성모는 단지 하느님에게 부탁을 드릴 뿐 죄인들을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안식을 부여했던 직접적인 주체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거장과 마르가리타』에서 마르가리타는 직접 죄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주체적 힘을 가지고 있다. 프리다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마르가리타의 부탁에 대해 악마 불란드는 ‘그 일’은 자신의 관할 밖이라 불가능하다며 마르가리타에게 직접 해 볼 것을 권유한다. 불란드는 악마이기 때문에 악에 관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선에 관한 것은 예슈아의 부탁 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르가리타는 프리다에게 “그대는 용서받았다. 이제 손수건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Тебя прощают. Не будут больше подавать платок)”라고 엄숙히 선언하며 ‘그 일’을 행한다.<sup>15)</sup> 성모와 달리 마르가리타는 전능한 존재를 통하지 않고도 몸소 프리다를 용서할 수 있으며, 그녀의 말은 프리다를 고통에서 풀려나게 할 즉각적인 능력과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을 통해 작품 속에서 가장 전능하다고 여겨지는 불란드조차 할 수 없는 ‘구원’의 힘이 바로 마르가리타에게 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작품의 에피그راف스에서부터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의 대화를 인용하며 ‘항상 악을 원하면서도 항상 선을 행하는 힘의 일부분(часть той силы, что вечно хочет зла и вечно совершает благо)’으로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선과 악의 개념을 제시한다.<sup>16)</sup> 작품 속에서 마르가리타를 통해 분명해지는 사실은 선과 악이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나뉜다면 악을 용서하거나 악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선 역시 진정한 선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성모는 인간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초월적 신성성을 육화하고 이 지상에 구현해 내는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졌다. “보편적 진리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계가 저 너머에 반드시 있으며, 인간은 언젠가 그 세계에 반드시 도달할 것”<sup>17)</sup>이라고 가르치는 예슈아의 ‘선’은 마르가리타의 ‘연민과 자비’라는 감정, 그리고 ‘용서와 구원’이라는 행위로 비로소 구체화된다. 이렇게 마르가리타는 소비에트 아포크리파의 구원서사를 체현하는 여주인공이 된다.

15) 위의 책, 482쪽.

16) 위의 책, 5쪽.

17) 위의 책, 52쪽.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 공시성과 통시성

제2분과 **문화-통번역분과**

| 일시 |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09:30~20:30)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대캠퍼스 하나스퀘어

| 주최 |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

| 주관 | 한국러시아문학회

| 후원 | 한국연구재단, 한러대화,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공시성과 통시성

### 제2분과 문화-통번역분과

#### 문화-통번역분과A : 통번역의 다양한 실제

사회: 정연우 (한국외대)

- ▶ 희곡번역의 자국화 양상과 공연대본에서의 수용 ..... 95
  - 발표: 윤현숙 (한국외대)
  - 토론: 강동희 (한국외대)
  
- ▶ 러시아어 난민통역의 현황 ..... 103
  - 발표: 유정화 (한국외대)
  - 토론: 서유경 (한국외대)
  
- ▶ 텍스트 유형별 러한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 연구 ..... 111
  - 발표: 전해진 (중앙대)
  - 토론: 김민수 (한국외대)



# 희곡번역의 자국화 양상과 공연대본에서의 수용 : 체호프의 「벚꽃 동산」을 중심으로

윤현숙 (한국외대)

## 1. 서론

이국적인 외국 문학 작품이 번역을 통해 한국 독자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우리가 사용하는 공통적인 문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원서가 가진 문화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번역이 필요하다. 이는 번역가가 목표어 독자들의 친숙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천 텍스트의 이국적인 요소들을 목표 문화권의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특징들로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박철우, 2014: 3). 이러한 변경, 즉 ‘자국화’ 양상은 다른 문학 장르의 번역과 비교해 희곡 번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희곡 번역이 원작의 뜻과 묘미를 끊임없이 염두에 두는 한편, 무대를 상상하고 배우의 움직임과 호흡 그리고 관객에게서의 반응과 수용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희곡 번역에서는 관객과의 즉시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평이하고도 일상적인 언어, 극 진행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언어, 관객이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 내의 언어를 선호한다. 이러한 언어는 곧 한편의 희곡이 공연에 의해 실현되는 시대적, 공간적 제약에 의해 조건 지어진 언어라 할 수 있으며(김윤진, 2000:175), 이로 인해 희곡 번역에는 자국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희곡 번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국화 번역 양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국화를 중심으로 전문 번역가가 만든 번역본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연출가가 만든 공연대본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희곡 번역 텍스트의 무대적 효용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연의 준비는 희곡의 선정에서 시작된다. 그리하여 많은 연극관계자들이 공연을 만들기 위해 출판된 번역 희곡에 눈길을 돌린다. 그러나 외국 희곡을 주로 소개하는 사람은 외국문학 전공자들인데, 이들이 번역한 희곡은 공연 텍스트로 이용하기에 적합지 않거나 미흡한

초번번역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낯선 은유나 비유적 표현들’, ‘등장인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면적인 번역’, ‘살아있는 배우의 대사로 볼 수 없는 문어체적 번역’, ‘무대공간이라는 입체성을 무시한 번역’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개가 공연적 상황에 무지하거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번역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번역 희곡을 무대화할 때 공연 텍스트가 새로이 마련되는 실정이다(김미희, 2007: 41).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극작법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마저 잘려나가거나, 우리 관객들에게는 오히려 전달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자극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오세곤, 1993).

이에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작은 시도로서, 앞서 언급한 희곡 번역의 네 가지 문제점 중에서 캐릭터 설정과 무대 구상에 관련된 것은 연출 차원의 논의이므로 제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낯선 은유나 비유적 표현들’의 문제, 즉 이국적 요소들의 자국화 번역 방법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2. 사례 분석

### 2.1.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희곡「벚꽃 동산」이다. 「벚꽃 동산」은 원작을 최대한 살려서 무대에 올린 작품에서부터 한국 관객의 눈높이에 맞게 변안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한국 무대에서 끊임없이 공연되고 있는 러시아 희곡의 대표작이다. 따라서 번역본이나 공연대본이 다양하게 존재하여 번역본 간 자국화 번역 양상을 폭넓게 고찰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 무대에서 공연된 「벚꽃 동산」중에서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번역본과 공연대본을 한 쌍으로 묶어 총 3쌍을 선정한다. 선정 이유는 전문 번역가가 만든 번역본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연출가가 만든 공연대본을 선정하여 비교할 경우, 독자를 위해 번역가가 취하는 자국화 번역 전략과 관객을 위해 연출가가 취하는 자국화 번역 전략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희곡 번역의 무대적 효용성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표 1] 분석 대상

1	TT1	번역본1	번역가	양운석	2015(미출판)	체리농원
	SC1	공연대본2	연출가	이곤	2015.8.25.-30 고대극회 / 세종문화회관	벚꽃동산
2	TT2	번역본2	번역가	이주영	2002(출판) / 연극과 인간	벚나무 동산
	SC2	공연대본2	연출가	오경택	2012.10.12.-28 극단 맨서어터 / 세종문화회관	벚꽃동산
3	TT3	번역본3	번역가	오종우	2004(출판) / 열린책들	벚꽃동산
	SC3	공연대본3	연출가	이성열	2017.04.28.-05.07 극단 백수광부 / 대학로예술극장	벚꽃동산

(ST: source text 원본, TT: target text 번역본, SC: script 공연대본)



분석 절차는 총 5단계이다.

1단계에서는 TT 3개에서 자국화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번역 사례를 추출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출한 TT의 번역 사례를 ST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자국화 번역인지 밝힌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ST에 존재하는 이국적인 요소가 번역본에서 어떻게 자국화 되는지에 대한 고찰이 누락될 수 있다. 따라서 3단계에서는 ST에 존재하는 이국적 요소를 추출한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러한 ST의 이국적 요소가 TT에서 어떤 유형의 자국화 번역으로 옮겨지는지 밝힌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번역본과 이를 기반으로 만든 공연대본을 한 쌍으로 묶어 총 3쌍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번역본의 자국화 표현이 공연대본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밝힌다. 이를 위해 두 가지로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번역본에 사용된 번역전략을 분석하고 그다음 번역본에 대한 공연대본의 수용 전략을 고찰한다.

이를 위한 분석틀은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번역전략은 ‘대체’, ‘풀어쓰기’, ‘음차’, ‘축어역’, ‘생략’과 같이 다섯 측면에서 분석한다. 대체는 원문 어휘를 목표어 문화에 익숙한 어휘로 대체한 경우로, 상위어나 유의어 및 하위어로 대체한 경우로 세분한다. 그다음 풀어쓰기는 원문 어휘의 의미만 풀어쓴 경우이다. 그리고 음차와 축어역은 원문 어휘를 음차하거나 축어역을 하는 경우이며, 여기에 설명이 첨부된 경우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생략은 원문 어휘를 생략한 경우이다.

[표 2] 번역본의 번역전략

1	대체	원문 어휘를 목표어의 상위어로 대체
		원문 어휘를 목표어의 유의어로 대체
		원문 어휘를 목표어의 하위어로 대체
2	풀어쓰기	원문 어휘의 의미만 풀어쓰기
3	음차	원문 어휘의 음차(음차 + 설명)
4	축어역	원문 어휘의 축어역(축어역 + 설명)
5	생략	원문 어휘의 생략

그 다음 번역본에 대한 공연대본의 수용전략은 ‘유지’와 ‘변형’ 그리고 ‘생략’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유지는 번역본의 어휘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이다. 그리고 변형은 번역본의 어휘를 변형한 것으로, 목표어의 상위어나 유의어 및 하위어로 변형한 경우와 아예 새로운 대사를 만들어 추가한 경우로 세분한다. 마지막으로 생략은 번역본의 어휘를 생략한 경우이다.

[표 3] 공연대본의 수용전략

1	유지	번역본의 어휘를 그대로 사용
2	변형	번역본의 어휘를 목표어의 상위어로 대체
		번역본의 어휘를 목표어의 유의어로 대체
		번역본의 어휘를 목표어의 하위어로 대체
		새로운 대사를 추가
3	생략	번역본의 어휘를 생략

이러한 분석 절차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와 같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의 분석은 이처럼 다섯 단계의 절차를 거쳤으나 지면 관계상 분석 결과는 한꺼번에 표로 묶어 제시한다.

[표 4] 분석 절차

단계	내용	분석틀
1단계	TT에서 자국화 하위범주 14개에 해당하는 번역 사례 추출	자국화 하위범주 (이근희, 2010: 155)
2단계	TT와 ST의 비교분석	
3단계	ST에 존재하는 이국적 요소 추출	문화 관련 어휘 (이근희, 2005: 254)
4단계	ST와 TT의 비교분석	
5단계	번역본과 공연대본 쌍별 비교 분석	번역전략과 수용전략

## 2.2. 분석

### 2.2.1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

ST	내용	번역전략	수용전략
TT1	오빠 되시는 여기 레오니드 안드레예비치 나리께선 저더러 속물이니, 돈밖에 모르는 놈이니 하시지만	대체: 유의어	
SC1	레오니드 어른신께서는 저를 돈 밖에 모르는 속물이라 하시지만		유지
TT2	여기 계신 부인의 오라버니께서는 저를 보고 철면피한 인간, 돈 많은 못된 농사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대체: 유의어	
SC2	여기 계신 부인의 오라버니께서는 저한테 철면피, 돈 많은 못된 농사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유지
TT3	여기 당신 오빠 레오니드 안드레예비치는 나를 천박한 구두쇠라고 말하지만	대체: 유의어	
SC3	여기 계신 부인의 오라버니께서 저를 천박한 장사꾼에 구두쇠라고 놀리시지만		유지

‘хам’과 ‘кулак’은 러시아의 정치사회적 배경이 깔린 어휘이다. 먼저 хам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고어에서는 농노나 사회의 낮은 계층의 사람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로 쓰였고, 현대 구어에서는 무례하고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볼 때 앞의 예문에서는 주로 хам의 두 번째 뜻으로 옮겼으며, 특별히 자국화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кулак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에는 시장이나 항구에서 일하는 중개인을 뜻하는 말이었으며, 이들은 가난하여 주로 저울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 먹고 살았다. 그러나 혁명 이후 이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 정치 노선에 따라 중농(中農, середняк), 농장주, 농촌 엘리트, 빈농(貧農, бедняк)의 착취자 등 다양한 계급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SC3의 ‘장사꾼’은 ‘кулак’의 혁명 이전의 뜻에서, TT2와 SC2의 ‘농사꾼’은 혁명 이후의 대표적인 뜻인 ‘중농’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T1과 SC1 및 TT3의 ‘돈밖에 모르는

놈'이나 '구두쇠'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희곡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로파힌은 라네프스카야 부인을 비롯해 피시이크에게도 거저 주다시피 돈을 쉬 빌려주고 트로피모프에게는 자진해서 여비를 주겠다고 우길 정도로 후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잘못된 희곡 번역은 자구적 오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캐릭터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번역으로 인해 배우가 캐릭터 설정을 부적절하게 할 경우, 이는 관객이 작가의 메시지나 주제를 올바르게 도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공연에서 작가의 작품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권오숙, 2010: 17). 참고로 다음은 로파힌의 잘못된 캐릭터 설정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SC2 <벚꽃동산>의 윤색자와 2015년 11월 4일 실시한 것이며 밑줄 강조는 연구자가 한 것이다.

캐릭터에 대해서는 ‘로파힌은 누구인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급이 독특한데, <벚꽃동산>에서 고정된 계급이 아닌 사람은 로파힌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락하더라도 고정된 계급 안에 있는데, 로파힌은 어렸을 때 농노였지만 현재 자본가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말투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같다. 그런데 배우는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로파힌의 모습, 약간은 악역 같은 느낌을 살짝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나중에 공연이 올라갈 때까지 연출이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로파힌을 만들어갔던 것 같다.

### 2.2.2. 관용어

ST	Пищик: (тяжело дышит) Даже похорошела... Одета по-парижскому... <u>пропадай моя телега, все четыре колеса...</u>	번역전략	수용전략
TT1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훨씬 멋있어지셨지 ... 옷까지 빠리 패션이나... 근데 내 꼴은 이게 뭐냐?	풀어쓰기	
SC1	훨씬 더 아름다워지셨지. (무거운 한숨 쉬며) 빠리 패션이잖아. 근데 내 꼴은...		유지
TT2	(무겁게 한숨 쉰다)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옷차림도 파리 풍이시고... 마차가 4개의 바퀴 채 몽땅 사라져 버릴 정도로 기가 막히십니다...	축어역 + 설명	
SC2	(무겁게 한숨 쉰다) 아니에요.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옷차림도 파리 풍이시고.. 파리 여자들보다 더 근사하십니다...		변형: 대사 추가
TT3	(무겁게 한숨을 내쉬고) 더 아름다워지셨지... 옷도 파리 스타일이고.. 내 마차에서 네 바퀴가 다 빠져 버려라...	축어역	
SC3	그 이상입니다. 훨씬 더 아름답죠. 게다가 파리 풍의 옷까지 입으셔서... 어지러운 지경입니다.		변형: 대사 추가

‘пропадай моя телега, все четыре колеса’는 직역하면 ‘내 마차의 바퀴 네 개가 전부 망가지

다’라는 뜻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관용구이다. 이 대목은 로파힌이 라네프스카야에게 여전히 아름답다고 칭찬하자, 피시이크도 이 말을 받아 더 아름다워졌다고 칭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팔호 속의 행동지시문에서 보듯이 피시이크가 ‘무겁게 한숨 쉬며’ 내뱉는 말이므로 이 관용구는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어야 한다.

TT2는 이 관용구를 살려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지만, 앞서 희곡번역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해가 되지 않는 낯선 은유나 비유적 표현들’에 해당한다. TT3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듣기만 하는 관객뿐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이 대사를 곱씹어볼 수 있는 독자조차도 갑자기 ‘네 바퀴가 다 빠져 버려라’는 대사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TT1과 SC1은 ST의 관용구를 생략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피시이크의 심정만 표현하는 새 대사를 추가했으며, SC2와 SC3도 상황에 맞는 새 대사를 추가했다. 결국 ST의 관용구는 적절히 자국화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절히 번역되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3.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희곡 번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국화를 중심으로 번역가가 만든 번역본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연출가가 만든 공연대본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희곡 번역 텍스트의 무대적 효용성에 관해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자국화 번역의 하위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번역본에서 해당 사례를 추출하여 번역본들 사이의 자국화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번역본과 이를 기반으로 만든 공연대본을 한 쌍으로 묶어 각 쌍의 자국화 수용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번역가의 자국화 의도가 연출가에게 항상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번역본에는 이국화 경향이 그리고 공연대본에는 자국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연대본의 경우 관객의 즉시적인 이해를 지향한다고 해서 자국화된 번역본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번역 목적과 번역가나 연출가의 관점 그리고 관객의 수준에 따라 자국화와 이국화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양한 자국화 번역의 양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안함으로써 번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번역 전략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국화 번역 양상을 논의하는데 있어 출판번역본과 이를 기반으로 만든 공연대본을 같은 맥락에서 비교함으로써 희곡 번역의 특수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희곡 번역은 시나 소설의 번역과 달리 문학텍스트로서의 텍스트성과 연극대본으로서의 공연성이 유기적으로 합쳐질 때 희곡의 미학적 고유성과 특수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희곡 번역은 단순히 텍스트

만 번역하고 출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공연화되어 텍스트성만큼이나 공연성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이형진, 2013: 109).

이를 위한 후속과제로 ‘자국화한 희곡 번역에 대한 연극관계자들의 선호도’에 관한 실증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한 편의 희곡 번역이 한 편의 공연물의 기반이 되도록 일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권오숙 (2010). 희곡 번역 시 알맞은 어투 선정의 중요성 - 와일드의 <살로메> 번역을 중심으로 한 고찰. 통역과 번역. 12(1), 3-19.
- 김미희 (2007). 연극 번역, 미장센, 드라마트루기 작업. 연극평론. 45, 41-47.
- 김운진 (2000). 불문학텍스트의 한국어 번역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철우 (2014). 신경숙의 Please Look After Mom에 나타난 ‘자국화(自國化, domesticating)’ 전략 분석. 한국문예창작. 13-2, 181-197.
- 오세곤 (1997). 왕은 죽어가다 中 부록 “우리 번역극의 실태 및 개선책”. 서울: 평민사. 317-324.
- 이근희 (2005). 번역산책 : 번역투에서 번역의 전략까지. 서울: 한국문화사.
- \_\_\_\_\_ (2010). 자국화 번역방법의 정의 및 범주화. 통번역교육연구. 8-1, 151-171.
- 이형진 (2013). 한국 현대희곡 영어번역의 현황 분석과 발전방향. 비교문학. 59, 93-114.
- 이혜승 (2013). 자국화와 이국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통번역교육연구. 11-3, 123-140.
- 최성실 (2009). 세계 속의 한국문학: 내러티브 인지와 공감의 글쓰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9, 379-406.
-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2009)
- 트렌드 지식사전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458&cid=55570&categoryId=55570>)



## 러시아어 난민통역의 현황

유정화 (한국외대)

### 난민의 정의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을 뜻하며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인도적 체류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뜻하며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인정자-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뜻하며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재정착희망난민-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통역을 받을 권리

-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형사절차의 대원칙인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무기대등의 원칙 등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9) 특히, 외국인범죄인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언어권은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인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주호노, 2014)
- 외국인이란 ‘대한 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국적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 또는 ‘외국 국적자, 무국적자 및 복수 국적 자’11)를 의미한다고 하기보다는 ‘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 내지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주호노, 2014)

## 난민통역의 법과 제도1

### 한국의 난민법

2013년 7월 1일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 제정-기존에 출입국 관리법에 산재되어 있던 난민관련 내용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난민 법제를 갖추

### • 난민통역

난민법 제 14조(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난민면접조서의 확인)-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난민통역 법과제도

- 난민법 시행령 제8조(통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난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난민통역 법과제도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역하게 할 수 있다. 1.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외국 언어로 1차 통역하게 한 다음 그 외국 언어를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2차 통역하게 하는 방법 2.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하게 하는 방법 ④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할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현황

### • 난민통역언어와 전문통역인수

	언어	통역인수		언어	통역인수		언어	통역인수
1	중국어	49	9	네팔어	4	17	친어	2
2	영어	39	10	스와힐리어	4	18	포르투갈어	1
3	러시아어	12	11	벵골어	4	19	트위어	1
4	우르두어	10	12	키르키즈어	4	20	몽골어	1
5	아랍어	10	13	베트남어	3	21	스페인어	1
6	우즈베크어	9	14	힌디어	2	22	암하라어	1
7	불어	7	15	싱할라어	2	23	타갈로그어	1
8	미얀마어	6	16	이란어	2	24	타밀어	1

## 사무소별 난민관련 특수 외국어 통역 수수료 집행내용 (2018년)

사무소	(단위:만원)
인천공항	11,268
서울	35,041
부산	2,781
인천	5,824
광주	3,248
대구	2,678
여수	510
제주	10,036
화성(보)	356
청주(보)	57
기타 (김해, 본부)	548
합계	72,347

법무부 통계자료

## 난민과 직원 교육

교육과정	일시	회수	참석인원	내용	
법무부-UNHCR 공동	2/2 09:00~17:30	1회	1	43명	난민면접 시 주의사항, 난민소송 특이사례 등 강사: UNHCR 법무관 등
	4/10 09:10~17:20	1회	1	39명	신빙성 및 박해가능성 판단기준 등 *COI조사기법, 파룬궁 및 진농신교 사례연구 강사: UNHCR 법무관 등
	6/14 09:00~17:00	1회	1	48명	성소수자 면접,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 *UNHCR 직원의 난민면접 시연 및 토론 강사: 강릉원주대학교수, 주한캐나다대사관 등
	8/28~29 09:00~18:00	1회	2	82명	면접 기법 및 면접 실습 등 강사: UNHCR 말레이시아 대표부 Adrian Kisai 등
	10/26 09:00~17:00	1회	1	28명	중국 내 종교적 박해 관련 국가정황 등 *진농신교 관련 난민면접 조사 분석 강사: 신홍종교연구센터(CESNUR) 교수, 프랑스 보르도 몽테뉴대학 교수 등
법무부 자체교육	11/30~12/1 09:00~18:00	1회	2	71명	이슬람문화의 이해, 해외 난민캠프실태 등 강사: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UNHCR 주관교육	7/18 14:00~16:00	1회	1	10명 (제주청)	이슬람문화의 이해 및 예면 내진상황 강사: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등
	5/23 09:00~16:00	1회	1	6명 (인천청)	정치활동 및 개종 관련 신빙성 평가 강사: UNHCR 법무관 등
	5/30 09:00~16:00	1회	1	4명 (부산청)	정치활동 및 개종 관련 신빙성 평가 강사: UNHCR 법무관 등

## 신청사유별 난민신청자 현황 ('08~'18.12)

(단위: 건)

연도	합계	정치적의견	종교	인종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가족결합	국적	기타
2008	364	126	67	66	29	-	0	76
2009	324	88	83	3	20	-	0	130
2010	423	79	57	86	7	-	0	194
2011	1,011	266	151	83	55	-	0	456
2012	1,143	348	291	35	52	29	3	385
2013	1,574	289	369	78	63	65	2	708
2014	2,896	595	903	106	169	114	7	1,002
2015	5,711	1,397	1,311	200	721	43	7	2,032 (내전428)
2016	7,542 (+1,831)	601 (+401)	1,856 (+545)	38 (+31)	1,224 (+503)	297 (+254)	38 (+31)	2,166 (내전 227) (+134)
2017	9,942 (+2,400)	1,565 (+961)	2,927 (1,071)	778 (+740)	1,101 (-123)	267 (-30)	32 (-6)	3,272 (내전 179) (+1,106)
2018	16,173	2,428	3,764	1,054	1,588	492	107	6,740

### 국적별 난민 신청 현황 ('94~'18.12)

(단위: 건)

국적	신청현황
파키스탄	5,388 (+1,120)
중국	4,839 (+1,200)
카자흐스탄	4,306 (+2,496)
이집트	4,114 (+870)
러시아	2,984 (전년도자료없음)
인도	2,398 (전년도자료없음)
나이지리아	2,221 (+390)
기타	22,656 (+7,496)
총계	48,906

### 난민통역의 문제점

- 난민통역에 대한 이해 부족
- 통역 교육의 부재
- 통역능력 검증 부재
- 제2외국어 능력에 대한 검증 필요
- 통역인 처우 개선 필요

## 참고문헌

- 주호노(2014). 외국인범죄에 있어서 통역을 받을 권리: 유럽인권협약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49(1), 171-202.
- 박현일. (2019). 청중의 통역품질 평가에 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23(1), 45-64
- 김대근. (2019). 출입국향 난민지위신청 절차의 법해석적 지평과 대안. 고려법학, 93(0), 73-114.
- 이해영, 표현덕(2017). 난민인정과 재판절차의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
-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2015).
- 정명주(2015). 주요 선진국 난민심사 사례분석을 통한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법무부.
- 김슬기(2013). 난민임의 의사소통적 구성: 국내 난민 면담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법과사회 45, 193-231.
- 이지은 (2017). 피의자 권리 고지 통역을 통해 본 사법통역 교육의 필요성. 번역학연구, 18(2), 127-150.
- 이지은(2014). 난민전문통역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통역인 운용방안. 법무부 보고서.
- 김기태(2018). 국제 클리닉에서의 문화간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민족지학적 연구, 언어정보, 26, 5-32.
- 고영민 (2005) 대화통역사의 중재자적 기능, 통역과 번역, 7:1, 3-17
- 장복희(2007). 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국내법제도 개선-출입국관리법안을 중심으로, 法曹, 2,145-168
- Michael Agar(1985). Institutional Discourse, Text, 5(3).
- 2018년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 텍스트 유형별 리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연구

전혜진 (중앙대)

## 1. 서론

AI 시대의 도래로 번역은 더 이상 인간만의 고유한 지적 활동이 아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와 전달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에, 인간번역이 과거처럼 더 이상 번역활동의 주류가 될 수 없게 되었다. 기계번역은 인간번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계번역이 인간 번역의 기능을 빠르게 대체해 가고 있으며, 그 정확도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 100여 개국, 1만5000명의 전문 번역가 풀을 보유한 미국 온라인 번역 업체 ‘원 아워 트랜슬레이션(One Hour Translation)’에 따르면 향후 1~3년 안에 400억달러 규모 번역 시장에서 처리되는 번역물의 절반이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기계번역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번역은 인간번역과 비교하여 수백 혹은 수천 배 빠른 작업 속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계번역은 인간번역에 비해 충실도(faithfulness) 및 자연스러움(fluency)에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코포넨과 살미(Koponen & Salmi, 2015)는 기계번역은 특수 분야에서 잘 제어된 기계 번역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출판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기계번역의 생산성이란 장점을 활용하고, 번역의 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포스트에디팅이 등장하였다. 포스트에디팅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기계로 번역된 1차 결과물을 사람이 편집한다는 것이다. 최근 번역학 연구에서 부상하고 있는 포스트에디팅은 1965년에 이뤄진 연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길며, 오랜 시간 동안 품질 및 생산성에 대해 꾸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기계번역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이론적 분야 뿐 아니라 실무 영역에서도 포스트에디팅을 수용하기 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볼로냐대학, 제네바대학 등은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을 정규 과정에 포함시켰으며, TAUS 등의 사용자 그룹이나 SDL과 같은 사기업은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4월 포스트에디팅을 위한 국제표준까지 제정되는 등 (ISO 18587) 포스트에디팅은 무시

할 수 없는 번역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준호 2019:74). 다시 말해, 기계번역과 함께 포스트에디팅은 번역학계와 언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기계가 번역을 하고 이차적으로 인간이 교정을 하는, 즉 포스트에디팅을 하는 번역 방식은 번역 시간을 50%에서 70%까지 단축시키면서 번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현재 포스트에디터의 역할은 번역 원문을 사전 편집(pre-editing)하는 데까지 확장됐다. 기계번역의 언어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긴 절(節)을 짧게 잘라 기계가 적절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계번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단어를 기계가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주고, 원문 표현이 문법에 맞는지, 논리적인지를 검토한다. 사전 편집(pre-editing)부터 포스트에디팅까지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여 번역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번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최근 몇 년 동안 스스로 학습 능력을 갖춘 ‘딥 러닝(Deep Learning)’에 기반을 둔 기계 번역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 기계 번역과 인간 번역 결과물의 품질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뉴스, 법률, 계약서, 학술 논문, 기술사양서 등 정형화된 텍스트는 기계 번역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반면, 소설, 에세이 등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학 번역의 경우 아직은 기계 번역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번역학계에서도 인간 번역(HT) 대 기계번역(MT)의 대결구도로 바라보는 시각 대신에 이 둘이 서로 만나는 접점(Interface)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번역시장은 우선 기계번역으로 돌려보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할 수 있는 번역가를 찾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 결과 소위 초벌 번역은 기계가 하고 인간은 기계가 못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상황이 형성되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기계번역이 모든 번역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가? 둘째, 포스트에디팅을 통하여 기계번역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셋째, 포스트에디팅은 모든 텍스트 장르에서 번역의 정확성과 생산성 그리고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넷째,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협업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그 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는가?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기계번역의 생산성과 인간번역의 정확성의 장점을 살린 협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텍스트 유형별로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비교 분석하여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접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적 텍스트(Informative Text), 표현적 텍스트(Expressive Text), 호소적 텍스트(Vocative Text), 또는 작용적 텍스트(Operative Text)의 러한 기계번역의 오류를 분석하고, 오류를 유형화한다. 기계번역 결과물 오류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확성’, 내용 ‘이해가능성’, ‘가독성’, ‘적합성’ 등의 기계번역 오류 평가지표를 설정한다. 둘째, 텍스트 유형별로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에디팅하고, 그 결과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포스트에디팅 전략을 연구한다. 셋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계번역과 인간의 포스트에디팅으로 번역이 가능한 텍스트 장르를 규명한다. 넷째, 텍스트 유형별로 포스트에디팅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인간과 기계의 협업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 2. 텍스트 유형별 러한 기계번역의 오류 분석과 포스트에디팅

### 2.1. 기계번역 결과물 분석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선행 단계로 1 단계에선 텍스트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본고에서는 텍스트를 문학 언어, 일반 언어, 특수 언어 측면에서 분류한 스넬-혼비이론(Snell-Hornby 1988:32)과 텍스트를 정보적 텍스트(Informative Text), 표현적 텍스트(Expressive Text), 작용적 텍스트(Operative Text), 멀티미디어 텍스트(Multimedial Text)로 분류한 라이스의 이론(Reiss 2000), 정보적 텍스트(Informative Text), 표현적 텍스트(Expressive Text), 작용적 텍스트(Operative Text), 호소적 텍스트(Vocative Text)로 분류한 뉴마크 이론(Newmark 1988)을 고찰한 후, 라이스와 뉴마크 이론에 따라 정보적 텍스트, 표현적 텍스트, 호소-작용적 텍스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 2 단계에선 기계번역 실험 모형을 만들기 위해 정보적 텍스트 유형에서 뉴스, 계약서, 학술논문, 기술사양서 텍스트를 선택하였으며, 표현적 텍스트로에선 폴스포이의 『유년시절』, 호소-작용적 텍스트로는 광고 표제어를 선택하였다. 번역 실험에 선정된 각 유형별 텍스트의 분량은 60-100 개의 단어로 설정하였다. 3 단계에선 다양한 기계번역 툴 중 가장 보편적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글번역을 이용하여 텍스트 유형별로 선정된 샘플 번역 대안을 산출한 다음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를 평가지표에 따라 분석하고 기계번역의 오류를 유형화하였다. 4단계에선 오류를 교정하기 위하여 논문저자가 풀 포스트에디팅을 하여 번역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포스트에디팅은 풀 포스트 에디팅<sup>1)</sup>을 의미하며, 기계번역이 심각한 오류가 없는 한, 가급적 기계번역 대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행하였음을 밝혀둔다. 마지막 5단계에선 사용된 포스트에디팅 전략을 분석하고,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협업을 통한 번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텍스트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 기계번역 오류를 평가하고 유형화하기 위하여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 평가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기계번역과 관련된 평가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아놀드(Arnold 1994:169)는 ‘이해 가능성’과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서, 문법 오류, 오역, 미번역 등이 이해가능성에 영향을 주며, 원문의 의미가 번역문에서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는 정확성에 영향을 주나 문체는 이해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허친스와 솜머스는 원문과 동일한 정보의 전달 여부인 ‘원문 충실성 또는 정확성’, 번역된 내용의 이해 용이성인 ‘이해가능성 또는 명확성’, 내용과 의도에 적합한 언어 사용 여부인 ‘문체’를 기준으로

1) 인간 번역물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프로세스를 풀 포스트에디팅(full post-editing), 단순히 이해 가능한 번역물을 산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라이트 포스트에디팅(light post-editing)으로 구분한다. 언어 산업 전문 리서치기관인 Common Sense Advisory에 따르면, 포스트에디팅 유형에 대해 라이트 포스트에디팅은 원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어휘적, 통사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고, 풀 포스트 에디팅은 인간이 번역한 것처럼유창하게 문체까지 자연스럽게 편집하는 것이다.

제시하였다. 문체 측정이 주관적 성격을 띠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포함시켰다 (Hutchins & Somers 1992:163-164). 피더러와 오브라이언(Fiederer & O'Brien 2009:56)은 원문 대비 번역문이 얼마나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는지를 ‘정확성’, 번역된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명확성’, 번역문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읽히고 관용표현과 분야의 용어, 문체를 잘 사용하는지를 ‘문체’로 규정하고 이 세 기준을 기계번역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상기 연구의 기계번역 결과물 평가지표를 보다 세분하여 ‘정확성’, ‘이해가능성’, ‘가독성’, ‘적합성’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기계번역 결과물을 평가하고자 한다. 언어 체계를 표층 구조와 심층구조로 분류한 멜추크의 주장(Мельчук 1999)을 참고하여, 기계번역의 표층구조에 나타나는 어휘, 문법적 층위에서의 번역 완성도를 ‘정확성’으로, 심층구조에 해당되는 의미의 전달 여부는 ‘이해 가능성’으로, 그리고 번역의 자연스러움과 유창성의 평가 여부는 “가독성”과 기능, 목적, 문체에 적합한지 여부는 ‘적합성’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기계번역 결과물의 ‘정확성’은 어휘적 층위, 문법적 층위에서 평가하고, ‘이해 가능성’은 의미적 층위에서 ‘의미의 명확성’, ‘가독성’은 ‘자연스러움’, ‘유창성’, ‘논리성’으로 세분하여 평가하며, ‘적합성’은 문체적 층위, 화용적 층위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4단계에서 포스트에디팅을 할 때, 기계번역 결과물이 양호한 경우, TAUS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가능한 MT결과를 활용”하라는 권고를 고려하여 가급적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고 결과물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https://www.taus.net/academy/taus-post-editing-course>). 5단계에서 포스트에디팅의 작업량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TAUS의 대표적인 TER(Translation Edit Rate)를 참고하였다.<sup>2)</sup> 본고에서도 포스트에디팅에 삭제, 추가, 교체 중 어떤 전략을 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 2.2. 정보적 텍스트의 기계번역 오류 평가와 포스트에디팅

### 2.2.1. 뉴스 텍스트 기계번역과 포스트 에디팅

먼저 정보적 텍스트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뉴스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 실험 1)

ST. Российским банкам могут разрешить обслуживать клиентов дистанционно.

Комитет ГД по финансовому рынку рекомендовал парламентариям принять закон о дистанционном банковском обслуживании. Если законопроект будет принят, то банкам нужно

2) 코포넨(2012) 등 다수의 학자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TER의 경우, 기계번역에서 얼마나 자주 삭제, 추가, 교체 등이 이뤄졌는지를 근거로 작업량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будет получить одобрение Банка России на сбор биометрических данных своих клиентов. В пояснительной записке законопроекта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полный переход на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клиентов банки смогут выполнить только с 2021 года. Это время банковским структурам будет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отладить техн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для работы с биометрией. Госдума планирует рассмотреть законопроект 16 июля. После его принятия россияне смогут оформлять кредиты и вклады, а также совершать денежные переводы без посещения отделений банка. (Правда.Ру2019.07.10. <https://www.pravda.ru/news/economics/1425032-bank/>)

MT. 러시아 은행은 고객에게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장에 관한 국가 두마위원회 (State Duma Committee on the Financial Market)는 국회의원들에게 원격 बैं킹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법안이 채택되면 은행은 고객의 생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러시아 은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에 대한 설명문은 은행이 2021 년부터 원격 고객 서비스로의 전환을 완료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번에는 은행 구조가 생체 인식 기술 작업을 위한 기술 시스템을 디버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Duma는 7 월 16 일이 법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입양 후 러시아인들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돈을 송금할뿐만 아니라 대출과 예금을 도울 수있게 될 것이다.

쁘라브다지의 경제 뉴스를 기계번역한 결과물의 오류를 ‘정확성’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после его принятия”를 “입양후”라고 번역한 오류와 “주 Duma”라는 번역 오류가 어휘적 층위에서만 발견되었다. 이는 기계번역이 대명사 “ego” 가 “법안”을 지시하는 것임을 분석하지 못하고 “принятие”를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여 “입양”이라고 번역한 데서 기인하며, “주 Duma”는 앞 단락에선 “국가 두마”로 맞게 번역하였으나, 다음 단락에서 반복하여 나왔을 경우 통일성있게 어휘 번역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례이다.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기계번역 결과물을 살펴보면, 상기 어휘 오류로 인한 오역 외에는 별다른 오역이 없어 내용은 이해가능하여, ‘이해가능성’ 측면에서도 기계번역의 품질은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독성’ 측면에서는 포스트에디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금융 시장에 관한 국가 두마위원회 (State Duma Committee on the Financial Market)”, “법안에 대한 설명문”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용어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 은행”은 추가전략을 사용하여 한국인 독자에게 친숙하게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수정하고, “은행구조”는 원문을 그대로 축자역한 기계번역과 달리 생략 전략을 사용하여 “은행”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 시스템을 디버깅”, “법안을 고려”의 경우에는 맥락에 맞게 “기술 시스템을 정비하다”. “법안을 검토하다” 로 자연스럽게 다듬어하며, “돈을 송금할뿐만 아니라 대출과 예금을 도울 수있게 될 것이다”를 생략 전략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 ‘적합성’ 측면에서도 뉴스 기사임을 고려하여 평어체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어체와 경어체를 혼용함으로써 문체의 일관성 문제를 보였고, 또한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이 간결하게 처리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서, 뉴스 기술에 맞는 문체로 수정 교체하고, 헤드라인의 기계번역에서 술어부분을 생략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는 포스트에디팅 작업이 필요했다. 해당 뉴스기사의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으며, 포스트 에디팅 전략에는 교체, 추가, 삭제의 전략 등이 적용되었다.

PE. 러시아 은행, 고객에게 원격으로 서비스 제공

국가 두마의 금융시장 위원회(State Duma Committee on the Financial Market)는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은행 서비스의 원격 제공 관련 법률을 통과 할 것을 권고했다. 법안이 채택되면 은행은 고객의 생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 제안 설명서에는 2021 년에서야 은행은 원격 고객 서비스 체제로의 전환을 완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은행기관이 생체 인식 기술 작업을 위한 기술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 두마는 7 월 16 일에 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안이 채택되면, 러시아인들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과 예금 그리고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적용된 포스트에디팅 전략을 분석해 보면, ‘정확성’을 위하여 교체, ‘가독성’ 제고를 위하여 교체, 추가, 생략의 전략을 그리고 문체적인 ‘적합성’ 교정을 위해 교체 전략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해당 뉴스 기사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에디팅할 때, 인간 번역사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가독성’과 ‘적합성’ 측면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었다. 95 개 단어 분량 뉴스 텍스트의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 포스트에디팅 전략 그리고 포스트에디팅 작업량을 통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1). 포스트에디팅 작업량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원문 텍스트 전체 단어 수 대비 12.6%가 나왔다<sup>3)</sup>.

[표 1] 뉴스 기계번역 오류 유형 별 포스트에디팅 분석

기계번역 오류 평가지표	포스트에디팅 전략	포스트에디팅 작업량
정확성	교체	2
이해가능성	-	-
가독성	교체	4
	추가	1
	생략	2
적합성	교체	3

다음으로 기계번역의 품질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정치 관련 뉴스 텍스트의 기계번역 오류와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살펴보겠다.

3) 여기서 포스트에디팅 작업량을 텍스트 전체 단어 수 대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은 포스트 에디팅 작업량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 실험 2)

**ST.** Как подчеркивает ЦТАК, у Ким Чен Ына и Трампа состоялся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и откровенный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о этим вопросам”. “Переговоры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ослабле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одействие миру и стремлению установить взаимное доверие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целях достижения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а также на прекращение недоверия и враждебности, которые существуют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илет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в статье. ( ТАСС 2019.03.07. <https://tass.ru/mezhdunarodnaya-panorama/6172943> )

**MT.** TsTAK가 강조한 것처럼 김정은과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해 건설적이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이 회담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 양국 간 상호 신뢰 구축 의지, 그리고 양국 간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불신과 적대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확성’ 측면에서 기계번역 오류는 어휘적 층위에서 축약어 “ЦТАК”를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로 인식하지 못하고 TsTAK로 번역하여 독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번역대안을 산출하였다. 문법적인 층위에서는 “в целях достижения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번역을 누락하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у Ким Чен Ына и Трампа состоялся...”에서 “김정은과 트럼프는...라고 말을 했다”라고 불필요한 부분 “...라고 말을 했다”를 추가 번역하였다. 하지만 ‘정확성’ 측면에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해가능성’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메시지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이 비교적 내용전달이 정확하였다. 또한 ‘가독성’ 측면과 ‘적합성’ 측면에서도 본 기계번역 결과물은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의 포스트에디팅 대안에서 ЦТАК를 “조선중앙통신” 또는 “KCNA (Korean Central News Agency)”로 교체하였다. 단지 ‘가독성’ 측면에서 원문에서 슬어가 “...강조하였다”가 반복되므로 포스트에디팅에서 인간번역사가 논리적인 연결을 위하여 “또한”을 추가하는 정도의 교정을 했을 뿐이다.

**PE.** 김정은과 트럼프는 “이 문제들에 대해 건설적이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KCNA)은 강조하였다. 또한 이 회담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상호 신뢰 구축 의지 강화, 그리고 양국 간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불신과 적대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기 정치 관련 뉴스의 기계번역 결과물의 포스트에디팅 전략을 분석해 보면, ‘정확성’ 측면에서의 오류 수정을 위하여 교체, 추가, 생략의 전략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축약어 등의 용어와 복문 구조의 오류를 교정하는 작업이 주된 작업이었다. ‘가독성’ 측면의 논리선 제고를 위해 추가 전략을 1회 사용한 것 외에는 포스트에디팅을 해야 할 심각한 오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기계번역 결과물은 ‘적합성’ 측면의 문체적인 문제를 보이는데, 해당 뉴스 기사의 경우에는 교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특이 사항이었다. 61 개 단어 분량 뉴스의 기계번역 오류 유형별 포스트에

디팅 전략과 작업량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 . 원문 텍스트 전체 단어 대비 포스트에디팅 작업량은 약 6.6%였다.

[표 2] 뉴스 기계번역 오류 유형 별 포스트에디팅 분석

기계번역 오류 평가지표	포스트에디팅 전략	포스트에디팅 작업량
정확성	교체 추가 생략	1 1 1
이해가능성	-	-
가독성	추가	1
적합성	-	-

뉴스 기사에 대한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분석해보면, 문장이 짧고, 구문구조가 단순하고, 상황적 맥락이 적으며, 의미적 범위가 넓지 않은 뉴스의 경우에는 기계번역이 용이하고, 인간번역사가 ‘정확성’ 측면에서 상황에 맞는 어휘 교정과 주로 ‘가독성’ 측면에서 기계번역의 오류를 포스트에디팅한다면 번역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2.2.2. 계약서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

다음은 정확성과 명료성을 특징으로 하는 계약서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아래 실험 텍스트는 계약서 서식 중 가장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것으로 “채무 계약서” 마지막 부분을 발췌하였다.

#### 실험 3)

##### ST. 3. Прочие условия

3.1. Настоящий договор составлен в двух экземплярах – по одному для каждой Стороны.

3.2. Договор может быть изменен и дополнен по соглашению Сторон. Все изменения и дополнения к настоящему договору должны быть составлены в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е и подписаны Сторонами.

3.3.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Сторон определя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йствующи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РФ.

3.4. Все споры, возникающие по настоящему договору, Стороны будут разрешать путем переговоров. Если стороны не достигнут соглашения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то спор подлежит рассмотрению Арбитражным судом. (Договора займа)

### MT. 3. 기타조건

- 3.1. 이 계약은 각 당사자 하나씩 중복하여 이루어집니다.
- 3.2.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 이 계약에 대한 모든 변경 및 추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 3.3. 양 당사자의 책임은 러시아 연방의 현행법에 따라 결정된다.
- 3.4.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당사자들이 협상 중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분쟁은 중재 법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채무 계약서”의 기계번역 결과물에서는 ‘정확성’ 측면의 어휘적 층위에서 “составлен в двух экземплярах”를 “중복하여 이루어지다”로 번역하는 오류만 발생하였고, ‘이해가능성’ 측면에서의 내용전달도는 ‘정확성’ 측면의 어휘적 오류가 있는 항목을 제외하곤 상 수준을 보였다. ‘가독성’ 측면에서도 “рассмотрение”를 법률 용어로 번역하지 않고 “검토”로 일차적 의미로 번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지 않았으나, ‘적합성’ 측면에서는 문체적인 층위에서 계약서의 문체에 맞게 일관되게 평어체를 사용하지 않고 경어체가 혼용되는 오류를 범하였다.

본 계약서의 포스트에디팅 전략에는 ‘정확성’ 카테고리의 어휘적 층위의 오류를 “각 당사자들에 한 부씩 두 부 작성한다”로 수정 교체하고, ‘가독성’ 향상을 위해 “рассмотрение”를 “심의”로 교체하였으며,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를 “수정 보완할 수 있다”로 중첩되는 술어를 생략하여 간결하게 수정하고, 수동태를 능동태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적합성’ 개선을 위해 계약서 문체에 맞도록 평어체로 통일하였다.

### PE. 기타조건

- 3.1. 본 계약서는 각 당사자들에 한 부씩 두 부 작성한다.
- 3.2.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대한 모든 변경 및 추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 3.3. 양 당사자의 책임은 러시아 연방의 현행법에 따라 결정된다.
- 3.4.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당사자들이 협상 중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분쟁은 중재 법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적용된 포스트에디팅 전략을 분석해 보면, ‘정확성’을 위하여 교체, ‘가독성’ 제고를 위하여 교체, 생략의 전략을, 그리고 문체적인 ‘적합성’ 교정을 위해 교체 전략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해당 계약서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에디팅할 때, 인간 번역사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가독성’과 ‘적합성’ 측면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었다. 80개 단어 분량의 계약서 텍스트의 기계번역 오류 유형별 적용된 포스트에디팅 전략과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표3). 원문 텍스트 전체 단어 대비 포스트에디팅 작업량은 약 7.5%이다.



[표 3] 계약서 기계번역 오류 유형 별 포스트에디팅 분석

기계번역 오류 평가지표	포스트에디팅 전략	포스트에디팅 작업량
정확성	교체	1
이해가능성	-	-
가독성	교체 생략	2 1
적합성	교체	2

계약서 텍스트 중 다음으로 실험할 텍스트는 “카자흐스탄 국가 조달 계약서”로써 위에서 분석한 계약서 보다는 표준성과 보편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텍스트의 난이도도 높은 편이어서, 기계번역 결과가 번역 평가지표에서 어떠한 수준을 보일 지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험 4)**

ST. 38. При возникновении форс-мажор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Поставщик должен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направить Заказчику письменное уведомление о та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и их причинах. Если от Заказчика не поступает иных письменных инструкций, Поставщик продолжает выполнять сво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Договору, насколько это целесообразно, и ведет поиск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способов выполнения Договора, не зависящих от форс-мажор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39. Заказчик может в любое время расторгнуть Договор, направив Поставщик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исьменное уведомление, если Поставщик становится банкротом или неплатежеспособным.

40. Заказчик может в любое время расторгнуть Договор в силу не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его дальнейшего выполнения, направив Поставщик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исьменное уведомление. В уведомлении должна быть указана причина расторжения Договора, должен оговариваться объем аннулированных договор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а также дата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расторжения Договора. (Приложение 7 к Конкурс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утвержденной приказом Министра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Договор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купках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MT. 38.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러한 상황과 그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한다. 고객이 다른 서면 지시를 받지 못하면 공급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계약 이행을 위한 대안을 찾습니다.

39. 고객은 공급자가 파산하거나 부실화 될 경우 공급자에게 관련 서면 통지를 보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40. 고객은 관련 서면 통지서를 공급자에게 보내 추가 이행의 불리함으로 인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계약 해지 사유, 취소 된 계약 의무 금액 및 계약 종료일의 효력 발생일이 표시되어 있어야합니다.

“카자흐스탄 국가조달 계약서”의 기계번역 결과물 오류를 먼저 ‘정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휘적 층위에서 “не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ь его дальнейшего выполнения”를 “추가이행의 불리함”으로, 또한 “расторжение Договора”를 “계약 종료”로 부정확하게 번역한 것 외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해가능성’ 측면에서의 내용전달도는 상 수준에 해당되었다. ‘가독성’ 측면에서는 “Заказчик”을 “고객”, “не зависящих от”를 “의존되지 않는”, “неплатежеспособный”를 “부실화되다”, “должна быть указана”를 “표시되어야 한다” 등이 직역하거나,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번역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보였으며, ‘적합성’ 측면에서는 문체적인 층위에서 계약서의 문체에 맞게 일관되게 평어체를 사용하지 않고 경어체가 혼용되는 오류를 범하였다.

상기 기계번역의 오류를 파악하여 포스트에디팅을 한 결과물에서는 ‘정확성’ 측면에서 “не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ь его дальнейшего выполнения”를 “향후 계약이행의 불가함”으로 “расторжение Договора”를 “계약 파기”로 수정 교체하였으며, ‘가독성’ 측면에서는 “Заказчик”을 “주문자”, “не зависящих от”를 “구애되지 않는”, “неплатежеспособный”를 “지불불능”으로, “должна быть указана”를 “명시해야 한다”로 교체하여 다듬기 하였다. ‘적합성’ 측면의 보완을 위하여 계약서 문체에 맞도록 평어체로 통일하였다.

PE. 39. 불가항력이 발생 할 경우 공급자는 주문자에게 상황과 사유를 즉각 서면 통지한다. 주문자로부터 임의의 서면 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는 계약의무를 계속 이행하면서 불가항력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39. 주문자는 공급자가 파산 또는 지불불능 상태일 경우, 공급자에게 서면통지 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0. 주문자는 향후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공급자에게 서면통지 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사유, 취소된 계약 의무 금액 및 계약해지 효력 발생일을 통지서에 명시한다.

실험 4의 기계번역 결과물 포스트에디팅 전략을 분석해 보면, ‘정확성’ 측면에서 교체, ‘가독성’ 제고를 위하여 교체 전략을, 그리고 문체적인 ‘적합성’ 교정을 위해 교체 전략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해당 계약서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에디팅할 때, 실험 3의 경우처럼 인간 번역사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가독성’과 ‘적합성’ 측면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었다. 108 개 단어 분량의 카자흐스탄 정부조달 계약서의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포스트에디팅 전략

과 작업량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원문 텍스트 전체 단어 대비 포스트에디팅 작업량은 약 9.3%이다.

[표 4] 계약서 기계번역 오류 유형 별 포스트에디팅 분석

기계번역 오류 평가지표	포스트에디팅 전략	포스트에디팅 작업량
정확성	교체	2
이해가능성	-	-
가독성	교체	4
적합성	교체	4

실험 3과 4의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비교 대조해 보면, 표준화된 서식이 특징인 계약서의 경우, 기계번역의 결과물이 평균적으로 중상의 수준을 보이면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사가 협업을 하여 번역의 생산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 2.2.3. 학술체 텍스트의 기계번역과 포스트 에디팅

학문 분야의 전문성, 정확성, 명료성, 논리성을 주 특징으로 하는 학술체 텍스트 중 먼저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사양서 일부를 발췌하여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을 시도해 보도록 하자.

#### 실험 5)

ST. Для создания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й ИАИС МФ РК необходимо достижение следующих целей: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ом интегрированных услуг гражданам и бизнесу по принципу “одного окна”;
-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исполнения процессов, отвечающих за оказ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за счет централизации, регламент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и;
- создание еди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МФ РК;
- обеспечение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ртфелем ИТ-систем (ИТ-проектов) дл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го создания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й архитектуры e-Минфин;
- обеспечение комплексной автоматизаци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оцедур (бизнес-процессов) по исполн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ом финансов и его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 создание и доработка существующих приложени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инципом сервис-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архитектуры (подход SOA); (Техническая спецификация на проект «Создание интенрированной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е-МИНФИН» » с. 9)

MT. 통합 IAIS MOF를 작성하려면 다음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 “한 창”의 원칙에 따라 시민과 기업에 국가 통합 서비스 제공
- 중앙 집중화, 규정 및 통합을 통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책임이 있는 프로세스의 실행 개선.
- 카자흐스탄 공화국 재무부의 단일 정보 공간 창설
- 집중화된 e-MoF 아키텍처의 일관된 생성을 위한 IT 시스템 포트폴리오 (IT 프로젝트)의 중앙 집중식 관리 제공
- 재무부와 그 하부 조직의 집행 및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절차 (업무 프로세스)의 복잡한 자동화 제공
- SOA (Service-Oriented Architecture)의 원칙에 따라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생성 및 개선

기술사양서 텍스트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정확성’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어휘적 층위에서 создание ИАИС МФ (IAIS MOF를 작성), e-Минфин (e-MoF 아키텍처), комплексная автоматизация (복잡한 자동화)등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문법적 층위에서는 별 다른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내용 ‘이해 가능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내용 전달도가 높은 편으로 비교적 상 수준을 보여주었다. 한편 가독성 측면에서는 “одно окно(한 창의 원칙)”, “процессы, отвечающие за (-에 책임이 있는 프로세스)”, “его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그 하부 조직”,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е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й архитектуры (집중화된 아키텍처의 일관된 생성)” 등의 번역 대안을 교체하여 다듬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 ‘적합성’ 측면에서는 앞 부분에서 경어체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사양서의 문체에 맞게 명사구를 사용하여 간결하고 통일성 있게 처리되었다.

상기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에서는 ‘정확성’ 측면에서 “создание ИАИС МФ”를 “카자흐스탄 재무부 IAIS 구축”, “e-Минфин”을 “e-MINFIN”으로 “комплексная автоматизация”를 “종합적인 자동화”로 교체하였다. ‘가독성’ 측면에서는 “одно окно”를 “싱글 윈도우” 원칙으로 교체하여 용어 사용의 정확성과 명료성을 높였고, “процессы, отвечающие за”를 “-를 담당하는”으로 교체하여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다듬기를 하였으며, “его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는 “산하 부처기관”으로 교체하고,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е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й архитектуры”를 “중앙 통합된 아키텍처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교체하여 용어 표현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문체의 ‘적합성’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앞 부분의 경어체를 기술사양서 기술방식에 적합하도록 평어체로 교체하였다.

PE. 카자흐스탄 공화국 재무부 통합 IAIS를 구축하려면 다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단일 창구(Single Window)” 원칙에 따라 시민과 기업에 국가 통합서비스 제공
- 중앙 집중화, 규정화 및 통합을 통해 공공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프로세스의 개선
- 카자흐스탄 공화국 재무부의 단일 정보 공간 구축
- 중앙 통합된 “e-MINFIN” 아키텍처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IT 시스템 포트폴리오 (IT 프로젝트)의 중앙 집중식 관리
- 재무부와 그 산하 부처기관의 업무 집행 및 공공 서비스 제공 관련 행정 절차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종합적인 자동화
- SOA (Service-Oriented Architecture)의 원칙에 따라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생성 및 개선

실험 5의 기술사양서에 대한 기계번역 결과물의 포스트에디팅 전략을 분석해 보면, ‘정확성’, ‘가독성’ 그리고 문체적인 ‘적합성’ 측면의 오류 교정을 위해 교체 전략만이 사용되었다. 해당 텍스트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에디팅할 때, 인간 번역사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정확성’과 ‘가독성’ 측면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었다. 93 개 단어 분량의 기술사양서에 대한 기계번역 오류 유형별 포스트에디팅 전략과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표5). 원문 텍스트 전체 단어 대비 포스트에디팅 작업량은 8.6%이다.

[표 5] 기술사양서 기계번역 오류 유형 별 포스트에디팅 분석

기계번역 오류 평가지표	포스트에디팅 전략	포스트에디팅 작업량
정확성	교체	3
이해가능성	-	-
가독성	교체	4
적합성	교체	1

다음 번역 실험 대상으로 학술체 텍스트 중 정보통신 분야의 논문을 선택하였다. 텍스트의 전문성과 정확성 그리고 논리성이 특징인 논문의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를 분석하고 포스트에디팅 전략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실험 6)**

ST.. Текущий этап ми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все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приобретает черты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в котором знания,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в вид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ресурсов становятся главным достоянием и важнейшим фактор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индустрия –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индустрия – быстро развивающаяся отрасль экономики, связанная со сбором,

производством, обработкой, передаче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хранением, эксплуатацией,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защитой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информации. Процессы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челове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так и в непромышленной сфере являются столь масштабными и глубокими, что ведут к качественным изменениям самого общества, безгранично расширяя область применения продуктов и сервисо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индустрии, неуклонно вовлекая в мир обработки информации все обще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ая система ИТ-образования и ее методические основы Проф. В.А. Сухомлин, www.sukhomlin.ru ВМК МГУ им. Ломоносова УМО, Тверь, 2005)

MT. 현재 세계 개발의 단계는 점점 더 정보 자원의 형태로 제시된 지식이 경제 발전의 주요 자산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정보 사회의 특징을 획득하고 있으며, 정보 산업은 경제의 주요 부문 중 하나입니다. 정보 산업은 수집, 생산, 가공, 전송, 유통, 보관, 운영, 표시, 사용, 다양한 유형의 정보 보호와 관련된 경제의 급속한 발전 부문입니다. 생산과 비 생산 영역에서의 인간 활동의 정보화 과정은 사회 자체의 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정보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하고 사회 전체를 정보 처리의 세계로 꾸준히 끌어들이는 데는 너무나 규모가 크고 깊다.

학술논문 텍스트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정확성’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어휘적 층위에서 “представленные(표시)”의 번역 오류가 발생하였고, 문법적 층위에서는 생격 형태로 나타난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информации(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앞에 열거된 모든 명사에 종속됨에도 불구하고, “защита(보호)”에만 종속되는 것처럼 번역하는 문법오류를 저질렀다. 또한 “столь ..., что...”의 구문 분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구문에서 어순 번역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내용 ‘이해 가능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내용 전달도가 높은 편으로 비교적 상 수준을 보여주었다. ‘가독성’ 측면에서는 “развития(개발)”, “приобретает (획득하다)”, “вовлекая (끌어들이면서)”등의 축어역을 한 번역 대안을 문맥에 맞게 다듬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적합성’ 측면에서는 학술논문의 문체에 적합하게 평어체를 사용하지 않고, 경어체와 평어체를 혼용하여 기계번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학술논문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에디팅할 때, ‘정확성’ 측면에서 “представленные(표시)”를 “제공”으로 수정하였고, 문법적 층위의 생격 분석의 오류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으로 모든 명사에 다 걸리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столь ..., что...”의 구문 오류를 교정하였다. ‘가독성’ 측면에서는 “развития(개발)”, “приобретает (획득하다)”, “вовлекая (끌어들이면서)”등의 축어역을 한 번역 대안을 “발전”, “갖다”. “유입시키면서”로 수정하여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다듬기를 하였다. 문체의 ‘적합성’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혼용하여 사용된 경어체를 논문 기술방식에 적합하도록 평어체로 교체하였다.

**PE.** 세계 발전의 현 단계는 점점 더 정보 자원의 형태로 제시된 지식이 경제 발전의 주요 자산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정보 사회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정보 산업은 경제의 주요 부문 중 하나이다.

정보 산업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전송, 유통, 보관, 운영, 제공, 이용 및 보호와 관련된 경제의 급속한 발전 부문이다.

생산과 비 생산 영역에서의 인간 활동의 정보화 과정은 정보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하고 사회 전체를 정보 처리의 세계로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면서, 사회 자체의 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정도로 너무나 규모가 크고 깊다.<sup>4)</sup>

실험 6에서 학술논문의 기계번역 결과물의 포스트에디팅 전략을 분석해 보면, ‘정확성’, ‘가독성’ 그리고 문체적인 ‘적합성’ 측면의 오류 교정을 위해 교체 전략만이 사용되었다. 해당 논문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에디팅할 때, 인간 번역사가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정확성’과 ‘가독성’ 측면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었다. 100개 단어 분량의 학술논문의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 유형별 포스트에디팅 전략과 작업량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표6). 원문 텍스트 전체 단어 대비 포스트에디팅 작업량은 8%이다.

[표 6] 학술논문 기계번역 오류 유형 별 포스트에디팅 분석

기계번역 오류 평가지표	포스트에디팅 전략	포스트에디팅 작업량
정확성	교체	3
이해가능성	-	-
가독성	교체	3
적합성	교체	2

정보 텍스트 중 학술체에 속하는 기술사양서와 논문의 번역 실험을 통하여 기계번역의 오류 중 전문용어, 그리고 논리성을 위해 사용된 복문구조, 문체적인 문제를 인간번역사가 포스트에디팅하면, 기계와 인간의 협업을 통하여 번역의 정확성, 신속성,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3. 표현적 텍스트의 기계번역 오류 평가와 포스트에디팅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적 텍스트 번역 분야에서는 기계번역 결과물의 완성도가 아직 해결

4) 실험 6 텍스트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교정 작업을 더하여 다듬기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가급적 기계번역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포스트에디팅을 하였다.  
PE 대안 2) 생산분야와 비 생산분야에서 인간 활동의 정보화 과정은 매우 규모가 크고 심오하며, 이는 정보산업 관련 재화 및 용역 이용 분야를 무한으로 확장시키고, 사회 전체를 정보 가공 세계로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면서, 사회 자체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해야할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간 번역사가 포스트에디팅을 담당하면, 번역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향후 번역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을 여지가 컸다. 그렇다면, 소통적 능력, 전략적 선택능력, 창의성, 감성을 필요로 하는 예술 문학 텍스트 번역 작업도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협업이 가능한 장르인지를 실험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당 실험을 위하여 플스또이의 『유년시절』의 구글 번역(MT)의 결과물을 분석하고, 포스트에디팅을 시도해보았다. 그러나 표현적 텍스트 유형의 번역실험 결과를 미리 언급하자면, 기계번역 결과물은 ‘정확성’, ‘이해가능성’, ‘가독성’, ‘정확성’ 측면에서 양적, 질적인 기준에서 70% 이상의 번역오류를 양산하였으며, 문학 작품의 예술 미학적 기능은 차치하고라도 내용 전달에도 실패한 번역 품질을 보여주었다. 번역 오류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인간과의 협업을 통한 포스트에디팅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 아래 실험에서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실험 7)

ST. ... все туда же, бывало, нажмешь и всунешь, когда прикажут перед рекреацией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библиотеку, как громко называл Карл Иванович эту полочку. Коллекция книг на собственной если не была так велика, как на нашей, то была еще разнообразнее. Я помню из них три: немецкую брошюру об унавоживании огородов под капусту — без переплета, один том истории Семилетней войны — в пергаменте, прожженном с одного угла, и полный курс гидростатики. (Л. Н. Толстой Детство с. 12) (전혜진 2019:124 재인용)

MT. ...칼 아이 바니 쉬 (Karl Ivanych)가 이 선반을 큰소리로 부르면서 레크리에이션 전에 도서관을 정리하기 위해 명령을 내릴 때, 당신은 압박을 당하고 붙어있었다. 우리 책만큼 위대한 책이 아니라면 우리 책 자체는 다양하다. 나는 그들의 세 가지 기억: 독일 브로셔 비료를 주는 정원에 양배추 아래를 - 바인딩하지 않고, 7 년 전쟁의 단일 볼륨 히스토리 - 한 구석에서 불태운 양피지에서, 유체 정역학의 전체 과정.

PE. 번역 오류가 70% 이상으로 포스트에디팅 불가능

상기 기계번역 결과물을 먼저 ‘정확성’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어휘적 층위의 오류로는 인명 “칼 아이 바니 쉬”, “이 선반을 큰소리로 부르면서”, “레크리에이션 전에”, “당신은 압박을 당하고 붙어있었다”, “위대한 책”, “그들의 세 가지 기억”, “독일 브로셔 비료를 주는 정원에 양배추 아래를”, “7 년 전쟁의 단일 볼륨 히스토리”, “한 구석에서 불태운 양피지”, “유체 정역학의 전체 과정” 등 거의 모든 어휘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법적인 측면의 오류를 살펴보면, “이 선반을 큰소리로 부르면서 레크리에이션 전에 도서관을 정리하기 위해 명령을 내릴 때”에서 목적어 (эту полочку)와 목적보어(библиотеку)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문법 오류, “우리 책만큼 위대한 책이 아니라면 우리 책 자체는 다양하다.”에서 если ..., то... 대조를

나타내는 구문, “나는 그들의 세 가지 기억: 독일 브로셔 비료를 주는 정원에 양배추 아래를 - 바인딩하지 않고, 7 년 전쟁의 단일 볼륨 히스토리 - 한 구석에서 불태운 양피지에서, 유체 정역학의 전체 과정.”에서 o... 나 под... 전치사구를 이해하지 못한 것과 구문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여 문장을 끝맺지 못한 비문을 생성한 구문적 오류가 나타났다. 내용 ‘이해가능성’ 측면에서는 어휘적 층위와 문법적 층위의 오류로 전혀 원문의 내용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이며, 그 결과 내용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독성’ 측면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적합성’ 측면에서도 예술 문학체의 문체적 특성과 톨스토이 특유의 관찰력과 세밀한 묘사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기계번역의 예시는 기계번역 품질 평가 기준인 ‘정확성’, ‘이해 가능성’, ‘가독성’, ‘적합성’ 측면에서 최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에디팅을 한다 해도 교정이 불가하며, 인간번역사가 새롭게 재번역하는 것이 번역 속도와 품질 면에서도 효과적임을 강조해야한다. 아래의 인간 번역 대안과 검토해 보면, 기계번역 결과물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HT. ...까를 이바느이치는 이 책장을 거창하게 도서관이라 부르며, 이따금 쉬는 시간 전에 서가정리를 시키곤 했는데, 그럴 때면 우리는 책을 전부 아무렇게나 쭈셔 넣곤 하였다. 까를 이바느이치의 책장은 우리 책장처럼 책이 많지 않았지만, 종류는 훨씬 다양했다. 그 중에서 특히 세 권의 책이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중 한 권은 제본하지 않은 독일어 소책자로 양배추 밭에 거름을 주는 법에 관한 책이었고, 다른 한 권은 한 쪽 가장자리가 불에 타서 구멍이 난 양 가죽 표지의 《7년 전쟁사》,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정수학(靜水學)》 책이었다. (전혜진 2018:14)

이번에는 주인공 니콜라이의 심리상태의 묘사에서 부터 출발하는 『유년시절』의 시작 부분을 발췌하여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를 분석하고 포스트에디팅 가능 여부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 실험 8)

ST. 12-го августа 18..., ровно в третий день после дня моего рождения, в который мне минуло десять лет и в который я получил такие чудесные подарки, в семь часов утра Карл Иванович разбудил меня, ударив над самой моей головой хлопучкой — из сахарной бумаги на палке — по мухе. (Л. Н. Толстой Детство с. 10) (전혜진 2019:136 재인용)

MT. 18 세가 된 8 월 12 일에 ... 정확히 10 일을 지내고 아침 7시에 멋진 선물을 받은 제 탄생 날로부터 3 일째 되는 날에 칼 이바느는 저를 깨우고 저의 머리를 흔들며 대면석 막대기에 설탕 종이 - 비행.

PE. 번역 오류가 70% 이상으로 포스트에디팅 불가능

실험 8에 사용된 부분은 『유년시절』 시작 부분으로, 톨스토이는 주인공 니콜라이의 심리 상태가



정반대로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소설의 처음부터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해당 예시에서 구글 번역은 원문 내용의 20%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번역의 자연스러움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기계번역 결과물 평가지표에 따라 상세하게 분석해보면, ‘정확성’ 측면에서 “18 세”, “10 일을 지내고”, “저의 머리를 흔들어 대면서”, “비행” 등의 어휘적 층위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또한 어휘적 층위에서 “хлопушкой” 어휘 번역이 누락되었다. 문법적 층위에서는 12-го августа 18...에서 년월일을 분석하지 못한 오류, в семь часов утра 의 경우는 어순을 분석하지 못한 오류, ударив над самой моей головой хлопушкой에서는 ударить+ 조격+ по мухе를 이해하지 못한 오류, “비행”으로 문장을 마치면서, 비문을 생성한 오류가 나타났다. 고유명사 번역 등 어휘적인 층위에서, 문법적인 층위, 구문적인 층위, 어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비문을 생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해 가능성’ 측면에서 내용 전달에도 완전히 실패하였다. 원문에 충실하게 내용 전달도 못한 수준에서 자연스러움을 측정하는 ‘가독성’의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적합성’ 측면에서 톨스토이의 문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 보다도 화용적인 측면에서 일기 형식의 1인칭 시점 기술에서 ‘저’라는 존칭표현을 사용하여 기술 방식이 상황에 맞지 않는 오류를 행하였다. 해당 예시는 톨스토이의 언어와 문체 그리고 문학번역의 미학적 기능을 살리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화용적인 측면에서 화자(주인공 니콜라이) - 청자(독자)의 의사소통 참여자의 상호관계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기계번역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이다. 아래 인간번역 대안과 비교해 보면, 포스트에디팅만으로 기계번역 결과물을 교정할 수 없음을 증명해준다.

HT. 18XX년 8월 12일, 내가 열 살 생일을 맞아 아주 멋진 선물을 받은 뒤 사흘 짜되던 날. 아침 7시, 까를 이바느이치가 내 머리맡에서 파리를 잡겠다고 막대기에 설탕 봉지를 붙여 만든 파리채를 휘둘러 대며 나의 단잠을 깨웠다. (전혜진 2018:9)

톨스토이는 『유년시절』에서 등장 인물들의 외면적 특징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외모와 인간 성격의 내면적인 본질을 연관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때론 작가는 불필요할 정도의 세부 묘사에 애정과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었다. 실험 9에 사용된 텍스트가 그 대표적인 예로 간주할 수 있다.

### 실험 9)

ST. На беленькой шейке была черная бархатная ленточка; головка вся была в темно-русых кудрях, которые спереди так хорошо шли к ее прекрасному личику, а сзади — к голым плечикам, то никому, даже самому Карлу Иванычу, я не поверил бы, что они выются так оттого, что с утра были завернуты в кусочки «Московских ведомостей» и что их прижигали горячими железными щипцами. Казалось, она так и родилась с этой курчавой головкой.

Поразительной чертой в ее лице была необыкновенная величина выпуклых полузакрытых

глаз, которые составляли странный, но приятный контраст с крошечным ротиком. Губки были сложены, а глаза смотрели так серьезно, что общее выражение ее лица было такое, от которого не ожидаешь улыбки и улыбка которого бывает тем обворожительнее. (Л. Н. Толстой Детство с. 73, 전해진 2019:142 재인용)

MT. 흰 목에는 검정 벨벳 리본이 달려있었다. 머리는 모두 어둠의 금발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었다. 앞면이 너무 아름답고, 뒤에서는 - 맨손으로 어깨에, 칼 Ivanitch 자신이라 해도, 아침에 싸서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 것이다. “모스크바 공보”의 조각으로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철 집게로 붙에 되었다. 그녀는 이 곱슬 머리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 눈에 띄는 특징은 볼록한 반 폐쇄 눈의 엄청난 크기였는데, 이는 이상하지만 기묘한 입과의 대조를 이뤘다. 스펀지가 접히고 눈이 너무 진지하게 보였기 때문에 얼굴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웃는 얼굴을 기대하지 않고 웃는 얼굴이 더 매력적이었다.

PE. 기계번역 결과물 번역 오류가 70% 이상이므로 포스트에디팅 불가능

해당 상황은 주인공 니콜라이가 집에서 열린 무도회에 온 소네츠키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는 장면으로 소네츠키의 외모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 표현 속에는 주인공의 감정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기계번역 결과물은 ‘정확성’ 측면에서 어휘적, 문법적 층위의 오류가 양적인 기준에서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이며, 질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머리는 모두 어둠의 금발 머리카락으로 덮여있었다.”, 그리고 “앞면이 너무 아름답고, 뒤에서는 - 맨손으로 어깨에,” 경우에는 “хорошо шли к ее прекрасному личику”가 번역에서 생략되었고, “칼 Ivanitch 자신이라 해도, 아침에 싸서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 것이다.”, “모스크바 공보”, “그들은 뜨거운 철 집게로 붙에 되었다.” “볼록한 반 폐쇄 눈”, “기묘한 입”, “스펀지가 접히고”. “얼굴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웃는 얼굴을 기대하지 않고” 등의 번역 오류는 “가독성”측면의 자연스러운 번역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내용 ‘이해 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적인 메시지 전달에도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내용전달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원문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는 이상한 번역 결과물이 산출되었다. 그리고 ‘적합성’ 측면에서도 기계번역 결과물은 소네츠키의 예쁘고 깜찍한 소녀의 외모를 기술하면서 주인공의 내면의 심적 상태를 표현한 톨스토이의 문체를 30%도 옮기지 못하였다. 해당 기계번역 결과물은 인간이 포스트에디팅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최하 수준의 번역물로 포스트에디팅은 커녕 번역에 참고할 가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인간번역 결과물과 대조해 보면, 문학번역에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수준 차이를 현저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포스트에디팅을 한다면, 예술문학 작품의 미학적 기능과 톨스토이의 문체를 고려한 번역 품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 전달을 보장하는 번역물로도 교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HT. 새하얀 목에는 김정색의 빌로드 리본이 달려 있었다. 또한 검은 아마 빛이 감도는 고수 머리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예쁜 얼굴과 하얗게 드러낸 뒷덜미랑 아주 잘 어울렸다. 그런 머리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 아침부터 «모스크바 통보» 신문을 잘라 머리카락을 말고 뜨거운 쇠 고데기로 지졌을 거라고 말한다. 설령 그 누군가가 까를 이바느이 치라 해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내게는 그 아이가 날 때부터 그런 머리였던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얼굴은 부어서 반쯤 감긴 듯 보이면서도 아주 큰 눈과 양증맞은 작은 입이 이상하면서도 보기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매력이었다. 꼭 다문 입술과 진지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눈길 때문에, 도무지 미소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상이어서 그랬는지 그 아이의 미소는 더욱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전혜진 2018: 146-147)

톨스토이는 『유년시절』에서 자신의 유년시절의 에피소드를 분석하고, 인간 심리의 본질과 그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한다. 유년시절의 수수께끼 같은 신비로운 세계를 톨스토이만의 독특한 언어와 스타일, 그리고 예술적 기법으로 표현하면서, 비평가들이 “영혼의 변증법”이라고 부른 기법을 『유년시절』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주인공의 상태를 기술할 때, 톨스토이는 내면의 독백을 사용하여 기쁨에서 슬픔으로, 분노에서 수치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전달할 수 있었다. 작가는 어린 아이의 심리에 깊숙이 침투하여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적 원인을 찾으려 노력한다 (Яблочкин, 2014). 『유년시절』에 나타난 톨스토이의 독특한 문체와 예술적 기법은 인간 번역사도 심층적인 작품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톨스토이의 고유한 언어와 문체를 옮기는 것은 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난이도 최고의 ‘재창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전혜진 2019:144). 『유년시절』의 기계번역 결과물은 ‘정확성’, ‘이해가능성’, ‘가독성’, ‘적합성’ 측면에서 최저의 번역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그 결과 원문의 메시지가 절반도 전달되지 못하여 독자들이 의미 파악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문학예술체의 문체를 살리지 못하였을 뿐더러, 더욱이 『유년시절』의 시적 미학과 톨스토이의 문체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어 포스트에디팅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기계번역이 톨스토이의 언어와 문체적 특징을 파악하고 번역에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작가와 독자 사이의 ‘문학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학작품 번역, 표현 텍스트의 번역은 기계번역 결과물을 인간이 포스트에디팅하는 기계와 인간의 협업이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 2.4. 호소-작용적 텍스트의 기계번역 오류 평가와 포스트에디팅

광고는 호소-작용적 기능을 가진 텍스트로 정의될 수 있다.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어떤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관점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텍스트 유형이다. 즉 광고는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그중에서도 광고표제어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한번에 각인시켜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광고 표제어는 간략하고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며 전체 텍스트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고, 광고 텍스트의 주제를 명시적이거나 비명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호소-작용적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표제어의 기계번역 결과물의 수준은 어떠한가, 인간의 손을 거친 포스트에디팅으로 해당 텍스트 유형의 번역작업이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

### 실험 10)

(1) ST. Таблица молоком славится.

Натуральное долго не хранится.

Срок хранения 5 дней.

ТАЛИЦА (2014. advertology.ru) (전해진 2019:125재인용)

MT. Talitsa는 우유로 유명합니다.

자연은 오랫동안 보관되지 않습니다.

유통 기한 5 일.

PE. 우유의 명가, 딸리짜

천연은 오래가지 않는다.

보관 기한 단 5일

위의 광고 표제어의 경우 광고 텍스트의 주제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채색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기계번역의 결과물은 ‘정확성’, ‘이해가능성’, ‘유창성’ 측면에서 비교적 좋은 번역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적합성’ 측면에서 호소-작용적 텍스트의 문체적 특징을 살리지 못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임팩트있는 결과물을 생성하지 못했다. 포스트에디팅에서는 “우유의 명가”에서 교체, “천연은 오래가지 않는다.”에서 생략 그리고 “단 5일”에서 추가 전략을 사용했다. 실험 9의 광고 표제어의 경우처럼 단순하고 간결한 문장, 뚜렷한 주제 명시, 표현적인 색채가 가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에디팅하여 번역물을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광고 텍스트의 주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경우

에는 어떠한 실험결과가 나오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실험 11)

(1) ST. Быть русским по приколу!

КВАС НИКОЛА (2011. sunhome.ru) (전해진 2019:126재인용)

- MT. 러시아어로 재미있게!
- PE. 포스트 에디팅 불가능
- HT. 장난삼아 러시아인이 되어봐라!
- TC. 진짜라면 꼬바스를 즐겨라!

해당 광고 텍스트에는 주제가 명시되어 있지않고 간접적으로 ‘꼬바스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러시아인이다’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기계번역 결과물은 ‘유창성’, ‘적합성’ 측면에서의 번역 품질을 분석할 필요도 없이, ‘정확성’,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원문과 전혀 틀린 번역대안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포스트에디팅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인간이 재번역을 하면, “장난삼아 러시아인이 되어봐라!”라는 번역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광고번역의 특징을 살려 “진짜라면 꼬바스를 즐겨라!”라고 트랜스크리에이션할 수 있다.

(2) ST. Мороз закаляет,

Солнце согревает! (водка Мороз и Солнце 2012.05.14. sostav.ru)

- MT. 서리가 뜨거워지고 태양이 따뜻해집니다!
- PE. 포스트에디팅 불가능
- HT.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태양이 몸을 녹인다.
- TC. 얼어붙은 몸과 마음에 태양의 온기를!

해당 광고 표제어는 보드카 광고로 주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에 숨은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여 번역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여기서 광고 텍스트는 ‘추위로 인해서 뽕뽕 얼어붙었는데, 태양(=보드카)로 녹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기계번역 결과물은 텍스트의 의미, 상황,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여, ‘정확성’, ‘이해가능성’, ‘가독성’, ‘적합성’ 측면에서 ‘하’수준의 상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포스트에디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인간 번역사가 해당 광고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여 재번역하고 광고 카피에 적합하도록 “얼어붙은 몸과 마음에 태양의 온기를!”과 같은 트랜스크리에이션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실험 10의 결과를 보면, 기계번역은 광고 텍스트의 상황, 맥락과 주제를 인지하지 못하여 인간이 포스트에디팅할 수 없는 번역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광고 번역은 오롯이 인간의 번역

활동 영역으로 경계지어야 한다.

다음으로 광고 표제어의 주요 문체적 특징 중 하나인 비유, 은유 표현, 관용적 표현, 대구, 반복 등 언어유희가 들어간 광고텍스트의 번역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다.

## 실험 12)

(1) ST. Возьми свою высоту!

Высота (2010. 07. 25. YouTube.com)

MT. 당신의 키를 잡아!

PE. 포스트에디팅 불가능

HT. 정상을 차지하라!

TC. 보드카의 품격을 높이다!

실험 11-1의 경우 광고 표제어의 기계번역 결과물은 “взять высоту”를 “키를 잡다”로 축자역하여 관용적 표현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였다. ‘정확성’ 측면에서 어휘적 층위의 오류로 메시지 전달에 실패하였고, 이는 ‘이해가능성’, ‘가독성’ 측면의 번역품질의 악화로 이어졌다. 물론, ‘적합성’ 측면에서도 보드카 광고 카피의 문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해당 경우는 포스트에디팅이 불가능하며 인간이 재번역한 “정상을 차지하라!”의 번역대안에서 출발하여 ‘보드카의 품격을 높이다!’라는 트랜스크리에이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ST. Сегодня красивее, чем в 20 лет.

Dior (2010.02.15. iledebeaute.ru) (전혜진 2019:128재인용)

MT. 오늘날은 20 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HT. 오늘이 스무 살 때보다 더 아름답다.

TC.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해당 광고 표제어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분석해 보면, 해당 텍스트가 화장품 광고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적합성’ 측면에서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고, ‘정확성’ 측면에서 메시지 전달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해가능성’, ‘가독성’ 측면은 언급할 의미조차 없는 상태의 번역대안이다. 크리스찬 디올 화장품 광고 텍스트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오늘이 스무 살 때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재번역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나온 디올의 캡춰토탈 광고 카피는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입니다.”라고 트랜스크리에이션하여 임팩트있는 광고문구를 제시하였다. 기계번역 결과물과 트랜스크리에이션을 거친 광

고 문구를 비교해보면, 인간 번역사에게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트랜스크리에션은 기계번역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다.

(3) ST. Одна голова – хорошо, А с Ноутбуком лучше!

SAMSUNG (2011. news.tut.by) (전혜진 2019:129재인용)

MT. 한 쪽 머리는 좋지만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E. 머리 하나도 좋지만, 삼성 노트북과 함께면 더 좋다.

삼성전자는 자사 노트북 광고를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사용하여 러시아어 속담 “Одна голова – хорошо, а две – лучше!”(머리 하나도 좋지만, 둘은 더 좋다.)를 변형하여 만든 광고 표제어이다. 기계번역 결과물은 ‘정확성’ 측면에서 “한 쪽 머리”의 어휘적 층위의 오류와 비교급 “лучше”를 파악하지 못한 문법적 층위의 오류를 행하였고, ‘이해가능성’과 ‘가독성’ 측면은 차치하고라고 ‘적합성’ 측면에서 광고 문체를 옮기지 못하여 광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4) ST. Посмотри, как вкусно!

Попробуй, как красиво!

TESS (2014. 01. 17. youtube.com) (전혜진 2019:130 재인용)

MT. 얼마나 맛있어요.

시도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HT.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마셔요, 얼마나 어여쁜지!

TC. 눈으로 즐기는 차 향기,

입으로 느끼는 아름다움!

해당 광고 표제어는 테스사의 차 광고로 뛰어난 창의성으로 큰 관심을 받은 광고 표제어이다. 차의 맛은 먹어봐야 알 수 있고, 차 색깔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상식을 깨고 비표준적이고 독특한 언어유희를 사용한 대표적인 광고이다.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Попробуй, как вкусно! Посмотри, как красиво!”가 되어야 하지만, 시각과 미각을 바꾸어 표현한 흥미로운 언어유희로 소비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끈다. 이러한 언어유희와 차의 맛과 색깔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판매자의 마케팅 전략을 기계번역은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성’ 측면에서도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해가능성’, ‘가독성’ 측면에서도 하 수준의 번역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적합성’ 측면에서는 광고 텍스트의 문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해당 광고

표제어는 인간이 포스트에디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번역하고 트랜스크리에이션하는 방법으로 번역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한다.

(5) ST. Блинами заправься – с голодом расправься

ТЕРЕМОК (2018. tilbagevise.ru) (전혜진 2019:132재인용)

MT. 팬케이크 차려 입기

HT. 블린으로 요기하라, 배고픔을 해결하라!

TC. 블린 한 조각이면, 하루가 든든!

해당 광고는 러시아의 블린 체인점 ‘떼레목’이 블린만 먹어도 한 끼 식사가 된다는 컨셉으로 만든 것으로 “заправиться – расправиться”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광고효과를 높이고 있다. 기계번역 결과물은 ‘정확성’ 측면에서 우선 어휘적 층위에서 러시아 문화 어휘소 “블린”을 “팬 케이크”로 일반화하여 ‘떼레목’의 시그니처 상품의 특징을 희석하였으며, 문법적 층위에서도 구문을 분석하지 못하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해가능성’, ‘가독성’, ‘적합성’ 측면에서 최하 수준의 번역대안이 제시되었다. 기계번역 결과물은 포스트에디팅이 불가능하므로, 인간 번역사가 재번역하고 트랜스크리에이션을 하는 방향으로 광고번역을 완성해야 한다.

광고 표제어 번역은 문장이 짧고 간단하는 측면에서는 기계번역이 용이할 것처럼 보이지만 광고 텍스트의 주제와 의도가 비명시적으로 나타나고 메타포가 자주 사용되는 등 함축적이고 상징적이며 상황맥락이 단순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며, 광고의 전략상 일반적인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독특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비롯하여 다양한 언어유희가 자주 등장하므로 기계번역이 담당하기엔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번역은 위에서 살펴 본 바처럼, 기계가 번역을 하고 인간이 포스트에디팅을 하는 협업 방식이 불가능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광고는 광고의 효과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마케팅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 ‘감동 마케팅’, ‘혼 마케팅’ 등이 트렌드이므로, 이에 따라 광고번역 또한 감성적이고 감동적이며 임팩트있는 번역, 원문에 매이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번역, 즉 단순한 의미전달이 아니며, 일반 번역 과정과는 차이가 있는 트랜스크리에이션 전략을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유형의 텍스트는 인간만의 고유한 번역 활동 영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3. 결론

본고에서는 정보적 텍스트, 표현적 텍스트, 호소-작용적 텍스트 등의 텍스트 유형별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협업의 접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확성’, ‘이해가능성’, ‘가독성’, ‘적합성’ 평가지표에 따라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를 분석하고 포스트에디팅한 후, 그 결과물의 비교적 분석을 토대로 포스트에디팅 전략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유형별로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을 비교분석하여, 기계와 인간의 협업이 가능한 번역 장르를 규정하고 번역 협업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시도를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번역시장이 우선 기계번역으로 돌려보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포스트에디팅할 수 있는 번역가를 찾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표현적 텍스트와 호소-작용적 텍스트의 경우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에디팅할 수 없고 인간이 재번역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계와 인간의 협업이 불가능한 인간의 고유한 번역 영역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정보적, 표현적, 호소-작용적 텍스트 중 구문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상황적 맥락이 단순하고 의미적 범위가 제한적이며, 감정적이고 채색적인 표현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표준적 성격이 강한 정보적 텍스트의 번역이 기계번역과 인간의 포스트에디팅 협업이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영역으로 입증되었다. 반면 화자와 청자 (또는 작가와 독자, 판매자-소비자)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상황 맥락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언어체계의 규칙이나 원리로만 이해할 수 없고, 상호주관적이고 역동적인 사회적, 제도적, 사상적,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이 내재되어있으며, 작가나 카피라이터의 창의적인 언어와 문체가 특징인 표현 텍스트와 호소-작용 텍스트의 경우에는 고도의 언어수행 능력, 텍스트 분석 능력, 맥락, 상황 이해 능력, 전략적 선택 능력, 소통적 번역 능력, 창의적 번역 능력과 감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계번역 결과물은 단순히 인간이 포스트에디팅을 할 수 없고 재번역을 해야하는 수준으로 기계와 인간의 협업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기계번역이 단순히 위협과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기계와의 협업을 통하여 번역의 정확성, 신속성,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계번역과 인간의 포스트에디팅이 새로운 번역시장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고, 또한 표현적 텍스트와 호소-작용적 텍스트 번역 영역은 기계가 도전할 수 없는 인간 번역사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제한적인 번역 분석 실험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동일한 텍스트 유형 내에서도 주제, 난이도, 개별 문체 등에 따라 기계번역 결과물과 그에 따른 포스트에디팅은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과 연구 결과는 후속 연구의 출발점일 뿐 일반적 결론으로 단정짓기엔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향후 텍스트 코퍼스를 보다 더 다양화 및 세분화하고, 정보적 텍스트의 번역시 포스트에디팅을 정량적 분석 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기계번역과 인간의 포스트에디팅 작업 프로세스의 개선,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협업의 모델링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이준호 (2019),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위한 포스트에디팅과 인간번역의 차이 연구, 통역과 번역 제 20권 1호. 73-96.
- 전혜진 (2019), AI 시대, 문학번역에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 비교분석 연구 - 톨스토이의 『유년시절』 번역 분석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제31권 1호. 111-154.
- 전혜진(2019), “Исследование характер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русскоязычных рекламных заголовков”, 슬라브어연구 제24권 1호. 121-140.
- 전혜진(2018), 레프 톨스토이『유년시절』 옮김, 서울:뿌쉬킨 하우스.
- Arnold, D. (1994), Machine translation: an introductory guide. Blackwell Pub.
- Hutchins, W.J.& Somers,H.L. (1992), An introduction to machine translation (Vol. 362). London: Academic Press.
- Fiederer, R., & O'Brien, S. (2009), Quality and machine translation: A realistic objectiv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11, 52-74.
- Koponen, Maarit. (2012), Comparing human perceptions of post-editing effort with post-editing operations, In Proceedings of the seventh workshop on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181-190.
- Koponen, Maarit & Leena, Salmi. (2015), On the correctness of machine translation: A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task,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23. 118-136.
- Newmark P.P.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London .
- \_\_\_\_\_ (1991), About Translation. England.
- Reiss, Katharina (1977), Text Types, Translation Types and Translation Assessment, translated by Chesterman , in A Chesterman (ed).
- \_\_\_\_\_ (2000), Translation Criticism - The potentials& Limitations: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anchester: St.Jerome Reiss 1977.
- Snell-Hornby (1988),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Philadelphia .
- \_\_\_\_\_ (1995),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Philadelphia.
- Мельчук И. А. , Опыт теори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моделей «Смысл ⇔ Текст». М., 1974 (2-е изд., 1999).
- Толстой Л. Н., 『Детство』,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22 томах.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78-1985.
- Яблочкин К.(2014), “『Детство』 Толстого: как 25-летний писатель изменил мировую литературу.” 「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ы」.
- <https://www.taus.net/academy/taus-post-editing-course>

<Abstract>

##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я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 исходя из типов текста**

**Чон Хе Джин**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исходя из того, что эффектив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ашинного перевода(МП) 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еревода (ЧП)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и точность перевода, делается попытка найти точку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между ними, сделав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результатов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я МП для каждого типа текста. Задачами данной статьи являются следующие: во-первых,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ошибки МП по типам текста, таким как информативный текст, экспрессивный текст и оперативный текст, и классифицировать ошибки МП. Во-вторых, провести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е МП по типам текста и сделать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его результатов. В-третьих, основываясь на результатах проведенных анализов определить жанры текста, которые можно перевести с помощью МП и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я МП человеком. В-четвертых, по типам текста рассмотреть роль, функции стратегии и ожидаемые эффекты постредактирования МП.

Keywords: Russian-Korean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m, Human Translatiom, Post-editing, Post- editing by text type

주제어: 러한번역, 기계번역, 인간번역, 포스트에디팅, 텍스트 유형별 포스트에디팅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공시성과 통시성

### 제2분과 문화-통번역분과

#### 문화-통번역분과B :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는, 문화

사회: 조규연 (중앙대)

- ▶ “Discourse, figure”;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쥬와 건축> ..... 143
  - 발표: 이지연 (한국외대)
  - 토론: 백승무 (서울대)
  
- ▶ Род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в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фольклоре ... 153
  - 발표: Спиридонова О. С. (안양대)
  - 토론: Бриченкова Е. С. (경희대)
  
- ▶ 체호프 드라마의 현대적 변용 : “AFTERCHEKOV” - 올리츠키야의  
‘러시안 잼’ 과 풍자극장의 무대화 ..... 165
  - 발표: 이승억 (경북대)
  - 토론: 윤서현 (서울대)



“Discourse, Figure”:

##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와 건축>

이지연 (한국외대)

### 1. 영화와 회화

영화, 특히 영화사 초기 시네마토그래피는 필름에 기록된 극적 사건이거나 혹은 연극처럼 눈앞에서 움직이는 사진들이었다. 사실 영화의 분열은 이 순간 이미 예고되었다. 사진이라는 그 기원을 부정하지 못하지만, 동시에 오직 현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시제의 궁핍을 극복하길 원했던 영화는 삽화적인 시각 기계에 외적 시간을 더하고 연극의 극성을 지향하면서 언어 예술의 내러티브를 닮아가려 했다. 에이헨바움(Б. Эйхенбаум), 트이냐노프(Ю. Тынянов) 등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영화 기호에 대한 성찰이나 쿨레쇼프(Л. Кулешов), 푸도프킨(В. Пудовкин), 에이젠슈타인(С. Эйзенштейн)의 몽타주 실험, 영화-눈(кино-глаз)이라는 선언을 통해 현실을 능가하는 영화적 리얼리티를 창조하려 했던 베르토프(Д. Вертов)의 기획 등도 모두 영화의 생애적 조건에 대한 사색을 통해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정립하기 위한 시도들이었다. 이때 이들의 영화론은 어떤 식으로든 사진과 연극, 그리고 이 두 장르를 넘어서는 영화언어의 고유성의 문제로 수렴된다.

가령 에이헨바움은 「영화 양식의 제 문제(Проблемы киностилистики)」라는 글에서 사진으로부터 영화로의 진화를 전제로 하면서 사진 속의 무의미한 사물이 영화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주목한다.(Эйхенбаум 1927(2001):13-38) 그는 영화의 쇼트들이 몽타주를 통해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의미작용의 문제에 있어 트이냐노프와 의견을 같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상이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론적 전체를 이루기 전 질료적인 상태가 지니는 또 다른 의미를 배제하지 않는다. 즉, 트이냐노프에게 영화의미론의 최소 단위가 쇼트이며 그것은 다른 쇼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면 에이헨바움에게 쇼트 혹은 쇼트를 구성하는 사진 속의 사물은 이미 그 자체로 자족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에이헨바움은 이처럼 쇼트 속의 정태적인 사물이 펼쳐내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 너머의 의미’, 그 사물의 도상성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다른 의미, 즉, 일종의 포토제니(фотогения)를 영화적

‘자음(заум)’이라 칭한다. 자음이 그러하듯 쇼트를 구성하는 사물은 움직임이나 결합 이전에 그 자체로 자족적인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사물로, 더 정확히는 사물 이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그 사물은 도상성의 한계 너머 초이성적 의미를 향해 도약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언어학적 사고에 기대어 영화의 태생적 한계인 사진과 회화의 정지된 시간을 극복하고자 했던 트이나노프에게는 무엇보다 시간성과 그에 의거하여 창조되는 영화적 슈제의 재현이 중요하였던바 그는 영화 언어의 구조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초이성적이 아닌) 이성적 의미를 담지하는 사물들의 결합과 양식화를 통해 달성되는 새로운 키노제니(киногения)의 개념에 천착한다.(Тынянов 1927(2001):44) 영화의 최소 단위로서의 쇼트들은 영화 고유의 문법과 통사론에 의거하여 구조화 되면서 하나의 장면, 혹은 그 장면 안의 사물 각각이 갖는 의미의 총합 이상으로서의 영화적 서사를 완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에이헨바움이 영화의 시각성을 강하게 인식했다면 트이나노프는 시각적인 단위들의 시적 결합을 통한 영화적 서사의 완성을 지향했다. 영화사 초기의 몽타주 실험 역시 정지된 쇼트들을 어떻게 조직하여 서사적 시간을 구성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가 시적인 은유의 구조를 닮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분절된 시각적 단위들의 ‘결합’을 통한 서사의 완결을 향해 있다.** 에이젠슈테인 뿐 아니라 당시 실험성 강한 영화를 제작한 펙스(ФЭКС) 그룹의 대표자 코진체프(Г. Козинцев), 트라우베르그(Л. Трауберг) 등 많은 영화감독들이 메이에르홀드(V. Мейерхольд)의 실험적 연극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움직이는 이미지’라는 영화의 정의는 자연스럽게 시각예술인 사진으로부터 영화적 시간 위에 구축된 서사적 언어 예술로의 이행을 강제하지만 그럼에도 이미지라는 그것의 기원의 문제는 축소되지 않는다. 시와 산문의 문제를 탐구해 온 형식주의자 슈클롭스키(В. Шкловский)는 아직 ‘어린 장르’인 영화에 대해 말하며 조심스럽게 시적인 영화와 산문적인 영화를 구분하고 영화의 형식적 요소가 의미론적 요소에 비해 우세할 때 영화가 보다 시적인 것에 가까워진다고 말한다. 그가 단언하고 있듯이 “슈제 없는 영화는 영화의 시(詩)다.”(Шкловский 1927(2001):92)

영화의 역사는 시각적인 것과 서사적인 것의 길항 가운데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 속 사물의 기호적 성격에 대한 해묵은 논의 또한 사물이 속한 영화의 시적 혹은 산문적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논의될 수 없다. 사물들을 하나하나 명명하듯 불러내는 루이 델뤽(L. Delluc)의 포토제니에 대한 기술이(Ямпольский 1993:50) 마치 서사가 약화된 산문의 서정적 일탈처럼 읽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1)

위의 글은 발표자가 몇 년 전 발표했던 소쿠로프 영화에 대한 논문의 도입부인 “영화와 회화 예술”이라는 챕터에서 가져온 것이다. “영화 속의 회화와 죽음”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영화라는 장르에 포함된 정지장면의 문제를 다룬다. 정지된 사진 혹은 그림이라는 그 기원과, 그러한 정지된 장면들에 움직임의 환상을 더하고 시간을 입혀 만들어내는 서사를 향한 지향 사이에서

1) 이지연, 「영화 속의 회화와 죽음: 알렉산드르 소쿠로프의 <어머니와 아들>을 중심으로」, 『러시아학』(2016.6)의 한 부분



진동해 왔고 여전히 그러한 대립을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는 영화언어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소 쿠로프 영화 안에 의도적으로 삽입된 그림이나 유명한 작품을 모방한 정지된 장면의 문제를, 즉, 이러한 일종의 의도된 영화적 퇴행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글의 목적이었다. 반면 이 글은 위 논문과 동일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정반대의 지점을 주목한다. 어쩌면 이는 위 인용문의 밑줄 쳐진 부분,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가 은유적이며 시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사의 완결을 향한다”는 단언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해명일 수도 있겠다.

에이젠슈테인의 초기 몽타주 이론인 어트랙션 몽타주에서 “어트랙션”이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해 연극에 삽입된 독립적인 막간쇼로부터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흔히 견인의 몽타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 에이젠슈테인이 어트랙션 몽타주를 통해 의도했던 의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메이에르홀드와 함께 활동했고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에이젠슈테인에게 “어트랙션”은 당연히 메이에르홀드 극에 삽입된 의미 외부의 기교과 유희, 광대들의 몸짓이나 그로테스크한 일탈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그의 초기 영화 <멕시코인>이나 <글루모프의 일기>의 경우를 보라). 즉, 그의 몽타주는 결합이나 서사에 대한 지향보다는 그러한 개별적인 장면들의 연속적 배치, 선택적 나열, 이를 통한 관객에의 어필에서 시작되었다. 즉, 그가 레프에서 활동하던 1923년경 고안한 어트랙션 몽타주는 영화사 초기 에이젠슈테인의 영화적 지향이나 관심이 서사에 대한 강박으로부터는 자유로웠음을 보여준다.

모든 표현 가능성들이 행위의 논리적 전개 of 한계 내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정적인 ‘반영’이 아니라, 최종적인 주제의 효과를 향해 모든 것이 집중된 새로운 형태가, 즉 줄거리에서 독립하여 자의적으로 선별된, 독립적인 어트랙션들로 이루어진 자유로운 몽타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트랙션 몽타주다.

이 시기 에이젠슈테인은 “몽타주가 하나의 어트랙션에서 다른 어트랙션으로 의도적으로 부딪히며 이어지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강력하고 스펙터클한 운동을 통해 이어지는 영화”를 만들기를 원했다. 이를 충돌의 몽타주라 명명하며 에이젠슈테인의 초기 몽타주 이론의 입체주의적 경향이나 분석적, 해체적 경향을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이러한 초기의 몽타주 이론과 비교할 때 1930년대 후반 발표된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 이론이나 1940년대 발표한 <무심하지 않은 자연>에 포함된 예술론들은 에이젠슈테인이 분석적 경향으로부터 통합적인 경향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젠 뢰베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영화이론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몽타주 1기는 형식주의가 러시아 아방가르드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던 시기로 쉬클롭스키로 대표되는 1914~21년 사이의 영화이론이며, 2기는 트이냐노프와 에이헨바움 등이 참여했던 <영화의 시학>을 전후한 기능주의적 시기, 마지막 3기는 영화에 사회적, 역사적 문제의식이 투영되는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로 에이젠슈테인은 3번째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때 한젠 뢰베

는 1기의 쿨레쇼프나 베르토프를 비판하고 2기의 형식주의자들과 많은 접점을 드러내던 에이젠슈테인 초기의 몽타주 이론이 1930년을 즈음하여 그들과 결별하고 비고츠키나 바흐친의 영향을 드러내며 “다성적”인 몽타주로 이행해 갔음을 지적한다. 특히 1928년 가부키극을 접하고 유성영 화인 <알렉산더 넵스키>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에이젠슈테인에게는 다성적이고 종합적인 영화의 이상에 대한 언급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가 1929년 발표한 에이젠슈테인의 지적 몽타주 이론에 대한 선언적인 글 <영화에서의 4차원>은 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Монтаж этот строится вовсе не на частной доминанте, а берет за доминанту сумму раздражении всех раздражителей.

Тот своеобразный монтажный комплекс внутри куска, возникающий от столкновений и сочетания отдельных присущих ему раздражителей, раздражителей, разнородных по своей “внешней природе”, но сводимых к железному единству своей рефлекторно-физиологической сущности.

Физиологической, поскольку и “психическое” в восприятии есть лишь физиологический процесс высшей нер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за общий признак куска принято физиологическое суммарное его звучание в целом как комплексное единство всех образующих его раздражителей.

Это есть то особое “ощущение” куска, которое производит кусок в целом.

И это для монтажного куска является тем же, чем являются приемы Кабуки для отдельных его сцен. <영화에서의 4차원>

흥미로운 것은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하나의 장면에 내재하는 다양한 자극들의 충돌과 조합으로 이루어진 몽타주의 존재가 명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레임 안에 갇힌 쇼트들의 연속성 가운데서 생겨나는 충돌이 아닌 하나의 쇼트 내에서의 시간과 운동이 문제가 된다. 어트랙션의 몽타주를 비롯하여 에이젠슈테인의 초기 영화이론이 시간의 연속적 흐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충돌의 창조를 지향했다면 이제 화면의 교체가 없는 하나의 장면 안에서도 다양한 자극들에 의해 생겨나는 충돌과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히 이는 다양한 시점의 문제를, 하나의 정지된 장면 안에서 생겨나는 또 다른 시간, 즉, 4차원적 시간의 문제로, 감각의 주체로서의 관객의 문제로 이어진다. 1930년대 후반부터 에이젠슈테인이 본격적으로 발표하는 회화와 건축에 대한 글들은 바로 이 글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2. 에이젠슈테인의 회화론과 영화적 사물의 문제

이 글에서는 에이젠슈테인의 회화론과 건축론이 드러난 글들, 세로프가 그린 예르몰로바의 그림을 분석한 글 <예르몰로바(1937)>, 엘 그레코의 그림을 다루고 있는 <El Greco(1937)>와 <El Greco와 영화(1939~41)>, 피라네시의 카르체리가 보여주는 공간적 시차를 주목한 글 <피라네시와 형태의 유체성(1947년으로 추정됨)>, 그리고 아크로폴리스와 건축가 슈아지의 축측투상의 문



그림 1. 세로프의 예르몰로바에 대한 에이젠슈테인의 글에서



그림 2. 엘 그레코의 톨레도 풍경 및 조감도



제를 다루고 있는 <몽타주와 건축(1937~40 추정)>을 통해 에이젠슈테인의 영화론을 살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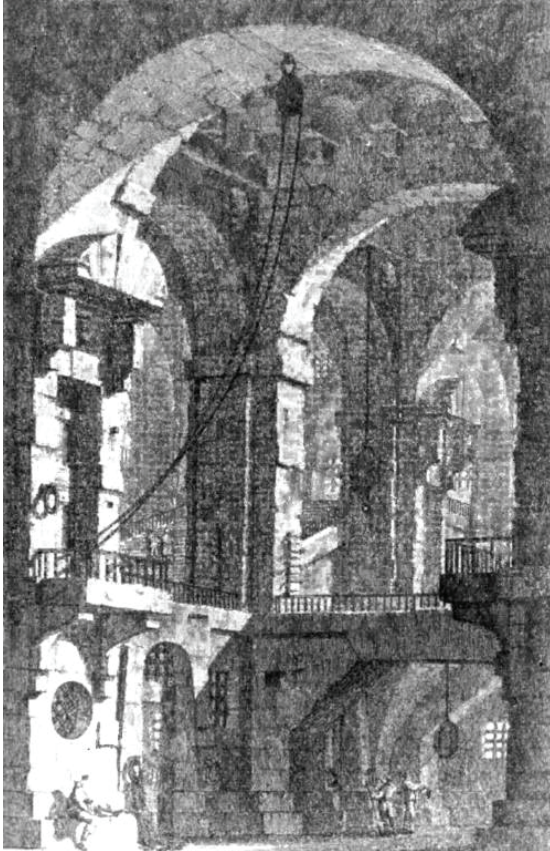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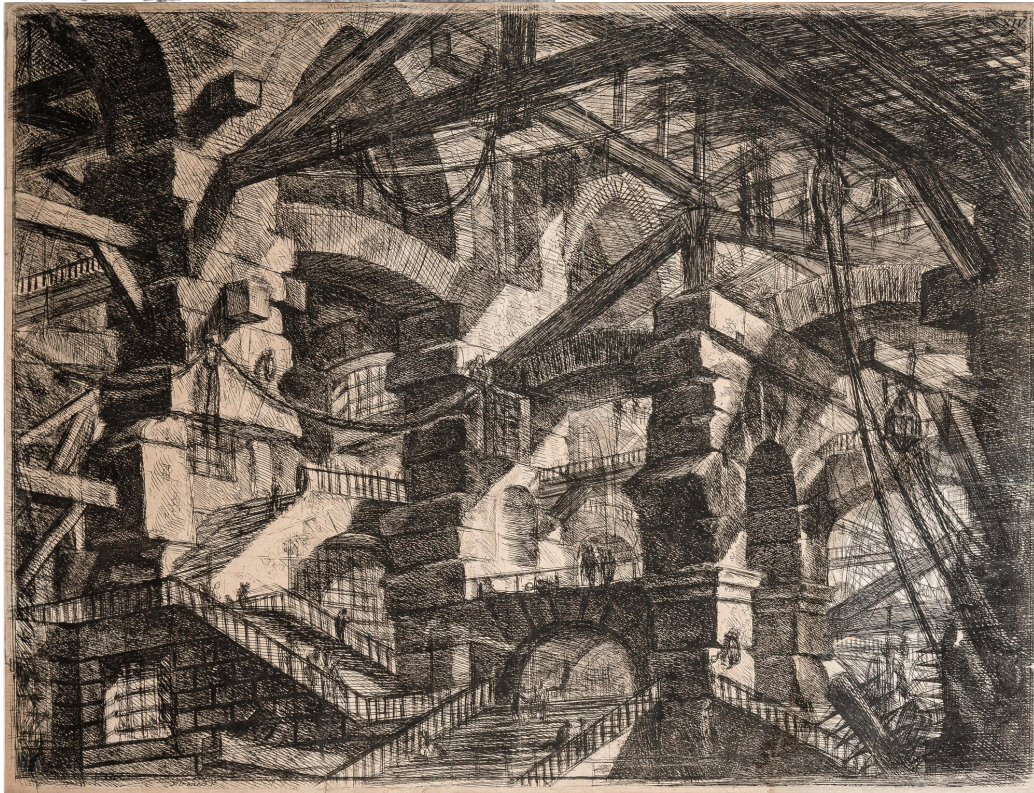


그림 3. 에이젠슈테인이 인용하는 피라네시의 카르체리 에칭. 위 작품은 카르체리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화집으로 묶여서 출판되기 전에 발표된 작품, 아래는 카르체리 시리즈에 포함된 감옥 공간의 parallax를 드러내는 작품



에이젠슈테인의 회화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우연히 발견한 글 <몽타주와 건축>였다. 이브-알랭 부아(Yve-Alain Bois)의 해제로 1989년 저널 *Assemblage*에 실린 글인데 이 글에서 에이젠슈테인은 많은 부분을 시점의 다중성의 문제에 할애하고 있다. 이브-알랭 부아는 해제를 통해 오귀스트 슈아지(A. Choisy)의 축측투상에 관한 자신의 저서를 준비하면서 에이젠슈테인의 글을 발견했음을 밝히고 있다. 발표자가 이브-알랭 부아의 해제를 접하게 된 것 또한 바로 슈아지의 축측투상 문제와 관련해서였다. 그는 세르게이 우샤킨이 발간한 3권으로 된 전집 <Формальный метод>의 리시츠키편에 자신의 유명한 논문 <Радикальная обратимость>를 실었는데 이는 말레비치를 경유해 리시츠키가 도달한 ‘범기하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리시츠키는 논문 「예술과 범기하학(Искусство и пангеометрия)」에서 원근법에 반하는 말레비치의 종교적 시점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자신의 프로운(Проун) 회화의 원리가 되는 축측투상(axonometric perspective)의 건축적 시점에 내재하는 초월의 가능성을 피력한다. 그는 말레비치의 역원근법과 축측투상이 무한을 향하며 마치 터널과도 같이 회화적 평면 위에 깊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독특한 시점은 그림에 그려진 기하학적 사물들이 그러한 무한의 공간 안에서 부유하고 상승하도록 만들었고, 다중의 축을 따라 회전하고 앞뒤가 바뀔 수 있는 이러한 프로운 회화의 건축적 형태는 새로운 회화예술의 가능성을 실현하였다. 심지어 그는 벽에 걸린 그림이라는 관례화된 회화예술 수용방식을 부정하였고 그림을 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로, 나아가 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발표자는 말레비치의 4차원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러한 축측투상의 문제를 다룬 바 있으며 그것이 회화적 평면이라는 2차원의 공간에 다른 차원을 향해 열리는 통로를 내고 심지어 다중적인 시점과 중층적인 세계가 공존하는 4차원을 가리키는 인덱스로 작동함을 밝혔다. 즉, 이는 모든 형상을 지워버림으로써 시점의 무한성을 성취하는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과 그 위에서 솟아나듯 구축된 아키텍토닉의 유토피아적 기획의 출발이 되고 있음을 보였다. 리시츠키는 플로렌스키의 역원근법 혹은 다시점에 대한 철학적 성찰 또한 「예술과 범기하학」에서 개진하고 있다. 이처럼 회화 평면의 소실점을 없애거나 무한하게 함으로써 회화적 평면을 평면을 초월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축측투상에 대한 에이젠슈테인의 관심이 그가 단일한 하나의 쇼트 안에서의 “시선의 길” 혹은 “다시점”의 움직임에 지적하는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음은 흥미롭다. 이브-알랭 부아는 에이젠슈테인이 건축이라는 매체를 통해 결국 영화적 화면의 문제로, 즉, iconography로 회귀하고 있음을 지적하지만, 한편으로 건축적 공간에서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관객의 감각 혹은 지각의 상상적 움직임으로 환원하는 에이젠슈테인의 슈아지 읽기는 영화의 평면적 프레임을 건축적 구축의 공간과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에이젠슈테인의 영화기호학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어 그가 엘 그레코의 그림의 상승의 움직임이나 피라네시의 유동적인 공간과 공간의 어긋남을 통한 폭발을 설명하는 것은 그의 후기 영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작동하는 엑스터

시와 파토스의 개념과 동일선상에서 읽힌다. 그가 엑스터시와 파토스를 통해 말하려 했던 “스스로부터 벗어나는 것”, 고정된 틀을 벗어나 외부로, 더 정확히는 위로 솟구쳐 오르는 영화적 경험은 말레비치의 4차원과 비상에 대한 일련의 그림들, 그림의 틀을 벗어나 위아래로 혹은 무한한 깊이로 확장을 감행하는 리시츠키의 프로운 회화의 미학적 이상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물론 그가 1920년대 후반 처음 파토스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후 1940년대 <무심하지 않은 자연>에서 엑스터시를 영화적 경험의 본질로 설명할 때 이는 상징주의 연극론의 집단적인 엑스터시와도 유사하게 영화라는 장르의 수용자로서의 소련의 새로운 인민의 집단적 의식과 관계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엑스터시 개념은 무엇보다 재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폭발의 지점을 지시한다. 에이젠슈테인이 스스로 지적하듯이 그것은 영화의 화면 안에 재현된 изображение로부터 나아가 중층적 공간의 겹침과 공존이 가능한 깊이의 감각, 일종의 새로운 영화적 지각으로의 이행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영화의 화면에 재현된 형상이 그 한계를 넘어 영화적 사물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에이젠슈테인이 피라네시의 카르체리에서 본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재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간적 해방이나 엑스터시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 어긋남과 폭발이 파토스와 엑스터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유성영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직적 몽타주>를 썼을 때 하나의 장면에 형상과 음향의 결합에 대해 ‘수직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었던 것, 그의 공감각에 대한 관심 또한 그의 후기 영화론을 대표하는 파토스와 엑스터시의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말레비치는 일찍이 에이젠슈테인의 영화가 지나치게 회화적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에이젠슈테인은 영화야말로 “회화예술의 동시대적 단계”, 일종의 최첨단의 회화라 반론하였다. 사실 문화 1의 역동성을 대표하는 에이젠슈테인의 초기 영화에서 그 역동성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각각의 정지장면처럼 분절된 쇼트들이 아니었던가. 그러한 쇼트들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결합해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단절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내러티브를 끊어내는 형상의 우위가 에이젠슈테인의 고유한 영화적 시간의 본질이 아니었던가.

### 3. 유리의 집과 비이성적 공간의 혁명성

- 에이젠슈테인의 미완의 기획인 <유리 집 стеклянный дом>에서 투명성과 유리라는 질료의 문제.
- 모든 것이 보이는 것, 모든 시점이 공존하는 완전한 총체적 공간으로서의 유리집과 축축투상의 이상. 영화적 재현의 관행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유리집 안의 무중력 공간

- 영화의 플롯이 보여주는 건축가 아버지와 시인 아들의 대결 구도와 구축주의에 대한 에이젠슈테인의 태도
- 구형의 책과 다중심, 다시점의 그림. 에이젠슈테인의 영화 매체에 대한 성찰
- 모든 discourse에 대한 부정으로서 순수한 figure에 대한 응시가 가능한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유리집의 문제와 구형의 책의 문제
-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연상시키는 에이젠슈테인의 <Методы>의 탈시간적, 반 discourse적 기술. 다중심, 다시점 공간으로서의 유리집의 구조에 대한 반복으로서의 에이젠슈테인의 글쓰기에 대하여.





## Род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в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фольклоре

Ольга Серафимовна Спиридонова (안양대)

Единственная ценность жизни – это семья. Как только погибнет семья, погибнет и мир. Семья – это первая школа жизни и настоящая школа любви. Чтобы научиться жить в обществе, среди чужих людей, надо, прежде всего, научиться жить среди родных. С понятием «семья» у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ассоциируются самые теплые чувства, светлые и незабываем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Кроме родных отца, матери, братьев и сестёр в семьях есть и друг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бабушки, дедушки, снохи, зятья, их дети. И тут в семье должны царить любовь, доверие и согласие. У наших предков были понятия «*малая семья*» – это отец, мать и их маленькие дети и «*великая семья*» – т.е. весь род, все родственники, носящие одну фамилию. И часто под одной крышей жили и ужив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рёх, четырёх поколений.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мир и согласие в семье, должна чётко соблюдаться иерархия – кто кому подчиняется, кто о ком заботится, кто за что отвечает. Попробуем разобраться в наименованиях род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немного подзабыты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уществует несколько видов род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кровное родство*, *сватовство* (т.е. родство через брак) и *кумовство* (духовное родство).

*Родство по крови* имеет несколько степеней. Между мужем и женой нулевая степень родства, так как они часть не родственники, а единая плоть, нераздельные части друг друга. Первая степень родства – между родителями и детьми, вторая – между братом и сестрой, а также между внуком и бабушкой, третья – между дядей и племянником, и т.д.

*Сватовство*, т.е. родство через брак –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лини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ключающая в себя свёкра, свекровь, тестя, тещу, зятя, невестку или сноху, деверя, золовку, шурина, свояка, свояченицу, сватьев или сватов, ятрову, отчима, мачеху, пасынка, падчерицу, детей

единокровных, детей единоутробных и, наконец, сводных братьев и сестёр.

С точки зрения учебной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рассмотрим более подробно такие родственные наименования, как свёкр, свекровь, теща, тесть, зять, невестка и их отражение в русском фольклоре, а именно, в пословицах и поговорках, анекдотах.

### ***Свёкор***

Когда девушку выдавали замуж, она попадала в семью мужа и должна была жить с его родителями. *Свёкор* – это отец мужа. Издавна у свёкра сложилась репутация грозного и деспотичного человека. В народе говорили: «*Свёкор гроза, а свекровь выест глаза*» или «*Не жени сына на теще, не отдавай дочери за свёкра*» (т.е. не давай им воли), «*В лихом свёкре правды нет*», «*Свёкор дочку бранит – невестке науку даёт*». Но всё-таки чаще всего отец мужа был для молодой хозяйки заступником и покровителем, и она называла его «*свёкор-батюшка*». За столом, когда все ели из одного блюда, свёкор следил, кто как ест и часто говорил застенчивой невестке: «*Ешь, не стесняйся*». На что она отвечала: «*Не волнуйтесь, папаша. Я не достану, так привстану*».

### ***Свекровь***

*Свекровь* – это мать мужа.

Слово «свекровь» произошло от праславянского корня и буквально обозначает «всем кровь», т.е. родная всем по крови. По старинной русской традиции невеста переходила жить в дом к мужу. Автоматически она приходила в семью и к своим свёкрам, поскольку сыновья на Руси редко обособливались от родителей. Все поколения предпочитали жить вместе.

В фольклоре свекровь – настоящая злодейка: «*Помнит свекровь свою молодость, а снохе не верит*», «*Свекровь на печи, что собака на цепи*», «*От свекрови в семье никому нет промытой воды*», «*Свекровь-свекровь попьёт твою кровь*», «*Кому свекровь-свекровушка, а кому и свекровица*», «*От свекровушкиной ласки слезами захлебнешься*», «*Свекровь в дом – все вверх дном*», «*Свекровь злится, что невестка веселится*», «*Свекровь снохе говорила: невестушка, полно молоть; отдохни – потолки*», «*Бурчит, как свекровь*», «*Блудливая свекровь и невестке не верит*», «*У лихой свекрови и сзади глаза*», «*Недолго невестка протянет, если свекровь ее хвалит*», «*Чужая сторонка без ветра сушит, свекровь-матушка без петли мучит*».

Образ лютой свекрови сложился издавна. В семьях бывали нередки забытые, бессловесные невестки, которых всячески обижали деспотичные и властные свёкры (им не смели перечить

даже взрослые, женатые сыновья) и лютые свекрови. Несчастные невестки с годами превращались в таких же лютых старух: *«Я всех слушалась, а вот пусть-ка теперь передо мной другие попляшут!»* Свекровь полагается любить и слушаться.

### ***Тесть***

*Тестем* называют отца жены. Про него говорят: *«Тесть, как ни вертись, а за зятяка поплатись»*, *«Что мне тесть, коли нечего есть»*, *«В копнах не сено, в долгу не деньги, а у тестя не приданое»*. В старину молодые крайне редко жили в доме родителей невесты. К тестю и теще приезжали только погостить, поэтому у них и сложился образ гостеприимных, радушных хозяев, которых уважают 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тоже ублажают: *«Тестевы обычаи уважай»*, *«Зятёк тестюшку ублажает»*.

### ***Тёща***

*Тёща* – это мать жены.

Слово «теща» произошло от праславянского корня, который обозначает «тетя», «тетка». Отношения у тещ с зятьями были намного лучше, чем у свекровей с невестками. Матери жен лучше относились к их мужьям хотя бы уже потому, что те были мужчинами и априори заслуживали этим уважение. Зятья были кормильцами для их дочерей и детей, рожденных в браке.

В народе бытует образ тёщи как заботливой «второй матери» для зятя: *«У тёщи зятёк – любимый сынок»*, *«Одно дитя роженое (дочь), другое суженое (зять)»*. В некоторых пословицах и поговорках показаны положительные черты ее характера: приветливость,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Зять в любое время был у тёщи желанным гостем: *«Зять на двор – пирог на стол»*, *«У тёщи-света всё для зятя приспето»*, *«У хорошей тёщи зять не будет тощим»*, *«Придет зять, где сметанки взять?»*, *«У тещи про зятя и ступа доит (доится)»*, *«Пожалуйста, зятек, съешь пирожок!»*, *«Тёщины блины сладки»*. Ува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зятьям нашло отражение в старой русской традиции ходить к теще на блины на Масленицу. На масленичной неделе, в среду, т. е. на лакомки, приглашение на блины от тещи получали зятья с женами. Наверняка, отсюда и пошло выражение «к теще на блины». Обычно в этот день «для удовольствия любимого зятяка» собиралась на гулянье вся местная родня. Если и были какие-то разногласия у женщин со своими зятьями, они могли наладить отношения на этот праздник.

А в пятницу на Сырной седмице (Масленице) устраивались *«тёщины вечерки»*. В этот день

тёща, со сво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 подругами приходила в гости к зятю. И блины в этот день пекла её дочь, жена зятя.

Бывало, над тёщей и подтрунивали: *«Зять с тёщею говорит день до вечера, а послушать нечего»*, *«Смолоду меня тёща зятем звала, а взростя дочь – за другого отдала»*.

Однако чаще образ тещи наделен отрицательными чертами: бедность – *«У тещи карманы тощи»*, неприветливость – *«Был у тещи, да рад утёкши»*, *«Теща зятя в гости зовет: на Петров день, на сыр, на Ильин день, на бараний рог; на Успение, на морковкино заговенье»* (морковкино заговенье – неопределенно отдаленное время; время, которое никогда не наступит (Молотков 1968: 161).

Теща уподобляется черту, то есть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лукавства, раздора в семье (черт – олицетворение зла, враг рода человеческого: нечистый, черная сила, сатана, диавол, лукавый): *«Тещу в дом – черта в дом»*.

Зять пренебрежительно относится к тещиному добру, не жалеет его: *«Не жалеи тещина добра, колупай масло шилом!»*

### ***Зять***

*Зять* – это муж дочери, муж сестры и муж золовки. *«Зять да сват у тещи первые гости»*, – говорили в старину. Родители невесты относились к зятю, как к родному сыну: *«Одно дитя роженое (дочь), другое суженое (зять)»*, *«У хорошей тещи зятек – самый любимый сынок»*. Но иногда зятем бывали и недовольны: то беден, то незнатен, то прожорлив: *«Бедному зятю и тесть не рад»*, *«Ни в сыворотке сметаны, ни в зяте племени»*, *«Думала тёща, пятерым не съест; а зять – то сел да за присест и съел!»*, *«Сынок – свой горбок; зятек – покупной щеголёк; тёща хлопочет, тесть кропочет»*. (Кропотать – хлопотать, заботиться, суетиться, возиться; ворчать, брюзжать, сердиться, браниться). *«Тесть за зятя давал рубль, а после давал и полтора, чтоб свели со двора»*, *«На зятьев не напасешься, что на яму»*, *«Нет черта в доме – прими зятя!»*

*«Хозяин надеется на рысака, зять – на тещу»*, *«Зятек едет – на похмелье зовет»*, *«Зять в дом – и иконы вон»*, *«Зять да шурин – черт их судит»*, *«Зять любит взять, тесть любит честь»*, *«У наших зятей много затей»*.

### ***Невестка (сноха)***

*Невестка*, или *сноха* – жена сына. Снохами также приходились друг другу жены братьев. Само слово «сноха» раньше звучало как «сыноха», т.е. замужем за сыном. Сноха была в доме

новым человеком, поэтому её называли ещё «невесткой», т.е. «неведомой», неизвестной. При знакомстве она говорила: *«Папаша, мамаша, я сноха ваша»*. К невестке относились очень придирчиво, потому что в будущем именно ей предстояло стать полноправной хозяйкой в доме. *«Сношка, сношенька, переступай с ноги на ноженьку»* (т.е. шевелись, работай), *«Свекровь снохе говорила: невестушка, полно молоть, отдохни – потолки»*, *«Пусть бы невестка и дура, только бы огонь пораньше дула»* *«Сноху привели, и трубу на крышу поставили!»*, *«Зять мил по дочери, а сын постыл по невестке»*, *«Зять по дочке помилеет, а сын по невестке опостылеет»*. *«Первого сына женят отец–мать, а второго – сноха»* (т.е. о свекре и свекрови будут судить по её слов).

### ***Теща, зять, невестка, свекровь в анекдотах***

Образы родственников ярко и колоритно предстают перед нами в русском фольклоре с древности и до наших дней. Но героиней самых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шуток и анекдотов стала почему-то теща. Образ тещи уже давно стал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предметов для обсуждения. Сюжеты про конфликты зятя с тещей стали популярным материалом для творчества юмористов и карикатуристов.

Но почему объектом юмора выбрана именно теща, а не свекровь? Психологи объясняют, что проще шутить над чужой мамой, нежели над своей, а поскольку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шутников – мужчины, вот тещам и достается. Известный хрестоматийный случай: однажды Юрий Никулин устроил эксперимент. На людной площади, взяв в руки микрофон, объявил прохожим, что каждому, у кого сейчас есть с собой фотография тещи, он тут же, на месте, вручит немалую сумму денег. Распрощаться со своими кровными Никулину тогда так и не пришлось. Ведь носить в бумажнике фотографию любимой тещи у нас как-то не принято. Другое дело – придумывать о ней частушки и анекдоты (Руслан Искандеров).

Тёща в анекдотах предстает как отсталая от жизни, недалекая женщина, которая постоянно вмешивается в быт молодых:

*Теща обращается к зятю:*

*– Что это у Вас в кастрюльке было, еле отмыла?*

*– А, эээто?... ТЕФЛОНОВОЕ покрытие...*

Теща настолько надоедает зятю, что он мечтает только об одном – отдалиться от нее, не подпускать близко.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лась психологами, теща в пять–шесть раз чаще инициирует конфликт, чем зять. И, конечно, проблема обостряется, если теща, её дочь и муж

дочери (зять) живут на одной территории (жилплощади – квартира, дом).

*Один мужик построил себе круглый дом с круглыми комнатами, коридорами, кухней. Его друг спрашивает:*

*– А зачем тебе такой дом весь круглый?*

*– Так теща сказала: “Надеюсь, в вашем новом доме уголок для меня найдется?”*

Часто зять даже желает смерти своей теще. Смерть тещи знаменует некое окончательное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её влияния.

*Ночь. Звездопад. Зять с тёщей загадывают желания.*

*Зять загадал, а тёща не успела.*

\*

*– Может ли в фильме быть хэппи-энд, если в конце главный герой погибает?*

*– Может. Если главный герой – теща.*

\*

*Зять приносит в дом два цветных телевизора. Сосед его спрашивает:*

*– А два – то телевизора тебе зачем?*

*– Да теща вот сказала, что за цветной телевизор полжизни отдаст.*

\*

*– Что такое смешанное чувство?*

*– Это то, что испытываешь, когда видишь, как твоя теща в твоей машине летит в пропасть.*

\*

*– Где твоя теща?*

*– В Минске.*

*– Хороший холодильник.*

\*

*Люди, как вы думаете, толкнуть любимую тещу в прорубь на Крещение — это святое дело или уголовное?*

\*

*Звонок ветеринару: Сейчас к Вам придет моя теща со старой собакой. Так Вы сделайте ей укол какого-нибудь самого сильного яду – чтобы не мучилась и сразу померла...*

*Ветеринар: – А собачка найдет дорогу домой?*

Интересно, что двусмыслицу в словах зятя понимает даже посторонний челове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ужчины объединены общей «бедой».

Муж дочери бывает настолько зол на тещу, что желает ей зла и в загробной жизни.

*На поминках тещи зять все время шепчет: “Да будет земля тебе пухом, да будет земля тебе пухом, да будет земля тебе пухом!”.*

*Друг интересуется:*

*– Что ты так убиваешься – ты же ее ненавидел?*

*– Если бы ты знал, какая у нее была аллергия на ПУХ!*

Тещи в анекдотах выглядят в самом неприглядной виде, как страшное стихийное бедствие, как нечто ужасное и неодолимое. Теща сравнивается со змеей, как с опасным, неприятным существом,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ведьмой:

*Жена под страхом развода запретила мужу называть тещу змеей. Муж перестал. Теперь по приезду тещи выдает: «Мама приползла».*

\*

*Сын спрашивает у отца:*

*– А как змея разговаривает?*

*Отец, глядя на тещу:*

*– Ну, что же вы молчите мама, внук интересуется!*

\*

*– Ты что в субботу делаешь?*

*– Да мы с сыном будем змея воздушного запускать, а ты?*

*– Примерно тоже самое: тещу повезу в аэропорт.*

\*

*Тёща на днях случайно заглянула на выставку змей.*

*– Ну и что?*

*– Получила Гран-при!*

\*

*– Папа, а правда, что ведьмы не существуют? Папа, посмотрев на тещу: – Я, когда был маленький, тоже так думал.*

Количество анекдотов, посвященных отношениям невестки и свекрови, несопоставимо мало в сравнении с количеством смеховых текстов, описывающих ситуации, участниками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зять и теща. Возможны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обуславливающие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нашедшие выра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русском анекдоте: *Почему о теще масса анекдотов, а о свекрови – ни одного? Потому что свекровь –слишком грустная тема для шуток ... .*

В анекдотах свекровь всегда на стороне своего сына, она испытывает ревнос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евестке:

*Звонит свекровь невестке:*

*– Ну, как там мой сыночек? – Да как, как ... . Водку пьёт, по бабам таскается, меня бьёт ... . –*

*Ну, слава богу, лишь бы не болел!...*

Свекровь всегда недовольна невесткой, относится к ней предвзято:

*Сноха изо всех сил пытается угодить свекрови – и то сделает, и сё, но свекрови ничего не нравится. от всего нос воротит и фыркает. Уже совсем измотанная сноха спрашивает свекровь:*

*– Мама! Ну как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Вам понравилось?*

*– Ну, я даже не знаю, как, но знаю, что все равно не так будет.*

\*

*Невестка моет пол, а свекровь сидит и смотрит за ее движениями с ненавистью... . Невестка моет пол шваброй и спрашивает у свекрови: – Мама, я так мою? – Не так! Невестка снимает со швабры тряпку и начинает мыть пол уже без швабры, руками. И снова спрашивает свекровь: – Мама, так? – Не так! – А как же? – Не знаю как, но не так! – отвечает свекровь с ненавистью.*

\*

*Сын привел троих девушек домой, и говорит маме. – Мама угадай которая из них моя невеста. Мама: – Вон та с краю. Сын: – Как ты догадалась? Мама: – она как зашла сразу бесит меня начала.*

\*

*Съездила свекровь в гости к невестке, побывала у дочери и рассказывает подруге: – У моей дочки хороший муж, он посуду и полы моет, стирает и готовит, а вот сыну не повезло, невестка и готовить не умеет, и посуду не моет!*

Однако в единичных смеховых текстах зафиксирован образ доброй свекрови, которая пытается «помочь» невестке. В частности, речь идет о «советах по воспитанию» непутевого супруга, поступки которого очевидны для его матери:



*Добрая свекровь дарит невестке сразу две сковороды. – А почему две? – спрашивает она. – Если одна занята, с другой будешь встречать мужа с работы. (Железнова Ю.В.)*

В анекдотах отношение невестки к свекрови, так же, как и зятя к теще, всегда негативное. Например:

*Разговаривают две подруги в походе:*

*– Наташка, зачем ты фотографию свекрови с собой берешь?*

*– Ну вот видишь, Лена: грязь, дождь, холод. А как на нее посмотрю. Господи, хорошо – то здесь как!*

*\**

*Значит, вы видели, как преступник задушил вашу свекровь?*

*– Видела, господин судья.*

*Почему же вы не бросились на помощь?*

*– Я хотела, но увидела, что он сам справится, и решила не вмешивать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анекдоты про тещу, зятя, свекровь, невестку –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город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ные фольклорные тексты позволяют выявить следующее:

- образ тещи в русском фольклоре носит ирон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 отношение зятя к теще негативное;
- свекровь всегда предвзято относится к невестке, считает ее плохой хозяйкой и ревнует своего сына;
- теща и свекровь постоянно вмешиваются в быт молодых;
- смерть тещи / свекрови – знаменует некое окончательное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её влияния, наилучший вариант, которому можно позавидовать (в анекдотах).

Не смотря на стереотипы тещи и свекрови, которые сложились в народе, и ироничное, порой даже не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ним, образ тещи и свекрови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не совпадает с фольклорным. В жизни и теща, и свекровь, зачастую является любимыми и уважаемыми членами семьи, что противоречит образу, созданному народом в фольклоре.

## Литература

1. Грудкина Т.В. Родственные связи в русском народе. <https://myslo.ru/ugolok-pravoslaviya>.
2. Даль В.И.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живого великорусского языка (т. 1–4): издание М.О. Вольфа, СПб.; М., 1880, 1881, 1882.
3. Железнова Ю. В. Лингвокультурные стереотипные образы «теща» и «свекровь» в семант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анекдота: сопоставительный аспект.  
<https://cyberleninka.ru/>
4. Лебедь О.Л.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современной семьи : По материалам устной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 ... кандидата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22.00.04 / Моск. гос. ун-т им. М. В. Ломоносова. Социол. фак. – Москва, 2000. – 23 с.
5.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од ред. А.И. Молоткова. Изд 2-е, стереотип. Москва: «Сов. Энциклопедия», 1968. – 543 с.

### Источники

6. Даль В.И.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в 2-х томах). –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4. – 770 с
7. Михайлова Л. 20 000 русских пословиц и поговорок. – М.: Центрполиграф, 2009. – 384 с.
8. *Все пословицы и поговорки*: [http://www.ermak.su/pogovorki/\\_pos\\_i\\_pog.htm](http://www.ermak.su/pogovorki/_pos_i_pog.htm)

## Приложение

### *Деверь*

*Деверь* – брата мужа. «*Деверь невестке обычный друг*», «*Мой деверёк, браток, не твоему деверицу чета*».

### *Ятровь (ятровка)*

*Ятровь*, или *ятровка* – жена деверя или жена шурина, а также жена брата (деверю и золовке).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ятровка* – женщин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емье мужа, поэтому иногда *ятровкой* называют сноху.

### *Золовка*

*Золовка* (*золва, золовица*) – это сестра мужа. Эту родственницу по-старославянски называли «свесь», т.е. «своя женщина», поэтому и «сестра», и «свекровь», и «свесь» – это однокоренные слова. Поскольку золовка принадлежит к родне мужа, то она, как и все родственники мужа попадает под стереотип злых людей. «*Золушкины речи репъём стоят*», «*Золовка зловка*», «*Золовка хитра на уловки*». Суббота на Масленице называлась «*золовкиными посиделками*». В этот день молодые невестки приглашали в гости золовок и друг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мужа. Если золовка была не замужем, то невестка приглашала своих незамужних подруг, если сестры мужа уже были замужние, то невестка звала свою замужнюю родню. Невестка должна была подарить золовке какой-нибудь подарок.

#### *Шурин*

*Шурин*, или *шурья*, *швагер* – это брат жены. Про него говорили: «*Зять любит взять, тесть любит честь, а шурин глаза щурит*», «*Зять да шурин – кто их судит?*», «*Шурин по зятю не наследник*».

#### *Свояк и свояченица*

*Свояченица* – это сестра жены, а *свояк* – её муж. Свояками также называются мужчины, женатые на двух сёстрах. О них испокон веков почему-то шла дурная слава: «*Два брата на медведа, а два свояка – на кисель*» (т.е. ненадежные, слабые люди). «*Свояк свояку подарил мёртвую собаку. – Отчего ж она, свояк, не лает? – Оттого, что тебя больно знает*». «*Как у тёщи зять в гостях – за семь вёрст заезжают; как у свояка свояк в гостях – за семь вёрст объезжают*».

#### *Сватья (сваты)*

*Сват* и *сватья* – это родители молодых, а *свойственники* – вся родня по мужу или по жене. Про сватов нелюбезно говорили: «*И добрый сват – собаке брат*». «*Сват не сват, а в горюх не лезь*», «*Сват, не сват, был бы добрый человек*», «*Знают сватю и в новом платье*».

*Отчим* – второй муж матери (неродной отец).

*Мачеха* – вторая жена отца (неродная мать).

*Единокровные дети* – от одного отца, но от разных матерей.

*Единоутробные дети* – от одной матери, но от разных отцов.

*Пасынок (пасерб)* – сын мужа от его первой жены, или сын жены её первого мужа.

*Падчерица* – дочь мужа от первой жены или дочь жены от мужа мужа.

*Сводные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 пасынки и падчерицы между собою.

*Духовное родство – кумовство*

«*Духовное родство пуце плотского*».

#### *Кум, кума*

*Кум* и *кума* – это крестные отец и мать, восприемники. Главной задачей крестных родителей было приобщить крестника к основам веры, поэтому родством с кумовьями очень дорожили: «*Кума да кум наставят на ум*», «*Добрая кума прибавит ума*», «*Кум дарит крест, а кума ризки*». Кума и куму полагалось в любое время встречать радушно и щедро угощать, и некоторые этим злоупотребляли, поэтому и родились поговорки: «*Кумушка кума, окрести моё*

*дитя, да не знай мово двора», «В кумовьях не быть – и пиво не пить», «Не спеши, куманёк, не вздут огонёк». Иногда над любопытными кумушками подтрунивали: «Кому до чего, а куме до всего», «Кумушкины слёзки на базаре дешёвы».*

# 체호프 드라마의 현대적 변용: “AFTERCHEKHOV” - Ⅱ. 올리츠키야의 『러시안 잼』과 풍자극장의 무대화

이승익 (경북대)

## 1. 희곡 텍스트의 무대화 문제

드라마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창조되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문학 장르이다. 따라서 극작가는 작품을 구상할 때부터 무대의 요구를 고려하여 시공간, 등장인물, 사건 등을 제한적으로 창조해야 하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작가의 언어로 인물의 성격과 심리 묘사, 주제 의식 등을 표현할 때 직접적인 서술과 서사에 적잖은 제약은 받는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제약성 때문에 희곡을 무대화할 경우, 그 무대화의 주체(주로 연출가나 배우)는 제한된 언어 텍스트의 숨겨진 이면을 드러내거나 새롭게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시와 소설을 비롯한 여타의 문학 장르는 지면화된 언어 텍스트 분석만을 통해 충분히 작품을 연구할 수 있지만, 드라마는 언어 텍스트뿐만 아니라 상연된 무대 텍스트 분석이 같이 이루어질 때 보다 폭넓고 온전한 형태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드라마의 무대화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극작가의 텍스트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연출 의도와 방향, 배우의 연기와 무대 장치, 연극에 대한 객석과 평단의 반응까지 여러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19세기나 20세기에 공연된 과거의 작품일 경우, ‘현장성’과 ‘일회성’을 생명으로 하는 연극 공연을 실제로 관람하지 못하고 당시의 기록과 사진 등의 자료로 공연을 유추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무대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자 필연적이다. 연극 기호학자 케어 엘람(Keir Elam)이 ‘연극 기호학은 두 가지의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하나는 공연을 위해 생산되는 희곡 텍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공연에서 생성되는 공연텍스트이다.’<sup>1)</sup>

1) 케어 엘람, 이기한, 이재명 역 『연극과 희곡의 기호학』, 이기한, 이재명 역, 평민사, 1998. p12. 한편 황훈성은 ‘희곡작품은 그 차체로서는 구멍 난 텍스트이므로 지문이나 비언어적 기호가 창출하는 독특한 연극성을 빼고 희곡작품만을

라고 지적했듯이 드라마는 문학과 예술이라는 두 영역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필연적인 장르이다. 특히 지금까지 기존의 드라마 연구는 작품인 언어 텍스트 분석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 김혜란과 이진아를 중심으로 무대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sup>2)</sup> 특히 해빙기 시기와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의 다양한 극장과 연출가의 무대화 연구를 흥미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희곡의 무대화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자가 직접 관람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과거의 공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연구자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현대의 공연보다 과거 공연을 연구하는 이유는 지난 세기 100년간 러시아에서 활동한 극작가, 연출가, 배우들의 예술적 깊이와 의미화가 현대 러시아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200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풍자극장(Театр сатиры на Васильевском)에서 안제이 부벤의 연출로 공연된 J. 올리츠키야(Улицкая)의 희곡 『러시안 잼(Русское варенье)』(2003)은 과거의 전통과 현대의 혁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공연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희곡의 무대화의 문제를 올리츠키야의 희곡 『러시안 잼』과 그것을 공연한 풍자극장의 공연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희곡 『러시안 잼』 – AFTER CHEKHOV

올리츠키야의 희곡 『러시안 잼』은 2002년 모스크바 근교 다차촌에 사는 레포힌(Лепёхин) 가족의 얘기를 통해 자본주의와 실용주의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현대 러시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것은 희곡의 부제가 ‘체호프 이후 AFTERCHEKHOV’라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체호프 드라마들의 현대적 변용(трансформация)이라는 점이다. 극작가로서 체호프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극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898년 『갈매기』를 시작으로,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스타니슬랍스키 연출로 공연된 『바냐 외삼촌』(1899), 『세 자매』(1901), 『벚나무 동산』(1904)은 러시아 극문학과 연극을 단숨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특히 일상의 얘기를 담담한 필체로, 그러나 독특한 드라마 시학으로 전개한 체호프의 작품들은 이후 러시아 극작가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러시아 극문학사에는 종종 ‘제2의 체호프’, 혹은 ‘체호프의 아이들’ 등과 같은 칭함을 받는 극작가와 극작품이

감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황혼성, 『기호학으로 본 연극 세계』, 신아사, 2000. p13.

- 2) 김혜란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1940년 네미로비치-단첸코의 『세 자매』공연과 전후의 낙관적인 체홉 공연들>, (2004); <러시아 고전과 대중문화: 에프로스과 “잔인한” 체홉: A. 에프로스의 『갈매기』(1966), 『세 자매』(1967) 공연에 대한 고찰>, (2006); <연극과 권력: 예프레모프와 1970년대 브하트에 대하여>, (2010); <유로지비의 귀: V. 메이예르홀트의 실현되지 못한 공연 『보리스 고두노프』>, (2017). 이진아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체홉 읽기, 두 가지 방식 레프 도진과 표트르 포멘코의 ‘세자매’>, (2011); <해빙기 체호프 무대 해석의 혁신과 의미>, (2012); <안톤 체호프 장막극의 무대 해석에 대한 연구 -홍해성, 이해량, 이진순의 연출 작업을 중심으로>, (2015)

적지 않게 등장하곤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926년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스타니스슬랍스키의 주도로 공연되었던 불가코프의 『투르빈씨네의 나날들』을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구세대에 아련한 향수를 지닌 당대 관객들에게 ‘제2의 체호프가 나타났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체호프의 극작술과 매우 유사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sup>3)</sup>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는데 아쿠닌의 『갈매기』, 자발 루예프와 젠지노프의 『바냐 삼촌 동산에 벚치가 익었네 Пospели вишни в саду у дяди Вани』, 슬라포프스키의 『나의 벚나무 동산 Мой вишневый садик』(2004)와 같은 작품들은 체호프 4대 장막극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울리츠키야는 위에 예를 든 다른 작가들처럼 체호프 드라마 시학을 부분적으로 차용하거나 특정 작품을 패러디한 것 아니라 체호프의 드라마 중 『바냐 외삼촌』, 『세 자매』, 『벚나무 동산』의 등장인물과 주된 사건들을 21세기적 러시아 상황에 맞게 기막히게 재구성하여 마치 체호프의 여러 작품이 하나의 드라마로 압축된 듯한 느낌으로 작품을 창작하였다.<sup>4)</sup>

작가 스스로 이 작품을 ‘체호프와의 대화’라고 규정하면서 ‘체호프 희곡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없고 작품도 의미가 없다’<sup>5)</sup>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체호프 작품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희곡 『러시안 잼』의 전체 줄거리는 체호프의 『벚나무 동산』과 유사하며, 주인공들의 특징이나 상황 등은 체호프의 『벚나무 동산』, 『세 자매』, 『바냐 외삼촌』의 인물들을 21세기적으로 변형시켜놓은 듯하다. 과거의 영예와 추억에만 젖어 살다가 변화의 물결을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지를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벚나무 동산’의 라네프스카야처럼 ‘러시안 잼’의 레표힌 일가의 영지도 재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팔려버린다. 25년간 매형인 세레브랴코프를 위해 죽도록 일한 ‘바냐 아저씨’의 바냐처럼 19살 때부터 가족들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 나탈리아와 소비에트 시절 저명한 학자였던 그의 오라비 안드레이의 삶은 궁핍한 현대 러시아 연금 생활자들의 자화상이다. 현실적 삶의 감각 없이 모스크바로 가기만을 원하는 ‘세 자매’의 세 자매처럼 나탈리아의 세 딸은 자신들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곳을 벗어나 파리나 런던으로만

3) Смелянский А., “Драмы и театр Михаила Булгакова” Булгаков М. 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5-ти томах, т 3,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Москва, 1990. с. 581. 한편, 20세기 후반에는 『6월의 이별』(1966), 『오리사냥』(1970)의 밤필로프가 ‘20세기 후반의 체호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4) 고전 작품과의 대화, 혹은 상호텍스트성은 울리츠키야의 창작 세계의 주된 모티브 중의 하나이다. 울리츠키야는 체호프 작품을 모티브로 한 『러시안 잼』 외에도 푸시킨의 소설 『스페이드의 여왕(Пиковая дама)』을 모티브로 한 동명 소설 『스페이드 여왕』(1997)을 창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 박종소, “А. 푸시킨과 Л. 울리츠키야의 동명 소설 『스페이드의 여왕』의 비교에 관한 소고” 러시아연구. 2013. 23권 1호. 박미령, “뿌쉬킨의 〈스페이드 여왕(Пиковая Дама)〉과 울리츠키야의 〈스페이드 여왕〉과의 상호텍스트적 관계”, 노어노문학. 2005. 17권 3호.

5) 박철화, 이수연, <소설 속 잃어버린 여성과 가족의 의미를 찾는 그녀 - 러시아 작가 류드밀라 울리츠키야를 만나다>, 작가세계, 24, 2012. p. 260. 한편, 울리츠키야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인터뷰에서 ‘나는 체호프를 매우 사랑하지만, 그의 희곡을 결코 좋아한 적이 없다. 어째서 이렇게 지루한 작품이 높게 평가받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러시안 잼>을 통해 체호프와 대화를 하고 싶어졌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진아, “<러시안 잼(Русское варенье)>과 체호프 장막극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드라마 연구. 2017. 53권. 167-168.

가기를 원한다. ‘세 자매’의 오빠인 안드레이가 점점 소시민으로 몰락하는 반면 ‘러시안 잼’의 세 자매의 오빠인 로스티슬라프는 영악하게 자본주의에 편승하여 거부가 된 이른바 ‘노브이 루스키이(신 러시아인)’의 상징이다. 그는 ‘바냐 아저씨’의 세레브라코프가 바냐의 영지를 팔아 별장 임대업을 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가족들의 삶의 터전을 팔아 최신식 별장으로 만들자고 제안한다.<sup>6)</sup>

울리츠키야는 체호프 인물들의 성격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체호프 드라마의 상황과 대사를 21세기 현대 러시아의 상황에 맞게 흥미롭게 변용하고 있다. 체호프의 『바냐 외삼촌』의 피날레에서 소녀의 ‘삼촌, 참고 일해요, 참고 살아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쉬게 될 거예요’라는 절규하듯 외치는 대사는 『러시안 잼』의 피날레에서 로스티슬라프의 화려한 물질문명의 욕구에 대한 대사로 변용된다.

소녀 : 삼촌, 지금도 늙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해요. <.....> 그러면 하나님이 우릴 가엽게 여기실 테고, 저와 삼촌은 밝고 아름답고 우아한 삶을 보고 우리는 쉬게 될 거예요. <.....> 우린 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하늘을 보고(мы увидим все небо в алмазах)**, <....> 우리 인생은 고요하고 부드럽고 달콤해질 거예요. <....> 삼촌, 기다려요. 우린 쉬게 될 거예요. **우린 쉬게 될 거예요(Мы отдохнем!)**<sup>7)</sup>

로스티슬라프 : 일은 할 만큼 했어! 이제 쉬어야 할 때야!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거야! <.....> 이곳에 제네바 호수만 한 인공섬을 만들 거야! <.....> 이곳으로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도, 일본인도 많은 돈을 들고 몰려올 거야. <.....> **일하는 것은 충분히 했어. 이제는 쉴 때야(Хватит работать! Пора отдыхать!)** 여기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설 거야! **그리고 당신들 모두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하늘을 볼 거야. (И вы увидите небо в алмазах!)**<sup>8)</sup>

울리츠키야는 등장인물 간의 소통의 부재, 이른바 체호프적 ‘독백적 대화’ 기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체호프의 주인공들처럼 ‘러시안 잼’에서 등장인물들은 누구도 서로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

영지를 팔기를 거부한 그들이 선택한 생계 수단은 ‘벚나무’ 과실을 따서 잼을 만드는 것이다. 전통과 자연이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훼손되는 것이 싫어 영지를 팔기를 거부한 그들이 먹고살기 위해 ‘자연적인’ 것에서 ‘인공적인’ 것을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잼에 ‘쥐’가 빠져버려 그마저 쓸모없게 되고 결국 영지는 팔리게 되며 그들의 과거와

6) 울리츠키야는 『러시안 잼』의 주인공들의 형상을 2-3개의 체호프 드라마 인물들의 특징을 차용하여 복합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로스티슬라프는 『세 자매』의 안드레이처럼 『러시안 잼』에서도 세 자매의 오빠로 등장하고 있지만, 가족의 별장을 팔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가의 모습은 『벚나무 동산』의 로파힌을 연상시킨다. 『러시안 잼』의 인물 형상과 체호프 드라마 인물과의 관계는 이진아(2017)의 170-171쪽에 표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7) Чехов.А. Дядя Ваня, Соб.соч. в-18 т. т.12. М.: Наука. 1983. с. 132.

8) Улицкая.Л. Русское варенье, Русское варенье и другие. М.: Эксмо. 2008. с. 189



현재의 터전 위에는 지하철역과 유흥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즉 ‘러시안 잼’은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내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그것들을 훼손하여 삶을 유지해야만 하는 현대 러시아인의 모순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

### 3. 풍자극장의 공연 - 물이 새는 노아의 방주



<풍자극장의 『러시안 잼』 공연의 한 장면>

상트페테르부르크 바실리에프스키 섬에 있는 풍자극장은 1989년에 개장한 역사가 그리 길 않은 젊은 극장이다. 2007년 극장의 수석 연출가로 부임한 폴란드 출신의 안제이 부벤은 극장에 부임하자마자 올리츠키야의 『러시안 잼』을 성공적으로 상연함으로써 러시아 연극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풍자극장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어버렸다.9). 『러시안 잼』은 그 해에 페테르부르크의 연극상인 ‘황금소피트’에서 연출가상을 받았고, 특히 작가

인 올리츠키야 역시 공연에 매우 흡족하여 자신의 소설 『번역가, 다니엘 슈타인 Даниэль Штайн, переводчик』의 각색 공연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공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원작에는 없는 독특한 무대장치이다. 무대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 그 위에 자리 잡은 레표힌 일가의 응접실은 마치 섬처럼 물에 떠 있는 인상을 준다. 응접실 주위로 불안해 보이는 몇 개의 다리들을 통해 등장인물들은 등, 퇴장을 반복한다. 낡은 가구들, 단수와 단전이 반복되는 버려진 듯한 집의 분위기는 19세기 러시아 삶을 연상케 하며 과거를 사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연극에서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공간에 가장 관심을 기울인다는 부벤은 피날레에서 레표힌 일가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심장하게 객석에 전달한다. 집이 팔리자 인부들이 들어와 집안의 모든 가구를 들어내고 마지막으로 다리들을 모두 다 제거해 버려 응접실만 덩그러니 물 위에 떠 있

9) 폴란드 출신으로 페테르부르크로 연극대학에서 공부한 후, 현재 러시아 극장에서 연출가로 활약하고 있는 안제이 부벤이 풍자극장에서 『러시안 잼』을 성공적으로 상연한 것은 평소 그가 체호프에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1년 부벤은 『체호프. 보드빌 А.Чехов. Водевиль』이라는 공연을 올렸는데, 이것은 체호프의 단막극 『곰』, 『청혼』, 『기념일』, 『담배의 해독에 관하여』라는 네편의 공연을 묶어서 2시간짜리 공연으로 만든 것이다. 익히 알고 있듯이 메이에르홀트가 1933년 역시 체호프의 단막극 『곰』, 『청혼』, 『기념일』을 묶어 『33번의 발작 33 обморока』을 상연하였다.

는 섬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남겨진 레포힌 가족들은 홀로 외딴 섬에 버려진 것처럼 외부와 접촉도 할 수 없고 어디로도 떠날 수 없게 된다. 무대감독 드미트리예코바는 이것을 마치 ‘물이 새고 있는 노아의 방주’라고 표현하였다. 즉 풍자극장의 안제이 부벤은 비가 그치면 구원을 받게 되는 노아의 가족들과는 달리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가라앉고 있는 출구 없는 레포힌 가족들의 운명을 쓸쓸히 그려내고 있다.

#### 4. 체호프, 올리츠키야, 풍자극장

체호프는 희곡 『벚나무 동산』을 ‘4막으로 된 희극 (Комедия в 4-х действиях)’으로, 올리츠키야는 『러시안 잼』을 ‘중간 휴식 없는 3막으로 된 희곡(пьеса в трех действиях без антракта)’로 규정하였다. 『벚나무 동산』의 피날레에서 모두가 떠난 빈 무대에 피르스 혼자만이 남아 있고 벚나무를 찍어내는 도끼 소리만이 들리면서 막이 내린다. 『러시안 잼』도 『벚나무 동산』과 유사하게 단 한 그루의 나무만 남아 있고 모든 나무가 제거된다. 그리고 텅 빈 무대에 로스티슬라프 홀로 남게 되고,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리면서 막이 내린다.

풍자극장의 공연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나무가 제거되는 대신에 다리를 하나씩 제거하여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과 고립을 보여준다. 풍자극장의 공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1막부터 마지막까지 무대 한가운데 걸려있는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체호프의 초상화이다. 올리츠키야의 텍스트에는 피날레에 이 초상화가 제거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풍자극장의 공연에서는 모든 것이 제거되었지만 체호프의 초상화는 그대로 남겨둔 채로 막을 내린다. 사실, 체호프가 아무리 『벚나무 동산』을 희극이라 주장하여도 희곡은 전혀 웃기지도 긍정적인 결말을 가지지도 않는다. 여전히 많은 연출가에게 체호프 드라마의 장르 규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풍자극장에 홀로 남겨진 체호프 초상화의 미소처럼 어찌면 체호프는 우리와는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참고문헌

- 박미령, “뿌쉬킨의 〈스페이드 여왕 (Пиковая Дама)〉과 올리츠키야의 〈스페이드 여왕〉과의 상호텍스트적 관계”, 노어노문학. 2005. 17권 3호. 157-182.
- 박종소, “A. 푸슈킨과 Л. 올리츠키야의 동명 소설 『스페이드의 여왕』의 비교에 관한 소고” 러시아연구. 2013. 23권 1호. 51-76
- 박철화, 이수연, <소설 속 잃어버린 여성과 가족의 의미를 찾는 그녀 – 러시아 작가 류드밀라 올리츠키야를 만나다>, 작가세계, 24, 2012.
- 이진아, “<러시안 잼(Русское варенье)>과 체호프 장막극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드라마 연구. 2017. 53권. 161-196.
- 전정옥, “연극의 작가로서 연출가의 희곡 재구성 방법론 연구 –메이에르홀드와 발레리 포킨의 ‘검찰관’수행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드라마 연구 31권, 2009.
- 케이 알람, 이기한, 이재명 역 『연극과 희곡의 기호학』, 이기한, 이재명 역, 평민사, 1998.
- 황훈성, 『기호학으로 본 연극 세계』, 신아사, 2000.
- Смелянский А., “Драмы и театр Михаила Булгакова” Булгаков М. 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5-ти томах, т 3,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0. с. 581.
- Улицкая.Л. Русское варенье, Русское варенье и другие. М.: Эксмо. 2008. с. 189
- Чехов.А. Дядя Ваян, Соб.соч. в-18 т. т.12. М.: Наука. 1983. с. 132.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 공시성과 통시성

제3분과 **어학분과**

| 일시 |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09:30~20:30)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대캠퍼스 하나스퀘어

| 주최 |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

| 주관 | 한국러시아문학회

| 후원 | 한국연구재단, 한러대화,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공시성과 통시성

### 제3분과 어학분과

#### 어학분과A : 러시아어 어휘 연구와 교육

사회: 김형섭 (중앙대)

- ▶ 러시아어 동사의 상-시제 형태에 대한 다상황적 분석  
(외국어로서 러시아어 교육 방법론 측면에서) ..... 175
  - 발표: 권용재 (연세대)
  - 토론: 손현익 (한국외대)
  
- ▶ 투르게네프 산문시 속 관용어 연구 및 한국어 번역 비교 ..... 185
  - 발표: 이새봄 (한국외대)
  - 토론: 김희연 (안양대)
  
- ▶ 『노한회화』(1904)와 『노한회화를 위한 어휘와 표현』(1904) 연구 .... 193
  - 발표: 한지형 (부산대)
  - 토론: 정영주 (고려대)





# 러시아어 동사의 상-시제 형태에 대한 다상황적 분석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교육 방법론 측면에서)

권용재 (삼육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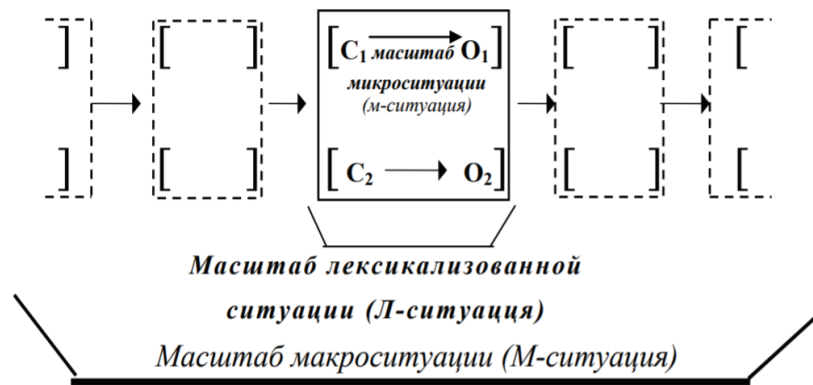
다상황성(полиситуативность) 개념에서 동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상황, 즉 상황의 구성요소와 특성이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가로지르는 것으로서 검토된다. Лебедева가 생각한 “동사는 환유적 성질에 따라 기술되는 외연적 구조의 어떠한 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포착하면서도 그 외연구조의 또 다른 측면도 어느 정도 암시할 수 있다.... 동사의 압축 구조에는 해당 상황을 특징짓는 하나 혹은 몇 가지의 단편이 고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단편들은 동사의 환유적 구조에 의해서 이후에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표상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동사는 직접적으로 혹은 전통적으로 동사와 연관되는 것 보다 더욱 복잡하고 상세한 구조를 우리의 기억 속에서 복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Лебедева, 2015, с. 123).

Лебедева는 동사의 내용적 측면을 다상황적(полиситуативный), 다사건적(полисобытийный), 다명제적(полипропозиционный) 복합체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다상황성은 세상의 동적 단편을 상황의 교체로 간주하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고, 다사건성은 상황 속에서 별개의 다른 윤곽을 가진 몇몇 사건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Лебедева, 1999, 2012, 2015). 동사의 지시적 의미는 다상황적이고 다사건적이지만, 그 의미 기술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은 구조화된 명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명제적 구조의 중심 매개체가 바로 상황소(ситуатема)이다. 다상황적 분석에서 동사의 내용은 이러한 상황소(ситуатема)에서 실현되는 의미들의 집합체로서 복합적인 분기 구조로 나타난다.

상황소의 특징은 다소 양면적인데, 즉 이것은 언어에서 전반적으로 동사 범주와 개별적인 동사 어휘그룹에 고유한 심리적인 동적 구조를 기술할 수 있는 인지적 단위임과 동시에 언어적 단위이다(Небольсина, 2016, с. 169). 다시 말해 상황소는 심리 구조와 관련되고 언어에서 원형적 상황의 구체화 방법이며, 다른 한편으로 특정 그룹의 모든 동사에 공통적인 상황 전개 유형, 즉 인지적, 언어적 불변의미(Invariant)이다. 동사 의미 연구의 다상황적 접근에서 동사의 의미구

조는 원칙적으로 출발점에서 종착점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대한 표상으로 이해되며, 이는 상황소의 기본적인 특징과 기술 원리가 된다. Лебедева의 정의에 따르면 상황소(ситуатема)란 특정 동사 형태가 가리키는 일련의 상황들을 통합시키는 내용적 단위(Лебедева 2012: 225)로서 여기에는 핵심적이고 단언적인 상황과 정신적 층위에서 이와 내포적으로 관련되는 인접한 상황적 문맥(конситуация)<sup>1)</sup>이 그 내용으로 표상된다. 다시 말해 상황소는 인식에 반영된 실제 세계의 동적 단편을 세 가지 범위에서, 즉 어휘화된 상황, 미시적 상황, 그리고 거시적 상황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어휘화된 상황은 의사소통적 중심에 떨어지고 해당 어휘소로부터 연상되는 언어외적 실재를 포함하며, 상황소의 핵심을 이룬다. 미시적 상황에서는 어휘화된 상황의 외연 구조를 구성하는 상황 국면, 작용 요소, 그리고 이들의 특징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상황의 윤곽을 거시적 범위에서 잡아보면, 어휘화된 상황만이 아니라 이와 내포적인 관점에서 사건적, 양상-논리적, 심리적 관계에 있는 인접한 상황(상황적 문맥)이 포착된다.

아래 그림은 동사 어휘소에 대한 상황소의 전형적인 구조를 도식화한 것으로서 결국 그 핵심에 어휘화된 상황이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부에는 인접한 사건 명제들(회고적, 병렬적, 조망적 상황)이 혼합되어 있는 장의 모습으로 구조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전형적 상황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의 원형적 전개이자 구체적인 언어 형태에서 실현되는 언어적 불변의미로 간주된다.



(Лебедева, 2012: 22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상황적 분석의 잠재력이 동사의 어휘적 의미 기술 뿐만 아니라 동사의 문법적 의미 기술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동적인 단편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 방편

1) Лебедева는 ‘конситуация’를 문맥의 의미와 가깝고 해당 문장에서 특정 단어의 의미를 명료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상황적 문맥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한다(Лебедева, 1999). 언어적 요소들 간에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контекст’와 언어적 요소들과 비언어적(상황적) 요소들 간의 상관성을 의미하는 ‘конситуация’가 이렇게 서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로를 보충하며 함께 작동되기도 한다. 그녀의 입장에서 비언어적인 상황적 요소의 역할이 특정한 발화의 의미 연구에 보다 결정적일 수 있음을 해당 용어의 사용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으로서 불완료상 현재(НСВнаст), 불완료상 과거(НСВпрош), 완료상 과거-완료(СВпрош.перфект), 그리고 완료상 과거(СВпрош) 형태에 대한 전형적인 상황소를 Лебедева 방법론을 이용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 결과는 언어 사용자들이 쉽게 인식을 할 수는 있지만 논리 정연한 이해의 층위로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운 문법적 의미에 대한 내용적 성분을 분명하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상황적 측면에서 기술된 러시아어 동사의 상-시제 형태 대한 정보는 외국어로서 러시아어 교육의 방법론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 \* \*

## 1. НСВнаст 동사 형태의 전형적인 상황소

НСВнаст가 나타내는 전형적인 외연적 상황은 ‘행위가 현재 계속되고 있고, 행위가 얼마 전에 시작되어 발화순간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Художник рисует снегом на окнах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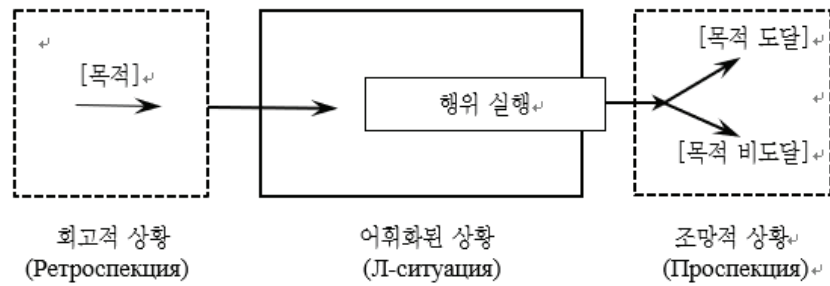
Украинск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готовит отвод войск в Донбассе.

다상황성은 행위가 이질적일 수 있고, 여러 종류의 행위나 상태가 연속적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데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행위 주체는 우선 그려질 그림에 대한 심리적 표상을 갖게 되고, 물리적 대상이 존재할 경우 이것을 관찰한다. 그리고 관찰한 대상의 형상을 기억에서 이끌어 내어 일련의 행위를 자신의 인식 속의 형상이나 있는 경우 실물과 항구적으로 대응시킨다. 행위와 과정은 단계(국면)적으로 존재한다. 즉 개별적인 매 순간에는 행위나 과정이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개별적인 전개 국면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행위나 과정은 매 순간에 마치 사라졌다가 즉시 새로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의 국면은 중단 없이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행위나 과정의 전체성은 모든 단편적 틀 내에서 얻어진다. 이와 같은 특징에 따라 행위와 과정은 매 순간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대상이나 특성과는 차이가 있다(Селиверстова, 1982: 94). 상황소의 동적 특성은 상황이 내부에 여러 사건들로, 그리고 확률적이고 잠재적인 사건들로 나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또한 참여자의 활동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전개 가능성을 낳는다. 행위는 결과적일 수도 있고 비결과적일 수도 있는데 각각은 향후 사건 전개의 두 가지 바리안트가 된다.

НСВнаст가 나타내는 상황소는 행위의 예상되는 결과로서 목적이 “미래에 투사되고”, “가능세계의 전경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조망적”(проспективный) 특징을 가진다(Арутюнова,

1992: 15, 19). 다른 한편으로 행위 실현의 기원에서 행위에 이르는 자극, 의도나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상황소는 “회고적”(ретроспективный)일 수도 있다.

НСВнаст의 전형적인 상황소를 도식화해보면 아래와 같다.



명제-1, 사건적: 상황이 현재 순간에 발생한다(행위의 주체가 행위를 실행하고, 과정이 생기며, 상태가 나타난다).

명제-2, 사건적, 정신적: 상황이 도래하기 전까지 다른 상황이나 사태가 이에 선행한다.

명제-3, 사건적, 정신적: 상황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한다.

명제-4, 양상-논리적: 목적의 달성, 상황의 완결을 희망하다.

불변적 의미성분을 공유하는 НСВнаст 동사 형태들은 일련의 변이적 특성, 즉 특정 성분들이 강조되거나 각기 다른 구체성을 띠므로써 구별된다. 발화 순간에 행위가 실재하는 외연적 상황에 대한 기술이 НСВнаst와 관련된 전형적 상황소의 불변적 특징이라면, 이러한 전형적 상황소의 몇몇 변이형들은 상황의 전개 방향에 의해 서로 구별될 수 있다.

a) Он пишет письмо (рисует картину, готовит обед).

b) Река течет на север.

c) Я работаю в банке 10 лет.

먼저 a)는 조망적 측면에서 행위가 발화 순간에 실현되고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질 수도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고, b)에서 행위는 병렬적 혹은 내향적 측면에서 상황의 존재 시간에 대한 강조 없이 규칙적이고, 항구적이며, 전형적이다. c)의 행위는 회고적 측면에서 과거에 시작되었고 현재에도 아직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НСВпрош 동사 형태의 전형적인 상황소

НСВпрош가 지시하는 전형적인 외연적 상황은 ‘지속적 행위가 시간의 경과 속에 놓여있다.’

*Что ты делал сегодня? – Я читал книг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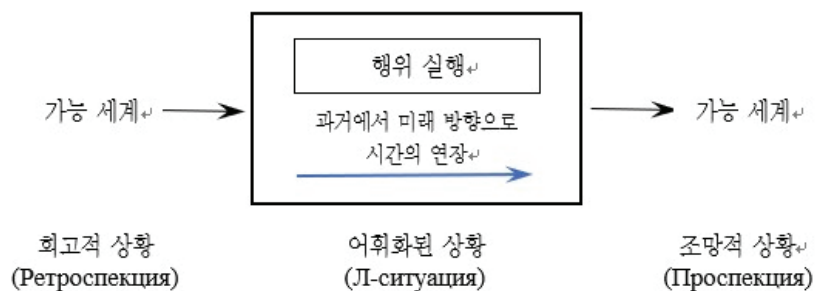
*Она готовила вкусные обеды.*

НСВпрош의 상황소에서 다상황성은 행위가 시간적인 연장성 내지는 지속성을 가진다는 데서 드러난다. Бондарко가 언급하였듯이 상황의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속성의 의미를 실현시키는 요인들 중 하나가 되는데, 이러한 관찰 가능성은 지각되는 과정의 시간적 연장을 전제로 한다(Бондарко, 1987: 104). 이러한 특성과 관련해서 해당 상황소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전개될 수 있는 역동성은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다. 하지만 주체가 사람인 경우 그 행위자의 물리적, 정신적, 감정적 활동이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상황의 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숨겨진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다.

*Она готовила обед, распевая песни.*

*Он на лекции писал конспект и флиртовал с девушками.*

НСВпрош에 대한 상황소에서 느슨한 역동성, 즉 선행 및 후행하는 상황과 관련 없는 행위의 한복판으로서 어휘화된 상황에 초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의 전개 방향이 기본적으로 내향적이고, 보다 심층적으로 둘러봤을 때만 해당 상황소는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회고적 명제와 조망적 명제를 가질 뿐이다.



이에 따라 НСВпрош 동사들의 전형적인 상황소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명제를 포함한다.

명제-1, 사건적: 상황이 어떤 시간 간격에서 존재한다(행위주체는 행위를 실행하고, 과정이 발생하며, 상태가 나타난다).

명제-2, 양상-논리적: 과정의 시작과 종결이 중요하지 않다.

명제-3, 사건적, 정신적: 행위가 과거에 발생했다.

기술했듯이 상황의 지속성, 시간적 연장성 의미가 НСВпрош 상황소가 갖는 불변적 특징이다. 여기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지향성 여부에 따라 변이적 상황소가 실현될 수 있다.

- a) *Он писал диссертацию.*
- b) *Он работал здесь 10 лет.*

a)의 경우 행위의 완결, 즉 결과 방향으로 상황이 이동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반면, b)의 경우에는 상황이 시간 간격 속에서 이동할 뿐이지 결과의 달성 쪽으로 향한다고는 볼 수 없다.

### 3. СВпрош.перфект 동사 형태의 전형적인 상황소

‘행위, 사태, 상태 등 상황의 종결, 상황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상황의 도래’를 СВпрош.перфект의 전형적인 외연적 상황소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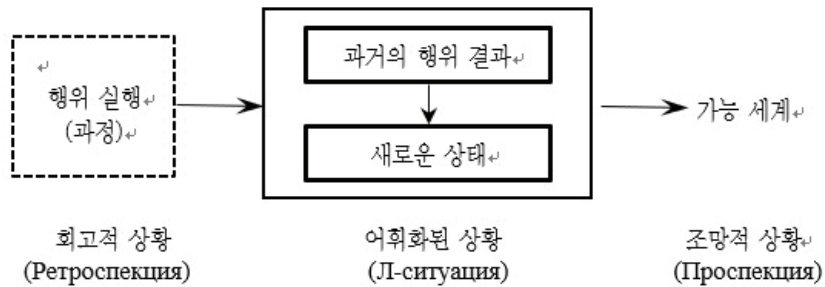
*Она приготовила обед утром.*

*Студент на лекции написал конспект и сдал на проверку.*

해당 상황소의 다상황성은 상황에 대해 전달되는 정보의 범위와 관련된다. 즉 동사가 임의의 한 상황을 명명하면서 그 상황과 인접한 또 다른 상황을 암시하는데, 이 상황은 앞선 상황과 여러 가지 관계, 이를테면, 시간적, 논리적, 한정적 관계로 엮인다. 이 경우 과거의 행위에 대한 지시보다는 현재에 있어서 중요한 결과에 대한 정보가 보다 유의미하다. *Она приготовила обед утром*라고 한다면, 현재에는 ‘обед готов’라고 하는 결과가 존재한다. 심층에서 그와 같은 다상황성을 순차적인 상황적 문맥으로 부를 수 있다. 첫 번째 상황에서 과정과 결과로 이어지는 행위가 발화 순간 전까지 일어나고, 이와 동일한 시간적 공간에서, 즉 발화 순간까지 완료적 상태로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다. 마지막으로 발화 순간 새롭게 도래한 상황이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가정적인 시간적 경계를 가로지르며 보존되고, 지속된다.

상황이 그 내부에서 다수의 사건으로, 그리고 확률적, 잠재적 사건으로도 분열될 수 있고, 참여자의 활동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전개 가능성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소의 역동성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СВпрош.перфект의 상황소는 행위가 과거에 실행되어 현재 발화 순간에 이르러 특정한 결과와 함께 종결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회고적 지향성을 가지며, 다른 한 편으로 해당 상황소의 조망적 측면을 내포적인 가능 세계의 전경과 관련시킬 수 있다.



다명제적인 СВпрош.перфект 동사의 전형적인 상황소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명제를 포함한다.

- 명제-1, 사건적: 결과적 행위가 진행되었다.
- 명제-2, 양상-논리적: 선행하는 행위의 결과로 새로운 상황이 도래하였다.
- 명제-3, 사건적: 새로운 상황이 현재 순간에 유효하다.
- 명제-4, 사건적, 정신적: 행위가 과거에 실행되기 시작했다.
- 명제-5, 사건적, 정신적: 행위가 결말을 지었다.

발화 순간에 결과의 실재성, 즉 과거에 실시된 행위와 현재 순간과의 상호 관련성이 이와 같은 동사 형태의 불변적 특징이 되고, 해당 상황소의 변이형은 상대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 4. СВпрош 동사 형태의 전형적인 상황소

СВпрош 동사의 전형적인 외연적 상황은 ‘행위가 자신의 경계에 도달해서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Он проработал в банке 10 лет.*  
*Вчера он пришел домой поздно вечером.*

해당 상황소의 다상황성은 상황의 전개와 관련되고 순차적인 상황적 문맥으로서 기술될 수 있다. 상황소에서 결과적 상황이 지시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유발한 앞선 행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따라서 두 가지 상황이 순차적으로 나란히 놓이는데 첫 번째 상황이 존재하고 전개되면서 두 번째 상황의 발생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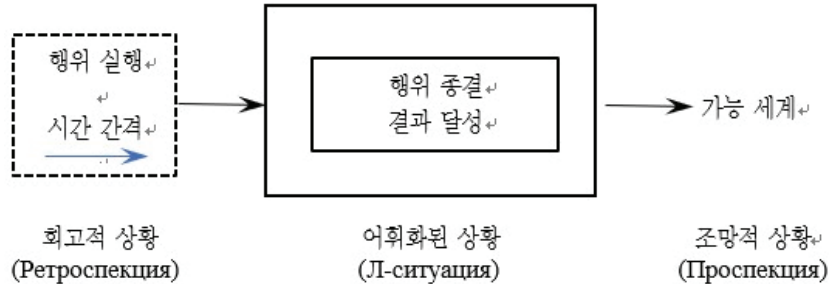
СВпрош.перфект에 대한 상황소와 마찬가지로 СВпрош

상황소의 역동성 또한 상황이 다수의 사건이나 확률적, 잠재적 사건으로 분열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고, 참여자의 활동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전개 가능성을 낳는다.

해당 상황소에서 행위가 완성되고 결과가 달성되는 상황이 의사소통적 중심에 떨어지고, 이러



한 상황에 선행하는 모든 것은 회고적 측면에 위치하며, 의미의 내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다명제적 구조로서 СВпрош 상황소에 포함된 기본적인 명제는 다음과 같다.

명제-1, 사건적: 현재 발화 순간에 이르기까지 행위가 종결되었다.

명제-2, 사건적, 정신적: 상황의 도래가 시작될 때까지 또 다른 상황이나 사태가 선행한다.

명제-3, 양상-논리적: 선행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이러한 상황은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선행하는 상황이나 사태의 결과로서 상황의 도래가 СВпрош 상황소의 불변적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변이적 상황소의 실현은 행위의 방향에 의해 야기되는데, 예를 들어 아래 예문 a)의 경우 모든 선행 과정을 종결하고, 결론짓는 행위라면, b)의 경우 시작 행위를 의미하는 변이적 상황소를 실현시키게 된다.

a) *Хозяйка готовила блюдо три часа и приготовила точно к приходу гостей.*

b) *Сын зачитал, в компьютерные игры больше не играет.*

\* \* \*

상황소는 세계의 동적 단편에 대한 지식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동사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 특정한 동사에 어느 정도의 내용과 규모로 실제 세계에 대한 언어적 개념화가 고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외국어로서 러시아어 교수법에서도 다상황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언어 습득 과정에서 토대로 하고 있는 ‘의미에서 형태’ 방향의 원리를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즉 특정한 언어적 형태를 실제 외연적인 상황과 관련시키는 접근법은 학습자들이 문법적 의미의 심층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러시아어 동사 형태에 대한 사용 특성을 습득하여 의사소통적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



## 참고문헌

- Арутюнова, Н. Д. (1992), “Язык цели”, отв. ред. Н. Д. Арутюнова, Н. К. Рябцева, *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языка. Модели действия*. М.: Наука. 14–22.
- Бондарко, А. В. (1987), “Длительность”, А. В. Бондарко, *Теория функциональной грамматики: Введение. Аспектуальность. Временная локализованность. Таксис*. Ленинград. 98–121.
- Кадоло, Т. А. (2004), *Русские ментальные глаголы в аспекте полиситуативности*. Т. А. Кадоло: дис. ... канд. филол. наук. – Барнаул: БГТУ.
- Лебедева, Н. Б. (1999), *Полиситуативность глагольной семантики (на материале русских префиксальных глаголов)*. Томск: Изд-во ТГУ.
- Лебедева, Н. Б. (2009), *Полиситуативный анализ Глагольной семантики*. М., Книжный дом «ЛИБРОКОМ».
- Лебедева, Н. Б. (2012), “Ситуатема как динамическая, полиситуативная и полисобытийная структура глагольной семантики”, *Вестник КемГУ*. No 4(52) Т.1. 224–227.
- Лебедева, Н. Б. (2015), “Концепция полиситуативност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потенциал (на примере анализ семантики русского глагола *навыписывать*)”, *Вопросы когнитивной лингвистики*. No1(042). 122–132.
- Небольсина, М. С. (2016), “Соотношение прототипа и ситуатемы как разных типов когнитивных структур”, М.С. Небольсина, *Научное обозрение: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 дом «Наука образования». – № 12. 168–174.
- Падучева, Е. В. (1997), “Семантические роли и проблема сохранения инварианта при лексической дерив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и системы*. НТИ. Сер.2. No1. 18–30.
- Селиверстова, О. Н. (1982), “Второй вариант классификационной сетки и описание некоторых предикативных тип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Н. Селиверстова, *Семантические типы предикатов*. М. 86–157.
- Степаненко, В. А. (2013), “Современные подходы к метод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В.А. Степаненко, М.М. Нахабина, И.В. Курлова,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Вопросы образования: языки и специальность*. М. № 3. 175– 181.



# 투르게네프 산문시 속 관용어 연구 및 한국어 번역 비교

이새봄 (한국외대)

## I. 들어가는 말

번역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 관용어는 꽤 어려운 번역의 대상이다. 관용어의 ‘번역의 등가성(переводческая эквивалентность)’은 완전할 수도 혹은 부분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관용어의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의 관용어가 담고 있는 여러 유형의 정보들 즉, 문체적, 은유적, 상징적 의미의 손실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관용어가 비유성, 상징성, 간결성, 다의(多義)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번역 시 대다수의 관용어 표현들은 직역하지 않고 재해석되어 전달된다. 따라서 관용어 본래의 비유적 표현이 번역문에서 손실될 수가 있는데, 이는 문학작품 번역의 상당한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학작품 번역의 주요 기능은 바로, 미학적 정보 전달이기 때문이다. 관용어는 언어의 미학적인 면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특히 문학작품에서 관용어가 매우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학 번역가는 관용어 번역 시 관용어의 문체적 특징을 간과하지 않고 비유적 표현을 잘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용어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I. 관용어의 언어학적 분류

문화와 언어는 함께 발전한다. 그러나 언어의 역사는 문화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는다. 언어는 자기 몸에 문화의 흔적을 남길 뿐인데, 이것이 바로 관용어의 탄생이다.

모든 자연어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오랜 역사와 함께 자연어에는 수많은 ‘굳어진 표

현(устойчивое выражение)’이 축적되어왔다. ‘굳어진 표현’은 말(speech)에서 발생하는 자유로운 낱말들의 조합과는 ‘준비된 언어 단위(prepared verbal units)’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굳어진 표현’은 주로 ‘관용어’라고 불리는데, 관용어는 독립된 의미를 지닌 굳어진 표현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관용어는 자연어가 지닌 소중한 자산이자 보물이다. 이는 관용어를 통해 한 민족의 역사 및 삶과 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용어에는 민족적 특성이 강하게 깃들여 있기 때문에 ‘불완전 등가(неполноэквивалентность)’ 혹은 ‘번역하기 어려운 어휘군(разряд труднопереводимой единицы)’에 속한다.

비노그라도프(V.V.Виноградов)가 세운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샨스키(H.M.Шанский)는 ‘의미적 고정성(семантическая слитность)’의 관점에서 관용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였는데, 이는 현재 러시아 언어학계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진 관용어 분류체계이다.<sup>1)</sup> 샨스키(H.M.Шанский)는 ‘의미적 고정성(семантическая слитность)’이란 관용어의 전체적 의미와 관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어휘들의 개별적 의미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상관관계(Шанский1985:160)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하지만 언어학자들과는 달리 러시아 번역학자들은 샨스키의 관용어 유형과는 다른 유형의 분류체계를 선호하고 있다.

### III. 번역의 등가 관점에서 본 관용어

번역학자들은 관용어 분류체계의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중 비노그라도프(V.C.Виноградов)는 관용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 3.1. 어휘 관용어(Лексические фразеологизмы)

어휘 관용어(Лексические фразеологизмы)는 ‘의미적 완전함(семантическая целостность)’이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각각의 언어 단위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의 담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намылить шею’ – отругать, ‘с тарый лис’ – хитрец를 보자. 비유적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관용어들이다. 즉, 어휘 관용어란 비유 내용을 통해 ‘자유로운 어결합(свободн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의 ‘어휘·의미론적 내용(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ое содержание)’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어휘·의미론적 내용의 은유화

1) 샨스키(H.M.Шанский)의 관용어 유형

- ① 관용어 유착(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сращения)
- ② 관용어 일치(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ства)
- ③ 관용어 결합(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сочетания)
- ④ 관용어 표현(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выражения)

에 기초하여 이와 같은 관용어가 발생한 것이다(Жуков 1986:310).

어휘 관용어는 자유로운 개별적 단어 사용이 점차적으로 고유의 ‘굳어진 의미(устойчивое значение)’를 지닌 관용어가 된 최초의 비유적 표현이다. 러시아 번역학자들은 이 어휘 관용어 유형을 ‘어휘 집합체 프로토타입(словесный комплекс – прототип)’ 이라고도 부른다. ‘문학작품 번역의 이론과 실습(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перевод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да)’에서 저자 솔로두브(Ю.П. Солодуб)는 관용어의 ‘어휘 집합체 프로토타입’이란 단어결합의 완전한 재해석의 기반 위에 관용어가 탄생하는 것을 뜻한다(Солодуб 2002:186)고 정의내리고 있다.

예를 들자면, 투르게네프(И.С.Тургенев) 산문시 중 <дурак>이라는 작품에서 ‘있다, 잊히다’를 뜻하는 ‘сдать в архив’라는 어휘 관용어가 등장한다.

*– Помилуйте! – Воскликнул дурак. – Живописец этот давно **сдан в архив**... Вы этого не знаете? – Я от вас этого не ожидал... Вы – отсталый человек. («Дурак»).*

자료나 문서들이 더 이상 쓸모없어질 때 이들은 기록보관소에 넘겨진다.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 이러한 행위를 위해 사용되었던 이 표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 효력 및 중요성이 사라진 현상, 사건 혹은 사람’을 평가하는 어휘 관용어로 재탄생 되었다. 이 표현을 한국어 문자 그대로 번역 할 경우, 문자 그대로의 축어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번역가는 반드시 이에 알맞은 관용어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그림의 떡’이라는 어휘 관용어가 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대상’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떡’이란 전통적으로 잔치에 빠지지 않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먹는 음식으로써 그림에 그려진 떡은 도달하기 어려운 대상을 가리킨다.

이과 같은 어휘 관용어 번역 시 번역가는 의미 전달 뿐 아니라 비유 및 함축적 특징과 관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휘와 문법의 형태도 최대한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원본 언어와 번역 언어가 동일한 언어 군에 속해 있다면 이는 대체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원본 언어의 관용어에 최대한 가까운 관용어 표현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림의 떡’은 러시아 속담 즉, 서술 관용어인 ‘близок локоток, да не укусишь’ (보기에는 얻기 쉬워 보이지만 사실 도달하기 어려운 사물이나 대상을 뜻하는 속담) 혹은 크릴로프(И.А.Крылов)의 우화 ‘여우와 포도나무(Лисица и Виноград)’ 일화에 나온 유명어구 ‘зелен виноград (포도가 푸른빛이다. 즉, 포도가 덜 익어 시다를 의미. 강하게 원했지만 손에 잡을 수 없기에 결국 스스로를 변명, 위안하는 말을 뜻함)’로 번역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들 표현은 한국어의 ‘그림의 떡’과는 유사한 의미를 지녔지만, ‘어휘 집합체 프로토타입’(словесный комплекс – прототип)이 다르기 때문에 비유 및 문체적 특징에서 이들은 차별화된다.

### 3.2. 술어 관용어(Предикативные фразеологизмы)

술어 관용어란, 한 민족의 삶과 노동에서 우리나라 경험 및 철학, 도덕적 교훈과 인간의 지혜가 담겨진 속담, 격언, 잠언, 경구 등을 가리킨다.

속담 및 격언 등의 번역은 또 다른 종류의 문제점을 낳는데, 이는 속담 및 격언은 비유적인 내용과 함께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동시에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예. ‘лежащего не бьют’, ‘друзья познаются в беде’). 이들에게는 축어적인 의미와 비축어적 의미 즉, 비유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표준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가 공존한다. 속담에 담겨진 자유로운 단어 조합의 의미, 즉 문자 그대로의 의미 그리고 속담의 비유적 내용은 말(speech)에서 구체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시 속담의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내용을 전부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투르게네프 산문시 <Дурак>이라는 작품에서 작가는 ‘Житье дуракам между трусам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어울리지 않는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전문가들과 이들을 지적하고 비판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들’을 뜻하는 경멸적인 뉘앙스의 표현(Серов 2005)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투르게네프의 이 유명어구는 술어 관용어가 되었다. 이 관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겁쟁이들 무리속의 바보의 삶’으로 번역하여 문자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고, 또 이 표현의 비유적 의미는 산문시 문맥 속에서 한국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반대의 예를 들자면, 한국어 속담 중에 ‘누워서 떡먹기’와 ‘식은 죽 먹기’라는 표현이 있다. 이들 속담은 ‘행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영어에서 이 관용어 표현과 부분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적합한 표현으로 ‘It's a piece of cake’ 혹은 ‘It's a piece of pie’가 있다. 러시아어의 경우에는 구어체적 관용어 표현인 ‘Проще простого’, ‘раз плюнуть’로 번역될 수가 있겠다.

여기에서 술어 관용어 번역을 위해 원본 관용어와 똑같은 문장구조를 지닌 관용어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비유적인 내용과 문법형태를 전달하기가 불가능한데 관용어 표현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어휘 관용어를 이용하여 명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전달을 지향해야 한다.

### 3.3. 비교 관용어(Компаративные фразеологизмы)

비교 관용어란 특유의 ‘굳어진 비교(устойчивое сравнение)’로써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 1) 성질, 행동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명칭

2) 비교접속사: 성질 및 행동의 확대 혹은 정도를 가리키는 고유의 은유적 강조어  
(интенсификатор)

투르게네프 산문시 중 <Конец света. Сон>이라는 작품에서 ‘черный как чернила’라는 비교 관용어가 등장한다.

*«Я хотел было ухватиться за товарищей, но мы уже все раздавлены, погребены, потоплены, унесены той, как чернила, черной, льдистой, грохочущей волной!».*

(«Конец света. Сон»)

이 관용어는 ‘매우 검은, 매우 킁킁한’을 의미한다. 한국어에서는 ‘칠흑같이 검은’, ‘칠흑같이 어두운’이라는 굳어진 비교 표현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 독자에게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고려해 볼 때, 이 표현을 번역시에 사용할 수 있겠다. 이 경우 원문에서의 관용어 문체 및 문법적 구조, 비유적 표현 및 어휘의 내용면에서의 부분적 일치를 번역문에서 살릴 수가 있다.

번역문에서 원문과의 동일한 비교 관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바로, 번역 언어에도 유사한 비교 관용어가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다. 반대로 한국어에 ‘찰떡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 믿음, 관계 따위가 매우 긴밀하고 확실함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다. ‘찰떡같이 붙어있다’, ‘찰떡같이 믿다’, ‘찰떡같이 쫓아다니다’ 등으로 주로 쓰이는데, 러시아어로 옮길 경우 ‘ходить по пятам’ 혹은 구어체 표현인 ‘пристать как банныйлист’로 번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관용어의 특징들은 번역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한국어 관용어 중에 ‘깨가 쏟아지다’라는 표현이 있다. 속담 관용구 사전에서는 ‘몹시 아기자기하고 재미가 나다’라고 풀이 되어 있는데, 보통 남녀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이 관용어의 러시아어 번역은 러시아어의 부분적 동의어인 ‘медовый месяц’로 표현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의미면, 기능면 그리고 문체적인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비유하고 있는 내용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관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모든 의미들이 완전히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겠다.

#### IV. 투르게네프 산문시의 관용어 표현과 한국어 번역

현재 한국어로 번역 되어있는 투르게네프 산문시 속 대표적인 관용어 표현들을 예로, 이들이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 되었는지 위에 열거한 관용어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 1) 어휘 관용어

‘Сердце (во мне) упало’ («Последнее свидание») - 이는 ‘예기치 않은 강한 두려움, 난처함, 의기소침한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어이다(Телия, 2006). 한국어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라고 번역 되었는데, 한국어에도 러시아어 관용어 의미와 비유적 표현이 거의 모두 일치하는 굳어진 표현이 존재함으로 이는 희박한 경우에 해당되는 완전한 번역등가를 이루었다.

‘русская косточка!’ («Сфинкс») - 본 관용어는 민족적 특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러시아 민족’을 가리키고 있으며, 긍정적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구어체적 어휘 관용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은 본 산문시 작품의 주제를 위해 번역문에서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 본 관용어는 한국어로 ‘어김없는 러시아의 형제여!’라고 번역 되었다. 즉, 번역자는 번역의 방법 중 하나인 ‘모사(калькирование)’를 피하고 의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번역자가 ‘러시아의 뼈여!’보다는 ‘러시아의 형제여!’의 번역이 한국 독자들이 작품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유 표현은 다르지만 문학작품의 이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미적 전달 기능 면에서 봤을 때, 관용어 본래의 비유적 의미 및 긍정적 의미가 전달되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인 번역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번역가는 산문시에 드러난 투르게네프의 애국심과 자국민을 향한 그의 자부심과 열정을 전달하고자 애썼다.

‘прыгала гуськом’ («Мы еще повоюем!») - ‘идти гуськом’은 거위처럼 한 줄로 늘어서서 가는 모습을 뜻하는 부사로(Телия, 2006) 어휘 관용어에 속한다. 한국어로는 ‘한 줄로 늘어서서’로 번역이 되었지만, 비유적 표현은 생략 되었다.

‘на скорую руку’ («Памяти Ю.П.Вревской») - 본 관용어는 ‘재빠르게, 대충 되는데로 무엇을 취하다’를 뜻하는 표현(Михельсон, 2004)으로써, 한국어로는 역시 의역을 이용하여 ‘급조’라고 번역 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번역에서 관용어의미는 성공적으로 전달되었지만, 비유성은 전달되지 못하였다.

## 2) 술어 관용어

‘Словно и черт ему не брат!’ («Мы еще повоюем!») - 악귀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러시아의 미신과 관련 있는 관용어로 위협을 무릅쓰는 용감한 사람을 뜻한다. 프랑스어의 ‘Король не брат’ 와도 유사한 표현이다. 한국어로는 ‘영웅적인’으로 번역이 되었다. 이는 의역을 통해 관용어의 의미를 완곡하게 전달한 것으로, 역시 관용어의 의미전달은 성공하였지만 비유적 표현이 전달되지 않았다. 한국어 표현은 중립적의 의미로 들리는 반면, 러시아어 표현은 과장법이라는 수사법



을 이용하여 표현성이 풍부하다.

‘Черт возьми!’ («Мы еще повоюем!») – 감탄사적 관용어 표현으로써, 이는 어원적으로는 저주를 뜻하지만 긴장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작품 속에서 작가는 본 표현을 통해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 번덕스러운 운명과의 투쟁을 향한 의지와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극복의 의지를 나타냈다. 한국어로는 ‘무서울 게 뭐냐!’로 번역 되었으나, 관용어의 비유적 표현이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이 매우 중립적인 의미로 들린다. 이러한 난관들이 투르게네프 작품의 대다수 관용어 표현 번역에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 3) 비교 관용어

‘как две капли воды’ («Близнецы») – 절대적 유사성을 뜻하는 관용어로 작품 속에서 작가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두 쌍둥이 형제를 비교하였다. 한국어로는 의역이라는 번역의 방법으로 ‘꼭 빼놓은 듯이 닮다’라고 번역되었지만, 본 표현에는 러시아어 관용어가 담고 있는 비유적 표현, 문체적 특징 및 감정적 색채가 전혀 담겨있지 않아 중립적 의미로 전달되었고, 따라서 결국 의미만 전달이 되어 부분적 등가(частичная эквивалентность)를 이루었다.

## V. 맺는 말

투르게네프 산문시에 나타난 관용어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어로 번역된 투르게네프 산문시 31편 중 대부분의 관용어가 의미 전달 면에서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졌지만, 본래 관용어의 비유적 의미, 문체적 특징 및 감정 표현 면에서는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투르게네프 산문시 속 대부분의 관용어가 풍부한 감정과 표현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문체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번역 할 때 의미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관용어의 풍부한 감정 및 문체라는 기능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투르게네프는 관용어를 그의 작품에서 비유적, 은유적 표현수단으로는 그리 자주 사용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투르게네프 산문시 작품 구성에서 관용어가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투르게네프 산문시에 등장하는 관용어들 대부분이 대화체에 속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Деревня>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투르게네프 자신의 담화 상대자인 시골 농부 할머니의 말(speech)에서 등장한 관용어 ‘на здоровье!’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용어가 작품의 화자인 투르게네프 자신 및 주인공의 대화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작품의 이야기를 직접 이끌고 가는 화자의 성격묘사에 있어서 관용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투르게네프 작가 자신이 귀족혈

통임에도 불구하고 영혼 깊숙이 전형적인 러시아인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투르게네프 산문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관용어는 러시아인의 풍부한 감성, 후한 인심, 민첩성, 용맹 등과 같은 러시아의 민족적 특성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어의 비유성 그리고 상징성의 측면에서 보다 정확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투르게네프 산문시에 나타난 관용어의 한국어 번역 분석을 통해 일부 경우만이 러시아 번역학의 관용어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번역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국내 언어학 및 번역학계에서 번역의 관점에서 관용어 유형과 유형 별 번역 규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관용어의 미학적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투르게네프 산문시. 김학수 옮김. 민음사, 1997

Виноградов В.В. О теор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речи – М., 1971. — 240 с.

Виноградов В.С. Введение в переводоведение (общие и лекс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 М., 2001 —224 с.

Винокур Т.Г. Закономерности стилистическ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языковых единиц. – М., 2008— 238 с.

Жуков В.П. Семантика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оборотов. М.: просвещение, 1978. –160 с.

Иванов А.О. Безэквивалентная лексика. – СПб, 2006. –192 с.

Казакова Т.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перевод.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СПб, 2006. –535 с.

Миронова Ю.В. Отражение русской ментальности в концептах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екста (на материале цикла рассказов И. С.Тургенева «Записки охотника»). А.к.д. – Калининград, 2003. —190 с.

Михайлов П. П. Межъязыковая семантическая эквивалентность, неполноэквивалентность и безэквивалентность лексических единиц :на материале чувашского, татар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 Дис. ... канд. филол. наук .— Чебоксары, 2006–194 с

Ожегов С.И. Лексикология. Лексикография. Культура речи. Учеб. пособие для вузов. – М., 1974. –352 с.

Пак Хен Чи Национально–детерминированные единиц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фоне корейского (на материале произведений Ю. Нагибина): Автореф. канд. филол. наук. — СПб, 2010. –22 с. Пустовойт П. Г. Тургенев – художник слова. –М., 1987. –301с.

Солодуб Ю.П., Альбрехт Ф.Б., Кузнецов А.Ю.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М., 2005. – 304с.

Тургенев И.С. Литературные и житейские воспоминания. М., 1987. – 384 с.

Тургенев. И.С. стихотворения в прозе. – М., 2007. –120 с.

Цейтлин А. Г. Мастерство Тургенева–романиста – М., 1958. – 436 с.

Шанский Н.М. Фразеолог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 – М., 1985. – 192 с.

Якобсон Р., Ферс Д. Р., Мунэн Ж. и др. Вопросы теории перевода в зарубежной лингвистике. – М., 1978. – 232 с.

# 『노한회화』(1904)와 『노한회화를 위한 어휘와 표현』(1904) 연구

한지형 (부산대)

## I. 들어가며

본 발표문은 카잔의 러시아정교 선교회에서 출판한 한-노 이중어 교재 중 유일하게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집필된 두 권의 교재 『노한회화(Русско-коре́йские разгово́ры)』(1904)와 『노한회화를 위한 어휘와 표현(Слова и выражения к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м разгово́рам)』(1904) (이하 『어휘와 표현』)을 소개하고,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도를 담고 있다. 본 발표문은 첫째, 외국어 교재로서의 특성을, 선행하는 교재 『고려인』을 위한 기초 러시아어 교과서: 회화수업을 위한 시험적 교재』(Первоначальный учебник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корейцев: пособие для разговорных уроков (Опыт))』(1901) (이하 『기초 러시아어 교과서』)와 『고려인을 위한 문자교본(Азбука для корейцев)』(1902) (이하 『문자교본』)과의 비교선상에서 살펴보고 정리한다. 둘째,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을 ‘회화문’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차후 진행될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어, 어구, 문장의 어휘·문장의미론, 형태론, 통사론에 기반한 언어층위별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 문화소(cultureme)로 분류되는 어휘를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노한회화』가 취한 번역전략

- 1)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제기되는 이주 한인들과 이들의 언어를 지칭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려인’과 ‘고려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견지가 여러 논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에도 카잔의 러시아 정교 선교회 출판 교재에 반영된 이주 한인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 판단한 까닭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지에 대해 한지형, “『고려인을 위한 기초 러시아어 교과서: 회화수업을 위한 시험적 교재』(1901)에 관한 소고,” 『노어노문학』 제28권 제2호(2016), p. 74를 참고하시오. 용어 문제와 관련하여 함께 다루어져야 할 카잔 출판 교재 명은 『‘고려인’을 위한 기초 러시아어 교과서』, 『‘고려인’을 위한 문자교본』, 『노·한·회화』와 『노·한·회화를 위한 어휘와 표현』, 『시험적 노·한·소사전』으로 칭한다. ‘корейцы’를 ‘고려인’으로 옮긴 것은 앞서 기술한 바에 따른 것이며, ‘корейский’의 경우 국내 선행연구에서 명명된 교재명과의 관계와 5권의 카잔의 러시아정교 선교회 교재 각각의 편찬 배경과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고려말’보다 ‘韓(民族語)’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의 연구 단계에서 설부른 예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지형, 『강독서 「고려인을 위한 문자교본(Азбука для корейцев)」(1902)의 노·한 번역 양상과 의미』, 2018년 러시아학 관련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러시아성 다시 읽기(2018.10.13.), 제3분과 어학분과, 58면 참조.

을 문화번역학적 측면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생활과 밀접한 단원의 주제를 통해 러일전쟁(1904~1905)이라는 전시상황에서 러시아인과 일본인, 그리고 고려인 간의 역학관계가 반영된 이들의 생활상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외형적으로 학습 교재이지만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사에서 제정 러시아의 대(對)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사료라는 점에서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의 학문적 가치와 연구 의의를 조명할 수 있길 기대한다.

## II. 회화집 『노한회화』와 참고서 『어휘와 표현』

카잔의 러시아정교 선교회 출판 교재 5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교재에 표기된 고려말이 한글이 아닌 ‘키릴문자화(Cyrillization)’되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키릴문자로 옮기지 못하는 고려말의 음가는 다양한 보조기호(diacritic mark)를 첨가한 키릴문자로, 또는 키릴문자에 기반하여 새롭게 고안한 문자로 제시되어 있다.

셋째, 키릴문자로 기록된 고려말은 카잔 교원신학교(Казанская учительская семинария)에 진학한 고려인 청년세대가 구사하는 모국어이다. 그리고 이 언어는 당시 한반도의 표준어가 아닌, 함경북도 출신의 부모세대가 구사하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육진방언(六鎭方言)’으로 추정된다.






넷째, 교재 편찬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정보는 발음제보자의 위상으로 각 교재의 서문에 기록되어 있다.

다섯째, 5권의 교재는 학습대상자와 교육목적에 따라 고려인의 러시아어 학습을 위한 교재와 러시아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재로 양분될 수 있으나 목표어와 대응어가 모두 키릴문자로 표기되어 동일한 대칭구조와 나열구조를 보이고 있기에, 러시아어에 익숙한 학습대상자에 한하여 출발어와 목표어의 상호전환이 용이한 이중어 학습교재의 특성을 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교재들을 통해 학습대상자는 키릴문자를 매개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두 언어간의 음성·음운적 특성을 익힐 수 있으며, 교재의 내용은 학습대상자가 목표어의 회화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생활 어휘와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sup>

2) 한지형, 『강독서 「고려인을 위한 문자교본(Азбука для корейцев)」(1902)의 노·한 번역 양상과 의미』, 2018 러시아학 관련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러시아성 다시 읽기(2018.10.13.), 제3분과 어학분과, 58~59면 참조.

【표 1】 카잔의 러시아 정교 선교회 출판 한·노 이중어 학습교재

	『기초 러시아어 교과서』	『문자교본』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시험적 노한소사전』
내 표 지					
출 판 년 도	1901년 4월 20일	1902년 4월 7일	1904년 3월 22일	1904년 5월 24일	1904년 9월 20일
페 이 지 수 (서 문, 본 문)	총 105면 (I~XII, 1~84)	총 113면 (I~XXVII, 1~86)	총 95면 (I~XX, 1~76)	총 76면 (I~XXXV, 1~41)	총 155면 (I~XVII, 1~138)
출 판	카잔 러시아정교 선교회	카잔 러시아정교 선교회	카잔 러시아정교 선교회	카잔 러시아정교 선교회	카잔 러시아정교 선교회
출 판 책 임 자	기록부재	체복사리 주교, 요안	마사노프	마사노프	마사노프
참 여 고 려 인	야코프 안드레예비치 김 모이세이 파블로비치 란 마하일 바실리에비치 텐 파트르 옐리세예비치 한	글렘 파블로비치 세가이 니키타 페트로비치 한 콘스탄틴 포미치 칸	콘스탄틴 포미치 칸	콘스탄틴 포미치 칸 니키타 페트로비치 한	콘스탄틴 포미치 칸 니키타 페트로비치 한 글렘 파블로비치 세가이 바실리 바실리에비치 오하이 안드레이 야코프도비치 한 안드레이 콘스탄토비치 한 모이세이 파블로비치 란
인 쇄 소	클류치니코프 석판 인쇄소	클류치니코프 인쇄소	클류치니코프 인쇄소	클류치니코프 인쇄소	클류치니코프 석판 인쇄소
교 재 유 형	어휘집	강독서	회화집	회화집 참고서	사전
학 습 대 상 자	고려인	고려인	러시아인/병사	러시아인/병사	고려인

이상으로 살펴본 카잔의 러시아정교 선교회 출판 교재의 이중어 학습교재로서의 특성은 본 발표문의 연구대상인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에도 적용된다.

주지하다시피 카잔에서 출판된 러시아어 학습교재는 그 구성과 형식에서 다른 러시아어 학습 교재와는 차별된 구성을 보인다. 모국어(러시아어)를 출발어로 삼기보다 이미 러시아어에 노출되어 러시아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어와 모국어의 이중어 교재이기에, 학습대상자를 러시아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용이하다. 그리고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은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 교재로, 5권의 카잔 교재 중 유일하게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편찬된 고려말 학습서이다.

이러한 전환을 야기시킨 편찬 배경에 대해 『노한회화』의 서문은 상세히 밝히고 있다.

Осложнения на Дальнемъ Востокѣ, вызвавшія войну съ Японіей, оживили и усилили наши сношения съ корейцами, которые давно живутъ въ сосѣдствѣ съ нами. Уже со времени перваго болѣе тѣснаго сближенія съ ними прошло около 40 лѣтъ. Сближеніе это выразилось между прочимъ въ томъ, что небольшое число корейцевъ (60 душъ) поселилось на р. Тизинъ-х'э и этимъ самымъ положило начало селенію того же имени, находящемуся въ Адиминской волости

Посьетскаго участка, Южно-уссурийскаго округа,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долю одного из тизинхинцевъ, К. О. Кана, состоящаго теперь воспитанникомъ III класса Казанской учительской семинаріи, и происх. изъ семейства переселивш. въ Россію изъ города К'хн-би, выпало составить при участіи другихъ корейцевъ, его товарищей по семинаріи, настоящую книжку; быть можетъ, она окажется небезполезной для нашихъ воиновъ, несущихъ тягости войны на нашей отдаленной восточной окраинѣ.

Звуки корейской рѣчи въ этой книжкѣ записаны Каномъ по его собственному произношенію.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упредить лицъ, которыя будутъ пользоваться данной книжкой для сношеній съ корейцами о томъ, что языкъ этого народа дѣлится на нѣсколько нарѣчій, и книжка эта пригодна главнымъ образомъ для разговоровъ съ корейцами, живущими въ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и въ мѣстностяхъ, не слишкомъ отдаленныхъ отъ выше упомянутаго К'о'хын-ыби.<sup>3)</sup>

일본과 전쟁을 야기한 극동지역의 복잡한 정세는 우리의 오랜 이웃이었던 한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시작부터 친밀했던 한인과의 관계는 40년이 훌쩍 지났다. 이들과의 친밀도는 현재 연해주의 남우수리스크 지역 포시예트 지구 아디미 읍에 위치한 지신헌 마을이 동명의 지신헌 강에 60명의 한인들이 정착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본 교재의 편찬에는 경흥에서 이주한 지신헌 출신의, 현재 카잔 교원신학교 3학년생 콘스탄틴 포미치 칸을 비롯하여 그의 고려인 동문들이 참여하였다. 그렇기에 극동지역에서 전쟁이란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병사들에게 본 교재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교재에 기록된 고려말 발음은 칸의 발음에 따른 것이다.

한인과 소통을 목적으로 본 교재를 이용하게 될 학습자가 명심해야 할 점은 한인의 언어는 몇 개의 방언으로 분화되어 있어, 본 교재는 연해주와 앞서 언급된 고흥읍에서 멀지 않은 부근에 거주하는 한인과 대화를 위해 적합하다는 점이다.

학습대상자의 전환은 당시의 정치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즉,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은 극동지역에서 러일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러시아인 병사들이 고려말로 고려인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교재이다. 이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인 병사의 고려말 학습이 러시아 제국주의 팽창과 일본과의 동북아 패권 쟁탈전과 맞물려 정치·경제적으로 고려말 구사 능력이 요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은 제정 러시아의 국내외 정치 환경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선·후행하는 교재와 확연히 차별된다.

이에 따라 『노한회화』의 ‘회화문’은 당시의 실생활과 시대 배경에 맞춰 선별한 10개의 주제별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 단원의 구성 체계는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러시아어 문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고려말 번역 문장을 대칭적으로 나열하는 구조이다. 즉 『노한회화』는 『기초 러시아어 교과서』와 동일한 구조를 따르지만, 『기초 러시아어 교과서』가 ‘어휘집’이라면 『노한회화』는 전체 총 443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실용 ‘회화집’의 성격을 띤다.

3) 『노한회화』, pp. III-IV.

【표 2】 『노한회화』의 목차<sup>4)</sup>

Предисловіе	'서문'	III-XIX
Списокъ	'문자 목록'	V
Замѣтки къ списку	'문자 목록에 대한 보충설명'	VI
Примѣры на изучаемые звуки	'고려말 학습을 위한 단어 예시'	VIII
О погрѣшностяхъ	'교재의 정오에 대하여'	XIX
ОГЛАВЛЕНІЕ.	'목차'	XX
Азбука	'문자'	1
Разговоры	'회화'	1-61
I, о дорогѣ	제 1 회화. '길에 대하여'	2
II, о деревнѣ	제 2 회화. '시골마을에 대하여'	6
III, въ деревнѣ	제 3 회화. '시골마을에서'	20
IV, о семьѣ	제 4 회화. '가족에 대하여'	30
V, приказанія и вопросы	제 5 회화. '명령과 질문'	34
VI, на базарѣ	제 6 회화. '시장에서'	36
VII, закупка продовольствія	제 7 회화. '식품 구입'	48
VIII, о деревнѣ, занятой японскимъ войскомъ	제 8 회화. '일본군이 점령한 시골마을에 대하여'	52
IX, о непріятелѣ	제 9 회화. '적군에 대하여'	56
X, взятіе въ плѣнъ	제 10 회화. '포로 포획'	60
Приложеніе.	'부록'	
Слова и выраженія	'제 1-2 회화의 단어와 표현'	
къ первымъ двумъ разговорамъ		
Къ разговору I	'제 1 회화'	63
" " II	'제 2 회화'	67
Числительныя, заимств. у кит.	'중국어에서 차용한 수사'	68
Корейскія числительныя	'고려말 수사'	71

그리고 『어휘와 표현』은 『노한회화』에 대한 보충교재로서 품사를 중심으로 고려말의 주요한 문법 정보를 제공하고, 『노한회화』에서 다루지는 어휘와 표현을 총 451개로 정리한 자료집이다.

【표 3】 『어휘와 표현』의 목차<sup>5)</sup>

Предисловіе	'서문'	III-XXXV
Краткія свѣдѣнія	'고려말 문법 정리'	IV
Существительныя	'명사'	IV
Падежныя окончанія	'격어미'	V
Образцы склоненія	'격변화 예시'	VI
Прилагательныя	'형용사'	XII
Числительныя	'수사'	XIII
Мѣстоименія	'대명사'	XIV
A. Личныя	'인칭대명사'	XIV
B. Притяжательныя	'소유대명사'	XVII
V. Указательныя	'지시대명사'	XIX
Г. Вопросительныя	'의문대명사'	XX
Глаголы	'동사'	XXI
Образцы спряженія	'인칭변화 예시'	XXIII
A. Окончанія простого вида	'불완료상 어미'	XXIII
B. Окончанія средне-почтительнаго вида	'예사말과 존대말 어미'	XXV
Порядокъ составленія настоящей книжки	'교재 활용법'	XXVII
Замѣтка	'보충설명'	XXXII
Разговоръ I	'제 1 회화'	1
Разговоръ II	'제 2 회화'	5
Разговоръ III	'제 3 회화'	14
Разговоръ IV	'제 4 회화'	23
Разговоръ V	'제 5 회화'	27
Разговоръ VI	'제 6 회화'	27
Разговоръ VII	'제 7 회화'	34
Разговоръ VIII	'제 8 회화'	36
Разговоръ IX	'제 9 회화'	39
Разговоръ X	'제 10 회화'	41

4) 【표 2】 『노한회화』의 목차 내용은 ОГЛАВЛЕНИЕ. '목차' (p. XX)에 기반하여 발표자가 추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III.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의 내용

3.1. 총 10개의 단원으로 구성된 『노한회화』의 첫 번째 단원은 ‘길에 대한 회화(Разговоръ о дорогѣ)’이다. 본 단원에 제시된 총 37개의 문장(1~37번)은 사람과 운송수단이 다닐 수 있는 통로로서의 ‘길’에 대한 정보와 지리적 특성에 대한 대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는 『노한회화』의 첫 단원에 나오는 새로운 고려말 어휘와 주요 표현을 총 79개로 정리하여, 고려말 표제어와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어 어휘를 대칭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때 제시된 단어는 『노한회화』의 문장 번호와 함께 등장하는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어, 러시아인 학습자의 편의를 배려한 교재 구성이 돋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명 Монъ когä [멍 고개]에 대한 간략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행하는 『기초 러시아어 교과서』(1901)가 러시아어 표제어와 이에 대응되는 고려말 어휘만을 대칭적으로 나열하는 어휘집이었음을 상기해볼 때, 『어휘와 표현』은 구성과 내용적 측면에서 대역어휘집의 성격이 강한 편이지만 몇몇 어휘의 경우 뜻풀이를 제시함으로써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차후 출판되는 『시험적 노한소사전』(1904)을 예비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 <sup>6)</sup>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Разговоръ I (Одорогѣ)	p.2 ЦХОТЦÄ СÄШРИ [철재사설이]	p.3	цхотцä пёрвый p.1 сашюри разговоръ
1. Какъ Ваша фамилія?	Таншинъ шон-цäры отти ссыо? [당신 성-째르 언디쓰오?]		1. Таншини Вы шонни фамилія
2. Моя фамилія Ким.	Нä шон Ким-гäо. [내성감가오]		цä буква отти какъ
3. Изъ какой деревни идёте?	оны цхонырышо оо? [어느 촌으르서오오?]		ссоги писать 2. нä я
4. Я идү изъ деревни Монъ Когä.	Нä Монъ Когäйшо оо. [내멍고개에서오오]		Ким-гä Кимъ 3. оны котöрый
5. Хорошä ли та дорогä, по котöрой Вышли?	Таншини кина он кйри тессултэ? [당신이기나온 길이똥습데?]		цхони деревня оги приходйтъ
20. Не грязная ли эта дорогä?	Икйри цыд-яню? [이 길이 쯤-애니오?]	p.4	4. монъ дальный когä хребеть
21. Да, она грязная.	Икйри цыымни. [이 길이 쯤음니]		Монъ Когä названіе деревни
29. Покажите мнѣ дорогү.	Нар кйры карчшуду цүо. [내르 길으 갈추여 주오]		Сочетаніе монъ когä понимается въ смыслѣ дальный переваль ; деревня, для которой оно служить названіемъ, находится въ Посьетскомъ уч., Южн.-Усс. окр., Приморск. обл.; возлтъ нея пролегаеть дорога, пересѣкающая горный хребеть
30. Куда ведётъ эта дорогä?	Икйлы одымөры карман хао? [이 길르 어드메르 갈만하오?]		

5) 『어휘와 표현』의 경우, 목차가 부재하기에 【표 3】에 제시된 목차의 내용은 발표자가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5. кйнаги	проходить мимо	p. 2
кйри	дорога	
тёкхи	быть хорошим	
20. цын	грязный	p. 3
29. цуги	давать	p. 4
30. Одымеры	куда	p. 5

3.2. 두 번째 단원 ‘시골마을에 대한 회화(Разговор о деревнѣ)’에서는 총 42개의 문장(38~79번)으로 ‘시골마을’의 환경 및 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람뿐만 아니라 말(馬)까지 음용할 수 있는 수질을 확인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어휘와 표현』에서는 고려말 어휘가 총 58개로 정리되어 제시되고 있다.

(2)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Разговор II (О деревнѣ)	p. 6	ТУРЦА САНШИ [둘째 사설에]	p. 7
60. Хороша ли въ той деревнѣ вода?	p. 18	Тё цхонѣ мўри тѣссо? [더 촌에 물이 돛소?]	p. 19
61. Вода тамъ хорошая.		Кнгѣ мўри тѣссумни. [강계 물이 돛숨니]	
62. Вода тамъ нехорошая.		Кнгѣ мўри тѣх-яниумни. [강계 물이 들-애니음니]	
63. Много ли въ той деревнѣ воды?		Тё цхонѣ мўри мансо? [더 촌에 물이 만소?]	
		тўрца	второй p. 5
		61. конгѣ	тамъ p. 12
		65. пѣнбѣни	свободно, достаточно
		66. чакки	быть маленькимъ, скўльымъ
		69. мэгиги	кормить, поить p. 13
		куши	колѣда
		71. пхири	шўка

6) 본 발표문에 인용되는 예시는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의 키릴문자화된 고려말과 러시아어를 타이핑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키릴문자화된 고려말은 현대 한글자모로 추정하여 기호 [ ]로 함께 제시하였다. 즉, 본 발표문에 인용된 예시는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나, 고려말 추정 형태와 예시 출처를 덧붙인 형태이다. 추정 형태를 현대 한글자모로 표기한 까닭은 후속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어휘적 측면에서 『기초 러시아어 교과서』, 『문자교본』, 그리고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에서 구축된 어휘 목록의 계보가 최종으로 『시험적 노한소사전』으로 집대성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 의해 편찬된 사전편찬사의 계보를 구축하고 그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수록된 어휘목록을 대조하는 향후의 연구를 위해서 카잔 교재의 고려말을 한글자모로 변환하는 작업이 여러모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발표문에서 제시하는 현대의 한글자모로 추정한 형태는 발표자의 한국어 화자로서의 직관력과 러시아어에 대한 공·통시적 이해를 기반으로 출발한 초벌 형태에서, 김영광, 『개정 조선어방언학』 (파주: 태학사, 2013);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한진건, 『륙진 방언연구』 (서울: 역락, 2003); 황대화, 『1960년대 육진방언 연구(자료편)』 (서울: 역락, 2011) 등의 현장 답사한 자료와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과의 교차확인 과정을 거쳐 도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3의 문자로 기록된 문헌에 의존하여, 교본 출판 당시의 고려인이 구사하는 언어를 온전히 복원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또한 재구한 작업의 완성도를 보장할 수 없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발표문에서 제시하는 고려말의 추정 형태는 후속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그리고 학제 간 연구교류를 통해 더욱 신뢰도가 높은 형태로 수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 한지형, 『강독서 「고려인을 위한 문자교본(Азбука для корейцев)」(1902)의 노·한 번역 양상과 의미』, 2018 러시아학 관련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러시아성 다시 읽기(2018.10.13.), 제3분과 어학분과, 60면 참조.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에 적용된 고려말의 키릴문자화에 대한 연구는 『기초 러시아어 교과서』와 『문자교본』의 비교 선상에서 차후 소개할 예정이다.

7) 좋다 ㉠ 즐겁다. 유쾌하다. 아름답다. \* 기본이 좋다. 경치가 좋다. 동다 경흥 중성 회령. 조타 학성 길주 명천 경성 경원 무산. 좇타 명천 경성 청진 경원 온성 무산. 좋다 부령.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443면 참조.

8) 즐다 ㉡ ‘질다’의 함경 방언. 즐다 ㉢ ‘질다’의 옛말, 지저분하거나 난잡하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9월 28일).

64. Воды тамь мно́го.	Конгэ мури мансумни. [강계 물이 많습니]
65. Воды тамь достагочно.	Конгэ мури пенбен хамни. [강계 물이 벤번 하습니]
66. Воды тамь ма́ло.	Конгэ мури чаксумни. [강계 물이 작습니]
69. Есть ли тамь коло́ды для поёния лошаде́й?	Тенгэ мардор мур мэпир кушидори иссо? [명계)말덜으 물 맥일으 구수(0)덜이 잇소?]
70. Коло́дь тамь то́лько двѣ.	Куши туурбаккэ опеумни. [구수 두울박게 업습네]
71. Хвѣпить ли тамь воды на 200 лошаде́й?	Тенгэ мардор нян-бак пхиры мэпирмани мури иссо? [명계 말덜으 낭백 필으 맥일만이 물이 잇소?]
73. Можно ли поить лошаде́й пря́мо изъ рѣкѣй?	Кағэшо мардор муры мэпирман хао? [강에서 말덜으 물으 맥일만 하오?]

3.3. 세 번째 단원 ‘시골마을에서의 회화(Разговоръ въ деревнѣ)’에서는 러시아 병사가 숙박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다친 병사를 맡기고 식량을 챙겨갈 수 있는 장소로서의 ‘시골마을’에 대한 대화가 총 81개의 문장(80~160번)으로 전개된다. 『어휘와 표현』에서 본 단원에 대한 어휘의 수는 132개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다.

(3)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Разговоръ III (въ деревнѣ)	СЭЦЦА САШИРИ [센재 사설이]	сэццä третйй 82. кунсä солдäт
82. Есть ли у вась большй домь для солдäт?	Таншингэ кун-сәдори нсәр кхын чибй иссо? [당신네게 군새-덜이 뉴알 큰 집이 잇소?]	нсагй прожйвäт
83. Дäй намь проводникä до N.	Уриры N коди кйр каршиур сарыму нä ноä тагү. [우리르 N까지 길으 갈취우르 사름우 내 노아 다구]	83. ури мы коци до
84. Ведй нась просёлкомь.	Мааллы кйна каньн киллы уриры тäre кагора. [마알(1)르 기나 가는 길르 우리르 대레 가거라]	нäги въводйть, вънимäт, опоражнйвäт нокхй пускäт
85. Стуйäй впередь.	Апцö кагора. [앞써 가거라]	84. маари поселёние
90. Воть тебѣ на водку.	Ётта суур сса могора. [열다 수울(2)으 싸(3), 먹어라]	90. ётта на воть тебѣ суури опьяняющйй напиток, водка
91. Кто хозяинь въ этомь домѣ?	И чибй чуэни нуьгио? [이 집이 췌(4)이 누기(5)오?]	91. чуэни хозяинь
92. Здравствуйте, хозяинь!	Чуэн-ним цар кешпо?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92. чуэн-ним цар хорошо кешпиги пребывäт

9) 명계 ㉞ ‘저기’의 함복 방언.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9월 28일).

10) 구우 <槽> ㉞ 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구시 성진 학생 길주 명천 경성 청진 부령 경원 온성 종성 회령 무산.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78면 참조.

93. Оведите мнѣ особую комнату.	[첸-님 잘 계시오?] Нар тан паңа нә цюо. [날은 딘 방아 내 주오]	цар кешлю здравствуйте 93. тан особьий паңи комната	p. 16
94. Накормите меня, людей моих и лошадей и только.	Нә-гуа нә-гуа катхи он сарымдор-гуа мардоры мэгè-ман цюо. [내과 내과 같이 온 사름덜과 말덜은 맥에-만 주오]	94. гуа съ катхи вмѣстѣ	
95. Велите дать мнѣ пообѣдать.	Нә чомшимү кацхүа ноорагу шигио. [내 점심(6)우 갖와 노오라구 쉬기오]	95. чомшимү обѣдъ кацхүги приготовить шигиги приказывать	
97. Нѣтъ ли у Васъ чего-либо готового покушаться?	Таншиннэгэ мусугэдонди могоьрқо кацхүа ноонгэ опсо? [당신네게 무수게던디 먹을고 갖와 노오게 업소?]	97. мусүн? что за? какой?, когда страиваются о составъ или природѣ вещи или предмета.	
100. Нѣтъ ли у васъ или русской водки, или водки изъ чумизы, или винограднаго вина?	Таншиннэгэ мауза суурина, тхө-цүина, тан мргуы суури опсо? [당신네게 마우재(7)수올이나, 토-주(8)나, 단 말귀(9)수올이 업소?]	мусү-тэ? вопр. что? мусугэдонди что-бы ни	
101. Прѣжде самъ отвѣдай.	Нә манцо масы пара. [내 만차(10)맛은 비라]	100. мауза русскій, суц. тхө-цүи водка изъ чумизы тан сладкйй мргуы виноградъ	p. 17
124. Все домашнее оружіе <sup>6</sup> снесите въ мою комнату.	Чибй иннын чшондорифан, цхандорифан тарын цангидрифан та нә панр модә носсо. [집이 인는 총덜이랑, 창덜이랑 다른 쟁기덜이랑 다 내 방에 모다 놋소]	101. нә ты манцо прѣжде маши вкусъ поги смотреть, видѣть	p. 25
125. Не безпокойтесь!	Нёмнеры мао. [넴네르 마오]	124. чшонди ружьё цханй копьё тарын другой цанги оружіе модүги собирать	p. 19
126. Когда будемъ уходить, все вамъ возвращимъ.	Ури то-на кар тә таншиннэгэ та торү тире носсури. [우리 떠나 갈 때 당신네게 다 도루 디레 놋수리]	125. нёмне забота	
129. Исполняйте наши требованія и будете вознаграждены.	Ури шигинын йр хәо, тён ссагы пассури. [우리 쉬기는 일으 하오 도은 싹(21)뵈수리]	126. тыги сниматься съ мѣста наги выходить торү назадъ тириги вводить	
135. Оставлю вамъ больнѣхъ солдатъ, берегите ихъ.	Алын кунсадор таншиннэгэ тую, кы сарымдоры цар мөшио. [알른 군새덜은 당신네게 두오, 그 사름덜은 잘 모쉬오]	129. йри дѣлю тён хороший ссаги вознаграждёние	p. 20
136. Корми и пой.	Могоьрқран маширқран цуора. [먹을게랑 마실게랑 주어라]	135. алын больно́й, прил. туги оставять	
137. Не скрывайте запасовъ, мы ихъ найдёмъ, тогда хуже будетъ.	Яншигы комцхүди мао, ури одо нәму, то кучшә хәури. [양식(22)은 금치우다(22)마오, 우리 얻어 뵈우, 더 구차하우리]	129. мөшиги покоить	p. 21
138. Соберите всё это скорѣе.	Йго та палли модюо. [이거 다 빨리 모두오]	137. яншиги запасъ комцхүги прятать оки искать то ещё	
139. За всё заплачу деньги.	Та тоны муро цуури. [다 돈으 물어 주우리]	кучшә-хаги быть тягостнымъ, безличнo 138. палли скоро 139. тоны деньги муро-цүги платить	

3.4. 네 번째 단원 ‘가족에 대한 회화(Разговоръ о семьѣ)’에서는 친족어와 친족어가 포함된 문장(161~200번)으로 구성된다. 친족어의 경우 『기초 러시아어 교과서』의 구조와 동일한 구성을 따르고 있으나, 해당 친족어의 유의어나 존칭형이 함께 제시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가족에 대한 대화는 친족어 소개 후 이어지고 있으며, 내용은 가족의 실태를 조사하는 호구 조사적 성격을 띤다. 그리고 해당 단원에 대한 『어휘와 표현』은 친족어를 중심으로 대응 러시아어와 함께 존칭형을 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총 46개).

(4)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Разговоръ IV (о семьѣ)	p. 30	НЭПЦА САНРИ [넬재 사설이]	p. 31
161. Отець.		Абѣи, абуним, пучшин, пучшинним. [아버, 아부님 부친 부찬님]	нэпца четвертый p. 23 161. абѣи отѣць абуними отѣць почительно пучшин родитель пучшинними бапошка
162. Мой отѣць.		Нѣ абуним, нѣ пучшинним. [내 아부님 내 부찬님]	175. ирьми имя p. 24
163. Твой отѣць.		Нѣ абуним, нѣ пучшинним. [네 아부님 네 부찬님]	185. тѣнтя женильба p. 25
174. Есть ли у тебѣ братья?	p. 32	Нѣгѣ шоннѣран тонсаннѣран иннѣ? [네게 생네랑 동생네랑 인나?]	188. адыри сынъ 189. сарги дочь 190. Пу-санѣ Фузанъ
175. Какъ зовуть твоегѣ старшаго брата?		Нѣ шѣн ирьми мусугѣнѣ? [네 성 이름이 무슨게나?]	192. пѣ корабль p. 26
183. Скѣлько лѣтъ твоимѣ братьямѣ?		Нѣ шоннѣ-туа тонсаннѣ нѣи эмманѣ? [네 생네과 동생네 나이 얼마나?]	
184. Всему старшему брату 35 лѣтъ,		Нѣ шонн-нимун нѣи шорын тасьшигу, нѣ	

- 11) 마을 ㉔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동리. 촌(村). 촌락(村落) [고어] 마을. 마알. 동네. 학성. 길주. 명천. 경성. 청진. 경흥. 경원. 온성. 중성. 회령. 무산. 마랑. 성진. 마을. 부령. 오래. 성진. 길주. 명천. 경성.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193면 참조.
- 12) 술 ㉔ 알코올을 성분이 있어서 마시면 취하는 음료의 총칭. [고어] 수울. 수울. 술. 슈울. 스울. 술. 성진. 길주. 명천. 경성. 부령. 경원. 중성. 회령. 무산.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322면 참조.
- 13) 사다 ㉔ 남의 것을 달라는 값을 주고 제 것으로 만듦. \* 책을 사다 [고어] 사다. 싸다. 전지역.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282면 참조.
- 14) 쉰 ㉔ ‘주인’의 강원, 중국 요령성 방언.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9월 28일).
- 15) 누구 ㉔ 어떤 사람을 막연히 들떠워 놓고 일컫는 말. \* 누구든지 오너라. [고어] 누. 누기. 경성. 경원. 회령. 무산. 누기. 길주. 명천. 중성. 무산. 누기. 성진. 학성. 명천. 경성. 청진. 부령. 경흥. 경원. 온성. 중성. 회령. 무산. 니귀. 성진. 길주. 은성.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134면 참조.
- 16) 점심 ㉔ ‘점심’의 함북, 중국 길림성 방언.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9월 28일).
- 17) 마우재 ㉔ 러시아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함경 방언.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9월 28일).
- 18) 토주 ㉔ 1. 그 지방에서 예전부터 독특하게 생산하여 온 술. 2. 민간에서 전하여 오는 방법으로 만든 술.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9월 28일).
- 19) 멀귀 ㉔ ‘머루’의 함경 방언.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9월 28일).
- 20) 먼저 ㉔ 시간적으로 앞서서. \* 먼저 갑니다. 먼저 차표부터 끊어 놓아라. [고어] 몬저. 몬제. 몬저. 몬제. 먼저. 성진. 학성. 길주. 명천. 경성. 부령. 경원. 중성. 무산. 먼저. 중성. 먼저. 명천. 앞서. 경성. 청진. 경원. 온성. 회령. 무산.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205면 참조.
- 21) 샅 ㉔ 일을 한 데 대한 보수로 주는 돈이나 물건. 노임(勞賃). 노임. 명천. 부령. 온성. 짝. 길주. 명천. 경성. 경흥. 경원. 중성. 회령. 무산. 짝전. 명천. 경성. 중성. 임금. 경원. 무산. 품짝. 성진. 명천. 경성. 온성.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286면 참조.
- 22) 감추다 ㉔ 숨기다. 은폐(隱蔽)하다. \* 사실을 감추다. 서랍에 돈을 감추다. [고어] 감초다. 감초다. 감추다. 학성. 길주. 명천. 경성. 부령. 곰. 추우다. 경원. 중성. 회령. 곰치다. 중성. 곰치우다. 성진. 청진. 경흥. 은성. 무산. 감추다. 경성. 쉰귀다. 길주. 쉰귀다. 성진. 학성. 명천. 경성. 무산. 치우다. 명천.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43면 참조.

моему младшему брату 25 лѣтъ.	тонса́ны сыму́р тасышио. [내 성·님은 나이 서른 다스쉬구, 내 동생은 스물 다스스오]	
185. Жёнать ли твой старшій братъ?	Нэ шэң тьянгар канья? [내 성 당개르 간냐]	
186. Да, онъ жёнать.	Тьянгар кассумни. [당개르 갓습니]	
187. Есть ли у твоего старшаго брата дѣти?	Нэ шонгэ цашиктори инья? [내 성계 자식덜이 인냐]	
188. Да, у него одинъ сынъ и двѣ дочери.	Адыр ханна тар туури иссумни. [아들 한나 딸 두올이 습습니]	
189. Гдѣ живѣтъ твой младшій братъ?	Нэ тонса одымэ саанья? [내 동생 <sup>23</sup> 어드메 사안냐]	p. 33
190. Мой младшій братъ живѣтъ въ Фузанѣ.	Нэ тонса Пу-санэ сао. [내 동생 부산에 사오]	
191. Что онъ тамъ дѣлаетъ?	Кы сарьми конгэшо мусыр ханья? [그 사람이 강계서 무스르 하안냐]	
192. Онъ тамъ работаетъ по нагрузкѣ кораблей.	Конгэшо пая чиму ши ссумни. [강계서 배에 침우 쉬 습습니]	p. 35

3.5. 다섯 번째 단원의 주제 ‘명령과 질문(Приказанія и вопросы)’에서는 명령문 7개와 의문문 11개의 총 18개의 문장(201~218번)이 제시되고, 모두 낮춤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단원에 대한 총 5개의 어휘가 『어휘와 표현』에 정리되었다.

(5)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Разговоръ V (приказанія и вопросы)	p. 34	p. 27
	ТАСЫЦА САСШОРИ [다스재 사셜이]	тасытца    пятаый
201. Говорй!	Мар хаяра! [말으 해라!]	201. марй    слово
202. Говорй медленне!	Тоды мар хаяра! [더디 말으 해라!]	202. тоды    медленно
203. Говорй ясно!	Токтогы мары хаяра! [똑똑이 말으 해라!]	203.    токтогы    ясно
204. Отвѣчай!	Тядабу хаяра! [대답우 해라!]	214. арги    знать
206. Укажи!	p. 36    Карчшиуора! [갈취워라!]	
208. Есть ли?	Инья? [인냐]	
209. Гдѣ?	Одымэ? [어드메]	
210. Куда?	Одымэры? [어드메르]	
211. Скѣлько?	Эммэ? [엠메]	
213. Мѣжно ли?	Харман ханья? [할만 하냐]	
214. Говорйшь ли ты по-русски?	Нэ мауза мар харцүру аанья? [내 마우재 말으 할쥬우 아안냐]	
215. Какъ называється?	Отти пуруунья? [얼디 부루운냐]	
216. Какъ названіе этого предмета?	Йгэ ирыми мусүгэня? [이게 이름이 무수게냐]	
218. Мѣжно ли пройти?	Кйна карман ханья? [가나 갈만 하냐]	

23) 동세 ㉔ ‘동생’의 함복, 중국 길림성 방언.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9월 28일).

3.6. 여섯 번째 단원 ‘시장에서의 회화(Разговоръ на базарѣ)’는 『노한회화』에서 가장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생생한 회화문을 소개하고 있다. 시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발생가능한 상황을 전제하여 질문과 답문이 총 106개(219~324번)로 정리되어 있다. 이어 『어휘와 표현』에서는 총 69개의 어휘와 표현이 제시된다.

3.6.1. 가장 먼저 소개되는 회화 상황은 통성명부터 시작하여 출신, 현재 종사하는 업종과 임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임금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주제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Разговоръ VI (на базарѣ)	p. 36	ЁСЫТЦА САШОРИ [여섯째 사설이]	p. 37	ёсытца шестой p. 27
219. Какъ васъ зовѹтъ?		Таншиннѣ ирыми мусѹгѣо? [당신네 이름이 무슨게오?]		221. тасыс-сари пять лѣтъ
220. Скѣлько вамъ лѣтъ?		Таншиннѣ наи эммао? [당신네 나이 얼마오?]		222. кѣня рѣдина
221. Мнѣ 35 лѣтъ.		На шорн тасыс-сарио. [내 셔른 다섯살이오]		223. Шури Сеуль p. 28
222. Гдѣ ва́ша рѣдина?		Таншиннѣ кѣня одѣю? [당신네 고향 어디오?]		о́дѣшо откуда
223. На́ша рѣдина Сеуль.	p. 38	Ури кѣня Шурио. [우리 고향 서울이오]	p. 39	225. Кѣн-сани Генза́нь
224. Откѣда вы при́были?		Таншиннѣ одѣшо уа́ссо? [당신네 어디서 왔소?]		232. на́ри день
225. Мы пришли изъ Генза́на.		Ури Кѣн-санѣшо уа́ссо. [우리 경산에서 왔소]		235. та́ри мѣсяць
228. Что вы здѣсь дѣлаете?		Таншиннѣ ѣнтѣшо мус=ыр хао? [당신게 연게서 무슨 하오?]		239. оны-зогѣ когда p. 29
230. Мы здѣсь жнѣмъ чумизу.		Ури ѣнтѣшо пхинады пѣю. [우리 연게서 피난으 비오]		сѣги быть доро́гимъ
232. Скѣлько вы получа́ете въ день?		Таншиннѣ хал-ларѣ эмма́ши пассѣ? [당신게 할라레 얼마씩 받았소?]		орѣ въ ны́ншнемъ го́ду
235. Я нанялся по 7 рублѣй въ мѣсяць.		На хан-дарѣ ниргѹм нянщѣ ссагы тырссо. [내 한달에 날금 냥씩 삭으 드렸소]		240. погѹ сравнительно
239. Когда пла́та была́ доро́же: ны́нче или прѣ́жде?		Ир ссагы оны-зогѣ то сѣэптѣ, шан-нѣнѣ то сѣэптѣ орѣ то сѣо? [일씩이 어느적에 더 세엿데. 상년에 더 세엿데. 올해 더 세오?]		коби вдво́е
240. Ны́нче пла́та вдво́е дешѣвле прошлогѣдняго, а хлѣ́бъ вдво́е доро́же.		Орѣ ссагы шан-нѣн богѹ коби то нуксо, кокшогыны ка́пщи коби то сѣэ=дессо. [올해씩이 상년 보구 곱이 더 녹소 <sup>24)</sup> , 곡식은 갑씩 곱이 더 세엿소]		нукки быть дешѣвымъ
				ка́пщи цѣна́



3.6.2. 시장에서 구입할 물품의 구입처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다양한 구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언급된 식료품 명칭을 통해 당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상품과 러시아 병사들의 선호 식품도 확인할 수 있다.

(7)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243. Где продаётся чумиза?	<i>p. 40</i> Одымэшо пхинады пхào? [어드메서 파 <sup>25</sup> ]	<i>p. 4</i> 250. коби сало <i>p. 30</i> 259. сагхә сахарь
245. Где продаётся соль?	Одымэшо согуму пхào? [어드메서 소금우 파오]	
250. Где продаётся сало?	Одымэшо кобу пхào? [어드메서 굽우 파오]	
253. Где можно купить курь?	Одымэшо тактры ссарман хào? [어드메서 닭덜으 쌀만 하오]	
256. Где можно купить яйць?	Одымэшо тарг-ары ссарман хào? [어드메서 닭-알으 쌀만 하오]	
258. У кого можно купить чаю?	Нүэгэшо чшары ссарман хào? [누에게서 차르 쌀만 하오]	
259. У кого можно купить сахару?	Нүэгэшо сагхәң ссарман хào? [누에게서 사탕 쌀만 하오]	
264. Кто здесь торгуется овсөмь?	Нуьги ёнгэшо кумиры пхào? [누기 영계서 구말이으 파오]으 파오]	

3.6.3. 구입할 물품의 가격을 확인한 후, 상인과 구매자간의 가격 흥정이 진행되고, 이후 거래 성립에 따른 지불과 영수증 발급,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인사말로 마무리가 되는 회화문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8)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280. Ско́лько сто́ит э́та коро́ва?	<i>p. 42</i> И ам-шуэ капши эммао? [이 암췌 갑쉬 엠매오]	<i>p. 43</i> 280. ам-шуэ коро́ва <i>p. 31</i>
281. Э́та коро́ва сто́ит 20 рублѐй.	И ам-шуэ капши сьму няю. [이 암췌 갑쉬 스무 내오]	283. хынцэ торгь
282. Э́то до́рого, возьми́те 15.	Капши сэю, яр-тан-ня пассо. [갑쉬 세오, 알-단-냐 팟소]	291. ори правильно <i>p. 32</i> шэги считатьь маккиги поручатьь
283. Нѣтъ, 15 рублѐй взять не могу́, но прода́мь коро́ву за 18.	Анию, на яр-тан-ня пакку мо-пхаргассо, ер-ядым-нярямун хынцо хагассо. [아니오 내 알-단-냐 박구 모-팻갯소 얼-아름-내려문 흥져 하갯소]	293. чокчи росписка 294. чоңэ бумага 295. пуди перо 297. таши опятьь маннаги встрѣчатьь

24) 싸다 ㉠ 물건의 값이 시세에 비하여 적다. [고어] 싸다. 늑다 학생 길주 명천 경성 청진 경원 중성 회령 무산. 사다 온성. 싸다 명천 부령.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335면 참조.

25) 피 <稗> ㉠ 【식】 포아풀과에 속하는 일년초. 「돌피」의 개량종임. [고어] 피. 돌피 길주 명천 경원 온성 중성 무산. 피 부령. 피낫 경성 경흥 경원 중성 무산. 피조이 성진 명천 회령.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490-491면 참조.

26) 구말 ㉠ ‘귀리’의 함북 방언.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9월 28일).

27) 말기다 ㉠ 물건의 보관을 남에게 의뢰하다. \* 짐을 말기다. [고어] 마찌다. 말디다. 말지다. 맞기다. 맞디다. 맞지다. 맞치다. 맞티다. 말

290. Получите деньги.	p. 4	Тоны пассò. [돈으 받소]	p. 45
291. Правильно ли я Вамь заплатить?		Нă таншинкэ тоны òри шэò мăккессò? [내 당신께 돈으 오리 세에 맥겟소 <sup>27</sup> ?]	
292. Счѐтъ вѣренъ.		Òри шэòссо. [오리 세엿소]	
293. Напишите роспиську, что Вы получили сполна деньги.		Таншини тоны та паданнырагу чокчйр ссыю. [당신이 돈으 다 받았느라구 죽쥐르 쓰요]	
294. У меня нѣтъ для этого бумага.		Нăгò чокчй ссыр чоңò опсо. [내게 죽쥐 쓸 종에 업소]	
295. Вотъ Вамь перò и бумага, пишите.		Ёссо пук-куа чоңò, ссыю. [엿소 북-과 종에 쓰요]	
296. Благодарю Вась.		Ашимтх янио. [아심트 애티오 <sup>28</sup> ]	
297. До свиданья.		Таши манна погăссо. [다쉬 만나 보겟소]	

3.6.4.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은 ‘술’에 대한 대화문이 본 단원의 말미를 장식한다는 점이다. 앞서 세 번째 단원의 ‘시골마을에서의 회화’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술에 대한 문장은 본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시장에서 ‘러시아산 보드카’를 구입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이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촘촘하게 제시하고 있다.

(9)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315. Есть у Вась рѹсская вòдка?	p. 46	Таншиннэгэ маузă суўри иссо? [당신에게 마우재 수울이 잇소?]	p. 47
316. Скòлько стòить ведрò рѹсской вòдки?		Маузă суўр хан тоңò кăпщи эммăо? [마우재 수울 한 동에 갑쉬 엠매오?]	316. тоңò ведрò p. 33
317. Скòлько стòить полведра рѹсской вòдки?		Маузă суўр пăн-тоңò кăпщи эммăо? [마우재 수울 반-동에 갑쉬 엠매오?]	320. чом немно̀жко
318. Скòлько стòить чѐтверть рѹсской вòдки?		Маузă суўр пăнè пăн-тоңò кăпщи эммăо? [마우재 수울 반에 반-동에 갑쉬 엠매오?]	321. насын лѹчший
319. Есть ли у Вась хорòшая вòдка изь чумизы?		Таншиннэгэ тѐон суўри иссо? [당신에게 도은 수울이 잇소?]	
320. Дайте немно̀го попрòбовать.		Мăсы поряры чом цѹо. [맛으 보라리 줌 주오]	
321. Э̀та вòдка изь чумизы плохăя, нѣтъ ли полѹчше?		И суўри тѣтх янио, чом насын суўри опсо? [이 수울이 도트 애티오 줌 니슨 수울이 업소?]	
322. Нѣтъ, у нась нѣтъ другòй.		Уригè тарын суўри опсо. [우리게 다른 수울이 업소]	
323. Вы прòсите дòрого за вòдку изь		Таншин суўр кăпщи сэо.	

기다 부령. 매기다 명천 청진 경흥 경원 종성 무산. 백기다 학생 경성 경원 온성 무산. 빨기다 성진 길주 명천 청진 종성 회령.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200면 참조.

28) 감사(感謝)-하다 ㉔㉕ 고맙게 여기다. 감사하다 부령. 아슴채이품 경성. 아슴채이꾸마 학생 경원 온성 무산. 아슴채이오 성진 길주 명천 경성 온성. 아슴채이타 길주. 아슴채이오 경성 부령 무산. 아슴채이우 성진 학생 청진 온성 무산. 아슴채스꾸마 회령. 아슴태니꾸마 종성. 아슴태이꾸마 명천 경흥 경원 종성. 아슴태니꾸마 종성. 김태균, 『咸北方言辭典』, 서울: 京畿大學校 出版局, 1986. 42면 참조.



чумизы.

[당신 수을 갑쉬 세오]

324. Скажите Вашу крайнюю цѣну за водку изъ чумизы.

Суур капши эммао, таншини магам мар хао.  
[수을 갑쉬 엠매오 당신이 마감 말 하오]

3.7. 일곱 번째 단원의 주제 ‘식품 구입(Закупка продовольствія)’은 선행하는 단원과 이어지는 구매상황으로, 배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폐단위와 지불수단이 소개된다.

(10)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Разговоръ VII (закупка продовольствія)	p. 48	НИРГУПЦА САШРИ p. 49
329. Скòлько стоить горшòкъ молока?	Шуэ-цоци хан танди эммашшио? [쉐-젯이 한 단디 엠맷쉬오?]	ниргүпцä сeдьмòй p. 34 329. танди горшòкъ
330. Семь копèекъ.	Шуэ-цоци хан танди ниргүб кырцäщимни. [쉐-젯이 한 단디 날굽 글째웁니.]	330. кырцä копèйка 357. тхèзä кредитный билèтъ p. 35
331. Скòлько стоить сотня яйцъ?	Тарг-ари пãги капши эммао? [닭-알이 백이 갑쉬 엠매오?]	кыми зòлото p.36 359. мурги платить
332. Одиñь рубль.	Тарг-ари пãги хан нянщимни. [닭-알이 백이 한 낭웁니.]	
336. Нѣтъ ли у васъ мàсла?	Таншиннэгэ кырыми опсо? [당신네게 기름이 업소?]	
337. Скòлько стоить фунтъ мàсла?	Кырым хан-гын капши эммао? [기름 한-근 갑쉬 엠매오?]	
350. Продайте мнѣ одну кùрицу. p. 50	Нãгè ам-гхаргы ханна пхао. [내게 암-닭으 한나 파오.]	p. 51
355. Продайте мнѣ чумизы и овса, скòлько у васъ найдётся.	Нãгè пхинàкъ-куа кумиры таншиннэгэ иннындär пхао. [내게 피낙-과 구밀으 당신네게 인스대르 파오.]	
356. Привезите чумизу и овёсь ко мнѣ на домъ, въ то мѣсто, гдѣ я живу.	Пхинàкъ-куа кумиры нã чибүру, нã нюаньндэры ширу оо. [피낙-과 구밀으 내 칩우루, 내 뉴안은데르 실어 오오.]	
357. Когда привезёте, тогда получите деньги зòлотомъ, а не бумажками.	Ширу омун, тхèзä анигу кым цоны пассүри. [실어 오문, 테재 아니구, 금 전으 밧수리]	
359. Скажите, что за всё мы платимъ зòлотомъ.	Ури кым цоньллы капс муро цумён та ссандàгу нирыю. [우리 금 전을르 값으 무러 주명 다 싯다구 니르오.]	

3.8. 여덟 번째 단원 ‘일본군이 점령한 시골마을에 대한 회화(Разговоръ о деревнѣ, занятой японскимъ войскомъ)’는 총 40개의 문장(361~400번)이 다음의 두 방향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는 일본군이 점령한 시골마을의 지형과 지물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상황이다. 의

문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마을을 아는 이에게 안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수고비를 제시하는 상황도 전개된다.

(11)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Разговоръ VIII	p. 52	ЯДЫПЦА САНШОРИ [야듬재 사설이]	p. 53
(о деревнѣ, занятой японскимъ войскомъ)			p. 37
361. Какъ называётся эта деревня?		Тѣгэ мусун цхонио? [더게 무승 촌이오?]	365. то̀ри ка̀мень
362. Далекò ли до нея?		Тѣ цхониры каги моо? [더 촌으르 가기 머오?]	373. му̀рқă рѣ́чка
363. Во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мо̀жно дойти до этой деревни пѣшкòмъ по этой доро́гѣ?		Онэна тѣ цхониры и киллы коро карман хао? [언제나 더 촌으르 이 길르 걸어 갈만 하오?]	375. ты́ндынй крѣ́пко
365. Нѣтъ ли тамъ ка́менныхъ до́мовъ?		Тѣнгэ то̀ллы чийн чиптори опсо? [더게 돌르 쥐인 칩달이 업소?]	
373. Нѣтъ ли на этой доро́гѣ рѣ́чки?		И кирэ му̀рқă опсо? [이 길에 물깨 업소?]	
374. Есть ли чере́зь не́е мостъ?		Кы му̀рқăа тари иссо? [그 물깨에 다리 잇소?]	
375. Крѣ́покъ ли это́тъ мостъ?		Кы тари ты́ндын хао? [그 다리 든든 하오?]	
376. Проведите меня въ эту дере́вню.		Нары тѣ цхониры тарёда цуо. [나르 더 촌으르 대레다 주오.]	
377. Я Вамъ за это заплачу́.		На таншины кы ир ка̀пс муро цуури. [내 당신으 그 일 갑스 무러 주우리.]	
378. Нѣтъ ли на этой доро́гѣ го́рь?	p. 54	И кирэ сантори опсо? [이 길에 산달이 업소?]	p. 55
379. Нѣтъ ли на этой доро́гѣ лѣ́су?		И кирэ намү патхи опсо? [이 길에 나무 발이 업소?]	
380. Большо́й ли это́тъ лѣ́сь?		Кы намү патхи кхыо? [그 나무 발이 크오?]	

두 번째는 일본군의 전력정보에 중점을 두고, 일본군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질문들로 제시된다.

(12)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386. Нѣтъ ли тамъ япо́нскихъ солда́ты?	p. 54	Тѣнгэ ир-бу́н кун-са̀дори опсо? [더게 일-분-군-새달이 업소?]	p. 5
390. Есть ли тамъ пу́шки?		Тѣнгэ пурангуыдори иссо? [더게 부랑귀 <sup>29)</sup> 달이 잇소?]	p. 36
391. Ско̀лько ихъ?		Пурангуыдори метчи иссо?	p. 38
			p. 39

	[부랑귀덜이 멘취 잇소?]	399. цыккым тепèрь
392. Есть ли тамь кòнница?	Тёнгэ мар-тхан кун-сәдори иссò? [당게 말-탄 군-새덜이 잇소?]	400. цахди начальникъ
393. Скòлько ея?	Кы кун-сәдори эмманә туәд? [그 군-새덜이 엠매나 돼오?]	
394. Скòлько тамь всегò вòйска?	Тёнгэ тхон кун-пёң эмманә иссò? [당게 통 군-병 엠매나 잇소?]	
395. Скòлько тамь пьшаго вòйска?	Тёнгэ коннын кун-пёң эмманә? [당게 건는 군-병 엠매오?]	
396. Нёть ли вь эгомь вòйскъ больнѣхъ?	Кы кун-пёңэ аллын кун-сәдори опсо? [그 군-병에 알른 군-새덜이 업소?]	
398. Куда ушло вòйскò, котòрое здѣсь было?	Ёнгэ иттон кун-пёң одыр кассо? [연게 일던 군-병 어드르 갓소?]	
399. Гдѣ онò тепèрь нахòдится?	Цккым кы кун-пёң одымэ иссò? [즉금 그 군-병 어드메 잇소?]	

3.9. 아홉 번째 단원 ‘적군에 대한 회화(Разговоръ о неприятелѣ)’는 앞선 단원과 이어지는 일본군에 대한 이야기로, 일본군이 주둔한 위치와 내부 상황 등 세부 정보를 묻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러시아 군용어의 경우 각주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13)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Разговоръ IX (о неприятелѣ)	p. 56	АУПЦА САСПРИ [아홉째 사설이]	p. 57
401. Далекò ли до японскаго лагеря <sup>15</sup> ? 15 = до места расположенія японскаго вòйска.		Ир-бун кун-пёң шондэ ёнгэшо моо? [일-분 군-병 선데 연게서 머오?]	p. 39
402. Онѣ виденѣ съ этой горы.		И санэшо кы царі пәүмни. [이 산에서 그 자리 배웁니.]	
403. Какь далекò до японскихъ аванпòстовъ <sup>16</sup> ? 16 = до места расположенія охраняющихъ воиновъ.		Шубоны ханын ир-бун пёңдәдри шондэқоци эмманә моо? [슈번으 하는 일-분 병대덜이 선데꺼쥐 엠매나 머오?]	
404. Гдѣ японскіе обòзы <sup>17</sup> ? 17 = у японскаго вòйска нагруженныя телѣги.		Ир-бун кун-пёң чим-сургыдори одымэ иссò? [일-분 군-병 침-솔기덜이 어드메 잇소?]	
405. Гдѣ японцы <sup>18</sup> ? 18 = японское вòйска		Ир-бун кун-пёң одымэ иссò? [일-분 군-병 어드메 잇소?]	
406. Стоять ли японцы на квартирахъ <sup>19</sup> ? 19 = размѣстилось ли японское вòйска по домамъ		Ир-бун кун-пёң чиммадан тыр иссò? [일-분 군-병 침마당 들어 잇소?]	
		аупца девятый 402. пәүги виднѣтся 403. шубни карауль пёң-дә солдатъ 407. туруи поле = равнина, поросшая травой 414. отг=н какòй каунди середина 415. орун правый 416. уан лѣвый 417. нани война путтургиуги позволятъ ловить себя, быть пойманнымъ яң-йни русский, суц.	p. 40

29) 부랑기 ㊦ ‘대포(大砲)’의 함복 방언.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9월 28일).

407. Стоять ли японцы на биваках <sup>20</sup> ? 20 = расположилось ли японское войско в полѣ	Ир-бун кун-пѣң турүэ шоссо? [일-분 군-병 둘우에 섰소?]
408. Заняты ли дороги японцами? <i>p. 58</i>	Ир-бун кун-сәдори кирэ иссө? [일-분 군-새달이 길에 잇소?] <i>p. 59</i>
409. Есть ли у японцев кавалерия <sup>21</sup> ? 21 = в японском войскѣ конные воины	Ир-бун кун-пѣңэ мар-тхан кун-сәдори иссө? [일-분 군-병에 말-탄 군-새달이 잇소?]
410. Гдѣ обѣзы <sup>22</sup> ? 22 = См. выражение 404, прим. 17	Одымэ чим-сургыдори иссө? [어드메 짐-술기달이 잇소?]
411. Скѣлько тѣсяч пѣхоты <sup>23</sup> ? 23 = пѣхотинцевѣ	Коннын кун-сәдори мѣт-чшэнио? [건는 군-새달이 멘-첸이오?]
412. Скѣлько тѣсяч кавалерия <sup>24</sup> ? 24 = конных воиновѣ	Мар-тхан кун-сәдори мѣт-чшэнио? [말-탄 군-새달이 멘-첸이오?]
413. Скѣлько пушекѣ?	Пурангуы мѣтчшио? [부랑귀 멘취오?]
414. Какѣ войско у японцев в центрѣ?	Отгн кун-сәдори ир-бун кун-пѣн каундэ иссө? [얻던 군-새달이 일-분 군-병 가운데 잇소?]
415. Какѣ войско у японцев на правом флангѣ <sup>25</sup> ? 25 = т. е. на сторонѣ,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й нашей лѣвой	Отгн кун-сәдори ир-бун кун-пѣн орун цагэ иссө? [얻던 군-새달이 일-분 군-병 오른 짝에 잇소?]
416. Какѣ войско у японцев на лѣвом флангѣ <sup>26</sup> ? 26 = т. е. на сторонѣ,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й нашей правой	Отгн кун-сәдори ир-бун кун-пѣн уан цагэ иссө? [얻던 군-새달이 일-분 군-병 왼 짝에 잇소?]
417. Есть ли у японцев русские плѣнные?	Ир-бун кун-пѣңэ нанэ путтургиун яң-индори иссө? [일-분 군-병에 난에 붙들기운 앵-인달이 잇소?]
418. Есть ли у японцев русские перебѣжчики?	Ир-бун кун-пѣңэ тарә-нан яң-индори иссө? [일-분 군-병에 달아난 앵-인달이 잇소?]

3.10. 마지막 열 번째 단원의 주제는 ‘포로 포획(взятіе въ плѣнь)’으로, 포로 포획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명령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14)	『노한회화』	『어휘와 표현』
Разговоръ X (взятіе въ плѣнь)	<i>p. 60</i> ЯРЦА САШРИ [알째 사설이]	<i>p. 41</i> ярцä      десятый 428. ханбòки      покòрность
428. Сдавайтесь!	Ханбòк хао! [항복 하오!]	441. таи      земля въ ея цѣломѣ
429. Сдавайся!	Ханбòк хяära! [항복 해아라!]	
430. Маршь!	Корра! [걸어라!]	
441. Брось оружіе на зѣмлю!	Чшон-гуа хуандыры таэ ноära! [총과 환디르 따에 <sup>30</sup> )노아라.]	

## IV. 나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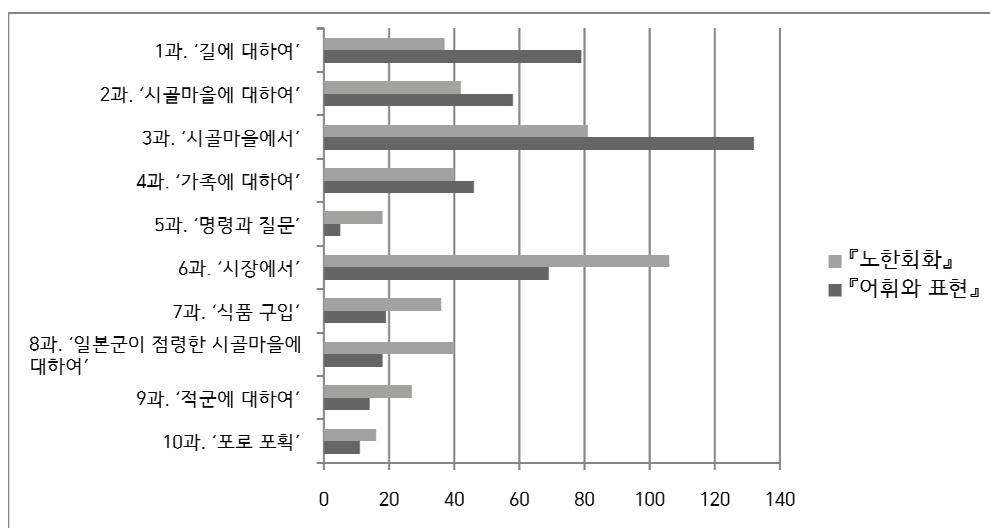
이상으로 살펴본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1904년에 러시아인과 러시아인 병사의 고려말 학습을 위해 자매편으로 편찬된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의 특성을 구성과 내용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구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오늘날 회화 교재에서 회화문의 구성이 2인 또는 그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연속성을 담보로 한 담화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노한회화』의 회화문은 정해진 주제안에서 발생가능한 질문과 대답이 일대다수의 대응관계로 나열되어 있다. 즉, ‘질문 : 대답’의 관계가 ‘1 : n (n≥1)’으로 제시되어 있기에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쉽지는 않은 ‘회화문 모음집’에 가까운 교재이다.

둘째, 『어휘와 표현』은 『노한회화』에 나오는 새로운 고려말 어휘와 주요 표현을 정리하여, 고려말 표제어와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어 어휘를 대칭적으로 나열하여 제공한다. 이때 제시된 단어는 『노한회화』의 문장 번호와 함께 등장하는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어, 러시아인 학습자의 편의를 배려한 교재 구성이 돋보인다.

셋째, 선행하는 『기초 러시아어 교과서』가 러시아어 표제어와 이에 대응되는 고려말 어휘만을 대칭적으로 나열하는 어휘집이었음을 상기해볼 때 『어휘와 표현』은 구성과 내용적 측면에서 대역어휘집의 성격이 강한 편이지만 몇몇 어휘의 경우, 뜻풀이와 문법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차후 출판되는 『시험적 노한소사전』을 예비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 『노한회화』과 『어휘와 표현』의 단위별 문장과 어휘 분포도



30) 파이 ㉔ ‘땅’의 경남, 함북, 중국 길림성방언.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2019년 9월 28일).

넷째, 내용의 측면에서 선행하는 교재들이 어휘를 중심으로 문화와 풍습에 대한 대역어와 정보를 제공하는 어휘집과 강독서였던 것과 달리,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편찬된, 회화와 문법·어휘에 대한 고려말의 종합교재이다. 회화를 위한 교재로서 주제별, 단원별로 회화문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발표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고려말의 품사 체계와 체언의 곡용, 용언의 활용을 소개하고, 어휘 뜻풀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노한회화』의 담화 상황은 대다수가 대화를 주도하고 정보를 요구하고 명령을 하는 러시아인과 병사, 그리고 이에 응답하는 고려인의 상하관계 속에서 전개된다. 이는 이주 고려인 자녀를 대상으로 편찬된 3권의 러시아어 학습교재 『기초 러시아어 교과서』, 『문자교본』과 『시험적 노한소사전』이 러시아 제국주의의 확장을 위한 대내적 러시아화 정책, 즉 러시아 정교 신앙으로의 개종과 러시아어 및 문화 교육을 통한 이민족을 포섭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노한회화』와 『어휘와 표현』의 편찬 동기가 제정 러시아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부동항 확보와 안보 구축을 위한 대외적 한반도 정책, 즉 식민지배 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지면 관계상 참고문헌은 본 발표문의 각주로 대신합니다.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공시성과 통시성

### 제3분과 어학분과

#### 어학분과B : 러시아문학어의 통시적, 공시적 역동성

사회: 이용권 (부산대)

- ▶ 고대 러시아어 동사 이동에 대한 고찰 ..... 215
  - 발표: 정하경 (서울대)
  - 토론: 김형섭 (중앙대)
  
- ▶ 소비에트 표기체 제정 역사 1 ..... 229
  - 발표: 정경택 (경상대)
  - 토론: 김진규 (고려대)
  
- ▶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표준어인가, 문학어인가? ..... 243
  - 발표: 김윤미 (경북대)
  - 토론: 김용화 (충북대)





# 고대러시아어 동사 이동에 대한 고찰

정하경 (서울대)

## 1. 들어가며

Chomsky(1995) 이후 최소주의적 관점에서는 통사적 구성소의 외현적 이동(핵어 이동 및 구 이동)이 통사적 자질에 의해 동기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강한 시제핵 자질에 의한 동사의 시제핵 이동(V-to-T movement) 문제는 그 보편성 여부 및 부수되는 매개변인적 현상(일치 곡용, 주어 인상, 영주어 사용 등) 때문에 통사론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어들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러시아어에서 동사의 시제핵 이동이 존재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고대노브고로드 자작나무 문서와 라브렌트 연대기 및 제1 노브고로드 연대기 텍스트에 나타난 어순 관련 현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고대러시아어 어순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이른바 ‘논리적 강세(*logičeskij udarenie*)’, 즉 정보구조에 따른 강조적 해석에 의거해 어순을 분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Borkovskij 1949 등). 그러나 Turner(2007), Meyer(2011)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의 근본적 문제는 특정 논리적 강세 또는 정보구조를 독립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이 되기 쉽고, 오히려 데이터에 설명을 맞추게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용적 동인에 의한 구성소 이동 역시 운율적, 통사적 규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화용적 이동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환경(가령,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문장 전체가 신정보 초점이 되는 경우나 문두 화제화의 유무가 통사적으로 명확한 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어순을 근간으로 기저어순을 진단할 것이다.

## 2. 동사의 시제핵 이동과 관련된 이론적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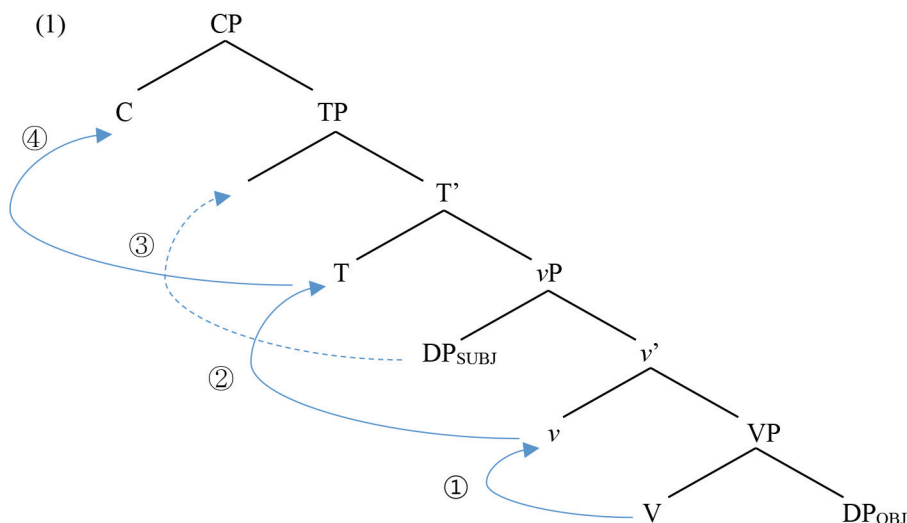
### 2.1. EPP: 주어 인상과 동사의 시제핵 이동

최소주의(Chomsky 1995, 2000, 2001 등)를 관통하는 통사적 원리는 ‘경제성 원리(Economy Principle)’로서 어휘부가 가지고 있는 강한 자질의 경우에만 구성소의 이동을 통해 그 자질을 점검하여(feature-checking/feature-valuing) 그 자질을 의미적, 음성적으로 해석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시제핵의 강한 자질에 의해 동사가 시제핵으로 이동하며 주어구가 시제구(TP)의 지정어로 이동한다. 이 두 이동을 유발하는 것이 동일한 자질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자질인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제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두 통사적 작용은 이른바 확대투사원리(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이하 EPP) 담론의 핵심에 놓여있는 현상들이다. EPP는 시제핵이 지니는 강한 명사적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역시 명사적 자질을 지니는 구성소인 명사구로 Spec,TP를 채우거나 혹은 허사를 삽입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Chomsky(1982)에서 제안되었고, Chomsky(1995)에서는 이 자질이 강한 D-자질로 특정되었다. 동사의 시제핵 이동은 시제핵의 강한 V-자질이 역시 V-자질을 지니는 동사핵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후 Alexiadou & Anagnostopoulou(1998)는, 동사의 일치 형태 체계가 풍부한 영주어 언어들에서 시제핵의 강한 D-자질은 Spec,TP로의 주어 이동을 통해 점검될 수도 있지만 동일한 D-자질을 가지는 동사핵이 시제핵으로 이동함으로써 또한 점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anzini & Savoia(2002), Platzack(2003, 2004) 등의 연구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EPP가 주어 인상과 동사 인상으로 만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 전반에서 이 D-자질이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았으며, 이후의 연구(Chomsky 2000, 2001)에서는 D-자질 대신 반드시 점검, 삭제되어야 하는 EPP 자질이 설정되었고, EPP를 시제핵과 관련된 잘 알려진 자질 중 하나로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요약하자면, 동사의 시제핵 인상과 주어의 시제구 지정어 인상을 동기화하는 시제핵 자질이 동일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질(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논의가 계속되어 온 셈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고대러시아어의 동사 이동과 어순 문제는 동사 인상과 주어 인상을 발생시키는 자질들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첫번째 문제와 관련된다.

### 2.2. 동사의 시제핵 이동 진단

다음은 동사 및 주어 논항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동사 어휘가 지니는 논항구조 투사에 따라 형성되는(① 포함)  $vP$ 로부터 아무런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외부논항(S), 동사핵( $v-V$ ), 내부논항(O)의 순서가 표층어순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시제핵(T)의 V-자질(또는 D-자질, 시제 자질, 일치 자질 등 이론에 따라 다름)이 강하다면 ①의 결과로 만들어진 복합 동사핵( $v-V$ )은 시제핵으로 이동하여 시제핵과의 핵어간 일치를 통해 시제 및 일치를 유효하게 된다(②). 그리고 시제핵이 강한 EPP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외부논항( $DP_{SUBJ}$ )이 시제구의 지정어(Spec,TP)로 이동하여 문법적 주어가 된다(③). 논리적으로 ②와 ③ 중 하나만 일어나거나 둘 다 일어나거나 둘 다 일어나지 않는 네 가지 유형의 언어를 상정할 수 있는데, 현대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③이 일어나고 ②는 조동사에 국한되며, 아일랜드어 같은 언어에서는 ②는 일어나지만 ③이 일어나지 않아 VSO어순을 이루게 된다(McCloskey 1991 등). 프랑스어 등에서는 ②와 ③ 모두 일어난다. ②, ③ 모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적어도 인도유럽어에서 보고된 바는 없는 것 같다.

특정 언어에서 ②와 ③의 유무는 구성소 간의 상대적 어순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동사의 시제핵 이동(②)은 위치가 고정된 다른 구성소와의 상대적 위치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Pollock (1989)은 문장부정어, 의미적으로 하위 스코프를 지니는 하위부사류(빈도부사: *often, frequently, rarely, always* 등; 양태부사: *deliberately, boastfully, intentionally, voluntarily, reluctantly, silently, impulsively* 등), 유동양화사 같은 구성소와 동사 간의 상대적 어순에 근거하여 동사의 이동을 진단했다(정보구조적으로 중립적 환경에서). 이러한 테스트에 근거할 때, 인도유럽어족에서 로맨스어는 통상 동사 이동 언어로 분류되는 반면, 게르만어족은 동사가  $vP$  안에 머무르는 제자리 동사(*V in situ*) 언어인 경우가 많다. (2-5)는 동사 이동 언어였던 고대영어와 제자리 동사 언어인 현대영어의 예이다.

(2)에 예시된 바와 같이 고대영어에서는 현대영어와 달리 의문문, 가정문, V2 구문에서 동사

가 주어보다 높은 문두 위치로 이동한다. 의문문, 가정문, V2 구문 공히 접속사핵(C)이 채워져야 하는 환경으로, 이 때 인상된 동사의 최종위치는 C이다. 그러나 동사핵 V가 C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핵어이동제한(Head Movement Constraint, Travis 1984)에 따르면 핵어는 상위 핵어를 건너뛰어 그보다 위의 핵어로 이동할 수 없다. 따라서 동사핵은 시제핵을 거쳐(②) 그 위의 접속사핵 C로 이동(④)하게 된다. 즉, 동사핵이 최종적으로 C에 위치했다는 것은 시제핵으로의 이동을 함의하는 것이다(cf. van Kemenade 1987, van Kemenade & Hulk 1990, Lightfoot 1990, Platzack 1990 등). 현대영어로 오면서 본동사의 C 이동 대신 조동사 *do*가 C에 삽입되면서 이들 환경에서 동사의 이동이 사라지게 된다.

(2) 동사-주어 도치

- a. **Seis<sub>v</sub> thou<sub>s</sub>** noght hir that sittis the besyde      [고대영어. Roberts 1993: 246]  
 seest though not    her that sits    thee beside
- b. Do you see her who sat beside you?      [현대영어]

이러한 도치는 *wh*-의문문에서도 발견된다.

- (3) a. Why **dryve<sub>v</sub> men<sub>s</sub>** dogges out of the chyrche?      [고대영어. Roberts 1993: 247]  
 why drive    men    dogs    out of the church
- b. Why do men drive dogs out of the church?      [현대영어]

부정문의 경우, 부정어구보다 아래에 투사되는 동사구로부터 동사핵이 부정어핵의 위에 투사되는 시제핵으로 이동함으로써 동사가 부정어보다 앞서는 어순이 만들어진다. 현대영어에서는 시제핵에 *do* 조동사가 삽입되면서 본동사는 부정어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4) 부정어-동사

- a. Weeping and teres **countforteth<sub>v</sub>** not<sub>NEG</sub> dissolute laghers.      [고대영어. Roberts 1993: 250]  
 weeping and tears comfort    not    dissolute laughers
- b. Weeping and tears do not comfort dissolute laughers.      [현대영어]

통사적으로 동사구 바로 위에 위치하는 양태, 빈도 부사나 유동 양화사는 현대영어에서는 반드시 동사에 앞서지만 고대영어에서는 동사 뒤에 나타날 수 있다. (5a)의 ‘부사-동사’ 어순은 부사구 아래의 동사구로부터 동사핵이 부사구 위의 시제핵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5) 하위부사-동사

- a. The Turks ... **made<sub>v</sub> anone<sub>ADV</sub>** redy a grete ordonnaunce.      [고대영어. Roberts 1993: 253]  
 the Turks    made soon    ready a lot of weapons
- b. The Turks (soon) made (\*soon) a lot of weapons (\*soon) ready. [현대영어]

### 3. 고대러시아어의 동사 이동 유무

(2-5)와 동일한 테스트를 적용했을 때, 현대러시아어는 동사의 시제핵 이동이 없는 제자리 동사 언어로 분류된다(Bailyn 1995; Slioussar 2007, 2011; Dyakonova 2009; Jung 2011). 그렇다면 고대러시아어의 경우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고대영어의 어순(2a, 3a, 4a, 5a)과 유사한 현상이 고대러시아어에서도 나타나는지 위에서 언급한 코퍼스를 살펴보았다. 먼저 필자가 사용한 고대러시아어 코퍼스에서는 사실상 유동양화사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를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한편, 부정어의 경우 슬라브어에서는 부정어 표지(*ne*)가 로맨스어나 게르만어와 달리 부정어구의 지정어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부정어구의 핵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동사가 이동할 때 복합핵어 ‘부정어-동사’ 단위를 형성하여 동반이동하게 되므로(Zanutini 1997; Zeijstra 2004) 동사 이동의 준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주어와 동사간 도치 여부와 하위부사-동사 어순은 검증가능했다. 이 준거 외에 고대러시아어에 대해 공백화(gapping) 구문의 존재와 제자리 조동사(*Aux in situ*)라는 준거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 3.1. 부사, 동사간 어순

먼저 고대러시아어 텍스트에 나타난 부사와 동사 간 어순을 살펴보자.

자작나무 문서에서 동사는 하위부사를 선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하위부사는 동사에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6a) 예문은 관계대명사를 포함하고 있기에 문두 화제 부재가 통사적으로 확인된다. (6b)의 예문에서 동사 *budu*는 선행 문장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정보 초점일 수 없으며 문두 화제 위치는 1인칭 대명사 *ę*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사-동사’의 어순은 특별히 정보구조에 의해 영향받지 않은 기저 어순으로 보인다. (6c)의 경우 외현적 대명사 주어 *ę*이 화제자리를 차지하고 조격구 *cerenicami*가 문미의 초점을 차지하고 있는 문장이므로 문장 중간의 부사와 동사의 어순은 기저 어순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6) a. ketъ ti **въгъѣже**<sub>ADV</sub> **poidetъ**<sub>V</sub> въ гъгъдъ k(ъ) тѣму же pristavi kъне...

‘the one who arrives the city the earliest, to that one hand over the horse...’

[BBL 891, Zaliznjak 2004: 314]

b. as ti ospodine budu a **ę borzo**<sub>ADV</sub> **буду**<sub>V</sub>

‘I, Lord,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soon.’

[BBL 131, Zaliznjak 2004: 620]

c. a **ę nугene**<sub>ADV</sub> **pecaluse**<sub>V</sub> cerenicami...

‘I am deeply concerned about the Černici.’

[BBL 717, Zaliznjak 2004: 396]

필자가 살펴본 연대기 텍스트에서는 하위부사가 사용된 예가 별로 많지 않았다. Borkovskij (1949: 390)에 따르면 고대러시아어에서 동사에 후행하는 형용사 파생 하위부사는 강조적 해석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즉, 동사 후행 위치는 정보구조에 의한 파생된 위치이며 기저 위치는 동사에 선행하는 위치라는 것이다. 이것만을 가지고 본다면 자작나무 문서와 유사한 패턴이라 여겨지지만, Turner(2007: 1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바로 같은 연구에서 Borkovskij(1949: 330)는 동사 앞으로 전치된 목적어 또한 강조적 해석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7)과 같은 예문에서 모순을 보이게 된다.

(7) *jazь Fedotь toi loskutь zemli<sub>o</sub> otvelь jesmь čisto<sub>ADV</sub> sv'atomu Nikoli i věky.*

‘I, Fedot, have given that strip of land over entirely to [the monastery of] St. Nikola in perpetuity.’

[Borkovskij 1949: 330]

또한, 연대기 전체에 걸쳐 동사가 문두에 오는 어순이 압도적이기 때문에(3.2절 참조) 동사가 두번째 위치에 오는 경우라 할지라도 문두에 오는 것은 시공간 고정의 역할을 하는(일종의 화제) 처소나 시간 부사구(주로 전치사구)이며 양태나 빈도부사가 동사 앞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 3.2. 주어, 동사간 도치

고대러시아어 텍스트에서 주어와 동사간 순서를 조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시제 *be*-조 동사 접어가 사용되는 경우 문장의 제2위치에 오게 되며 대명사 주어가 필요할 경우 영주어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I*-완료 시제에서는 접속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사가 문두에 나오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즉, ‘분사-조동사-목적어’ 같은 어순). 이런 문장에서는 동사가 어느 위치로부터 도치된 것인지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어, 동사간 도치를 보기 위해서는 완료시제를 제외한 동사형과 고유명사나 일반명사가 사용된 3인칭 주어가 결합된 단순시제 구문을 살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문을 주로 살펴보았다.

고대영어의 경우 의문문, 가정문, V2 환경에 한정된 도치였지만, 사실상 동사의 이동이 이러한 환경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일랜드어에서는 평서문에서 동사핵이 시제핵으로 인상되고 주어가 동사구 내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VSO 어순이 나타난다.

자작나무 문서 텍스트에서는 현대어와 유사하게 ‘주어-동사’의 어순이 평서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8) a. *A gospodarь<sub>S</sub> vь ne težě ne dčē<sub>V</sub>.*

[BBL 247, Zaliznjak 2004: 239]

‘The host does not prosecute because of this.’

b. a **měšteta**<sub>S</sub> sę vama **poklane**<sub>V</sub>.

[BBL 422, Zaliznjak 2004: 297]

‘and Mest’ata salutes to you two.’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대기에서는 ‘동사-주어’의 어순이 ‘주어-동사’의 어순보다 훨씬 더 자주 나타난다. 특히나 노브고로드 연대기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어순은 타동사, 비능격 동사, 비대격 동사 모두 나타나기에 내부논항이 주어가 되는 경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다음은 모두 노브고로드 연대기에서 가져온 예시들로, ‘동사-주어’ 어순을 가지고 있다.

(9) a. 타동사

Vъ lęto 6850. **Prislaša**<sub>V</sub> **pleskovicis** **posly**<sub>O</sub> k Novgorodu sъ poklonomъ «idet na nas ratъ nęmečkaja...»

‘In the year of 6850. Pleskovicci sent delegates to Novgorod with respect «German army is coming for us/invading us...»’

b. 비대격 동사

Vъ lęto 6657. **Ide**<sub>V</sub> **arxepiskorpъ novgorodъskyi** **Nifont**<sub>S</sub> vъ Rusъ.

‘In the year of 6657. Novgorodian Archbishop Nifont came to Rus’.’

c. 비능격 동사

Vъ lęto 6675. **Sede**<sub>V</sub> **Mъstislav Iz’aslavicъ**<sub>S</sub> Kyeve na stolę.

‘In the year of 6675. Mstislav Izjaslavič was sitting on the throne (reigned).’

연대기 기술에서는 먼저 연대를 나타낸 다음 그 해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재한다. 이러한 서술에서 적어도 연대 서술 직후의 문장은 사실상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의 대답에 해당하는, 전체가 새로운 정보 초점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9a-c)와 같은 문장들은 독립적 어순을 가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압도적으로 ‘동사-주어’ 어순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이 기본 어순임을 지시한다. Turner(2007: 129)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문두 동사 뒤에 바로 따라오는 구성소는 주로 주어이다((9a)의 타동사 예문에서 목적어는 주어 다음에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순은 연도 기술 후 첫 문장에서뿐 아니라 연대기 각 단락 전체에 걸쳐 가장 많이 사용된다.

Borkovskij(1949)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대러시아어 어순 연구자들은 고대러시아어에서 ‘주어-술어’ 어순이 기본어순이 되며 이로부터 정보구조에 따라(술어가 화제가 되거나 주어가 신정보 초점이 되는 경우) 구성소의 이동으로 인해 ‘술어-주어’ 어순이 파생된다고 보았다(Borkovskij 1949: 132-142, 330, 384-390; Borkovskij & Kuznecov 1963: 358-364; Korobčinskaja 1955: 74-79; Obnorskij 1946: 179-180; Stecenko 1977: 48-4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고대러시아어 코퍼스에서 기본어순보다 파생된 어순이 훨씬 더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과 배치된다. 이 문제는 Borkovskij & Kuznecov(1963: 358-360)에서도 명시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King(1995)과 Turner(2009)는 현대러시아어의 기본어순을 VS(O)로 설정하고 화용적 이동으로 SV(O)의 어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현대러시아어에 있어서는 통계적, 정보구조 해

석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고대러시아어의 경우에는 상정해 볼 만한 가설이다(cf. Turner 2007: 116–117). 평서문에 VSO의 기저구조를 상정할 때, 주어가 화제화 등 강조적 해석을 받는 경우에만 ‘주어-동사’의 어순이 표층에 나타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동사-주어’의 어순이 상용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7=10)의 예문에서는 1인칭 주어가 맨 앞에 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대러시아어 문헌에서 1, 2인칭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영주어의 사용이 무표적이며 (10)과 같이 외현적 대명사가 사용된 경우는 주로 화제로 강조적 해석을 받는다. 이는 (10) 예문의 해석에서도 잘 드러난다.

- (10) *jazъ Fedotъ toi loskutъ zemli<sub>O</sub> otvelъ jesmъ čisto<sub>ADV</sub> sv'atomu Nikoli i věky.*  
 ‘I, Fedot, have given that strip of land over entirely to [the monastery of] St. Nikola in perpetuity.’  
 [Borkovskij 1949: 330]

2절에서 살펴본 구성소의 통사적 이동 메커니즘에 비추어 볼 때, VSO의 어순은 주어가 *vP* 내의 제자리에 머무는 한편 동사핵이 시제핵으로 이동함으로써 나타난다. 고대영어의 경우 동사의 시제핵 이동은 동사핵이 접속사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만 일어났지만 고대러시아어의 경우에는 시제핵 이동이 항시적으로 평서문에서 일어나며 이는 강한 시제핵 자질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대기 언어의 어순은 아일랜드어와 유사하다.

### 3.3. 조동사 접어의 위치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나 조동사가 동사구를 보어로 가지는 구성소임을 상기할 때, 정형 조동사가 시제핵으로 이동하지 않는 언어에서 정형 일반동사가 시제핵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비교언어학적으로, 조동사가 인상되지만 일반동사는 이동하지 않는 경우(영어, 세르브크로아티아어)와 둘 다 인상되는 경우(프랑스어, 불가리아어)는 관찰되지만 조동사는 인상되지 않고 일반동사만 인상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는다. 즉, 제자리 조동사는 곧 제자리 일반동사를 함의한다.

필자는 자작나무 문서에 나타난 *be*-완료조동사의 위치에 대한 이전 연구(정하경 2017)에서 고대러시아어에서 조동사 접어가 형태통사적으로 접어화 과정의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제2위치 접어인 대명사적 접어를 후행하는 조동사의 위치(11)는 조동사가 시제핵으로 인상되지 않고 제자리 즉 일종의 동사구인 *AuxP*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Tomić(1996), den Dikken(1994) 등 또한 현대세르브크로아티아어에서 제2위치 접어인 대명사적 접어를 후행하는 3인칭 단수 조동사 접어(*je*)가 시제핵으로 인상되지 못하고 제자리인 동사구 내에 머물러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 (11) *cemu mę jesi pogubili.*  
 why me<sub>ACC.ISG</sub> AUX<sub>2SG</sub> ruin<sub>PTCPL.M.SG</sub>  
 ‘Why did you ruin me?’ [BBL 272, Zaliznjak 2004: 587]



조동사가 동사구 내에 머물러 있다는 논증에서 중요한 요소는 제2접어 체계와 조동사 접어의 대명사적 접어 후행이다. 필자가 연구한 자작나무 문서 코퍼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기에 조동사가 조동사구(AuxP)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정형 일반동사 또한 동사구 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연대기 텍스트를 대상으로는 조동사 위치를 아직 면밀히 검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특정한 결론을 내릴 입장에 있지 않지만, 적어도 제2접어 체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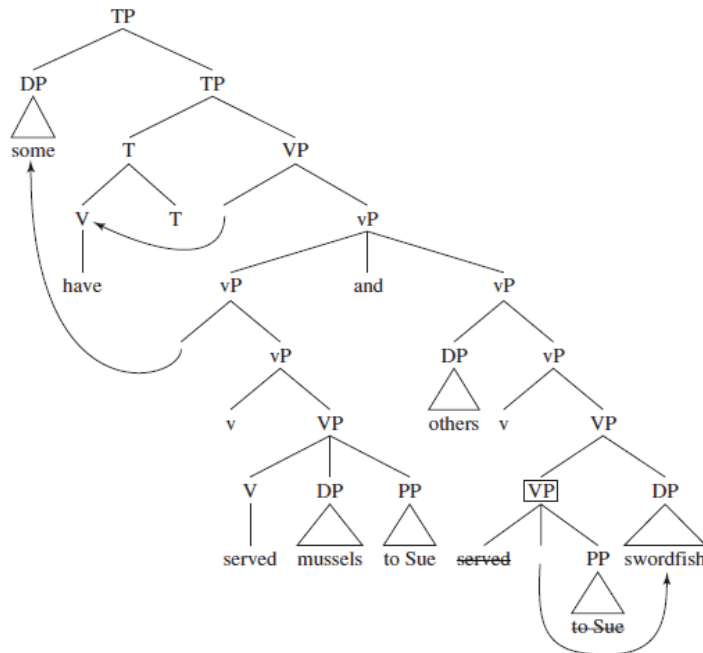
### 3.4. 공백화(gapping) 구문

공백화 구문이란 (12a-b)와 같이 접속된 두 문장 중 두번째 문장에서 대조적 초점을 받는 구성소만을 남기고 동일한 정형동사와 그 부속어들을 생략하는 현상을 말한다.

- (12) a. Some have served mussels to Sue and others (have served) swordfish (to Sue).
- b. Some will eat beans and others (will eat) 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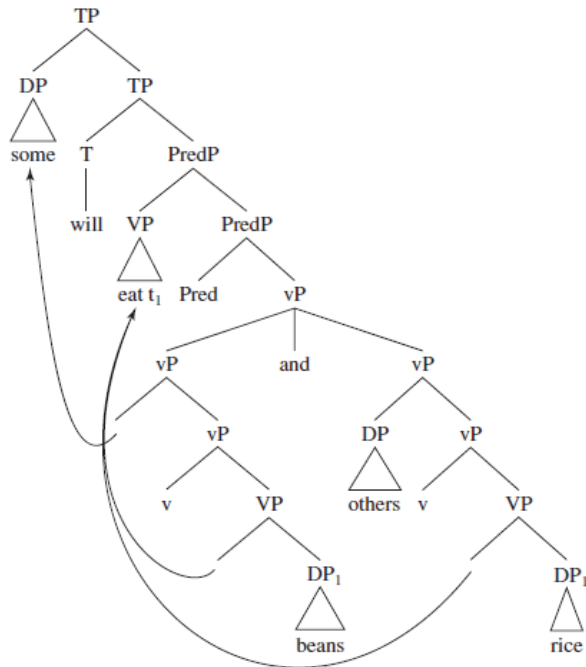
공백화 구문의 통사적 파생에 대한 설명으로는 Ross(1967), Sag(1976)이 처음으로 제안한 동사구 삭제(VP-deletion) 이론과 Johnson(1996)이 주장한 전역규칙(Across-The-Board: ATB) 동사 이동 접근이 대표적이다. 두 이론은 각각 (13)과 (14)와 같이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13) 동사구 삭제(네모칸 안 VP 생략)



[Johnson 2009: 295]

(14) ATB 동사 이동



[Johnson 2009: 307]

두 이론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은 본 연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동사의 이동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ATB 이동 접근보다 동사구 삭제 이론을 택한다면, 공백화 구문을 동사의 시제핵 이동 여부 진단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Coppock(2001)에 따르면 동사의 시제핵 이동은 동사구 생략 가능성과 연관된다. 동사의 시제핵 이동이 일어나는 언어인 프랑스어와 그리스어에서 동사구 생략이 불가능하며 동사의 시제핵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언어인 영어에서는 가능하다.

자작나무 문서에서는 (12a, b)에 상응하는 공백화 구문(15)이 발견된다. 이는 곧 자작나무 문서에 반영된 문법이 동사의 시제핵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15) jęźb tębe xocju a ty mene.  
 ‘I want you and you me.’

[BBL 377, Zaliznjak 2004: 494]

연대기에서는 (15)와 같은 공백화 구문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것이 단지 우연인지 기저 문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고대러시아어의 동사 이동 유무와 그 통사적 함의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종합해 보자면, 적어도 자작나무 문서 코퍼스가 반영하고 있는 고대러시아어 문법에서는 동사의 이동 부재가 확실히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구조 중립적 맥락에서 보편적인 어순은 ‘주어-동사’이며, 동사는 하위부사에 후행한다. 정형 조동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형 일반동사 또한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하며, 이 코퍼스에서 발견되는 공백화 구문 역시 동사의 시제핵 이동의 부재와 연관될 수 있다.

연대기 언어를 볼 때, 확실한 것은 ‘동사-주어’의 어순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동사-주어’ 어순의 연대기와 ‘주어-동사’ 어순의 자작나무 문서의 차이는 방언적 차이인가, 아니면 구어와 문어간의 차이인가? 통사적 자질에 있어서 자작나무 문서 코퍼스는 단일하고 일관된 문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대기와 같이 고대교회슬라브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고대러시아어 텍스트는 고대교회슬라브어의 문법 경향과 자작나무 문서 코퍼스에서 발견되는 문법 경향을 혼합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가령, 부정어의 통사적 위치에 있어서 자작나무 문서 코퍼스는 현대러시아어로 이행되는 단일한 문법을, 연대기 등 기타 고대러시아어 문헌은 이 문법 외에 고대남슬라브어의 문법을 가지고 있다[Jung, forthcoming]). 연대기 언어의 혼합적 양상은 상이한 두 문법의 혼재, 공존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작나무 문서 코퍼스에 반영된 시제핵 자질이 약하여 동사의 이동을 유발하지 않는 문법과 시제핵 자질이 강하여 동사의 이동을 유발하는 문법 간의 경쟁으로 분석가능하다(Kroch 1989, 1994; Lightfoot 1999).

현대러시아어의 구성소 이동에 대해서 최근에 지지되는 견해는 제자리 동사와 주어의 시제구 지정어 이동을 상정하는 것이다. (16)와 같은 무인칭 구문의 경우에는 영어 등에서 상정되는 외현적 허사 영주어 대신 비외현적 허사 영주어가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Slioussar 2011). 결국 현대러시아어는 시제핵 자질이 약하여 동사의 이동을 유발하지 않는 문법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16) ø Temneet.

‘It’s getting dark.’

그렇다면 어순에 있어서 현대러시아어와 동일한 것은 자작나무 문서의 어순 패턴이다. 만약, 연대기에 나타난 이중적 문법이 문법경쟁을 통해 현대러시아어의 어순 패턴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한다면, 기본어순 VSO로부터 주어 화제화에 의해 SOV 어순이 파생되는 문법으로부터 중립적 정보구조에서 SVO를 기본어순으로 가지는 문법으로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화제화된 명사구가 시제구 지정어에 위치하는 주어로 재해석되는 보편적인 문법화 현상(Li & Thompson 1976; Givón 1976, 1979; Shibatani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작나무 문서 코퍼스에서 영주어가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상기할 때, 이 코퍼스에

반영된 문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Alexiadou & Anagnostopoulou(1998)와 같은 방식의 EPP를 상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Alexiadou & Anagnostopoulou 는 곡용된 동사의 인상이나 외현적 주어의 인상 중 하나로 EPP가 만족될 수 있다고 했으며 따라서 영주어가 사용되거나 외현적 주어가 있더라도 시제구 지정어로 인상되지 않을 때는 동사의 시제핵 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자작나무 문서 코퍼스에 나타나는 문법에서는 외현적 주어와 동사 인상 둘 다 부재하다. 만약, 영주어에 대해 비외현적인 대명사인 *pro*의 존재를 상정하고 이것이 영주어 구문에서 주어 자리(Spec,TP)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EPP는 결국 Chomsky(1995)의 원 버전에 가까운 방식, 즉 주어 인상으로 만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대기에서 압도적으로 보이는 ‘동사-주어’ 어순에 반영되는 문법이 동사의 시제핵 이동과 제자리 주어(동사구 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때, 이 문법은 Alexiadou & Anagnostopoulou 식의 EPP 개념에 부합한다. 영주어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동사가 시제핵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동사가 시제핵의 EPP 자질을 만족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자작나무 문서 코퍼스와 몇몇 연대기 데이터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헌적 증거에만 의존하는 역사언어학 연구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가설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연대기와 자작나무 문서가 상이한 문법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대러시아어가 자작나무 문서의 상황과 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상기할 때, 자작나무 문서에 반영된 동사 이동 부재라는 통사적 자질이 방언적 특징이라기 보다는 구어적 자질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 참고문헌

- 정하경. 2017. 고대북부러시아방언 be-조동사의 접어 분석 비판. *슬라브어 연구*, 22권 2호, 119-135.
- Alexiadou, A. and E. Anagnostopoulou. 1998. Parametrizing AGR: word order, V-movement and EPP-checking.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6, 491-539.
- Bailyn, J. 1995. A configurational approach to Russian 'free' word order. Ph.D. diss., Cornell University.
- Borkovskij, V. I. 1949 *Sintaksis drevnerusskix gramot. Prostoe predloženie*. L'vov: Izd.-vo L'vovskogo gosudarstvennogo universiteta.
- Borkovskij, V. I. and Kuznecov, P. S. 1963. *Istoričeskaja grammatika russkogo jazyka*, Moskva: AN SSSR.
- Chomsky, N.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Cambridge, Mass.: MIT Press.
- \_\_\_\_\_.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_\_\_\_\_.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eds. R. Mart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_\_\_\_\_. 2001. Derivation by phase. In *Ken Hale. A Life in Language*, ed. M. Kenstowicz,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oppock, E. 2001. Gapping: In defense of deletion. In *Proceedings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37*, eds. M. Andronis, C. Ball, H. Elston, and S. Neuvel, 133-148.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 den Dikken, M. 1994. Auxiliaries and participles. In *Proceedings of NELS 24*, 65-79. GLS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Dyakonova, M. 2009. A phase-based approach to Russian free word order. Ph.D. diss., University of Amsterdam.
- Givón, T. 1976. Topic, pronoun, and grammatical agreement. In *Subject and Topic*, ed. C. N. Li, 149-188.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Johnson, K. 1996/2004. In search of the English middle field.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_\_\_\_\_. 2009. Gapping is not (VP-) ellipsis. *Linguistic Inquiry* 40(2): 289-328.
- Jung, H. 2011. *The Syntax of the Be-Possessive: Parametric Variation and Surface Diversities*. Amsterdam: John Benjamins.
- \_\_\_\_\_. forthcoming. Different loci of NegP in Old Slavic. In *Proceedings of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27*.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van Kemenade, A. 1987. *Syntactic Case and Morphological Case in the History of English*. Dordrecht: Foris.
- van Kemenade, A. and A. Hulk. 1990. Licensing V2, case systems and pro-drop.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Generative Diachronic Syntax Conference, University of York.
- King, T. H. 1995. *Configuring Topic and Focus in Russian*. Stanford: CSLI.
- Korobčinskaja, L. A. 1955. Funkcija por'adka slov v drevnerusskom jazyke. *Voprosy russkogo jazykoznanija* 1, 73-85. L'vov.
- Kroch, A. 1989. Reflexes of grammar in patterns of language change. In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 199-244.

- \_\_\_\_\_. 1994. Morphosyntactic variation. In *Proceedings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30*, vol. 2, 180–201.
- Li, C. N. and S. Thompson.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Subject and Topic*, ed. C. N. Li, 457–489. New York: Academic Press.
- Lightfoot, D. 1990. Old heads and new heads. In *Generative Linguistics of the Old World: Studies for Henk van Riemsdijk*, eds. J. Mascaró and M. Nespór. Dordrecht: Foris.
- \_\_\_\_\_. 1999. *The Development of Language: Acquisition, Change and Evolution*. London: Blackwell.
- Manzini, M. R. and L. Savoia. 2002. Parameters of subject inflection in Italian dialects. In *Subjects, Expletives, and the EPP*, ed. P. Svenonius, 157–2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Closkey, J. 1991. Clause structure, ellipsis and proper government in Irish. *Lingua* 85, 259–302.
- Meyer, R. 2011. The history of null subjects in North Slavonic: a corpus-based diachronic investigation. Habilitation Thesis, University of Regensburg.
- Obnorskij, S. P. 1946. *Očerki po istorii russkogo literaturnogo jazyka staršego perioda*. Moskva: AN SSSR.
- Platzack, C. 1990. The loss of V2 in English and French. Talk given at the First Generative Diachronic Syntax Conference, University of York.
- \_\_\_\_\_. 2003. Agreement and null subjects. *Nordlyd. Tromsø University Working Papers on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31, No. 2: *Proceedings of SCL 19*.
- \_\_\_\_\_. 2004. Agreement and the person phrase hypothesis. *Working Papers in Scandinavian Syntax* 73, 83–112.
- Pollock, J.-Y.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365–424.
- Roberts, I. 1993. *Verbs and Diachronic Syntax: A Comparative History of English and French*.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Ross, J. R.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Ph.D. diss., MIT.
- Sag, I. A. 1976. Deletion and logical form. Ph.D. diss., MIT (Published in 1980, New York: Garland Publishing)
- Shibatani, M. 1991. Grammaticalization of topic into subject. In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 II. *Focus on Types of Grammatical Markers*, eds. E. Traugott & B. Heine, 93–134. Amsterdam: John Benjamins.
- Slioussar, N. 2007. Grammar and information structure: A study with reference to Russian. Ph.D. diss., Utrecht University.
- \_\_\_\_\_. 2011. Russian and the EPP requirement in the Tense domain. *Lingua*, 121, 2048–2068.
- Stecenko, A. N. 1977. *Istoričeskij sintaksis russkogo jazyka*. Moskva: Vysšaja škola.
- Tomić, O. 1996. The Balkan Slavic clausal clitic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4, 811–872.
- Travis, L. 1984. Parameters and effects of word order variation. Ph.D. diss., MIT.
- Turner, S. 2007.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ent order in early East Slavonic sources. *Russian Linguistics* 31, 113–135.
- \_\_\_\_\_. 2009. Russian as a VS Language. *Canadian Slavonic Papers* 51(4): 525–546.
- Zaliznjak, A. A. 2004. *Drevnenovgorodskij dialekt*. Moskva: Jazyki slavjanskoj kul'tury.
- Zanuttini, R. 1997. *Negation and Clausal Structure. A Comparative Study of Romance Langu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Zeijlstra, H. 2004. Sentential negation and negative concord. Ph.D. diss., University of Amsterdam.

# 소비에트 표기체 제정 역사 1

정경택 (경상대)

## 1. 서론

러시아의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카자흐 스텝, 중앙아시아지역, 캅카스, 그리고 북방 지역에서 여러 문자의 선택과 사용 문제는 문자해독능력(문해력, 식자력)이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던 민족들에게서, 민족적 자각의 형성 과정에서, 그리고 문화적 자치 요구 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또한 러시아제국 이후 소련정부가 취한 새로운 문자의 제정이나 기존문자의 변형 시도는 대개 피지배 민족의 동화와 러시아화를 위한 도구로서 평가되었다.

특히 가혹하고 강제적인 문자 도입으로 인한 문제가 1920년대 초 일련의 투르크민족들에게 발생했고 민족주의 엘리트들은 이 문제를 개인이 각각의 언어의 특징에 따라 조정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1920년대 말 지역에서 채택한 문자의 모색과 결정이 아닌 모스크바, 공산당중앙위원회(ЦК КПСС)로부터의 강제적인 지령이 여러 민족에게 어떤 문자가 채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했다.

소련 당시 민족들이 사용했던 문자 체계는 다양했는데, 캅카스와 중앙아시아의 일부민족은 고도로 발달하고 정밀하게 다듬어진 표기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북방민족 대부분은 표기체를 갖지 못했다.

소련 정부는 표기체제정과 선택 문제의 정치적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라틴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라틴화는 민족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인식되었고, 토착화 정책에 전혀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혁명 후 성공 초기(1918-1924년) 연방정부가 지역어 지위의 기능 확장, 지위향상 및 단일한 범 연방 언어로서 러시아어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지역어들에 맞는 표기체 제정이 필요했다.

둘째, 라틴화는, 거대하지만 하나의 국가의 많은 민족들의 접근, 통합을 지원했고 외부 세력(터키 중심의 이슬람)을 차단해 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라틴화는 모든 소비에트 민족을 언어와 문화적 관계에서 유사한 모든 비 소비에트 민족으로부터 분리하고 단절시켜줄 수 있었는데 이는 바로 정부의 정치적 목표에 합당한 것이었다.

셋째, 공산당 지도부는 아주 오랜 동안 10월 혁명을 세계혁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신중하게 기대하고 이를 준비했다.<sup>1)</sup>

넷째, 이념적인 원인으로 당시 공개적인 대 종교 투쟁이 전개되었고 여기서 이 라틴화가 극히 적절했다. 이 개혁은 우선 포볼지예(Поволжье), 중앙아시아, 캅카스의 타지크인과 투르크 제 민족에게서 추진되었다. 라틴화는 아랍문자의 지위, 이의 교육과 확장과 관련된 이슬람, 이슬람 성직자들, 그리고 제도 격멸을 의미하는 것이다.<sup>2)</sup>

다섯째, 인쇄술과 교육 부문에서 라틴화가 기술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언어의 고유한 음성적 구조를 개혁된 아랍문자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2. 본론

### 1. 야날리프(신 투르크 문자)

이렇게 표기체 변화는 소련 내의 무슬림 투르크민족과 여타 민족들과 해외의 이들 교포들에 의해 형성되는 정치적 연대를 격렬시키고 동시에 문맹 투쟁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통일과 소련의 러시아인들과 여타 민족들의 긴밀한 결합, 즉 러시아화의 수단으로서 간주되었다.

20-30년대 소련의 상황에서 정치-문화적 양상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많은 민족들에게 새로운 사회 구조로의 전환은 유럽화와 관련된 문화적 지향의 전환을 동시에 의미했다. 이런 전환에 대한 여러 다른 관계는 여러 유형의 표기체 지향과 긴밀히 연관되어있었다.

20년대 소련의 많은 언어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의 표기체를 가질 수 있었다:

1) 혁명전까지 약 16개 언어에 사용된 전통적인 아랍문자;

---

1) 소련 제 민족 언어들의 라틴화도 이런 준비 단계의 하나였는데, 2004년 학술원 동방연구소 보고서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는 신속한 세계혁명의 기대와 결부되었고 이 세계혁명 이후 전 세계에서 단일한 문자가 도입되고 이후 단일언어가 도입되어야 한다. 표기체의 선택은 거의 언제나 국가와 교육받은 주민의 문화적, 정치적 지향과 결부되어있다. 1920년대 라틴화된 투르크문자를 10월 혁명의 문자(алфавит Октября),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도구(орудие пролетарской революции)로 불렀다...».

2) 그러나 1930년대 말부터는 이 라틴문자의 키릴문자의 전환이 추진되었는데 소련 모든 민족들이 하나의 통일된 표기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 1928년 라틴문자로 전환한 터키로부터의 소위 범투르크주의를 경계, 차단해야했기 때문이었다.



- 2) 카자흐어의 바이투르순 유형의 변형 아랍문자;
- 3) 라틴문자;
- 4) 키릴문자;
- 5) 그 외의 전통적 표기체<sup>3)</sup>

소련에서는 1922-40년 사이에 뽀볼지예의 독일인들(쁘리드네스트르지역의 몰도바인들은 루마니아어로 읽고 쓸 수 있었지만 대개 표기체를 가지지 않았거나 키릴만을 알고 있었다)을 제외하고는 확고한 라틴 표기체를 가진 언어들은 없었다.

당시 키릴문자가 널리 확산되어있었는데,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외에 정교로 개종한 비 슬라브민족인 추바쉬인, 모르도바인, 코미인 등이 19세기부터 키릴문자를 가지고 있었다.

라틴문자에 기반을 둔 표기체제정 시도도 있었는데, 아제리어의 라틴화의 문제가 이미 1906년에 대두되었고 혁명 바로 전 야쿠트어를 위한 라틴문자 기반의 표기체를 제정하기도 했지만 1917년까지 커다란 발전을 거두지는 못했다.

20년대 소련에서는 아랍문자기반의 표기체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아랍 표기체는 가장 보수적인 변이형태로 구식 문화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고 언어학적으로 불편했다. 오직 전통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직자들만이 지지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세속적이고 유럽화된 인텔리인 무슬림 개혁론자(Джадид)들은 아랍문자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지배적이었던 고대몽골어 표기체도 거부되었다.

또한 20년대에 절대 다수의 민족들은 키릴문자를 거부했다. 우선 아랍문자를 가지거나 표기체를 갖지 못한 민족들이 키릴을 거부했다. 이의 원인은 러시아제국 식민주의의 좋지 못한 기억, 즉 투르크 민족들(좁게 보면 투르케스탄인들)과 북방민족들은 러시아화와 이 러시아화의 수단인 즉 정교회 선교사의 러시아어 성경 강요에 대한 적대감인데, 이는 민족적 박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미 키릴문자를 사용하고 있던 지역에서는 그러한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로 러시아화가 강력하게 추진된 모르도바인과 추바쉬인 그리고 집시와 앗시리아인들처럼 영주지가 없던 민족들이었다.<sup>4)</sup>

대체적으로 20년대 중반까지 개혁된 아랍문자 변형체가 가장 전망 있는 절충적인 변형체였다. 이들 변형체들은 많은 민족들, 즉 유일하게 아제리인을 제외한 타타르, 바슈키르, 카자흐, 우즈베크, 키르기스인들이 제정했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이런 변형체들은 전통적인 문자와 비교하여

3) 부랴트와 칼마크어는 고 몽골 문자를 이디쉬어, 타트 및 부하라-헤브류어는 헤브류문자를, 그루지야어와 아르메니아어는 고유한 전통문자를 보유 Gr.문자는 압하스어와 오세티어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4) 이 당시 러시아화가 가장 심했던 야쿠트인들은 노브고로도프(Новгородов)가 만들어준 의 라틴문자를 쉽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1924년 일찍 사망한 노브고로도프의 개인적 권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라틴문자는 너무 복잡하여 여러 번의 철자법 변화를 겪었다.

진일보한 것이었고 특히 카자흐의 바이투르순 아랍문자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또한 문자해독력이 있는 타타르인이나 우즈베크인들에게서 이 변형체들은 심리적으로 라틴문자나 키릴문자보다 더 편리했는데, 단지 부분적인 재교육만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 변형체들은 아랍문자에 필연적인 종교적 색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많은 민족 공화국들에서 여러 시각의 사람들, 즉 Джадид로부터 일부 공산주의자들까지 새로운 아랍문자 지지자가 되었다. 공화국에서는 이런 상황의 영향 하에서 공화국들에서는 한때 언어 구축 활동가들도 이를 지지했다.<sup>5)</sup>

그러나 곧 바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살펴 본다.

최초의 라틴문자 표기체가 1923년 아제르바이잔에서 도입되었고, 이후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Российская Советская Федеративн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РСФСР)의 계몽인민위원회(Наркомпрос) 소수민족계몽특별위원회(Специ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росвещ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야날리프(яналиф, новый алфавит)로의 전환 주장이 소련의 모든 투르크민족에게 확산되었다. 1924년 모스크바에서 투르크민족라틴표기연맹(Ассоциация латинского шрифта для тюркских народностей, АСЛАТ)이 창설되어 범 투르크 총회(Общетюркский съезд)를 준비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26년 2월 아제리의 바쿠에서 1차 전연방투르크학 총회(Всесоюзный тюркологический съезд)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소련 투르크민족 대부분의 대표가 참가했다.<sup>6)</sup>

이 총회에서는 소련 투르크인들의 라틴 전환 가능성이 주요 논의 주제였는데, 이의 반대는 타타르와 카자흐대표로서 아제르바이잔의 경험이 신빙성이 없고 투르크민족에서 확산되지 못하고 기존의 아랍 문자를 개혁하는 방향을 취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라틴 지지자들이 총회의 다수로서 101명이 찬성했다.<sup>7)</sup>

이 총회 과정에서, 라틴기반의 표기체 도입을 위한 범 연방 차원의 기관 창설, 라틴 도입의 수준과 형태에 관한 민족공화국들 어려움을 감안, 소련 인민소비에트(Совнарком, 내각에 상당)가 재정지원을 하여 아제리의 라틴문자 전환 경험을 이용하기로 했다.

1927년 바쿠에서 신 투르크문자 전 연방중앙양위원회(Всесоюзный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нового тюркского алфавита)가 창설되어 이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34개 철자와 보조 기호로 구성된 야날리프 시안을 채택했고 마침내 1929년 8월 소련아랍표기체민족의 신 라틴문자법

5) 폴리바노프는 1922년 중앙아시아의 민족들이 너무 급격하게 전통과 단절하는데에 반대했고 이들 민족이 아랍표기체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여겼다. 3년 후 야코블레프(Н.Ф.Яковлев)는 아랍문자가 뿌리 내린 지역에서 아랍문자의 유지 가능성에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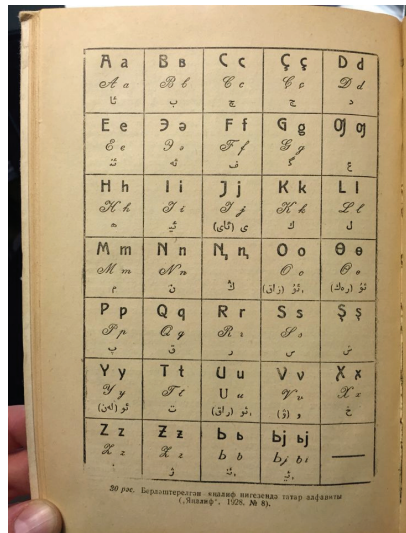
6) 이 총회에는 타타르, 카자흐, 우즈베크, 추바쉬, 북 캅카스 투르크, 시베리아, 야쿠티야의 대표단, 소련 학술원, 동방학술원 연맹, 우크라이나학술원, 자캅카스 동방학연맹, 터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란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총 131명에 달했다.

7) 총회에서 이루어진 논란은 기존의 시각과 문자의 라틴화 평가를 반영하고 있었는데, 라틴전환 반대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라틴전환이 무슬림들을 나머지 이슬람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이슬람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우려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키릴은 불가능, 키릴이 역사적으로 러시아제국의 민족정책과 결부되어 러시아화의 또 다른 지속이라고 우려했다.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новом латинизированном алфавите народов араб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Союза ССР”)이 채택되었다. 이는 라틴전환의 법적 기반이 되었는데, 이 법령에 따라 모든 투르크 및 타타르 주민들은 최단시간인 2년 안에 라틴화된 문자로 전환해야했고 모든 국가기관들과 범 연방 차원의 기업들이 아랍어 출판을 중지하고 라틴을 사용해야했다.

<야날리프>

(<https://i.pinimg.com/originals/a0/41/11/a04111b20f037a7ebf294ec9f9a51e41.jpg>)



1930년대 초까지 문자가 없었거나 다른 문자에 기반을 둔 문자를 가진 소련의 여타 민족들 (부랴트, 칼미크, 아씨르, 집시, 몰도바, 타트, 부하라-헤브류)의 대부분은 라틴문자로 전환되었다. 키릴표기 전통을 가진 포볼지예(Поволжье)와 표기체를 갖지 못한 북방 민족들의 라틴문자 전환이 시작되었다.8)

이렇게 처음부터 20년대 말까지 라틴화가 자발적으로 진행되었으나 30년대 초부터 기한 내의 라틴화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고 ВЦКНА의 출판물들에서는 라틴추진 전선에 대한 성공의 보고가 기록되었다. 라틴화 반대자들의 구금, 체포와 같은 억압적 조치를 비롯한 가혹한 정책과 억압에 있던 것은 아니었다.

라틴화는 당시 국제주의 이념을 가진 소련 사회 인식과도 일치한 것으로 특히 문맹과 전면적인 기초교육의 확장을 전제로 한 새로운 문화와 결합되었다.

라틴화 기간 중 가장 빠른 문맹타파가 이루어졌다.

8) 코미인들은 이미 완전히 라틴문자로 전환했으나 모르도바, 마리, 우드무르트인들은 라틴화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도 키릴문자를 고수했다.

## 2. 단일북방문자(Единый северный алфавит, ЕСА)

소련과 러시아에서 북방민족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3단계를 거쳤다:

1. 이들 언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 기간(1920년대 초-1930년대 중반);
2. 동화기간(195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3. 지원정책으로의 회귀(1980년대 말 이후).

1924년 6월 20일 북방관구 민족 협력위원회(Комитет содействия народностям северных окраин, Комитет Севера)이 창설되었는데, 이는 북방제어의 연구중심이자, 정부가 지역 내에서의 구체적인 언어정책수립을 위임한 주요기관이었다. 이 위원회는 1924-1935년 존속했고, 이 기간 토착북방인들과 이들의 문화, 언어에 대한 논의와 이들에 대한 통제조직에 대해 보수주의와 혁신주의 대립이 있었다.

보수주의자들이 언어와 민족적 다양성을 보전하고 외부영향으로부터 북방인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보호하려 했다면 혁신주의자들은 민족적 차이를 제거하고 모든 민족을 단일 소비에트 민족으로 융합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1931년 아랍문자의 라틴화 이후 예전에 문자가 없었던 북방, 캅카스, 중앙아시아 등의 소수민족을 위한 표기체가 갖추어졌는데, 이중에서 1930년대 제정된 시베리아와 소련의 극북 민족어, 즉 북방민족의 라틴기반 표기체가 단일북방문자이다.<sup>9)</sup>

아랍문자의 라틴화와 더불어 1920년대 표기체 없던 소수민족어들의 표기체 제정 과정이 진행되었다. 당시 북방 민족어들도 표기체를 갖지 못했다.

1926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이들 민족의 식자력(러시아어 포함)의 비율은 7.2%였다. 1920년대 중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여 몇몇 북방 민족어, 예를 들어 나나이어, 한트어로 된 최초의 교과서들이 출간되기도 했다.

제 민족어 표기체 제정의 체계적 작업이 1926년 시작, 당시 레닌그라드동방연구소에 북방학부(Северный факультет, 1930년부터 Институт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ИНС))가 창설되었고 1929년 이 학부의 대학생들과 교원들이 «Единый северный алфавит»를 완성, 북방 제 민족어 표기체에 사용되도록 했다. 이를 1929년 10월 이 학부위원회가 확정했고 이를 이용하여 학부에서의 교육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원안에 따르면 문자는 기본 32 철자와 변음부호로 구성되었다.<sup>10)</sup>

1930년 말 이를 개정, 북방과 극동 14개 민족어용 문자를 제정했고 1932년 학술적, 교육학적

9) 비록 19c말 정교회 선교사들이 몇몇 교육, 종교용 서적으로 이들 언어로 출간했지만 실제로 이들 표기체가 북방민족 가운데 확산되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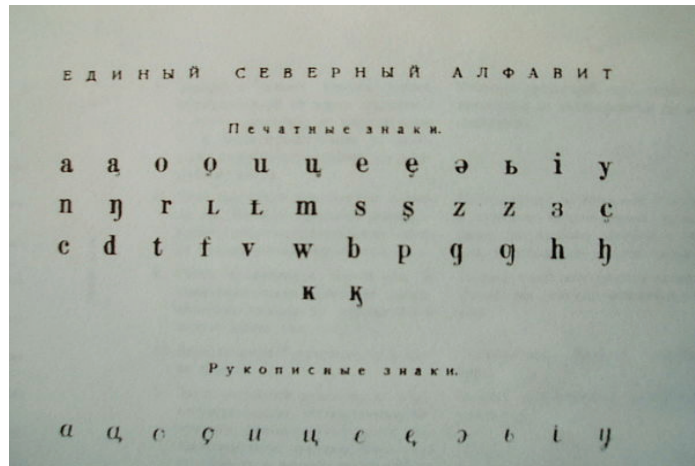
10) А а, В в, С с, Ç ç, 3 3, D d, E e, Ə ə, F f, G g, H h, I i, J j, K k, L l, M m, N n, D ŋ, O o, P p, Q q, R r, S s, Ş ş, T t, U u, V v, W w, X x, Y y, Z z, Ь ь.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개정했는데, 각각의 철자 형태를 다듬었고 문자의 철자 구성성분을 개선하여 사용 언어의 수를 16개로 늘려 사암, 네네쓰, 셀쿱, 만시, 한트, 에벤키, 에벤, 나나이, 우데게이, 이텔멘, 추코트, 코랴, 에스키모, 알류트, 케트, 니브흐 어에 사용하게끔 만들었다.

이들은 여러 다른 어족에 속했지만 단일 표기체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단일북방문자의 시안 중 하나>

(<https://cdn.turkaramamotoru.com/ru/edinyj-severnoy-alfavit-6084.jpg>)



1932년부터 단일북방문자로 발행된 교과문헌이 활발히 나오기 시작했고, 곧 다른 영역, 즉 아동 예술 및 사회-정치 문헌, 그리고 신문(러시아어 신문의 개별적인 쪽)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단일북방문자는 위 16개 언어 중 알류트어를 제외한 15개 언어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다.

1934년 모스크바의 북방민족표기체발전협의회에서는 북방민족문맹퇴치에서 단일북방문자가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 문자사용 초기부터 학생들에게 불편하다는 불만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은 모어의 라틴과 러어의 키릴 문자 두가지를 병행 구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1935년 6월 1일 소련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가 단일북방문자를 폐기하고 키릴로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키릴전환은 실제로는 1937년 2월 11일 민족소비에트의 결정과 1937년 3월 7일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 비준 후에야 시작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북방민족 16개 언어 중 13개 언어가 키릴로 전환하고 이텔멘어와 케트어, 알류트어는 표기체를 빼앗겼는데<sup>11)</sup>, 사암어와 우데게이어는 키릴전환은 명목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상 표기체가 없어지게 되었다.<sup>12)</sup>

11) 알류트어는 현재도 표기체를 갖지 못하고 있다.

12) 두 언어는 1970-1990년대에서야 키릴 표기체가 부활되었다.

### 3. 북방어의 표기체 변천

#### 3.1 우랄제어

1) 만시어(Мансийский) 표기체는 1932년 단일북방문자에 기반을 두고 제정, 1936-1937년 키릴기반 표기체로 전환했다. 80년대 초에 이루어진 표기체의 부분적인 개혁이 북방소수민족어 표기체 중 가장 성공적인 개혁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sup>13)</sup>

2) 한트어(Хантыйский) 표기체는 1932-33년 단일북방문자에 기반을 두고 제정, 1936-37년 키릴문자 표기체로 전환했다. 50년대 초 한트어의 슈르이슈카르 방언(Шурышкарский диалект)의 표기체가 제정되었고, 후에 초등학교용 среднеобский, сургутский, ваховский 방언으로 된 교과서가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중에서 슈르이슈카르 방언의 표기체만이, 비록 제한적인 형태인 학교 교육에서만이지만, 확고하게 기능하고 있다.<sup>14)</sup>

3) 사암(Саамский)어의 표기체는 1932-33년 단일북방문자에 기반을 두고 제정되었지만 1936년 이후 표기체의 기능 중단되었다가 80년대 초에 키릴기반 표기체의 사암어 교육문헌의 발행이 새롭게 부활되었다.<sup>15)</sup>

4) 네네츠어(Ненецкий)가 북방 민족 중 가장 수가 많은 민족 언어 중의 하나이고 여러 가지 언어사용영역에서 이 언어의 표기체가 확고하게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어의 기반이 되는 네네츠어, 특히 방언의 연구는 거의 되어있지 않다. 네네츠어 표기체는 1932-33년에 단일북방문자에 기반을 두고 창제되었고 1936-37년에 키릴기반 표기체로 전환되었다.<sup>16)</sup>

5) 셀쿱어(Селькупский) 표기체는 19세기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들이 몇 권의 서적과 철자책을 출간했을 때 뿌리를 두고 있다. 1932-33년에 단일북방문자에 기반을 둔 표기체가 제정되었고 1937년에 키릴문자기반 표기체로 전환되었지만 50년대 중반 셀쿱어 표기체는 기능이 정지되었다. 이때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셀쿱어의 학교 교육과 교과서의 출간도 오랜 기간 중단되었다.

13) 만시인 1926년 5,754명, 1939년 6,315명, 2002년 11,432명.

14) 한트인 1926년 22,306명, 1939년 19,160명, 2002년 28,678명.

15) 사암인 1926년 1,720명, 1939년 1,836명, 2002년 1991명.

16) 네네츠인 1926년 17,566명, 1939년 24,053명, 2002년 41,302명.

셀쿠프 표기체는 80년대에 타조프(Газовский) 방언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제되었고 현재 셀쿠프어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1986-88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셀쿠프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sup>17)</sup>

### 3.2. 퉁구스-만주 제어(Тунгусо-маньчжурские языки)

1) 에벤키어(Эвенкийский) 표기체가 성서의 에벤키어 번역과 관련하여 19세기 중반에 제정되었지만 이들 번역은 완성을 보지 못했다. 러시아 문자를 사용한 일정한 표기형태가 20세기 전반 에벤키어자료를 기록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에벤키어 표기체는, 비록 에벤키 문자 시안 중 하나가 1930년에 공표되었지만, 1932-33년 단 일북방문자 기반의 표기체의 제정에서부터 시작된다. 1936-37년에 키릴기반 표기체로 전환되었다. 에벤키어 표기체는 아주 확고하게 기능하고 있고 초기부터 에벤키어 문자와 정자법 규칙 전서도 출간되었다.<sup>18)</sup>

2) 최초의 에벤어(Эвенский) 표기체는 캄차가와 알류산 지역 베니아미노프(И.Вениаминов) 대주교의 주창에 따라 마태복음(Евангелие от Матфея)을 “퉁구스”어로 번역한 정교회 활동가들에 의해 제정되었는데, 사실상 이 언어는 에벤어 동부 방언 중 하나였다. 1858년에 기도서를 포함한 퉁구스어 철자 책이 출간되었고, 1859년 최초의 사전, 1880년 이전 필사본으로 교회에 보급된 마태복음 번역이 출간되었다. 에벤어로 된 마태복음이 1984년 부다페스트에서 재출간 되었다.

1920년대 말 북방지역 학교 활동이 중앙기관의 문자 제정과 교과서의 출간 활동보다 컸고, 하바롭스크 크라이의 아르킨 학교(Аркинская школа) 교사 트카치(Н.П.Ткачик)이 키릴기반의 에벤어 문자를 제정했다. 1932년에 최초의 에벤어 철자 책이 출간, 이 책에서는 라틴에 기반을 둔 철자(단일북방문자의 변형)가 사용되었다. 1936-37년 라틴문자에 기반을 둔 이 문자는 공식적으로 키릴기반 표기체로 교체되었지만, 두 표기체가 1935-39년 기간 병용되고 있었다.<sup>19)</sup>

17) 셀куп인 1926년 1,630명, 1939년 6,441명, 2002년 4,249명.

18) 에벤키인 1926년 38,746명, 1939년 29,666명, 2002년 35,527명.

19) 키릴에 기반을 둔 에벤어 표기체를 역사를 보면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1937년 레빈(В.И.Левин)이 제시하고 한 교과서에서 사용된, 키릴기반의 에벤어 표기체와 자형 규범은 1938년에 바뀌었고, 1940년에 키릴기반의 세 번째 에벤어 표기체가 제안되었다. 1937년 레빈 표기체가 현대 에벤어 표기체와 가까웠다면 1940년부터 1954년까지 쓰인 표기체는 마태복음 번역에서 사용된 에벤어 키릴의 일반적인 규범을 보여주었다. 1952년 북방민족어협의회(Совещание по языкам народностей севера)에서 에벤어 표기체 개혁 문제가 대두되어 1954년 표기체 철자의 부분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1958년에 현대 에벤어 표기체가 채택되었지만 1954-1958년에 사용된 이전의 에벤어 표기체와 자형은 60년대 초반까지 문헌에서 유지되었다. 1980년 노비코바(К.А.Новикова)와 지역의 작가들인 레베데프((В.Лебедев), 크리보샹킨(А.Кривошапкин)이 에벤어 표기체를 개혁하고 야쿠트어 표기체에 기반을 둔 새로운 에벤어 표기체를 도입 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지역의 에벤어인들에 의해 거부되었고 야쿠티야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지역 차원에

3) 나나이어(Нанайский)는 아브로인(В.А.Аврорин)의 문법과 수닉(О.П.Суник)과 셈(Л.И. Сем)의 연구로 다른 언어들보다 더 많이 연구되어있다. 나나이어 표기체는 19세기 중반 최초로 러시아 정교회 선교사들이 키릴을 기반으로 제정했다. 1928년에 나나이어는 단일복방문자의 전형이지만 키릴과 라틴이 섞여있는 표기체를 얻었고,<sup>20)</sup> 1932-33년에 표준화된 단일복방문자를 기반으로 한 다른 나나이어표기체가 채택되었다. 1936년 하바롭스크 크라이의 나나이 라이온의 행정 중심지 나이히야(Найхия)에서 나나이인들의 주도로 키릴기반의 나나이어 표기체가 채택되었다.<sup>21)</sup>

4) 우데게이어(Удэгейский) 표기체는 단일복방문자를 기반으로 오로츠어에도 사용할 목적으로 1932년에 제정되었는데, 이 표기체를 이용하여 교과서와 소설이 출간되었다. 우데게이어는 1937년 이후 표기체를 계속 발전을 하지 못했는데, 우데게이어와 오로츠어가 다르고 표기체 사용 규범이 없기 때문이었다.<sup>22)</sup>

### 3.3 고아시아 제어(Палеоазиатские языки)

1) 축치어(Чукотский) 표기체는 1932-33년 단일복방문자를 기반으로 제정되었는데, 최초의 축치어 서적은 1898년 페텔린(М.Петелин)이 만든 키릴 기반의 러-추코트어 사전이라고 간주한다. 최근 시베리아에서의 러시아 정교회 활동 분야를 밝힌 고문서를 보면 최초의 추코트어 출판은 1823년이다.<sup>23)</sup>

표기체의 대규모 확장 기간은 30년대 초로서 최초의 축치어 교과서와 서적이 라틴문자를 기반으로 출간되었지만 추코트카의 차운 라이온(Чаунский район)에서 키릴기반 표기체를 이용한 교육이 학교에 도입되었다. 1937년, 실제로는 30년대 말-40년대 초 축치어 표기체는 키릴기반 표기체로 전환되었다.<sup>24)</sup>

2) 코랴크어(Корякский) 표기체는 1932-33년에 단일복방문자를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1937년

서 채택된 공식적인 에벤어 표기체 규범은 1987년 폐기되었고 현재 야쿠트어 표기체를 사용하고 있다. 에벤인 1926년 2,044명, 1939년 9,698명, 2002년 19,071명.

20) 1928년 표기체는 다음과 같이 키릴과 라틴 철자가 섞여있는 체계였다: Аа, Бб, Ww, Гг, Нн, Дд, Её, Ёё, Зз, Џџ, Ии, Йй, Кк, Ll, Ъъ, Мм, Нн, Нн, Оо, Ъъ, Пп, Рр, Сс, Тт, Уу, Фф, Хх, Чч, Џџ, Ээ, Юю, Яя, Ъъ, Ъъ.

21) 나나이인 1926년 5,860명, 1939년 8,526명, 2002년 12,160명.

22) 우데게이어인 1926년 1,357명, 1939년 1,743명 2002년 1,657명.

23) 1820년대 아나드르(Анадырь) 강 저지에 살았던 축치인 목동 테네빌(Теневиль)이 축치어 표기체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것은 그림 기호 체계였다. 실제로 테네빌과 그의 몇몇 친척 외에는 아무도 이 표기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24) 축치인 1926년 12,332명, 1939년 13,835명, 2002년 15,767명.



코랴크 표기체는 여타 모든 북방민족의 표기체와 마찬가지로 키릴기반 표기체로 전환되었다.<sup>25)</sup>

3) 이텔멘어(Ительменский) 표기체는 1932-33년 단일북방문자에 기반을 두고 제정되었지만 발전하지 못했고 30년대 말 북방민족어의 키릴 전환과정에서 표기체를 상실하여 7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sup>26)</sup>

4) 에스키모어(Эскимосский)는 1920년대 교사인 오세트 민족 출신 카라예프(А.И.Караев)가 오세트 키릴문자에 기반을 둔 표기체를 만들었지만 1932-33년 단일북방문자에 기반을 둔 에스키모 표기체가 공식적인 최초 표기체 였다.<sup>27)</sup>

5) 알류트어(Алеутский) 표기체는 1932-33년에 단일북방문자 기반 표기체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sup>28)</sup> 80년대에 키릴 기반의 알류트 표기체가 제정되었다.

6) 니브흐어(Нивхский) 표기체는 1931년 라틴기반으로 제정되었지만, 1932-33년에 단일북방문자에 기반을 두고 개정되었다. 1937년 키릴기반 표기체로 전환했지만 사용되지 않았다가 1977년 이후 부활했다.<sup>29)</sup>

7) 케트어(Кетский) 표기체는 1934년 단일북방문자를 기반으로 표기체를 만들고 1937년 키릴 전환 과정에서 표기체를 얻지 못했다.<sup>30)</sup>

### 3.4. 투르크 제어(Тюркские языки)

1) 돌간어(Долганский)는 야쿠트어 방언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sup>31)</sup> 상대적으로 최근에 표기체를 얻었다. 1933년 단일북방문자 야쿠트어로 돌간어 철자책이 발행되었지만 70년대 말에서야

25) 코랴크인 1926년 7,439명, 1939년 7,354명, 2002년 8,743명.

26) 이텔멘인 1926년 4,217명, 1939년 1,706명, 2002년 3,180명.

27) 에스키모인 1926년 1,293명, 1939년 1,309명, 2002년 1,750명.

28) 정교회 선교사가 1826년 키릴기반의 알류트 표기체를 만들었지만, 이 표기체는 알류트 산 열도가 미국으로 넘어가 이후 사라졌다. 알류트인 1926년 353명, 1939년 335명, 2002년 540명.

29) 니브흐인 1926년 4,076명, 1936년 3,902명, 2002년 5,162명.

30) 케트인 1926년 1,428명, 1936년 1,243명, 2002년 1,494명.

31) 돌간인 일부는 사하-야쿠티야에 거주하지만 대부분은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의 돌간-네네스 자치 관구(Долган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에 거주하고 있다.



위해 소련 인민들의 모어를 위한 표기체계를 창제해야만 했다.

당시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그루지야인, 아르메니아인 등은 발전되고 자신의 언어에 맞는 표기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타타르인, 카자흐인, 키르기스인, 우즈베크인, 투르크멘인, 타지크인, 아제리인의 언어는 셈어 특징을 반영하는 아랍문자에 기반을 두어 투르크어에는 잘 맞지 않는 표기체를 가지고 있었다.

야쿠트인과 추바쉬인과 같은 몇몇 소수민족을 위해 혁명 전에 이미 키릴기반 표기체가 제정되었지만 약 50개 민족, 특히 모든 북방민족은 표기체가 없었다.

위에서 보듯이 최단 시간 내에 많은 수의 사람들을 세계적인 과학과 문화의 업적에 접근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 혁명 전에 표기체를 갖지 않은 민족 뿐 만 아니라 예전에 라틴, 아랍 또는 유대어 표기체에 기반을 둔 표기체를 가진 소련의 모든 민족을 위한 표기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소련의 표기체 없는 민족을 위한 표기체 제정 원칙은 소련 제 민족 문자들에 필요한 단일성을 준수하면서 민족어의 독자적인 음성적 성분을 최대한 고려하고 표기체를 실제 문학어에 접근시키고 실제로 보충적인 글자를 창제함으로써 민족 언어들의 고유한 음들을 나타낸다는 데에 있었다.



#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표준어”인가 “문학어”인가

길윤미 (경북대)

## 1. 용어의 등장과 최초의 의미

러시아 사회에서 용어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ЛЯ)이 언제 누구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헌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литература와 литературный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용어의 도입 시기와 배경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단어 литература는 1720년대에 출현하여 18세기 후반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Биржакова&Войнова&Кутина, 1972:161). литература의 유입 경로는 프랑스어 littérature, 독일어 Literatúr 등을 통해서이며 이들 단어의 기원은 모두 라틴어 litteratura(‘습자, 문학, 학문, 저술’)로 거슬러 올라간다. П.Черных(1999(Т.1):485)에 따르면 1790년대 러시아 사회에서는 이미 литература가 словесность를 밀어낼 정도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다. 형용사 литературный의 등장은 명사 литература가 정착한 직후인 18세기 말에 이루어진다(Биржакова&Войнова&Кутина, 1972:162).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등재된 것은 <Словарь церковно-славян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1847(Т.2): 256)에서가 처음이며, 여기서도 아직 ЛЯ이란 표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литературный와 язык의 조합은 19세기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И.Давыдов의 논문(1852)과 Я.Грот의 저서(<Карамзин в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1867) 등이 ЛЯ를 사용한 초기의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ЛЯ이 등장할 당시의 의미는 현대적 의미와는 다소 상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ЛЯ의 최초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러시아 언어문화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용어가 등장하기 직전(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의 러시아 사회는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작가, 사상가, 철학자를 막론하고 수많은 이들이 언어에 관해 열정적으로 논의하고 첨예한 의견 충돌로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대였다. 이른바 시시코프(А.Шишков)파와 카람진(Н.Карамзин)파의 언어 논쟁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언어문제에 대해 저마다의 의견을

개진할 정도로 언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의 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8세기 내내 프랑스어를 위시한 외국어의 강력한 영향이 지속되자 지식인들 사이에서 러시아어의 상태와 지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어지면서 불거진 것이다. 비록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과 각자가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안은 상이했을지라도 러시아어의 낮은 수준에 대한 위기의식에 있어서만큼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시시코프나 카람진,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자들 모두가 러시아의 ЛЯ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던 것이다.

물론 용어 ЛЯ의 등장까지는 아직 반세기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이 용어가 직접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양쪽 진영이 이 개념, 대략적으로 말해 ‘바람직한 언어’, ‘올바른 언어’, ‘모범이 되는 언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용어가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해진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의 언어관, 언어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곧이어 출현할 ЛЯ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시시코프가 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표현은 книжный язык(КЯ) 혹은 учёный язык이다.

(1)...книжный язык есть тот, которым пишутся книги, а не тот, которым люди друг с другом разговаривают. Сие два языка различаются между собою во всех землях, во всех народах, кроме тех разве людей, у которых нет ни книг, ни наук, ни словесности. [...] Я не знаю, что такое издатель Меркурия понимает под книжным языком, [...] но знаю, что хотеть уничтожить тот книжный язык, о котором я в книге моей говорю, хотеть поравнять его с языком разговоров, хотеть писать как говорим и говорить как пишем, есть то же что хотеть поравнять орла с синицею, или нос свой с головою своею. (А Шишков, 1824).

‘КЯ이란 책을 저술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이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언어는 서적, 학문, 문학을 가지지 못한 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에게서 서로 차이가 난다. [...] <수성(水星)>의 편집인이 КЯ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 내가 가리키는 바로서의 КЯ을 제거하고 이것을 대화어와 같게 만들고자하는 것, 말하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독수리를 박새와 동일시하고 자기 코를 머리와 동일시하는 것이나 진배없음을 안다.’

시시코프 진영은 러시아어의 현 상태를 진단하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교회슬라브어의 쇠퇴에서 찾았다. 교회슬라브어의 전통을 되살리고 속된 구어적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바른 언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시시코프의 생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저속한 민중의 구어나 유럽어적 요소가 난립해있는 상류사회의 구어나 모두 КЯ을 훼손하는 저급한 언어로 치부되었다. 이를 몰아내고 교회슬라브어의 전통을 부활시켜야만 바람직한 언어, 이상적인 언어로서 КЯ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용어 ЛЯ이 등장하기 이전에 КЯ 혹은 письменный язык(ПЯ)이 널리 사용됐던 상황을 고려하면 시시코프나 그 주변인들의 글에서 КЯ이 발견되는 것은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한다. ЛЯ의 최초의 의미는, 그리고 어쩌면 이 용어의 등장 자체도 카람진 진영과 보다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ЛЯ의 의미 해석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형용사 литературный와 그것의 파생 모어인 литература의 의미 변화가 이들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카람진 진영에서 ‘올바른 언어’를 가리키기 위해 язык общества(‘사회적 언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язык общества는 상류(귀족)사회의 구어를 가리키는데 대표적인 카람진주의자였던 П.Макаров의 아래 글에서도 그러하다.

(2) Господин Переводчик весьма старался применяться к языку, употребительному в обыкновенном разговоре. Только надлежало бы ему подражать людям,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хорошо, а не тем,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дурно. Выражения простонародные не должны Писателю служить правилом. У нас язык общества еще не образовался, потому ч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могли бы образовать его, а особливо женщины, занимаются предпочтительно языками иностранными. И для того надобно иногда писать так, как должно бы говорить, а не так, как говорят.<sup>1)</sup>

‘번역가선생께서는 일상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따르려고 매우 노력하였다. 다만, ‘잘’ 말하는 사람을 모방해야지 ‘못’ 말하는 사람을 모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순민중어적 표현이 작가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아직 ‘사회적 언어’가 형성되지 못했는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외국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때로는,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해야 하는 대로 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카람진을 위시하여 그를 지지하는 자들은 러시아어의 가장 큰 문제를 구어와 문어의 극심한 괴리에서 찾았다. 당시에 상류사회의 공용어로 기능했던 프랑스어와 비교해 러시아어의 후진성이 여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 극복 방안으로 ‘사회적 언어’의 역할과 필요성을 주창하였던 것이다. 구어와 문어의 일치를 위해서는 ‘말하는 대로 쓰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마카로프의 지적대로, ‘세련되고 훌륭하게’ 말하는 대로 써야지 아무 말이나 글 속으로 유입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말과 글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언어는 ‘사회적 언어’를 모범으로 해야 하며, 역으로 ‘사회적 언어’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련되게 정련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카람진이 주장한 바 있는 능숙한 작가의 글을 모방하는 방식, 이른바 ‘쓰는 대로 말하기’의 원칙이다.

카람진쪽 사람들의 생각에, 구어와 문어의 괴리가 없는 이상적인 러시아어는 귀족사회의 구어를 지향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세련’과 ‘정련’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литература를

1) 이 글은 장리시(S. Genlis) 부인의 소설 <Les Mères rivales, ou la calomnie>의 러시아어 번역본(<Матери-соперницы, или Клевета>, 1801)에 대한 비평글로서 <Московский Меркурий>(1803. Ч.4 Нояб. с.121-122)에 게재되었다.

통해 그래야만 했다. 즉, ‘말하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말하는’ 언어, 곧 등장하게 될 용어로 말하자면 ЛЯ의 확립에서 그 준거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литература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면 본고에서 규명하고자하는 ЛЯ의 최초의 의미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는 18세기 말부터 ЛЯ 개념과 литература의 관계에서 후자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됐다는 Ю.Лотман&Б.Успенский(2002:524)의 관찰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3) Понятие «литература» становится первичным по отношению к «литературному языку», литературным языком – на котором теперь должны не только писать, но и говорить – признается тот язык, который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литературе, то есть изящной словесности.

‘литература

개념이 ЛЯ에 대한 관계에서 일차적인 것이 되면서 이제 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에도 사용해야 하는 언어인 ЛЯ은, литература 곧 ‘세련된 문학’에 사용되는 언어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литература가 가리키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도 문제가 된다. 러시아어 литература는 우리의 “문학”이라는 단어와 비교해, 이 의미뿐만 아니라 ‘문헌’, ‘글’의 의미까지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것의 어원이 되는 원래의 라틴어 단어 litteratura는 처음에 그리스어 grammatica의 상응어로 사용되어 ‘읽고 쓸 줄 아는 것’을 가리키다가 점차 ‘문헌, 글, 문학’ 등 문자언어로 작성된 것 전반을 지시하게 되는데(Р.Будагов, 2004:252–253), 이 라틴어 단어의 차용어인 лит(т)ература도 러시아어에 첫 등장할 당시인 1720년대에는 ‘글(письменность)’의 의미로 종종 사용되었다(Биржакова&Войнова&Кутина, 1972:161). 이에 반해, 18세기 말 러시아 언어문화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литература는 이보다 훨씬 한 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짙었다. 위의 예문 (3)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당시의 литература는 ‘세련된 문학(изящная словесность)’, 곧 ‘예술문학’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의 형용사 литературный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로서는 새롭다고 할만한 литература의 이러한 의미적 한정이 카람진주의자들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프랑스어 belles-lettres로 표현되는 ‘예술문학’의 의미를 러시아어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어왔지만, 카람진 시대에 이르러 литература가 이 의미를 대표하는 단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sup>2)</sup> 당시에 카람진의 정적들이 литература를 갈리치즘(галлицизм)으로 간주하고 이 단어의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보면,<sup>3)</sup> ‘예술문학’으로서 литература의 정착에 카람진과의 기여가 적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Лотман&Успенский 524, 598.

카람진 이전 시대에 프랑스어 belles-lettres를 번역한 러시아어 표현으로 В.Третьяковский가 서사시 <Тилемахида>(1766)에서 사용한 красные Словесности와, <Академические Известия>(1779)에 등장한 изящные письмена를 들 수 있다.

3) 가령 Шишков(1813:296–7)는 러시아어에 словесность라는 러시아어가 있는데 литература라는 프랑스 단어 사용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렇게 용어 ЛЯ이 등장하기 직전인 18세기 말~19세기 초반의 러시아 언어문화의 상황을 참조하면, литературный와 язык의 조합이 빈번해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용어로 고착되었을 때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당시의 ЛЯ은 문학작품에 사용되는 세련되고 정제된 언어, 그야말로 ‘문학의 언어(язык литературы)’와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문학이 ЛЯ과의 관계에서 준거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학작품에 사용되는 언어가 규범이자 모범이 되는 언어,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언어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언어를 이르는 말이 바로 ЛЯ이었던 것이다.

## 2. 용어를 둘러싼 논쟁

러시아에 용어 ЛЯ이 등장한 후 이것의 정착 과정이 그리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이 용어가 출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ЛЯ의 용어로서의 타당성과 적합성, 다른 용어로의 대체 필요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중요한 쟁점은, литература와 직접적 연관 관계를 지니는 ЛЯ이 과연 개념의 대표 용어로 적절인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세기 후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자들이 ЛЯ과 ‘문학의 언어’가 동일한 개념이 아님을 지적해온 것에서도 드러난다.<sup>4)</sup> 애초에 등장할 당시의 ЛЯ은 이상적인 언어, 모범이 되는 언어, 기준이 되는 언어로서 ‘문학의 언어’, ‘문학적 언어’와 다르지 않았으나 점차 ЛЯ의 기능이 문학작품의 배제적 기능을 벗어나 다른 문화 영역까지 아우르게 되면서 ‘문학’과 강력한 연상관계를 지니는 이 표현이 용어로서 타당한지, ЛЯ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물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더 나아가 литература의 의미를 좁은 의미(‘문학’)가 아니라 광의(‘문헌, 글’)로 넓히더라도 용어의 한계성은 뚜렷하다. 개념 자체는 문어, 문헌의 언어뿐만 아니라 음성 언어도 포괄해야 하지만 후자의 특성을 이 용어가 제대로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러시아학계에서도 이것을 다른 언어들에서 널리 사용되는 СЯ(стандартный язык, ‘표준어’)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가령 Е.Поливанов(1927:1)는 이것을 СЯ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견해를 Д.Брозович(1967)나 Н.Толстой(1968)도 지지한 바 있다. 독일의 러시아언어학자 S.Koester-Thoma(1993)도 ЛЯ이 ‘문학의 언어’를 떠올리게 하므로 СЯ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ЛЯ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다. 러시아 학계에서는 여전히 ЛЯ을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바, ЛЯ의 타당성에 대한 논거에 주목해보면 이 용어가 러시아 언어 문화에 뿌리 내리게 된 연유와 배경을 기늬해볼 수 있을 것이다.<sup>5)</sup> 먼저, 여타의 언어권에서 널리

4) 이에 대해서는 А.Соболевский(1889/1980:22), Б.Томашевский(1951:177), М.Панов(1972:9)를 참조할 것.

5) 용어로서 ЛЯ의 타당성과 СЯ를 비롯한 여타의 용어들의 부적절성에 대한 주장은 Р.Будагов(2004), А.Горшков(1965), Ф.

사용되는 СЯ(‘표준어’)는 러시아어의 역사에서 특정 시기, 이를 테면 성문화된(кодифицированный) 규범이 마련된 시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ЛЯ이 지니는 기능적 다면성, 복합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더 나아가 이 용어는 무한한 표현적 가능성을 지니는 ЛЯ 개념을 유한한 표준적 언어 공식의 집합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개념을 축소하고 훼손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 러시아언어학에서 ЛЯ 외에 ‘규범어(НЯ, нормированный язык)’와 ‘성문화된 언어(кодифицированный язык)’란 용어도 사용되고 있지만 전자는 ЛЯ의 다양한 특성 중 ‘규범성’의 특성 하나만을 초점화함으로써 ЛЯ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하고, 후자는 언어가 아니라 언어 규범에 적용될 수 있기에 둘 다 용어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무엇보다도, ЛЯ을 다른 용어로 교체함으로써 ‘문학’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점이 ЛЯ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작용한다. 러시아에서 ЛЯ의 형성에 문학작품의 언어가 수행한 특별한 역할을 고려한다면, СЯ(‘표준어’), НЯ(‘규범어’) 등 여타의 용어들과 달리 ЛЯ이 문학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드러내줄 수 있음은 이 용어의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용어로서의 적합성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용어 ЛЯ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옛 러시아 사회에 ЛЯ이라 부를만한 것이 존재했었는가라는 데 있다. 예컨대 러시아에서 ЛЯ의 형성을 18세기 이후로 파악하는 Б.Томашевский(1951)와 А.Исаченко(1963)는 고대 시기에는 단지 문어만이 존재했을 뿐 ЛЯ은 없었다고 일갈하고, 따라서 이 용어의 한계성과 타당성에 의심을 표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ЛЯ의 특성으로 간주되는 규범성, 다기능성, 문체적 변이성, 초방언성 등의 특성이 러시아어의 경우 18세기를 지나며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논거를 찾는다. 이에 반해 В.Виноградов(1969)와 Ф.Филин(1973) 등은 고대러시아어 시기에도 ЛЯ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대러시아어와 ЛЯ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한 이유는 고대시기의 러시아어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라기보다는 ЛЯ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이 문제는 ЛЯ을 현대 언어에 적용되는 공식적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역사성을 지니는 통시적 개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수렴된다. Исаченко 쪽은 고대러시아어 시대에는 아직 ЛЯ의 특성이 정립되지 못했으므로 이 시기의 언어에 대해 말하는 경우 ЛЯ이 아니라 ПЯ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Виноградов와 Ф.Филин에 따르면 고대시기에도 ЛЯ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이것이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화해온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 언어문화에서는 우리의 “표준어”나 영어의 standard language과 달리 СЯ이 용어로 정착하지 못했으며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확고한 위상을 확립한 용어는 ЛЯ이다. 즉, ЛЯ이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ЛЯ의 역사적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Филин(1973)를 참조하였다.

이로부터 ЛЯ을 우리말의 “표준어”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의 “표준어”는 러시아어 ЛЯ과 달리 역사적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 내용도 ЛЯ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언어문화에서 “표준어”라는 용어의 등장 배경과 애초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러시아어 ЛЯ과 한국어 “표준어”의 상응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 3. “표준어”와 ЛЯ

긴 시간에 걸쳐 표준어(standard language)가 형성되기까지 오랜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자명하겠으나 서구 사회에서 이 용어의 등장 자체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조태린, 2006:370). 우리 언어문화에서 단어 “표준어”는 20세기 초반에 출현 빈도를 높이기 시작하여 이 개념의 대표 용어로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sup>6)</sup>

흥미롭게도 국내 학계에서는 표준어의 정의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어도 “표준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시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우리 언어문화에서 큰 논란 없이 용어 “표준어”가 정착된 연유를 따져보면, 당시에 이미 영어를 비롯해 세계 언어들에서 standard language 및 이와 유사한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던 상황과 일본의 표준어 규정의 영향이 컸을 테지만, 애초부터 개념 자체에 가장 상응하는 용어가 바로 “표준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표준어”란 용어가 등장하고 표준어 개념이 확립되어가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주목해보자.

표준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20세기 초반의 식민지 조선에서는 민족어의 말살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고조되어갔다. 지금껏 공식적인 문자 체계는 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일본어가 점차 공용어로서의 위상을 확대해가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근대화되지 못한 조선어가 이대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다. 민족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글을 쓰는 풍토가 조장되어야 했으나 당시에 제대로 된 규범을 지니지 못하는 조선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어학회가 주도한 어문운동은 일차적으로 조선어의 규범화를 목표로 하였다. 조선어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표준화된 근대어로서 조선어의 위상을 끌어올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표준어는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때, 비록 국가는 사라졌을지라도 민족어로서 조선어 표준어를 정립하는 일은 민족국가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길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에 <한글마춤법통일안>을 발표하고 그로부터 3년 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공표하자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힌 문학인들이 많았던 것도 같

6) 우리말에서 표준어에 대한 첫 규정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통해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이라고 명시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최초의 명시적인 표준어 정의는 1933년 10월에 공표된 조선어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를 통해 등장한다.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자면 표준어가 언어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다양성을 억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표준어에 대한 문인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는 조선어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朝鮮文學이라는 것은 朝鮮語가 없이는 無意味한 말이다.”라는 박영희(1935:196)의 말은 수많은 문학인들이 품고 있던 생각을 대변해준다.

표준어 개념이 정립되고 표준어가 모범이 되는 언어, 기준이 되는 언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나가면서 이와 함께 표준어와 방언의 위계관계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조선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적 통일성, 균질화가 필수적인데 방언은 이에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글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더 나아가 표준어 개념에 ‘바른 말’이라는 가치가 개입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위치하는 방언은 ‘바르지 못한 말’, ‘열등한 말’이라는 인식도 형성되어나갔다. 그리하여 표준어 담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1930년대 조선의 문인들은 글에서 방언을 제거하고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가령 홍효민, 박태원을 비롯하여 당대의 수많은 비평가, 작가들이 글에서 방언 사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 사용을 적극 권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과 문화사적 맥락 속에서 용어 “표준어”와 ЛЯ의 등장 배경 및 그 개념을 비교해보면 유사점과 함께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 용어들이 등장할 당시 자국의 언어 상태에 대한 지식인들의 문제의식, 더 구체적으로 언문 불일치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는 측면에서 18세기 말~19세기 초반의 러시아 사회와 20세기 초반의 우리 사회는 공통분모를 지닌다. 문어로서 탄탄한 기반을 지녔던 교회슬라브어와 상류사회의 공용어로 기능하던 프랑스어에 밀려 러시아어가 민중의 구어로만 기능하던 러시아의 상황과 한자 기반의 문어와 식민 지배하에 권력 언어가 된 일본어의 위력에 밀려 조선어가 주변화되어가던 우리의 상황이 흡사하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진단과 문제의 원인에 대한 판단은 같다고 볼 수 없는데 당시 우리 지식인들은 방언에 의한 언어의 통일성 저하, 규범과 표준이 될 만한 언어의 부재를 조선어의 근본적인 문제로 파악하였다. 요컨대 언어의 규범화, 표준화는 시대적 요구였으며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우리의 표준어 개념의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러시아에서는 문어와 구어의 불일치에 대한 판단이 진영에 따라 상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방안도 우리의 방식과는 사뭇 달랐다. 시시코프 진영은 문어와 구어의 분리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어가 문어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노력했다면, 문어와 구어의 괴리를 러시아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한 카람진 진영은 상류사회의 구어를 세련되게 정련하여 문어 안으로 유입시킴으로써 구어와 문어의 합일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우리 언어문화에서 “표준어”라는 용어가 채택된 상황과 러시아에서 ЛЯ이 채택된 상황을 비교해보면 언어에 대한 상반된 지향성을 읽을 수 있다. 당시 우리 지식인들의 표준어에 대한 태도는 반문화적이라 말할 수 있다. 문학가의 임무가 언어의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데 있다

면 표준어는 언어의 다양성, 입체성을 축소시키고 하나로 단일화하려는 지향으로부터 태동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언어문화에서는 “표준어”라는 용어가 뿌리를 내리고 문인들조차 이 개념을 적극 지지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은 언어의 문학적 가능성과 다양성에 대한 지향보다 언어의 통일성, 표준성에 대한 열망을 우위에 놓는 것을 정당화시켜주었다. 반면 러시아에서 용어 ЛЯ의 채택은 언어의 통일성, 균질성, 표준성에 대한 지향보다는 ‘문학성’에 대한 지향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러시아 어문학계에서는 용어 СЯ(‘표준어’)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내세우는 논거가 상술한 바와 유사하다. 즉 СЯ는 ЛЯ과 다르게 언어의 다양성을 해체하여 균질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용어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렇듯, 용어 “표준어”와 ЛЯ에 담겨있는 언어의 임무와 기능에 대한 생각, 언어에 대한 지향점은 꽤나 달라 보인다.

셋째, ЛЯ이 가리키는 바는 통시적인 개념인 데 비해 “표준어”는 공시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둘의 차이가 두드러진다(강덕수, 1986:1). 우리의 “표준어”는 등장 당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개념 변화를 겪지 않은 반면 ЛЯ의 상황은 다르다. “표준어”는 언어의 통일성에 토대를 둔 개념으로서 처음부터 방언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언중의 인식 속에서 ‘표준어=서울말’의 등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ЛЯ은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개념이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 두 용어의 정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옛 러시아어에 대해 말할 때 ЛЯ을 “표준어”의 상응어로 간주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ЛЯ은 19세기 중반 최초로 등장할 당시에는 그야말로 “문학어(문학의 언어)”를 가리켰으며, 여전히 ‘ЛЯ=문학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ЛЯ을 ‘문학의 언어’와 동일시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러시아어에 적용하는 경우 ЛЯ은 결코 우리의 “표준어”에 상응하는 용어가 아니다. 구어와 문어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고 교회슬라브어가 문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유지하던 이 시대에 ЛЯ이란 교회슬라브어이자 문어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면 과연 ЛЯ을 “표준어”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개념을 대표하는 러시아어 용어가 ЛЯ이고 우리말에서는 “표준어”가 대표어인 까닭에 “표준어”와의 상응성이 우선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출현 당시부터 두 용어의 의미는 상이했으며 무엇보다도 ЛЯ에 담겨있는 언어의 기능에 대한 판단과 지향점이 우리의 “표준어”와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시간의 구획까지 고려한다면 두 용어의 상응성 문제가 더더욱 복잡해진다.

“문학어”로 번역하는 경우,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문학어”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이다. 우리 말에서 “문학어”는 그야말로 ‘문학의 언어’의 의미로 사용되는 데 반해, ЛЯ은 등장 당시에는 ‘문학의 언어’를 가리켰다고 해도 현대러시아어에서는 이보다 훨씬 광의의 개념을 표상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ЛЯ의 어원과 최초의 의미, 개념의 통시성, 무엇보다도 용어가 함의하는 언어에 대한 지향을 고려한다면 “표준어”보다는 “문학어”가 ЛЯ의 번역어로 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덕수. “18세기 러시아 문학어 발달 유형에 관한 고찰.” *슬라브학보* 1-1. 1986.
- 김용화. “러시아어 발전사에서 표준어의 규범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50. 2015.
- 김진규. “고대러시아 문학어의 어휘 연구와 пчела.”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7-1. 2000.
- 박영희. “朝鮮語와 朝鮮文學.” *한글* 3-2. 1935.
- 박춘은. “현대 러시아어의 존재형태.” *슬라브학보* 13-2. 1998.
- 이태준. “新春創作界概觀 간단한 讀後感.” *조선중앙일보* 1936.
- 조태린. “‘국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학* 4. 2006.
- 최경봉. “일제 강점기 조선어학회 활동의 역사적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31. 2006.
- 한결. “조선말과 글에 바루 잡을 것.” *동광* 5. 1926.
- “한글 맞춤법 통일안 全文.” *한글* 10. 1934.
- 홍효민. “朝鮮語文運動과 朝鮮文學: ‘査定한 朝鮮語 標準말 모음’을 보고.” *한글* 5-2. 1937.
- Биржакова Е.Э., Войнова Л.А., Кутина Л.Л.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лексикологии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XVIII века.* Л.: Наука, 1972.
- Брозович Д. “Славянские стандартные языки и сравнительный метод.”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 1. 1967.
- Будагов Р.А. *Что такое развитие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языка?* 2-е изд. доп. М.: Добросвет-2000, 2004.
- Виноградов В.В. “Основные проблемы и задачи изучения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донациональной эпохи.” *Славянские литературные языки в донациональный период.* М.: Нука, 1969.
- Горшков А.И. *История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3-е изд. М.: Высшая школа, 1965.
- Грот Я.К. *Карамзин в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СПб.: печ. В. Головина, 1867.
- Давыдов И.И. “Мнение о новом издании русского словаря.” *Известия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по Отделению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словесности.* Вып.5. СПб., 1852.
- Исаченко А.В. “К вопросу о переодизации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опросы теории и истории язык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свящ. памяти Б. А. Ларина.* Л.: Изд-во ЛГУ, 1963.
- Карамзин Н.М. “Отчего в России мало авторских талантов”(1802). *Избранные сочинения в двух томах.* Т.2. М.-Л.: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64.
- Лотман Ю.М., Успенский Б.А. “Споры о языке в начале XIX века как факт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1975). *История и типологи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б.: Искусство-СПБ, 2002.
- Макаров П.И. “Критика на книгу под названием «Рассуждение о старом и новом слоге российского языка», напечатанную в Петербурге 1803 года.” *Московский Меркурий.* Ч.4. 1803.
- Панов М.В. “О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Русский язык в национальной школе.* № 1. М., 1972.
- Поливанов Е.Д. “О литературном (стандартном) языке современности.” *Родной язык в школе.* Кн. 1. М., 1927.
- Словарь церковно-славян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Т.2. СПб.: Император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1847.
- Соболевский А.И. *История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Л.: Наука, 1980.
- Толстой Н.И. “К вопросу о зависимости элементов стиля стандартн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от характера

его «стандартности».” *Развитие стилистических систем литературных языков народов СССР*. Ашхабад: Ылым, 1968.

Томашевский Б.В.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а.” *Вопросы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 в свете трудов И. В. Сталина по языкознанию*. М.: Изд. АН СССР, 1951.

Филин Ф.П. “О структуре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 2. 1973.

Черных П.Я. *Историко-этим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3-е изд. М.: Русский язык, 1999.

Шишков А.С. *Рассуждение о старом и новом слоге российского языка*(1803). СПб.: В медицинской типографии, 1813.

——— “Примечание на критику, изданную в «Московском Меркурии», на книгу «Рассуждение о старом и новом слог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ереводов адмирала Шишкова*. Ч.2. СПб.: Типография Императорской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1824.

Koester–Thoma S. “Standard, Substandard, Nonstandard.” *Русистика*. № 2. Берлин, 1993.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공시성과 통시성

### 제3분과 어학분과

#### 어학분과C (학문 후속세대 특별세션) : 러시아어학연구의 새로운 시선들

사회: 문성원 (안양대)

- ▶ 러시아어 연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실험음성학 연구 ..... 257
  - 발표: 이선정 (부산대 박사과정)
  - 토론: 김알레샤 (한국외대 박사수료)
  
- ▶ 형식 이론 및 수리문법을 활용한 러시아어 전치사  $\text{в}$ 와  $\text{на}$ 의 의미 구분 ... 269
  - 발표: 윤희준 (고려대 석사)
  - 토론: 김보라 (경상대)
  
- ▶ 러시아 민담과 한국 민담에 나타나는 조력자의 양상 대조 분석 ..... 287
  - 발표: 이희화 (고려대 석사)
  - 토론: 전성희 (고려대)



# 러시아어 연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실험음성학 연구

이선정 (부산대 박사과정)

## 1. 들어가는 말

러시아어의 자음체계의 특징은 유성음-무성음 대립과 함께 경자음과 연자음이 대립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러시아어 자음에는 경자음과 연자음이 대응하는 쌍이 있으며 러시아어 음운론에서 연자음은 독립적인 음운(phoneme)의 지위가 있다. 그래서 러시아인은 러시아어 단어에서 어떤 자음이 구개음화 되었고, 어떤 자음은 그렇지 않은가를 들어서 즉시 알게 된다(트루베츠크 2013:97). ‘мат(매트)-мят(박하)’의 예에서와같이 /m/과 /m’/으로 두 소리가 바뀌었을 때 단어의 의미도 변한다<sup>1)</sup>. 러시아어의 경자음과 연자음은 서로 다른 두 음소가 실현되는 것으로, 러시아어의 연자음성은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독특한 음운적 특성이 있다.

경자음과 연자음의 조음은 구개음화 현상(palatalization)<sup>2)</sup>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자음의 기본 조음(primary articulation)에 혀등이 경구개가 위치하는 부분으로 들러 올라가는 부가 조음(secondary articulation)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경자음에 전이음 /j/음이 덧붙여져 이루어지는 것으로, 러시아어 전이음 /j/는 전후 위치에서는 경구개 치경 뒤와 연구개 앞에서, 상하 위치에서는 높은 위치에서 조음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용권 2014:56).

러시아어 연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은 기본 조음에 부가 조음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러시아어의 모든 연자음이 동일한 부가조음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본다르코(Bondarko)와 아키쉬나(Акишина) 외는 순음 자음만 구개음화 현상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며, 설음 중 /t’/와 /d’/는 혀등이 경구개 쪽으로 올라가면서 경구개와 닿는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파찰음화 되고, /r’/은 전동음에서 거의 파열음이 된다고 주장하였다(Bondarko 2005:8, Акишина 외 1980:65).

1) Padgett는 ‘мат(매트)-мят(박하)’ 외에도 кров(대피소)-кровь(피)’ 등의 예를 들어 경자음과 연자음이 서로 대체되었을 때,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Padgett 2001:188).

2) 다른 언어에서는 특정 환경에서 구개음화에 따른 변이음이 존재하는 반면에 러시아어에서는 구개음화된 소리가 독립적인 음소로 존재한다(변근혁 2007:1).

러시아어 연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음향 기술의 발달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러시아와 미국에서는 오르딘(Ordin), 치오세인(Chiosain) 및 패지트(Padgett), 크냐제프(Knyazev) 등은 음성 발화 실험을 통한 스펙트로그램 분석으로 연자음의 음향적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고, 국내에서는 변군혁과 이용권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변군혁은 러시아 장애음의 경자음과 연자음의 발화 실험을 통하여 경자음과 연자음의 대립을 구분하는 음성적 단서를 알아보았고, 이용권은 러시아인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자음의 장애음만 분석 대상으로 했던 변군혁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러시아어 13쌍의 경자음과 연자음 전체에 대하여 F1, F2, 강도, 음도 등이 경자음과 연자음을 구분하는 음성적 단서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어 구개음화 현상의 음향·음성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의 발화 실험을 통한 기본주파수 및 포먼트 값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20대 및 30대 러시아인 남성을 대상으로 음성 발화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자음과 연자음의 상관관계에서 드러나는 연자음의 음향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경자음-연자음의 상관쌍을 이루는 13 자음에 대한 러시아 원어민의 CV 음절 녹음을 통한 실험을 실시하고, Praa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포먼트 값과 스펙트로그램을 분석을 하였다. 경자음과 연자음의 변별적 자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높이(pitch)를 나타내는 기본 주파수(F0)와 2차 조음시 혀의 높낮이의 변화를 알 수 있는 F1값, 혀의 전방성을 확인할 수 있는 F2, 전이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포먼트 전이구간 등을 순음과 설음 그룹으로 비교하였다. 러시아어 연자음에 대한 실험음성학 연구를 통하여 러시아어 음성 교육 현장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러시아어 연자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성

하나의 말소리는 말소리의 특성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음향적 속성이 존재하는데, 러시아어의 경자음과 연자음의 변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는 기본 주파수(F0), 제1포먼트 값, 제2포먼트 값이 있다. 그리고 구개음화 현상은 모음의 포먼트 값에 영향을 주는데, 제1포먼트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구개음화 현상이 혀의 인두강 부분을 상승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큰 영향을 주므로 제2포먼트 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Stevens 1998:263).

### 2.1. 기본 주파수(F0) 값과 연자음의 특성

러시아어 구개음화 및 연구개음화 현상은 자음 뒤에 오는 모음의 자질에 영향을 준다. 혀의 위치와 형태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내재적 모음의 자질에 영향을 미친다(Ordin, 2011:554).

F0는 모음의 첫 번째 배음으로서 지각적으로는 음높이(pitch)에 해당되며(신지영 2014:183),

자음 조음시 혀등의 상승은 뒤따르는 모음의 기본 주파수(F0)<sup>3)</sup>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본 주파수는 고모음이 저모음보다 더 크고(Bolla 1981:65, Ordin 2011:554), 자음에서는 무성음이 유성음보다 SF0 값이 더 크다. 자음의 SF0를 측정하기 위하여 CV 음절에서 F0는 모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규칙적인 진동이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모음의 30%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한 평균값을 측정한다.

연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은 고모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F0값이 경자음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러시아어에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시 자음이 모음보다 음운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F0값이 낮아짐(변군혁 2007:86)을 예상할 수 있다.

오르딘은 CVC 음절 발화 실험을 통해 구개음화 현상이 F0를 낮추는 것을 밝혔다(Ordin 2011:561).

## 2.2. 제1포먼트 값과 연자음의 특성

러시아어의 연자음은 경자음의 기본 조음에 혀등의 중간 부분이 경구개 쪽으로 상승하고, 혀끝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조음되는 특성이 있다. F1 주파수<sup>4)</sup>는 협착이 성도의 전반부에서 이루어질수록 낮아지고, 혀의 뒷부분이 인두벽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진다(신지영 2014:191). 따라서 상승 자질([+high])로 인해 연자음 뒤 모음의 F1 값은 낮아지고 경자음의 경우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2.3. 제2포먼트 값과 연자음의 특성

F2<sup>5)</sup> 주파수는 성문 쪽과 입천장 앞쪽 가까이에서 협착이 일어날수록 높아지고, 입술이나 연구개 쪽 가까이에서 협착이 일어날수록 낮아진다(신지영 2014:191). 따라서 연자음은 전설모음의 영향으로 혀의 앞부분이 앞으로 나아가서 협착이 경구개 쪽에서 이루어져 전방성 자질([-back])<sup>6)</sup>이 있으므로 연자음 뒤 모음의 F2는 높아지며, 경자음의 경우 F2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기본 주파수는 모음 높이에 따라 변하는데, 평균적으로 고모음은 저모음보다 다소 높은 주파수를 지니고 있다(Kent 외 2007:151).

4) F1 전이는 조음 방식에 대한 신호이고, F2 전이는 조음 위치에 대한 신호이다(Kent 외 2007:181).

5) F2는 모음의 전후설과 관련하여 전설모음은 F2가 높고, 후설 모음은 F2가 낮다.

6) 지가(Zsiga)에 의하면 전방성 자질([-back])은 F1과 F2값을 더 차이가 나게 하는데(Zsiga 2013:268), 이로 인해 연자음의 스펙트로그램에서 전이구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3. 연구방법

#### 3.1. 피험자

피험자는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러시아에서 출생하여 생활한 20대 및 30대<sup>7)</sup> 러시아 블라디보스톡<sup>8)</sup> 출신 원어민 남자 5명이고, 피험자들은 모두 청각 또는 발음 상의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

#### 3.2. 실험 자료

음성 실험은 경자음과 연자음의 상관쌍을 이루는 13쌍 모든 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경자음과 연자음을 모음 [a]<sup>9)</sup>와 결합한 CV 음절로 구성하여, 이 음절들을 문장 속에 포함시켜 녹음시켰다.

대상이 되는 음절은 러시아어 경자음(p, b, m, f, v, t, d, s, z, n, l, r, k)과 대응되는 연자음(p', b', m', f', v', t', d', s', z', n', l', r', k') 13쌍<sup>10)</sup>이다.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행하는 모음은 /a/로 통일하였다. 발화자들에게 /CV/ 한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닌, 문장 틀 “С кажи, \_\_\_\_ еще раз.” 속에 해당 음절을 넣어 문장을 읽고 연습하여 녹음을 진행하였다.

#### 3.3. 녹음 및 분석 방법

녹음은 소니(Sony) 보이스 레코더(ICD-UX560F)로 녹음하였다. 녹음기와 피험자의 입 사이의 거리는 10~15cm를 유지하였다. 음성 녹음은 16bit 44100Hz mono의 표본추출률로 저장되었고 음성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Praat v.6.0.3.9(2018)이다.

실험 음절의 레이블링은 언어적 정보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하여 수동 레이블링을 선택하였다.

7) 연령에 따라 기본 주파수(F0)가 달라지므로 비슷한 나이 군으로 정하였다.

8) 러시아어 방언은 북부, 중부, 남부 방언으로 구분되는데, 러시아의 표준어는 모스크바 방언이다. 북부 방언은 일부 모음의 발음에서, 남부 방언은 일부 자음의 발음에서 차이가 있어 러시아 북부에서 강세 없는/o/가 /a/로 발음되어야 하나 /o/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고, 남부에서는 자음 /g/가 [ɣ]로 발음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모두 블라디보스톡 출신으로 방언적 요소가 실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모음 [a]는 저모음으로 인두에서 발생하는 소리이나 Bennett 외의 아일랜드어 구개음화 및 연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모음이 구개음화 및 연구개음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Bennet 외 2012).

10) 강덕수(1990)에 의하면 [k']와 [k]는 후설모음 [o] 앞에서 확실한 최소 대립쌍을 적어도 하나는 만들 수 있으므로(예를 들면, садком : соткём), 러시아어의 음소 체계에서 이미 독립적인 음소 /k/와 /k'/로 자리잡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자음 [g']와 [x'], 경자음 [g]와 [x]는 아직 상보적 분포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은 서로 동일 음소 /g/와 /x/의 변이음으로 간주된다(강덕수 1990:149).

### 3.4. F0 값의 측정 방법

F0는 모음의 기본 주파수를 의미하므로, CV 음절에서 F0는 자음 뒤 모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규칙적인 진동이 발생하는 지점으로부터 모음의 30%에 해당되는 구간까지의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 3.5. F1 및 F2 값의 측정 방법

전체 모음 길이 중에서 자음 뒤 모음이 시작하는 구간<sup>11)</sup>으로부터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각의 F1 및 F2의 평균값을 구한다.

## 4. 실험결과 분석

### 4.1. 포먼트 값과 연자음의 음향적 특성

#### 4.1.1 기본 주파수(F0) 값과 연자음의 음향적 특성

음높이를 나타내는 기본 주파수(F0)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면 후행하는 모음에서 값이 낮아진다.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m'를 제외한 모든 자음 환경에서 러시아어 연자음의 F0값이 경자음의 값보다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순음 그룹에서 경자음의 F0 값은 114~164Hz의 범위에서 실현되었고, 연자음의 F0 값은 122~167Hz 범위에서 실현되었다. 경자음과 연자음의 F0값 차이는 양순음에서는 차이가 미미했으며, 순치음 v/v'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1>에서 순음 그룹에서 경자음의 F0 값은 114~164Hz의 범위에서 실현되었고, 경자음과 연자음의 F0 값은 마찰음 v/v'에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명음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1> 순음의 경자음과 연자음의 F0 값, 단위 Hz

단위	경자음	연자음	증감	평균값	자음 분류
p/p'	151	144	7	4	파열음
b/b'	131	130	1		
f/f'	164	154	10	12	마찰음
v/v'	133	118	15		
m/m'	114	114	0	0	공명음
평균	145	136.5	8		

11) 모음이 포먼트 구조를 가지므로 자음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음 뒤에 위치한 모음의 포먼트를 측정함

<표2> 설음의 경자음과 연자음의 F0 값, 단위 Hz

단위	경자음	연자음	증감	평균값	자음 분류
t/t'	163	147	16	6	파열음
d/d'	123	122	1		
k/k'	148	146	2		
s/s'	167	152	15	15	마찰음
z/z'	132	117	15		
n/n'	122	118	4	10	공명음
l/l'	129	118	11		
r/r'	143	126	17		
평균	141	131	10		

<표2>의 설음 그룹에서는 무성 파열음 t/t', 무성 마찰음 s/s', 유성 마찰음 z/z' 및 유성 공명음 r/r'에서 경자음과 연자음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m/m'을 제외한 모든 자음에서 기본 주파수(F0)가 연자음보다 경자음에서 더 높았으므로 F0 값이 연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평균값의 차이가 9로 나타나 변군혁이 주장한 바와 같이 F0 값은 경자음과 연자음을 구분해주는 보조 단서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변군혁 2007:105).

#### 4.1.2. 제1포먼트 값과 경자음 및 연자음의 음향적 특성

제1포먼트 값은 모음의 개구도와 관련하여 저모음에서 높고 /i/와 같은 고모음에서는 낮아 상승 자질을 나타낸다. 모든 자음 환경에서 F1의 값은 경자음보다 연자음에서 낮아 구개음화 현상에 의한 상승 자질을 나타내었다.

<표3> 순음의 경자음과 연자음의 F1 값, 단위 Hz

단위	경자음	연자음	증감	평균값	자음 분류
p/p'	592	355	237	176	파열음
b/b'	484	369	115		
f/f'	504	414	90	99	마찰음
v/v'	489	381	108		
m/m'	242	231	11	11	공명음
평균	518	382	137		

순음 그룹에서 연자음과 경자음 값의 차이는 무성 파열음 p/p'에서 가장 크고 유성 공명음 m/m'에서 가장 작았는데, 이는 무성 파열음 /p/에서 상승성이 가장 크고 구개음화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순음 그룹에서 상승성은 파열음>마찰음>공명음 그룹 순으로 컸다.



&lt;표4&gt; 설음의 경자음과 연자음의 F1 값, 단위 Hz

단위	경자음	연자음	증감	평균값	자음 분류
t/t'	585	449	136	138	파열음
d/d'	464	314	150		
k/k'	578	450	128		
s/s'	455	364	91	96	마찰음
z/z'	419	318	101		
n/n'	261	243	18	129	공명음
l/l'	500	293	207		
r/r'	514	353	161		
평균	461	349	111		

설음 그룹에서 연자음과 경자음 값의 차이는 유성 공명음 /l/에서 가장 크고 무성 파열음 s/s'에서 가장 작다, 이는 유성 공명음 /l/에서 상승성이 가장 잘 나타나 구개음화 현상이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설음 그룹에서 상승성은 파열음>공명음>마찰음 그룹 순으로 컸다.

모든 자음에서 F1 값이 연자음보다 경자음에서 더 높았으므로 상승성을 의미하는 F1 값은 경자음과 연자음을 구분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 4.1.3. 제2포먼트 값과 경자음 및 연자음의 음향적 특성

제2포먼트 값은 모음의 전후설과 관련하여 전설모음에서 높고 후설모음에서 낮다. 모든 자음 환경에서 F2의 값은 경자음보다 연자음에서 높으므로 구개음화 현상으로 전방성 자질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순음 그룹에서 경자음의 F2 값은 939~1,304Hz, 연자음은 1,326~2,122Hz의 범위에서 실현되었고, 설음 그룹에서 경자음의 F2 값은 1,002~1,405Hz, 연자음은 1,495~1,964Hz 범위 내에서 실현되었다.

&lt;표5&gt; 순음의 경자음과 연자음의 F2값, 단위 Hz

단위	경자음	연자음	증감	평균값	자음분류
p/p'	955	1936	-981	-817	파열음
b/b'	1304	1957	-653		
f/f'	939	1895	-956	-1960	마찰음
v/v'	1118	2122	-1004		
m/m'	1204	1326	-122	-122	공명음
평균	1187	1953	-767		

순음 그룹에서 연자음과 경자음 값의 차이는 유성 마찰음 v/v'에서 가장 크고 유성 공명음 m/m'에서 가장 작았는데, 이는 유성 마찰음 /v/에서 전방성이 가장 크고 구개음화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순음 그룹에서 전방성은 마찰음>파열음>공명음 그룹 순으로 컸다.

<표6> 설음의 경자음과 연자음의 F2값, 단위 Hz

단위	경자음	연자음	증감	평균값	자음분류
t/t'	1421	1926	-505	-541	파열음
d/d'	1332	1868	-536		
k/k'	1382	1964	-582		
s/s'	1397	1859	-462	-508	마찰음
z/z'	1405	1959	-554		
n/n'	1141	1495	-354	-578	공명음
l/l'	1002	1814	-812		
r/r'	1379	1948	-569		
평균	1242	1844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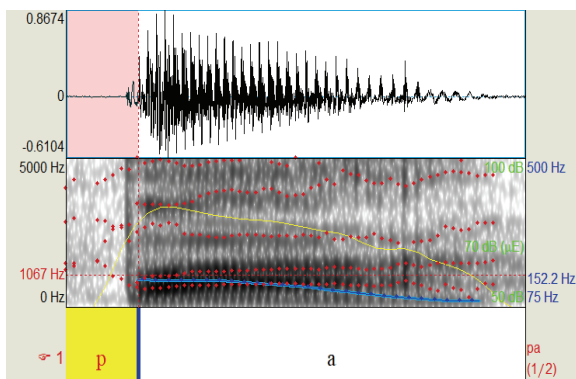
설음 그룹에서 연자음과 경자음 값의 차이는 유성 공명음 l/l'에서 가장 크고 유성 공명음 n/n'에서 가장 작다, 이는 유성 공명음 l/l'에서 전방성이 가장 잘 나타나 구개음화 현상이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설음 그룹에서 전방성은 공명음>파열음>마찰음 그룹 순으로 컸다.

모든 자음에서 F2 값이 연자음보다 경자음에서 더 높았으므로 상승성을 의미하는 F2 값은 경자음과 연자음을 구분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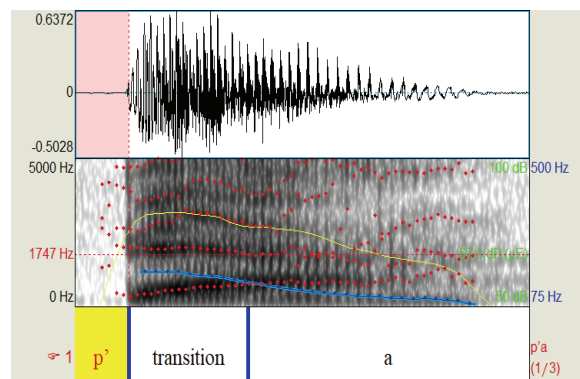
## 4.2.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한 연자음의 음향적 특성

### 4.2.1. 순음 그룹 연자음의 음향적 특성

순음 그룹은 파열음 p/p', b/b'와 마찰음 f/f' 및 v/v', 공명음 m/m'이 있다. 대표적으로 양순 무성 파열음 p/p' 스펙트로그램을 비교해보면, p/p' 두 자음 모두 스펙트로그램에서 일정 부분의 묵음부와 일정 부분의 파열부로 나타나 무성 파열음의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p'의 스펙트로그램에서 자음과 인접한 부분을 관찰해보면 F1과 F2가 떨어져 있다가 모음 /a/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급격하게 F2의 값이 줄어들어 F1과 F2가 서로 가까워지는 포먼트 전이구간(formant transition)이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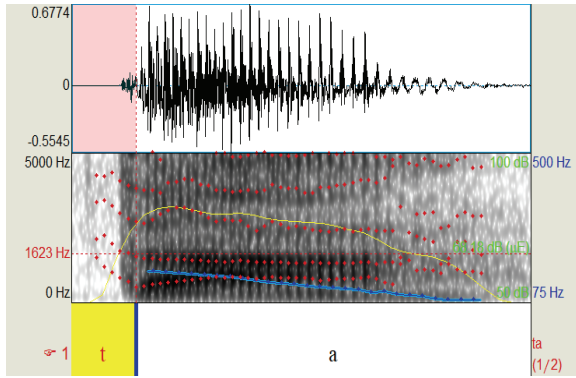
<그림1> /pa/의 스펙트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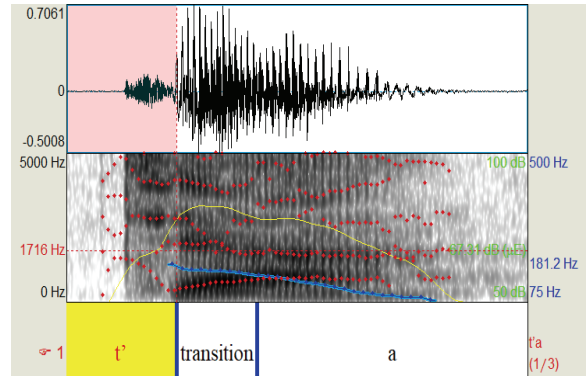
<그림2> /p'a/의 스펙트로그램

### 4.2.1. 순음 그룹 연자음의 음향적 특성

설음 그룹 중 파열음 /t/, /d'/에서는 파찰음화 현상으로 조음 위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조음 방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아래 스펙트로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ta/의 스펙트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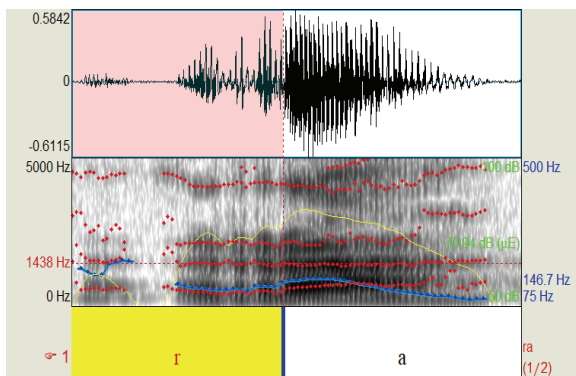


<그림4> /t'a/의 스펙트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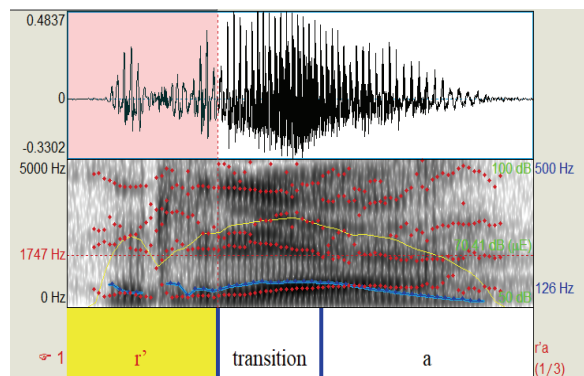
무성 파열음 t와 t'의 스펙트로그램과 음파를 비교해보면 앞서 살펴본 다른 연자음과 같이 연자음 뒤 모음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F2 값이 급격하게 하강하고 F1 값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고, 자음 구간에서 t는 기식구간만 존재하는 반면, t'의 음파에서는 소음 에너지의 상승 시간(rise time)과 마찰 구간<sup>12)</sup>이 나타난다.

이것은 파열 경자음 t에서 구개음화 현상으로 연자음 t'가 조음될 때 파열음에서 마찰음으로 바뀌는 파찰음화(affricated)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다르코가 /t/와 /d/에서 파찰음화가 일어난다는 주장(Bondarko 2005)과 일치하는 것이며, 혀의 상승과 전방성 차이 뿐만 아니라 경자음의 자음 음향적 자질의 변화도 나타낸다(이용권 2017:22).

한편 유성 전동 공명음 r/r'의 음파와 스펙트로그램을 비교해보면 /r'/은 /r/보다 더 짧은 시간에 전동이 반복되었고, 자음 /r/ 구간에 비해 /r'/ 및 전이구간에서 더 높은 주파수가 우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5> /ra/의 스펙트로그램



<그림6> /r'a/의 스펙트로그램

12) 마찰구간(frication interval)은 압축이 점진적으로 개방됨으로써 생성되는 와류 소음 구간임(Kent 외 2007:165).

그리고 /r/에서 전동이 4회 반복되었으나 /r'/에서는 3회로 줄어들었고, 이것은 다른 피험자에서도 동일하게 전동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본다르코는 /r'/은 전동음에서 거의 파열음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Bondarko 2005:8), 실험결과 전동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전동성의 횟수가 줄어든 것을 보여주었다.

## 5.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원어민의 경자음-연자음 13쌍에 대한 CV 음절 발화 실험을 통해 러시아어 연자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성을 분석해 보았으며, 구개음화 현상이 각각의 연자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m'를 제외한 모든 경자음의 기본 주파수(F0) 값이 연자음의 F0 값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구개음화 현상으로 인해 자음의 F0 값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경자음-연자음의 F0 값의 차이는 순음, 설음 모두 마찰음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주파수는 고모음이 저모음보다 더 크고 연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은 고모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러시아어에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시 자음이 모음보다 음운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자음에 의해 구개음화 현상을 동반하는 연자음에서는 기본 주파수 값이 낮아졌다.

둘째, 제1포먼트 값은 저모음에서 높고 고모음에서는 낮아 상승 자질을 나타내는데, 모든 러시아어 경자음은 연자음보다 F1 값이 높아 연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에 의한 상승 자질을 나타내었다. 순음 그룹에서 연자음과 경자음의 차이는 무성 파열음 p/p'에서 가장 크고, 설음 그룹에서는 /l'/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상승 자질은 순음 및 설음 그룹 모두 파열음, 마찰음, 공명음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셋째, 제2포먼트 값은 전설모음에서 높고 후설모음에서 낮고, 연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은 전설모음과 연관되므로, 모든 연자음에서 경자음보다 F2가 큰 값이 나타나 전방성 자질을 잘 나타냈다. 순음 그룹에서는 경자음과 연자음의 F2 값의 차이가 마찰음에서 가장 컸으나, 설음 그룹에서는 공명음에서 전방성 자질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넷째, 설음 그룹 중 파열음 /t/, /d'/에서는 파찰음화 현상으로 인해 조음 위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조음 방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설음 파열음 /k/와 공명음 /r'/에서는 경자음과 달리 연자음에서 높은 주파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r'/에서는 전동의 횟수가 /r/보다 줄어들었다.

본 실험을 통해 경자음과 연자음의 특성인 상승성과 전방성을 변별하는 주요 음성 단서는 F1과 F2가 될 수 있고, F0는 보조 단서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수가 5명으로 적어 향후 성별과 나이 등에 따라 많은 수의 다

양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각 연자음의 에너지 분포, 진동 수 등에 대한 음향적 신호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어 경자음-연자음의 상관쌍 13쌍 전체를 대상으로 F0, F1, F2 값이 어떤 음향적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제시를 하였다는 것에는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모음 자질이 자음 자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여 어두(word initial), 모음 사이(intervocalic), 어중(medial onset, medial coda), 어말(word-final) 환경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여 그 음향적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덕수(1990). 『노어음성학』 서울: (주)진명출판사
- 강덕수(2009). 『러시아어 발음과 구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변균혁(2007). “러시아어 경자음-연자음 대립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 장애음을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노어노문학과.
- 신지영(2014). 『말소리의 이해』 서울: 한신문화사.
- 이용권(2014). “한국인 러시아어 학습자와 러시아인의 전이음 대조연구.” 슬라브어연구 제19권 2호:53-71.
- 이용권(2017). “러시아어 경자음과 연자음의 음향적 특성 연구.” 노어노문학 제29권 제1호:3-33
- 트루베츠크이, 한문희 옮김(2013). 『음운론의 원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Bennet, R., McGuire, G., Ni Chiosain, M. & Padgett, J. (2012). “An ultrasound study of Connemara Irish palatalization and velarizat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1-44.
- Bolla, K.(1981). *A Conspectus of Russian Speech Sounds*: Academy of Sciences, Budapest.
- Bondarko, L.V.(2005). "Phonetic and phonological aspects of the opposition of soft and hard consonants in the modern Russian language." *Speech Communication*, No 47:7-14.
- Chiosain, M. N., Padgett, J.(2012). "An acoustic and perceptual study of Connemera Irish palatalizat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42(2), 171-191
- Kent, R.D., Read, C.(2007). 『음성 음향 분석론』 서울: 도서출판 박학사
- Knyazev, S.V.(2016). “Affricated Dental Plosive in Russian: Phonological Status and Perceptual Cues as a Trigger of Sound Changes.” *Linguistica Lettica*, 24. 138-146
- Ordin, Mikhail(2011). "Palatalization and Intrinsic Prosodic Vowel Features in Russian." *Language and Speech*, 54(4):57-65.
- Padgett, J.(2001). “Contrast Dispersion and Russian Palatalization.” *The role of speech perception in phonology*, Academic Press, 2001, pp. 187-218
- Stevens, K.(1998). *Acoustic phonetics*. Cambridge, MA:MIT Press.
- Zsiga, E.(2013). *The Sounds of Language: An introduction to phonetics and phonology*. Wiley-Blackwell
- Аванесов Р.И.(1972), *Русск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произношение. Учеб.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пед. ин-тов.* Изд. 5-е. перераб. и доп. М. “Просвещение.”
- Акишина А. А., Барановская Ц.Б.(1980). *Русская Фонетика*: Издательство русский язык
- Косовский Б. И.(1968). *Общее языкознание фонетика, фонология, грамматика. Издательство "Вышэйшая школа" Минск*

# 형식 이론 및 수리 문법을 활용한 전치사 В, на의 의미 구분

윤희준 (고려대)

## 1. 들어가며

형식 이론을 활용한 언어 표현의 의미 분석은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자연언어 문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자연언어 문장의 의미를 논리 언어와 수학적 해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형식 이론의 관점에서 의미를 해석<sup>1)</sup>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단어, 구, 절에 대한 형식 언어로의 번역 및 해석이 먼저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고안, 제시된 형식 언어의 표현은 문장에서 ‘논항(argument)’으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명사(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대명사(местоимение), 동사(глагол), 형용사(прилагательное), 그리고 부사(наречие)의 표현이 대부분이나, 관계절(относительные положения) 및 전치사(предлог)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형식 언어의 예나 그에 대해 제시된 방법론이 많지 않다. 따라서 관계절이나 전치사(구)가 수반된 단문 및 복문의 자연언어 표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단편적인 방법<sup>2)</sup>이 제시되었고 활용되었다.

하지만 하나의 자연언어 표현을 형식 이론의 핵심인 ‘언어 표현의 진리치 검증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별,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계절 및 전치사 등의 자연언어 표현에 대해서도 가장 일반화(Generalized)할 수 있는 형식 언어로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형식 언어의 해석에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언어 표현, 특히 단어(слово)의 외연

1) Montague(1974)에서 제시하는 Montague 문법의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로 진리 조건(Truth Condition)적 의미해석을 언급할 수 있다. Montague는 형식 문법에 대하여 철학자 및 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논리 및 수학적 언어(Logical and Mathematical language)를 자연언어 문장의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자연언어 문장의 형식 언어로의 번역뿐만 아니라 그 문장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진리치(Truth or False)를 가지는지를 구별, 검증하는 것으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2) 문귀선(2011)에 이에 대해 간단하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치사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형식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전치사(구)(PP)의 표현은 단순히 명사구(NP)와 같이 하나의 논항으로 규정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논리 언어(Logical Language)로 번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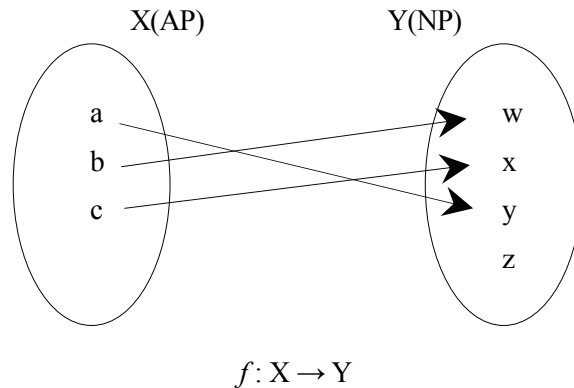
\* Lee was the person in the corner.

= (lee' = the-person-in-the-corner')

(extension)이 가지는 내포(intension)적 의미(смысл)가 매우 다양하며 한 가지 외연에 내포될 수 있는 요소들이 해당 표현의 외연을 기준으로 하나의 집합(set)적 관계<sup>3)</sup>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절 및 전치사의 자연언어 표현에 대해서도 형식 언어의 표현과 그에 대한 의미유형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형식 이론이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자연언어인 영어의 경우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전치사의 경우<sup>4)</sup> 일부 형식 언어 표현 및 논리적 문법규칙<sup>5)</sup>이 존재한다. 전치사(구)를 형식 언어로 표현할 때는 우선 전치사 어휘, 명사가 수반된 전치사구, 그리고 해당 전치사구가 수식해주는 선행 명사와의 관계를 규명하되 첫째, 형식 언어 표현, 둘째 전후 관계된 어휘의 외연과의 집합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유형(semantic type)을 살펴보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전치사구가 포함된 자연언어 표현도 형식 언어 표현과 그에 따른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러시아어의 경우는 러시아어 전치사구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어만의 특수한 속성 때문에 이러한 보편적 형식 이론을 직접적으로는 온전히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sup>6)</sup>. 따라서 본 논지를 통해서 러시아어 전치사(구), 그중에서도 ‘장소’와 ‘방향’의 의미를 가지는 ‘в’와 ‘на’가 표현된 자

3) Wall(1972)에서 제시하는 수학적 집합 관계를 언급하면 한 단어가 가지는 외연을 집합 X 및 Y, 그에 내포되어 있는 원소(element)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합 X의 외연 중 하나를 хороший, 집합 Y의 외연 중 하나를 инженер라고 한다면 이 хорошему에 해당하는 инженер가 1차적으로는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세상에는 명확히 그 수를 알 수 없는 ‘хороший инженер’가 있고, 그 수많은 대상들이 내포(intension)가 되며, 그 대상들을 공통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외연(extension)이 ‘хороший инженер’라는 것이다.

- 4) 앞서 관계절도 언급하였지만, 본 논지에서는 관계절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 5) Montague 문법에서 이에 대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간략한 규칙 표현 중 하나를 다음에서 참고할 수 있다(Heim & Kratzer(1998)).
- \* By FA:  $[[in\ Texas]] = [[in]]([[Texas]])$   
 By lexical entry for Texas:  $[[Texas]] = Texas$   
 Hence:  $[[in\ Texas]] = [[in]](Texas)$   
 By lexical entry for in:  $[[in]](Texas)$   
 $= [\lambda x \in De \cdot [\lambda y \in De \cdot y\ is\ in\ x]](Texas) = \lambda y \in De \cdot y\ is\ in\ Texas.$   
 Hence:  $[[in\ Texas]] = \lambda y \in De \cdot y\ is\ in\ Texas.$
- 6) 영어의 경우는 확일적으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형태를 취하지만, 러시아어의 경우는 선행 동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예: 운동 및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 등) 전치사 뒤에 다양한 격(падеж)을 취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연언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형식 이론을 적용하고 형식 이론적 의미해석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러시아어의 특수성 속에서 부여될 수 있는 의의에 대해서도 논해보고자 한다<sup>7)</sup>. 형식 언어 분석 간 발생하는 차이점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형식 언어로의 표현을 위한 ‘장소’의 개념과 ‘방향’의 개념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인지미론의 영상 도식(Image Schema)의 개념을 간략하게 언급하여 형식화 과정을 뒷받침할 것이다.

## 2. 영상 도식에 의한 전치사 в, на의 의미 구분

### 2.1. 인지미론 세부 이론의 소개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듯이 러시아어 전치사 в와 на는 두 가지의 용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뒤에 전치격(предложный падеж)을 수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격(винительный падеж)을 갖는 것이다<sup>8)</sup>. 또한 в/на 전치사 뒤에 N(P)의 Пп 혹은 Вп가 위치하는 기준은 아래에 정리한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김자용, 2007).

표 1. 러시아어 전치사 в/на의 의미 구분

	Preposition(в)	Preposition(на)
Prep. + Пп	장소, 공간, 환경 등	
	내부(입체성)	표면(평면성)
Prep. + Вп	방향성, 운동의 성질	

#### 2.1.1. 그릇 도식 이론

Johnson(1987: 21-23)에 언급되어 있는 인지적 도식 이론<sup>9)</sup>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주요한 함의 혹은 이미지 도식적 구조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용기’라는 것은 외부의 힘으로부터 보호, 혹은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둘째, 내용물(용기 안에 들어

7) 본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 Heim & Kratzer(1998)에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였다.

8) Кузнецов(1998)를 참고하면 전치사 в와 на의 세부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в와 на의 인지미론적 접근에서의 핵심적인 의미들을 위주로 논지를 전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의미를 다 언급하지 않고 일부만 참고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в의 의미: Пп) 장소, 공간, 환경 등.

Вп) 움직임, 활동, 방향.

\* на의 의미: Пп) 위치, 놓여있는 장소 등.

Вп) 움직임이 향하게 되는 대상(물건, 장소 등)

9) Lakoff(1987)에서는 이에 대해 우리의 몸을 그릇 속에 있는 대상물로서 경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첫 번째 경험은 산모의 자궁 속의 경험인데 외부 세계로부터 안전하다는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있는)은 용기 안에서만 그 힘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 셋째, 앞서 제시한 두 번째 결론에 의하여 용기 속 내용물이 ‘고정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sup>10)</sup>. 결국, Johnson이 제시하고 있는 위의 내용은 러시아어의 ‘전치격’과 관련된 특성을 인지의미론적인 관점에서 관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러시아어 전치사 *в/на*가 뒤에 전치격의 명사(구)를 수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도식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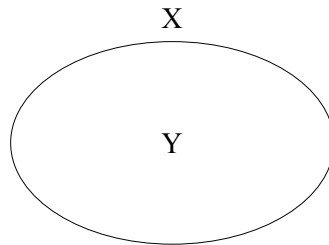


그림 1. ‘고정성’의 도식

### 2.1.2. 방향 도식 이론

하지만 운동성 및 방향성의 속성을 가리킬 때는 다른 개념<sup>11)</sup>이 도입된다. Johnson(1987)에서는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고정성(제한된 장소 안에서의 실체, 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운동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운동성이라는 것은 고정성과는 반대로 내용물이 이동, 즉,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내용물(실존하는 어떠한 것)이 ‘이동(운동)’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하는 인지적 관점에서의 ‘운동성’은 러시아어 전치사 *в/на*의 ‘운동 및 방향성’의 속성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2. ‘운동성’의 도식

## 2.2. 형식 이론으로의 대입

### 2.2.1. *в/на + чём*의 사례

2.1.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렇듯 인지의미론에서의 ‘도식 이론’은 2가지의 중요한 측면인 ‘고정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어 전치사 *в, на*의 *Пп*를 형식 언어로

10) Johnson(1987)이 제시한 결론은 본래 5가지가 명시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형식 이론의 적용을 위한 근거로서 3가지의 주요사항만 언급한다.

11) 이와 관련하여 Hill(1991)을 참고할 수 있다. 사람은 방향을 인지할 때 수평보다 수직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수평적 측면에서는 전/후의 관계가 좌/우 관계보다 더 수월하게 개념화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번역하는데 있어서도 이 인지의미론적인 관점을 도입할 수 있다. 형식 이론으로의 대입에 있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합(set)과 함수(Function)’의 관계이며, 또 하나는 형식 언어로 번역 시 문장이 ‘합성성의 원리(Compositionality)<sup>12)</sup>’의 합목적성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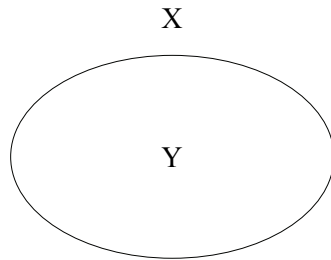


그림 3. ‘고정성’의 도식(그림 1.과 동일)

먼저, 집합과 함수의 개념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그림 1.의 도식이 직접적으로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그림 1.에서는 Y라는 콘텐츠가 X라는 ‘용기(그릇)’ 속에 ‘고정’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곧 형식 이론의 단편문법<sup>13)</sup>(Grammar Fragment)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입 및 적용이 가능하다.

- (1) a.  $y \rightarrow \text{element(or entity)}$
- b.  $X \rightarrow \text{Formula(or Output type)}$
- c.  $X = \{y\}$
- d. Lp의 유형 (Typical Predicate for Lp)
  - d.1. e는 유형이다.
  - d.2. t는 유형이다.
  - d.3. 만약 y가 유형이고 X가 유형이라면  $\langle y, X \rangle$ 는 유형이다(=  $\langle e, t \rangle$ )

(1)의 내용을 통해 인지의미론적 도식을 형식의미론적 도식으로 어렵지 않게 적용 가능하며 또한 그에 맞게끔 간단하게 일련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a)의 경우는 집합 X 내에 속한 원소(혹은 부분집합(subset))로서 y가 ‘원소(element)’가 된다는 것을 규칙으로 상정한 것이며, (1b)의 경우는 집합 X란 그 구성원인 원소(부분집합) y가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12) Partee(1984)를 통하여 합성성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는 문장 내 구성요소가 통사적으로 오류 없이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내 요소(단어 및 구)들의 논리적 결합 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3) Montague 문법에서는 논리언어 번역 시 논리적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형식 언어 표현의 진리조건을 판별, 검증할 수 있는 일련의 번역 및 해석 규칙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단편문법(Grammar fragment)’이라고 한다.

임의의 집합임을 말하며 이는 곧 논리적 출력유형이 된다. 또한 집합과 함수의 관계를 (1c)를 통해 나타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1d)를 통하여 형식 언어 변환을 위한 단편문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위 내용 중 최종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의미유형에 관한 내용이다. (1d3)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langle y, X \rangle$ 가 하나의 의미유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형식 이론에서의 보편적 기준이 되는  $\langle e, t \rangle$  유형과 일치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러시아어 전치사  $\text{в/на}$ 의 뒤에  $\text{чѐм(PP/Ππ)}$ 의 형태가 위치하는 언어 표현의 의미유형은  $\langle e, t \rangle$ 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앞서 상정한 바와 같이 그 의미유형을  $\langle e, t \rangle$ 로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실제적인 러시아어(자연언어) 표현을 형식 언어로 번역(변환)할 경우 과연  $\langle e, t \rangle$ 라는 의미유형 자체가 ‘적형성(Well-formedness)’을 취하는가의 문제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표현이든 전치격을 수반하는 러시아어의 표현이든 이 PP가 완전한 문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의미유형 관계식에 오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위에 일시적으로 제시한  $\langle e, t \rangle$ 의 유형이 합성성의 원리에 맞게 적절히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14)</sup>.

### 2.2.2. $\text{во/на} + \text{что}$ 의 사례

이 경우는 2.2.2와 다른 양상을 가진다. 2.2.1.에서는 PP(set X)에 위치하는 NP(element y), 즉 NP가 PP에 ‘집합’의 개념으로서 ‘종속(고정)’된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으나, PP뒤에  $\text{Bπ}$ 가 오는 상황에서는 원소 y와 집합 X 간의 종속(고정, 혹은 집합과 부분집합의 관계 등)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그림 2.**를 통하여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 ‘운동성’의 도식(그림 2.와 동일)**

속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지시하는 X는 러시아어 운동동사와 결부되는 PP의 외연을 가리키며, y는 **그림 1.** 혹은 **그림 3.**에서와 동일하게 PP에 위치하는 NP(여기서는  $\text{Bπ}$ )를 의미한다. 즉, 위 도식을 해석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PP의 콘텐츠인 y가 PP의 외연인 X에 포함(속하는)되는 관계가 아니라, PP의 외연이 자신의 콘텐츠인 y로 이동, 즉 오히려 전혀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위와 같이 X가 y로 ‘향하는’ 유형이라면 앞서 2.2.1.

14)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바와 같이 X와 y의 의미유형이 동일하게 <e,t>의 유형을 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X는 독립적으로 <e,t>라는 의미유형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의미유형이란 술어를 기준으로 술어가 취하는 논항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e,t>라는 유형은 1항술어(one-place predicate)의 속성으로서, 하나의 개체(entity)가 원소로서 모여 집합으로서 최종 공식(혹은 통사론적으로 ‘문장(S)’이라고도 한다) t를 도출하는 것인데, 위 도식에서의 X는 y와 그 어떠한 집합적으로 포함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e,t>의 의미유형으로 상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애매모호한 X와 y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어는 영어와 달리 분명하게 ‘운동성’을 나타내는 동사(운동동사)의 범주가 존재한다. 따라서, ‘방향성’과 관련된 인지의미론적 관점의 형식 이론으로의 대입에 있어서 B<sub>n</sub>를 수반하는 PP는 반드시 논리언어로의 번역 및 해석 시 선행하는 운동동사(VP)와 결합하여 대상인 y와의 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sup>15)</sup>.

### 3. 형식 이론에 의한 분석

Heim & Kratzer(1998)에 제시된 PP(전치사구)의 보편적 의미해석 방법을 살펴보면 총 세 가지의 경우로 PP를 판단한다. 첫째는 논항(argument)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한정적 수식어(restrictive modifier), 마지막으로 비한정적 수식어(nonrestrictive modifier)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논항이란 하나의 NP로서, 한정적 수식어란 선행 NP를 수식해주는 역할로서, 그리고 비한정적 수식어란 삽입의 형태로서 문장의 주요성분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Heim & Kratzer, 1998: 64).

- (2) a. a part of Europe  
 b. a city in Texas  
 c. Susan, from Nebraska,

(2a)의 경우 비록 part라는 NP가 존재하여도 PP인 of Europe이 part of Europe에서 마치 NP처럼 독립적인 논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b)의 경우는 PP인 in Texas가 선행하는 NP인 city를 의미상으로 수식해주며, (2c)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문장 내에서 위치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어’의 역할을 한다. 이 중에서 본고에서 러시아어 전치사구 표현에 활용할 의미해석 방법으로 (2a)와 (2b)의 방법을 적용해 볼 것이다.

15) 이 역시 3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 3.1. 일반적 개념의 논리언어 번역

#### 3.1.1. во/на + что의 사례

다음의 문장을 논리언어로 번역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번역할 수 있다<sup>16)</sup>. 하나는 단순 술어 논리언어로의 번역이며, 또 하나는 좀 더 세분화한 유형적 술어논리언어(typed logical language)이다.

- (3) a. Александр ходит в школу.  
 b. (александр' = ходит-в-школу')  
 c. (в-школу'(ходить'))(александр')

(3b)의 경우와 같이 논리언어로 번역하면 (3b)의 문장은 적형식이 되며, ‘в + PP’의 표현은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하다. (3b)에서는 진리조건 판별을 위한 외연 александр'가 ходит-в-школу'의 외연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형식 표현에서는 전치사(구)의 형식화 표현과 관련하여 달리 분석할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sup>17)</sup>. 하지만 (3c)의 경우는 다르다. (3c)의 경우는 유형적 술어논리언어로 번역한 문장이며, 그에 따라 술어(предикат)를 기준으로 술어가 취하는 논항(argument)이 각 구성원별로 독립적으로 형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위 (3c)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유형 관계식<sup>18)</sup>을 가지게 된다.

- 16) 논리언어 번역에 있어서 본 논지에서는 전체적으로 Cann(1993)에서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위에 나타낸 (2b)의 표현은 (2a)의 문장을 ‘등가문’의 형태로 형식화한 것이다.  
 17) PP를 선행 NP와 한 가지의 논항으로 결합하여 접근할 경우 PP에 대한 분석은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특히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등가문(Equative sentence)의 형태로 나타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18) 윤희준(2019)에 언급한 의미유형 관계식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관계식 전개 과정은 아래와 같다. 전치사의 의미유형은 ‘부사(предлог)’의 의미유형과 동일하게  $\langle\langle e,t \rangle, \langle e,t \rangle\rangle$ 로 간주할 수 있음을 Heim & Kratzer(1998)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개 과정을 통하여 PP의 의미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2장에서  $\langle e,t \rangle$ 라고 잠정적으로 언급한 Вп의 정확한 의미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 Шестнадцать экспертов осуществляют пять проектов периодически.

위 문장의 중의적 의미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으며 그중 첫 번째 의미에 대한 의미유형 관계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희준, 2019: 105).

- \*  $\exists_{\geq 16}x[\exists(x) \wedge \exists_{\geq 5}y[\Pi(y) \wedge (\text{периодически}'(O(y)))(x)]]$   
 осуществлять'  $\Rightarrow$  이항술어 :  $\langle e, \langle e,t \rangle \rangle$   
 (осуществлять'(y))( )  $\Rightarrow$  논항 y (단일개체) 결합 :  $\langle e, \langle e,t \rangle \rangle \times e = \langle e,t \rangle$   
 периодически'  $\Rightarrow$  부사 :  $\langle \langle e,t \rangle, \langle e,t \rangle \rangle$   
 (периодически'(осуществлять'(y)))( )  $\Rightarrow$  논항 VP ( $\langle e,t \rangle$ ) 결합 :  
 $\langle \langle e,t \rangle, \langle e,t \rangle \rangle \times \langle e,t \rangle = \langle e,t \rangle$   
 (периодически'(осуществлять'(y)))(x)  $\Rightarrow$  논항 x (단일개체) 결합 :  
 $\langle e,t \rangle \times e = t$   
 $\lambda y[(\text{периодически}'(\text{осуществлять}'(y)))(x)] \Rightarrow \lambda$  연산자의 결속 :  
 일항술어의 형태 :  $\langle e,t \rangle$   
 $\lambda P'[\exists_{\geq 5}y[\text{проект}'(y) \wedge P'(y)]](\text{периодически}'(\text{осуществлять}'(y)))(x)$   
 $= \exists_{\geq 5}y[\text{проект}'(y) \wedge (\text{периодически}'(\text{осуществлять}'(y)))(x)]$   
 $\Rightarrow$  문장 성립 :  $\langle \langle e,t \rangle, t \rangle \times \langle e,t \rangle$   
 $= t$

(4)

- ходить' ⇒ 일항술어 :  $\langle e, t \rangle$   
 ходить'(x) ⇒ 논항 x (단일개체) 결합 :  $\langle e, t \rangle \times e = t$   
 в-школу' ⇒ PP' :  $\langle \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в-школу'(ходить'(x))) ⇒ 논항 VP (t) 결합 :  
 $\langle \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times t = \text{ill-formed formula}$

(3c)의 논리언어가 가지는 구성요소별 의미유형을 살펴보면 (4)과 같이 적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언어 표현으로는 (3a)와 같이 언어 표현이 가능하지만 (3c)에서와 같이 보편적 형식 언어로의 번역<sup>19)</sup>을 통한 의미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4)에서 최종적인 의미유형 관계식에서  $\langle \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times t$ 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류라는 것<sup>20)</sup>이다.

### 3.1.2. в/на + чём의 사례

이 경우도 앞서 3.1.1.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인 자연언어 문장을 제시하고 단순 술어 논리어 형태로 번역한 형식 언어, 의미유형이 적용된 형식 언어(유형적 술어논리어)로 구분할 경우 다음과 같다.

- (5) a. Анна встречается Мишу на концерте.  
 b. (анна', встречать', миша', на-концерте')  
 c. (на-концерте'(встречать'(миша')))(анна')

$$\begin{aligned} & \lambda x[\exists \geq 5y[\text{проект}'(y) \wedge (\text{периодически}'(\text{осуществлять}'(y)))(x)]] \\ & \Rightarrow \lambda \text{ 연산자의 결속} : \langle e, t \rangle \\ & \lambda P[\exists \geq 16x[\text{эксперт}'(x) \wedge P(x)]](\exists \geq 5y[\text{проект}'(y) \wedge \\ & \quad (\text{периодически}'(\text{осуществлять}'(y)))(x)]] \\ & = \exists \geq 16x[\text{эксперт}'(x) \wedge \exists \geq 5y[\text{проект}'(y) \wedge \\ & \quad (\text{периодически}'(\text{осуществлять}'(y)))(x)]] : \\ & \langle \langle e, t \rangle, t \rangle \times \langle e, t \rangle \\ & = t \end{aligned}$$

19) 러시아어 PP에 대입하면 Вп일 경우의 의미해석을 말한다.

20) 논리학에서는 의미유형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진다. 우선  $\langle \alpha, \beta \rangle$ 라는 변항(variable)의 의미유형 일반화 형태를 놓고 볼 때,  $\alpha$ 는 입력유형(input type),  $\beta$ 는 출력유형(output type)의 속성을 가지며, 다른 의미유형과 수학적으로 계산될 때는 반드시 입력유형이 소거될 수 있도록, 또한 제2의 관계식은 반드시 제1의 관계식을 선행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 \*  $\langle e, \langle \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times e = \langle \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rightarrow$  적형식(Well-formedness)  
 $\langle \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times \langle e, t \rangle = \langle e, t \rangle \rightarrow$  적형식(Well-formedness)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선행 유형의 입력유형과 후행 유형이 일치하지 않아 비적형성(ill-formedness)을 가지는 경우이다.

- \*  $\langle \langle e, t \rangle, t \rangle \times e = ?$   
 $\langle \langle e, t \rangle, \langle \langle \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times \langle \langle e, t \rangle, t \rangle = ?$

하지만 (5)의 문장은  $\Pi$ 의 유형인  $\langle\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rangle$ 와 일치, 즉 적형성을 보인다. (5a)의 경우는 (3a)의 경우와 다르게  $\text{в/на PP}$  뒤에  $\Pi$ 를 수반하고 있는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앞서 언급한  $\Pi$ 의 의미유형이 합성성의 원리에 부합하여 적형식인 이유는 다음의 의미유형 관계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text{встречать}' \Rightarrow$  이항술어 :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text{встречать}'(y))(\_ ) \Rightarrow$  논항  $y$  (단일개체) 결합 :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times e = \langle e, t \rangle$

$\text{на-концерте}' \Rightarrow \text{PP}' : \langle\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text{на-концерте}'(\text{встречать}'(y))) \Rightarrow$  논항 VP ( $\langle e, t \rangle$ ) 결합 :  $\langle\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times \langle e, t \rangle = \langle e, t \rangle$

$(\text{на-концерте}'(\text{встречать}'(y)))(x) \Rightarrow$  논항  $x$  (단일개체) 결합 :  $\langle e, t \rangle \times e = t$

$\therefore$  Well-formedness.

최종적으로 하나의 완벽한 자연언어 문장, 그리고 그 형식 표현은 반드시  $t$ 가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5a)의 문장은 논리적(합성성의 원리 측면에서)으로 적형식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개념(정확하게는 ‘영어’라는 보편적 형식 언어 해석의 틀로부터)으로 PP의 의미유형을 정의하고 이로부터 형식 언어로의 번역을 시도할 경우, 이처럼 러시아어 운동동사의 경우는 논리언어로의 번역 절차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되는 격(падеж)의 구분, 즉, PP가 고정성의 속성을 지니는지 유동성(운동 및 방향성)의 속성을 지니는지 인지적 관점에 따라  $\text{Вп}$ 의 형식 언어 번역은 다른 방법이 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3.2. 인지의미론적 개념을 반영한 논리언어 번역

### 3.2.1. во/на + что의 사례

3.1.1.에서 제시한 문장이 비적형식임을 확인하였다. 다시 언급하자면,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PP는 유형이  $\langle\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rangle$ 인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을 ‘방향성’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향성’을 나타내는 PP 표현이 내제된 자연언어 표현을 논리적 오류 없이 형식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앞서 ‘방향성’과 관련하여 **그림 2.** 또는 **그림 4.**의 도식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논리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PP의 집합 외연인 X가 Y로 ‘향할 수 있도록’ PP와 그에 선행하는 운동동사(VP)가 결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 (7) a. 고정성 : 어떠한 행위를 하든 주어진 틀(그릇: 용기) 안에서 할 수 있는 환경과 진리 조건이 주어진다면 PP와 PP에 선행하는 동사는 독립적으로 별개의 것이다 (즉, 부가어의 속성이며, 단, 이동을 나타내는 ‘방향성’의 문제는 예외).
- b. 방향성 : ‘이동’이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PP가 ‘방향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동사로서 그를 뒷받침 하여야 한다(여기서는 부가어가 아니라 보충어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7b)의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в/на + что의 형태는 в/на + чем에서와 같이 PP가 독립적으로 하나의 고유한 의미유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운동동사와 결합하여 또 다른 의미유형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편문법을 설정할 수 있다.

- (8) a. VP → VP(1-place predicate: <e,t><sup>21)</sup>)
- b. y → entity
- c. X → VP X(수반할 대상: entity)
- d. VP X → VP(2-place predicate: <e,<e,t>>)
- e. Lp의 유형 (Typical Predicate for Lp)
- e.1. e는 유형이다.
- e.2. t는 유형이다.
- e.3. 만약 VP X가 유형이고 y가 유형이라면 <VP X, y>는 유형이다(= <e,t>)

(8)과 같은 단편문법 규칙을 설정하면 B<sub>n</sub> 형태의 PP를 형식 언어로 번역, 적형식을 이루게 된다. 그 이유를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운동동사(VP)는 자동사로서 <e,t>의 유형을 취한다. 그러나 기존의 전치사인 в/на를 전치사 그 자체<sup>22)</sup>로 보지 않고 VP의 또 하나의 논항(entity: e), 즉 부가어가 아닌 보충어로 취급<sup>23)</sup>하게 되면 VP와 X가 한 묶음이 되면서 VP, 정확히 말하면 VP X는 자연스럽게 개체 하나가 더 추가되어 2항 술어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y의 경우 여전히 개체로서의 속성(e)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개체(X, y)가 존재하고 그 개체를 논항으로 취하는 VP의 합성성에 이것이 당연히 부합

21) 운동동사(VP)가 <e,t>의 형태를 가지는 이유는 러시아어 운동동사들의 속성이 자동사(Intransitive verb)이기 때문이다. 자동사는 보편적으로 1개 논항을 취하는 1항 술어의 역할을 한다.

22) 부가어는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VP의 논항이 될 수 없다. 이는 통사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Cann(1993)에서는 비록 AdvP가 표현된 자연어 문장의 형식 언어 번역 시 동사가 부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AdvP가 VP를 논항으로 취하는 형태의 방법론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의미유형을 분석하고 관찰하여 보면 비단 AdvP뿐만 아니라 PP의 형태도 VP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Heim & Kratzer(1998)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23) ‘고정성’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또한 방향성에는 반드시 ‘운동’의 속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동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설정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Вп의 형태를 취하는 PP 표현 역시 비로소 적형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하였던 (3)의 문장을 재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 (9) a. Александр ходит в школу.  
 b. (александр' = ходит-в-школу')  
 c. (ходить-в'(школа'))(александр')

분명 (3)에서 제시한 문장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9c)를 살펴보면 (3c)에서 제시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 전치사 в가 (3c)에서와는 달리 운동동사(VP)와 한뫼음(VP X)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둘째, (3c)에서는 술어가 в-школу'라는 PP였던 반면에 (9c)에서는 동사(ходить')가 술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형식 여부에 대해서도 판별해보아야 한다.

- (10)  
 ходить' ⇒ 일항술어 : <e,t>  
 ходит-в' ⇒ 이항술어(Вп를 entity로 첨가) : <e,<e,t>>  
 (ходить-в'(y)\_) ⇒ 논항 y (단일개체) 결합 : <e,<e,t>t> × e = <e,t>  
 школа' ⇒ 단일개체 : e  
 (ходить-в'(y))(x) ⇒ 논항 x (단일개체) 결합 : <e,t> × e = t  
 ∴ Well-formedness.

(10)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в/на + Вп 형태의 표현 역시도 형식 언어로의 번역이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면 합성성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2.2. 진리조건 판별의 기준

앞서 Пп와 Вп의 표현을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면서 각각의 자연언어 표현이 형식 이론적 의미해석을 하기 위해 어떠한 기초적 번역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합리적인 번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미유형이 합성성의 원리에 부합하는지에 초점을 두었지만, 의미유형은 어디까지나 합성성의 원리에 부합하여 문장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sup>24)</sup> Montague 형식 이론의 핵심인 ‘진리조건적 의미론’의 관점에서도 러시아어 전치사 в/на의 의미해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4) 그러나 합성성의 원리(Compositionality)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Rosner(1992)를 참고하면 형식 언어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및 전산언어의 토대가 되며 합성성의 원리란 발화에 할당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언어 표현을 분석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야 하는 전산언어의 속성상 합성성의 원리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11) a. Александр ходит в школу.  
 b. (ходить-в'(школа'))(александр')  
 c. Анна встречается Мишу на концерте.  
 d. (на-концерте'(встречать'(миша')))(анна')

형식 언어의 의미해석, 즉 진리조건을 판별하기 위한 하나의 임의의 모형(세계)가 있다고 할 때 (11b)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진리조건 판별식을 가진다.

- (12) a.  $D_{\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 D_{\langle e, t \rangle}^{De}$   
 b.  $D_{\langle e, t \rangle} = D_t^{De}$   
 c.  $D_t = \{0, 1\}$   
 d.  $D_e = A$   
 e.  $D_{\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 (\{0, 1\}^A)^A$

위 내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2항 술어의 VP를 기준으로 각각의 논항에 대하여 먼저 술어부 논항, 그다음으로 주어부 논항의 순서로 함수 관계를 파악한다.  $D_{\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의 유형을 가지는 집합은  $D_e$ 에서  $D_{\langle e, t \rangle}$ 로 귀결되는 집합이며, 그렇다면  $D_{\langle e, t \rangle}$ 의 유형을 가지는 집합은  $D_e$ 에서  $D_t$ 로 귀결되는 집합을 말한다. 달리 말하자면, 술어부 논항인  $[[ NP_2 ]]$ <sup>M1</sup>이 술어인  $[[ VP ]]$ <sup>M1</sup>의 의미표시부여함수의 구성원, 즉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11b)에 따르면  $[[ школа ]]$ <sup>M1</sup>을 원소로 가지는 하나의 모형이 제시된 상황이 부여(참인 조건이 되는)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술어와 결부된  $[[ ходить-в ]]$ <sup>M1</sup> $[[ школа ]]$ <sup>M1</sup>의 세계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 александр ]]$ <sup>M1</sup>의 원소가 역시  $[[ школа ]]$ <sup>M1</sup>을 구성원으로 제시한 동일한 세계관 속에서 존재(참인 조건이 되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합 및 함수의 도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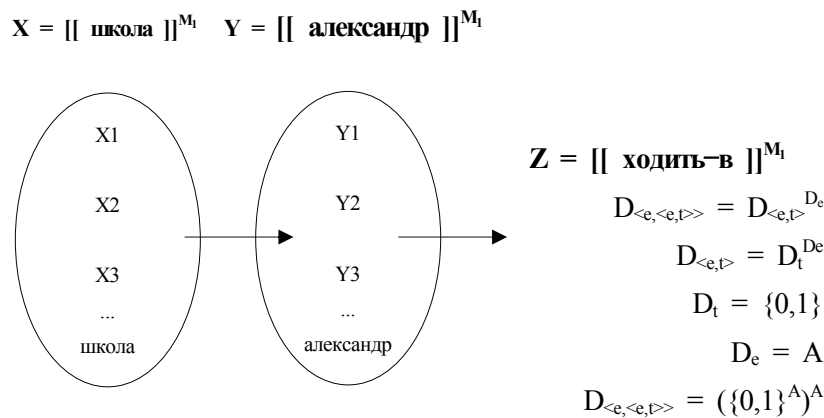


그림 5. (ходить-в'(школа'))(александр')에 대한 진리조건(Truth-condition) 판별 의미치 부여함수

그림 5.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2항 술어 VP의 의미치 함수 및 진리조건 관계식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의미유형이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인 것을 통해서 러시아어 PP에서 Bπ가 위치할 경우의 형식 언어 표현 방식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기에 자연언어를 논리언어로 번역 시 의미유형에 먼저 접근하기보다 임의로 제시하는 모형(세계관)과 그 모형속 개체 및 의미해석의 주체가 되는 전체집합(U, 여기서는 술어(VP)를 말한다) 간의 진리치 관계를 위와 같이 의미치부여함수 (Denotation assignment function)를 통해서도 파악은 가능하다.

그다음으로 살펴볼 것은(11d)에 대한 진리조건 검증이다. (11d)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진리조건 판별식을 가진다.

- (13) a.  $D_{\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 D_{\langle e, t \rangle}^{De}$
- b.  $D_{\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 D_{\langle e, t \rangle}^{D\langle e, t \rangle}$
- c. a.와 b에 의하여  $\rightarrow D_{\langle e, t \rangle} = D_t^{De}$
- d.  $D_t = \{0, 1\}$
- d.  $D_e = A$
- e.  $D_{\langle \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 (0, 1^A)^{0, 1^A}$

(11d)의 진리조건을 정리한 (13)의 진리조건 전개식을 살펴보면 (12)와 비교해볼 때 분명히 다른 진리조건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아래 그림 6.과 같은 의미치 부여함수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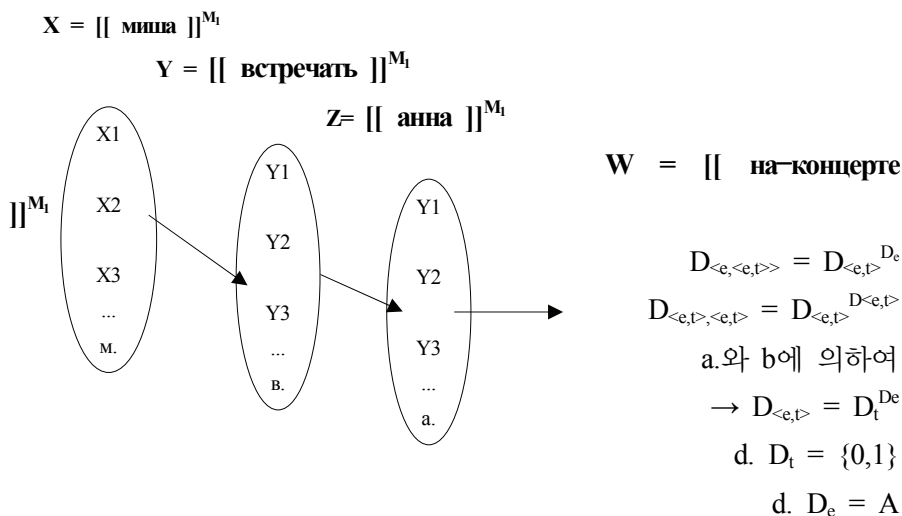


그림 6. (ходить-в'(школа'))(александр')에 대한 진리조건(Truth-condition) 판별 의미치 부여함수

그림 6.을 살펴보면 위 도식은 최종적으로 PP를 가장 상위 집합으로 위시하여 각 논항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W = [[ \text{на-концерте} ] ]^{M_1}$ 의 문제이다. 이 형식 언어 표현을 살펴보면 완전하게 전치사(P)와 전치격(Ππ)의 의미까지 분리하지는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완전하게 분리하여 순수하게 전치사 на 자체의 의미유형 및 진리조건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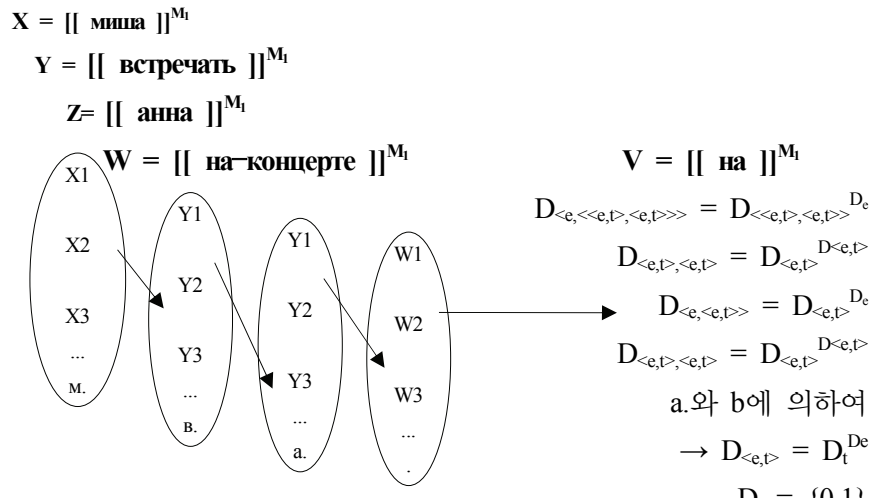


그림 7. 전치사 на(뒤에 Ππ를 동반하는 경우이며, 전치사 в의 경우도 이와 동일함)에 대한 진리조건(Truth-condition) 판별 의미치 부여함수

### 3.2.3. 그 외의 в(о)/на + что/чём을 활용한 자연언어 표현들

지금까지 본 논지에서 언급한 러시아어 PP의 표현은 술어와 논항의 형태를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자연언어 표현이 그 대상이었다. 즉, 문법적으로 볼 때 주어부와 주어가 존재하고, 술부에 술어와 그에 대한 술어적 논항들이 존재하는 전형적인 문장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어 표현 중에는 전치사(в나 на뿐만 아니라 у, к, от, с 등)와 그에 대한 선행 NP만이 문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 (14) a. Вход в квартиру.
- b. Отец в доме<sup>25)</sup>.

(14)의 두 가지 문장을 살펴보면 영어 등의 다른 자연언어에서는 보기 어려운 표현이다. 하지만 문장을 통사적으로 구성하고 있어야 하는 필수 성분이 생략 혹은 기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 제시한 자연언어의 표현 역시 앞서 살펴본 방법에 따라 형식 언어로 구분, 분석하

25) Heim & Kratzer(1998)에서 언급한 전치사 분석의 두 가지 유형 중 ‘한정적 수식어(restrictive modifier)’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는 것이 가능하다. 위 두 가지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형식화된다.

(15) a. вход-в'(квартира')

b. отец'(в-доме')

(15a)의 경우는 Вп의 형태가 취하는 해석 유형에 따라서, (15b)의 경우는 Пп의 형태가 취하는 해석 유형에 따라서 각기 술어논리어로 변환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미유형이 두 문장 모두 적형식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다.

(16) a.

вход-в' ⇒ 일항술어 :  $\langle e, t \rangle$

вход-в'(x) ⇒ 논항 x (단일개체) 결합 :  $\langle e, t \rangle \times e = t$

∴ Well-formedness.

b.

отец' ⇒ 일항술어 :  $\langle e, t \rangle$

в-доме' ⇒ PP' :  $\langle \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в-доме'(x) ⇒ 논항 x (일항술어) 결합 :  $\langle \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times \langle e, t \rangle = \langle e, t \rangle^{26}$

∴ Well-formedness.

#### 4. 마무리하며

본고에서 다룬 형식 이론 및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자연언어의 도구로서 주로 활용한다. 따라서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모든 혹은 대부분의 자연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보편성’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정 자연언어(영어를 제외한)의 특수성이 돋보일 경우 적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본고에서 살펴본 러시아어의 ‘전치사(preposition)’에 대한 문제는 접근하기 쉬운 ‘보편성’의 특징보다는 러시아어만의 ‘특수성’의 특징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어 전치사 구문은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영어와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러시아어만의 고유한 격변화, 그리고 상황 및 쓰임새에 따라 장소 및 공간과 운동 및 방향의 의미로 언어 표현의 경우를 구분하고

26) 이 경우, 최종적으로  $\langle e, t \rangle$ 의 유형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며 적형식이다. 그에 대한 근거는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는 Heim & Kratzer(1998)에서 ‘한정적 수식어’가 가지는 의미유형적 특성에 대한 언급이며, 둘째는 보통명사 отец을 양화논리어(Quantification)의 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отец은 단순한 단일개체 e가 아니라 1항 술어와 동일한 의미유형을 가지는  $\langle e, t \rangle$ 의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분석 방법에서는 자연언어 문장의 보통명사의 경우 수반하는 양화사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화’된 시각에서 개체 e가 아닌 1항 술어의 유형  $\langle e, t \rangle$ 로 간주한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형식 이론의 방법을 어떠한 중간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러시아어 전치사 구문에 적용, 분석하고자 하였다면 분명 영어에서의 분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러시아어 전치사 구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격(**Вн**) 표현의 경우는 분석할 마땅한 방법이나 근거가 없어서 특정 자연언어의 특수성에 의하여 보편적 이론의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인지의미론적’ 방법 중 기존에 선행 연구로써 러시아어 전치사 **в**와 **на**에 대한 연구에 활용된 세부 이론들을 참고, 반영하여 이를 형식의미론의 의미해석 방법론과 결부, 적용시킴으로써 러시아어 전치사 구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해석의 특수성을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는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실생활에서의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기계 번역’과의 연관성을 언급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구글 등 다양한 곳에서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영어를 기반으로 하여 가장 흔하게 통용되는 언어 위주로 번역 기능이 활성화되다보니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사용 빈도나 지역적 범위, 정치적 영향력 등이 크지 않은 나라의 언어에 대한 번역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든지, 비록 자주 사용되는 나라의 언어라 할지라도 그 나라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특수성)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아 부분적으로는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러시아어 전치사 구문, 특히 **в**와 **на**의 기계 및 전산 번역 역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전치격으로 번역되어야 할 내용이 대격으로 번역되거나, 혹은 그와 반대의 번역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이따금씩 접할 수 있다. 기계 및 전산언어학의 기반이 형식의미론적 의미해석 및 분석, 그리고 논리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이렇듯 한 나라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측면들에 대해서 형식 이론적 차원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은 바로 이 특정 자연언어의 고유한 특성과 일반적으로 내제하고 있는 자연언어의 ‘보편성’과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좁혀 나가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자용(2007), 『러시아어 전치사 в, на의 의미 확장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서울.
- 문귀선(2011), 『형식 의미론 입문』.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 윤희준(2019), 『러시아어 양화 구문의 중의성 형식화 의미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 Кузнецов С.А. (1998), *Большо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Норинт.
- Carn. R. (1993), *Formal Semantics: An introdu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im. I. and A Kratzer. (1998),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Malden, MA : Blackwell.
- Hill. C. (1991), *Recherche interlinguistiques en orientation spatiale*, Communications 53: 171-207.
- Johnson. M. (1997), *The body in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eoff.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ntague. R. (1970), *English as a formal language*, In B. Visentini et al. eds. *Linguaggi nella Societa nella Tecnica*. Milan, Editzione di Comunita: 189-224.
- \_\_\_\_\_ (1974), *The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ordinary English*, In Thomason R. H., *Formal philosophy: selected papers of Richard Montagu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Partee. B. H. (1984), *Compositionality in formal semantics: selected papers of Barbara Partee*, Malden, MA : Blackwell Pub.
- Rosner. M., Johnson. R. (1992),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formal semantic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l. R. E. (1972),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Linguistic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러시아 민담과 한국 민담에 나타나는 조력자의 양상 대조 분석\*

이희화 (고려대 석사)

## 1. 서론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호들과 마주하며 자신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표현한다. 이는 문화와 기호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화는 어떠한 집단사회 내의 사회적인 현상이 반영되어 사회구성원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성원들의 공유 속에서 발전되고 계승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기호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므로 문화는 한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호집합체라 말할 수 있다.

위의 논지를 바탕으로, 본고는 퍼스의 기호학 이론을 도구로 하여 한국과 러시아 민담 텍스트에 등장하는 조력자의 양상을 문화기호학적 관점으로 대조 분석한다. “조력자”라는 문화기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살펴봄으로써, 그가 지닌 특성이 어떠한 문화적 맥락에서 투영되었는지를 관찰하여 민담 사용자들의 의식 구조를 대조한 것이다.

## 2. 본론

민담텍스트를 분석하기에 앞서, **2.1.장**에서는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 이론을 대조 분석한다. 이는 그들이 제시한 기호 이론이 문화기호학의 범주에서 텍스트 속의 기호들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써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2.2장**에서는 문화기호론과 관련한 이론들과 프롭이 제시한 불변소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민담 속의 조력자를 분

\* 본 발표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러시아 민담과 한국 민담에 나타나는 “조력자”의 양상 대조 분석」의 내용을 요약 및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석하기 위한 도구로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위에서 제시한 이론들을 토대로 하여 3장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민담에 등장하는 다양한 조력자들의 양상을 4가지 범주(민중이 갈망하는 존재와 공간, 민중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성정, 조력자를 묘사하는 방법, 도깨비와 바바 야가의 조력 방식과 조력자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형상, 성정)로 나누어 대조 분석하였으며, 대조 분석하여 드러난 특성을 퍼스의 삼항성 이론에 대입하여 도식화한다.<sup>1)</sup>

## 2.1.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론

기호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대표적 학자인 소쉬르와 퍼스가 기호학을 바라보는 견해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전개되어 왔다. 언어학자로서 소쉬르가 기호학을 주로 언어학에 토대를 두고 연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퍼스는 기호학을 인간의 사고와 현실의 일반적 형식을 구명하는 철학적 토대에서 출발시켜 연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sup>2)</sup>

퍼스가 연구의 대상으로서 파롤에 주력한 것에 반해, 소쉬르는 랑그를 연구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는데, 소쉬르의 연구 방법으로는 문화를 서술하는데 있어 한계를 지닌 점이 드러난다.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 대상은 고정되어 있는 문화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이므로, 문화는 랑그보다는 파롤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쉬르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로만 이루어진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기호의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호작용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쉬르의 개념으로 문화기호학적 관점에서 민담 텍스트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편, 퍼스는 현상을 인간의 인식방법의 관점에서 관찰하고자 대상체와 표상체, 해석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삼항성 이론을 구축하였다. 그에 의하면 대상체는 동일하지만 표상체와 해석체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해석체는 집단 구성원들의 사고, 사상, 가치관 혹은 그들이 처한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퍼스의 이론은 우리가 기호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와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의 이론을 문화 분석의 바탕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문화 속의 다양한 기호코드들에 우리의 해석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가 생성되는

1)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동사들 모두 ‘시제’와 ‘상’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어 동사가 갖는 특징을 이야기할 때 유독 ‘상’이라는 범주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러시아어 문법에서 동사 상이 갖는 역할이 한국어 문법에서 동사 상이 차지하는 역할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러시아 민담과 한국 민담의 인물들은 인간으로서 공통된 심성, 성정 등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민담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민중들에게 있어 중요하게 혹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백 년을 걸쳐온 이야기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두 나라에서는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고, 각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도 변화하였기 때문에 두 나라의 민담에서 찾아낸 사조(思潮)는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일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두 나라 민담의 분석을 위하여 어떠한 범주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나타난 결과가 어느 한 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설정된 범주로 인해 나타난 조력자의 대조적인 특성은 두 나라의 민담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에 따라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2) 송효섭, 『문화기호학』 (민음사, 1997), 70쪽

지를 살펴보고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퍼스의 기호 이론을 도구로 삼아 한국과 러시아 민담의 조력자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2.2. 문화기호론과 불변소 이론

로트만을 비롯한 모스크바-타르투 학파는 텍스트를 ‘기호, 텍스트, 언어, 문화’라는 기호학적 체계들이 상호작용하는 기호학적 공간인 ‘기호계’라 칭하며, 문화를 관찰하는 매개로써 ‘문화기호학’의 영역을 구축하였다.

문화에는 그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내의 어떠한 팽배한 경향이 질게 배어있다. 이때 ‘경향’은 집단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사고가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향 속에는 어떠한 규칙성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문화 속에서는 ‘어떠한 규칙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sup>3)</sup> 면이 발견된다. 한 집단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고를 전체라고 가정하고 그 사고를 이루는 요소들을 부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와 부분의 상호작용은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렇듯 문화는 여러 다양한 교류 과정을 거치면서 전파되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총체적인 생활양식으로서 공유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되고 공유되는 문화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세계관, 즉 문화코드가 반영되게 된다. 문화코드는 그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인식이 바탕이 되어 생겨난 것이므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기호들의 상호작용이 담겨 있다.

이에 로트만 등은 문화기호학을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의미작용이 나타날 때 텍스트 안에 담겨있는 문화적인 기호코드(해석소)를 찾아내는 학문’이라 정의하며, ‘텍스트를 통해 새로운 메타 텍스트를 산출하는 해석의 과정’으로 바라보았다.<sup>4)</sup>

한편 프롭은 이야기를 이루는 구조와 구성 요소를 구조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었다. 프롭에 의하면, 한 문장 안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문장 성분들이 있듯이 민담의 구성 요소들도 각자만의 통사적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그는 민담 텍스트를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으로서 불변요소와 가변요소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불변요소는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작용하는 일정한 기능으로, 그 어느 이야기에서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불변적인 요소이며, 줄거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기능적 의미가 부여된다. 가변요소란 이야기 전개를 위한 기능이 부여될 수 있는, 다양하고도 수많은 변이형들로 표현될 수 있는 사건들을 가리킨다.<sup>5)</sup>

본고에서는 러시아와 한국 민담텍스트 속의 조력자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롭의 불변소 이론을 활용하였고, 그가 분류한 7가지 등장인물(적대자, 증여자, 조력자, 찾아야 할 인물과 그

3) 위의 책, 16쪽 참조

4) 안혜련, 「김승옥 소설의 문화기호학적 연구」(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24쪽 참조

5) 김진원, 「민담의 구조분석을 위한 방법론 - 불변요소의 재해석에 따른 수정안」(고려대, 2008), 308-309쪽 참조

의 아버지, 파견자, 주인공, 가짜 주인공) 중 조력자로 표현된 다양한 기호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 2.3. 분석 도구의 구축

두 나라 민담 속의 조력자 양상을 대조 분석하여 민중의 세계관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범주는 다음과 같다.

- <1> 민중이 갈망하는 존재와 공간
  - 조력자가 가진 능력에 따른 인물 유형과 그가 상주하는 공간
  - 조력자가 출현하는 공간
- <2> 민중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성정
  - 조력 사유의 능(수)동성
  - 조력자의 역할 변화 여부
  - 조력자의 조력 범위(희생 여부)
- <3> 조력자를 묘사하는 방법
  - 색을 이용한 묘사 여부
  - 수를 이용한 묘사 여부
- <4> 도깨비와 바바 야가의 조력 방식과 조력자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형상, 성정

첫 번째 범주 ‘민중이 갈망하는 존재와 공간’은 두 나라 영토의 크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여 설정하였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인 반면, 한국은 매우 작은 나라이다. 하여 그러한 물리적 공간과 관련하여 대조할만한 특성이 관찰될 것이라 생각되었으며, 실제 다양한 민담들을 살펴본 결과 조력자가 출현하거나 조력이 행해지는 공간과, 조력자가 가진 힘에서 차이점이 드러났다.

두 번째 범주 ‘민중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성정’은 지역적으로 뚜렷이 대조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동양”과 “서양”에서 강조되는 덕목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살펴보고자 설정하였다. 이때 조력의 사유(수동적 혹은 능동적)와 신의에 대한 조력자의 태도(일관적 혹은 다중적), 희생정신 강조 여부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세 번째 범주 ‘조력자를 묘사하는 방법’은 언어로 어떠한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러시아어가 갖는 다채로움에 주목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설정하였다.

네 번째 범주 ‘도깨비와 바바 야가의 조력 방식과 조력자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형상, 성정’은

두 인물이 각기 다른 성별을 갖는다는 점과 두 인물 모두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비슷한 캐릭터인 점에 주목하여,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은 어떠한지(현실적 혹은 비현실적), 그들이 조력자로 등장하는 경우 어떤 조력을 행하는지, 조력자를 통해 민중에게 강조되는 성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조의 대상으로 삼았다.

### 3. 분석

본 장에서는 러시아와 한국 민담 속 주인공들을 돕는 조력자들이 갖는 다양한 특성들을 찾아 보고,<sup>6)</sup> 그것을 각 나라의 민중 의식과 결부지어 보고자 한다.

#### 3.1. 민중이 갈망하는 존재와 공간

한국 민담에서는 인간이 가진 힘을 뛰어넘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신(神)이 조력자로 자주 등장한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과 물속, 땅속 세계 등 보이지 않는 지상 세계 이외의 공간과, 그곳을 다스리는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신을 믿는 이와 같은 마음은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들에게 기도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등의 행위를 하며 염원하는 것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신”이라는 조력자가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많은 이들은 신이 가진 힘에 기대고 의지하며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왔다. 우리 민족은 초현실적인 공간을 이상향으로 여겼고 그 공간과 그곳을 지배하는 존재를 지향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이 비현실 세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바는 한국 민담의 조력자가‘꿈’이라는 공간에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로도 유추할 수 있다. 한국 민담의 조력자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꿈에 자주 등장한다. 우리 민족은 꿈을 허황된 세계라 생각하지 않고 현실 세계로부터 연장된 공간이라 여겼다.

‘꿈’은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예로부터 꿈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예언의 수단 혹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다. 현실에서 겪는 고난과 결핍을 현실과 연결된 이상세계인‘꿈’이라는 공간을 통해 해소하려 하였던 것이다. 특히 한국 설화 문학에서 꿈은 주인공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떤 존재가 나타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공간으로 자주 등장하며, 꿈에서 누군가가 일러준 그 계시를 따르면 위험을 피하게 된다. 이것은 꿈의 영험성을 믿어

6) 본고는 『러시아 민화집』과 『한권으로 읽는 한국의 민담』 및 한국구비문학대계에 게재된 민담에서 관찰된 조력자 양상을 분석한다.

왔던 우리 민족의 민족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현세에서 원하는 바를 초자연적인 공간과 그곳에 상주하는 존재를 통해 이룰 수 있음을 염원하였다.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이상세계까지도 인정하였으며, 그곳을 지키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였던 것이다.<sup>7)</sup>

한국 민담의 조력자가 주인공의 ‘꿈’과 같은 비현실적인 공간에 자주 등장하는 것과 달리, 러시아 민담의 조력자는 많은 경우 ‘길거리’와 같은 현실 세계에서 주인공을 마주하며 그곳에서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러시아 민담은 대개 현실 세계에서 시작하여 현실 세계에서 마무리된다. 주인공은 현실 세계에서 과제를 부여받아 여정을 떠나게 되며, 과제를 수행하고 난 후의 사건은 현실 세계에서 종결된다. 이는 러시아인들이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지향했으며, 현실이라는 공간을 자신들의 이상적인 안식처로 인식했음을 드러내는 바이다.

또한 러시아 민중은 현실 세계인 자연에 있는 존재가 가진 힘을 믿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몇몇 러시아 민담에서도 더러 신이 조력자로 등장하기는 하나, 한국 민담에서는 인간이 가진 능력 중 가장 큰 것을 신의 세계, 즉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찾으며,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이라는 조력자가 빚어진 것이라면, 러시아 민담에서는 절대자인 신이 지니고 있는 초자연적인 힘보다는 다소 평범하지만, 주로 자연 세계에 있는 존재들 중 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조력자로 묘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러시아 민담에서 주인공은 인간이 혼자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머나먼 곳’(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공간)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매우 자주 설정되는데, 이때 조력자로는 거인<sup>8)</sup>, 늑대, 독수리<sup>9)</sup> 등이 자주 등장하며, 그들은 주인공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주인공을 돕는다.

깊고 넓은 바다를 헤치거나 높은 하늘로 떠올라 먼 곳으로 떠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드넓은 러시아 땅, 즉 현실 세계의 넓은 공간을 단시간에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러시아 민중들은 그 능력에 대한 갈망과 믿음을 현실 세계에 있는 강한 존재로 하여금 확인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머나먼 세계라는 현실적이고도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동경과 신뢰가 표출된 것이다.

7) 우리 민족이 비현실의 세계를 이상적인 공간이라 여겨온 경향은 민담의 끝부분에서도 흔히 엿볼 수 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의 삶은 현실의 세계에서 시작해 비현실의 세계에서 마무리된다. 주인공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자취를 감춘다던가, 그의 환생(幻生) 혹은 윤회(輪廻)를 다루는 민담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민중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삶에서 결여를 느끼는 대상 혹은 상황을 ‘꿈’이나 ‘하늘’ 등의 비현실적 세계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그 세계를 통해 간절함을 승화시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고자 하였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8) 큰 키와 거대한 체구 덕에 인간 세상의 장애물 따위는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인은 주인공을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 적합하다.

9) 새들 중 가장 위엄 있고 강한 존재라는 이미지가 반영된 독수리는 위험에 처한 주인공을 자신의 등에 태워 저 멀리에 있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거나, 적대자로부터 달아나게 하면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늘 이곳저곳을 마음껏 누비며 날아다닐 수 있는 독수리의 능력은 실존하는 새들 중 그가 가장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 민중이 갈망하는 존재와 공간

한국 – 절대적, 초자연적 힘을 가진 존재와 비현실 세계

러시아 – 자연적 힘을 가진 존재와 현실 세계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1	한국	신(神)	민중의 이상향으로써의 존재	절대적, 초자연적 힘을 가진 존재
	러시아	늑대, 독수리 등		자연적 힘을 가진 존재
2	한국	꿈	민중의 이상향으로써의 공간	비현실 세계
	러시아	길거리		현실 세계

### 3.2. 민중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성정

러시아 민담 속 조력자들은 매우 빈번히 주인공과 일면식이 없는 인물로 그려지며, 주인공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나타나 주인공을 돕는다. 조력자의 이와 같은 능동적인 모습이 민담 속에서 자주 연출되는 것은 러시아인들이 낯선 사람에 대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1)</sup>

한국 민담 속에서도 조력자들은 종종 주인공과 일면식이 없는 낯선 관계로 그려지곤 한다. 그러나 스스로 주인공에게 다가가 필요한 것을 물으며 도움을 주는 능동적인 성향이 눈에 띄었던 러시아 민담의 조력자들과는 달리, 한국 민담의 조력자들은 주인공이 기도를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하는 등의 간절한 부름에 응하여 도움을 주는, 비교적 수동적인 모습이 두드러졌다.

한편, 러시아 민담과 비교했을 때 한국 민담에서 확연히 돋보이는 다른 점을 꼽자면, ‘주인공이 남성인 경우 조력자로 등장하는 여성이 낯선 사람인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시대에 성행하던, ‘남녀가 일곱 살이 되면 자리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의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옛 한국 사회에서는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와의 만남 혹은 대화가 극히 드물었으며, 이와 같은 시대적 사상이 한국 민담에 반영

10) 민담을 분석하여 나타난 특성을 도식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간결하게 대조해보이기 위함이다. 표 안의 내용들이 어느 한 나라의 민담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11) 솔로비요프(Соловьев, В. М.)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사료된다: “모스크바 혹은 어딘가의 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외국인들)로부터 여러 번 들었다. 보통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이례적인 사교성은 놀라움을 자아낸다. (중략) 그러나 지방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다가가서 말을 거는 습성이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남아있다. 서로 난생처음 보는 두 명의 행인들 사이에서 흥미롭고 격의 없는 대화가 시작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러시아인들의 사교성은 호의적인 질문이나 도움에 대한 제안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고함, 반박, 질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Соловьев, В. М., 『Тайны русской души. Вопросы. Ответы. Версии. – Книга для чтения о русск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характере для изучающих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иностранный.』 – М.: Рус. яз. Курсы, 2001. С.93.)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민담에서는 특히 조력자가 여성일 때 주인공인 남편을 섬기는 마음으로 돕는 내용의 민담이 많았다. 이야기에서 아내는 남편을 벼슬에 오르게 하는 등 그의 입신양명을 돕는다. 이는 근대 이전 유교 문화권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음’을 가리키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옛날의 한국 사회는 남자의 권리가 강하고 남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다. 이렇듯 여자가 남자를 우위에 두는 성향은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서부터 만연했으며, 여성이 행해야 할 행동으로 ‘내조’가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남편과 가정을 잘 보살핀 열녀의 행적을 새겨 열녀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한편 러시아 민담의 조력자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역할 혹은 성격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인다.<sup>12)</sup> 이는 러시아 민담의 조력자가 ‘신의(信義)’라는 덕목에 대해 다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모습은 민담에 자주 묘사된다. 러시아 민담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서 신의가 강조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조력자의 역할이나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흔히 그려진다는 점은 한국 민담의 조력자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 민담의 조력자들은 조력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유지하며 줄곧 그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경우 그들은 주인공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기도 하며, 변절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한국 사회가 신의를 강조한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사회임을 엿볼 수 있는 특징으로,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공자의 충의사상(忠義思想)을 근본으로 하였던 것에 연유한다. 충실(忠實)과 성실(誠實)이라는 덕목을 지향한 한국인들의 가치관은 민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조력자 역시도 그러한 사상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한국 민담에서는 조력자가 죽음을 불사하며 희생까지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sup>14)</sup> 조력자의 도움 덕분에 살아남은 주인공은 많은 경우 그 희생에 감사하며 기록을 남기거나, 제사를 지내주거나, 넋을 기리며 비석 혹은 건물 등을 세운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조형물들은 실존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 민족은 희생이 인간과 자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종적 유효 방편이라 확신하는 반면, 억울한 희생은 그 정황에 따라 온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신념으로 갖고 있다.<sup>15)</sup> 이러한 민중사상이 우리의 민담에 반영되어 표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2) 러시아 민담에서 조력자는 줄곧 주인공을 돕는 경우도 있지만, 조력자가 주인공을 배신하는 적대자가 되거나 변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적대자였던 인물이 조력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13)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 시대 전부터 충의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유교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깊게 수용되었으며, 민간에서조차도 충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 유교사상은 한국 민중들의 심성에 자연스럽게 내포되어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유교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기초(基調)가 되었던 조선 시대 전에는 충의사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아울러 단체나 국가 등의 공동체에 대해 갖는 충성심이 더 강조될 수 있는 것은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서양문화에 뿌리를 둔 러시아인들의 정서보다는, 민족주의를 지향하며 공동체 정신문화가 강하게 퍼져 있는 한국인들의 정서이다. 이와 같은 경향이 자연스레 민담에 투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14) 한국에는 수많은 희생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효성(孝誠)에서 비롯한 희생, 집단의 안녕을 위한 희생, 여인이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자 행한 희생 등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15) 「희생 설화와 희생양상」 (박정세, 1984, 한국민속학회) 73쪽



러시아 민담에서는 주인공을 위한 조력자의 희생을 거의 모티브로 삼지 않으며, 비록 희생이 있었다 해도 그를 기리는 어떠한 모션(motion)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듯 ‘희생’이라는 모티브에 대한 두 나라의 민중 의식은 상이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민중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성정

한국 - 조력 사유가 다소 수동적임. 신의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취함. 희생정신이 강조됨.

러시아 - 조력 사유가 능동적임. 신의에 대한 다중적인 태도가 나타나기도 함. 희생정신이 두드러지지 않음.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1	한국	호소, 기도, 남녀칠세부동석 사상	조력 사유	조력자의 조력 사유가 다소 수동적임.
	러시아	모르는 사람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		조력자의 조력 사유가 능동적임.
2	한국	충의사상	신의	신의에 대해 일관적인 태도를 취함.
	러시아	변절, 배신		신의에 대한 다중적인 태도가 나타나기도 함.
3	한국	열녀비, 비석 등	희생정신	주인공을 위한 조력자의 희생정신이 두드러짐.
	러시아	-		-

### 3.3. 조력자를 묘사하는 방법

러시아 민담의 조력자는 회색 늑대, 회색 거위, 회색 노인 등 많은 경우 회색(серый)으로 묘사된다.

많은 이들은 대개 검정색을 ‘죽음’ 혹은 ‘어둠’ 등의 단어와, 흰색을 ‘빛’ 또는 ‘희망’ 등의 단어와 연상 짓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정색은 주로 지하세계인 저승을 나타내는 색으로, 흰색은 이승을 나타내는 색으로 묘사되곤 하는데, 이는 러시아 민담에서 적용된다. 회색은 검정색과 흰색의 중간색으로, 러시아 민담에서 회색은 저승(검정색)과 현세(흰색)의 중간, 즉 저승과 현세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위험을 무릅쓰고 과제를 수행하러 가는 것은 주인공이 현재 위치한 장소(현세)에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장소(죽음이 도사리는 곳, 저승)로 가는 과정이며, 어렵사리 과제를 수행한 후 다시 현세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의 장소(저승)에서 현세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에 회색

조력자는 주인공이 저승과 현세를 드나들며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 민담의 조력자가 특정 색으로 묘사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러시아 민담과 비교했을 때 한국 민담에서 색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러시아 민담에서 ‘세 번째’라는 수의 사용은 매우 두드러진다. 실제 러시아 민담에는 삼 형제 혹은 삼 자매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 매우 많다.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과제를 부여받거나, 부모님을 곤란한 상황에서 구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하러 떠난다. 이때 첫째와 둘째 자녀는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데, 셋째 자녀는 부모님의 조력자로서 과제를 달성하는 등 항상 자신의 형(언니)들보다 영리하고 정직하며 사려 깊은 인물로 그려진다.<sup>16)</sup>

마법의 숫자이자 완전한 성취 혹은 성공의 숫자로 여겨지는 숫자 ‘3’은 러시아 민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그리스도교 교리의 핵심적 개념인 ‘성 삼위일체(聖三位一體)(Троиц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고대 러시아 시절 러시아인들은 여러 다양한 민간신앙들을 숭배하였는데, 10세기 말 블라디미르 대공이 그리스도교를 새로이 수용하면서 러시아의 국교는 그리스도교로 바뀌게 되었다. 실제 러시아의 많은 가정집에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신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서와 교리의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한 ‘이콘(икона)’이라는 성상(聖像)이 있다. 이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성 삼위일체 진정으로 숭배하였음을 나타낸다.

한국에서도 예로부터 숫자 ‘3’ 혹은 ‘7’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라 믿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민담에 비해 한국 민담에서는 어떤 한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조력자를 묘사하는 방법

한국 - 색과 수를 통한 묘사가 두드러지지 않음.

러시아 -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주인공의 조력자로서 조력자는 주로 회색으로 묘사됨.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따르는 성 삼위일체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지혜로운 조력자는 항상 숫자 ‘3’으로 묘사됨.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1	한국	-	색을 통해 묘사된 조력자	-
	러시아	회색		저승과 이승을 넘나들며 주인공을 돕는 존재
2	한국	-	수를 통해 묘사된 조력자	-
	러시아	숫자 ‘3’		지혜로운 면모를 지닌 존재

16) 이외에도 주인공이 희망하는 바는 세 번째 시도에서 이루어지며, 주인공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인물은 그를 세 번 시험한다. 주인공은 ‘세 번의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 3.4. 도깨비와 바바 야가(Баба-Яга 마귀 할머니)의 조력 방식과 조력자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형상, 성정<sup>17)</sup>

한국의 도깨비와 러시아의 마녀 바바 야가는 민담 속에서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캐릭터이다. 긍정적 형상의 조력자로서 그들은 주인공을 물심양면으로 돕지만, 때로는 주인공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짓궂은 장난을 거는 등 적대자의 면모를 내비치는 부정적 형상을 지닌 캐릭터로 그려지기도 하여, 그들의 형상은 이야기에서 정형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 1) 한국 민담의 도깨비

한국의 도깨비는 그 이름에서부터 남성성(男性性)이 부여된다. 『석보상절』에는 도깨비가 ‘돛가비’로 쓰여 있는데, ‘돛가비’는 ‘돛’과 ‘아비’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로, ‘돛’은 불이나 곡식의 씨앗을 일컫는 종자(種子)를 뜻하고, ‘아비’는 아버지를 뜻하는 남자를 말한다.<sup>18)</sup> 이름으로 드러나는 남성성을 제외하고도, 도깨비가 술과 씨름놀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그가 남성이 띠는 보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도깨비는 재물 등 부(富)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 여러 다양한 지역의 어민들은 바다에 사는 도깨비를 고기를 가져다주는 풍어신(豐漁神)으로 여겨 풍어를 기원하며 뱃고사를 드리기도 한다. 도깨비 이야기에서 도깨비에게 도움을 받는 인물들은 대개 하층민으로, 도깨비는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궁핍을 위안하며 대리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sup>19)</sup> 현실적 결여로부터의 탈피를 바라는 민중의 욕망은 도깨비에게 재물과 풍요를 관장하는 존재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채워지는 것이다.

한편 도깨비는 방망이를 이용해 재물을 생겨나게 하여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예지 능력으로 주인공을 부자로 만드는 등 그의 입신양명에 일조하는데, 이러한 조력 방식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도깨비 설화에서 도깨비는 유교적인 윤리 이념을 지닌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로 나타난다. 실제 수많은 도깨비 이야기는 충효 혹은 형제간의 우애 등을 강조하는 유교적인 가치관 혹은 선함을 권하고 악함을 징계하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이야기 속에서 유교적인 윤리와 가치관이 강조되는 경향은 조선 시대 위정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sup>20)</sup> 도

17) 앞서 범주 <A>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 민중은 초자연적 힘과 비현실 세계를, 러시아 민중은 자연적 힘과 현실 세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도깨비와 러시아의 바바 야가가 주인공에게 행하는 조력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인공을 돕는 방법이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또 어떤 방면에서 그러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범주 <B>에서 다룬, 민중에게 강조되는 성정을 도깨비와 바바 야가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과 러시아 민중에게 있어 도깨비와 바바 야가가 갖는 조력자로서의 형상과 그들의 성별이 갖는 의미도 함께 살펴본다.

18) 김종대, 『도깨비, 잃어버린 우리의 신』(인문서원, 2017), 16-17쪽

19) 위의 책, 163-164쪽 참조

깨비는 그러한 덕목을 지닌 사람들을 돕는 조력자로 묘사된 것이다.

## 2) 러시아 민담의 바바 야가(Баба-Яга, 마귀 할머니)

바바 야가(Баба-Яга)는 부인, 여성을 뜻하는 바바(Баба)라는 단어와 마녀, 마귀할멈을 뜻하는 야가(Яга)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단어 자체에서부터 여성적 특성이 강조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자신의 상징물인 절구통을 타고 다니며, 절구공이로 하늘을 젓고 다니면서 빗자루로 그 흔적을 없애는 바바 야가의 모습은 그녀가 ‘대지의 모신’의 특성을 지닌 인물로 인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sup>21)</sup>

러시아는 넓은 영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렇듯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풍요로운 농경생활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컸다. 이에 성공적인 농사일을 바라는 러시아인들의 염원은 바바 야가로 하여금 대지모신의 모습을 띠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러시아 민담 속에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술한 점 이외에도, 바바 야가가 자신을 찾아온 주인공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등 그들을 환대하거나<sup>22)</sup>, 주인공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다양한 주물을 주는 등의 모습은 현실적인 조력 방법이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며, 그녀가 가진 또 다른 모성성(母性性)을 드러내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처럼 바바 야가는 모험의 세계로 향하는 주인공을 맞아 대접하고, 그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귀띔해주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때로는 경험에서 우리나라 오는 유익한 충고를 건네기도 한다. 이는 주인공에게 부여된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바바 야가의 조력 방식은 한국 민담의 도깨비가 인간을 돕는 방법에 비하여서는 대체로 현실적인 경향이 있다.

한편, 범주 <B>에서 살펴본바 러시아 민담의 조력자들이 띠는, 주인공을 돕는 데 있어 능동적인 모습은 바바 야가의 이야기에서도 관찰된다. 바바 야가는 주인공에게 자신을 찾아온 사유

20) “조선시대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대충(大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소충(小忠)이라고 하여 충효 사상을 근본적인 실천 덕목으로 삼았던 때다.”(김중대, 『저기 도깨비가 간다』(다른세상, 2000), 76-77쪽)

21) 대지를 관장하는 신은 과거 농경 사회에서 대지의 풍부함과 생산력 등을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바바 야가는 곡식을 빵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인 절구통과 절구공이를 항시 지니고 다녔으므로 러시아인들이 그를 대지의 신으로 여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아름다운 바실리사』에서 바바 야가는 바실리사와 자신의 하인들에게 밀을 골라내고, 밀을 갈고, 양귀비 씨를 골라내고, 그 씨에서 기름을 짜내라는 과제를 부여한다. 이 역시도 바바 야가가 지니는, 대지를 관장하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22) 바바 야가가 조력자로 등장하는 경우 이외에도, 많은 러시아 민담에서 조력자들이 주인공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실제 러시아는 집에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예로부터 러시아인들은 손님을 가능한 한 호화롭게 맞이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이러한 관습은 《손님이 문지방을 넘으면 가정에 행복이 있다》라는 러시아 속담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를 물으며 먼저 말을 건네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바바 야가의 조력 사유 역시도 능동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깨비와 바바 야가의 조력 방식과 조력자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형상, 성정**

한국(도깨비) - 조력 방식이 다소 비현실적임. 가난한 이들에게 재물로써 도움을 주는 존재, 조력자를 통해 충효사상, 선 등의 유교적 이념이 강조됨.

러시아(바바 야가) - 조력 방식이 보다 현실적임. 대지를 관장하여 성공적인 농사를 이끄는 존재, 조력자를 통해 능동성, 적극성이 강조됨.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1	한국	도깨비 방망이, 예지력	조력 방식	비현실적
	러시아	환대, 현실적인 조언, 주물 제공		현실적
2	한국	도깨비 방망이	조력자로서 부여된 형상	가난한 이들에게 재물로써 도움을 주는 존재
	러시아	절구공이, 절구통		대지를 관장하여 성공적인 농사를 이끄는 존재
3	한국	선량한 사람에게 도움을 줌	조력자를 통해 강조되는 성정	충효사상, 선 등의 유교적 이념
	러시아	조력자가 먼저 나서서 도움을 줌		능동성, 적극성

지금까지 다양한 범주를 설정하여 러시아와 한국 민담에 등장하는 여러 조력자들의 양상과 대조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것을 퍼스의 삼항성 이론에 대입시켜 보았다. 두 나라 민중의 다양한 문화코드들은 민담텍스트의 조력자에 투영되었으며, 문화코드들이 민중들에게 어떠한 의미작용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4. 결론**

민담은 구전되는 옛날이야기이므로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와 배경, 지역, 전달되는 방법, 전달자와 청취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모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변화요소에도 불구하고, 민담에는 민담 사용자들의 오랜 생활 속에 침전되어 있는 다양한 인식 혹은 세

계관 등이 녹아 있다. 이러한 인식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누구나 공감하여 즐기며 전달하고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공유되는<sup>23)</sup>, 민족의 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주목하며 본고는 퍼스의 기호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러시아와 한국 민담의 조력자 양상을 대조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언어학의 통사론에 적용되던 문장성분을 민담 텍스트에서 프롭의 “불변소 이론”을 응용하여 활용하였고, 민담 텍스트의 주성분 중 “조력자”로 표현된 각종의 기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때 조력자들을 대조할 수 있는 요소들(대상체)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호(표상체)로 설정하여 각 나라 민중의 관념 속에서 발생하는 의미(해석체)를 찾아보았다.

두 나라 민담 속의 조력자 양상의 대조 분석을 통하여, 두 나라 민중이 지향하는 세계와 존재(비현실 혹은 현실 세계/초자연적 혹은 자연적 존재), 추구하는 덕목(조력 사유의 수동성 혹은 능동성/신의에 대한 일관성 혹은 다중성/희생정신의 강조 여부), 표현 방식(색과 수를 이용한 다채로운 표현의 여부)에 있어 차이점이 나타났으며, 이외에 도깨비와 바바 야가가 조력을 행하는 방면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퍼스의 삼항성 이론은 다소 복잡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민담을 대상체, 표상체, 해석체를 설정함으로써 간결하게 분석할 수 있는 틀임에는 분명하나, 대상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칫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점은 한계점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문화 교류 현상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고, 사회의 동향은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담에서 발견되는 조류(潮流)를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으로 바라볼 수 없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퍼스의 이론은 민담 내 문화코드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적절한 수단임이 틀림없으며, 앞으로도 이 이론은 민담텍스트뿐만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23) 김진원, 「민담텍스트의 분석방법론 1 : 의식변화에 따른 조력자의 기능변화」(고려대, 2009), 1-2쪽 참조

## 참고문헌

- 김성도(1995), 퍼스의 기호학. 「한국논단」(한국논단), Vol.65 No.1, 148-155.
- 김수환(2003), 로트만 기호학에 있어서 소쉬르적 유산의 문제 -“문화 기호학”의 위상과 전망 - . 「기호학 연구」(한국기호학회), Vol.14 No.-, 235-266.
- \_\_\_\_\_(2011), 『사유하는 구조-유리 로트만의 기호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 김종대(2000), 『저기 도깨비가 간다』. 다른세상.
- \_\_\_\_\_(2017), 『도깨비, 잃어버린 우리의 신』. 인문서원.
- 김진원(2008) 민담의 구조분석을 위한 방법론 - 불변요소의 재해석에 따른 수정안. 「슬라브어연구」(한국슬라브어학회), Vol.13 No.-, 307-321.
- \_\_\_\_\_(2009), 민담텍스트의 분석방법론 1 : 의식변화에 따른 조력자의 기능변화. 「Acta Russiana」(고려대학교 러시아 CIS연구소), Vol.1 No.-, 3-15.
- \_\_\_\_\_(2010), 민담텍스트의 내면적 구조 분석; 러시아 민담을 관찰 자료로. 「슬라브어연구」(한국슬라브어학회), Vol.15 No.2, 173-182.
- 김치수(1998),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노양진(2016), 퍼스의 기호 개념과 기호 해석. 「철학논총」(새한철학회), Vol.83 No.1, 96-110.
- 박정세(1984), 희생설화와 희생양상. 「한국민속학」(한국민속학회), Vol.17 No.1, 65-74
- 블라디미르 프로프 지음, 유영대 옮김(2007), 『민담형태론』. 새문사.
- 송효섭(1997), 『문화기호학』. 민음사.
- \_\_\_\_\_(1999),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 안상훈(2011), 러시아 요술담 의미 분석 방법론에 관한 소고. 「외국문학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Vol.- No.41, 187-216.
- 안혜련(1999), 김승옥 소설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알렉산드르 아파나세프 지음, 서미석 옮김(2000), 『러시아 민화집』. 현대지성사.
- 오세경(1998), 『한권으로 읽는 한국의 민담』. 석일사.
- 유재천·어건주(2003), 로트만 기호계의 분석적 수용. 「세계문학비교학회」(세계문학비교학회), Vol.19 No.-, 181-201.
- 전성희(2011), 민담 모티프의 상징성 비교. 「Acta Russiana」(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Vol.3 No.-, 3-22.
- \_\_\_\_\_(2015), 민담 모티프의 변용 양상 연구 - 러시아 요술담의 바바야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Vol.39 No.-, 241-286.
- 한국구비문학대계(gubi.aks.ac.kr)
- Андреев, А. П., Селиванов, А. И.(2004). *Русская традиция*. - М.: Алгоритм.
- Булгаков, С. Н.(2001). *Православие: Очерки чтения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АСТ» ; Харьков: «Фолио» , (Б-ка «Р. X. 2000» . Серия «Религиозная философия» ).

- Добровольская, В. Е.(2009). *Предметные реалии русской волшебной сказки*. –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й центр рус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 Кореповой, К. Е.(1992). *Русская волшебная сказка : Антология/* Сост., вступ. ст., коммент. К. Е. Кореповой . – М.: Высш. шк. (Б-ка студента-словесника).
- Лотман, Ю. М.(2002). *История и типологи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етербург: «Искусство – СПб» .
- Павловская, А. В.(2009). *Русский мир: характер, быт и нравы*, В 2 т. – М.: СЛОВО/SLOVO, 2009. – Т. 1.
- Пропп, В. Я.(1998). *Морфология <волшебной> сказки. Исторические корни волшебной сказки. (Собрание трудов В. Я. Проппа.)* Комментарии Е. М. Мелетинского, А. В. Рафаевой. Составление, научная редакция, текст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ментарий И. В. Пешкова. – Издательство "Лабиринт", М.,1998. – 512 с.
- Соловьев, В. М.(2001).*Тайны русской души. Вопросы. Ответы. Версии*. – Книга для чтения о русск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характере для изучающих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иностранный, М.: Рус. яз. Курсы.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 공시성과 통시성

## 제4분과 사회과학분과

| 일시 |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09:30~20:30)

| 장소 | 고려대학교 자연대캠퍼스 하나스퀘어

| 주최 |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국노어노문학회  
한국슬라브어학회, 한국러시아문학회

| 주관 | 한국러시아문학회

| 후원 | 한국연구재단, 한러대화,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공시성과 통시성

## 제4분과 사회과학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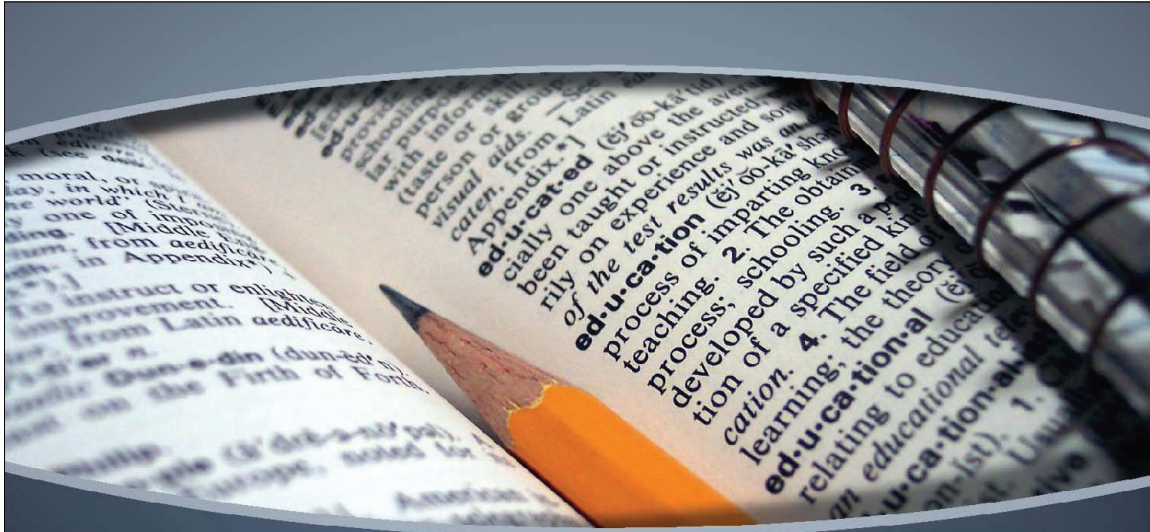
사회과학분과A :

### 중앙아시아에서의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사회: 손영훈 (한국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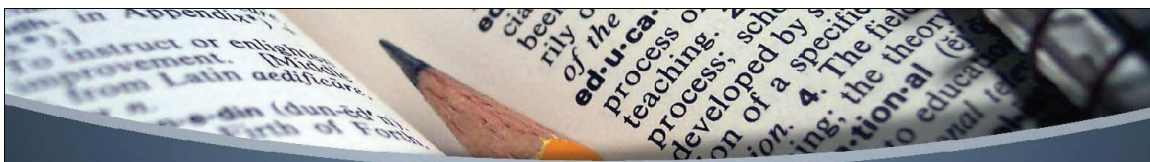
-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러시아학 현황과 전망 ..... 305
  - 발표: 딜노자 갈라노바(인하대)
  - 토론: 성동기(인하대)
  
- ▶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학 현황: 카자흐스탄 국립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311
  - 발표: 김재민 (한국외대)
  - 토론: 김상철 (한국외대)
  
- ▶ 소비에트 학자들의 투르크멘 민족지 연구동향 분석 ..... 327
  - 발표: 황영삼 (한국외대)
  - 토론: 김혜진 (한국외대)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러시아학 현황과 전망

Kalanova Dilnoza (인하대학교)



### 목차:

- 우즈베키스탄 영토에서 시대별 언어현황
- 러시아학의 현황
- 우즈베크어 문자 개혁: 라틴 문자로 멀어진 러시아어, 가까워진 영어
- 러시아어의 지위에 대한 최근 논쟁
- 러시아학의 전망
- 러시아학의 개선 방안



## 우즈베키스탄 영토에서 시대별 언어현황

**우즈베키어 현황**

- 기원전~10세기: 고대 튀르크어
- 11-14세기: 옛 튀르크어
- 15세기~19세기 후반: 옛 우즈베크 표준어
- 19세기 후반~현재: 현재 우즈베크 표준어

**러시아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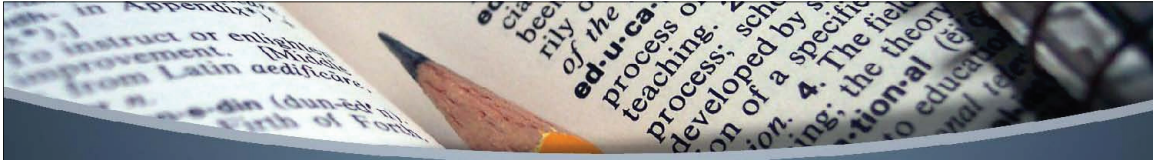
- 1860-1930: 러시아어 공식언어
- 1930-1989: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 공식언어
- 1989-1995: 1989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언어에 관한 법률» 채택
  - 우즈베크어 공식언어
  - 러시아어 공용언어
- 1995~현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언어에 관한 법률» 제정
  - 우즈베크어 공식언어
  - 소수민족 언어

**인구 구성**

-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 33,254,100명(2019년 )
  - 우즈베크인 83.8%
  - 타지크인 4.8%
  - 러시아인 2.3%
  - 카자흐족 2.5%
  - 타타르족 1.5%
  - 고려인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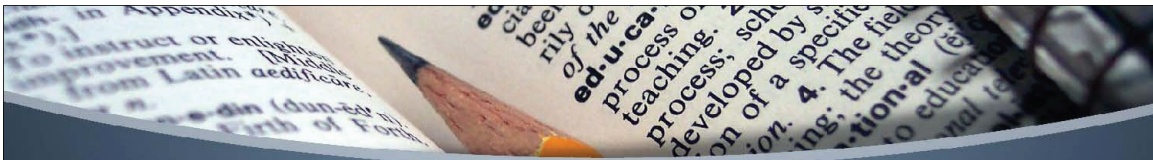
## 러시아학의 현황

- 우즈베크어(74.3%), 러시아어(14.2%), 기타 언어(타지크어, 카자흐어, 투르크멘어 (4.4%)가 상용된다.
- 1990년대 후반까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였다. 러시아문화권 사람들의 다른 CIS 국가로 최대 이주는 1991-2011년에 발생했으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시민의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1991년 이래로 러시아문화권 사람들의 비중은 2017년 7.7%에서 2.2%로 감소했으며, 교육이 러시아어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 그러나 러시아어의 현재 지위는 1990년대 초에 많은 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높은 지위를 보여주었다. 러시아어는 공식언어 지위를 상실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우즈베크어 뒤에 두 번째 지위에 남아 있다.
- 현재 인구의 50%-80%는 러시아어로 소통이 가능하며 러시아어는 국가의 모든 교육 기관에서 가르쳐 있다. 러시아어 교육은 공화국 내 학교의 8% (타슈켄트의 38%)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타슈켄트에서 러시아어로 가르치는 비율이 25%로 가장 높다. 지방 대학에서 러시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은 6%로 수도보다 4배 낮다(Абдуллаев Е., 2009).




## 러시아학의 현황

-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9628 개의 중등 교육 기관이 있으며 그 중 903 개는 러시아어로 가르치며 5억 5천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우즈베크인 학생들이다. 중등 특수 교육의 경우, 1195개의 고등에서 러시아 반은 50~90% 를 구성한다.
- 63개의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는 필수 과목이다. 타슈켄트 시, 타슈켄트 주, 사마르칸트, 나보이, 안디잔, 페르가나 및 기타 지역의 모든 대형 대학에는 러시아 반이 있다.
- 우즈베크 반 학생들은 러시아국립학원이 개최하는 러시아어 대회에 매년 참여한다.
-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 대학교 10개가 분교를 설립하였다.
- 우즈베키스탄의 국립 학교에서 러시아어 수업은 일주일에 2 번 진행된다.
- 국내대학교에서의 러시아어교육은 240에서 72 시간으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세계 경제 및 외교 대학교에서 4년에 320 시간, 우즈베키스탄 국립 대학교에서 1년에 60 시간 진행된다.



## 우즈베크어 문자 개혁: 라틴 문자로 멀어진 러시아어, 가까워진 영어



~1929: 아랍 문자	1929~1940: 라틴 문자	1940~1993: 키릴 문자	1993~현재: 라틴 문자
-----------------	---------------------	---------------------	-------------------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정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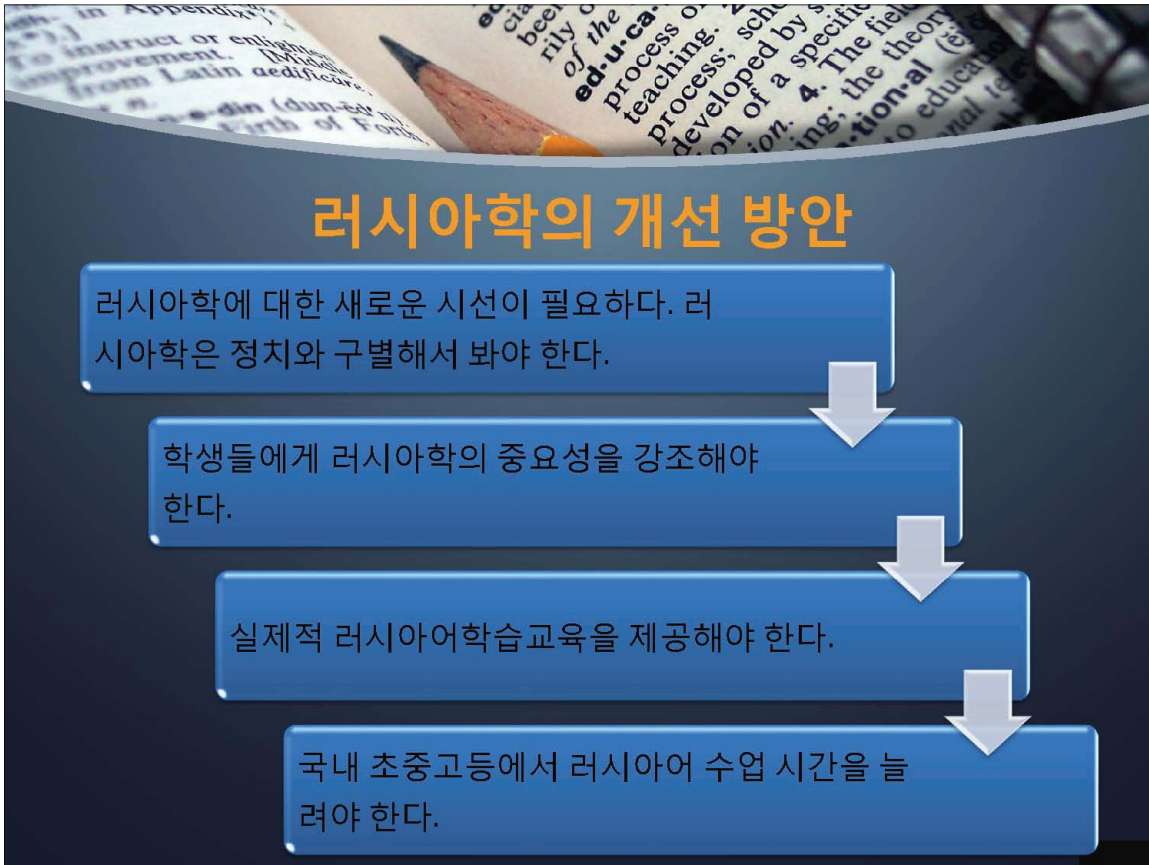
## 러시아어의 지위에 대한 최근 논쟁

찬성	반대
<p>첫째,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 국가이고 러시아어는 민족 간의 의사소통 언어이다.</p> <p>둘째, 러시아어는 세계 문화와 과학의 언어이다.</p> <p>셋째, 러시아어는 중앙아시아에서 사용하는 공통 언어이다.</p> <p>넷째,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로 이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의 중요성을 높이고 공용어로 정해야 함.</p>	<p>첫째, 우즈베키스탄 헌법에서 국민들의 언어 선택은 자유롭게 되어 있다.</p> <p>둘째, 러시아어보다 우즈베크어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p> <p>셋째, 현재 러시아어보다 영어가 더 효과적이다.</p> <p>넷째,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영향을 강화시킨다.</p>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러시아학 전망

러시아어





## 러시아학의 개선 방안

러시아학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러시아학은 정치와 구별해서 봐야 한다.

학생들에게 러시아학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실제적 러시아어학습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국내 초중고등에서 러시아어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



## 감사합니다!

fppt.com



#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학 현황

카자흐스탄 국립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박사수로 김재민, 오상호

##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연구의 방법

III. 연구의 결과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번 연구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 ▶ 카자흐스탄에서의 러시아학 연구 동향 파악
- ▶ 특정 학문에 대한 분석 방법과 전체적인 범주의 학문 분석 방법
- ▶ 디지털 아카이빙 과정 과도기에 있는 현지 정보 접근의 한계성 고려
- ▶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된 러시아학 관련 문헌의 통계적 분석

## II.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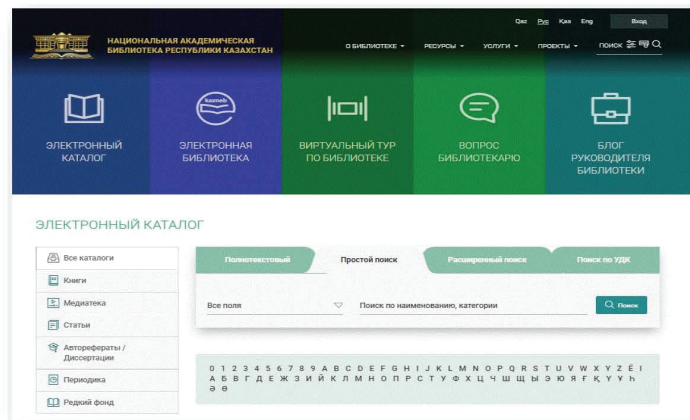
▶ 카자흐스탄 국립 도서관 전경 (검색일: 2019년 9월 21일)

## II. 연구의 방법

국립 도서관  
홈페이지  
선정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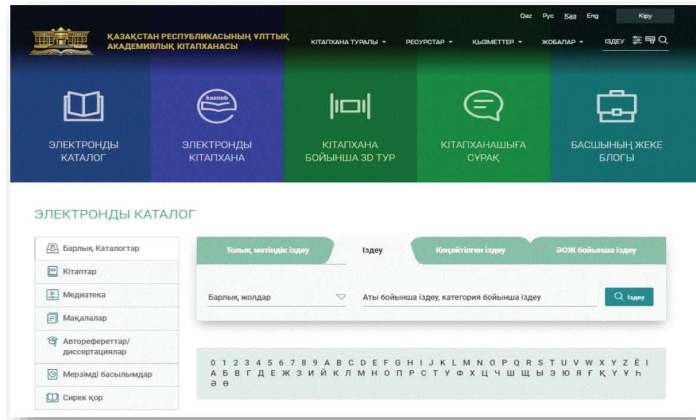
- ▶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된 문헌 검색의 대표적인 기관
- ▶ 알마티 소재 국립 도서관보다 체계적인 분류 결과 분석 가능
- ▶ 홈페이지 주소: <http://nabr.kz/>

## II. 연구의 방법



- ▶ 카자흐스탄 국립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의 검색창 화면 - 러시아어 (검색일: 2019년 9월 24일)

## II. 연구의 방법



▶ 카자흐스탄 국립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의 검색창 화면 - 카자흐어 (검색일: 2019년 9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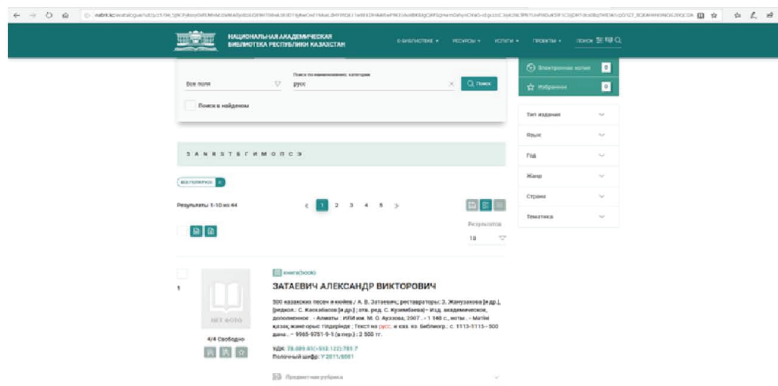
## II. 연구의 방법



검색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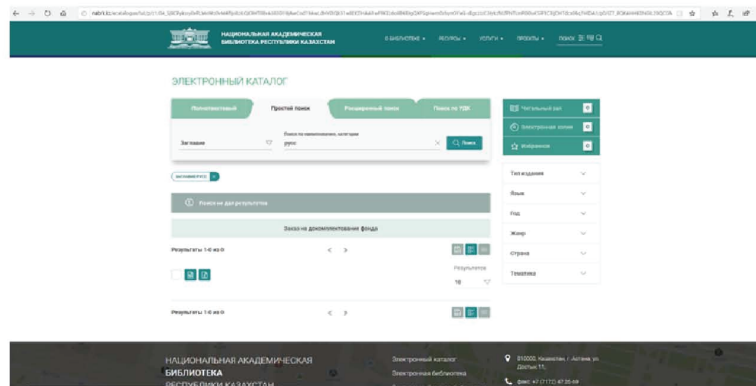
- 1. российский 2. российского 3. российскому 4. российский
- 5. российским 6. российском 7. российская 8. российской
- 9. российской 10. российское 11. российские 12. российских
- 13. российскими 14. российски 15. Россия 16. России
- 17. Россию 18. Россией 19. русский 20. русские
- 21. русского 22. русских 23. русскому 24. русским
- 25. русскими 26. русском 27. Русь 28. Руси
- 29. Русью 30. Русско 31. Русистик(а, и) 32. Россиян(е, ин)
- 33. Россияведени(е, и, я) 34. РФ, СССР

## II. 연구의 방법



▶ 카자흐스탄 국립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의 러시아어 키워드 검색창 화면(검색일: 2019년 9월 26일)

## II. 연구의 방법



▶ 카자흐스탄 국립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의 러시아어 키워드 검색창 화면 (검색일: 2019년 9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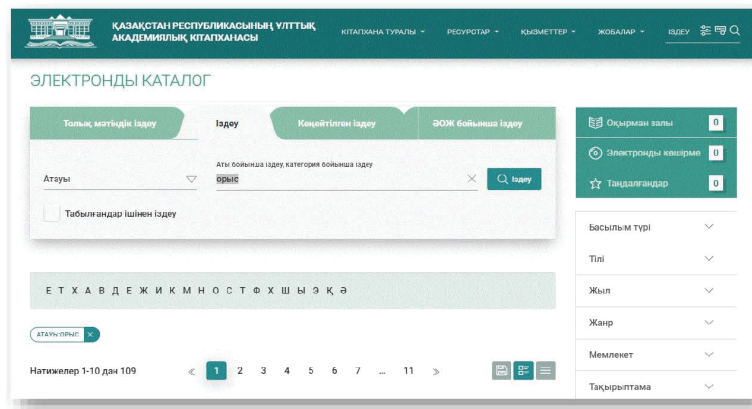
## II. 연구의 방법



검색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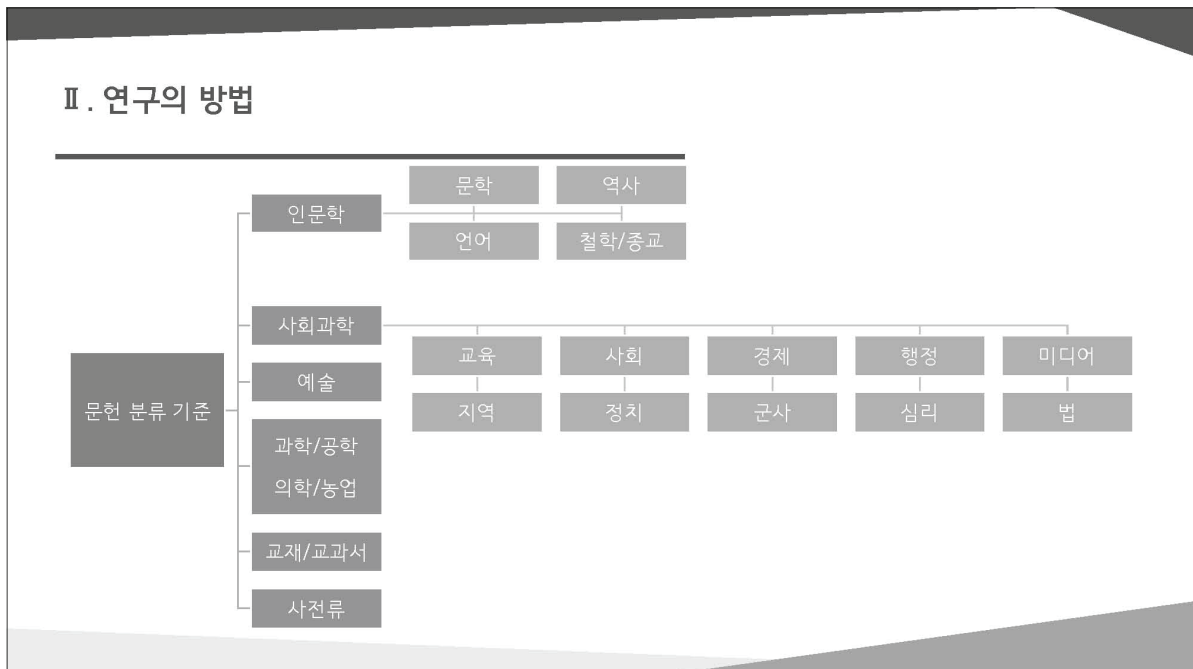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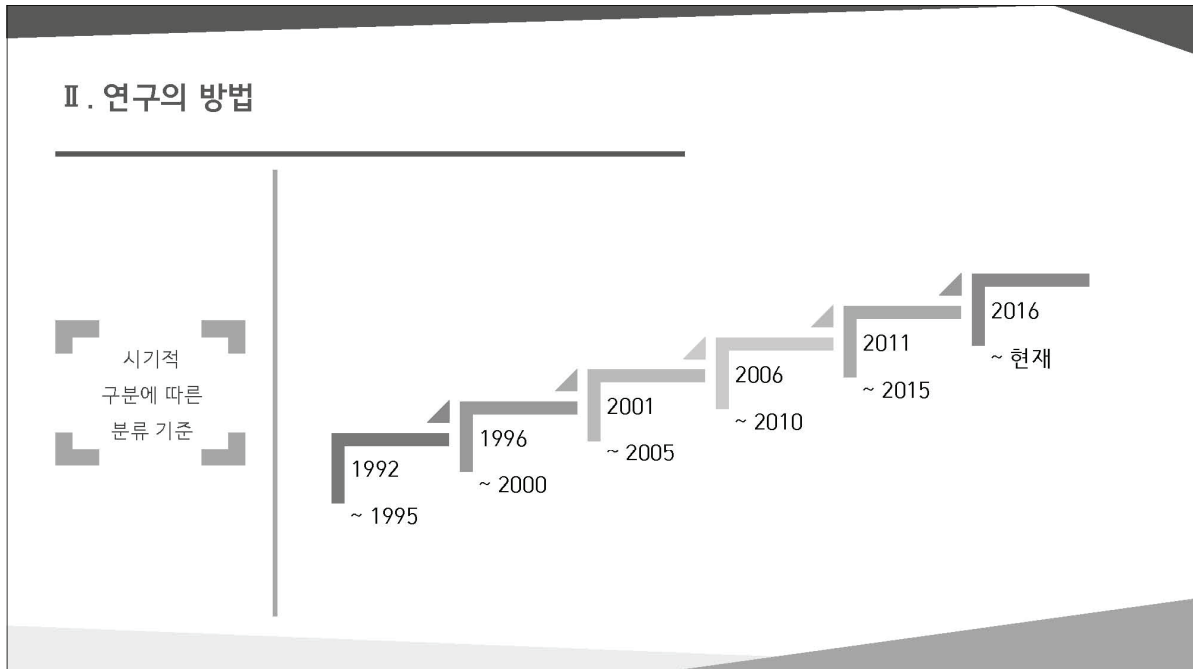
- 1. ресей 2. ресейдің 3. ресейлік
- 4. ресейдегі 5. ресейге 6. ресейден 7. ресейде
- 8. орыс 9. орысша 10. орыстың
- 11. орыстар 12. орыстандырылды 13. орыстардын
- 14. орыстық 15. орыстілді 16. орысшаға

## II.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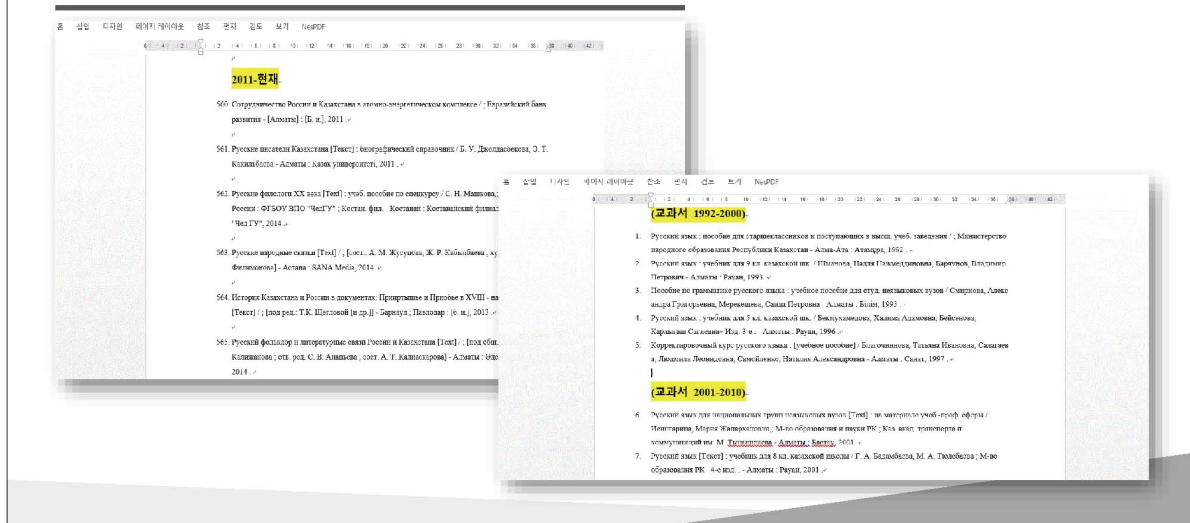


▶ 카자흐스탄 국립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의 카자흐어 키워드 검색창 화면(검색일: 2019년 9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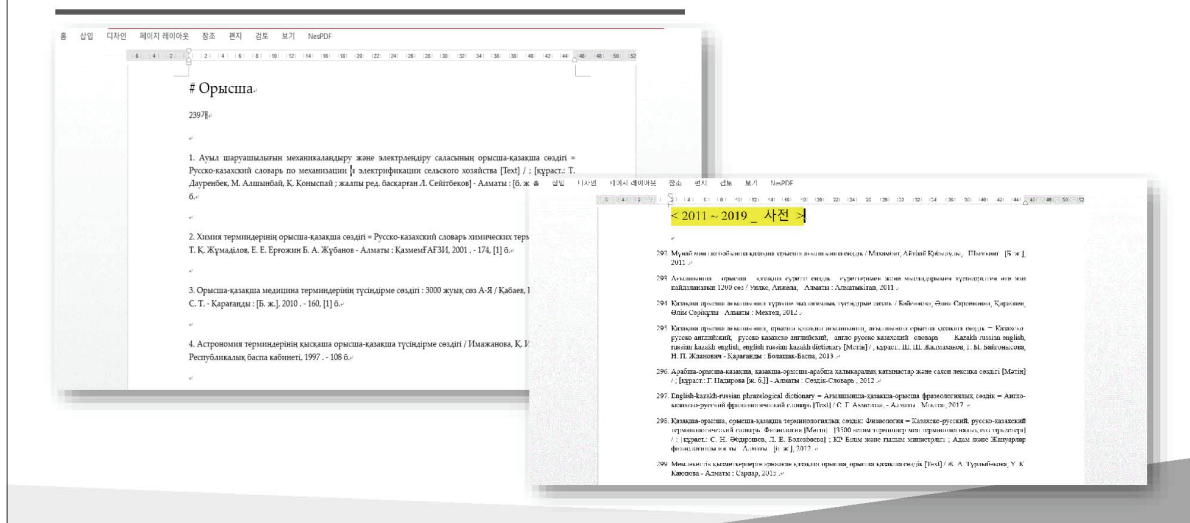




## II. 연구의 방법



## II.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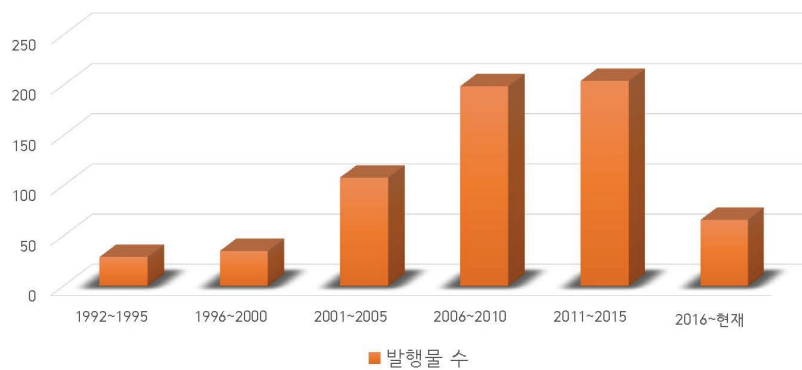
### Ⅲ. 연구의 결과

#### ▶ 러시아어 키워드 검색 결과 - 총계

구분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자연과학 공학 의학	교재	사전	합계	
	문학	언어	역사	철학 종교	교육	지역	사회	정치	경제	군사	행정	심리	미디어	법						
1992~1995	2	1	5	0	4	0	1	0	2	0	0	0	0	0	0	0	0	3	11	29
1996~2000	0	4	7	2	3	0	2	1	4	1	0	0	0	0	0	0	0	2	9	35
2001~2005	1	11	15	4	0	1	3	14	7	1	0	1	4	5	1	5	27	8	108	
2006~2010	1	44	26	1	8	2	9	11	15	2	3	1	5	8	4	0	18	41	199	
2011~2015	2	12	9	0	28	0	8	20	2	0	1	0	0	1	8	4	93	16	204	
2016~현재	3	8	2	0	14	0	5	2	0	0	0	0	0	1	2	0	21	8	66	
합계	9	80	64	7	57	3	28	48	30	4	4	2	9	15	15	9	164	93	641	
	160				200										15	9	164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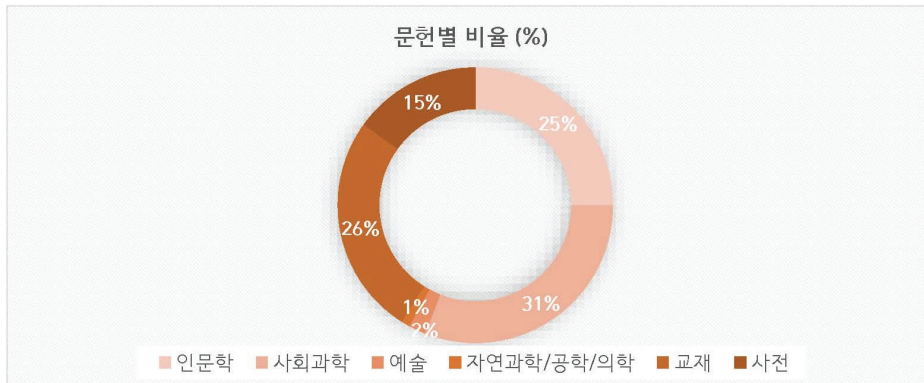
### Ⅲ. 연구의 결과

#### ▶ 러시아어 키워드 검색 결과 - 연도별 비교 분석



### Ⅲ. 연구의 결과

▶ 러시아어 키워드 검색 결과 - 항목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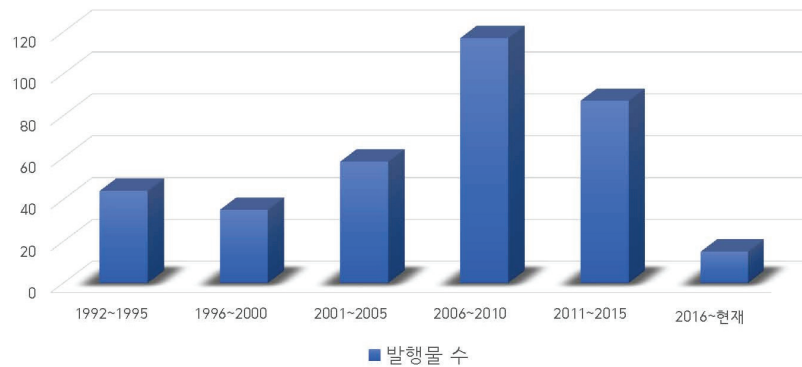
### Ⅲ. 연구의 결과

▶ 카자흐어 키워드 검색 결과 - 총계

구분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농업	교재	사전	합계
	문학	언어	역사	철학	교육	언론	사회	정치	경제					
1992~1995	0	2	3	0	2	0	0	2	0	0	0	0	35	44
1996~2000	1	2	2	0	0	0	0	3	0	0	0	1	26	35
2001~2005	3	4	0	0	1	0	0	7	1	2	1	3	36	58
2006~2010	4	11	14	1	7	1	2	15	2	1	0	10	49	117
2011~2015	1	5	4	0	0	0	4	9	0	2	0	2	60	87
2016~현재	0	0	3	0	0	0	3	4	0	1	0	1	3	15
합계	9	24	26	1	10	1	9	40	3	6	1	17	209	356
	60				63					6	1	17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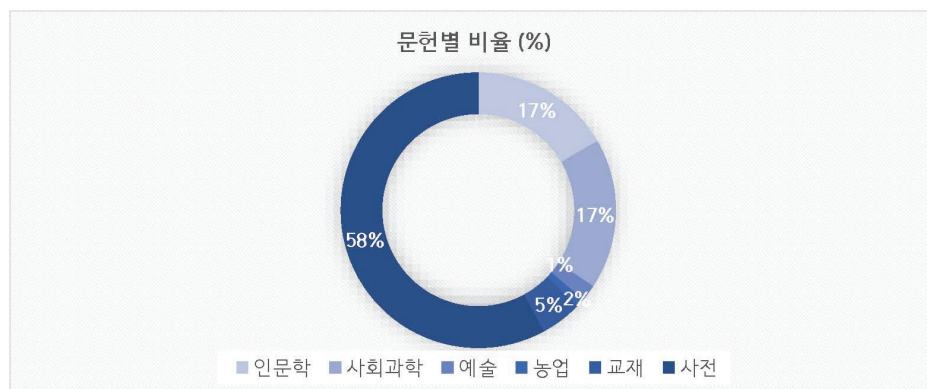
### Ⅲ. 연구의 결과

#### ▶ 카자흐어 키워드 검색 결과 - 연도별 비교 분석



### Ⅲ. 연구의 결과

#### ▶ 카자흐어 키워드 검색 결과 - 항목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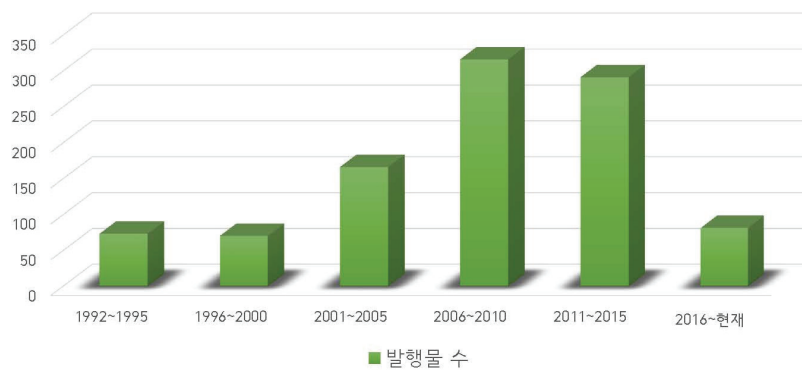
### Ⅲ. 연구의 결과

▶ 러시아어 + 카자흐어 키워드 검색 결과 통계 - 총계

구분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자연과학/ 공학/의학/ 농업	교재	사건	합계
	문학	언어	역사	철학 종교	교육	지역	사회	정치	경제	군사	행정	심리	미디 어	법					
1992~1995	2	3	8	0	6	0	1	2	2	0	0	0	0	0	0	0	3	46	73
1996~2000	1	6	9	2	3	0	2	4	4	1	0	0	0	0	0	0	3	35	70
2001~2005	4	15	15	4	1	1	3	21	8	1	0	1	4	5	3	6	30	44	166
2006~2010	5	55	40	2	15	2	11	26	17	2	3	1	6	8	5	0	28	90	316
2011~2015	3	17	13	0	28	0	12	29	2	0	1	0	0	1	10	4	95	76	291
2016~현재	3	8	5	0	14	0	8	6	0	0	0	0	1	3	0	0	22	11	81
합계	18	104	90	8	67	3	37	88	33	4	4	2	10	15	21	10	181	302	997
	220				263										21	10	181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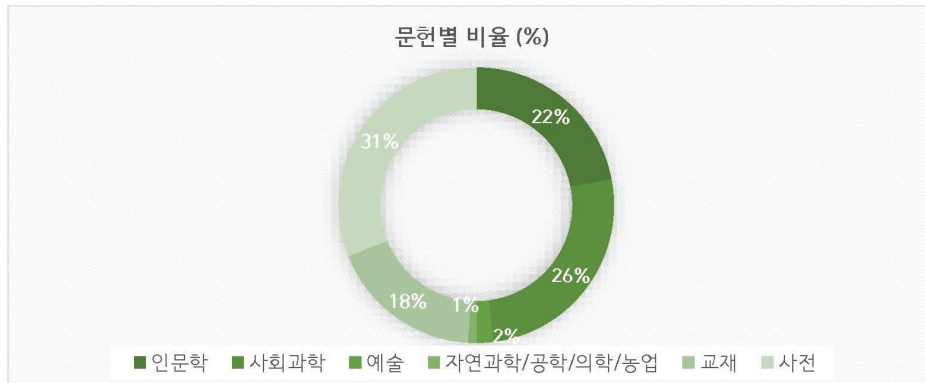
### Ⅲ. 연구의 결과

▶ 러시아어 + 카자흐어 키워드 검색 결과 통계 - 연도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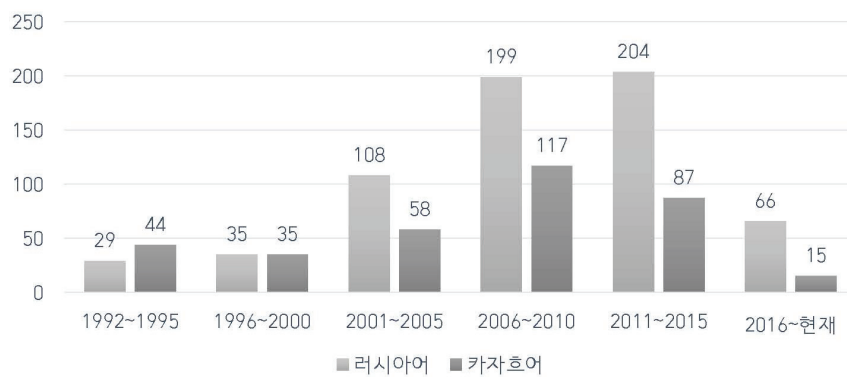
### Ⅲ. 연구의 결과

▶ 러시아어 + 카자흐어 키워드 검색 결과 통계 - 항목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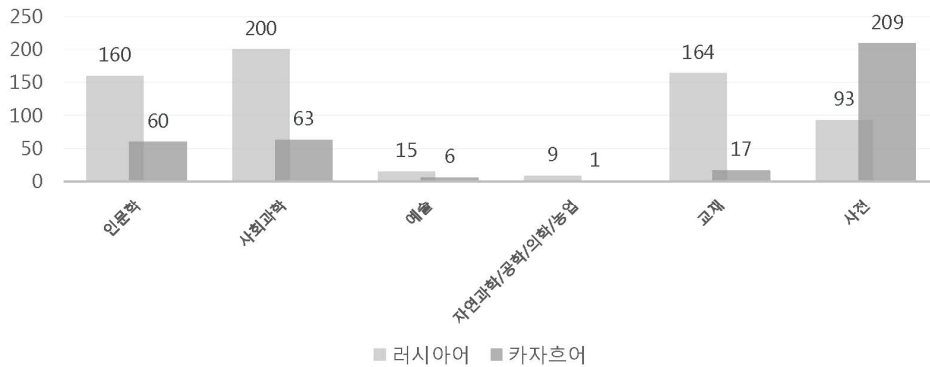
### Ⅲ. 연구의 결과

▶ 러시아어 + 카자흐어 키워드 검색 결과 통계 - 언어별 통합 비교 분석: 연도별 발행 수



### Ⅲ. 연구의 결과

▶ 러시아어 + 카자흐어 키워드 검색 결과 통계 - 언어별 통합 비교 분석: 문헌별 수



### Ⅲ. 연구의 결과

결과 도출  
및  
특이점 분석

- [1] 2000년도 이후 발행 문헌 수가 급증한 양상
- [2] 교재 및 사전의 발행 비중이 높음
- [3] 러시아어 문헌 수는 시간 흐름에 따라 꾸준히 증가 추세
- [4] 인문학 및 사회과학 관련 문헌의 비중이 높음
- [5] 인문학에서는 언어학 관련 문헌의 비중이 높음
- [6] 사회과학에서는 정치 및 경제 분야 문헌이 많음
- [7] 사전의 경우 러-카 및 카-러 용어사전의 종류와 수가 많음
- [8] 교재가 많은 이유는 교사들을 위한 참고서 및 러시아어 교육 관련 문헌의 영향으로 판단



### Ⅲ. 연구의 결과

현재 카자흐스탄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환경

데이터베이스 환경 개선의 한계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 진행 필요

향후  
연구 과제와  
한계

감사합니다!



## 소비에트 학자들의 투르크멘 민족지 연구동향 분석

황영삼 (한국외대)

‘투르크멘’이라는 타이틀로 1924년에 공화국의 명칭을 도입한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소련의 역사학자, 고고학자, 인류학자(민족학자)들의 연구관심 대상 지역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의 성격상 당연한 일이었지만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다. 사실 투르크멘 민족 그리고 투르크멘 사람들에 대한 정보성 성격의 글은 제정러시아 시기에 쿠로파트킨 장군을 비롯하여 이 일대에 군사적 원정을 감행했던 사람들 속에서 연구된 바 있고,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소련 등장 이후 소비에트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본 발표는 소비에트 학자들, 특히 민족인류학 및 역사학 측면에서 투르크멘 민족과 역사에 대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학문적으로 투르크멘 민족에 관한 연구가 체계화한 것은 1920년대부터이다. 1925년에 투르크멘 학술연구원 산하에 민족연구실이 창설되었고 여기에 유명한 학자들의 업적이 발표되었다. 카르포프(Г. И. Карпов), 요무드스카야-부루노바(И. Н. Иомудская-Бурунова), 카렐린(А. А. Карелин), 브롤로바-샤스콜스카야(Н. В. Брюллова-Шаскольская) 등이 대표적이다. 1926년 4월부터 두 달간 학자들은 지역현장 답사를 통해 현지 투르크멘인들의 관습, 의식주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체계화했다. 이 지역은 아무다리아 강변의 케르키 지역(Керкинский округ과 기질라약 군(Гызылякский округ)이었는데 여기에는 투르크멘 부족 중 에르사리족이 많은 곳이다.

투르크멘 민족은 부족의 특징이 매우 강한 민족인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지역별로 특정 부족이 주류 종족을 이룬다. 따라서 지역별 현장조사는 투르크멘 민족에 대한 특징을 체계화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테케족과 요무드족 그리고 에르사리족 등은 동일한 투르크멘인이면서 각각의 특징을 가진 부족들이다. 따라서 현장조사는 민족지학 혹은 인류학적 연구에 필수적인 일이다.

1927년에는 상기 학술연구원은 ‘투르크멘 국립문화연구원(Туркме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культуры (Туркменкульт: 투르크멘 민족문화연구원)으로 개명했다. 물론 연구 부문은 민족문화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연구원은 1927년부터 1931년까지 <Туркменоведение (투르크멘학)> 저널을 투르크멘어-러시아어로 발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투르크멘 민족이 오랫동안 간직해오던 투르크멘식 용어를 1,500 항목 정도 정리했는데 이는 언어적 발전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 투르크메니스탄의 인류학 및 역사학자 쇼흐랏 카디로프(Шохрат Кадыров)의 저서로 재현되었다. [Быта туркменских народов в XX веке, Москва, 2008].

1932-34년에 투르크멘 민족문화연구원 내의 민족지연구실에서는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도서관을 위주로 한 기록문서 파악을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투르크멘 주거와 생활양식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확보되고 정리되었으며 동시에 투르크멘 관련 동영상 필름 또한 확보되었다. 앞서 언급한 투르크멘 인류학자인 카르포프는 동료들과 함께 투르크멘 종족들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련의 연구서들이 발표되었다. [Этнический состав туркмен. М., 1940.]

투르크멘 민족문화연구원의 민족인류학자들은 1934년부터 투르크멘 역사에 관한 단행본을 저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시기는 역사연구 파트와 민족인류학 파트가 통합되었는데 여기서는 주로 국내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료를 수집하는데 집중되었다. 시기적으로 17-19세기의 투르크멘 종족들의 활동에 관한 것인데 투르크멘 공화국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카프카즈 지역(티플리스-트빌리시), 아스트라한, 스타브로폴 등지가 주 연구대상 지역이었다. 특히 후자의 두 지역에는 투르크멘 소수민족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투르크멘 종족(초두르족)이 이주한 결과로 형성되었다. 현재에도 아스트라한과 스타브로폴 지역은 러시아 내에서 최대 투르크멘 소수민족 거주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서 수집되는 사료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보다는 흩어져 있던 사료들을 모으는 수준이었다.

1934년 이후의 동향은 학술적 사료 수집 외에 민족인류학자들을 중심으로 국립투르크멘 박물관과 협력하는 체제가 강화되었는데 모쉬코보이(В. Г. Мошковой)가 대표적이다. 이 시기에 투르크멘 민족인류학 학자들에 관한 리스트도 정리되었다. 이에 의하면 Черная Ольга Антоновна, Поцелуевский Александр Петрович(민족인류학 부실장), Фитуни Аркадий Петрович, Эйхенвальд Антон Алексеевич, Хангельды Каррыев, В. Г. Мошкова, Г. И. Карпов, Таимов, Стефанюк, Приходина 등이며 대학원 과정생도 10명이 있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보면 투르크멘 민족인류학 및 역사를 연구하는 인적 자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4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1936년에는 투르크멘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의 명령으로 투르크멘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국립

역사연구원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민족인류학과 역사연구의 영역이 분화되어 연구가 특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8년에 다시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국립 투르크멘역사연구원의 하위 연구실로 민족인류학 연구실이 구성되었다. 여기서 투르크멘인들의 생활관습, 예술, 가정생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역사 현대 투르크멘 학자 카디로프의 저서에서 집대성되고 있고 현대화된 포맷으로 소개되었다. [Шохрат Кадыров, Богиня туркменской этнографии (М. 2012)].

1938년 투르크멘 민족인류학 연구실 설립에 대해 소련 학술원 산하 인류학연구원(Институт этнографии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에서는 극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족인류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스크바 소재의 인류학연구원이 투르크멘 민족에 관한 조사와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향후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나중에 모스크바에서 <Туркмены>라는 연구단행본이 출간된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 동 연구서는 <Русские>, <Украины>, <Татары> 시리즈와 맥을 같이 한다.

투르크멘 민족인류학 연구실의 활동은 카펫이나 말 등을 소재로 한 각 박물관 소재 그림과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는 일로 확장되었고 이 과정에서 시각적 효과를 지닌 자료들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카펫과 말은 투르크멘인들의 삶과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종족적 특징을 지니기도 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카펫에는 각 부족들을 상징하는 고유한 문양들이 있는데 이는 타부족의 카펫과 달리한다는 특수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민족인류학 연구실의 활동이 이와 같이 박물관과 협력 관계로 확대되면서 투르크멘 민족인류학 연구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이 성립된 후 투르크멘 공화국에서는 투르크멘 민족에 대한 민족인류학적 연구와 역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학자들의 활동은 당연히 투르크멘 공화국에서 연구원 형태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모스크바의 민족인류학 연구원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훗날 이러한 연구들은 현대 투르크메니스탄 학자들의 저서를 통하여 대외에 소개되었다.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공시성과 통시성

### 제4분과 사회과학분과

사회과학분과B :

#### 러시아 주변 국가들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위치

사회: 우준모 (선문대)

- ▶ 한-우크라이나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 333
  - 발표: 박지원 (KOTRA)
  - 토론: 김영진 (한양대)
  
- ▶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과 러시아 ..... 345
  - 발표: 윤성학 (고려대)
  - 토론: 강봉구 (한양대)
  
- ▶ 중국의 러시아학 연구: 역사와 현황, 문제점 ..... 349
  - 발표: 조정원 (연세대)
  - 토론: 최재덕 (원광대)





# 한 · 우크라이나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박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 우크라이나 경제현황과 한국과의 경제협력 평가

### □ 경제성장 지속되나 성장세 둔화 예상

- 우크라이나 경제는 2014-2015년의 크림반도 사태 및 경기침체 이후 2016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2~3% 대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5년 이후 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산업생산이 일부 개선되면서 회복기에 있으나 전통적으로 산업이 집중된 동부지역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난망

#### < 연도별 우크라이나 경제성장률 >

연도	2015	2016	2017	2018(f)	2019(f)
성장률(%)	-9.8	2.4	2.5	3.5	2.7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 이후 정부는 2014년 2월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이후 ‘흐리브냐’의 통화가치는 3배 이상 급락하여 2014년, 미화 1달러당 8흐리브냐에서 2018년 28흐리브냐까지 폭락
-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화폐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적자는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 2015년 물가상승률은 48.7%에 달했으며 이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 13.9%, 2017년 14.4% 등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7.3%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 IMF 관리체제 지속

- IMF는 확대신용공여제도(EEF)를 통해 2015년부터 4년간 총 175억 달러의 차관지원을 승인하고 총 4차례에 걸쳐 87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 금융 지원
  -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금융 지원 조건으로 민간용 가스 가격 인상, 반부패 개혁 시행(반부패 법원 설치), 재무국의 구조 조정, 2019년도 균형 재정 예산 확정을 요구하였으나 구정부는 협상초기에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 견지
  - 2018년 10월, 우크라이나와 IMF는 확대신용공여제도(EEF)를 대기성 차관(SBA)으로 대체하고 향후 14개월간 39억 달러를 추가 지원받기로 합의하였고 가스 가격 인상 및 반부패 개혁 시행에 합의
  - IMF 관리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재정 운용 등에서 제약이 예상되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요인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 한-우크라이나 교역 현황

-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교역은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침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수출은 일부 회복세 조짐
  -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교역은 2011-2012년 우크라이나의 ‘유로(EURO) 2012’ 개최를 계기로 현대대로템과 현대중합상사가 도시 간 고속열차 납품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관련 상품 수출이 증가
  - 이후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크림사태 발발이후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교역이 크게 감소하여 2015년 한국의 수출은 약 1억 9,400만 달러 수준에 그침.
- \* 우크라이나의 한국에 대한 수출도 연간 부침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한국에 대한 수출은 약 3억 8,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3% 감소

< 2012~2018년 한-우크라이나 교역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수출 (증감률)	1,149 (12.4)	635 (△44.8)	339 (△46.6)	194 (△42.6)	222 (14.3)	259 (16.3)	341 (32.0)
한국수입 (증감률)	758 (3.4)	448 (△40.9)	759 (69.3)	661 (△12.8)	472 (△28.6)	539 (14.2)	387 (△28.3)
무역수지	391	187	△420	△467	△250	△280	△46

\* 자료 :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수출 품목은 자동차, 철강판, 합성수지, 고무제품, 자동차부품 등이며, 이들 제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수입품목은 주로 곡물 및 철강류임.

**□ 한국의 투자 현황**

-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며 오히려 기업들의 현지 투자축소가 계속되는 상황
  - 2014년 크림사태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주재 우리 기업들은 철수 혹은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 자동차, 포스코대우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10여개 기업이 주재하고 있음.
  - 정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투자는 크게 위축된 상황

**< 연도별 대우크라이나 투자 추이 >**

(단위 : 개, 천 달러)

년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2012	2	637
2013	0	240
2014	0	20
2015	0	12
2016	3	46,552
2017	2	300
2018	1	3,255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주요국의 대우크라이나 진출현황 >**

- (EU) 우크라이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각종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유럽 부흥개발은행(EBRD) 및 유럽투자은행(EIB), NIF(Neighbourhood Investment Facility)를 통한 각종 프로젝트 지원
- (러시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직접투자를 통해, 가스, 통신, 금융, 제조업 등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Sberbank, MTS, Metallurgical Plant 등의 러시아 기업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사업 영위
- (중국) 중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직접투자보다는 지분투자를 통해 항공, 농업, 인프라, I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 Ⅱ.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 추진방향

### 1.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과 운용방안

#### □ ‘우크라이나 2020 전략’을 기초로 한 친서방정책 지속

○ 2020년까지 우크라이나의 EU가입을 목표로 한 동전략을 기초로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EU 표준 구현 추진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8개 분야 개혁 및 2개 국가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키로 확정했는데 경제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개혁정책으로는 ▲규제완화 및 기업가 정신 개발, ▲조세개혁 등이며 2개 국가프로그램은 ▲에너지 독립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글로벌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시행 추진

- 또한 경제 분야에서 8개의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8개 지표는 다음과 같음; ①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 지표 30위, ②국가신용등급의 ‘BBB’, ③글로벌 경쟁력 지수 40위, ④인당 GDP US 16,000달러, ⑤연간 FDI 순유입액 80억 달러, ⑥GDP대비 재정적자 3%이내, ⑦GDP대비 국가부채 60%, ⑧GDP대비 에너지 집약도 0.2

- 우크라이나는 EU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2015년 1월 ‘우크라이나 표준화법(Law on Standardization)’ 제정 이래 EU 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기준을 제정해 왔는데 궁극적으로 EU의 ‘산업상품 적합성 평가협정’ 가입을 통해 우크라이나 상품의 EU수출이 원활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산업분야에서 EU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프라 등의 환경이 갖춰져야 하나 단기간에 해당 여건을 충족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 또한 동전략을 2014년 말경 확정된 이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상황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핵심성과지표의 달성이 어려우며 국내상황 안정이 우선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러시아와의 분쟁이 지속되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난항을 보임에 따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

- 2016년 1월 우크라이나와 EU의 양자간 FTA 체결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산 식료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산 일부 제품의

수입 금지

- 크림사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은 계속되고 있으나 과거 수차례 양국이 해당문제에 대해 분쟁을 겪었던 만큼 향후 분쟁의 여지 상존
- \* 러시아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우회하여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흑해를 경유하는 ‘터키 스트림’ 및 발트해를 경유하는 ‘노드 스트림 2’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정책방향: 친서방 정책의 견지와 신임대통령의 향후 기조 주목

- 우크라이나 정부의 친서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및 개방적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유로마이단 사태를 통해 친러 정권을 축출하고 친서방 정권이 집권함에 따라 기존 정권의 대러 협력노선을 폐기하고 EU가입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EU가입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지난한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6년 EU와의 FTA 체결로 EU는 우크라이나산 수입품 약 97%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였으며 우크라이나도 2026년까지 EU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할 예정
-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 취임이후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등을 통한 현안해결을 나설 가능성도 상존
  -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는 2019년 4월 21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70%가 넘는 득표율로 현직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 후보를 꺾고 대통령 당선 확정
  - 젤렌스키 역시 친서구 성향으로 분류되나 그는 선거과정에서 동부 분리주의자들과의 평화협상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음.
  - 집권 이후 친러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친서방 정책을 폐기하는 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어떤 방식으로든 현재 러시아와의 교착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 여기에는 에너지 문제를 포함하여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와 협의과정을 포함

## 2. 디지털 경제 활성화

### □ 『디지털 아젠다 2020』의 실현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년까지 20개 IT 분야의 개발 계획을 담아 디지털 분야에서 국가혁신을 이루기 위해 ‘디지털 아젠다 2020’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 동전략은 경제무역개발부를 중심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IT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난 2016년 채택
  - 20개 아젠다에는 전자정부, 전자 상거래, 브로드밴드 인프라 개선, 전자일 시스템 구축, 디지털 관련 법률개선, 비현금 결제 활성화, E-러닝시스템 구축, 스마트 시티, 전자교통 결제 시스템 구축, 전자 교통관리 시스템 등 IT 기능을 기반으로 생활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다양한 기능과 활동을 포함
- 전자정부(E-governance) 분야와 전자상거래(E-commerce) 분야는 꾸준히 성장하면서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이 개선되는 추세
  - 2016년 전자조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명한 공공 및 민간입찰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줄이게 되어, 2016~2018년 동안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디지털 아젠다 2020’ 채택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시작하여 2019년 3월까지 약 118개에 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20년까지 168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2018년 기준 우크라이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24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 대비 40%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는 이보다 약 25% 성장한 3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인프라와 결제시스템 등의 주변 여건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는 2017년 4G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이동통신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디지털인프라와 원격진료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도 일정부분의 성과가 있으나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에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2016년 이후 지방 소규모 도시와 마을 단위에 브로드밴드 인터넷망 제공을 확대하여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의 약 42%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8년말 기준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의 약 53%가 브로드밴드 인터넷망에 접속 가능

-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브로드밴드 인터넷망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교육 등의 관련부문 산업활성화와 이동통신 장비, 스마트폰 수요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브로드밴드 기반의 확대를 위해 민관합작투자(PPP) 도입을 활성화하여 정부의 재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2019년 중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공고 실시 예정
- \* 또한 이와 함께, ▲키예프시의 'Unit City', ▲오데사시의 'Impact City', ▲드니프로시의 'Space Hub', ▲빈니차시의 'iHub'와 같은 IT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내에서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및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디지털 인프라 강화 노력

### < 우크라이나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

- 정부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노력
  - 우크라이나의 모든 병원에서 온라인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의 구축과 통합의료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동시스템의 구축과 동시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에서 활용 가능한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추진
  - 동 원격진료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보건기구(WHO)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이행하는 민관협력 사업의 일환
- 우크라이나 정부의 '디지털 아젠다 2020' 전략은 우크라이나 사회구조를 디지털화 하기 위한 전 국가적인 프로그램으로 일부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 지속
  - 근본적인 문제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여력이 한계에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및 국제기구의 참여를 확대하는 형태의 투자 프로젝트 마련을 위해 노력
  - 또한,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미흡하거나 시행기관의 역량 부족, 관련 지원법률 체계의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한 문제 상존
  - 우크라이나 정부는 '디지털 아젠다 2020' 전략이 완료되는 시기에 '디지털 아젠다 2023' 또는 '디지털 아젠다 2025' 등의 연속성 있는 전략의 이행을 통해 IT 분야에서 혁신을 지속하고 우크라이나 경제발전에서 디지털 분야의 역할 확대 예정

### 3. 산업 정상화와 육성

#### □ 동부지역 사태로 인한 산업생산악화의 정상화

- 동부지역 사태로 인해 산업생산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정상화 과정이 필요

< 2013~2018년 우크라이나 연도별 산업생산지수 변동 >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광업	0.8	-13.7	-14.2	-0.2	-5.7	2.4
음식료, 담배	-5.0	2.5	-10.7	4.4	2.9	-1.5
섬유, 의복	-5.9	-1.4	-8.0	2.2	7.2	-3.2
목재, 종이	2.7	-4.0	-11.1	2.0	5.8	2.5
원유정제	-10.8	-21.3	-19.1	8.7	-14.8	3.5
화학제품	-19.3	-14.2	-15.2	-1.1	18.4	17.4
제약	11.8	1.9	-7.6	4.4	6.9	1.1
고무, 플라스틱	-2.6	-8.8	-7.2	8.5	8.2	-0.5
금속가공	-5.3	-14.5	-16.1	6.8	0.2	0.6
기계, 자동차	-13.6	-20.6	-14.1	2.0	7.9	1.6
가구, 수리	-9.1	-7.0	-15.5	1.3	11.1	5.6
전기, 가스	-1.1	-6.6	-12.0	2.5	-6.5	2.8
총계	-4.3	-10.1	-13.0	2.8	0.4	1.6

\* 주 :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및 반군 장악지역은 제외하며 숫자는 전년대비 변화

\*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청

- 2013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년대비 역신장하면서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화학제품, 기계·자동차 등의 산업생산이 크게 악화
- 2014~2015년 동안 산업생산이 점차 크게 악화되어 2014년에는 -10.1%, 2015년에는 -



- 13.0%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부터 소폭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
- 각 산업별로 본격적인 정상화 과정의 추진을 통해 동부지역 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 산업별 성장기반 마련 필요
- 우크라이나는 세계 10위권 내외의 철강생산국이나 노후된 생산시설과 동부지역 분쟁의 장기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쟁력 약화
- 우크라이나는 주로 중부지역에 매장되어있는 철강, 돈바스 지역의 석탄과 저렴한 노동력 등에 힘입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나 동부지역 내전으로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가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어 철강산업에 타격
  - \* 주요 철광석 산지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있으나 철광석을 제련하는 석탄과 제련공장이 주로 동부지역에 위치
  - 또한, 노후화된 생산시설의 현대화에 정부의 전폭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정부의 지원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현대화에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급격한 산업의 부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원유정제분야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으며 단기간에 급격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 우크라이나는 원유 정제기술이 낙후되어있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단계로 정제된 석유의 품질이 낮아 자동차 고장과 매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석탄 채굴 분야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
  - 에너지 자원의 약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산업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육성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Ⅲ. 한-우크라이나 경제협력방안

#### 1. 우크라이나 내수시장 공략 강화

- 내수시장 회복에 따른 소비재 중심 시장접근

○ 2016년 이후 우크라이나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각종 산업 지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수시장도 느리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

- 경기회복에 따라 소매유통, 건설, 운송 분야의 산업 지표 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설부문에서는 2014년 이후 중단된 각종 건설 프로젝트 재개와 함께 대도시 중심으로 건설 프로젝트가 확대
- 화물운송 부문은 2016년 대비 철도, 해상 운송이 다소 줄긴 하였으나 차량, 항공운송이 증가되는 추세
- 다만, 철강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는 동부 지역 분쟁에 따른 주요 탄광 및 제철공장에 대한 통제력 상실, 라-우크라이나 간 가스 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가 지속

○ 우크라이나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현지 유통기업을 활용한 소비재 시장 진출을 추진하되, 우크라이나 국내외 전시회, 무역 사절단 참가 등을 통해 바이어 컨택 포인트 확보가 중요

\* 주요 진출 유망 품목으로는 화장품,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이 있음.

- (화장품)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화장품 시장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확장세에 있음.
- K-POP의 지속적인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제품의 수입은 최근 5년 사이에 230만 달러에서 1,405만 달러로 약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
- 한국산 화장품을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유통망이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온라인에만 약 30여곳의 사이트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음.

\* 온라인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2018년 우크라이나 온라인 리테일 시장규모는 약 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성장

- (자동차 부품)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주력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 회복과 함께 자동차 부품 수요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유럽산과 경쟁이 불가피해, 바이어들이 신규 브랜드 도입에 다소 소극적인 것은 취약점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어와 공동 마케팅 활동 추진 혹은 바이어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하여 바이어와의 관계 구축에 노력 필요

- (의료기기) 국공립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사립병원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유럽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등의 수요 확대

\* 우크라이나 내 사립병원 비율: ('12년) 1% → ('16년) 10% → ('17년) 15%

## 2. 주요 산업개혁에 대한 프로젝트 참여

### □ 주요 산업 현대화에 한국 참여필요

○ 전력시설, 의료관련 산업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산업전반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현대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참여가능성 타진 필요

- (전력) 동부 지역 사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석탄, 가스 등 전통 에너지 자원 수급에 문제를 겪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20%까지 확대 추진
- 또한 화력발전소 절반 이상의 설비 및 송배전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 수요가 높으며,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송전 시설도 부족한 상황

- (의료) 고령화, 도시화 진전에 따른 의료설비 현대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혈관, 암, 신진대사 검사 의료 장비도 크게 부족

- 특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분야 개혁이 완료될 경우 각 국공립 병원 자체적으로 의료기기 구매, 병원 리모델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현재는 각 국공립병원에 필요한 물품을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의 승인을 통해 정부에서 각 병원으로 공급하는 형태

○ 양국 정부 차원의 산업간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추진 필요

- (전력) 한국의 국영 전력기업과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기업 간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원 필요

- 양국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전력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수출이 가능

- (의료) 병원 현대화 및 운영, 의료시설 개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를 희망하는 국공립병원이 늘고 있으므로 한국의 병원 정보화 경험 및 기술력을 알리는 한-우크라이나 병원 협력 사업 추진 필요

-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ICT 산업과 연계한 e-헬스케어, 원격진료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의료산업 현대화 전반과 기업진출을 연계한 협력방안 마련 필요

- 우크라이나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한국기업들의 참여 방안 모색
  - 풍력발전의 경우 이미 독일 기업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진출이 어려워, 우리 기업의 진출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태양광 발전으로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한국산 태양광 패널 등 기자재 수입 후, 상호기술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협력 선호
  - 시장진출을 위해 우크라이나 내 각종 신재생에너지 협회에 멤버십 자격으로 가입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산업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표준에 맞춰 각종 개혁을 추진 중에 있어, 수시로 법체계가 변동되는 과정에 있어 외국투자자들은 정확한 정보 취득이 필수
  - EBRD 등 국제기구에서 각종 에너지 프로젝트의 펀딩 및 지원을 하고 있어 유럽 에너지 기업들의 진출이 매우 활발함으로 현지 투자 컨설턴트사를 통해 각종 프로젝트 정보를 파악하고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대책 >**

-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우크라이나 자국산 제품 활용시 발전차액(FIT) 추가지원, 관련제품 수입 시 세제 혜택 등 제공
  -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장비 중 일정비율 이상 우크라이나산 장비를 활용할 경우 추가 발전차액지원(FIT) 프리미엄 혜택 부여(해당법률은 2016.2월 발효)
  - 우크라이나산 기자재 활용률이 30%이상~50%미만일 경우, 5%, 50%이상일 경우 10% 추가 FIT 프리미엄 혜택 부여
  - 기자재 등 제품 수입시 부과되는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발전소 설치지역 내 토지 임대 비용 및 각종 세금 감면혜택 부여 추진

#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과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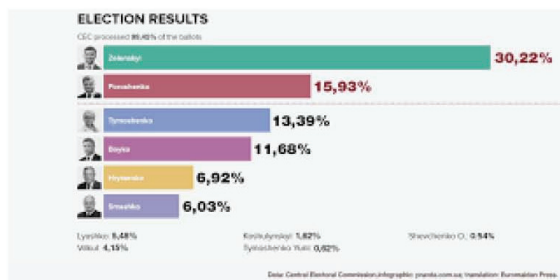
October 2019

Yoon Sung Hak(Kor.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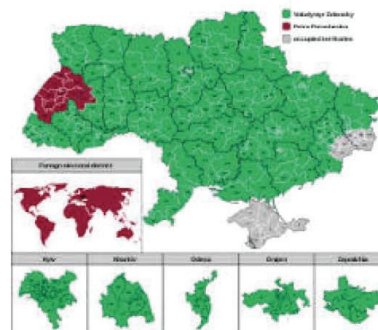
## 1.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의 결과

- 2019년 3월 31일 우크라이나 대선은 1차 투표 결과 누구도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서 4월 21일 결선투표가 열리게 됨.
- 2차 대선투표에서 압도적 득표 수 차이(73.2%)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대통령에 당선됨

1차 투표 결과



2차 투표 결과



## 2. 젤렌스키 당선 배경

➢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무명의 코미디언인 젤렌스키 당선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음. 젤렌스키는 이스라엘에 망명중인 금융재벌이자 같은 유대인인 콜로모이스키의 꼭두가시라는 비판도 있음.

### 정치 혐오증

- 포르센코 정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신의 결과
- 심각한 부정부패(반부패 법원, 세무국 구조조정)

### 경제 불안

- IMF 체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안, 약 40억 달러의 구제금융
- 1인당 GDP는 유럽 최빈국 수준인 2656달러(2017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10%
- 화폐 가치 하락과 낮은 임금 수준으로 소비자 구매력 침체

### 러시아와의 갈등

- 2014년 유로 마이단 사태 이후 친서방 정권으로 반러시아, 친EU 정책에 따른 피곤감 확대
- 러시아와의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통신, 교통 장애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표출
- 동부지역 내전 종식을 선호

2

## 3. 젤렌스키의 주요 정책

➢ 젤렌스키는 기득권 정치에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반부패 공약을 내세웠으며, 러시아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공약함

후보	정당	정치 성향	주요 선거 공약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인민의 종	중도 우파 (친 EU)	가. '민주정치 법' 도입,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나.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에 대한 면책특권 폐지 다. 대통령 탄핵 및 국회의원 소환제 제도화 라. 정직한 기업 활동 환경 조성 및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모든 기업들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입의 5%만 세금으로 납부 마. 보건, 교육 인프라 및 시스템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바. 정부 예산, 입찰, 조달 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사.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고수
페트로 포르센코	페트로 포르센코 블록	중도 우파 (친 EU)	가. 2023년까지 EU 가입을 추진하고, NATO 가입을 위한 계획 추진 나. 우크라이나를 농업 및 IT 강국, 동유럽 교통의 허브, 유럽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 도모 다. 정치 외교적 수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라. 지방분권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국가 경제의 질적인 발전 도모 마.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바. 교육의 질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 사.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을 위한 투자 유치 강화

3

#### 4. 젤렌스키의 의회 장악

> 2019년 7월 21일 우크라이나 조기총선에서 젤렌스키의 인민의 일꾼 정당이 254석으로 단독 과반석을 얻었다. 투표율은 49.84%.

> 우크라이나 대통령 행정부의 첫 총리로 35세의 젊은 법률가 알렉세이 곤차룩 대통령실 경제담당 차장(부실장)이 29일 임명되면서 젤렌스키의 국정 장악력이 높아졌음.

우크라이나 7월 총선 결과

정당명	득표수	%	±pp	획득 의석			
				비례대표	지역구	합계	+/-
인민의 일꾼	6,307,097	43.16	신당	124	130	254	신당
인생을 위한 야권연단	1,908,087	13.05	신당	37	6	43	신당
전우크라이나 연합 "조국"의	1,196,256	8.18	2.50	24	2	26	7
유럽연대	1,184,515	8.10	13.72	23	2	25	107석
목소리	851,669	5.84	신당	17	3	20	신당

#### 5. 돈바스 전쟁

>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벌어진 친러시아 반군과 내전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지난 5년간 내전으로 1만3천 명 이상이 사망했음.

>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N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NR)'라는 자치정부 수립을 선포한 분리주의 세력 간의 대규모 교전은 2015년 2월 12일에 체결된 민스크 평화협정으로 일단 중단되었으나, 소규모 교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 6.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 ▶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요충지인 우크라이나는 냉전시대를 상징했던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의 힘이 또다시 충돌하는 21세기 '신(新)냉전'의 장.
- ▶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내전 이후 원조를 강화한 미 정치권의 '숙내'를 알아차리고 친러시아, 푸틴의 명분이 강화되고 있음.



6

### 7. 젤렌스키 정부의 대 러시아 관계 전망

- ▶ 젤렌스키는 취임 직후 포로셴코 정권이 추진해온 러시아와의 양자 협정 및 조약 파기 통보를 잠정 중단했으며, 러시아와 억류인사를 서로 교환하며 러시아와의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였음.
- ▶ 양국 간에는 적대적 관계 청산을 위해 '수감자 교환'이 이뤄졌고, 포로교환, 평화정착을 위한 민스크평화협정 이행, 러시아가스관의 우크라이나 통과 등 정치경제 현안에 대한 비밀접촉이 진행중.
- ▶ 러시아에 반대하는 연합(EU), 나토(NATO), 야당 및 서부지역 세력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음.
- ▶ 젤렌스키는 경제회복을 위해 러시아와의 일정 정도 타협할 것으로 예상됨.



7



## 중국의 러시아학 연구: 역사와 현황, 문제점

조정원 (연세대)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 중국의 러시아학 연구는 문학과 역사학을 시작으로 정치학, 경제학까지 분야가 확대되었다. 러시아 문학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기는 2019년에 100주년을 맞은 5.4운동 시기부터이다. 5.4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부터 1920년대까지 중국에는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는 지식인들이 많았다. 그로 인해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중국에 번역된 190종의 해외 문학 작품들 중에서 러시아 문학 작품의 중문 번역본이 69종을 차지하였다. 1940년대 중국의 문단에서는 소련의 독일과의 전쟁 시기의 애국 전쟁 문학에 주목하여 1942년부터 1949년까지 발간된 『소련문예』에서 다량의 소련 애국 전쟁 문학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1950년대에는 러시아어를 공부한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고요한 돈강』을 비롯한 각종 러시아 문학 작품의 중국어 번역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중소관계의 냉각으로 인하여 중국 내에서의 소련 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과 연구도 침체기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중소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소련 문학 작품과 러시아 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과 연구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며 특히 1990년대에는 톨스토이, 푸시킨, 막심 고리키 등의 유명 작가들의 전집 출간, 명저에 대한 재번역이 진행되었다. 2000년대부터는 러시아 문학의 중국에서의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명저에 대한 재번역과 전집 출간 작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2011년에 천선을 중심으로 출간된 총 22권, 6만 자에 달하는 『도스토예프스키 전집』 중문판의 출간은 10여년 간의 번역 및 출판 작업, 상세한 주석 작업과 텍스트 분석으로 중국 내에서 수준 높은 도스토예프스키 관련 총서로 인정받고 있다.

역사학에서는 18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여행기 위주의 러시아 현지조사가 많았는데 그중 량치차오의 『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제도개혁』에 대한 고찰은 학술적인 접근이 돋보이는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1949년까지는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과 5.4 신문화운동의 연계가 이뤄지면서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사 연구를 통한 중국 사회의 계몽을 시도

하였다.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의 중국 대륙 지배 이후부터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중국과학원과 중국사회과학원에 소련 관련 연구소들이 설립되면서 당시 소련의 대외 정책과 당시 소련 서적들에 대한 번역 붐이 일어났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역사학과 정치학, 경제학 분야에서의 러시아 연구는 양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의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 시기의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요법 실패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점진적 개혁개방의 강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사례로서 중국 내 학부, 대학원의 정치, 경제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러시아학 연구에서 18세기 러시아 역사, 19세기 러시아 역사 연구는 20세기 소련사 연구에 비해서 양적으로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20세기 소련사 연구는 정치사, 외교사, 경제사 분야는 연구 성과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으나 사상사, 문화사, 사회사(일상생활사)에 대한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정치학, 경제학 등 러시아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사범대학 러시아연구소가 발간하는 『러시아연구』, 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가 발간하는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 연구』 등의 학술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학술적 관점과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성과들보다는 역사적 접근이나 논문이 발표될 당시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논문들을 찾기가 더 수월하다. 이는 중국에서도 다른 국가에 대한 지역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분야별 특수성에 대한 연구, 러시아의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관련 정책 연구, 중러관계와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이 해외 학계와의 러시아연구 관련 학술 교류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에게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국내 대학의 교원들의 업적 평가에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발표가 매우 중요하며 SSCI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논문 투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학문 후속세대들 중 일부는 중국의 러시아 관련 사회과학 연구에서 연구 주제 관련 이론,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논문들을 발표하여 학술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공시성과 통시성

### 제4분과 사회과학분과

#### 사회과학분과 C (학문 후속세대 특별세션) : 러시아학의 새로운 확장

사회: 김성진 (덕성여대)

- ▶ 러시아 시베리아 내륙수운 개발의 필요성 ..... 353
  - 발표: 남가영 (한국외대 박사과정)
  - 토론: 김호섭 (서울대)
  
- ▶ 러시아 북극권 개발과 소수민족 정책: 이익공유협정을 중심으로 ..... 371
  - 발표: 이양경 (한국외대 석사과정)
  - 토론: 김인성 (고려대)
  
- ▶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조선산업에서의  
러시아와 협력 필요성 연구 ..... 387
  - 발표: 서현규 (한국외대 석사과정)
  - 토론: 강명구 (산업은행)



# 러시아 시베리아 내륙수운 개발의 필요성

남가영 (한국외대 박사과정)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하나로 간주하여 부르는 용어로, 이는 현재 세계 육지면적의 40%,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대륙이나, 정치적으로 이념이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었던 탓에 과거에는 경제적 변방 국가였다.<sup>1)</sup> 그러나 최근 유라시아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가 됨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유라시아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시도하고 있다.<sup>2)</sup>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경제통합, 미국의 ‘신실크로드전략’, 일본의 ‘중양아시아와 일본의 대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을 랜드브리지로 활용하여, 물적 자원의 운송 경로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이루기 위한 각국의 치밀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도 1980년대 말 북방외교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북방 정책을 발표하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일환인 북방 물류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태평양과도 이어지는 한반도의 뛰어난 지리적 특성과 한국의 선진화된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반도를 동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에 유라시아의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라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유라시아 전체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sup>3)</sup>

1) 오가영, 이재은, 위상우, “유라시아 랜드브리지 활용을 위한 TKR 연결 전략 수립”, 『물류학회지』 제28권 2호(2018년 4월), 78쪽.

2) 문희철, “유라시아 랜드브리지 기반 글로벌물류네트워크 구축”, 『국제상학』 제32권 1호(2017년 3월), 87쪽.

3) 서종원 외, 『유라시아 국제 운송로 물류여건 및 수요조사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6), 30쪽.

그러나 현재 유라시아는 거대한 내륙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교통네트워크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효율적 물류운송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통 인프라의 투자와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희철(2017)은 특히 유라시아 중간지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물류인프라의 후진성을 지적하며, 유라시아 지역 내 물류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을 강조했다. 유라시아 지역의 국제운송망을 살펴보면,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way, TSR)와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NSR)가 대표적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TSR은 시베리아 지역의 천연자원을 운송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개발 계획 아래 아태지역 국가들과 유럽 연합,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지경학적 측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NSR은 수에즈 운하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동-서 간의 새로운 해상 루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TSR과 NSR은 모두 동과 서를 이어주는 횡(橫)단 운송로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성우(2015)는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동서 중심의 물류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는 남북 물류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대로 된 물류중심지나 물류 네트워크가 되려면 여러 방향의 물류축이 만나야 하고 다양한 수단들이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들며, TSR을 기반으로 한 동서 루트와 북극항로, 그리고 러시아 시베리아 하운이 연계된 남북물류 네트워크의 결합이 중요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TSR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중동과 연결되는 도로 물류 망과 북쪽으로는 오비(Ob'), 예니세이(Enisei), 레나(Lena) 강으로 연결되는 하운망을 연결시켜서 물류 네트워크의 전체 골격을 완성하는 것이다.<sup>4)</sup> 하지만 활발한 인프라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TSR, NSR과는 달리 현재 러시아의 내륙수운 시스템은 20세기 초반부터 철도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다가 1992년 이후 민영화 정책으로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서 지속적인 쇠퇴일로로 걷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16년, ‘러시아 연방 내륙수운 개발전략 2030’을 승인하며 전반적인 내륙수운 시스템을 향상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2016년 8월 15일, 볼고그라드(Вольгоград)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전역의 내륙수운 활성화를 강조했다. 도로와 내륙수운의 물동량이 1990년대까지는 비슷했으나 최근에 이르러 그 차이가 4배에 다다른 것을 지적하며, 내륙수운 활용의 감소는 수익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운송 루트를 증가시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와 내륙수운의 규모가 비슷한 중국의 경우, 내륙수운 물동량이 러시아보다 약 12배가량 높다는 것을 예로 들며 내륙수운의 현대적 항만 인프라와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등을 지시했다.<sup>5)</sup>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자원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 지역의 자원과 함께 북극항로의 개발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 운송루트 확보를 위한 유라시아 대륙의 조밀한 내륙복합물류망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거대한 시베리아

4) 이성우, “유라시아 해운-항만물류 네트워크 구축방안”, 『월간교통』, (2015년 5월), 24쪽.

5) <https://rg.ru/2016/08/15/reg-ufo/putin-poruchil-pravitelstvu-stimulirovat-rechnye-perevozki.html>(검색일:2019.10.1)

하천들의 물류루트 활용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2)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는 러시아 시베리아 내륙수운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에 따른 예상 효과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베리아 내륙수운의 개발이 유라시아 전체 물류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 시베리아 내륙수운의 개발이 유라시아 내륙 지역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시베리아 내륙수운의 활용이 운송 거리와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본다.

## 2. 선행연구 고찰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1) 주요 선행연구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내륙수운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많지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해외항만개발정보센터, 해양수산부, KOTRA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러시아 전체 물류 인프라에 대한 1차, 2차 자료가 대부분이며, 북극항로 개발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일부 내륙수운의 필요성이 간략히 언급되고 있다. 이성우(2017)는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점진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한 가지 방안으로 시베리아 내륙수운 활용을 제안했다. 특히 동서를 잇는 TSR과 NSR의 여러 항만을 남북 방향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베리아 3개 강(오비, 예니세이, 레나)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성원용(2009)은 극동 바이칼 지역의 물류 인프라 개발에 있어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운송량 극대화를 위해 시베리아 내륙수운-철도-해운의 복합운송수단을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러시아 내에서는 2000년 이 후, 꾸준히 시베리아 내륙수운의 잠재력 평가와 활용 방안,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내륙수운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를 세 가지 분류해보면, 첫째, 시베리아 내륙수운의 개발 방안, 둘째, 북극 물류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로서 시베리아 내륙수운의 활용 방안, 그리고 20세기 초부터 이어져 온 시베리아 내륙수운의 시대별 개발 현황과 수운의 발전 및 쇠퇴 배경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표 1> 주요 선행연구

분야	연구제목/연구자(연도)	연구 내용
시베리아 수운개발 방안	1 시베리아 내륙수운의 경제적 발전/Zachesov V. P.(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경제 체제 이후, 내륙수운 사업 쇠퇴 배경과 개발방안 3가지 제시</li> <li>①시베리아 자원의 운송수단 ②동남아와 유럽 간 시베리아를 거치는 단거리 물류루트 건설 ③시베리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li> </ul>
	2 내륙수운의 국가운송 인프라 역할/Galin A.V.(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륙수로의 구조와 전체 항만 및 관련 산업의 부진요인 분석 - ①계절성 ②단일시스템 부재 ③화물운송 기간의 미예측성 ④인프라 관리의 높은 비용</li> <li>특정 화물의 일부 구간 운송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운송 인프라에 참여</li> </ul>
북극물류 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활용	3 러시아 하천: 지역&국가 간 운송네트워크 발전방안 /Goncharenko S.S 외(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의 국제운송회랑-북극항로, TSR과 연계 방안 검토,</li> <li>시베리아 자원 가공 공장들의 수출입 물류 루트로 활용</li> <li>정부의 내륙수운 활성화 지원 방안 제시</li> </ul>
	4 북극 시베리아 지역과 수운전망/Maslennikov S.N(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나바르 강과 톱시 항만 간 연안 무역과 사하 공화국의 자원 매장지 특성을 고려한 내륙 수운의 활용 필요성과 한계점, 해결 방안 제시 - 북극 시베리아 지역의 하천들과 북극항로에 근거하여 강 연안 환적 인프라 필요성 강조</li> </ul>
내륙수운의 시대별 개발현황	5 시베리아 내륙수운의 경제적 기능적 잠재력: 역사적 경험과 현대적 관점/Ageev L.A(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세기 말~20세기 초, &lt;오바-에니세이&gt; 운하 실패 요인의 배경 3가지를 들어, 현재 내륙수운 개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분석 - ①기술 요인(현재 해결됨) ②사회(조직 &amp;행정적), 경제적 요인(과거와 또 다른 문제들 발생: 해결 여지 있음) ③자연적 요인(수로의 계절성 해결 안됨)</li> </ul>
	6 1934~1936년 볼가 내륙수운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적 영향 /Gomanenko O. A(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련의 내륙수운 개편의 정책적 실패를 내륙수운시스템 쇠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제시. - 1934년 볼가 내륙수운의 ‘행정 구역에 따른 분할’정책을 실패의 예로 들어 각각의 ‘수운 경로별 화물’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 강조</li> </ul>
북극항로 연계	7 Proposal to Mitigate Arctic Shipping and Logistics Risks Utilizing Fourth Industrial Technology/이성우(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극항로 상용화의 어려움과 문제점 및 점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li> <li>북극항로 활용을 촉진시키는 한 가지 방안으로 시베리아 내륙수운 활용 제안</li> <li>- 시베리아 하천은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북극해 연안과 TSR 연계를 통해 시베리아 지역의 자원 운송</li> </ul>

##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연구들은 시베리아 내륙수운 활용에 대해, 지역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필요 근거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시베리아 내륙수운을 유라시아 물류 시스템의 한 요소로 보고, ‘교통 인프라 투자의 성공요인’이라는 객관적인 평가 요인을 통해 시베리아 내륙수운의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러시아 내륙수운 현황

러시아의 내륙수로는 총 길이 101,700km로, 이는 중국(110,000km)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미국(41,000km)의 2.5배, 독일(7,500km)의 13.5배 수준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내륙수운을 이용한 화물 운송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내륙수로 1km의 운송량이 중국 10,000톤, 미국 12,000톤, 독일이 30,000톤 이상인 것에 비해 러시아는 1,000톤에 불과하다.<sup>6)</sup>

<그림 1> 러시아 내륙수로망<sup>7)</sup>



내륙 수로에는 연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723개의 해상운송용 수력 구조물<sup>8)</sup>이 있고, 704대의 연안 크레인과 235대의 수상 크레인 장비를 갖춘 130개의 항만이 운영되고 있다. 내륙수운을 통해 거의 모든 화물의 운송이 가능하며, 13,022척의 화물선과 641척의 여객선박이 강과 바다를 모두 항행할 수 있다. 현재 화물선의 95%, 여객선의 86%가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sup>9)</sup> 러시아 내륙 수운은 벌크 화물로 건축자재(52%)나 석유 및 석유제품(14%), 곡물(9%), 목재 등을 주로 운송하고 있으며, 체제 전환 이후 인프라의 노후화와 관리 부재, 철도와 파이프라인, 도로 운송과의 경쟁에서 밀려 운송량은 현저히 감소했다[그림2]. 하지만 내륙수운을 통한 국제(환

6) A.В.Галин, “Внутренние водные пути России как часть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траны”, 『ВЕСТНИ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ОРСКОГО И РЕЧНОГО ФЛОТА ИМ. АДМИРАЛА С.О. МАКАРОВА』, 2014, С.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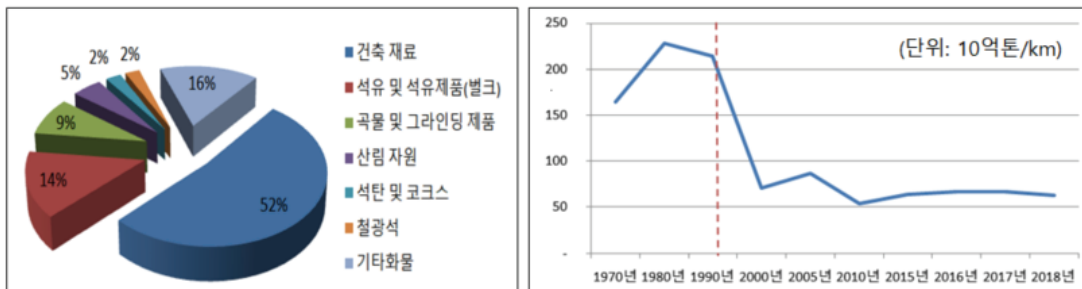
7) <http://900igr.net/kartinka/geografija/vnutrennie-vody-rossii-130252/sudokhodnaja-set-rossii-26.html> (검색일: 2019.9.28)

8) 수력 구조물은 댐, 수력 발전소, 배수로, 터널, 운하, 양수식 발전소, 수문, 선박 리프트, 홍수, 해안선 파괴 방지 구조물, 하천, 산업 및 농업의 액체 폐기물 저장실; 수로 사용 및 액체 폐기물의 부정적인 영향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구조물을 뜻함, <https://ru.wikipedia.org>(검색일: 2019.9.28)

9)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внутреннего вод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2016. 2. 29, С.1(검색일:2019.9.28)

적)운송 물류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내륙수운이 가장 짧은 운송루트를 제공하고, 러시아 유럽 지역의 물류가 백해, 발트해, 흑해, 카스피해 수역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는 매우 발전된 수로망과 호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모두 북극해, 대서양, 태평양, 카스피해 유역으로 이어지는데 약 270만 개의 강과 하천들 중 90%가 북극해와 태평양 유역으로, 나머지 10%는 카스피해와 대서양(아조프해-흑해, 발틱해)으로 흘러 들어간다. 러시아 연방 내에서 내륙수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사하 공화국으로 길이는 약 16,522km이다. 그 다음으로는 투멘 주(11,834km), 이르쿠츠크 주(8,069km)가 뒤를 잇는다. 주요 운송 루트는 볼가강, 돈강, 예니세이강, 오비강, 레나강, 이르티시강, 카마강 등이 있는데, 특히 볼가-발틱 운하, 볼가-돈 운하, 백해-발틱 운하 등이 러시아 내륙 수운에서 보다 전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sup>10)</sup>

<그림 2> 러시아 내륙수운 운송화물(2017) 및 물동량<sup>11)</sup>



## 1. 러시아 유럽지역의 내륙수운

### 1) 단일수심체계

러시아 유럽 지역의 통합 수운 체계는 백해, 발틱해, 볼가강, 모스크바강, 카스피해, 아조프해, 그리고 흑해를 이어주는 ‘단일 수심 시스템’으로, 해당 수운을 따른 화물 운송량이 러시아 전체 내륙 수운 운송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 수심 시스템의 길이는 총 6,500km로 강-바다 운항이 가능한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최소 4m 이상의 수심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러시아 유럽 지역의 ‘단일 수심 시스템’에는 네바강, 라도지스코 호수, 스비르 강, 오네지스크 호수, 백해-발틱 운하, 볼가-발틱 운하, 모스크바 운하, 볼가 강, 카마 강, 벨라야 강, 볼가-돈 운하, 돈 강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96년 1월 19일 러시아가 서명하고, 2000년에 비준한 유럽 협약에 따라 단일 수심 시스템은 주요 국제 운송 경로 중 하나인 ‘유럽 거대수운 연결체계’에 포함되었다. 이 연결체계의 길이는 약 1만km 이상으로, 12개 국가와 4개국의 해상 경로를 통과한다.<sup>12)</sup>

10) <https://tass.ru/info/3539165>(검색일: 2019.9.28)

11) <https://www.gks.ru/>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검색일: 2019.10.1)

<그림 3> 러시아 유럽지역 단일수심시스템<sup>13)</sup>



## 2) 불가-발틱 운하 및 백해-발틱 운하

러시아 유럽 지역의 내륙 수로 중 대표적인 운하로는 불가-발틱 운하(Volga-Baltic Waterway)와 백해-발틱(white sea-Baltic waterway)운하가 있다. 불가-발틱 운하는 1964년 똑같은 경로를 이용하던 마린스크 운하를 대신해 건설된 러시아 유럽 지역의 전략적인 내륙 수운이다. 불가-발틱 운하는 발틱해와 볼가강을 일련의 수로와 강으로 연결하는 대수로(368km)이며 매년 평균 항해 일이 226일에 이른다. 백해-발틱 운하는 백해와 오네가 호수 사이에서 이루어진 운하 프로젝트로 최단기간인 20개월(1931~1933)안에 완공되어 1933년 8월에 가동되었다. 약 227km로 5개의 바다를 연결하고 있으며 큰 화물선들이 운영되고 있어 건설하고 저렴한 수로로 인식되고 있다.<sup>14)</sup>

## 3) 러시아 유럽 북부 지역의 내륙수로

러시아 유럽 북부 지역에서 내륙 수로는 철도나 도로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예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의 접근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로망은 꽤 발전되어 있다. 길이는 약 13,000km 이상으로 러시아 전체 내륙 수로 길이의 13%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내륙수로 발전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에 위치한 조건으로 지역 간 교류나 대외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아르한겔스크(Архангельск) 지역이 대표적인 예다. 러시아 유럽 북부 지역의 수로망은 북극해의 3개 해역인 카라해, 바렌츠해, 백해와 이어지며, 이 수로들은 러시아 정부의 북극해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인 지역 운송 인프라와

12) <https://ru.wikipedia.org>(검색일: 2019.9.28)

13) <http://www.myshared.ru/slide/668738>(검색일: 2019.9.28)

14) 김청우, «흐르는 물길따라 무역·관광 산업 지속 성장», 인천 일보, 2012.12.20.,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610](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610)(검색일: 2019.9.28)

북극 항로 연계수로 및 북극해 연안항만 건설과 깊은 연관이 있다. 또한 인근의 아르한겔스크, 무르만스크, 카렐리아 공화국은 전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해당 수로를 활용한 수력발전은 지역경제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15)</sup> 소규모 수력발전소들의 성장은 주변 지역의 에너지난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다.

## 2. 러시아 시베리아 내륙수운

시베리아의 내륙수로는 기본적으로 네 개의 주요 강인 오비, 예니세이, 아무르, 레나, 그리고 바이칼 호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예니세이, 오비, 오비 강의 지류인 이르티시는 시베리아의 중부 및 남부의 넓은 곡창지대에서 철도까지 편리하고 저렴함 접근 수단 역할을 한다. 중국의 북서부와 몽골의 깊숙한 곳으로 뻗어있는 강들의 상층부는 시베리아와 이들 국가의 국경 지역을 연결하고,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들은 시베리아와 우랄을 외부 국제 시장(북극 항로)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시베리아의 원자재가 수로를 통해 북극해 연안의 항구로 운송되는 등 시베리아 원자재 수출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sup>16)</sup> 러시아의 북극, 시베리아, 극동 등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내륙 수로를 활용한 화물 운송과 주민 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아무르 주의 84%, 아르한겔스크 주의 77%, 하바롭스크 지역의 55%, 코미 공화국의 47%, 사하 공화국(야쿠티야)의 26% 주민들이 내륙 수운을 활용해 이동하고 있다.<sup>17)</sup> 시베리아의 내륙수운들은 최근 북극 지역의 자원 개발과 북극항로 운송 등으로 북극항만의 배후지 역할로 주목을 받고 있다.

<표 2> 북극해 운송시스템으로서의 시베리아 내륙수로<sup>18)</sup>

구분	서시베리아 유역	예니세이 유역	동시베리아	동북시베리아
내륙수로	오비, 이르티시, 타즈, 푸르강	예니세이, 쿠레이카, 한타이카, 카스강 등	바이칼 호수, 셀렌가, 앙가라강 등	레나, 아나바르, 오레네크, 야나, 콜마 강 등
대표 강	오비강 (면적:300만 km <sup>2</sup> )	예니세이강 (면적:258만 km <sup>2</sup> )	앙가라강 (길이:1,779km)	레나강 (길이:4,400km)
항해기간	92-117일 (6-10월)	110-185일 (5-11월)	180-190일 (5-11월)	110-165일 (5-10월)
유입해	카라해	카라해	바이칼 호수	랍테프해
만(Bay), 호수	오비만: 북극해에서 가장 큰 규모, 면적(44 km <sup>2</sup> ), 너비(45-55km), 최고수심(25m)	예니세이만: 기단스크 반도와 타이미르 반도 사이 위치, 길이(225km), 너비(150km), 수심(6-20m)	바이칼 호수: 길이(636km), 너비(25-79km), 면적(31,500km <sup>2</sup> )	삼각주: 레나강-북극해.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 150개 지류.

15) [http://www.vidania.ru/history/rossiyaskaya\\_federaciya/vodnye-resursy-evropeyskogo-severa.html](http://www.vidania.ru/history/rossiyaskaya_federaciya/vodnye-resursy-evropeyskogo-severa.html)(검색일: 2019.9.30.)

16) [http://pogodaomsk.ru/Sibir/Vodnye\\_puti](http://pogodaomsk.ru/Sibir/Vodnye_puti)(검색일: 2019.9.28)

17) [http://www.morvesti.ru/analytics/index.php?ELEMENT\\_ID=13284](http://www.morvesti.ru/analytics/index.php?ELEMENT_ID=13284)(검색일: 2019.9.28)

18) [http://www.morvesti.ru/analytics/index.php?ELEMENT\\_ID=13284](http://www.morvesti.ru/analytics/index.php?ELEMENT_ID=13284)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검색일: 2019.9.27)

19) 서시베리아 유역의 오비강이 흐르는 노보시비르스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주요 물류 센터로서의 잠재력을

항만	18-20세기 약30개 항만 건설. 북극 경제 물류에 포함	아반칸, 크라스노야르스크, 스트렐카, 마크라고보, 예니세이스크	-	오세트로보(철도 연결), 키렌스크, 렌스크, 야쿠츠크
북극해 연결	하탄스만(Хатангский), 오비만	딕손(Диксон)	-	틱시(Тикси)
주요 도시 (지역)	노보시비르스크 <sup>19)</sup>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주,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	사하 공화국-내륙수운의 전체 물동량의 53%.(레나강 38%)
운하	오비-예니세이(19세기 건설) <sup>20)</sup> - 항구(67개), 운하 <sup>21)</sup> (110-185일)			

### Ⅲ.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모형

#### 1.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현재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망은 남북 방향의 물류루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베리아의 내륙수운이 북극항로에서 TSR,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중국까지 이어주는 자연적인 운송루트로 그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북극항로와 시베리아 그리고 북극 지역의 자원 개발에 따른 물자와 자원의 수송로로 내륙수운을 활용할 경우, 물동량 확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베리아 내륙수운은 1992년 체제 전환 이후,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히 쇠퇴했고 현재 인프라의 개발, 보수,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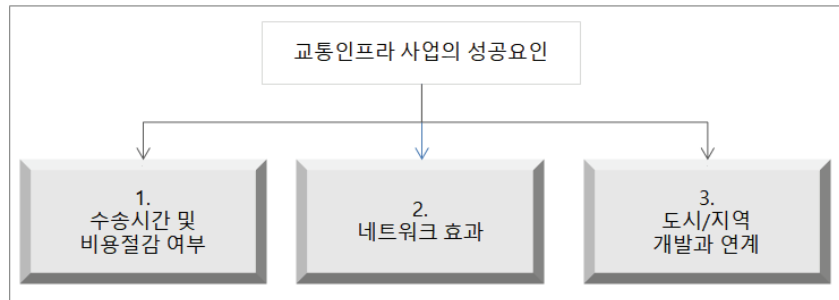
한국교통연구원은 OECD(2012)의 보고서 ‘Promoting Growth in All Regions’가 제시한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의 주요 요인과 Leuning(2011)이 1800년대 말부터 현대에 이르는 교통인프라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미국의 이리 운하(the Erie Canal)와 펜실베이니아 운하(Pennsylvania Main Line of Public Works Canal)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검토하면서 성공 혹은 실패한 교통인프라 사업을 구분하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첫째, 분석 대상 교통인프라 사업이 기존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통행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해당 교통인프라의 네트워크 효과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도시 및 지역의 연계를 통한 교통수요의 창출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sup>21)</sup>

가지고 있으며, 북극 개발에 필요한 화물을 오비만이나 하탄스키만(Хатангский залив)으로 수송을 할 수 있음. 노보시비르스크의 경제 발전 가능성은 북극해와 연결되어 있는 지경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할 때 나타날 것. 이는 여러 형태의 운송 수단이 분명하게 교차되어 큰 잠재력을 가진 도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 <[http://www.morvesti.ru/analyti cs/index.php?ELEMENT\\_ID=13284](http://www.morvesti.ru/analyti cs/index.php?ELEMENT_ID=13284), 검색일: 2019.9.26>

20) 1891년 완공되어 운행. 시베리아횡단열차 공사과 제1차 세계대전 등으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함

21) 안근원 외, 『교통인프라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실증적 효과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4년, 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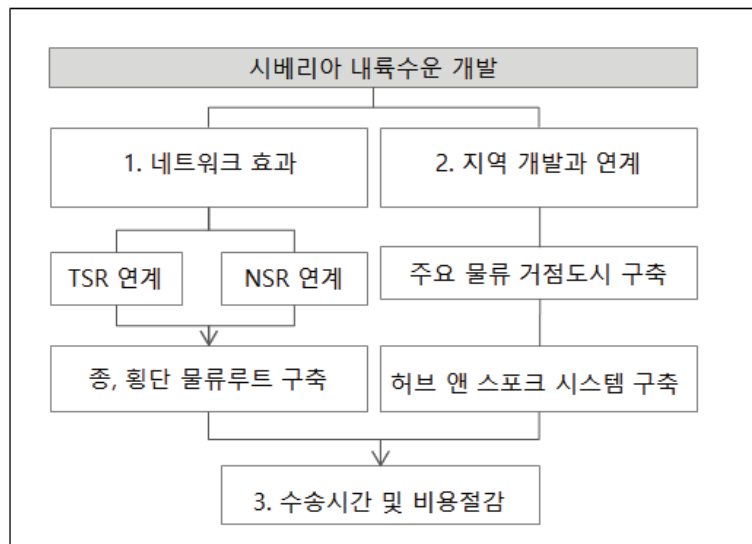
<그림 3> 교통인프라 사업의 성공요인<sup>22)</sup>



##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시베리아 내륙수운의 활용 가치와 발전 잠재력에 대해 위의 교통인프라 사업 성공의 요인들을 사용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단, 수송시간 및 비용절감에 관해서는 지역의 다른 운송회랑과의 연계효과(네트워크 효과)와 내륙복합물류 거점을 통한 지역 연계(도시/지역 개발과 연계)를 거쳐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시베리아 내륙수운 개발 가치분석 모형



22) 위의 글, 29쪽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 IV. 시베리아 내륙수운의 개발 효과

### 1. 네트워크 - 북극항로와 시베리아횡단열차의 연계

#### 1) 시베리아 단일 물류시스템 구축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내륙수로 길이는 같은 지역 철도의 약 4배, 도로의 약 11배<sup>23)</sup>로 북쪽으로는 북극항만들과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TSR과 교차하며 국경을 지나 중국, 중앙아시아까지 흐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의 하천들은 그 지류들과 운하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지역의 오지까지 화물의 운송, 반출이 가능하고, 동서남북 모든 방향의 수로들을 연계해 ‘단일수운시스템’의 구축도 가능하다. 러시아 정부가 2002년에 발표한 <시베리아 발전 전략>에 있는 교통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인프라 발전’과 ‘자원 개발 및 지역 경제복합체의 화물운송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교통인프라 발전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주요 도시들을 지나는 TSR을 기반으로 유럽지역의 회랑과 동부 지역을 연계시켜, 최종적으로 시베리아 운송시스템을 국제운송회랑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4)</sup> 러시아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시베리아의 오비, 예니세이, 레나 강과 그 지류들로 이루어진 시베리아 수로망, 그리고 유럽지역의 수로망을 이어 러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단일수운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06년 이르쿠츠크 지방의회는 ‘스톨리핀’의 농업 개혁의 일환으로 운송수단 개선을 검토하며, 내륙수운 활용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유럽지역과 시베리아의 수로들을 운하로 연결해 발트해에서 니콜라옙스카-나-아무르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체의 단일수운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었다.<sup>25)</sup> 이처럼 러시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베리아 교통 개발의 주요 목적을 러시아와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물류 길을 여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의 교통 인프라는 점진적으로 국제 운송망에 합류되고 있다. 러시아의 유럽지역은 유럽연합과 도로 및 수로로 이미 연계되어 있고, 동부 지역은 현재 운송 회랑의 증축과 새로운 건설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유라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철도망(TSR, BAM)과 수로망(북극항로, 내륙수로)의 단일시스템 구축 개발은 시베리아 지역이 유라시아의 물류 중심지로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2) 수운 북극항로망을 통한 자원 수송

최근 유라시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운송로는 북극항로다. 계절성과 항로의 불안정성

23) С.С.Гончаренко, “Реки России в развитии между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вязей”, Transport Business in Russia, 2006, С. 87

24) 위의 글, 86쪽

25) С.А.Сафронов,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ре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в годы Столыпинской аграрной реформы(1906-1917 гг.)”, ИСТОРИЯ, 2010, С.192

및 쇄빙선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현재 북극항로의 상용화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극항로가 시베리아의 거대 하천들을 배후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북극항로와 북극지역의 자원 매장지가 빠르게 개발되면서 러시아의 학자들은 시베리아 하천들이 내륙의 유일한 종단 방향(남-북)의 운송로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С.А.Сафронов(2010)는 시베리아 하천에 의해 북극항로와 TSR이 연계되는 도시들; 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등이 상공업과 교통의 요지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시베리아 지역의 접근이 어려운 많은 오지들과 지역 운송망의 불안전성을 이유로 들며 물류가 지속적으로 철도에만 의지하는 것을 우려했다. А.В.Галин(2014)도 러시아의 유럽지역 수운과 극동시베리아 수운이 북극항로와 이어져 러시아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 수로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경우,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매장된 자원들의 활발한 개발과 운송이 용이해질 수 있다.

<그림 5> 러시아 주요 석탄매장지<sup>26)</sup>



시베리아의 자원 매장지들; 쿠즈네츠크, 칸스크-아친스크, 렌스크, 이르쿠츠크, 튄구스크 등[그림 5]과 공업단지들; 노릴스크(비철금속 및 폴리메탈 광석 가공제품), 안가라 하구지역(알루미늄, 알루미나), 마이메차-콘구이스키 지역(농축 인회석 및 인산염 비료) 그리고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지역 목재가공 단지 등이 내륙수로 유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중국 및 일본에서 큰 수요가 있다. 반면 브라트스키, 이르쿠츠크, 사얀스키, 노보쿠즈네츠크와 같은 지역의 거대 공장들은 현재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인도 및 기타 지역의 자원을 흑해와 동해를 통해 들여오고 있고, 화물은 두딘카, 이가르크, 및 레소, 시빌스크에서 수로 선박으로 환적해 북극 지역 또는 시베리아 지역의 공장들로 공급되

26) <https://studfiles.net/preview/3535247/page:17/>(검색일:2019.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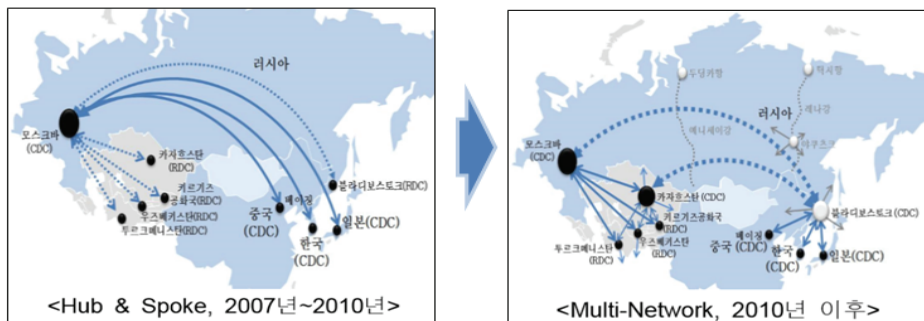


고 있다.<sup>27)</sup> 이처럼 북극항로와 네트워크를 이룬 내륙수운은 지역의 수출입과 환적 물량 등에서도 도로 교통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역 개발 -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시스템 구축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시스템은 자전거 바퀴살(spoke)이 중심축(hub)으로 모이는 것처럼 물류가 거점으로 집중된 후 다시 개별 지점으로 이동하는 운송형태로 허브를 중심으로 적은 수의 루트로 많은 지점을 연결할 수 있어서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sup>28)</sup> <그림 6>에서 보듯이 2007년 러시아의 ‘불법통관 금지조치’이 후 물류 업체들은 모스크바를 러시아 시장의 ‘허브’로 삼을 수 있었고, 2010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간 관세동맹이 발효된 후,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거점 도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극동 시베리아, 북극 지역의 내륙에는 여전히 ‘허브’역할을 하는 도시가 부재하다. 극동시베리아의 경우, 러시아 내수(domestic demand)를 위한 물류 거점을 넘어서 시베리아 물류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유라시아 물류시장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남북을 이어주는 강력한 물류 루트가 없이 TSR, NSR, 즉 동서 루트만의 확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림 6> 시기별 러시아 물류 구도변화<sup>29)</sup>



물류거점의 성공요인 중 하드웨어 측면을 살펴본다면, 진형인(2002)은 국제물류거점의 성공요인은 공항, 항만 및 물류시설, 연계교통망 등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고, 이성우(2000)는 유럽의 물류거점시설들을 예로 들며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내륙수로 등이 상호 연계된 우수한 물류시설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sup>30)</sup> 극동시베리아에서 철도(TSR)와 내륙수운 항만

27) A.В.Галин, “Внутренние водные пути России как часть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траны”, С.86-87

28) 박정철 외, “대도시권 교통문제,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을 활용하자!”, 『경기연구원』, 2014년 7월, 6쪽

29) 이성우 외,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 사례 연구”, 『해양비즈니스』, 제31호, 131쪽

30) 진형인, “인천공항의 동북아 물류거점화 가능성 및 전략”, 『해양한국』, 2002, 38~51쪽, 이성우, 『동북아 물류거점 선점을 위한 물류환경 개선방향』, (해양수산동향 제976호, 2000), 1~7쪽, “한반도를 물류거점화하기 위한 성공요인 도출 및 구조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물류학회, 2004년), 30쪽 재인용

이 연계되는 도시는 튜멘, 옴스크, 토볼스크, 세르기노, 살레하르드, 노보시비르스크, 톱스크, 수르구트, 크라스노야르스크, 레소시비르스크, 이르쿠츠크, 오세트로보, 블라고베센스크, 하바롭스크, 콤포몰스크나아무르 등이 있다.<sup>31)</sup> 이 중 환적 터미널과 같은 물류 시설 및 도로, 항공 등의 인프라가 보다 더 잘 구축된 도시는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등이다.

<그림 7> 러시아 행정구역(좌) 및 TSR과 내륙수운 주요도시<sup>32)</sup>



<표 3> 러시아 관구별 교통인프라 현황<sup>33)</sup>

러시아(관구)	수로 길이				철도 밀도 (km/10,000km <sup>2</sup> )	도로 밀도 (km/1,000km <sup>2</sup> )
	총길이(km)		항해보장수심(km)			
러시아	101,485	100%	49,977	100%	51	63
중앙	5,441	5%	2,227	4%	263	364
북서	17,147	17%	8,867	18%	78	62
남부	4,365	4%	1,647	3%	163	235
북카프카스	-	-	-	-	123	406
불가	9,486	9%	3,780	8%	142	232
우랄	13,007	13%	5,059	10%	47	42
시베리아	25,214	25%	13,743	27%	25	37
노보시비르스크	647	-	402	-	85	112
옴스크	1,474	-	1,133	-	52	99
극동	26,826	26%	14,654	29%	17	12.0
사하공화국	16,522	-	7,734	-	2	3.9

31) A.B.Галин, “Внутренние водные пути России как часть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траны”, С.88

32) <https://www.clintonctfire.com/trans-siberian-railroad-map.html/instance-getting-additionally-drastically-entrance-it-lamp-nearly-likely-only-provisions-choice-trans-siberian-railroad-map>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검색일: 2019.10.1.)

33) <https://www.gks.ru/>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검색일: 2019.10.1.)

<표 3>를 보면 항해보장수심 수로는 극동시베리아 관구에 전체의 약 60%이상이 흐르고 있다. 철도와 도로의 경우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시베리아와 극동 관구의 밀도가 낮지만, 시베리아 관구에 속하는 노보시비르스크와 옴스크는 해당 관구의 평균 철도, 도로 밀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노보시비르스크는 서부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교통의 허브로 TSR(서부시베리아 철도), 2개의 연방고속도로(첼랴빈스크-이르쿠츠크<바이칼>, 노보시비르스크-타산타), 국제 항공 노선과 오비 강의 교차로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노보시비르스크가 유럽과 아태 지역 국가들 간 즉, 유라시아의 확실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할 것이면, 이는 결국 지리학적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sup>34)</sup> 노보시비르스크 외에 크라스노야르스크는 예니세이 강과, 옴스크는 오비 강의 지류인 이르티시 강과 TSR이 교차하며, 하바롭스크는 아무르 강과 철도가 교차된다. 이 도시들은 모두 수로 항만을 가지고 있지만 항만 인프라 및 지역 수운 회사들의 수로 선박 확장 등 많은 투자와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베리아 지역을 유라시아의 물류 허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3. 운송효율성 - 거리 및 비용 절감

러시아 내륙수운의 평균 운송비용은 도로운송의 약 10배가량 낮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sup>35)</sup> 또한 시베리아 내륙 수운과 북극항로를 활용한 물류 루트는 도로와 철도 운송으로는 한계가 있는 중량, 초대형 화물 운송에 적합한데 이 역시 거리와 비용 절감 모두에 도움을 준다. 트럭과 화차는 화물 규격과 무게의 제한으로 대규모 건축 장비들의 운송에 제한이 되는데, 트럭의 경우 중량물 운송의 특성상 저속주행을 해야 하기에 운송 시간이 길어지고, 화물 파손의 위험도 높아진다. 철도 운송은 화물 파손의 위험이 낮고 운송의 정시성은 보장되지만, 중량 및 초대형 화물 운송을 위한 350t 이상의 특수 화차가 4개뿐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에 내륙수로 이용은 기간 최소화에 따라 운송비용이 절감되고, 환적 최소화를 통해 화물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프로젝트에 따라 주문, 제작되는 대형 자재들은 파손 시 재발주와 재구매 등 그 비용 손실과 기간 소요가 높아 화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량물, 초대형 운송에서는 매우 중요하다.<sup>36)</sup>

34) О.Д.Покровская, М.А.Зачешигрива, “Роль Новосибирского мультимода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узла в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м кластере России”,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Транспорту, 2015, С.92

35) Венедикт Зачёс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ибири”, С.17

36) [http://www.ksg.co.kr/news/news\\_print.jsp?bbsID=news&pNum=104328](http://www.ksg.co.kr/news/news_print.jsp?bbsID=news&pNum=104328)(검색일:2019.10.2)

<그림 8> 북극항로-오비강을 활용한 초대형 화물 운송루트(2016)<sup>37)</sup>



플랜트 설비자재와 같은 중량 화물들은 이미 북극항로와 오비 강을 거쳐 여러 차례 카자흐스탄으로 운송된 바 있다.<sup>38)</sup> <그림 8>과 같이 국내 물류기업인 SLK국보와 해운기업 팬오션이 북극항로-오비강 루트를 이용해 2016년에 카자흐스탄으로 플랜트 설비를 운송한 바 있다. 1천 100t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를 울산에서 선적해 약 두 달간의 기간을 거쳐 카자흐스탄의 파블로다르로에 운송하는 건으로, 화물의 높이가 7m, 폭이 8m로 철도나 도로 운송은 불가능했다.<sup>39)</sup>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부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우드 펠릿의 운송경로로 시베리아 내륙수운과 북극항로 연계 루트를 제안했다. 한국은 95% 이상의 우드펠릿을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의 생산량이 동남아를 능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동남아보다 가격이 높은 러시아산 우드펠릿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물류 수송비용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sup>40)</sup> 이런 경우 TSR을 이용해 블라디-부산의 루트를 이용하는 것 보다 시베리아 내륙수운-북극항로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용이할 것이다.

## V. 결론

유라시아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가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유라시아를 랜드브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물류 정책을 폭넓게 펼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해 자원의 수요가 늘어나고, 국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자가 다면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원과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물류망 구축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라시아에는 대륙을 횡(橫)방향으로

37) 이성우, “Proposal to Mitigate Arctic Shipping and Logistics Risks Utilizing Fourth Industrial Technology”, 『North Pacific Arctic Conference Proceedings』, 2017, 257쪽

38) 위의 글, 256쪽

3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0941](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0941)(검색일:2019.10.2)

40)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45921.html>(검색일:2019.10.2)

관통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역시 동서를 이어주는 북극항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제대로 된 물류망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을 이어주는 운송루트가 필요한 상태다. 또한 철도는 한정된 열차 수와 제한 규격으로 인해 늘어나는 화물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북극의 여러 불안정한 항해 조건들로 인해 북극항로는 아직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러시아 학자들과 북극항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북극해로 흘러나가는 시베리아의 내륙 수로; 오비, 예니세이, 레나 강을 유라시아의 남북 물류 루트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시베리아 내륙수운이 NSR과 TSR의 연결 고리로, 유라시아의 종(縱)단 루트로 개발 될 경우, ‘교통인프라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이 모두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첫째, 시베리아 내륙수운은 우선 러시아의 유럽지역의 수운과 연계될 수 있고, 남북으로는 북극항로와 TSR을 연결하여 유라시아에 명실상부한 내륙 단일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시베리아와 북극지역의 자원 매장 지로의 접근이 용이한 내륙수로는 북극항로와 연계해 시베리아의 자원을 해외로, 해외의 물자를 러시아로 운송하는 최적의 단거리 루트를 만들 수 있다. 둘째, 내륙수운의 개발로 철도와 도로 외에 수로 항만을 통한 북극항로와의 연계가 가능해진다면, 시베리아의 주요 거점 도시들은 유라시아의 물류 허브가 되어 새로운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와 지역 연계 요인을 모두 합치면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물류, 즉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물류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오가영, 이재은, 위상우, “유라시아 랜드브리지 활용을 위한 TKR 연결 전략 수립”, 『물류학회지』 제28권 2호(2018년 4월)
- 문희철, “유라시아 랜드브리지 기반 글로벌물류네트워크 구축”, 『국제상학』 제32권 1호(2017년 3월)
- 서종원 외, 『유라시아 국제 운송로 물류여건 및 수요조사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6)
- 이성우, “유라시아 해운·항만물류 네트워크 구축방안”, 『월간교통』, (2015년 5월)
- 안근원 외, 『교통인프라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실증적 효과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4년
- 박경철 외, “대도시권 교통문제,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을 활용하자!”, 『경기연구원』, 2014년
- 이성우 외,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 사례 연구”, 『해양비즈니스』, 제31호, 2015년
- 한반도를 물류거점화하기 위한 성공요인 도출 및 구조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물류학회, 2004년)

## 2. 국외문헌

- А.В.Галин, Внутренние водные пути России как часть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траны, 『ВЕСТНИ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ОРСКОГО И РЕЧНОГО ФЛОТА ИМ. АДМИРАЛА С.О. МАКАРОВА』, 2014,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внутреннего вод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2016
- С.С.Гончаренко, Реки России в развитии между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вязей, Transport Business in Russia, 2006
- С.А.Сафронов,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ре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в годы Столыпинской аграрной реформы(1906–1917 гг.), ИСТОРИЯ, 2010,
- О.Д.Покровская, М.А.Зачешигрова, Роль Новосибирского мультимода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узла в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м кластере России,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Транспорту, 2015,

## 3. 인터넷 자료

- <https://rg.ru/2016/08/15/reg-ufo/putin-poruchil-pravitelstvu-stimulirovat-rechnye-perevozki.html>(검색일:2019.10.1)
- <http://900igr.net/kartinka/geografija/vnutrennie-vody-rossii-130252/sudokhodnaja-set-rossii-26.html>  
(검색일: 2019.9.28)
- <https://tass.ru/info/3539165>(검색일: 2019.9.28)
- <https://www.gks.ru/>(검색일: 2019.10.1)
- <https://ru.wikipedia.org/>(검색일: 2019.9.28)
- <http://www.myshared.ru/slide/668738>(검색일: 2019.9.28.)
-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610](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610)(검색일: 2019.10.1.)
- [http://www.vidania.ru/history/rossiyaskaya\\_federaciya/vodnye-resursy-evropeyskogo-severa.html](http://www.vidania.ru/history/rossiyaskaya_federaciya/vodnye-resursy-evropeyskogo-severa.html)(검색일: 2019.9.30.)
- [http://pogodaomsk.ru/Sibir/Vodnye\\_puti](http://pogodaomsk.ru/Sibir/Vodnye_puti)(검색일: 2019.9.28.)
- [http://www.morvesti.ru/analytics/index.php?ELEMENT\\_ID=13284](http://www.morvesti.ru/analytics/index.php?ELEMENT_ID=13284)(검색일: 2019.9.28.)
- [http://www.morvesti.ru/analytics/index.php?ELEMENT\\_ID=13284](http://www.morvesti.ru/analytics/index.php?ELEMENT_ID=13284), (검색일: 2019.9.26.)
- <https://studfiles.net/preview/3535247/page:17/>(검색일:2019.10.3)
- <http://www.clintonctfire.com/trans-siberian-railroad-map.html/instance-getting-additionally-drastically-entrance-it-lamp-nearly-likely-only-provisions-choice-trans-siberian-railroad-map>(검색일: 2019.10.1.)
- [http://www.ksg.co.kr/news/news\\_print.jsp?bbsID=news&pNum=104328](http://www.ksg.co.kr/news/news_print.jsp?bbsID=news&pNum=104328)(검색일:2019.10.2)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0941](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0941)(검색일:2019.10.2)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45921.html>(검색일:2019.10.2)



# 러시아 북극권 개발과 소수민족 정책 : 이익공유협정을 중심으로

이양경 (한국외대 석사과정)

## I. 들어가는 말

러시아 북극 지역은 천연자원의 개발과 지하 광물 자원의 채굴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많은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노르웨이 스타토일하이드로에 따르면, 전 세계 천연가스 미개발 매장량의 30%, 석유의 미개발 매장량 13%가 북극 지역에 존재한다.<sup>1)</sup> 또한 러시아 West Siberian Basin은 북극 지역에서 자원량 규모로 1위, 전체 탐사량의 32%를 차지하는 지역이다.<sup>2)</sup> 또한 석유, 가스를 제외하고도 금, 은, 다이아몬드, 철, 비철금속과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함께 북극항로의 운행이 점차 활발해지며 물류인프라 설치, 항만개발이 동반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자원 개발과 북극권 개발의 주요 장소들은 토착소수민족이 전통적 토지 이용을 해 온 장소와 겹친다. 이에 따라 기업과 토착민족 커뮤니티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법에서는 전통적 토지사용 지역에서의 사업진행 시 이에 따르는 경제적 보상과 각종 생활 및 문화적 지원을 기업이 토착민족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sup> 이에 따라 각종 채굴 회사 등은 토착민족 커뮤니티와 이익공유협약(benefit sharing arrangement)을 체결하게 된다.

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은 그 대부분이 북극 지역 토착 소수민족이 전통적 경제활동을 영위해 왔던 영토이다. 따라서 북극지역의 개발과 변화는 다른 주민들보다도 더욱, 그 지역에 거주하며 전통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토착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순록 사육, 농

1) 김효선, 『글로벌 북극』 (서울: 지식노마드, 2016), 31쪽.

2) 이성규, “북극지역 자원개발 현황 및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0-03, 6쪽.

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апреля 1999 г. N 82-ФЗ,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pravo.gov.ru/proxy/ips/?docbody=&firstDoc=1&lastDoc=1&nd=102059473>

업, 사냥, 어로 등의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며, 더불어 전통적 생활양식을 지속하지 못함에 따라 문화의 보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으로는 성소와 묘지 등의 토지가 개발 대상에 들어가며 파괴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하공화국의 전 수장 이고르 보리소프는 정부의 북극의 사회경제적 발전 프로그램에 대해 북극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북극은 자원의 보고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며, 그곳의 사람들은 어디로도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4)5)</sup> 북극의 개발로 얻은 이익이 채굴회사뿐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발전시키는 부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

이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과 지방정부 또는 토착민족 단체 간의 이익공유협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익공유협정을 통해 정말로 석유, 천연가스 등 채굴 산업에서 얻은 부가 혜택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이익공유란 천연자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을 해당 지역의 거주민과 공유하는 개념으로, 천연자원의 사용은 채굴, 임업, 수자원 이용, 관광, 해양자원 이용을 포함하며, 생물다양성 보존과 기후변화 완화를 포함한 환경보호, 그리고 기존 지식의 사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sup>6)</sup>

러시아에서도 이는 같은 맥락으로, 기업의 천연자원 사용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러시아에서 이익공유협약(benefit sharing arrangement)은 기업이 토착민족 커뮤니티와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기타 생활,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러시아 북극 지역의 대기업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CSR 활동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공유협약(benefit sharing arrangement)은 캐나다와 알래스카를 포함한 기타 북극권 국가에서도 체결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매개가 되어 기업과 토착민족 커뮤니티의 협약을 매개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을 제외하고도 토착민족 커뮤니티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얻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이익공유체계의 지배적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며, 토착민족 커뮤니티가 얻을 수 있는 보상 또는 지원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또한 이익공유협약은 어떻게 적용되며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 연구에서 살펴보려 한다.

러시아의 토착소수민족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체로 문화 또는 언어에 관한 것이거나<sup>7)</sup> 개별

4) *Свободная Пресса*, Глава Якутии: Россия должна получать выгоду от освоения Арктики[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2017. 6. декабря.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svpressa.ru/society/news/187803/>

5) *Свободная Пресса*, Федеральный Уровень | СВОБОДНАЯ ПИРЕССА.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www.youtube.com/watch?v=JbNSwY7Skao&feature=youtu.be> (검색일: 2019.06.10.)

6) Elisa Morgera,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Legal Concept of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7 no. 2 p.354

7) 김태진,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언어에 대한 고찰: 소수민족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23호(2012), 53-53쪽; 김혜진, “체제 전환과 러시아 소수민족의 의식주 변화: 코미 순록사육자를 중심으로(1950년대 현재), 『슬라브학보』 30권 1호 (2015), 167-198쪽 등



민족의 정치적 위치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8)북극권 토착소수민족과 그 권익을 다룬 연구로는 김혜진의 일련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해당 연구는 토착민족 커뮤니티와 기업과의 갈등을 분석하며<sup>9)</sup>, 또한 후속연구로 석유채굴기업의 CSR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sup>10)</sup> 또한 본고와 관련된 연구로 개발과 환경 변화로 인한 토착민족의 사회안보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sup>11)</sup>

본 연구는 이를 포함한 이익공유체계의 전반을 분석, 북극 토착소수민족 커뮤니티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더 자세히 들어가기 위한 기반으로 이익공유체계 전반의 상황을 연구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러시아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북극권 토착소수민족의 권리와 전통적 토지 이용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에서 이들의 권한을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에 이어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체계 아래 기업과 토착민족 간 이익공유협약의 유형을 알아보고, 각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방법과 이익공유협약의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 II. 러시아 연방법에서의 토착소수민족의 권리

### 1. 연방법에서 정하는 토착소수민족의 권리

러시아 연방법에서는 토착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소련 시대부터 법로 제정되어 있었으며 이 기초는 소비에트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도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러시아 독립 초기에는 헌법상으로 그 권한을 명시하였으나 구체적이지 않았고<sup>12)</sup> 이후 추가적인 법안을 제정하며 그 기초를 잡아 간다.

먼저 1999년 제정된 연방법 № 82-ФЗ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극동 토착소수민족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에서 바로 토착소수민족의 정의를, 조상의 전통적 정착지에 살고 있으며 전통적인 생활 방식, 경제 활동 및 수공업 활동을 보존하고 있는 5만 명 미만의 독립적 민족 공동체임을 밝히고 있다.<sup>13)</sup> 동시에 이 법에서는 토착민족이 전통적 생활방식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영토 사용의 권리가 있음을 밝히며, 언어 보존, 민족교육에서의 지원을 연

8) 김인성, “러시아연방의 소수민족 정책 - 법적, 사회적 지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연구』제6호 (2001) 31-42쪽; 김성례, 시베리아 소수 유목민의 민족자결운동과 문화부흥, 『지역연구』 4권 1호 (1995, 봄) 217-277쪽 등

9) 김혜진, “전통 생활터전을 둘러싼 러시아 북서부 토착민족과 기업 간의 갈등,” 『슬라브학보』, 32(4), (2017). 153-186쪽

10) 김혜진, “러시아 북서부 토착민족에 대한 석유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슬라브학보』, 33(2), (2018). 215-251쪽

11) 김현진, “Study on the Societal Security and the Securitization of Threats of Arctic Indigenous Peoples in Russia”,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9.

12) 김인성, “러시아연방의 소수민족 정책 - 법적, 사회적 지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연구』제6호,(2001), 31-32쪽.

1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04.1999 г. № 82-ФЗ,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pravo.gov.ru/proxy/ips/?docbody=&firstDoc=1&lastDoc=1&nd=102059473> (검색일: 2019.10.01.)

방정부가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2001년 5월 7일 제정된 연방법 N49-ФЗ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극동 토착소수민족의 전통적 자연 이용에 관한 영토법”은 토착민족이 전통적으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해온 땅을 전통적 방식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이용 권리와 함께 이 영토가 국가나 기업에 의해 사용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sup>14)</sup>

이 법안에서는 ‘전통적 자연이용 영토(территория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즉 ТТР의 정의와 범위가 제시되었다. 그 범위를 연방, 지역, 지방 차원의 중요성에 따라 특별히 보호된 영토로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더욱 자세히는 제9조에서 규정한다.

이 두 법안은 토착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 지침이 되나, 보상의 대상이나 전통적 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타 법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방법 № 225-ФЗ ‘생산물분배계약법’ 제7조에서는 전통적 거주지나 경제활동이 위치한 지역에서 기업이 작업을 수행할 때, 기업이 합의에 따른 보상을 지불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하고 있다.<sup>15)</sup> 투자자는 토착민족의 거주지와 전통적 생활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법률에 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절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연방법 № 166-ФЗ ‘어업 및 수산 생물자원 보존법’ 제25조에서도 전통적 생활방식과 전통적 경제 활동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착소수민족의 어획행위가 별도의 허가 없이 수행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sup>16)</sup> 단체설립에 관한 법, 등에서도 토착민족 커뮤니티의 구성조건을 제시하며 이들 토착민족 커뮤니티는 어로와 사냥, 채취 등에서도 전통적 영토 내에서의 자연 환경 사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법에서는 전통적 자연이용 영토에서의 개발 및 투자 프로젝트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시 그 활동을 실행한 기업 또는 정부는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토착소수민족의 전통적 형태의 경제활동이 우선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방법 상에서는 보상 산정 방안에 관한 자세한 절차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업과 커뮤니티, 또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서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 된다.

또한 연방법 차원에서 보상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함과 더불어 법안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토착소수민족 권리 보장법과 ТТР이용법안에 따르면 토착민족들이 그들의 전통적 자연이용 영토를 별도의 허가나 이용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018년 1월

1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7 мая 2001 г. N 49-ФЗ “О территориях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pravo.gov.ru/proxy/ips/?docbody=&nd=102070941&rdk=1> (검색일: 2019.10.01.)

15)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т 30 декабря 1995 года № 225-ФЗ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base.garant.ru/10105771/> (검색일:2019.10.01.)

1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0 декабря 2004 г. N 166-ФЗ “О рыболовстве и сохранении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глава 3. статья 25. /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base.garant.ru/12138110/53925f69af584b25346d0c0b3ee74ea1/#ixzz61SWOpof4>

1일 제정된 토지법에 따르면 토착민족 공동체는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sup>17)</sup> 또한, 토착민족 커뮤니티 당사자가 지원에서의 결정적인 역할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토착민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땅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토착민족에게 채굴 라이선스를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데에 참여할 권리는 없으며, 기업은 이미 교부받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토착민족과 합의를 체결하게 된다.<sup>18)</sup> 전통적 자연이용 영토의 훼손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개발의 시행여부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 Ⅲ. 러시아 북극지역에서의 이익공유협정의 적용과 한계

#### 1. 이익공유협정의 개념

이익공유란,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제기된 논의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그 사용에서 발생된 이익을 지역 및 토착민족 공동체와 공유하며 동시에 그 자원への 접근을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형태로 통제한다는 의미로 시작되었다.<sup>19)</sup> 또는 유전자원 또는 전통 지식의 사용에서 파생된 이익의 일부를 자원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sup>20)</sup>

여기서 파생된 이익공유협정이란, 공동체 개발 협정(Community Development Agreements, CDA)이라고도 하며, 투자자와 커뮤니티 간의 계약으로 투자 프로젝트에서 얻는 이익을 지역 사회 및 기타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와 직접 공유하는 체계이다.<sup>21)</sup> 이는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토착민족 커뮤니티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sup>22)</sup>

특히 이 협정 자체가 채굴산업이나 임업과 같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종류의 산업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체결되는 종류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익공유협정은 북극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자원을 이용하는 여러 지역에서 사용

17) *Gassiy, Violetta & Potravny, Ivan.* The Compensation for Losses to Indigenous Peoples Due to the Arctic Industrial Development in Benefit Sharing Paradigm. Resources. 8. 71. 2019. pp.2-3.

18) *Ольга Подосенова,* Земля раздора[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Bellona.ru 2018. 30. Июль.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bellona.ru/2018/07/30/zemlia-razdora/> (검색일: 2019.08.23.)

19) Nagoya Protocol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cbd.int.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www.cbd.int/abs/text/default.shtml> (검색일: 2019.10.02.)

20) *Schroeder D.* Benefit sharing: it's time for a definition. Journal of medical ethics, 33(4), 2007. pp.205-209.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652775/>

21) Emerging Practices in Community Development Agreements / Columbia Center on Sustainable Investment. <http://ccsi.columbia.edu/2016/02/10/emerging-practices-in-community-development-agreements/> (검색일: 2019.09.30.)

22) *Maria Tysiachniouk and Andrey Petrov,* "Benefit Sharing in the Arctic Energy Sector: Perspectives on Corporate Policies and Practices in Northern Russia and Alaska,"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39 (2018): 29-34 ; *Suliandziga, Liubov.* "Indigenous Peoples and Extractive Companies: The Case of the Russian Arctic." Uluslararası Suçlar ve Tarih / International Crimes and History 19, 2018. p.54. 에서 재인용

하고 있다.

북극에서도 역시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극 지역 전반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석유 및 가스 회사의 대다수가 지역 및 토착민족 공동체를 지원하고 토지 및 전통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이익 공유 협정에 대해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회사별로 상이하며 국제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 2. 이익공유협정의 유형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이익공유(benefit sharing arrangements)는 금전적, 그리고 비금전적 지원을 포함한다. 대체로 해당 전통적 자연이용 영토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토착민족 커뮤니티 또는 지역행정부가 1대 1로 체결하게 된다.

Maria Tysiachniouk의 연구에서는 이익공유 모드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온정주의(paternalism),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파트너십 체결(partnership), 주주 모델(shareholder model)로 나눈다.<sup>23)</sup> 그리고 전통 산업 지원책을 한 가지 유형으로 더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sup>24)</sup> 그러나 수공예 지원 등 전통 공예와 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대체로 CSR에 포함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글에서는 Tysiachniouk의 네 가지 분류를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각 유형은 프로젝트 별로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이 한 가지 사례에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한다. 대체적으로 어떤 대표적 프로젝트나 기업이 위와 같은 사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볼 것이다.

### ① 온정주의(paternalism)

온정주의, 또는 가부장적 시혜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유형은 국가가 주도하며, 국가 또는 기업이 시혜적인 입장으로 토착민족 커뮤니티에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기업의 지원활동을 국가가 감시, 제어하며 대체로 소련 시대의 온정주의 정책의 유산에 뿌리를 둔 것으로 파악한다.<sup>25)</sup> 소련 시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도시 또는 지역, 혹은 개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주었던 유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도하여 지역에 이익을 분배하는 형식을 이러한 가부장적 위계구조로 설명하는 것이다.

온정주의는 대부분의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익공유의 형식이다. 그러나 이 형식은 토착소수민족 커뮤니티나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수직적 구조로, 전통적 경

23) Maria Tysiachniouk, Benefit sharing arrangements in the Russian North and Alaska, Russian Analytical Digest, #202. 2017. pp.2-3.

24) Gassiy, Violetta & Potravny, Ivan. The Compensation for Losses to Indigenous Peoples Due to the Arctic Industrial Development in Benefit Sharing Paradigm. Resources. 8. 71. 2019. pp.8-9.

25) Maria Tysiachniouk, Benefit sharing arrangements in the Russian North and Alaska, Russian Analytical Digest, #202. 2017. p.2

제활동을 진행하는 토지에서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또한, 이러한 이익 배분의 형태는 일시적으로는 수혜자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 지속 가능성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단기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고 및 의존의 위험이 있다.<sup>26)</sup>

##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현대에는 많은 기업들이 CSR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 북극의 북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루코일의 CSR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CSR은 대체로 사회에의 기여로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을 하며 큰 범위에서는 지역 토착민족 전통 산업의 육성 등도 포함된다. CSR 또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프리드먼이 말했던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연적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견에서 시작하나, 대체적으로 현재 사용되는 개념은 기업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sup>27)</sup>

북극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CSR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역경제 발전, 전통문화 보존, 문화예술적 지원, 교육 지원, 협정을 통한 물질적 지원 및 보상으로 나타난다.<sup>28)</sup> 북극 지역에서 활발하게 CSR을 진행중인 대표적 기업인 루코일을 살펴보면 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2018년 Sustainability report(지속가능보고서)에서 루코일은 지역사회 파트의 하위로 북극 토착 소수민족 지원활동을 카테고리화하여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루코일과 지역 정부간 협력 계약, 전통적 천연자원사용 영토와 경제 협약, 순록 농장과의 사회 및 경제 개발 협약, 사회단체와의 협력, 보조금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 등으로 나뉜다. 또한 네네츠자치구(NAO)에서는 'Red Chum' 프로젝트로 툰드라에 거주하는 현지 순록목축 가정에 현장 건강진단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루코일이 선전하는 주요 CSR 활동 중 하나이다.<sup>29)</sup>

직접적으로 토착민족에 대한 CSR활동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루코일의 Sustainability report에서 눈여겨 볼 만 한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사회적기업 지원이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루코일 주유소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루코일은 2018년 Sustainability report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코미 공화국에서 토착민족 장인의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

26) *Laura A. Henry*, Indigenous rights in the Russian Arctic: self-determining communities or stakeholders? / *OpenGlobalRights*, October 11, 2017. <https://www.openglobalrights.org/indigenous-rights-in-the-russian-arctic-self-determining-communities-or-stakeholders/> (검색일: 2019.10.02.)

27) *Loe, J., Kelman, I., Fjærtøft, D. and Poussenkova, N.* "Arctic petroleum: local CSR perceptions in the Nenets region of Russia",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Vol. 13 No. 2, 2017. p. 309

28) 김혜진, "러시아 북서부 토착민족에 대한 석유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슬라브학보』, 33(2), 2018. pp.233-234.

29) INDIGENOUS MINORITIES OF THE NORTH, Sustainability Report 2018 / LUKOIL. <https://csr2018.lukoil.com/local-communities/indigenous-peoples> (검색일:2019.09.12.)

다.<sup>30)</sup>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직접적 금전적 지원보다 더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파트너십(partnership)

기업과 토착민족 커뮤니티가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형태로, 채굴 기간 동안 형성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사할린이 대표적인 이 파트너십 체결의 예시로 볼 수 있다. Tysiachniouk는 이를 기업, 지역정부, 토착민족 커뮤니티의 3자 파트너십으로 파악했다.<sup>31)</sup>

사할린에서의 지역사회와 기업의 파트너십 체결이 가장 두드러진 예시이다. 사할린은 러시아 정부에서 정한 북극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토착민족이 전통적 생활양식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며 거주하는 지역임과 동시에, 사할린-I, 사할린-II의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기업과 토착민족간의 갈등과 협력이 예외적이면서도 모범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파트너십 체결의 케이스는 지역 토착민족 위원회가 협상을 진행하고 발전계획을 결정, 실행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기업 중심의 CSR이나 온정주의적 지원과 구별된다. 또한 채굴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 형식으로 지방정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사할린에서의 제3자 파트너십은 환경운동 단체, 토착민족 집단, 러시아녹색당을 포함한 단체의 지속적인 압력을 통해 체결할 수 있었는데,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와는 달리 사할린-II에 비러시아계 다국적 기업이 많이 참가한다는 점도 이 차이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32)</sup> 사할린-I은 다소 늦었으나 2012년 사할린 지역 정부 및 사할린 원주민 소수 민족 대표 협의회와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사할린-II의 프로젝트 진행자인 사할린에너지, 사할린 주 정부, 그리고 사할린 토착소수민족 지역대표위원회가 진행하는 사할린 토착소수민족 개발계획(SIMDP)을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예로 들 수 있다. SIMDP는 2005년부터 기업, 주정부, 토착민족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3자 프로그램으로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며 현재 제3차 5개년계획(2016-2020)을 시행중이다.<sup>33)</sup> 그 전에는 Shell사의 사회적 기여 정책을 채택했다.<sup>34)</sup> 사할린 토착소수민족 개발계획(SIMDP)은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기금 제공을 제외하고도 소액펀드(Mini-Grant fund), 전통적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으며<sup>35)</sup> 2016년부터 시작하는 제3차 5개년계획에서는 독립적인 토착소수민

30) Social entrepreneurship, Sustainability Report 2018 / LUKOIL.

<https://csr2018.lukoil.com/local-communities/social-entrepreneurship> (검색일: 2019.09.12)

31) Maria Tysiachniouk, Laura A. Henry, Machiel Lamers, Jan P.M. van Tatenhove, Oil and indigenous people in sub-Arctic Russia: Rethinking equity and governance in benefit sharing agreements,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Volume 37, 2018, p.144

32) Ibid.

33) О Плане содействия / План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з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www.simdp.ru>

34) Maria Tysiachniouk, Laura A. Henry, Machiel Lamers, Jan P.M. van Tatenhove, Oil and indigenous people in sub-Arctic Russia: Rethinking equity and governance in benefit sharing agreements, p.145.

35) Sakhalin indigenous minorities development plan. Second Five-year plan (2011-2015), p.23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www.sakhalineenergy.ru/media/user/libraryeng/socialstake/minorities/SIMDP\\_2\\_eng.pdf](http://www.sakhalinenergy.ru/media/user/libraryeng/socialstake/minorities/SIMDP_2_eng.pdf),

족 발전 기금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36)</sup>

이 외에도 사할린 에너지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UNDRIP에서 2006년 지정한 Free Prior Informed consent(FPIC) 원칙과 국제기구의 활동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IFC가 이 표준을 채택하기 전인 2010년부터 이미 채택되었던 것이다.<sup>37)</sup>

#### ④ 주주모델(shareholder model)

토착민족은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채굴기업으로부터 토지사용의 로열티를 받으며, 토착민족은 그 회사 주식의 소유주로서 배당을 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모델이다. 러시아에서는 흔하지 않으며 알래스카 등 타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알래스카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통한 로열티 수취와 함께 지역 회사인 ASRC(Arctic Slope Regional Corporation)가 토지를 탐사하고 해당 토지를 채굴회사에 임대함으로써 자원 개발을 통제하는 기능 또한 담당한다.<sup>38)</sup> 이 일련의 활동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이 함께 동반되는 효과가 있다.<sup>39)</sup>

캐나다도 이와 비슷한 모델로, 지역에서 토착민족 개발법인을 소유하고 석유 회사와의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이와 더불어 자원 개발자들은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누나부트 지역에서는 이누이트 협회와 이익공유계약을 협상할 의무가 있다.<sup>40)</sup>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 협상이 식민지 유산과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사회가 참여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협상 포럼 내의 역사적 맥락과 의사소통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존재한다.<sup>41)</sup>

### 3. 이익공유협정의 한계와 법적 개선 움직임

‘토착민족은 자원 채굴에서 기업과 국가의 마지막 장벽 중 하나’<sup>42)</sup>이며, 이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가 기업과 국가의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중요한 부분이 것이다. 이 ‘벽’을 국가와 기업은 영토의 파괴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여타 지원을 이익공유협정이라는 형태로 넘어

36) Sakhalin indigenous minorities development plan. Third Five-year plan (2016–2020) p.11 [http://simdp.com/uploads/files/SIMDP2016\\_ENG.pdf](http://simdp.com/uploads/files/SIMDP2016_ENG.pdf),

37) Елена Ванничная, Потеря коренных языков – это «сердечная боль». Как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поддерживает народы Севера // Новости ООН, 2019. 30. апреля.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news.un.org/ru/interview/2019/04/1354261>

38) Petrov, A.N.; Tysiachniouk, M.S. Benefit Sharing in the Arctic: A Systematic View. Resources 2019, 8, 155. p.9

39) Ibid.

40) Wilson, E. What is Benefit Sharing? Respecting Indigenous Rights and Addressing Inequities in Arctic Resource Projects. Resources 2019, 8, 74. p.17

41) Ibid. p.18

42) Ольга Подосенова, Земля раздора[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Bellona.ru 2018. 30. Июль.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bellona.ru/2018/07/30/zemlia-razdora/> (검색일: 2019.08.23.)

서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혜택에 초점을 맞추면 토착민 공동체가 처음부터 개발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사라진다.

개발과 보상에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기업은 손실이익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며, 그 외에도 토착민족들은 기업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의로 등)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이익손실이 아니라 로열티의 개념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공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sup>43)</sup> 사할린 에너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과 달리 제3자 파트너십 형태로 로열티와 타 프로그램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북극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손실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온정주의적 방식을 제외하고도, CSR의 경우에도 지역사회나 토착민족 커뮤니티의 의견이 반영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기업으로 기업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파트너십과 주주 모델이 네 가지 모델 중에서는 토착민족의 의견을 이익공유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앞서 두 가지에 비해서는 이 두 유형은 러시아에서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보상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2017년경에도 있었으며, 2018년에는 소수민족 지원정책 현실화 원탁회의에서 전통적 자연환경 토지이용 개선안을 발간했다. 이어 2019년 연방법 차원에서 보상기준 마련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토착민족의 민족 등록 방법 개선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개인의 민족을 출생 시 등록하게 했던 소련 때와는 달리, 9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는 여권에는 민족이 기재되지 않으며,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서류에 민족 기입은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이것을 기준으로 토착민족 당사자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은 출생 시 많은 사람이 민족을 기입하지 않았기에 판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sup>44)</sup> 따라서 정부는 토착 소수민족의 자발적 등록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 중이다.<sup>45)</sup> 이와 관련하여 엘레나 골로마예바 사하 공화국 의회 북극문제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여권 발급에 대한 새로운 행정 규정에 “민족”을 추가하여 러시아 연방, 시베리아 및 극동 원주민의 상태에 대한 국가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부활 시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sup>46)</sup>

한편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연방 민족문제청(Federal Agency for Nationalities)은 조직의 경제 활동에 의해 러시아 북극 토착민족 영토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법안 작성에 착수했다.<sup>47)</sup> 그러나 현재까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43) Лина Саримова, «В ХМАО был конфликт из-за священных мест: общественник Юрий Вэлла с топором бросался на машины ЛУКОЙЛа» // Реальное время 2017. 11. апреля.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realnoevremya.ru/articles/61481-etnolog-o-konflikte-neftyanikov-i-gazovikov-s-narodami-severa> (검색일: 2019.10.03.)

44)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защите // Ил Тумэна. 2018. 23. ноября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news.iltumen.ru/parlamentarizm/2018/11/predlozheniya-po-zakonodatelnoy-zashhite/>

45) Комиссия по законо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добрила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порядке учё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government.ru/activities/selection/302/37434/>

46)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защите // Ил Тумэна. 2018. 23. ноября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news.iltumen.ru/parlamentarizm/2018/11/predlozheniya-po-zakonodatelnoy-zashhite/>



없으며, 연방법 상에서 하층토 사용자와 북극 토착민족 간 협약 체결에 관한 법적 규제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연방정부가 아닌 사하공화국 등 지방행정부 차원에서는 제도화 등 관련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북극 개발에서의 토착민족의 역할과 그 권익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던 것을 볼 때.<sup>48)</sup> 러시아도 북극 토착소수민족 분야 문제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또한 여타 북극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기준에 맞추어 가야 할 것이다.

#### IV. 결론

현재 러시아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북부 토착소수민족의 개발에 대한 보상의 권리와 이를 위해 체결되는 이익공유협정을 통해 기업은 지역에서 개발로 영향을 받는 토착민족의 경제 활동을 보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정부 주도의 지원금 배부,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온정적 이익 분배, 기업 중심의 CSR활동이 러시아 북극권 전반에서 지배적인 이익공유협정의 형태이다. 또한 사할린에서는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토착민족 커뮤니티가 주도성을 가진 형태가 존재한다. 알래스카, 캐나다와 같은 타 국가에서 시행중인 주주 모델(shareholder model)은 토착민족 집단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연방법으로 토착소수민족의 권리를 규정하고 TTP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을 토착소수민족이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익공유협정과 기업이 제공하는 그 부속 지원책들이 토착민족과 지역 커뮤니티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분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헬기를 통한 툰드라로의 이동 지원, 툰드라로의 식료품 조달, 스노모빌 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의 편의를 얻을 수 있으며, 채굴회사의 인프라 공동 이용(의료 등)도 가능하다. 교육지원, 문화 보존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 금전적 지원 등도 대표적인 CSR활동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원은 양면적인 측면을 가진다. 교육지원을 받으며 아이들을 툰드라가 아닌 기숙학교로 보내거나, 순록 방목 지역의 개발로 인해 방목지를 잃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고 정주민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의 지원에 따른 결과로 더 이상 전통적 생활방식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sup>49)</sup>

47) Как объективно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коренным народам Севера ущерб их землям // ТАСС. 2017. 6. декабря.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tass.ru/v-strane/4788116>

48) *Виталий Сотник*, Путин: При промышленном освоении Арктики коренным народам необходимы компенсации // ZNAK.com. 2017. 14. декабря.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www.znak.com/2017-12-14/putin\\_pri\\_promyshlennom\\_osvoenii\\_arkтики\\_korennym\\_narodam\\_neobhodimy\\_kompensacii](https://www.znak.com/2017-12-14/putin_pri_promyshlennom_osvoenii_arkтики_korennym_narodam_neobhodimy_kompensacii)

49) Лина Саримова, «В ХМАО был конфликт из-за священных мест: общественник Юрий Вэлла с топором бросался на машины

CSR의 한 측면인 전통 공예 및 산업 지원도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기념품 및 관광상품화 된 수공업 산업은 외부인들의 개입과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보존되고 전시되며 판매되는 문화로 변형되기 쉽다. 이는 이미 남미 등 토착민족이 주축이 되는 국가에서도 많이 보이는 현상이다. 외부인의 기호에 맞추는 과정에서 토착민족의 문화가 보존되는 대신, 변형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지원은 모두 방목지의 상실, 환경오염 등을 포함한 TTP에서의 활동과 그 영향 이후에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현재 러시아의 이익공유협정의 한계이다. 또한 이익공유협정과 기타 토착소수민족의 개발에 대한 보상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이익공유협정으로 분배되는 자원이 토착민족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하며,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결정이 채굴산업과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착민족 커뮤니티와 운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모두 이 관념이 밑바탕이 된다.

토착민족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에서는 사할린 등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파트너십 방식을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이미 파괴된 TTP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지역 사용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역사회와 토착민족 커뮤니티에 기업이 지불하는 것은 이익손실에 대한 보상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특히 자주 언급되는 순록사육이나 어로, 사냥이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의 수입이 되거나 자가 소비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이익손실을 환산하기 어려운 버섯과 식물 채취 지역에 대한 보상으로는 로열티 지급이 더 알맞을 것이다. 또한, 미주 등 타 북극권 국가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주주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캐나다의 경우처럼 라이선스 발급에 전제되는 필수 사항으로 토착민족 커뮤니티와의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러시아 북극권의 채굴산업은 대체로 러시아 국내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다국적 기업으로 이루어진 사할린-II와 같은 케이스를 곧바로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루코일, 가스프롬 등 대기업들이 CSR을 확대하고 있는 정황, 그리고 북극권 토착소수민족의 환경 및 이익 관련 운동이 격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토착민족 본인에게 더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물론, 문화적, 생활양식 측면에서의 파괴로 인한 전통문화의 사멸과 세대 간 갈등,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 등은 물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전통적 생활방식을 버리는 대신에 개인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면,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토착소수민족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토착소수민족 당사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개발 라이선스 발급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러시아의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공정한 방법으로서의 금전적, 비 금전적 지원일 것이다.

ЛУКОЙЛа» // Реальное время 2017. 11. апреля.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realnoevremya.ru/articles/61481-etnolog-o-konflikte-neftyanikov-i-gazovikov-s-narodami-severa> (검색일: 2019.10.03.)

## 참고문헌

- 김성례, “시베리아 소수 유목민의 민족자결운동과 문화부흥,” 『지역연구』 4권 1호(1995, 봄) 217-277쪽
- 김인성, “러시아연방의 소수민족 정책-법적, 사회적 지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6권(2001), 31-42쪽
- 김현진, “Study on the Societal Security and the Securitization of Threats of Arctic Indigenous Peoples in Russia”,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9.
- 김혜진, “러시아의 소수민족 정책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16(1), 2012. 51-75쪽.
- 김혜진, “러시아 북서부 토착민족에 대한 석유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슬라브학보』, 33(2), 2018. 215-251쪽
- 김혜진, “전통 생활터전을 둘러싼 러시아 북서부 토착민족과 기업 간의 갈등,” 『슬라브학보』, 32(4), 2017. 153-186쪽
- 김혜진, “러시아 북서부 토착민족에 대한 석유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슬라브학보』, 33(2), 2018. pp.233-234.
- 김혜진, “체제 전환과 러시아 소수민족의 의식주 변화: 코미 순록사육자를 중심으로(1950년대-현재), 『슬라브학보』 30권 1호 (2015), 167-198쪽
- 김효선, 『글로벌 북극. 서울: 지식노마드, 2016.
- 이성규, “북극지역 자원개발 현황 및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0.
- INDIGENOUS MINORITIES OF THE NORTH, Sustainability Report 2018 / LUKOIL.  
<https://csr2018.lukoil.com/local-communities/indigenous-peoples> (검색일:2019.09.12.)
- Loe, J., Kelman, I., Fjærtøft, D. and Poussenkova, N. “Arctic petroleum: local CSR perceptions in the Nenets region of Russia”,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Vol. 13 No. 2, 2017. pp. 307-322.
- Maria Tysiachniouk, Laura A. Henry, Machiel Lamers, Jan P.M. van Tatenhove, Oil and indigenous people in sub-Arctic Russia: Rethinking equity and governance in benefit sharing agreements,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Volume 37, 2018.
- Wilson, E. What is Benefit Sharing? Respecting Indigenous Rights and Addressing Inequities in Arctic Resource Projects. *Resources* 2019, 8, 74.
- Лина Саримова, «В ХМАО был конфликт из-за священных мест: общественник Юрий Вэлла с топором бросался на машины ЛУКОЙЛа» // *Реальное время* 2017. 11. апреля.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realnoevremya.ru/articles/61481-etnolog-o-konflikte-neftyanikov-i-gazovikov-s-narodami-severa>
- Свободная Пресса, Глава Якутии: Россия должна получать выгоду от освоения Арктики[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2017. 6. декабря. Ружим доступа:<https://svpressa.ru/society/news/187803/>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04.1999 г. № 82-ФЗ,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pravo.gov.ru/proxy/ips/?docbody=&firstDoc=1&lastDoc=1&nd=102059473>
- Elisa Morgera,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Legal Concept of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7 no. 2 p.354
- Emerging Practices in Community Development Agreements / Columbla Center on Sustainable Investment.  
<http://ccsi.columbia.edu/2016/02/10/emerging-practices-in-community-development-agreements/>  
 (검색일: 2019.09.30.)
- Gassiy, Violetta & Potravny, Ivan. (2019). The Compensation for Losses to Indigenous Peoples Due to the Arctic Industrial Development in Benefit Sharing Paradigm. *Resources*. 8. 71.
- Laura A. Henry, Indigenous rights in the Russian Arctic: self-determining communities or stakeholders? / *OpenGloal Rights*, October 11, 2017. <https://www.openglobalrights.org/indigenous-rights-in-the-russian-arctic-self->

- determining-communities-or-stakeholders/
- Suliandziga, Liubov. “Indigenous Peoples and Extractive Companies: The Case of the Russian Arctic.” *Uluslararası Suçlar ve Tarih / International Crimes and History* 19, 2018.
- Maria Tysiachniouk, Benefit sharing arrangements in the Russian North and Alaska, *Russian Analytical Digest*, #202. 2017.
- Nagoya Protocol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cbd.int.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www.cbd.int/abs/text/default.shtml> (검색일: 2019.10.02.)
- Maria Tysiachniouk, Oil and indigenous people in sub-Arctic Russia: Rethinking equity and governance in benefit sharing agreements,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Volume 37, 2018, Pages 140–152.
- Petrov, A.N.; Tysiachniouk, M.S. Benefit Sharing in the Arctic: A Systematic View. *Resources* 2019, 8, 155.
- Sakhalin indigenous minorities development plan. Second Five-year plan (2011–2015).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www.sakhalinenergy.ru/media/user/libraryeng/socialstake/minorities/SIMDP\\_2\\_eng.pdf](http://www.sakhalinenergy.ru/media/user/libraryeng/socialstake/minorities/SIMDP_2_eng.pdf),
- Sakhalin indigenous minorities development plan. Third Five-year plan (2016–2020)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imdp.com/uploads/files/SIMDP2016\\_ENG.pdf](http://simdp.com/uploads/files/SIMDP2016_ENG.pdf),
- Schroeder D. Benefit sharing: it's time for a definition. *Journal of medical ethics*, 33(4), 2007. pp.205–209.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652775/>
- Social entrepreneurship, Sustainability Report 2018 / LUKOIL. <https://csr2018.lukoil.com/local-communities/social-entrepreneurship> (검색일: 2019.09.12)
- Suliandziga, Liubov. “Indigenous Peoples and Extractive Companies: The Case of the Russian Arctic.” *Uluslararası Suçlar ve Tarih / International Crimes and History* 19, 2018. pp.49–73. <https://dergipark.org.tr/tr/download/article-file/700939>
- Виталий Сотник, Путин: При промышленном освоении Арктики коренным народам необходимы компенсации // ZNAK.com 14 Декабря 2017
- Елена Вапничная, Потеря коренных языков – это «сердечная боль». Как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поддерживает народы Севера // Новости ООН, 2019. 30. апреля.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news.un.org/ru/interview/2019/04/1354261>
- Как объективно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коренным народам Севера ущерб их землям // ТАСС. 2017. 6. декабря.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tass.ru/v-strane/4788116>
- Комиссия по законо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добрила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порядке учё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government.ru/activities/selection/302/37434/>
- О Плана содействия / План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з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www.simdp.ru>
- Ольга Подосенова, Земля раздора[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Bellona.ru 2018. 30. Июль.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bellona.ru/2018/07/30/zemlia-razdora/>
-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защите // Ил Тумэна. 2018. 23. ноября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news.iltumen.ru/parlamentarizm/2018/11/predlozheniya-po-zakonodatelnoy-zashhite/>
- Свободная Прессса, Федеральный Уровень | СВОБОДНАЯ ПРЕССА.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www.youtube.com/watch?v=JbNSwY7Skao&feature=youtu.be>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0 декабря 2004 г. N 166-ФЗ “О рыболовстве и сохранении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глава 3. статья 25. /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base.garant.ru/12138110/53925f69af584b25346d0c0b3ee74ea1/#ixzz61SWOpof4>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0 апреля 1999 г. N 82-ФЗ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ужим доступа: <https://constitution.garant.ru/act/right/18040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7 мая 2001 г. N 49-ФЗ “О территориях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조선산업에서의 러시아와 협력 필요성 연구

서현규 (한국외대 석사과정)

## I. 서론

환경오염이 세계적인 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국제 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2017년엔 세계 천연가스 수요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3%가 증가했다. 세계 에너지 전망 기관들에 의하면 2040년 전후 천연가스는 석탄을 제치고 원유에 이어 제2위 에너지원으로서의 전망을 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수송방법에 따라 LNG와 PNG<sup>1)</sup>로 구분되며 수요 증가 및 시장 참여자의 확대에 LNG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BP는 LNG 무역이 2017년 약 400Bcm에 달했던 양이 2040년엔 900Bcm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는 2017년 기준 PNG의 총 거래량인 740.7Bcm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LNG 수출 증가는 북미,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순이며 LNG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 미국과 카타르는 2040년까지 모든 LNG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LNG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급의 다양성으로 인해 LNG와 PNG간의 경쟁은 심화 될 전망이다.<sup>2)</sup>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2017년 기준 35Tcm)보유국은 러시아이며,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635.6Bcm)이다.<sup>3)</sup> 러시아는 2017년 기준 천연가스 수출량은 총 230.9Bcm이며 수출량 중 PNG로의 수출이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유럽으로의 수출은 PNG로 189.3Bcm,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은 LNG로 15.4Bcm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유럽은 현재 러시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동방 에너지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아·태지역으로의 LNG 수출 확대 필요성을 키웠

1) 통상 5,000km 미만의 거리는 PNG, 그 이상은 LNG 형태로 개발

2) BP outlook: LNG trade to rise along competition with pipeline gas, <https://www.lngworldnews.com/bp-outlook-lng-trade-to-rise-along-competition-with-pipeline-gas/> (검색일:2019.6.11.)

3)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67<sup>th</sup> edition, June 2018

다.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35’에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환경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및 수출, LNG 중심의 천연가스 시장 재편 및 천연가스 현물시장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극동시베리아와 북극의 신규 에너지 자원 개발과 아태지역 수출 증대를 채택하였다. 러시아도 LNG 수출을 적극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변화이다.<sup>4)</sup>

러시아는 2035년까지 천연가스의 생산을 2.5배 증대 시킬 계획<sup>5)</sup>에 있으며, LNG 수출 제한을 풀고 다양한 세계 혜택을 제공 등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김학기·김민지의 러시아 극동지역 조선산업 동향과 한-러 협력 방향(수산업과 연계한 어선 건조 정책 활용 전략)에서는 최근 러시아 정부의 수산 가공업 및 어선건조 연계 등과 관련한 조선산업 육성정책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 및 글로벌 해상 물동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현재 한국 조선산업이 글로벌 조선산업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점 및 현재 러시아의 조선산업 동향 및 문제점들을 분석 후 양국간 어떠한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연구 목적을 삼고자 한다.

## II. LNG의 글로벌 해상 물동추이

2019년 세계 해상물동량은 전년대비(2018년 119억톤) 3.2%증가하여 123억톤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물동량 증가율인 4.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견조한 수준이다. 이중 에너지 관련 운송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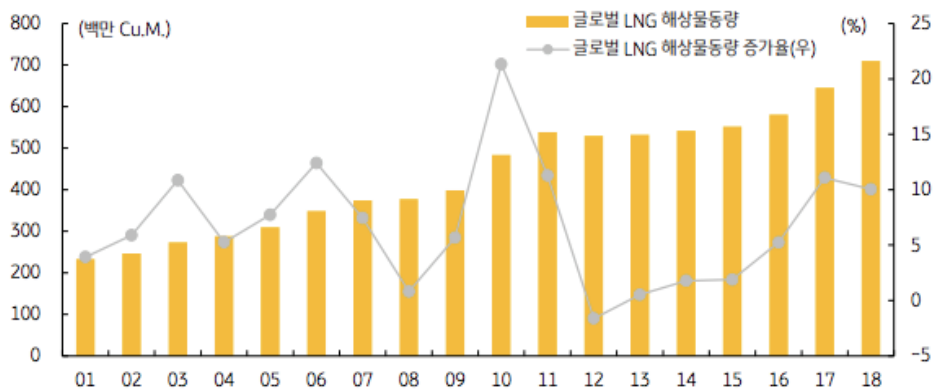
아래 <그림1>을 보게 되면, 2017년과 2018년 글로벌 LNG 해상물동량 증가율은 11.1%와 10.0%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BP가 지난 2018년 6월 발표한 주요 국가별 LNG 수출입 동향 자료에서는 2017년 전 세계 LNG 수입량이 전년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김정기, 강명구, 이상준(2018), 러시아연구 제28권 제1호 「러시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천연가스 협력의 가능성 및 제 약요인」 38쪽.

5) 채계용(2017) ‘러시아, 2035년 석유생산 70%↑ 가스 2.5배↑. 극동·동시베리아 지역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실행 계획’, ‘이투뉴스’, (검색일: 2019.6.10.)

6) 세계 해상물동량,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300&idx=33> (검색일: 2019.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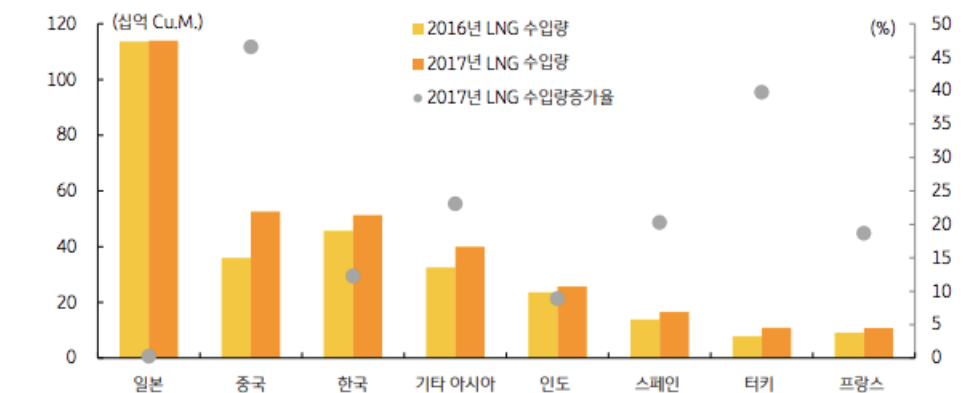


주: 2018년 수치는 11월 말 기준

자료: Clarksons

<그림1> 글로벌 LNG 해상 물동량 및 증가율

아래 <그림2>에서도 나타나듯이 글로벌 LNG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이 LNG 수입에서 1위, 중국이 2위, 한국이 3위로 나타난다.



자료: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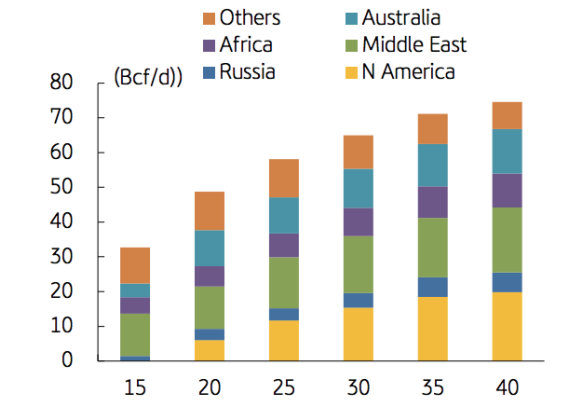
<그림2> 글로벌 주요국들의 LNG수입량 및 증가율

중국은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LNG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석탄 난방을 대기오염 주범으로 지목,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과 주변 28개 도시 300만 가구에 석탄 대신 천연가스로 난방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천연가스 사용이 본격화 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LNG 수요 및 LNG 수입량은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LNG 수요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sup>

그리고 BP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글로벌 LNG 교역 규모가 현재의 두 배가 넘는 1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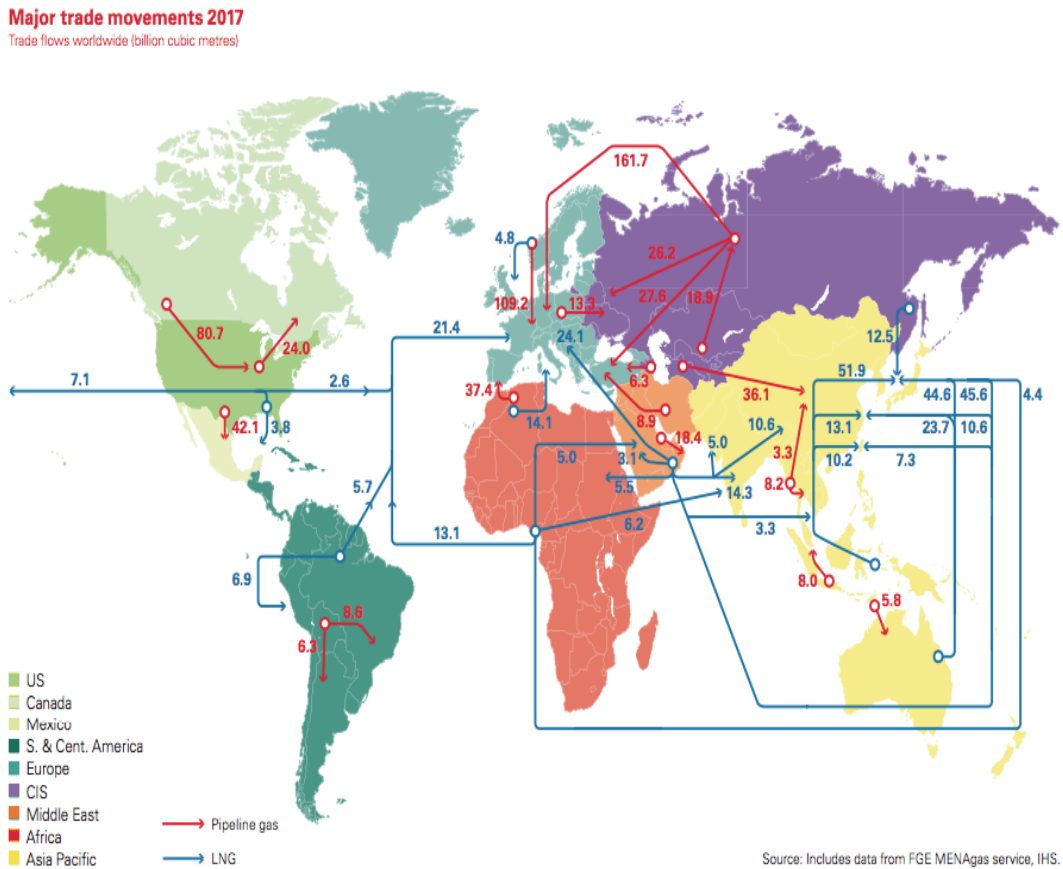
7) KB 지식 비타민:글로벌 LNG수요 증가와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2018.12.2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40년 중국의 LNG 수입 규모는 4배이상 증가할 예정이며 북미는 중동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LNG 생산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 BP

<그림3> 글로벌 LNG 수출 전망



<그림4> 2017년 천연가스 주요 거래 현황

자료: BP

품목별 톤-마일 비중은 컨테이너와 철광석이 높으나 작년대비 올해 증가율이 각각 3.8%, 2.3%로 저조한 반면 가스는 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 주요 선종별 선복량 증대 전망을 보면 LNG선이 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LPG 및 암모니아선 8%, 컨테이너선 7% 순이다.

동기간에 수요 전망을 보면 LNG선이 16%로 가장 높고 원유·정유 선박이 14%, LPG 및 암모니아선이 11%, 케미컬선 9%, 컨테이너선 8% 등 대부분 선종에서 수요 증대가 선복량 증대를 앞지르는 양상이다. LNG선은 수요 전망이 선복량 증대 전망대비 1%낮은데, 이는 선박 건조가 2년 이상 소요되고 2021년과 2022년에 인도될 LNG선 발주가 이미 일부 계약됐기 때문이다.<sup>8)</sup>

### Ⅲ. 한국의 LNG 선박 동향 및 보유 기술

#### 1. 한국의 LNG관련 선박 동향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조선업이다. 조선업은 엄청난 인력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외화가득률이 높은 산업이다. 또 철강, 기계, 부품, 해운 산업과 같은 전후방 산업과 동시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선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선박 분야 원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80년대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 인력을 대거 정리했던 실수로 인해 한국보다 뒤쳐져 있으며, 중국의 경우 지난 4년간 중국 조선업이 텅핑 수주를 앞세워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클락슨 리서치에 의하면 중국 조선소의 약 75%(190개사)가 단 한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조사를 발표했다. 이유는 선박 품질에 있었는데 2016년도에 인도된 LNG선(CESI Gladstone)이 엔진 결함 등을 이유로 두 달째 멈춰버린 것이다. 이 선박은 인도된지 2년을 막 넘겼지만 여러 가지 수리를 받다 결국 폐산까지 하게 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다평선호’의 심각한 인도지연 사태를 겪고 발주처에 인도된지 2년만에 싱가포르에서 오랜 수리를 거쳐서야 LNG운반에 투입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3년전부터 후동중화조선을 비롯한 중국 조선소들은 이중연료추진엔진이 탑재되는 LNG선 수주를 늘려왔다. 하지만 중국 조선업은 기본설계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선박이 원활히 건조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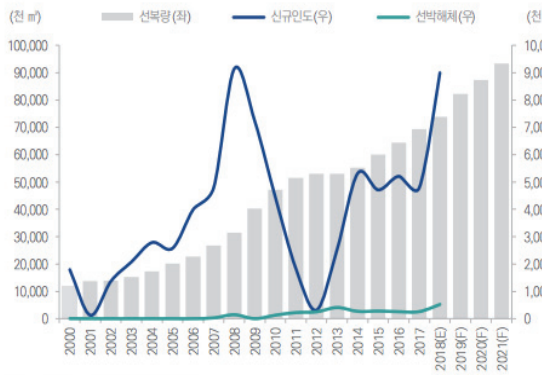
현재 글로벌 선박 수요는 LNG 수요가 크게 늘면서 2018년 선복량은 전년대비 6.4% 증가하

8) 해운물동량, 전반적 톤마일 증가와 LNG 수요증가 뚜렷,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83> (검색일 : 2019.6.10.)

9) 한국 조선업 세계1위, 그뒤엔...중국 190개 조선소 수주0'가 있었다.  
<http://www.geo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50> (검색일 : 2019.6.12.)

였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LNG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 3사의 독보적 수주가 전망되고 있다.

» 글로벌 LNG선 선복량



Source : Clarkson, 삼성KPMG 경제연구원

» 글로벌 LNG선 신규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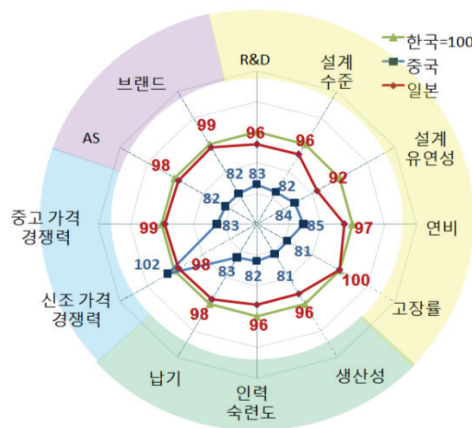
Source : Clarkson, 삼성KPMG 경제연구원

<그림5> 글로벌 LNG 선복량

<그림6> 글로벌 LNG선 신규발주 추이

그리고 2019년 한국 조선업은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선박 수주 실적 세계 1위를 탈환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86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가운데 한국 조선사들이 1,263만CGT(44.2%)를 수주해 국가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고부가선인 LNG선 70척중 66척(94%), VLCC(20만dwt 이상 초대형 탱커) 39척 중 34척(87%)을 수주해 고부가 주력선종에서 압도적 수주 점유율을 차지했다.<sup>10)</sup> 이는 한국 조선사들의 높은 기술력 및 제품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7> LNG/LPG선 요소별 평가 점수

자료 : 한국산업은행(한·중·일 조선산업 경쟁력 비교)

10) 한국 조선업,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 탈환,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7899&pWise=main&pWiseMain=A1> (검색일 : 2019.6.10.)

## 2. 한국 조선사의 LNG 선박 관련 보유 기술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모든 선박은 황함량이 0.5% 미만인 해양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 조치는 현행 3.5% 황함량 상한선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현재 bunker연료의 평균 황함량인 2.5% 수준 대비 5배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IMO 규제의 준수를 위해 스크러버(탈황장치)를 설치하고 고유황 연료유(HSFO, High Sulfur Fuel Oil)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해양경유(MGO, Marine Gas Oil), 또는 0.5% 미만의 초저유황 연료유(VLSFO, Very Low Sulfur Fuel Oil)를 사용하거나 LNG로의 연료전환 등의 옵션이 있다. 11) 이중 스크러버와 LNG 연료 추진선의 경우 추가 설비 장착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선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대형 선박일수록 연비효율이 높다. 선사들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연비 효율 두 가지 측면에서 대형선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LNG는 영하 161도 이하의 초저온을 유지하며 LNG를 수송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LNG관련 선박은 선박중에서도 기술을 결정체로 여겨지며, 국내 조선 3사는 LNG 증발률이 가장 낮은 화물창 독자개발,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 및 증발가스 100% 재액화 기술등을 보유하여 경쟁국을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 선급협회인 DNV-GL로부터 회사가 독자 개발한 LNG 화물창 설계기술 ‘솔리더스’에 대해 실제 LNG운반선 적용에 적합한 인증을 획득했다. 화물창이란 LNG를 영하 162℃로 냉각시켜 1/600로 압축한 액화상태인 가스(LNG)를 담는 탱크로 LNG선의 핵심 기자재이다.

삼성중공업 역시 영국 선급협회인 로이드로부터 LNG 연료추진 초대형 원유운반선에 대한 기본승인(AIP)을 획득했다. 선급의 기본승인은 선박 기본설계의 기술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적차로, 해당 선박과 기술에 대한 공식 인증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수주 활동이 가능하다. 12)

<표1> 국내 조선사 LNG관련 보유 기술

구분	LNG 관련 선박 기술
대우조선해양	- 자체 개발 간접 열교환식 LNG 재기화 장치 - 자연기화 LNG비율 가장 낮은 화물창 시스템 ‘솔리더스’ 독자개발 성공
삼성중공업	- 가스 생산, 운송, 재기화 등 LNG 가치사슬 전방에 걸친 설비 공급
현대중공업	- 세계 최초 LNG 운반선 재액화 실증설비 구축 - 국내 최초 LNG 이중연료 추진선 인도

자료 : World Robotics

11) IMO, Sulphur 2020-Cutting sulphur oxide emissions, <http://www.imo.org/en/MediaCentre/HotTopics/Pages/Sulphur-2020.aspx> (검색일 : 2019.6.12.)

12) 선박 발주량 급감...LNG선에 집중하는 韓조선업계, <http://www.inews24.com/view/1186198> (검색일 : 2019.6.16.)

하지만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 대형 3사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선박 및 핵심 기자재 경쟁력에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중견사는 2007년 30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으며 원가절감 및 기술개발 등 혁신 노력이 미흡하여 탱커 등 수주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수 부족 등으로 불황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자국 발주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은 57.3%, 중국 30.1%, 한국 19.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sup>13)</sup> 이러한 문제점들의 보완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로 하게 된다.

#### IV. 러시아 조선산업 동향

러시아는 소련의 해체 이후 체제 전환으로 거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6년 11월 가졌던 러시아 조선업 발전 회의에서 러시아 선박 회사가 신규도입 선박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건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이 자국의 조선업 발전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2007년 3월에는 러시아 조선업을 USC(United Shipbuilding Cooperation)으로 통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였고 2010년에 이러한 통합 작업을 완료하였다.<sup>14)</sup>

러시아의 조선업 관련 기업의 수는 총 182개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약 17만명 정도이다. 이중 생산 기업은 133개이며 나머지 49개는 조선업 연구 및 설계 사무소이다.

<표2> 러시아 조선업 생산성 규모<sup>15)</sup>

(단위: 십억 루블)

분류	2014	2015	2016	2017
민간 조선업	31.2	29.9	26.2	34.1
군용 조선업	211.9	273.3	294.3	294.5
전체	243.1	303.2	320.5	328.6

러시아 조선산업은 크게 민간과 군용으로 나뉘고 있으며 군용 조선업이 약 90%를 차지하고

13) 조선산업 발전전략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413013> (검색일 : 2019.5.30.)

14) Е.Н.Богданова, И.В.Бородн,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и судоремонтной отрасл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Perspectives of Science and Education, 2014, №5(11)

15) МИНПРОМТОРГ РОССИИ, Доклад о целях и задачах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 на 2018 год и основных результат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за 2016 год

있다.

<표3> 러시아연방 권역별 선박 건조 능력 분포도<sup>16)</sup>

권역별	기업(%)	기술자(%)	생산량(%)
중앙	12.1	10	7.7
북서	42	57	69
남쪽	14.4	6	3.1
우랄	1.7	1	0.5
북코카서스	2.3	2	0.6
블가	13.2	12	11.7
시베리아	1.7	1	0.6
극동	12.6	11	6.8

위 <표2>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서 지역에서 기업수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에 있어서도 69%를 차지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2035년까지 2017년 생산규모의 2배까지 생산량을 늘린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리고 매년 목표를 정해 생산량 증대 및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조선산업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 고정 자산의 높은 수준의 물리적, 도덕적 감가상각
- 투자 적자
- 낮은 노동 생산성과 자격을 갖춘 기술 근로자 및 관리 인력 부족
- 정부 자원을 사용하여 경쟁
- 민간 조선 분야의 군사 제품 생산 및 효과적인 제도의 부족
- 외국 조선소와 비교하여 조선 프로젝트의 실행에 자금을 조달하기에 불리한 조건
- 구성 부품 및 제품의 공급 불안정
- 대량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무 흐름의 복잡성<sup>17)</sup>

이러한 문제들이 악화되면서 주문 이행 기한 위반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조선산업에서의 특징은 국가에 의해 상당히 관료화되고 통제된다는 것이다.

16) 러시아 조선업 발전 현황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3671> (검색일 : 2019.6.10.)

17) E.Н.Богданова, И.В.Бородн,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и судоремонтной отрасл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Perspectives of Science and Education, 2014, №5(11)

## V. 결론

LNG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7년 12월 이에 맞춰 자국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리스크를 완화하고 LNG프로젝트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조치 등이 포함된 정부의 전략적 계획 수립 완료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는 야말, Arctic2 등 북극권 LNG의 아시아 판매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 LNG선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 대우조선해양은 야말 프로젝트에서 LNG쇄빙선 15척을 수주한바, 이후 러시아 LNG 프로젝트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표4> 러시아의 아태 수출 비중 목표, %

아태 수출비중	2008	2015	2022	2030
총 에너지	-	16-17	21-22	26-27
석유	8	10-11	14-15	22-25
천연 가스	-	11-12	16-17	19-20

하지만 러시아 조선산업은 군사용에 집중되어 있어 상용화된 선박 생산이 필요하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한국 유조선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선의 경우 노르웨이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조선산업은 경제 위기에 따라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평균 30년 정도인데 일부 선박은 50년이 지나<sup>18)</sup> 시기적으로 선박 개조 및 교체의 시점에 와있다. 그리고 북극해 항로 개발로 인해 신규 선박이 약 100척 건조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조선산업 관련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고 조선산업의 대외경쟁력도 부족하여 필요한 어선 등 선박을 독자적으로 건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조선 강국들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 중에 있다.<sup>19)</sup>

즈베즈다 조선소는 지난 2014년 시작한 현대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단계 프로젝트 후에는 LNG 운반선, 시추선 등도 건조할 계획인데 러시아의 건조 수준으로 보았을 때 LNG 운반선의 경우는 한국에 발주를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 LNG 운반선 기술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한국이 LNG 관련 선박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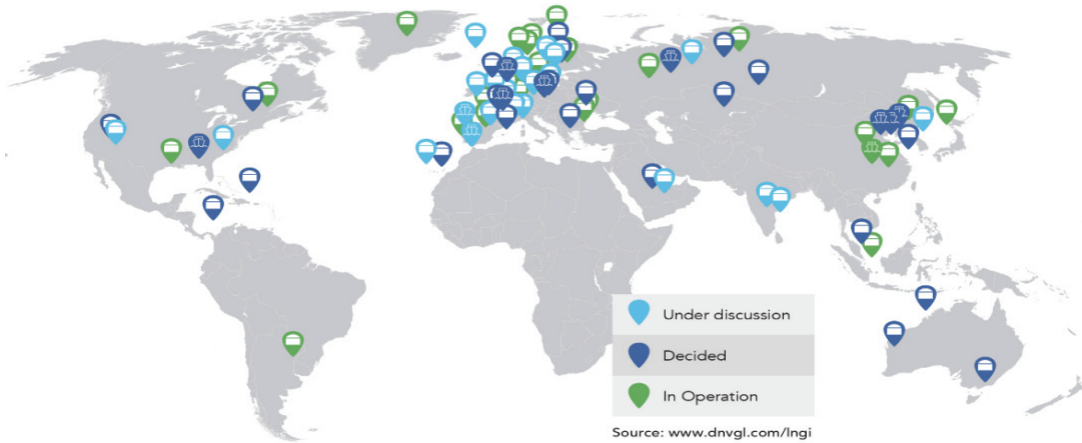
18) 러시아 조선업 발전 현황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3671> (검색일 : 2019.6.10.)

19) 김학기, 김민지 「러시아 극동지역 조선산업 동향과 한-러 협력방향 - 수산업과 연계한 어선 건조 정책 활용 전략」 (2017.6) (산업연구원)

20) 삼성중공업, 러시아 ‘쇄빙 LNG운반선’ 프로젝트 본격 시동,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4126100003> (검색일: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다. LNG 선박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LNG 병커링 설비<sup>21)</sup>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유럽지역의 경우 LNG 병커링 설비가 이미 수십군데 설치되어 있지만, 아시아 지역은 대형 상선을 위한 LNG 병커링 시설이 없다. 러시아는 북극항로 이용에 따른 LNG선박용 병커링 인프라를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극동 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LNG 병커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8> LNG 병커링을 준비하는 주요 항만/항구

자료 : DNV-GL

마지막으로 조선산업의 특징은 첫 번째, 단일산업으로서 전후방 산업 간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두 번째 ‘노동집약적’이면서 동시에 ‘자본집약적’이다. 조선산업의 생산품은 규모가 커서 생산 공정의 표준화/자동화가 매우 어려운 ‘단위생산-주문(후)생산’ 방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조선산업에서도 문제점이 되었던 중견 조선사들 특히 기자재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발주권 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다른 조선사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만 있다면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러시아 정부도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조선소 현대화, 조선기자재 수입대체화 및 조선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비석유제품 수출 확대 등 세 가지를 추진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2014년 9월 수입대체산업 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대규모 예산 지원을 결정하였고, 육성 분야 중 조선산업도 핵심 산업으로 선정된바 있다.<sup>22)</sup>

허나 한-러간 협력은 발주-수주 외에 이렇다할 협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

2019.9.4.)

21) 2019.5월 기준 전 세계 병커링이 운영 중인 항만은 총 67군데로 유럽 26개소, 노르웨이 15개소, 아시아 13개소, 미주 5개소, 오세아니아 4개소, 중동 4개소이며 구축 계획이 확정된 26개 항만은 유럽 12개, 노르웨이 2개, 아시아 6개, 미주 6개, 중동 2개로 구성되어있다.

22) 이상준, 이대식, 이승민(2016) 「러시아 수입대체산업정책과 한국기업의 활용방안-최종보고서-」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p61

와의 협력에 있어서 앞서 언급했던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사업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의 협력이 일어날 수 있었으나, 운영비 부담의 이유로 러시아 국영조선 그룹인 USC와 대우조선해양의 합작 법인인 ‘Zvezda-DSME LLC’는 2018년 8월 파산 신청하였다. 이는 사업 구상당시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북극항로로 실어 나를 선박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을 하였지만 결국 시기적으로 매치가 되지 않음으로써 무산되었다.

비록 즈베즈다 조선소와 같이 프로젝트가 무산이 된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에 맞춰 러시아와의 협력은 정말 필요하다. 수입대체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기관이 러시아 정부 및 국영기업이라는 점에서 한국기업들이 개별 단위로 접근하여 협상한다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 조선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3)

늘어나는 글로벌 LNG의 수요는 한국 조선산업의 부흥기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기회이며,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 증대는 한국이 조선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위치에서 선두자리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5> 러시아의 주요 LNG 사업 현황

프로젝트명	참여사	용량	생산개시	비고
사할린-2 LNG	Gazprom(50) Shell(27.5) Mitsui(12.5) Mitsubishi(10)	1천만톤(2T)	’99년 석유, ’09년 LNG 생산개시	• Kogas 장기계약물량 : 연150만톤
		5백만톤(3T)	’21년	• LNG 증산 추진 중
야말 LNG	Novatek(50.1) Total(20) CNPC (20), SRF(9.9)	16.5백만톤 (3T)	’17년	• FID (13.12) (269억불) • 약 90% 물량 마케팅
북극 LNG (기단 LNG)	Novatek(100)	1.5천만톤~ 1.65천만톤(3T)	’19년 FID 목표	• CNPC, Total 관심 표명 • ’17년 타당성조사 계획 • YLNG 인프라 활용계획 • 투자비 추정치(100억달러)
극동LNG (사할린-1)	ExxonMobil(30) SODECO(30) ONGC(20) SMNG-Shelf(11.5) Rosneft(8.5)	5백만톤(1T)	’05년 석유 ’23년 LNG	• LNG로 개발 계획 (연 500만톤) • 500만톤 마케팅 (HOA)
발틱 LNG	Gazprom	1천만톤 1.5천만톤(확대)	’23~’24 목표	
Pechora LNG	Rosneft(50.1) Alltech(49.9)	400만톤~ 8백만톤	미정	• 가스화학제품 생산으로 전환 검토 중
VLNG	Gazprom (100)	1천만톤(2T) *3T로 확장가능	-	• JGC(일콘소사업) 등과 추진 모색했으나, 가스 프롬 우선사업에서 배제 • 최근 LNG병커링 사업으로 전환 검토 중
쉬토크만 LNG	Gazprom(75) Total(25)	750만톤/년 (1단계)	미정	• 경제성 문제로 프로젝트 개발 연기

자료: 한국가스공사

23) 이상준, 이대식, 이승민(2016) 「러시아 수입대체산업정책과 한국기업의 활용방안-최종보고서-」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p75

## 참고문헌

### [단행본, 논문 및 보고서]

- 김정기, 강명구, 이상준(2018), 러시아연구 제28권 제1호 「러시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가능성 및 제약요인」
- 김학기, 김민지 「러시아 극동지역 조선산업 동향과 한-러 협력방향 - 수산업과 연계한 어선 건조 정책 활용 전략」 (2017.6) (산업연구원)
- KB 지식 비타민:글로벌 LNG수요 증가와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은행, 한-중-일 조선산업 경쟁력 비교  
3대 혁신을 통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원가혁신, 기술혁신, 시스템혁신)
- 이상준, 이대식, 이승민(2016) 「러시아 수입대체산업정책과 한국기업의 활용방안-최종보고서-」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67<sup>th</sup> edition, June 2018
- Е.Н.Богданова, И.В.Бородн,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и судоремонтной отрасл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Perspectives of Science and Education, 2014, №5(11)
- МИНПРОМТОРГ РОССИИ, Доклад о целях и задачах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 на 2018 год и основных результат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за 2016 год

### [기타 및 인터넷 자료]

- BP outlook: LNG trade to rise along competition with pipeline gas,  
<https://www.lngworldnews.com/bp-outlook-lng-trade-to-rise-along-competition-with-pipeline-gas/>  
(검색일:2019.6.11.)
- 채제용(2017) ‘러시아, 2035년 석유생산 70%↑ 가스 2.5배↑. 극동·동시베리아 지역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실행 계획’, ‘이투뉴스’, (검색일: 2019.6.10.)
- 세계 해상물동량, <https://www.kmi.re.kr/web/board/view.do?rbsIdx=300&idx=33> (검색일: 2019.6.10.)
- 해운물동량, 전반적 톤마일 증가와 LNG 수요증가 뚜렷,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83> (검색일 : 2019.6.10.)
- 한국 조선업 세계1위, 그뒤엔...중국 190개 조선소 수주‘0’가 있었다.  
<http://www.geo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50> (검색일 : 2019.6.12.)
- 한국 조선업, 7년 만에 연간 수주량 ‘세계 1위’ 탈환,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7899&pWise=main&pWiseMain=A1> (검색일 : 2019.6.10.)
- 선박 발주량 급감...LNG선에 집중하는 韓조선업계, <http://www.inews24.com/view/1186198> (검색일 : 2019.6.16.)
- 러시아 조선업 발전 현황,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3671> (검색일 : 2019.6.10.)
- IMO, Sulphur 2020-Cutting sulphur oxide emissions, <http://www.imo.org/en/MediaCentre/HotTopics/Pages/Sulphur-2020.aspx> (검색일 : 2019.6.12.)
- 삼성중공업, 러시아 ‘쇄빙 LNG운반선’ 프로젝트 본격 시동,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412610003> (검색일: 2019.9.4.)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 현대 러시아학의 제 문제 : 공시성과 통시성

주최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lavic-Eurasian Studies



한국노어노문학회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The Korean Association of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한국슬라브어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Languages



한국러시아학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주관



한국러시아학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후원



한국연구재단,  한러대화,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